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1)

<배경 스토리>

혹성 올드란트를 구성시키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물질, 음소(音素 = 포님). 이 물질의 새로운 종이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제 7 음소(세븐스 포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새로운 음소를 사용하면, 미래를 아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제 7 음소를 따라 시작된 싸움은 대지를 황폐하게 만들고, 이극고 장기(障氣)라 불리는 별의 독소가 온 세계를 뒤덮었다. 이 때, 미래를 보는 능력이 뛰어난 보술사(護術士 = 포니마), 유리아가 등장했다. 유리아는 몇천년씩이나 되는 미래와, 장기를 봉인하는 방법을 예언하였으며, 그 지도 아래, 사람들은 장기를 땅 속 깊은 곳에 봉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2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은, 세계는 예언에 지배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미증유의 변영」이 찾아올 것이라는 유리아의 예언을 믿고서, 변영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리아가 일으킨 로렐라이 교에서부터 탁선(託宣)되는 예언을 찾아, 그것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라 믿고 있었다.

유리아가 예언에서 「미증유의 변영」에 필요하다고 했던 소년이 있다. 그의 이름은 루크 폰 파브레. 킴라스카 란발디어 왕국의 왕위계승권을 가진 그는, 어릴 적에, 적대하는 마르쿠트 제국에 유괴될 뻔한 적이 있어, 그 뒤로는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저택 안에 갇혀 지내고 있었다. 그는 아직 알아차리고 있지 못하다. 큰 재앙이, 그에게 닥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킴라스카 란발디어 왕국 바티칼, 램의 데칸 램 23일」

[바티칼의 루크 저택]

(방을 나가려 할 때 희미하게 뇌리를 스치는 음성)

루크 :기분 탓인가?

(하인 및 위병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루크가 갇혀 지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과...) (저택 현관에 손님이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람다스 : 지금 로렐라이 교단 영사 반 그란츠 요장 각하께서 뵙고자 하십니다.

루크 : 뭐? 반 선생이? 오늘은 수련하는 날 아니잖아.

람다스 : 급한 불일이 있으시다 합니다. 람다스 : 이따가 도련님을 부르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으니 방에서 기다려 주시길.

루크 : 슬슬 '도련님' 은 좀 집어 치워...

람다스 : 아니오. 20세의 성인식 때까지는 도련님이라 부르겠습니다.

(돌아가려 하면)

람다스 : 도련님, 부디 정원사 펠에게 말을 거시는 것은 그만두어 주십시오. 람다스 : 그는 도련님과는 신분이 다릅니다.

루크 :알고 있어, 거 되게 시끄럽네. 나한테 명령하지 말라 그랬지!

람다스 : 실례했습니다.

<페이스 채트 '따분한 매일'>

루크 : 아 증말. 루크 : 아버지네도 내가 여기서 나가는 걸 허락 못 하겠다면, 적어도 이 따분한 매일을 어떻게 좀 해줬을 좋겠구만. 루크 : 반 선생과의 검술 수련이 없다면 밥 먹고 가이랑 퍼질러 잘 뿐 아냐 이거. 루크 :음~, 원가 재밌는 일 없을려나.

(방에 돌아가면 아가의 음향과 함께 의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목소리 : 루크..... 나의..... 해라..... 목소리에.....

루크 :아 씬.....! 역시 아가 목소리..... 맨날 들리는 그건가.....!?

가이 : 왜 그래 루크! 또 항상 오는 두통야!?

루크 : 가이..... 구나..... 루크 :괜찮아. 나아졌음.

가이 : 또 환청이었나?

루크 :원지 어케 알아. 절라 짜증나는구만.

가이 : 요즘 찾구만. 분명 마르쿠트 제국에 유괴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7년 가까운가.

루크 : 씬. 마르쿠트 놈들 때문에 나, 머리가 이상한 놈 같이 되버렸잖아.

가이 : 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편이 좋을거다.

가이 : 그보다 오늘은 어쩔래? 칼춤이라도 추리?

루크 : 어~ 안됐지만. 오늘은 반 선생이 와 있으니까.

가이 : 반 님이? 오늘은 검술 연습하는 날 아니잖아?

루크 : 급한 일이 있다드라.

하녀 : 루크 님. 괜찮으시겠는지요.

가이 : 이크 위험. 여기 있는 건 비밀이다. 가이 : 발견되기 전에 실례하마. 그럼!

하녀 : 루크 님?

루크 :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알았다니까. 들어와.

하녀 : 실례하겠습니다. 주인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응접실로 가 주셨으면 합니다.

루크 : 알았어. 가 봐. 루크 : 좋아, 가 볼까.

[저택 응접실]

루크 : 왔습니다, 아버지.

파브레 공작 : 음. 앉아라 루크.

루크 : 선생님! 오늘 나한테 뭐 가르쳐 주실라고요?

반 : 나중에 보아 주마. 허나 그 전에 이야기가 있다.

파브레 공작 : 그란츠 요장(= 반 그란츠 선생)이 내일 다아트로 귀국한다는 듯 하구나.

루크 : 어!? 왜요!?

반 : 내가 로렐라이 교의 오라클 기사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알겠지.

루크 : 오라클 기사단 수석총장이죠.

반 : 그래. 내 임무는 오라클 기사단을 이끌며, '도사(導師) 이온' 을 수호하는 것.

루크 : 도사 이온? 웬데요 그거.

슈잔느 : 로렐라이 교단의 지도자란다. 슈잔느 : 도사님 덕택에 마르쿠트 제국과 우리 킴라스카 란발디어 왕국간의 휴전이 성립되고 있는 것이지.

반 : 선대 도사 에베노스가 호드 전쟁 종결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 : 현임 도사 이온은 오늘날의 평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분.

파브레 공작 : 그 이온 님이 행방불명되었다는 것 같구나.

반 : 나는 오라클 기사단의 일원으로서 이온

님 탐색임무에 임해야 한다.

루크 : 그럴수가! 선생님이 귀국하면 내 수련은 누가 봐 주는데요!

반 : 후후, 내가 킴라스카 왕국에 돌아올 때까지 부하를 파견하마. 그러니 그리 토라지지 마라.

루크 : 반 선생님이 좋다니니까!

파브레 공작 : 때쓰지 말아라 루크. 그란츠 요장은 조만간에 돌아올 테니까. 조금은 참는 법을 배워라.

슈잔느 : 여보! 이 애는 유괴되었을 때에 무서운 경험을 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니까요. 슈잔느 : 그 탓에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 잃어버리고..... 가엾다는 생각도 안 드세요?

파브레 공작 : 슈잔느. 당신은 응석을 너무 많이 받아.

반 : 그럴습디만 저택에 갇혀 지내는 이 생활은, 결코 풍요로운 것이라고도 할 수 없겠지요.

루크 : 맞아요. 왜 백부님은 날 가뉘 놓는 거냐고.

루크 : 국왕이랍시고 이상한 명령이나 하는 게 열받는다니니까.

슈잔느 : 그건 이 어머니의 오라버니께서 내 몸을 걱정해 그러시는 거야.

슈잔느 : 이제 3년이면 자유로워질 수 있단다. 조금만 참으렴.

반 : 기운 내라 루크. 반 : 한 동안 대련할 수 없을테니 그 만큼 오늘은 수련에 많이 어울려 주마.

반 : 그럼 공작. 그리고 부인. 우리는 수련을 시작하겠습니다.

파브레 공작 : 잘 부탁 드리겠소, 그란츠 요장.

반 : 난 먼저 정원에 가 있겠다. 준비가 되면 즉시 오도록.

슈잔느 : 아아, 루크.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루크 : 안다니니까. 짜증나게.....

<페이스 채트 '검술 수련'>

루크 : 아~. 반 선생님이 버리는 건가... 루크 : 도사 이온인가 하는 녀 발견하면 다시 돌아와 줄려나.

루크 : 셋, 검술 수련이, 내 단 하나의 취미인데 말야. 루크 : 별 수 없지~. 가이도 칼 좀 쓰는 편이고, 내일부터 재량 연습해야겠다.

[정원]

가이 : 그렇군요. 오라클 기사단도 힘들겠습다.

반 : 그러니 한 동안은 자네에게 맡길 수 밖에 없네.

반 : 공작이나 국왕, 그리고 루크의.....

정원사 펠 : 루크 님!

루크 : 뭐 하냐, 가이.

가이 : 반 요장은 검의 달인이시니까. 좀 지도나 받아볼까 해서.

루크 : 진짜야? 그렇게는 안 보이던데.

(갑자기 화면이 화이트 아웃)

루크 : (.....뭐야? 뭐가 온다고?)

(그 시간, 위병을 제7 음소로 재우는 누군가의 모습이...)

반 :루크! 안 들리나!

루크 : 헉? 아, 예!

반 : 준비는 됐나?

루크 : 됐습다!

가이 : 그럼 난 견학할 테니까. 잘 해봐라 루크.

루크 : 그래 그래.

(튜토리얼로 전투의 조작을 배우게 된다)

루크 : 뭐지?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

반 : 이 목소리는.....!?

루크 : 몸이 안 움직여.....!

정원사 핏 : 이건 보가(謠歌)입니다! 저택에 제 7 음소술사(세븐스 포니마)가 침입이라도 했나!?

가이 : 제길..... 잠이 쏟아지는군. 뭘 하는거야 경비병 놈들은!

?? : 겨우 찾아냈어. 배신자 반데스데르크! 각오를!

(침입자가 반을 공격하지만 통하지 않는다)

반 : 역시 너냐, 티아!

루크 : 대체 뭐야, 넌!

반 : 안 돼! 그만 뒤라!

(루크 티아에게 달려들다)

「울려라..... 로렐라이의 의지여 이르러라... 열여라!」

루크 : 또 이상한 목소리가.....

티아 : 이젠, 제 7음소!

(순간 어딘가로 날려가는 두 사람)

반 : 이런..... 제 7 음소가 서로 반응을 한 것인가!

.

[???

티아 : 크어나...

티아 :일어나, 루크!

루크 :넌.....?

티아 : 다행이야... 무사한 것 같네.

루크 : 여간..... 어디야?

티아 : 글썄..... 상당한 기세로 날려졌는데.....
티아 : '플래닛 스톰' 에 휘말렸나 싶을 정도로.....

루크 : 맞아, 너 선생님을..... 아야야.....!

티아 : 잠깐, 급하게 움직이지 마.

티아 :다친 데는? 어디 아픈 데 있어?

루크 : 꽤, 괜찮어. 것보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넌 대체.....?

티아 : 난 티아. 아무래도 당신이랑 나 사이에 초 진동이 일어난 것 같아.

루크 : 초진동? 뭐야 그게?

티아 : 같은 위치에 의한 공명현상이야. 당신도 '제 7 음소술사' 였구나. 주의가 부족했어.
티아 : 그래서 왕가의 손에 의해 숨겨져 있던 거였고.

루크 : 크아~ 시끄러! 좀 닦쳐 봐!

루크 : 니가 뭘 소릴 하는지 이 쪽은 하나도 모르겠어!

티아 :

루크 : 뭐라고 말 좀 해 봐!

티아 : 조용히 하라는 가 싶더니 또 뭐라고 말 좀 해, 라니.

티아 : 얘기는 천천히 하자. 당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 여기서 말해봤자 시간 낭비일 것 같아.

루크 : 그럼 이제부터 뭘 어쩌자고.

티아 : 당신을 바티칼의 그 저택까지 바래다 놓을래.

루크 : 어떻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주제에!

티아 : 저기 바다가 보이잖아.

루크 : 저게..... 바다구나...

티아 : 일단 이 계곡을 빠져서 해안선을 따라 가자.

티아 : 국도로 나가면 가두 마차도 다닐 테고 돌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루크 : 빠져나가다니. 어떻게 하면 바다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티아 : 귀를 기울여 봐. 물 소리가 들릴 거야. 강이 있다구.

티아 : 강줄기를 따라 내려가면 바다로 갈 수 있겠지.

루크 :아하, 그런 거구나야.

티아 : 자, 가자.

(티아가 동료가 된다)

[타와르 계곡]

(몇 발자국 걸기도 전에...)

티아 :마물.

루크 : 마물.....!?

티아 : 올 거야!

루크 : 자, 장난이지! 세상에 마물이라니.....

루크 : 우와악!

(첫 전투)

루크 :휴우. 벼, 별것도 아니네 뭐.

티아 : 안심하기에는 아직 일러. 봐, 저기에도 마물이 있어.

티아 : 저렇게 지나다니는 마물과 부딪치면 싸울 썩 밖에 없게 돼. 조심해.

루크 :쫓, 잘난 척 하긴. 알았어!

<페이스 채트 '티아의 목적'>

루크 : 너 말야~. 왜 저택에 침입했었는지, 반 선생한테 덤벼들었는지 말 안할려고?

티아 : 당신에게 말해 봤자 별 소용도 없구, 이해도 못 할거라 생각해.

티아 : 거기다 알아서 어쩌려구?

루크 : 수상한 애라면 따라가는 게 위험할지도 모르는 거 아냐.

티아 :후훗.

루크 : 왜 웃어!

티아 : 미안, 당신한테 해를 끼칠 생각이 없다는 것 만은 확실해.

티아 : 지금은 이 말밖에 할 수 없지만, 믿어 줄 수 없을까.

루크 :알았으. 둘 밖에 없는데 싸워봤자 좋을 거 없고.

(강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티아 :조심해. 이번엔 한 마리가 아니야.

루크 :진짜냐!

(이벤트성 전투. R1 버튼을 이용한 타겟팅을 배울 수 있다)

<페이스 채트 '돌아가고 싶어?'>

티아 : 미안해, 내가 꼭 저택까지 바래다 줄 테니깐.....

루크 : 당근이지!

티아 : 내 책임이야..... 정말 미안해.

루크 : ...뭐, 뭐여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일도 거의 없고 하니, 산책일 셈 치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다만.

티아 : 당신..... 돌아가고 싶어? 아니면 돌아가기 싫어?

루크 : 당연히 가고 싶지. 이런 데서 뭘 어쩌라고!

티아 : 그럼 괜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 아서 여길 벗어나자.

티아 : 산책이라면..... 좀 더 안전한 곳에 이르고 나서 천천히 하면 돼.

루크 : 어 어~, 알았어 그래~.

티아 :?

<페이스 채트 '익숙해 졌어?'>

루크 : 짐승 주제에, 감치지 말라 이거야.

티아 : 루크, 마물과의 싸움도 익숙해 진 모양이네.

루크 : 처음에 좀 쫓은 것 뿐이지. 반 선생한테 단련받았다고.

루크 : 원래 마물 따윈, 별 것도 아니라니까.

티아 : 반.....

루크 : 응응? 뭐라고?

티아 :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좀 더 내려가면)

티아 : 출구야!

루크 : 겨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거냐. 이전 흙내 나는 곳은 지긋지긋해.

티아 : 누가 오고 있어.

???: 우왁! 너 너희들 설마 '칠흑의 날개'냐!?

티아 :칠흑의 날개?

???: 도착단이야. 이 근처를 해집고 다니는 남녀 3인조로... 아 그런데 너희는 2인조구만.....

루크 :흠. 날 시시한 도적이랑 같이 취급하지 마시줘.

티아 : ...그러게. 도적이 상대가 화를 낼 지도 몰라.

루크 : 야 야!

티아 : 저희는 길을 잃고서 여기에 왔답니다. 당신은요?

???: 난 가두 마차 마부이지. 이 근처에서 마차 바퀴가 이상해져서 말이야.
마부 : 울퉁이 쓰러져서 마실 게 없어졌기에 여기까지 길러 온 거다.

루크 : 마차라! 살았다!

티아 : 마차, 수도에도 들르나요?

마부 : 그래. 종점은 수도이지.

루크 : 태워달라 하자고! 이제 걷는 건 질렸어.

티아 : 그러네. 저희들 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태워주실 수 있으세요?

마부 : 수도까지라면 1인 당 12000 갈드인데 널 사람 있어?

티아 : 비싸라.....

루크 : 그래? 썩데? 수도에 도착하면 아버지가 내 줄거야.

마부 : 그건 곤란한데. 선불이 아니고서야.

티아 :이걸로.

마부 : 이건 대단한 보석이군! 좋아, 타거라.

루크 : 헤에..... 너 괜찮은 거 갖고 다니는데. 이걸로 이만 신발을 더럽히지 않아도 되겠어.

티아 : ...

..

[마차로 이동]

(한참 이동하던 도중 굉음)

루크 :뭐, 뭐야!?

티아 : 이제야 일어났구나.

루크 : 어, 야! 저 마차 공격당하고 있는데!

마부 : 군이 도적을 추격하고 있는 거지! 너희들과 혼동했던 그 철흑의 날개야!

??? : 거기 가두 마차! 길을 비키십시오! 휘말리게 됩니다!

[탈 것 내부]

병사 1 : 사단장님! 적이 로델로 다리를 건너고서 다리에 폭약을 방출시키고 있습니다!

??? : 이런 이런. 다리를 무너뜨리고 달아날 셈입니까.

병사 2 : 폰 슬롯 기동 확인!

병사 3 : 적이 제 5 음소(피프스 포닝)에 의한 보충을 발동시켰습니다! 다리가 폭발합니다!

??? : 타르타로스, 정지. 보충장벽 기동.

병사 1 : 엷썌! 타르타로스 정지!

병사 2 : 보충 장벽 기동!

[다시 마차 안]

루크 : 죽인다! 박력 넘쳐!

마부 : 이거 놀랐는 걸! 저건 마르쿠트 군(軍)의 최신행 육상장갑함 타르타로스야!

루크 : 마, 마르쿠트 군!? 왜 마르쿠트 군이 이런 데에서 돌아다니는 건데.

마부 : 당연하지. 마부 : 뭐라나 킴라스카 농들이 전쟁을 걸어들 거라는 소문이 파다해서, 이 부근은 경비가 엄중해져 있으니 말이다.

티아 :잠깐만요? 여기 킴라스카 왕국 아닌가요?

마부 : 무슨 소리야. 여긴 마르쿠트 제국인데. 마르쿠트의 루그니카 평야 서부.

루크 : 마, 말도 안 돼! 이 마차 수도 바티칼로 행하는 거 아니었어!?

마부 : 향하는 곳은 마르쿠트의 수도, 위대하신 피오니 9세 폐하께서 계시는 그란코크마야.

티아 :헛갈렸어.

루크 : 냉정하게 말하지 마! 왜 헛갈리는 거냐고!

티아 : 주변 지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당신은 어떤데.

루크 : 나, 난 관혀 있었다고. 밖에 나와 본격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

마부 :뭔가 이상하군. 너희들 킴라스카 인이냐?

티아 : 아, 아니요. 마르쿠트 사람이예요. 사정이 있어서 킴라스카의 바티칼로 가는 도중이었구요.

루크 : (중얼)아주 그냥 구라가 술술.....

마부 : 그렇다면 반대편이었구만 그래. 마부 : 킴라스카에 가겠다고, 다리를 건너지 않고 가도를 남쪽으로 내려가면 됐을 것을.

마부 : 어차피 다리가 무너졌다면 돌아가려 해도 안 되겠지만.....

루크 : 진짜냐... 야 어쩔거야...

마부 : 우리는 동쪽 엔게이브를 경유해서 그란코크마로 향할 건데 너흰 어쩔래?

티아 : 역시 그란코크마까지 가면 좀 멀거야. 티아 : 엔게이브에서 킴라스카로 돌아갈 방법을 생각하자.

<선택지>

엔게이브까지 태워다 줘
걸어서 엔게이브까지 갈래 ← 선택

루크 : 걸어서 엔게이브까지 갈래. 관광 삼아.

마부 : 엔게이브는 여기서 동쪽이야. 조심해서 가라고.

(걸어 가는 도중...)

루크 : 아, 배고파.....

티아 : 그러네. 한번 쉬자. 식사를 준비할게.

루크 : 응? 니가?

티아 : 응.

루크 : 흐~음.....

티아 : 자, 먹자.

루크 : 먹는다니 너, 이게 다야?

티아 : 응.

루크 : 이걸, 뭔데.....?

티아 :주먹밥.

루크 : 보면 알어! 빼기며 만든다더니 웅친 밥이냐!

티아 : 지금은 주먹밥 조리법이랑 재료밖에 없으니깐. 이걸로 차아 줘.

(선택지에서 첫번째 것을 고르면 요리에 대해 들을 수 있다)

티아 : 자. 다 먹었으면 이야기도 끝났고 하니 그만 가자.

루크 : 헉 빠리도 먹네!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 배탈 난다던데.

티아 :

.

[식량의 마을 엔게이브]

티아 : 여기가 엔게이브구나.

마을사람 : 헤에, 요즘 시대에 걸어서 여행이냐?

루크 : 뭐 불만 있수.

마을사람 : 아니 그런 건 아니다만 도적이냐 마을때문에 위험하잖나. 마을사람 : 보통은 가두 마차를 이용하니까.

티아 : 좀 여쭙봐도 될까요? 여기서 킴라스카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을사람 : 로델로 다리가 무너졌다는 듯 하니, 남쪽에 있는 카이트를 검문소로 갈 수밖에.

티아 : 고맙습니다.

마을사람 : 아냐. 그럼 이만.

티아 : 검문소라..... 여권 없이는 지나갈 수 없을 텐데. 어쩔당.....

루크 : 괜찮지 않겠어? 파브레 공작 아들이라 하면 바로 비켜줄 걸.

루크 : 그보다 마을을 탐험해 보자고. 나, 여행을 하는 건 처음이야!

티아 :탐험은 됐다 치더라도 출발하기 전의 준비는 필요하겠네. 오늘은 여기서 머물자.

<페이스 채트 '야속은 즐>

루크 : 그건 그렇고. 뭐 이런 광촌이 다 있냐. 이래선 여인숙도 기대하기 힘들겠는데?

티아 : 루크. 당신 불만이 너무 많아.

루크 : 제대로 된 침대나 식사를 바랄 뿐이러니까. 나 참. 루크 : 저택에서 지낼 땐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는데.

티아 : 로델로 다리를 건널 수 없게 된 이상, 바티칼로 금방 돌아갈 수는 없어. 티아 : 당신이 바라는 것 같은 식사는 당분간 들 수 없을지도 몰라.

루크 : 아~아. 먹기 질린 저택의 요리가 그리워지게 될 줄은~.

티아 : 여기 숙소가 싫다면 억지로 갈 필요 없는데. 티아 : 바로 출발해서, 해가 진 다음 야속을 하더라도 난 상관 없어.

루크 : 마, 말도 안 돼! 어떤 숙소라도 노숙보다는 백만배 낫구만. 이제 불평 안 할게 그래.

티아 : 그래? 그럼 가자.

루크 : 헐..... 빨리 돌아가고 싶다아.....

(마을 중간)

루크 : 헤에. 맛있어 보이는 사과구만.

(사과를 집어 들고서 냅다 먹기 시작하는 루크...)

티아 : !

노점 주인 : 손님! 돈은!

루크 : ? 왜 내가 내야 되는데.

티아 : 그야 당연하잖아! 가게의 물건을 멋대로 가지면 안 된다고.

루크 : 그치만, 집에서 전부 알아서 계산할 거 아냐?

루크 :근데, 아. 여기 마르쿠트였지.

티아 : 마르쿠트이건 킴라스카이건,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엔 그 자리에서 돈을 지불하는 게 정상이야.

루크 : 돈이 어딴다고.

티아 : 마물이 떨어뜨린 돈이 있잖아.

루크 : 아 그랬나~? 금화가 아니다보니 맞고 있었네~.

노점 주인 : 이봐! 돈을 내지 않겠다면 경비군에게 데려갈 테다!

루크 : 안 내겠다고는 한 적 없잖어! 루크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티아 : 그럼, 물건 사는 법을 알려줄게...

티아 : (물건을 사는 법도 모르다니. 귀족은 다들 이런 거야?)

(마을 입구 바로 왼쪽의 집에 다가가면...)

케리 : 틀렸어..... 식량 창고 물건은 뿌리째 도둑 맞았어.

마을 사람 1 : 북쪽에서 화재가 일어난 후부터 계속되는구만.

마을 사람 1 : 설마 이 근처에 탈주병이라도 숨어있다가 먹을 게 없어서.....

마을 사람 2 : 아니, 철흑의 날개가 한 짓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

루크 : 철흑의 날개란 놈들은 먹을 것 따윈 다 훔치는 거야?

케리 : 먹을 것 따위가 아니야! 이 마을에선 식량이 가장 가치있는 것이란 말이다!

루크 : 무슨 쪼잔한 소릴 하는지. 도둑맞았다면 다시 사면 될 걸 가지고.

마을 사람 1 : 뭐야! 우리가 1년간 어떤 마음으로 밭을 갈았다고 생각하냐!!

노점 주인 : 저기, 케리 씨네 집에도 식량 도둑 들었잖아?

노점 주인 : 너! 나한테서 훔치려 그러더니 여기서도 저지른 거냐!

케리 : 뭐야.....? 설마 네가 우리 식량 창고를 텅 거냐!

마을 사람 1 : 도둑은 현장으로 돌아온다는 말도 있으니.

루크 : 내가 도둑이라는 거야?!

노점 주인 : 내 가게에서 사과를 훔치려 했잖아!

케리 : 좋아! 널 관리 앞에 내놓아 주마!

티아 : (이대로 한번 체포되게 놔두는 게 루크를 위한 일일려나.....)

(파출소... 가 아닌 로즈 부인의 집)

노점 주인 : 로즈 아줌마, 큰일이야!

로즈 : 이봐요들! 지금 군의 높은 분이 와 계신단 말이야. 조용히 좀 해!

케리 : 조용히 하고 있을 순 없지! 식량도둑을 잡았던 말야!

루크 : 아니라고 하잖어!

노점 주인 : 로즈 씨! 이 놈 칠흑의 날개일지도 몰라!

마을 사람 : 분명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식량 도둑질도 이 놈 짓일거야!

루크 : 난 도둑 따위가 아니라니까!

루크 : 먹을 것에 곤란을 겪는 생활은 한 적 없어서 말야!!

로즈 : 이런 이런, 기세가 등등한 꼬마네. 아무튼 다들 진정 좀 하시오.

???: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즈 : 대령 양반.....

루크 : 원대 당신은 또.

제이드 : 저는 마르쿠트 제국 제 3사단 소속의 제이드 카티스 대령입니다. 당신은?

루크 : 루크야. 루크 프...

티아 : 루크!!!

루크 : 뭐, 왜 그래.....

티아 : (소근)잊어버렸어? 여긴 적국이라구.
티아 : 당신 아버님인 파브레 공작은 마르쿠트에 있어 가장 큰 원수중에 하나. 항부로 이름을 대지 마.

루크 : 헉, 그래!?

티아 : 그렇다니깐, 당신 부친에게 가족을 살해당한 사람이 여기에는 잔뜩 있어.
티아 : 괜한 다툼은 피하는 게 좋잖아?

제이드 : 무슨 일이 있으신지?

티아 : 실례했습니다 대령님. 저 사람은 루크, 저는 티아.
티아 : 케세드니아로 가는 도중이었습니지만 마차를 잘못 타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답니다.

제이드 : 이런, 그럼 당신도 칠흑의 날개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의 친구분이십니까?

티아 : 저희들은 칠흑의 날개가 아닌걸요.
티아 : 진짜 칠흑의 날개는, 마르쿠트 군이 로델로 다리 저편으로 몰아붙였을 텐데요.

제이드 : 아아..... 과연.

제이드 : 얼마 전의 가두 마차에 당신들이 타고 계셨던 겁니까.

로즈 : 어떻게 된 일인가요, 대령 양반.

제이드 : 아니오, 티아 양의 말대로 칠흑의 날개로 보이는 도적은 키크라스카 왕국 쪽으로 도주했습니다.

제이드 : 그들은 칠흑의 날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장하지요.

이온 : 단순한 식량 도둑도 아닌 것 같네요.

제이드 : 이온 님.

이온 : 조금 신경이 쓰여서 식량 창고를 조사해 봤어요.

이온 : 방 구석에 이런 게 떨어져 있더군요.

로즈 : 이건..... 성수(聖獸) 티글의 털이구먼.

이온 : 예. 아마도 티글이 식량 창고를 뒤킨 것이겠지요.

루크 : 거 봐! 그러니까 도둑이 아니라 했잖아!

티아 : 하지만 돈도 내기 전에 사과를 먹은 건 사실이야.

티아 :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건 반성해야 할 거야.

루크 : 별 수 없었잖어. 돈을 내야 된다는 걸 몰랐는데!

로즈 : 아무래도 한 건 해결된 모양이네. 당신들, 이 애들한테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케리 : ...미안하다. 요즘 도둑 소동이 계속되는 바람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

마을 사람 1 : 의심해서 미안했다.

마을사람 2 : 소란을 크게 키운 거 사과하마.

로즈 : 꼬마 너네도 이걸로 봐 줄 수 있겠니?

루크 : 난 꼬마가 아냐.

로즈 : 아아 미안해 루크 씨. 어때, 잊어 줄 수 있겠어?

루크 :별로 아무래도 좋지만.

로즈 : 그거 다행이구먼. 그럼, 난 대령 양반 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

로즈 : 티글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을 수단을 생각해 볼 테니까 오늘은 이만 다들 돌아가줘.

(나가기 직전, 루크는 이온과 눈이 마주치고...)

티아 : 도사(導師) 이온이 왜 여기에.....

루크 : 도사 이온?

티아 : 로델라이 교단 최고 책임자.

루크 : 음, 잠깐 기다려. 이온이란 놈은 행방 불명이야 들었는데.

루크 : 저놈 찾는답시고 반 선생도 귀국해 버린다니면서.....!

티아 : 그랬어? 처음 듣는 걸.

티아 : 어떻게 된 걸까..... 유괴된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루크 : 나, 재한테 물어보고 올게.

티아 : 그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깐 내일 이후로 미루자.

루크 : 체엿. 원가 열받는군.....

<페이스 채트 '납득이 안 가!>

루크 : 웬지 납득이 안 간다니까.
루크 : 역시 저 이온이라는 농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고선 후련하질 않겠어.

티아 : 초조해 하지 마. 내일이 되면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티아 : 일단 지금은 여인숙에서 쉬자.

루크 : 췌. 췌나게.

<페이스 채트 '엔게이브란 어떤 마을?>

루크 : 원가 빈곤해 보이는 곳이구만.

티아 :어디가 가난해 보이는데?

루크 : 저택 같은 것도 없고, 오두막에 털이

난 듯한 건물만 있잖어.
루크 : 거기다 동물같은 것도 우글거리는 게, 짜증 안 나나?

티아 : 여긴 농작을 재배나 가축 사육을 하고 있는 마을이라니깐.

티아 : 마을 사람들은 다들 활기가 넘치는 게, 가난하게는 보이지 않는 걸.

루크 : 아 그래. 이 인간들 정원사 같은 게 아니구나. 뭔가 이상하고 생각했었어.

루크 : 제 1차 산업인지 원지에 종사하고 있는 작자들이군.

티아 :워어, 그런 셈이네.

루크 : 헛, 따분할 것 같은 직업이야.

티아 :

(이후 여인숙에 가 보면...)

[도구점]

???: 제 일행 못 보셨나요요!?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큰, 멍~해보이는 남자애인데요.

케리 : 아니 난 좀 여기에서 떨어져 있던 바람에...

???: 증말~ 이온 님 또 어딜 가셨담.

루크 : 이온? 도사 이온 말야?

티아 : 이온 님이라면 로즈 부인네 덕에 계시던데.

???: 정말요!? 고맙습니다!

루크 : 야 저기 잠깐만. 왜 도사가 이런 데에 있는 거야? 행방불명이라고 들었는데.

???: 하와! 소문이 그렇게 되어있는 건가요! 이온 님께 알리지 않으면!

루크 : 어, 아!

루크 : 결국 사정을 들질 못했어.....

티아 : 그러게. 하지만 저 앤 '폰 마스터 가디언(도사수호역)' 같아 보이나, 로델라이 교단도 인정할 여행일 거라 생각해.

루크 : 폰마스터 가디언?

티아 : 이온 님의 친위대. 오라클 기사단의 특수부대이지. 공무에는 반드시 동행하게 되어 있어.

루크 : 저런 꼬맹이라 해도, 반 선생의 부하라는 얘기인가.
루크 :라고 해도, 행방불명 되었다는 소린 뭐였냐고! 틀린 보도였다면 진짜 열받을 것 같은데!

<페이스 채트 '제이드라는 사나이'>

루크 : 저 제이드라는 안경쟁이, 원가 잘난척하는 놈이었지.

티아 : 그래? 장교가 일반인을 접할 때의 태도치고서는 상당히 예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루크 : 흐~음, 뭐 난 군인이라 하면 우리 백광 기사단 정도밖에 모르고, 그런 건 잘 모르지 뭐.

티아 : 그것보다도, 마르쿠트 제국의 제이드 대령..... 어딘가에서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루크 : 양? 난 군인 같은 거에 대해선 흥미 없어. 알고 싶음 니가 알아서 조사하던지.

티아 : 당신 정말 제멋대로네. 그 성격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 분명 호된 꼴을 당할 거야.

루크 : 냐뿔! 일일이 췌나게 만드는 지지배구만!

(케리에게 말을 걸면)

케리 : 너희들, 야간 미안했다. 사과하는 뜻으로 오늘은 공짜로 해 두지.

.....

티아 : 내일은 카이를 검문소로 향하자.
티아 : 다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거기를 통해 서밖에 바티칼로 돌아갈 수 없어. 다음으로 여권은 어떻게 할까.....

루크 : ...
루크 :뭔가 속이 계속 부글거려. 이대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

티아 : 질렸어. 아직도 화내고 있어?

루크 : 당연하지. 도둑이라는 말까지 들었구만!

.....

루크 : 저기 너. 티글이라는 거 아냐? 성수(聖獸)라고 그러더만.

티아 : 루그니카 평야 동부의 숲에 서식하는 초식동물이야.
티아 : 시조 유리아와 더불어, 로렐라이 교단의 상징이 되어 있어.
티아 : 딱 이 마을 북쪽 쫓아올래.

루크 : 내일 그 숲에 갈란다.

티아 : 가서 어쩌려구.

루크 : 그게 도둑이었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거지.

티아 : 헛수고라고 생각하는네.

루크 : 시끄러워. 이미 정했어!

티아 : ...

(밤중에 페이스 채트)

루크 : 쿨~ zzz... 드르렁...

티아 : 그만꿈이나 투덜거렸으면서, 별일 없이 자고 있네.

티아 : 이리고 있는 걸 보면 평범한 남자애인데두.....

루크 : 응... 응.....? 으아! 뭐, 뭘 또 들여다 보고 있어!!

티아 : 아. 미안해. 깨워 버린 모양이네.

루크 : 이 바보가! 너 말야! 남이 자는 모습을 뻘히 구경하지 말라고! 빨랑 잠이나 자!

티아 : 그러네. 그렇게 할게. 잘 자.

루크 : 나원 참~. 뭐래 대체~...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2)

[다음 날]

<페이스 채트 '일과'>

티아 :어머. 뭐 하고 있어?

루크 : 보, 보지 마!

티아 : 미안해. 그래도 왜 공책을 다 꺼내서.....

루크 : 시끄러~. 일과란 말야.

티아 : 일과?

루크 : 어. 웃기 없기다!일기야.

티아 : 어머니, 좋은 일이잖아.

루크 : 아..... 안 웃기냐?

티아 : 왜? 특별히 이상할 건 없는데.
티아 : 하지만 그건 그래. 당신이 일기를 쓸 성격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으니.

루크 : ...흠, 나도 쓰고 싶어서 쓰고 있는 거야냐.

티아 : 그럼 왜 쓰는데?

루크 : 기억장애가 재발했을 때에 곤란해지지 않도록 일기를 쓰라고, 의사가 그렇게 말하더라.

티아 :

루크 : ...왜, 왜 그래.

티아 : 응응, 아무것도 아니야. 열심히 써.

루크 : 책, 동정 따윈 받고 싶지도 않구만.

<페이스 채트 '이제, 티글의 숲으로!>

루크 : 티글의 숲이란 덴, '여기 엔게이브에서 북쪽'이었지?

티아 : 정말로 가려구? 도둑 혐의는 다 풀렸으니까 이제 됐잖아.

루크 : 알보인 채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

티아 : (아무도 알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티아 : 티글이 도둑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만한 게 있을 거라 생각해?

루크 :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 이미 간다고 정했단니까!

티아 : 그래..... 알았어. 이 이상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네.

루크 : 절대로 증거를 찾아내서, 저 시골뜨기들 앞에 팽개쳐 줄 테다!

(마을을 나서기 전, 민가에 들러서 심부름을 한번 하면 파스타 조리법을 배울 수 있다. (사과 때문에 시비가 붙었던 그 노점 주인에게서, 티글한테 도둑맞은 물건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아두자)

[티글의 숲]

(들어가자마자 마자...)

루크 : 어, 저거, 이온이라는 놈이잖아!

티아 : 위험해.....!

(강력한 보술로 주변 몬스터를 물리치지만, 기운이 빠진 듯 펑 쓰러진다)

루크 : 아. 괜찮냐.

이온 : 과, 괜찮아요. 다이어트 식 보술을 좀 너무 사용한 것 뿐이니.....
이온 : 당신들께선, 분명 어제 엔게이브에 계셨던.....

루크 : 루크다.

이온 : 고대 이스파니아 어로 '성스러운 불꽃의 빛'이라는 의미네요. 좋은 이름입니다.

티아 : 저는 오라클 기사단 모스 대영사 휘하 정보부 제 1소대 소속, 티아 그란츠 향장(響長)입니다.

이온 : ! 당신이 반의 동생이셨군요. 소문은 들었어요. 만나는 건 처음이네요.

루크 : 뭐어!? 니가 선생 동생? 그럼 죽이니 마느니 했던 그건 뭐였는데!?

('선생의 여동생' 칭호를 얻는다)

이온 : 죽여요.....?

티아 : 아, 아니요..... 저희를 이야기합니다.

루크 : 말 돌리지 마! 왜 동생인 내가 반 선생 목숨을 노리는 거였냐고?

티아 : 그건.....

세 사람 : !!!

이온 : 티글입니다!

루크 : 이 자식~! 역시 이 근방에서 살고 있었군! 쫓아가자!

이온 : ...반과의 일..... 제가 추궁하지 않는 편이 나을까요?

티아 : 죄송합니다. 제 고향에 관한 일이라서요. 가능하면 루크나 이온 님을 끌어들이고 싶지는.....

루크 : 야! 놓치겠다!

이온 : ...가시죠!

티아 : 네? 아, 예!

<페이스 채트 '성수 티글 그 1'>

루크 : 나 참.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면서 이런 데에 오지 마 싸사.

이온 :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이번 소동의 진상을 알고 싶었거든요.

루크 : 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넌 아무 상관도 없잖아.

이온 : 그렇지만, 성수라 불리는 티글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다니 뭔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이온 : 티글에게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보고 지나칠 수 없지요.

루크 : 마을 따위야 냅두면 될 걸 가지고.

이온 : 그렇네요. 저도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온 : 아무튼 티글과 접촉할 수 있다면 진상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루크 : 뭐 어쨌든, 빨랑 티글이란 거부터 찾아.

<페이스 채트 '숨어서 특별훈련?>

루크 : 훈련이랑 실전은 느낌이 전혀 다르구나..... 그래도 웬지 모르게 비결을 알게 된 것 같아.
루크 : 뭐, 선생한테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지만. 분명, 잡는 건 이랬고..... 되돌릴 뻔 이랬... 었냐?

티아 :검술 연습해?

루크 : 우왁!? 뭐, 뭐야!?

티아 :명중을 더 노리겠다면, 동료의 움직임을 주목하면서 기술의 연계를 고려해야 할 거야.
티아 : 혼자 공격하는 데엔 한계가 있고, 기술에서 기술의 연결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루크 : 시끄러워 너! 아무도 그런 건 물어본 적 없거든!?

티아 : ...미안. 필요없는 참견이었나 봐.

루크 :뭐래, 제길.

(바로 근처의 향아리에서, 노점 주인이 말한 상자를 되찾을 수 있다. (그 후 위로 올라가면..))

루크 : 으어~! 거 봐! 너네들이 꾸물거리니깐 놓쳐 버렸잖아!

이온 : 괜찮아요. 이대로 가면 티글의 동지가 있을 테니까요.

루크 : 그런 걸 어케 아는데.

이온 : 아, 예..... 실은 엔게이브에서의 도난 사건이 신경쓰여서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이온 : 티글은 마을 중에서도 똑똑하고 양전하죠. 인간에게서 먹을 것을 훔치다니 이상합니다.

루크 :흠. 그럼 목적지는 같다는 얘기냐.

이온 : 그럼, 두 분도 티글에 대해 조사하고 계셨나요.

루크 : 누명을 쓰고서 잠자코 있을 수 있겠냐 이거야. 별 수 없지, 너도 따라와.

이온 : 어, 그래도 될까요?

티아 : 무슨 소리야! 이온 님을 위험한 곳에 데리고 가겠단니!

루크 : 그럼 이놈을 어쩌라고. 마을에 보내놓고 와 봤자, 다시 혼자 숲으로 얼쩡거리며 돌아올게 뻔한데.

이온 :예,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요. 티글은 우리 교의 성수니까요.

루크 : 그것 보라니까. 거기다 저렇게 푸르딩딩한 얼굴로 당장이라도 고꾸라질 것 같은 놈을 내버려둘 수도 없잖겠냐.

티아 : ...!

이온 : 가, 감사합니다! 루크 님은 상냥하신 분이시네요!

루크 : :: 누, 누가 착하다고! 머, 멍청한 소리 집어 치우고 조용히 따라오기나 해!

이온 : 예!

루크 : 아, 그리고. 그 이상한 술법은 쓰지 마. 너 그거 쓰다가 자빠졌잖어.
루크 : 마물이랑 싸우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이온 : 지켜 주시겠다는 겁니까! 감격했어요 루크 님!

루크 : :::: 아, 아냐!! 짐덩어리라는 거지! 괜히 부풀려서 받아들이지 마!
루크 : 그거랑, 나한테 강 말 놔도 돼! 그럼 가자!

이온 : 예! 루크!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티글 : ! 유, 유유유유, 유우!

루크 : 응? 저게 티글인가?

이온 : 아직 어린애인 것 같네요.

티아 : (귀여워라.....)

(티아가 다가가지만, 쓴살같이 도주)

루크 : 어, 튀네 저거.

이온 : 야생 마물이니깐요.

티아 : 이 근방, 티글 족의 동지인가 봐.

이온 : 그들이 마을에서 식량을 훔쳤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겠습디만...

루크 : 저렇게 멍청할 것 같은 마물이라면 증거야 아무데나 날려 있겠지 뭐.

이온 : 좀 찾아다녀 보죠.

(물가에 떨어져 있는 사과를 조사하자)

이온 : 이 사과, 엔게이브의 소인이 찍혀 있는네요.

루크 : 역시 이 놈들이 범인이었나!

티아 : 이 나무 속에서 동물의 기척이 나는데...

이온 : 티글은 나무 줄기를 거처로 삼으니까요.

(혼자 나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온)

티아 : 도사 이온! 위험합니다!

루크 : 어쩔 수 없는 놈이구만.....

[나무 안]

(티글 바리케이트...)

이온 : 지나가게 해 주세요.

티글 : 유~ 유~ 유유유!

루크 : 마물한테 말 같은게 통하겠냐.

이온 : 티글은 교단의 시조인 '유리아 주에'와 계약을 하여 힘을 빌려주었다고 들었습니다만.....

티글 부족장 :유 유~ 유우 유우.

(티글이 모두 물러난다)

티글 부족장 :유리아 주에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

루크 : ! 야, 마물이 말을 했어.

티글 부족장 : 유리아와의 계약으로 받은 반지의 힘이라네.
티글 부족장 : 너희들 유리아와 인연이 있는 자들인가?

이온 : 예. 저는 로렐라이 교단의 도사 이온이라 합니다.
이온 : 당신계선 티글 족의 족장 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만.

티글 부족장 : 그렇게.

루크 : 여 봐 마물. 너네들, 엔게이브에서 먹을 거 훔쳤지.

티글 부족장 : 과연. 그래서 우리들을 퇴치하러 왔다는 것인가.

루크 : 흥, 훔쳤다는 건 부정 안 하나.

이온 : 티글은 초식이었지요. 인간에게서 먹을 것을 훔칠 필요가 어디에 있으셔서?

티글 부족장 :티글 족을 존속시키기 위해서이지.

티아 : 식량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아닐 것 같아... 이 숲은 녹색으로 가득한 걸.

티글 부족장 : 우리 동족이 북쪽 땅에서 화재를 일으키고 말았다네.

티글 부족장 : 그 결과, 북쪽 일대에서 살던 '라이거'가 이 숲으로 이동해 왔지.

티글 부족장 : 우리를 먹이로 삼기 위해서 말 이야.

이온 : 그럼 마을의 식량을 훔친 것은, 동료가 라이거에게 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군요.

티글 부족장 :그래. 정기적으로 먹을 것을 내놓지 않으면, 녀석들은 우리 동족을 잡아 먹지.

이온 : 너무해.....

루크 : 흥, 알게 뭐야. 약한 자가 잡혀먹히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

루크 : 거기다 보금자리를 태워놓고 나면 열도 받을 거고.

이온 : 분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디지만, 자연스런 본래의 식물 연쇄 양상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티아 : 루크. 범인은 티글이라는 게 판명되는데.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루크 : 어쩌다니..... 이 녀석들을 마을에 내놓아서.....

티아 :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다음에는, 먹이를 찾는 라이거가 엔게이브를 덮쳐겠지.

루크 : 저런 마을 어떻게 되건 알 바 아냐.

이온 :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온 : 엔게이브의 식량은 여기 마르쿠트 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출하되고 있어요.

루크 : 그럼 어쩌자고?

이온 : 라이거와 교섭을 해 보지요.

티아 : 마물과..... 말씀이신가요?

루크 : 그 라이거라는 것도 말할 줄 알아?

이온 : 우리들에게는 무리이겠지만 티글 족을 한 명 동행해서 통역을 해 달라 한다면.....

티글 부족장 :그럼 통역을 위해 내 '소서러 링'을 빌려주지.

티글 부족장 : 유우 유유유 유우~.

(파란색 티글이 튀어나온다)

루크 : 뭐야?

티글 부족장 : 이 애가 북쪽 땅에서 화재를 일으켰던 우리 동포다. 이 녀석을 데려가 주었으면 좋겠네.

유우 : 전 유예영. 잘 부탁드립니다!

루크 :야. 뭔가 열받는데 이 짜식.

유우 : 미안해영. 미안해영.

루크 : 크아~! 너 임마 열받는다고! 구워 먹어 버린다 짜샤!

(소서러 링을 손에 넣는다)

<페이스 채트 '성수 티글 그 2'>

루크 : 뭔가 열받는데 말이지. 티글이란 것들은.

이온 : 그럴까요? 귀엽다고 생각하는데요.

티아 : 귀엽다고 생각해.

루크 : 아 그래? 쪼그만게 알짱알짱 거리고, 뭐라고 유 유 거리고. 난 왠지 열받는데.

이온 : 여럿이 놀거나 한다면, 마음이 평화로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온 : 성수라 불리는 일족이길래, 저도 좀 더 당당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지만요.

티아 : 그렇네요. 하지만, 귀여운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루크 :뭐야 그게.

(나가기 전 부족장에게 말을 걸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다시 티글의 숲]

유우 : 여러분, 보세영.

(유우가 불을 뿜는다)

루크 : 우웁! 뭐야 이놈! 불을 뿜었어!

유우 : 어땀세영. 멋지지영!

티아 : 방금 그건?

유우 : 저, 불을 뿜을 수 있어영. 그러니까 통역 이외에도 도움이 될 거예영.

유우 : 동족에게 폐를 끼친 만큼 저도, 열심히 할 거예영!

이온 : 확실히, 티글 족은 불을 뿜는 종족이었지요.

유우 : 맞아영! 하지만 유우 건 특별해영!

티아 : 특별?

유우 : 유우는 아직 어린애라서, 원래는 불 같은 건 못 뿜어영. 그런데도!

이온 : 그런데도?

유우 : 소서러 링이예영! 이것 덕택에 불을 뿜을 수 있어영!

유우 : 거기다 아무리 불을 뿜어도 지치지 않아영.

루크 : 헤에. 소서러 링이란 건 통역 같은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모양인데.

이온 : 원래는 보솔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물건이니까요. 캐퍼시티 코어(항울부)의 일종이거든요.

티아 : 하지만, 저 크기 불이라면 그다지 실전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유우 : 유우~~.....

루크 : 그래도, 불을 뿜다니 재밌잖어.
루크 : 야, 돼지원송이!

티아 : 루크! 너무해!

루크 : 시꾸라! 이런 쪼그말고 이상한 놈은 돼지원송이면 충분해!

루크 : 알았냐, 돼지원송. 내가 명령하면 불을 뿜는 거다.

유우 :유우~~~~~.....알았어영.....

(유우 파이어를 습득한다. □으로 사용)
(아까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티아 : 라이거가 사는 곳이 여기 앞이구나?

유우 : 그래영. 이 개울을 건너 다음이예영.

루크 : 물을 건너라 해도 다리가 걸려있질 않잖아.

이온 : 어쩔 수 없겠네요. 개울을 걸어서 건너지요.

루크 : 진심이나..... 신발도 바지도 다 젖잖아. 난 싫어.

티아 : 그럼 당신은 여기 남아 있어. 옷이나 신발의 더러움을 신경쓰는 사람은 짐덩어리가 될 거야.

루크 :뭐야!?

루크 : (번쩍) 야, 돼지원숭. 너 저기 나무 밑동에 불 좀 뽐어 봐.

유우 : 유?

루크 : 짜샤! 빨랑 뽐어!

유우 : 유 유 유 유우우우~.

(소서러 링으로 불을 붙이자)

루크 : 오케바리, 이거면 어때.

이온 : 과연. 나무 밑동이 썩어 있었던 거군요. 루크 재치가 있네요.

루크 :헛, 이런 건 아무것도 아냐.

티아 : 맞아. 무엇보다 이걸 유우가 해낸 일인걸.

루크 :뭐가 어째!

티아 : 별 것 아니라면서? 일일이 소리 좀 지르지 마.

티아 : 도사 이온, 가지지요.

이온 : 아, 예. 루크도 기분 풀고 같이 가요.

유우 : 같이 가염.

루크 :년 시끄러!

유우 : 유우~~~~.....

(조금 더 진행하면)

루크 : 저기, 이온.

이온 : 예?

루크 : 아까 전의 그것 같은 강한 기술 어떻게 쓴 거냐? 나도 배울기만 하면 쓸 수 있을까?

이온 : 그건 다아트 식 보솔이라 해서..... 저기.....

루크 : 아~, 잡스런 설명은 필요 없어. 뭐 좀, 편하게 딱 써질 수 있는 방법 없냐고.

티아 :질렸어 정말.

루크 : 뭐가 또!

이온 : 두 분 다투지 말아 주세요. 편하게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알려드릴 수 있어요.

루크 : 진짜? 어떤건데?

이온 : 루크 어떤 '향울부(캐퍼시티 코어)' 를 달고 있나요?

루크 : 캐퍼시티 코어? 뭐야 그게.

이온 : 몰라요 루크?

티아 : 좀 세상 물정에 어두운 면이 있답니다.

루크 : 미안하다 그래!

이온 : 그럼 이걸 루크에게.....

루크 : 이게 향울부?

이온 : 예. 향울부라는 건, 보솔을 나타낸 장신구 비슷한 거예요.

이온 : 보(講)의 내용에 따라 몸의 능력이 올라가겠죠.

이온 : 최근에는 일반인 분들도 패션의 일환으로 평범하게 쓰이고 있지요.

루크 : 이걸로, 아까 니가 썼던 기술을 나도 쓸 수 있게 되는 거냐?

이온 : 죄송해요. 다아트 식 보솔은 로렐라이 교단의 도사밖에 쓸 수 없답니다.

루크 : 뭐야. 재미없어.

티아 : 하지만, 향울부를 달고 있으면 특수한 기능도 배울 수 있어. 잘 쓰면 충분히 강해질 거야.

(메뉴의 C·코어를 쓸 수 있게 된다)

루크 : 어때?

이온 : 잘 어울려요 루크.

루크 : 그러냐, 이걸로 나도 더 강해질 수 있는 거군.

티아 :힘 만이라면.

[동굴]

<페이스 채트 '티글의 식생활'>

티아 : 있잖아, 유우. 티글은 초식이라 그러던데, 뭘 먹어?

유우 : 유우우~... 타타르 풀, 바티칼 풀, 유리아 풀, 후브러스 풀, 네코닌 풀.....

티아 : 아하, 유우는 초식이구나.

유우 : 그래염! 그래두 버섯도 먹을 수 있어염!

티아 : 이 근처에서 버섯 같은 걸 딸 수 있니?

유우 : 딸 수 있어염! 북쪽은 버섯 투성이에염!

티아 : 언젠가 가 보고 싶네. 안내해 줄래?

유우 : 물론이에염!

(동굴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티아 : 저건.....

루크 : ? 기억진..... 인가?

티아 : 힐링 효과가 있는 기억진이네. 저 위에 올라가면 치료도 될 거야.

(녹색 기억진에는 회복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공지가 뜬다)
(조금 올라가면...)

티아 : 저게 여왕이네.

루크 : 여왕?

티아 : 라이거는 강대한 암컷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으로 살아가는 생물이야.

이온 : 유우. 라이거 퀸이랑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유우 : 알았어염.

유우 : 유우, 유우 유우 유우~ 유우.....

(하지만 이야기는 잘 되지 않고...)

이온 : 괜찮아요!?

루크 : 야. 저거 뭐라디?

유우 : 알이 부화할 참이니 오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염.

일행 : !

유우 : 제가 라이거 님들 집을 실수로 다 태워버린 바람에, 여왕님, 녀정 화내고 있어염.....

루크 : 아랄? 라이거란 거 난생동물이나!

유우 : 유우도 알에서 태어났어염. 마물은 알에서부터 깨어나는 게 많아염.

티아 : 어쩐담. 알을 지키는 라이거는 흥폭성이 더 강할 텐데.

루크 : 그럼, 나중에 다시 오라고?

이온 : 그렇습니다만, 라이거의 알이 부화되면

태어난 새끼들이 식량을 찾아 마을로 밀어닥치겠지요.

루크 : 어?

티아 : 라이거 새끼는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마을 근처에 서는 라이거는 번식기 전에 모두 사냥하는 거군.

이온 : 그들에게, 이 땅에서 옮겨가 줄 수 없겠냐고 말해 주지 않겠어요?

유우 : 아, 알았어염.

유우 : 유, 유우유, 유우 유우유우.....

(먹힐 리 없다...)

유우 : 고 고맙습니다어염!

루크 : 오 오해 마. 널 구한 게 아니라 이온을 감쌌을 뿐이니까!

유우 : 우릴 처치해서 부화한 새끼들의 먹이로 주어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어염.....!

티아 : 덤벼들 거야.

티아 :도사 이온. 유우와 함께 물러나 주시길.

루크 : 어, 야..... 여기서 싸웠다면 알이 다 깨져버리는 거 아닐.....

티아 : 잔혹할지 모르겠지만 그 편이 더 나야...

티아 : 알을 남겨서, 혹시 부화라도 시킨다면 라이거 새끼들이 연게이브를 덮쳐 지도에서 지워 버릴 테니깐.

이온 :두 분! 라이거 퀸이!

루크 : 쿵, 쓰브.....!!

<BOSS - 라이거 퀸>

일반 적들에 비하면 능력이 높지만, 노멀 기준으로 위험할 정도는 아니다. 몇 대 때리고 있으면...

(싸우던 도중 이벤트)

루크 : 야, 어찌라는 거야! 전혀 쓰러질 생각을 안 하는데!

티아 : 큰일이네..... 이 쪽 공격이 거의 통하질 않아.

루크 : 마, 말도 안돼! 어떻게 좀 해 봐!

제이드 : 어떻게 해 보죠.

티아 : 누구예요!?

제이드 : 이야기는 나중에 미룹시다. 제가 보솔로 처리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제 영창시간을 벌여 주십시오.

루크 : 잘난 척 하긴.....

티아 : 지금은 저 사람에게 맡겨 보자. 라이거 퀸의 공격이 저 사람에게 맞지 않도록 시간을 버는 거야.

루크 : 쫓, 알았어!!

(레벨 45의 제이드가 그랜드 대서를 발동시키면 일격에 끝난다)

.....

(전투 종료 후)

제이드 : 아니스! 잠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스 : 네에, 대령님♥ 부르셨어요?

(소근소근)

아니스 : 예..... 알았어요. 그 대신 이온 님을 잘 지켜 주셔야 해요.

.....

루크 :뭔가 뒷맛 짹짹하군...

티아 : 상냥하구나..... 아니면 물러 터진 건지.

루크 :차가운 지지배!

제이드 : 이런 이런, 부부싸움이십니까?

루크 : 누가!

티아 : 카티스 대령님. 저희는 그런 관계가 아니랍니다.

제이드 : 농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제이드라 불러 주십시오.
제이드 : 제 성에는 그다지 정이 붙질 않아서 말입니다.

이온 :제이드. 미안해요. 멋대로 행동해서.

제이드 : 당신 답지 않으시군요. 바른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 이런 행동을 하시다니.

이온 : 티글은 시조 유리아와 함께 로렐라이 교단의 상징.
이온 : 그들의 잘못은 제가 책임을 지지 않아선 안 된다 생각해서요...

제이드 : 그걸 위해 능력을 사용하셨지요? 의사가 말리지 않았습니까?

이온 :미안합니다.

제이드 : 거기다 민간인까지 끌어들이시고.

루크 :이 봐. 사과하고 있잖아 그 녀. 언체까지도 궁시렁궁시렁 잔소리 늘어놓지 말고 좀 봐 주쇼 아저씨.

제이드 : 어이쿠. 휘갈려 든 것에 대해 불평이나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의외입니다.

티아 : (정말 의외야.....)

제이드 : 뭐 시간도 없으니 이쯤 해두기로 할까요.

이온 : 친서(親書)가 도착한 거군요?

제이드 :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숲에서 나가시지요.

유우 : 안 돼영. 장로님에게 보고해야 해영!

제이드 :티글이 인간의 말을?

이온 : 소서러 링의 힘이죠.
이온 : 그보다 제이드, 한 번 티글의 거주지에 들렀으면 합니다.

제이드 :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온 : 루크, 방금 전 고마웠어요. 조금만 더 어울려 즐래요?

루크 : 별 수 없지. 한번 시작한 곳이니.

(제이드가 동료가 된다)

<페이스 채트 '제이드의 실력'>

티아 : 상당한 실력이 있으시구나, 제이드 대령님.

루크 : 흠. 저 인간한테 의지 안 했어도 나 혼자 어떻게 했을 걸.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제이드 : 주제 넘은 짓이었을지도 몰랐겠습니까만, 차마 보고 있기 힘들길래 말입니다.
제이드 : 이전 당신 방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 방해도 되지 않도록 해 주시죠.

루크 : 썩. 밍밍없어!

이온 : 자 자. 다들 무사하고 사건도 해결했으니까, 다 잘 된 거잖아요.

티아 : 그래요. 일단 티글 장로에게 보고를 하고, 엔게이브로 돌아가죠.

.....

제이드 : 해결이라..... 그건 좀 어떨까요.....

<페이스 채트 '불씨 조심!'>

루크 : 우하하, 불 뿜어라아~!

유우 : 유우우우.

티아 : 잠깐! 위험해! 정말로 불이 나면 어쩌려구 그래?

루크 : 하하하 그리 쉽게 불 같은 건 안 나.
루크 : 거기다, 불이 나면 그건 내가 아니라 이놈 책임이잖아? 불 뿜는 건 이놈이고.

유우 : 유! 그, 그건 곤란해영!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야말로 추방당할 거예영!!

티아 :질렸어. 당신 정말로 바보네.

(나오는 길에 테크니컬 링을 주울 수 있다. 완전수동 전투 가능)
(티글 거주지로 돌아가자)

[티글 거주지]

티글 족 장로 : 유우 유우 유우유우.

유우 : 유~ 유유유.....

제이드 : 이렇게 마물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까.

티아 :귀여워♥

루크 : 헉? 너 방금 뭐라 그랬어?

티아 : ::아, 아무것도 아니야.

티글 족 장로 : 이야기는 유우에게서 들었네. 꽤 위험한 처지에 놓였던 것 같구먼.
티글 족 장로 :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약속을 지켜 주다니 감사하고 있어.

이온 : 티글에게 협력을 하라는 것은 유리아의 유언이었으니까요. 당연한 일입니다.

티글 부족장 : 하지만 근본을 따지자면 유우가 라이거의 보금자리를 불태워 버렸던 것이 원인...
티글 부족장 : 그러니 유우는 그 댓가를 치르게 해야겠군...

티아 : 어쩌시려고요?

티글 부족장 : 유우를 우리 부족에서 추방하겠네.

이온 : 그건 너무해요.

티글 부족장 : 물론 영원히라는 얘기는 아닐세. 듣자 하니 유우는 루크 님에게 도움을 받았단거.
티글 부족장 : 티글은 입은 은혜를 잊지 않아. 유우는 계절이 한바퀴 돌아올 때까지 루크 님의 시중을 들거라.

루크 : 내가 원 상관이라고.

티글 부족장 : 유우가 루크 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을 듣지 않는구먼. 처우는 맡기겠네.

티아 : 데려가 주는 게 어때?

루크 : 난 애완동물 따위 필요 없다고.

이온 : 티글은 로렐라이 교단의 성수예요. 분명 덕에서는 귀여워 할 거예요.

루크 : 그럼, 가이 네한테 선물이라도 하는 셈 칠까.....

유우 : 도움이 되도록 힘낼게영. 잘 부탁드려영, 주인님!

루크 :역시 열받는구만 이 놈.

제이드 : 자, 보고도 끝난 것 같으니 숲을 나가십시오.

루크 :흠, 잘난 척은.

<페이스 채트 '유우는 동료'>

티아 : 루크, 좀 더 천천히 걸으면 안 돼? 유우가 가없어.

루크 : 흠! 왜 우리가 그놈한테 걷는 속도를 맞춰줘야 돼냐?

유우 : 티아 씨. 괜찮아영. 잘 따라갈 수 있어영.

루크 : 이것 봐 이 자식도 이렇게 말하잖아.

티아 : 왜 그렇게 심술궂은 거야?
티아 : 유우도 제대로 동료로 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

루크 : 어쩔 수 없잖아! 이 놈 짜증나는데!

유우 : 싸우지 말아 주세요영~...

루크 : 시끄러!!! 원체 네가 라이거의 주거지에 불 같은 것만 안 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냐!
루크 : 라이거 여왕도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알 잘 날았을 지도 모르고! 전부 다 잘 댔을지도 모르는구만!
루크 : 아앙? 원 말인지 알겠냐?!

이온 : 자 자. 이제 그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티아 : 맞아요. 루크, 어린애 같아.

루크 :알았단니까.

제이드 : 그럼, 진정들 되신 것 같으니, 서둘러 가시죠.

루크 : 이 인간이...

(숲을 나가기 전, 수풀더미를 불태우고 S 플래그를 얻을 수 있다. 파티 리더 변경 가능)
(나가는 도중...)

루크 : 어? 저 애 니 호위 아냐?

이온 : 예, 아니시이죠.

아니스 : 어서 오세요~♡

(아니스와 병사들이 등장)

제니스 :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니스. 타르타로스는?

아니스 : 숲 앞까지 잘 와 있어요. 대령님이 급하다고 하시길래 특급으로 분발했답니다♡

루크 : 이봐, 무슨 얘이야...?

제이드 : 거기 두 사람을 체포하십시오. 정체 불명의 제 7음소를 방출했던 것은 저 둘입니다.

이온 : 제이드! 두 사람에게 난폭한 짓은.....

제이드 : 안심하십시오. 누구도 죽이려 들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제이드 :두 사람이 날뛰지 않는다면 말입니다만.

루크 & 티아 :

제이드 : 착하군요. 여행하라!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3)

[타르타로스 내부]

제이드 :제 7 음소의 초진동은 김라스카 란발디어 왕국 수도 방면에서 발생.
제이드 : 마르쿠트 제국 영토 타타르 계곡 근처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제이드 : 초진동의 발생원이 당신들이라면 부정하게 국경을 넘어 침입해 온 셈이 되는군요.

루크 : 헛, 끈덕지게 짱나게 만드는 인간 같으니.

아니스 : 헤헤~, 짱난대요♡ 대령님♡

제이드 : 상처 받는군요.
제이드 : 뭐 그건 제쳐 두고. 티아가 오라클 기사단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이드 : 그럼 루크. 당신 풀 내임은?

루크 : 루크 폰 파브레. 너네들이 유괴하려다 실패한 루크 님이시다 왜.

이온 & 아니스 : !!

제이드 : 김라스카 왕실과 혼인 관계에 있는 그 파브레 공작의 아들... 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스 : 공작.....♡ 멋져.....♡

제이드 : 왜 마르쿠트 제국에? 거기다 유괴라니... 온당하지 못합니다만.

티아 : 유괴 에 대해선 아무튼, 이번 건은 저의 제 7 음소가 루크의 제 7 음소와 초진동을 일으켰던 것 뿐이에요.

티아 : 파브레 공작가에 의한, 마르쿠트에 대한 적대행위는 아닙니다.

이온 : 대령님, 티아 말이 맞을 거예요. 그에게서 적의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제이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모양이니 세계 정세에는 어두울 것 같고요.

루크 : 흥, 바보 취급 하긴.

이온 : 여기서 오히려 협력을 부탁할 수 없을까요?

제이드 : 우리들은 마르쿠트 제국황제 피오니 9세 폐하의 명에 의해, 킴라스카 왕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티아 : 설마, 선전 포고를...?

루크 : 선전 포고라니.....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아니스 : 반대예요 루크 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랍니다.

제이드 : 아니스, 조심성 없이 털어놨선 안 되지요.

루크 : 전쟁을 막아?뭐랄까 그렇게 안 좋았어? 킴라스카와 마르쿠트 사이의 관계.

티아 : 모르는 건 당신 혼자만이라고 생각해.

루크 :너도 비꼬기 좋아하는구만.

제이드 : 이제부터 당신들을 석방하겠습니다. 제이드 : 군사 기밀에 관련되는 장소 이외라면 어디든 출입하는 것을 허가하도록 하지요.

루크 & 티아 : !!

제이드 : 일단은 우리들에 대해 좀 아십시오. 그런 다음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힘을 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이드 :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루크 : 협력을 바란다면 그냥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냐.

제이드 : 설명한 다음에도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엔, 당신들을 연금시키지 않아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루크 : 뭐라고.....!

제이드 : 일이 국가기밀이다 보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결심을 떠 보겠다는 겁니다. 제이드 :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온 : 자세한 이야기는 당신의 협력을 약속받은 다음부터 할 수 있게 되겠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니스 : 루크 님♡ 저, 루크 님이랑 같이 여행을 하고 싶사와요♡

병사 마르코 : 제이드 대령님에게 협력을 해주시겠다면 제게 말을 걸어 주십시오.

.....

티아 : 전함 안을 좀 돌아다녀 보지 않을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당신도 좀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해.

유우 : 주인님! 탐험이예요!

루크 : 아 피곤하게.....

<페이스 채트 '부당한 취급'>

루크 : 아 씨! 진짜 제이드 자식!
루크 :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티글 숲 따위에 가지 말 걸 그랬지.

티아 :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린 처음부터 주

시되고 있었던 것 같아.
티아 : 어떻게 되었건 간에 발견되서 구속당했을 거라 생각해.

루크 : 난 아무 잘못도 한 적 없다고! 그런데도 이 취급! 웃기고 자빠졌어.

티아 : 그래도 그와 함께 행동하는 편이 마르쿠트령에 있을 동안에는 더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티아 : 신원을 숨길 필요도 없구.

루크 : 아 나 진짜! 니가 집에 오고 나서부터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 아아, 빨랑 집에 가고 싶다.

(아니스에게 말을 걸어보자)

아니스 : 루크 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아니스 : 저기어... 제가 있으면 방해..... 가 될까요?

티아 : 그렇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루크 : 헤~. 너도 웃는 일이 있긴 하구나.

티아 :예의 없기는.

아니스 : 아잉, 두분 다 싸우시지 말아 주세요~. 자, 가시죠♡ 루크 님♡

(아니스가 동료가 된다)

<페이스 채트 '타르타로스'>

아니스 : 루크 님♡ 타르타로스의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루크 : 뭐? 어디냐 해도..... 나 이 배에 대해선 모르니 말야. 어떤 곳이 있는데?

아니스 : 그러니까..... 브릿지랑, 휴식 중인 병사님들이 이야기하는 휴게실, 식당도 있답니다~. 간이 이지만요.
아니스 : 나머지는 작전회의에 쓰는 큰 방이랑, 병사님들이 자는 방이 잔뜩 있다는 느낌이예요.

루크 : 뭐야 그게..... 맘대로 돌아다니라 해봤자, 별로 재밌는 일도 없을 것 같구만.

아니스 : 타르타로스는 군용함이니깐요~. 객선 이랑 비교하면 초라할지두요.
아니스 : 아, 기관실 같은 데는 어떠세요? 보업(講業)에 흥미가 있는 사람에겐 볼 게 잔뜩 일 것 같은데요.

루크 : 아~ 아니, 됐어. 음기관은 봐도 전혀 모를 테니까.

루크 : 아, 브릿지랑 기관실은 대령님한테 아 단맛을지두.

루크 : 앙? 결국 이 근방에서나 터덜터덜 돌아다니란 얘기냐? 아~ 아, 별 수 없지.....

(함 안팎을 적당히 돌아다녀 보자)
(보술의 원리, 유우가 수컷이라는 사실 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제국이 루크를 유괴했다란 얘기에 수상한 부분이 있는 듯...?)
(대충 견학을 했다면 마르코에게 말을 걸어 협력을 승낙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제이드 : 요즘 국지적인 소규모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큰 규모의 전쟁이 발발하겠지요.
제이드 : 호드 전쟁이 휴전을 이루고 나서 아직 15년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이온 : 거기서, 피오니 폐하께서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하는 친서를 보내기로 하신 거랍니다.
이온 : 저는 중립적 입장에서 사자로의 협력을 요청받았습니다.

루크 : 그게 사실이라면, 왜 니가 행방불명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루크 : 반 선생은 널 찾으러 갔을 걸.

이온 : 그건 로렐라이 교단의 내부 사정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이드 : 로렐라이 교단은 이온 님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적인 도사 파와...
제이드 : 대영사 모스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 대영사 파로 나뉘어 파벌 항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온 : 모스는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어요.

이온 : 전 마르쿠트 군의 힘을 빌려서 모스의 구금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티아 : 도사 이온! 무언가 잘못 아신 걸 거예요. 대영사 모스께서 그런 것을 바라실 리가 없습니다.

티아 : 모스 님은 예언(스코어)의 성취만을 기도하고 계신다구요.

아니스 : 티아 씨는 대영사 파이셨군요. 쇼크예요오...

티아 : 난 중립이야. 유리아의 예언은 중요하지만 이온 님의 뜻도 소중한 걸.

루크 : 아~~! 날 따시키고 다들 맘대로 애길 진행시키지 마!

제이드 : 아아 미안합니다. 당신은 세상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도련님' 이셨지요.

루크 :뭐가 어째...

이온 : 교단의 실정은 어쨌든, 우리들은 친서를 킴라스카로 나르지 않아선 안 돼요.

제이드 : 허나 우리들은 적국의 군인. 아무리 평화의 사자라 하더라도 국경을 훌쩍 넘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이드 : 그렇다고 우물쭈물 거리다가는 대영사 파가 방해를 해 오겠지요.
제이드 : 그것을 위해 당신의 힘..... 아니, 지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루크 : 이보소 아저씨. 뭘 말을 그렇게 해?
루크 : 거기다, 남에게 뭘 부탁할 때는 고개를 숙이면서 하는 게 예의 아니었나~?

티아 : 그런 태도는 그만 두는 게 좋아. 당신도 전쟁이 일어나는 건 싫지 않아요?

루크 : 시끄러~얌튼 어쩔래?

제이드 : 이런 이런.

(제이드, 고개를 숙인다)

마르코 : 사단장님!!

제이드 : 부디, 힘을 빌려주십시오. 루크 님.

루크 : 당신 자존심이란 것도 없구만.

제이드 : 공교롭게도, 이 정도 일로 성을 낼 정도의 값싼 프라이드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루크 :쫓, 알았어. 백부님한테 잘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제이드 :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이 있어 실례하겠습니다만, 루크 님께서는 아무쪼록 자유로이.

루크 : 강 루크라 불러. 밥맛 없어.

제이드 : 알겠습니다. 루크 「님」.

.....

(방을 나가려 하면 이온이 앞서 나간다. 복도에 서 있는 제이드에게 다가가면...)

제이드 : 제게 무슨 불일이라도?

(그 때, 경보가 울린다)

티아 : 적습(敵襲)?

아니스 : 루크 님, 어찌죠!

제이드 : 브릿지! 무슨 일인가?

방송 : 전방 20킬로미터 지정 상공에, 그리핀의 대 집단이 있습니다!
방송 : 총 수는 불명! 약 10분 후에 접촉합니다! 사단장님, 주포 일제사격의 허가를 구합니다.

제이드 : 함장은 자네다. 배에 대한 일은 모두 맡기겠네.

방송 : 씨, 엇씨! 전방 20킬로미터 전방에 마물의 무리를 확인. 전원 제 1중 전투배치에 임하라!

방송 : 반복한다! 전원 제 1중 전투배치다!

제이드 : 세분 모두. 선실로 돌아가십시오.

루크 : 뭐야? 겨우 마물이 습격해 온 것 가지고.....

티아 : 그리핀은 단독 행동을 취하는 마물이야.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마물은 위험한 법이라구.

(그 때 격렬한 진동)

제이드 : 무슨 일인가?

방송 : 그리핀에서부터 라이거가 강하! 선체에 달라붙어 공격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방송 : 기관부가..... 오아아악!?

제이드 : 브릿지! 응답하라 브릿지!!

루크 : 라이거라면, 티글네 숲에서 해치였던 그 마물이지?

유우 : 맞아염.....

루크 : 이런 세상에! 그런 마물이 떴거지로 몰려왔단 말야!?

루크 : 이런 배에 타고 있다면 골로 가겠어! 난 내릴 거야!

티아 : 기다려! 지금 바깥에 나가면 위험해!

(루크는 무언가에 부딪쳐서 나가 떨어지고...)

??? : 그 말대로다.

유우 : 주인님!?

(제이드의 강력한 보술 공격에 의해 적 병사들이 날아가지만, 낫을 든 사나이는 간단하게 튕겨낸다)

??? :과연 그럴군. 허나 이 이상은 양전히 있어라.

??? : 마르크트 제국군 제 3 사단 사단장 제이드 카티스 대령... 아니, '사령술사 제이드'.

티아 : 사령술사(네크로맨서 제이드).....! 당신이.....!?

(제이드에게 새 칭호)

제이드 : 이거 이거. 저도 꽤 유명해진 모양입니다.

??? : 전란이 있을 때마다 승장을 찾아다니는 네 소문은 세계에 널리 퍼진 모양이더군.

제이드 : 당신 정도는 아니지요. 오라클 기사단 6 신장, 「흑사자 라르고」.

라르고 : 후..... 조만간에 겨워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만, 아쉽게도 지금은 이온 님을 찾아가는 게 우선이다.

제이드 : 이온 님을 넘길 수가 없지요.

라르고 : 어허! 이 꼬마의 목이 날아가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움직이지 마라.

티아 : 육.....

라르고 : 사령술사 제이드. 너를 내버려 뒀다 가는 여러 모로 귀찮아 질 테니 말이다.

제이드 : 당신 혼자서 저를 제거하실 수 있으시기라도 하다는?

라르고 : 네 보술을 막는다면 말이지.

(천장에 독전파 발생기 비스무리한 물건을 설치한다. 덕택에 제이드의 레벨이 5로...)

티아 : 설마 봉인술(안티 폰슬롯)!?

라르고 : 도사의 보술을 막기 위해 가져왔다만, 이런 데에서 쓰게 될 줄은.

제이드 : ...크헉.....

(달려드는 라르고에 대해, 괴로워 하는 척을 하던 제이드가 갑자기 창을 거내 민첩하게 반격한다)

제이드 : 유우! 제 5 음소를 천장으로! 어서!

유우 : 아, 알았어염!

제이드 : 지금입니다! 아니스! 이온 님을!

아니스 : 라져!

(지나치는 순간)

제이드 : 합류할 곳은 알지요?

아니스 : 걱정 마시길!

(아니스는 엄청 빠르게 달려서 사라지고...)

라르고 : 보내 줄까 보냐!

(그러나, 푸욱)

루크 :씨, 찢었어.....

.....

제이드 : 이온 님은 아니스에게 맡기고, 우리들은 브릿지를 탈환하십시오.

티아 : 하지만 대령님은 봉인술로 보술이 막히셨는데.....

제이드 : 예. 이걸 완전히 풀려면 몇달 이상은 걸리겠지요.

제이드 : 하지만 당신의 보가와 루크의 검술이 있다면, 타르타로스 탈환도 가능합니다.

티아 : 알겠습니다. 가자, 루크.

루크 :

티아 : 루크!

루크 : !!! 아, 어어.....

[육상장갑함 타르타로스]

<페이스 채트 '목숨을 건 싸움'>

루크 : 저기, 아까 라르고인가 하던 인간..... 죽여 버린 걸까.

제이드 : 죽일 생각으로 공격했습니다만. 아직 살아 있다면 조금 성가시겠지요.

루크 : 죽일 것까지는 없었던 거 아냐?

루크 : 이런 이런. 저 쪽은 우리를 죽여도 되는데 이 쪽은 상대를 죽여선 안 된다, 라는 건 도리에 어긋나지요.

티아 : 루크. 이군 군사연습도 검술 수련도 아니야. 상대의 생명을 배려할 여유는 없어.

루크 : 하지만!

제이드 : 상대도 각오를 굳히고서 습격을 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이드 : 조직을 위해 목숨을 걸소 작전행동을 취한다. 그게 군인입니다.

제이드 : 파브레 공작가에 계시는 분은, 그런 각오도 없이 전장에서 계시는 듯 합니다만.

루크 : 찢! 그런 소릴 하는 게 아니잖아, 으아~ 열받아!

<페이스 채트 '봉인술(안티 폰슬롯)'>

티아 : 대령님, 봉인술 쪽은, 저기..... 괜찮으신지요?

제이드 : 헛하하. 전장이란 걸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직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이드 :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루크 : 뭐야! 찢! 일일이 태클이나 거는 인간이구만!

제이드 : 타르타로스의 탈환은, 당신들이 협력을 해 준다면, 이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기대하지요.

티아 : 알겠습니다. 루크 가자.

루크 : 그래 그래 안다니까!

(갑판을 나아가다 보면)

제이드 : 통상 루트를 통해 브릿지로 직행할 정도의 어리석은 짓은 안 합니다.

제이드 : 여기의 딱 위에 해당하는 아치형 갑판에서 함교로 갈 수 있으니 그쪽 루트로 나아가지요.

(제이드의 말대로,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 전진하자)

루크 :멍청한 얼굴로 퍼지는 것 보라.

유우 : 티아 씨, 굉장해염!

제이드 : 타르타로스를 되찾기로 합시다. 티아, 거들어 주시죠.

티아 : 네.

루크 : 난 뭐 하라고.

티아 : 거기서 망을 봐 줘.

루크 :체. 방해가 된다는 거냐.

(두 사람과 떨어진다)

루크 : 그래도 뭐~, 저런 공격으로 왜 잠이 드는 거야.

유우 : 티아 씨의 보가는 제 7 음소에염.

루크 : 또 그거. 제 7 음소(세븐스 포남)이 뭐냐고.

유우 : 뭐라니, 일곱번째 음소에염. 새롭게 발견된, 바람의 속성을 갖는 음소에염.

유우 : 예언도 제 7 음소에염. 특별해염.

루크 : 크아~ 니 말투 짜증난다니까~!!

유우 : 죄송해염~~!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재웠던 적병이 깨어날 기세를 보인다)

루크 : 노, 놀래키고 있어.....! 평생 잠이나 자라, 빙신!

(깨어난다)

루크 : 으, 오아, 깨어났어.....

적병 : 주, 죽어라!

루크 :헉오, 오지 마!

루크 : 으아아아악!!!!!!

(결국,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게 된 루크...)

티아 : 무, 무슨 일이야!?

제이드 : 안 좋군요... 방금 소란으로 인해 보가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루크 : 찢..... 찢었어..... 내가..... 죽였어.....?

??? 1 : 사람을 죽이는 게 무섭다면 검 따윈 버려 버리시지! 이 되지만 농 같으니!

(기습을 받고 루크와 티아가 쓰러진다. 제이드도 돌의 목에 같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움직이지 못한다)

??? 1 : 과연 사령술사 양반. 끈질긴 게 수준이 다른군.

제이드 :

적병 : 대장, 이 놈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 죽여.

??? 2 : 애쉬. 각하의 명을 잊었나? 아니면 마음대로 행동할 셈?

애쉬 : 찢..... 끌어다가 어디 선실에라도 가워 놔라!

.....

「루크..... 내 목소리에.....! 루크.....!」

.....

티아 : 루크!

티아 :다행이야. 악몽을 꾸는 것 같길래.

루크 :여긴.....

제이드 : 타르타로스의 선실입니다.

루크 : 그랬나..... 분명 마을이 습격해 와서.....

루크 : ! (나..... 사람을 죽였어.....!?)

제이드 : 그럼, 슬슬 여기를 탈출해서 이온 남을 구해내야 하겠지요.

티아 : 이온 남은 어딘가로 끌려가신 모양입니다만.....

제이드 : 오라클 일당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타르타로스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듯 합니다. 제이드 : 그걸 기다려서 구출 하십시오.

루크 :어, 야! 그런짓을 했다가는 또 싸우게 될 거야!

티아 : 그게 왜?

루크 : 또 사람을 죽이게 될 지도 모른다는 소리라고.

티아 :그것도 어쩔 수 없어.

루크 : !!!

티아 : 죽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걸.

루크 :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사람의 목숨을 뭐라 생각하고.....

제이드 : 그렇지요. 인간의 생명이란 귀중한 것입니다.

제이드 :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전쟁이 일어나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티아 : 지금의 여기가 우리의 전장인 거야. 전쟁터엔 정의도 악도 없어. 삶이나 죽음이나, 단지 그것 뿐.

루크 :으!

티아 : 조용하게 살더라도 마을이나 도적에게 공격받을 위험이 있지.

티아 :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용병을 고용하거나, 여럿이 모여서 가두 마차로 이동하거나 하고 있는 거야.

티아 : 싸울 힘이 있다면 어린애조차 싸우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에.

루크 : 그런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루크 : 난 그런 건 알지도 못했거니와 좋아서 여기에 온 것도 아냐!

제이드 : 놀랐습니다 이거.

제이드 : 어떤 환경에서 자라야 이 상황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인지.....

티아 : 마르쿠트에 유괴될 뻔한 적 이래로 보호를 위해, 저택에 갇혀 지내고 있었던 모양이 예요.

제이드 : 이 세상에 대해 몰라도 당연하다... 라는 겁니까.

루크 : 별 수 없잖아! 어릴 적 기억도 없어! 난 아무것도 모른단 말야!

티아 : 확실히 이렇게 된 건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당신을 집까지 보내 줄게.

루크 :

티아 : 그 대신 방해가 되지 말아 줘. 싸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짐이 되니까.

루크 : 싸, 싸우지 않겠다는 말은 아냐! 사람을 죽이기가 싫을 뿐이지.

티아 : 마찬가지로. 지금 싸운다는 건 타르타로스를 빼앗은 「인간」과 싸운다는 얘기니까. 티아 : 적을 죽이고 싶지 않다면 양전히 뒤쪽에 숨어 있어 줘.

루크 :가능한 한 싸우지 말자고 말하려는 것 뿐야.

루크 :나도 죽고 싶은 건 아니니까.

티아 : 나도..... 좋아서 죽이고 있는 건 아니야.

제이드 : 결국 싸우시겠다는 거죠? 전력으로 세겠습니다.

루크 : 싸운다고 하잖아.

제이드 : 좋습니다.

(문을 간단하게 따는 제이드)

제이드 : 사령술사의 이름에 따라 명한다.

제이드 : 작전명 「시체 사냥」 시동하라!

(함의 기능이 멈춘다)

???: 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적병 : 동력기관 정지! 관제장치 정지! 타르타로스를 제할할 수 없습니다!

.....

제이드 : 사전에 등록해 둔 타르타로스 비상정지기입니다.

제이드 : 복구하는 데엔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루크 : 굉장하다.....

티아 : 어디로 갈까요?

제이드 : 좌현 승강구로. 비상정지를 일으킨 경우 그 곳 밖에 열리지 않게 됩니다.

제이드 : 이온 남을 동반한 오라클 병사들도 좌현 승강구로부터 함내로 들어오려 할 테지요.

루크 : 어 근데, 우리 무기 다 뺏겼잖아.

티아 : 근처에 놓여 있을 거라 생각해. 찾아보자.

<페이스 채트 '목숨을 건 싸움 2'>

티아 : 루크, 지금은 마음을 다잡도록 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목숨을 잃게 될 거야.

루크 : 제대로 싸우겠다고 하잖아! 그냥 좀, 기분이 나쁠 뿐이야.

제이드 : 해친 상대에 대해 생각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짐이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루크 : 시끄럽게.....

제이드 : 무서우십니까?

루크 : 닥치라고 했지! 누가 짐이라도 되는지 쫓고 있는지 잘 보고 있으라고! 빨랑 가!

제이드 : 그 기세로 확실히 움직여 주신다면, 저는 아무 불만도 없습니다.

(근처 방의 상자에서 무기를 되찾을 수 있다)

루크 : 의외로 가까운데 댄넬네. 감시도 안 붙이고.

제이드 : 감시는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타르타로스 복구가 급한 것이겠지요.

루크 : ...

티아 : 가지요.

(가장 안 쪽의 문까지 가 보면)

티아 :승강구가 안 움직여.

제이드 : 역시 막혀 있습니다.

루크 : 어쩔 거야? 다른 출구는 없어?

제이드 : 분명히 이 근처 방에, 탈출에 쓸 수 있을 좋은 게 있었을 터입니다. 그걸 이용하죠.

루크 & 티아 : ?

루크 : 좋은 거?

티아 : 대령님, 그건 대체.....

제이드 : 비·밀입니다. 아무튼, 이 주변 방을

이잡듯 뒤지고 다녀 볼까요.

티아 : 네, 네!

루크 :적에게 발견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이드가 들어가는 것을 말렸던 방에 다시 가보자)

제이드 : 아아, 여깁니다. 여기 화물을 치우면 안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티아 : 짐을 움직이면 되는 거네요.

제이드 : 그렇습니다. 그리고 루크. 여자 분께 힘 쓰는 일을 맡기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군요.

티아 : 대령님, 저라면 괜찮습니다.

제이드 : 아니면, 귀족 도련님에게는 제대로 된 근육도 붙어있지 않은 것입니까?

제이드 : 이런 이런. 머리 속은 근육으로 차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루크 : 뭐가 어째! 바보취급 마!

루크 : 잠깐 기다려. 그러고 보면 당신도 남자야. 거들어.

제이드 : 싫은데요. 당신 쪽이 더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젠 마디마디가 아파서.....

루크 :알았어 그래. 야 비켜. 내가 할 테니까.

티아 : 고..... 고마워.....

유우 : 주인님 힘내세영!

루크 : 넌 시끄러.

(○ 버튼으로 짐을 끌거나 밀어 옮길 수 있다)

<페이스 채트 '6 신장'>

제이드 : 자자 서두릅시다. 6 신장 중의 몇명이 타르타로스를 습격했는지를 알 수 없으니 까요.

루크 : 아까 당신이 해치운 흑사자 라르고라는 작자 이외에도 더 있을거란 말야?

제이드 : 3명은 확실히 더 있습니다. 라이거와 그리핀을 조종하고 있는 자와.....

제이드 : 브릿지에서 우리를 공격했던 자들이 죠.

티아 : 지금의 우리들로서 6 신장에게는 도저히 당낼 수 없을 거야.

티아 : 빈 틈을 찔렀다고는 해도, 아까도 일격에 쓰러지고 말았으니.....

제이드 : 라르고 때처럼 거꾸로 우리가 빈틈을 찔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만.....

제이드 : 뭐 세상일 그리 잘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페이스 채트 '서둘러!'>

제이드 : 한눈을 팔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제이드 : 오라클 패거리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선을 제압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방 안쪽의 해골그림이 있는 상자에 다가 가면...)

제이드 : 있습니다.

루크 : ? 이게 「좋은 거」야?

티아 : 대령님, 이런 폭약인가요?

루크 : 폭약!? 왜 그런 게?

제이드 : 함내에서 물자를 빼돌리던 자들이 있길래 말이죠.

제이드 : 그들이 여기다 폭약을 숨겨두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제이드 : 이 소란 덕분에 조사도 소용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만.

티아 : 과연. 여기에 불을 당겨서 벽을 파괴하는 말씀이시군요.

루크 : 으스스하구만. 잘 될까.....

제이드 : 폭발에 휘말리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자, 서두르죠.

티아 : 발파는 보솔로?

제이드 : 아니오. 유우에게 부탁합니다. 나설 차례입니다, 유우.

유우 : 알았어염!

루크 : 우왁! 잠깐 기.....

(황)

루크 : 쫘, 쫘았다아~.....! 너 임마 너무 갑자기 그러지 마!

유우 : 유우~..... 죄송해염.

제이드 : 아니아니, 잘 한 겁니다 유우. 그럴수록 감사하.

루크 : 아, 어어.....

루크 : (위할까 둘 다, 뭐 저렇게 냉정한 얼굴로 폭발을 구경하고 난리야. 괴물이나)

(위쪽 상자의 무기를 털어먹고 나서 외벽으로 나가자)

<페이스 채트 '적의 목적은?'>

루크 : 저놈들, 이온을 잡아다가 뭘 어쩔 생각이냐?

티아 : 지금의 도사 이온께서는 전쟁을 막기 위해 행동하고 계시니...

티아 : 그 도사를 유괴하겠다는 건, 역시 평화 교섭 방해?

제이드 : 이온 님의 킴라스카와 마르쿠트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제이드 : 이번 화평교섭에 이온 님의 존재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제이드 : 방해 방법으로는 이온 님을 바티칼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이드 :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마르쿠트의 군함을 습격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제이드 : 과연 그게 전부일지.....

티아 : 뒷 일이 더 있으시다는?

루크 : 무슨 얘기야?

제이드 : 추측만으로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수습하고 나서 천천히 얘기하십시오.

(감판으로 올라가 오른쪽의 문으로 들어가면 된다)

제이드 : 아무래도 제 시간에 온 모양입니다. 나타난 것 같군요.

(6 신장 누님이 이온을 데리고 접근한다)

루크 : 타르타로스가 비상정지 중이라는 거 눈치채고 있을까?

제이드 : 그야 눈치채고 있었지요.

제이드 : 그보다 이 타이밍에서는 영창이 너무 늦습니다. 보솔은 쓸 수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루크 : 어쨌건 간에 봉인술때시 시시한 보솔밖에 못 쓰게 됐잖아.

티아 : 대령님께서 조금씩 봉인술을 풀고 계신단 말이야. 그런 말투는 너무 심해.

제이드 : 상관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

??? : 비상 해치를 열여라.

적병 : 라져.

(문이 열리고...)

루크 : 아! 불 났어!

(루크와 제이드가 기습을 건다)

??? : 과연 제이드 카티스. 보솔을 막았다 하더라도 알볼 수 없겠어.

제이드 : 칭찬을 받아 영광이군요. 자아, 무기를 버려 주십시오.

제이드 : 티아! 보가를!

??? : 티아.....? 티아 그란츠인가.....!

티아 : 리그렛 교관!

(한 순간의 틈 때문에 형세가 역전된다)

유우 : 주인님, 포위당했어염.....

리그렛 : 아리에타! 타르타로스는 어떻게 되었지?

아리에타 : 제어할 수 없는 채야... 이 애가 격벽을 뜯어 뚫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리그렛 : 잘 했어. 그들을 구속해.....

(위기에 빠지는 것 같았지만 그 때, 가이가 품나게 등장해서 다시 상황을 역전시킨다)

가이 : 가이 님께서, 화려하게 등장.

아리에타 : 깡.....

리그렛 : 아리에타!

제이드 : 자아, 한번 더 무기를 버리고 타르타로스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제이드 : 자, 다음은 당신입니다. 마을 친구를 데리고 타르타로스로...

아리에타 :이온 님..... 저기..... 저.....

이온 : 말을 들어 주세요. 아리에타.

.....

(이렇게 해서 겨우 탈출에 성공하는 것이었다)

제이드 : 한 동안은 모든 승강구가 열리지 않을 겁니다.

루크 : 흐야..... 살았다.....

루크 : 가이! 잘 왔어!

가이 : 여어~ 찾느라 고생캐나 했다. 이런 데에 처박혀 있을 줄은~.

제이드 : 그런데 이온 님. 아니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온 : 적에게 빼앗긴 친서를 되찾으려 하다가, 마을에게 공격받아 창 밖으로 날려가서...

이온 : 다만 유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무사하게 있을 거라.....

제이드 : 그렇다면 센트비나로 향하죠. 아니스와 합류하기로 정해 둔 곳입니다.

루크 : 센트비나?

이온 : 여기서 남동쪽에 있는 거리예요.

루크 : 알았어. 거기까지 튀면 되는 거지.

가이 : 그 쪽 형씨 부하는? 아직 이 배에 남아 있지 않아?

제이드 : 생존자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이드 : 증인을 남겨뒀다가는, 로렐라이 교관과 마르쿠트 간에 분쟁을 일으킬 테죠.

루크 :몇 명이나, 배에 타고 있었는데?

제이드 : 이번 임무는 극비였으니 평상시의 절반... 140 명 정도였습니다.

가이 : 100 명 이상이 살해당했다는 얘기인가.....

티아 : 가요, 우리가 붙잡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게 될 테니까.....

(가이가 동료가 된다)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4)

[필드, 루그니카 평야 동쪽]

<페이스 채트 '루크의 대모험'>

루크 :

가이 : 뭔가 큰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루크.

루크 : 어. 나 참, 집에서 나온 뒤로부터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가이 : 핫핫하. 저택에서 나와 대모험! 이란 거냐?

루크 : 저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가이 : 하하하. 뭐어, 사건은 대충 해결된 거야? 금방 바티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루크 : 그렇다면 좋겠지만~.....

(바로 앞에 있는 간판을 보고 센트비나 쪽 길로 가자. 엔게이브와 다른 길이다)
(몇 걸음 가자마자 이벤트. 이온이 픽 주저앉는다)

루크 : 야, 괜찮냐?

제이드 : 이온 님. 타르타로스에서 다아트 식 보솔을 쓰셨군요?

루크 : 다아트 식 보솔이라면 티글네 숲에서도 썼던 거거?

이온 : 미안합니다. 제 몸은 다아트 식 보솔을 쓰기에는 알맞질 않아서.....

이온 : 시간도 꽤 지났고 했길래 회복되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제이드 : 조금 휴식을 합시다. 이대로는 이온 님의 수명을 줄이게 될 겁니다.

[휴식 중]

가이 :전쟁을 막기 위한 사자라는 얘기가.

가이 : 그래도 왜 모스는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거지?

이온 : 그건 로렐라이 교관의 비밀 사항에 속하는 얘기라서요. 말씀 드릴수가 없어요.

루크 : 뭐야 너. 쫘쫘하게.....

제이드 : 이이야 어찌 되었건 전쟁은 막아야만 합니다. 모스의 방해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이 : 루크 너도 참 피곤한 일에 휘말렸대야.....

이온 : 그런데 당신께서.....

가이 : 그러고 보니 자기 소개가 아직이었지. 난 가이. 파브레 공작 맥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직원이지.

(이온과 제이드와는 품나게 악수를 하지만, 티아가 손을 내밀자 필쩍 뛰어 물러나는 가이...)

티아 :왜?

가이 :헉.

일행 : . . .

루크 : 가이는 여잘 싫어하거든.

제이드 :라기보다는 여성 공포증이 있는 듯 하군요.

가이 : 미, 미안..... 내가 뭐 어떨다는 게 아니고..... 저기 그러니까.....

티아 : 난 그냥 여자라고 생각 안 해도 돼.

(그러고 다가가지만 역시 도망치는 가이. 덜덜덜!)

티아 :알았어. 함부로 당신에게 다가가지 않도록 할게. 그러면 되지?

가이 : 미안하다.....

.....

제이드 : 파브레 공작가의 하인이라면 킴라스카 인이겠군요. 루크를 찾으러 오신 겁니까?

가이 : 어, 주인 양반한테서 명령을 받고서 말야.

가이 : 마르쿠트 영토로 사라졌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가이 : 난 육지를 따라 케세드니아에서, 그란츠 각하겐션 카이를 쪽에서부터 탐색하고 있었지.

루크 : 반 선생도 날 찾아주고 있는 거야!

티아 :오빠.

가이 : 오빠? 오빠라니.....

(그 때 추격자가 나타난다)

제이드 : 이런 이런. 느긋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여유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

루크 : 이..... 인간.....

티아 : 루크! 물러서! 당신 사람은 벨 수 없잖아!

추격자 : 놓칠까 보냐!

(전투)

제이드 : 루크, 마무리 하십시오!

루크 :음.....

(루크는 망설이다가 결국 위기에 빠진다)

가이 : 월 멍하게 있어, 루크!

(루크를 감싸고 티아가 부상을 입는다)

루크 :티아..... 나, 난.....

티아 :바보.....

(루크에게 '두려워 하는 자' 의 칭호)

[야영 중]

(동료들에게 말을 걸어보자)

이온 : 제이드나 티아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겁니다. 그들은 싸우는 것이 일이니까요.
이온 : 당신은 민간인이시니 망설이거나 고민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루크 : 이온 년... 자기 부하가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게 싫지 않냐?
루크 : 난 사람을 구하는 게 일이잖아.

이온 :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온 : 유감이지만 지금의 로렐라이 교단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종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온 : 조만간에, 아시게 될 거라 생각해요.

.....

제이드 : 왜 그러십니까? 생각에 잠긴 얼굴로.

루크 : 제이드는 왜 군인이 된 거야?

제이드 :사람을 해치는 게 무서우십니까?

루크 :

제이드 : 당신 반응은 뭐,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이드 : 군인 같은 직업은 웬만하면 갖지 않는 게 좋겠지요.

루크 : 난 어째야 될려나.....

제이드 : 안심하십시오. 바티칼에 달을 때까지 확실히 후회해 드릴테니.
제이드 : 죽기라도 한다면 곤란해 지니 말입니다.

루크 : 우... 우습게 보지 마!

제이드 : 우습게 보는 게 아닙니다.
제이드 : 도망치는 일이나 몸을 지키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지요.
제이드 : 양전혀 안전한 거리 안에서 지내며, 나을 때엔 용병을 고용하십시오.
제이드 :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

가이 : 힘들었지. 난데없이 바깥 세상에 내뺨 개쳐 졌으니 말이다.

루크 : 나..... 전혀 몰랐어. 도시 바깥이 이렇게나 위험한 곳이었다니.

가이 : 마을이나 도적은, 해치우면 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가이 : 마을 밖에서 사람에게 칼질을 하는 건, 사적인 원한이란 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은 무죄라고.

루크 : 너, 지금까지 얼마나 죽었어?

가이 : 글썽다. 저기 있는 군인 형씨보다야 적켰지 뭐.

루크 : 무섭진 않냐.....?

가이 : 무섭지 임마. 무서우니까 싸우는 거야.
가이 : 죽기 싫으니까. 내겐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루크 : 할 일.....?

가이 : (중얼).....복수.

루크 : 어?

가이 :암것도 아냐.

.....

티아 : 이젠 괜찮아졌어?

루크 :뭐.....

티아 : 싸우는 게 괴로웠던 거잖아?
티아 : 난 당신이 민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해를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아. 미안해.

루크 : 왜..... 왜 니가 사과하는데. 다친 건 너잖아.

티아 : 군속인 이상, 민간인을 지키는 건 의무인 걸.
티아 : 그러다가 부상을 입은 건 내가 무력했다는 이야기. 그게 다야.

루크 :별난 지지배. 억지로 강한 척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야.

티아 : 그, 그런 게 아니야!

루크 : 흐~음.....

(유우에게 말을 걸면 취침할 수 있다)
(밤 중에 페이스 채트)

유우 : 주인님, 오늘도 일기 쓰시는 거예요?

루크 :어~. 귀찮지만, 안 쓰면 어머니라던가가 걱정하니까.

유우 : 유우도 도와드릴게요!

루크 : 뭐? 원 소리야 이 돼지원송이가.

유우 : 유우, 포닉 문자 쓸 줄 알아염.

루크 :그럼, 어디 써 봐.

유우 : 영~차 영~차.....
유우 : 으느른 주인님한테 서른 여덟번 돼지원송이라는 말을 드렸습시다.

루크 :월 또 세고 지롤이야, 이 돼지원송이!

유우 : 유우~~~~~. 39번이 됐어염.....

[다음 날]

티아 : 루크. 일어나. 출발할 거야.

루크 : 벌써 움직일 수 있냐?

티아 : 응..... 걱정해 줘서 고마워.

제이드 : 저와 가이 티아가 삼각 진형을 짜겠습니다.
제이드 : 당신은 이온 님과 함께 중심에 계시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자기 몸만 지켜 주십시오.

루크 : 어?

가이 : 난 안 싸워도 된다는 얘기가. 자 가자.

루크 : 기, 기다려 줘!

이온 : 왜 그러세요?

루크 :나도, 싸울래.

제이드 : 사람을 해치는 것이 무섭잖습니까?

루크 :안 무서워.

티아 : 우리 안 하는 편이 나아.

루크 : 진짜야! 그야 역시 조금 무섭다는 생각 같은 건 있지만.
루크 : 싸우지 않고서 몸을 지킬 수 없다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 나 혼자 숨어있을 수 있겠냐고!

유우 : 주인님, 멋지세염!

루크 : 년 입 다물고 있어!
루크 : 아무튼 이미 정했어. 이제부터 주저 않고 싸울 거야!

티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상대의 가능성을 빼앗는 일이야. 그것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이 :원한을 사는 일도 있지.

티아 : 당신,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티아 : 도망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서 자신의 책임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

루크 : 너도 그랬지. 좋아서 살인을 하는 게 아니라고.
루크 :결심했어. 모두에게 폐를 끼치기도 싫고, 나도 확실히 책임을 질 거야.

티아 :하지만.....

제이드 : 괜찮지 않겠습니까.
제이드 :루크의 결심이라는 걸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가이 : 우리는 하지 마라, 루크.

[다시 필드, 루그니카 평원 동부]

(길을 따라가면 센트비사로 갈 수 있다)
(그 이전에 엔게이브에서 노점 주인에게 부탁 받은 물건을 돌려주면 콜렉터 복을 받을 수 있다)

<페이스 채트 '죽이지 않으면...>

유우 : 주인님, 괜찮으세요? 싸우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루크 : 시끄러. 내가 괜찮다면 그런 줄 알아!
루크 : 죽이느냐 죽느냐 라면, 죽여주지 뭐! 이 애긴 이걸로 끝이다, 알았냐 임마!

유우 : 유우~~~~.....

<페이스 채트 '아니스 괜찮을까?>

티아 : 아니스, 무사해야 될 텐데.....

루크 : 상당한 고도에서 떨어졌다는 것 같더군요.....

제이드 :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스이니까요.

이온 : 예. 아니스이니, 분명 무사할 거예요.

가이 : 뭔가 엄청난 대접인데~. 그 아니스라는 애.

제이드 : 하하하. 기운이 넘치는 예쁜이이지요.

이온 : 정말 믿음직하더니까요.

루크 : 그래? 믿음직하게는 안 보이던데.....

제이드 :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루크 :뭔가 걸리는 투로 얘기하는구만 그래.

제이드 : 기분 탓입니다 루크. 뭐, 수다는 이

쯤 해 두고 갑시다.

이온 : 그러죠.

가이 : 그래서 그 아니스란 애가 관촬을 거란 근거는 어딴거.....?

<페이스 채트 '음률사'>

루크 : 티아 너 '예언사(스코어러)' 아냐?

티아 : 정확히는 좀 달라. 오라클이 아닌 일반 교단원 중에서 제 7 음소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예언사라 불러.
티아 : 난 보가(讚歌)를 쓰기에 '음률사(크루너)'.

가이 : 음률사라..... 요즈음 보기 힘들지.

제이드 : 예. 본래는 후방지원이 중심이고, 수도 그리 많지 않겠지요.

이온 : 그래도, 전 음률사가 좋아요. 그들의 노래는 마음을 편하게 해 주니까요.
이온 :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보가도 있지만 치유해 주는 보가도 있어요.
이온 : 특히 티아의 보가는 아주 그리운 느낌이 들거든요.

티아 : 가..... 감사합니다.....

루크 : 흥~응. 뭐 듣고 보니, 목소리는 이쁘지. 성격은 저절다만.....
루크 : 어 야 짜려보지 마.....

[성곽도시 센트비나]

루크 : 왜 오라클 기사단이 여기에.....

가이 : 타르타로스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여기 센트비나이니까. 휴식하러 들를 거라고 생각한 거겠지.

제이드 : 호오, 가이는 킴라스카 사람치고는 마르쿠트 지리를 아시는 모양입니다.

가이 : 책상 위 여행이 취미라서.

제이 : 이거 이거, 그러셨습니까.

티아 : 대령님, 저것을.....

.....

마부 : 엔게이브 사람입니다. 주문받은 식량을 전하러 왔습니다요.

병사 : 수고하십쇼.

마부 : 이따가 한대 더 올겁니다.

.....

제이드 : 과연. 이거 해볼 만 하겠습니까.

가이 : 한대 더 오는 걸 기다렸다가 타자는 거군.

이온 : 엔게이브로 통하는 국도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티아 : 그러네요. 가요 다들.

루크 : 날 따시키고 얘기 좀 진행시키지 맞!!

티아 :어린애.

.....

루크 : 거기 마차, 스톱!

로즈 : 카티스 대령 양반 아니시우! 거기다 분명히..... 루크라 했었지, 여행자인.

루크 : 아줌마. 미안하지만 마차에 좀 숨겨 주면 안 돼?

가이 : 센트비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만, 도사 이온을 도리는 불한당들이 마을 입구에 도사리고 있어서 말이죠.
가이 :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로즈 : 에그머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생탄제(生誕祭)의 예언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말이야.

티아 : 부탁드리겠어요.

로즈 : 관촬지 위. 도둑 소동으로 신세를 졌으니. 타요들.

제이드 : 도움 좀 받겠습니다.

.....

로즈 : 엔게이브 사람이라우. 먼저 마차가 한대 왔을 것 같은데.....

병사 : 이야기 들었소. 들어가.

로즈 : 고맙습니다.

.....

로즈 : 그럼, 우리는 이만.

이온 : 신세를 졌습니다.

티아 : 감사합니다.

로즈 : 신경 쓰지 마세요. 그보다 조심들 하길.

.....

루크 : 앙튼 그래서, 아니스가 여기 있다는 거지?

제이드 : 마르쿠트 군 기지에서 합류하자는 약속입니다.
제이드 :살아있다면 말입니다만.

루크 : 기분나쁜 소리 하는 작자 같으니. 그럼 가 볼까.

티아 : 오라클 기사단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눈에 띄는 행동은 삼가 쥐.

루크 : 나도 알아. 일일이 잔소리는.

가이 : 뭐야? 너 공처가냐 루크. '나탈리아 공주' 가 질투할 걸.

티아 : . . .

(엡석)

가이 :으아아 악!

티아 : 시시한 소리는 하지 말아 줬으면 해.

가이 : 아, 알았으니까 손대지 마!

이온 : 이 여행으로 가이도 여성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페이스 채트 '아니스와 합류하자!*>

티아 : 멋지게 숨어들 수 있었어.

루크 : 그 아줌마가 와 줘서 다행이었지. 운이 좋았어.

가이 : 그래서, 이제부터 어쩔 거야? 너무 얼쩡거리다간 남들에게 발견될 건데.

제이드 : 그렇군요. 거리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얻고 싶은 참이긴 합니다만.
제이드 : 역시 일단은 아니스의 안부부터 확인해야겠지요.

루크 : 아니스와 만나는 건 '마르쿠트 군 기지'였나. 가자.

(성문 근처에 당당히 가보면 이벤트)

티아 :숨어! 오라클이야.

.....

리그렛 : 도사 이온은 찾았나?

병사 : 센트비나에는 찾아오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리에타 : '이온 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어머니의 원수'이 애들이 가르쳐 줬어.
아리에타 : 아리에타는 그 사람들 절대 용서 못 해.....

싱크 : 폰마스터 가디언(도사수호역)이 얼쩡거린다는 얘긴 어떻게 됐어.

병사 : 마르쿠트 군과 접촉했다는 듯 합니다.
병사 : 무엇보다 마르쿠트 놈들 기밀 사항이라 둘러대며 정보 공개를 소극적으로 돌리는 모양입니다.

라르고 : 내가 그 사령술사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아니스를 놓칠 일도 없었을 터. 면목 없군.

디스트 : 하~ 하하하하하! 그~래~서~ 말했잖습니까!
디스트 : 저 악질 제이드를 처치할 사람은, 이 화려한 신의 사자. 오라클 기사단 6 신장 장미의 디스트님 뿐이라고!

싱크 : 장미가 아니라 사신 아냐?

디스트 : 이 아름다운 내가 왜 장미가 아닌 저승사자라는 겁니까!

리그렛 : 지난 일은 이야기해 봤자 소용없지. 어떻게 하겠어 싱크?

디스트 :이봐요들.

싱크 : 엔게이브와 센트비나의 병사들은 철수시키자.

라르고 : 허나!

싱크 : 당신은 아직 부상이 낫지 않았어. 사령술사한테 당한 번 헛잖아. 한동안은 가만히 계시지?

싱크 : 그리고 놈들은 어차피 카이틀에서 국경을 넘을 수 밖에 없으니.

싱크 : 이대로 주둔해서 마르쿠트 군을 자극하면 외교 문제로 발전할 걸.

디스트 : 이봐요, 무시하지 마!

리그렛 : 카이틀에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구나.
리그렛 : 일단 타르타로스로 돌아가 검토해 보자.

라르고 : 전령! 제 1사단, 철수다!

병사 : 라져!

디스트 : 에이이익! 내가 아름다움과 현명함이 넘친다 해서 질투하는 거군요!

.....

제이드 : 이런..... 라르고를 완벽히 제거하지 못했었던 말인가.

가이 : 저게 6 신장이냐..... 처음 봤어.

루크 : 6 신장이란 게 뭐야 대체.

이온 : 오라클의 6명 간부를 말하는 거예요.

루크 : 그래도 방금 5명 밖에 없던데?

가이 : 「흑사자 라르고」에 「사신 디스트」였지.

가이 : 「열풍의 싱크」, 「요수의 아리에타」에다 「마탄의 리그렛」.....이니까.
가이 : 없었던 건 「선혈의 애쉬」구만.

티아 : 그들은 반의 직속 부하야.

루크 : 반 선생님의!?

티아 : 6 신장이 활동하고 있다면 전쟁을 일으켜 하고 있는 건 반이라는 얘기가 돼.....

이온 : 6 신장은 대영사 파입니다. 모스가 반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겠지요.

티아 : 대영사 각하해서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어요.

티아 : 크비 임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까다만,

티아 : 그 분개선 평화를 위한 임무를 제게 맡기셨는걸요.

루크 : 잠깐 기다려 봐! 반 선생이라 해도, 전쟁을 일으킬 생각 따윈 할 리가 없다니까.

티아 : 오빠라면 저지르고도 남아.

루크 : 뭐가 어째! 너야말로 모스인가 하는 놈의 첩자 아냐!?

이온 : 두분 다, 진정하세요.

가이 : 그러게. 모스건 반 요장이건 아무래도
적부터 친구였지.

가이 : 지금은 6 신장의 눈을 피해 전쟁을 막
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나.

티아 :그러네. 미안해.

루크 :흥. 선생을 나쁘게 말하는 건 인정
못 한다고.

제이드 : 끝난 모양입니다. 그럼 기지로 가실
까요.

가이 : 당신, 성격 죽이는데~.....

<페이스 채트 '오라클의 목적은?'>

루크 : 오라클 자식들,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모양이야.

티아 : 대영사 각하의 명령은 아닐 거야. 각하
계선 평화를 바라고 계시는 걸.

루크 : 아직도 반 선생 탓으로 돌릴 생각이야
너!

티아 : 그렇게 생각하면 앞뒤가 맞는단 말이
야!

가이 : 자자 진정하라고 돌 다.

가이 : 지금 중요한 건, 개선을 바라고 있지
않은 도사 이온이 오라클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가이 : 우리와 함께 바티칼을 목표로 삼고 있
다는 얘기가 아니겠나.

제이드 : 가이 말대로입니다. 누구의 뜻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제이드 :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라클의 습격이 바티칼에 도착할 때까지 계
속될 거라는 일입니다.

루크 : 나원 참. 난 강 돌아가고 싶을 뿐이구
만.....

(이제 가볍게 마을을 돌아다녀 보자)

(제이드가 악명 높은 군인이라는 이야기, 센트
비나의 상징은 '소일의 나무' 라는 거목이라는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다)
(민가에서 샌드위치 조리법을 배울 수 있다)
(구경이 끝났다면 제군군 기지로 향하자. 기지
라기 보다는 관저이다)

제이드 : 마르쿠트 제군군 제 3 사단 소속 제
이드 카티스 대령입니다.

제이드 : 그런 맥가반 장군과 회견을 할 수 있
겠습니까?

병사 : 수고하십니다. 맥가반 장군계선 손님을
대접하시는 중이니, 안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

그런 맥가반 : 그러니까 아버지, 오라클 기사
단은 입장상 예연사란 말입니다.

그런 맥가반 :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는 황제폐하의 칙령이.....

아버지 맥가반 : 시끄럽다 못난 놈!

아버지 맥가반 : 놈들의 개입 때문에 호드 전
쟁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로 끝났는지는 너도
알잖느냐!

제이드 : 바쁜신 중에 실례하겠습니다.

그런 맥가반 : 사령술사 제이드.....

아버지 맥가반 : 오오! 꼬마 제이드구먼!

제이드 : 덕분에 별고 없이 지냈습니다. 맥가
반 원수님.

아버지 맥가반 : 난 이미 퇴역했네. 그런 식으
로 부를 필요 없어.

아버지 맥가반 : 자녀야 말로 슬슬 승진을 받
아들이는 게 어떤가.

아버지 맥가반 : 원래대로라면 그 젊은 나이에
대장까지 올라갔을 것을.

제이드 : 어떨까요. 대령만 하더라도 과분하다
고 생각합니다만.

루크 : 제이드 높은 사람이었어?

가이 : 그런 모양이다.

아버지 맥가반 : 그렇지. 자네는 폐하와 어릴
적부터 친구였지.

아버지 맥가반 : 폐하에게 말씀드려서 저 오라
클 기사단을 어떻게 해 줄수 없겠나.

제이드 : 그들의 목적은 저희들입니다. 저희가
마을을 떠다면 그들도 떠나겠지요.

아버지 맥가반 : 무슨 이야기인가?

제이드 : 폐하의 어명이기에, 자세하게는 말شم
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맥가반 : 험형, 카티스 대령. 용무는 뭐
니까?

제이드 : 아아, 실례했습니다. 오라클 폰마스
터 가디언에게서 편지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가반 : 그것입니까..... 실례인 줄은 알
지만 만일을 위해 뜯어서 내용을 확인해 보았
습니다.

제이드 : 상관 없습니다. 보아서 곤란할 이야
기는 쓰여있지 않을 터이니깐요.

(편지를 읽는 제이드)

제이드 : 아무래도 반은 당신 앞으로 쓴 것인
모양입니다. 보시죠.

루크 : 아니스 편지라며? 이온이라면 모를까
왜 나한테 써.

루크 : 친애하는 제이드 대령님께...

"엄청 무서웠지만 간신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 그 소중한 건 확실하게 맡아 가지고 있답니
다~. 칭찬해 주세요☆"
"이제 곧 오라클이 센트비나를 봉쇄한다는 것
같으니 먼저 제 2 지점으로 가 있을게요오♡"
"아니스가 정말 좋아하는(난 몰라~☆ 고백해
버렸어♡) 루크 님♡ 계선 무사하세요?"
"되게 걱정하구 있어요. 빨리 루크 님♡ 께 만
나고 싶사와요☆"
"덤으로 이온 님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 또 만
나요☆ 아니스가"

루크 :눈이 어지러.....

가이 : 야야 루크 임마. 인기 만점인데.

가이 : 그래도 적당히 해 뒤라. 너한테는 나탈
리아 공주라는 약혼자가 있으니까.

루크 : 농담 마. 그런 짱나는 여자.....

티아 :제 2 지점이라는 곳은요?

제이드 :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이드 : 여기서부터 남서쪽에 있는 마을에서,
후브러스 강을 건너 다음에 있습니다.

가이 : 아이들이까지 가면 반 요장이랑 합류할
수 있겠는데.

티아 : 오빠가.....

가이 : 야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만 반 요장과는 남매잖아.

가이 : 바티칼 때처럼 갑자기 서로 칼질하는
건 사양이야.

티아 :알고 있어.

제이드 : 그렇, 저희들은 이만 실례하겠습니
다.

아버지 맥가반 : 오라클에게 쫓기고 있다면 내
가 힘을 빌려 주겠네.

아버지 맥가반 : 난 여기의 시민 대표로 선출
된 몸이지. 언제라도 의자하게나.

제이드 : 감사드립니다. 원수님.

(세계 지도를 손에 넣는다. 중요 아이템 란에
서 볼 수 있다)
(기지를 나선 후, 마을 안쪽의 사다리를 타고
소일 나무의 전방대로 올라가자)

루크 : 뭐야, 이 지저분한 건?

티아 : 누구 건지 모르는데 그렇게 다루는
건 그만 뒤!

제이드 : 이건, 맥가반 원수님의 물건인 듯 하
군요.

루크 : 아하. 그 영광님 말인가.

제이드 : 아무래도 소일 나무의 비밀을 풀어내
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티아 : 비밀..... 말씀하신가요?

가이 : 그러고 보면, 이 소일 나무에는 묘한
이야기가 많던데.

가이 : 그렇기에 비로소 센트비나의 상징이 된
거겠지만.....

제이드 : ... 그렇군요. 왜 이 나무만이 이렇게
까지 크게 자란 것인가? 나이가 2000이라는
말은 진실일지?

가이 : 한참 전에, 이 나무가 말라죽을 뻔 했
을 때 다른 초목까지 전멸될 뻔 했던 일도 있
었다더군.

제이드 : 예. 그래서 소일 나무와 마을의 다른
식물간의 인과관계도 연구되고 있지요.

루크 : 흥~응. 그런 걸 일부러 조사까지 하다
니. 저 영광님도 할 일이 없나 부다.....

가이 : 말은 그래도. 이 도시에서 자라는 꽃이
나 풀은 다른 지역에서 나질 않는다 이거야.

가이 : 그렇게 되면 역시 신기해 보이지 않나?

티아 : 그렇다면 이 마을은 소일 나무 덕분에
발전하고 있는 것일지도.

제이드 : 예. 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
나무를 조사하고 계시는 것이시겠죠.

유우 : 이 큰 나무, 우리 집이랑 같은 냄새가
나옴!

루크 : 뭐어? 티글네 나무랑 이 나무가 같은
종류이기라도 하다는 거야?

루크 : 이 동네 식물은 다른 데선 안 난다잖
어? 이 멍청아!

제이드 : . . .

티아 : 대령님? 왜 그러시는지요.

제이드 :그렇군. 원수님께서도 어떤 가설
에 도달하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루크 : 가설이라니 무슨?

제이드 : 비밀입니다♡ 어쨌든 가이. 당신 이
마을에 대해 잘 아시는군요.

가이 : 말했잖아. 책상 위 여행이 취미라고.
이것저것 연구하다 보면 그야 잘 알게 되지.

제이드 : 뭐어, 그런 걸로 해 두지요.

제이드 : 그리고, 여기 지도류는 가만히 놔둬
시다. 원수님을 방해하게 되면 가엾으니까요.

(도시를 나가려 하면 이벤트)

이온 : 멋대로인 것 같아 죄송하지만 좀 쉴 수
없을까요.

루크 :응? 너 또 얼굴이 안 좋네.

이온 : 죄송합니다.....

루크 : 손이 많이 가는 놈. 이봐, 여인숙에나
가자.

제이드 : 오호, 의외로 상냥한 구석이 있기도
하군요.

가이 : 그게 루크의 좋은 부분이란 거지.
가이 : 하인들에게도 높은 사람에게도 차별 없
이 평등하게 버릇없거든.

루크 : 시, 시끄러!

(여인숙으로 가서 주인에게 쉬겠다고 하자)

제이드 : 그러고 보니 이온 님. 타르타로스에서
끌려 나가 계셨습니까, 어디를 다녀오셨
는지?

이온 : 세피르트였습니다.....

루크 : 세피르트라면.....

티아 : 대지의 혼슬릇 중에서 힘이 가장 강력
한 10 군대를 말하는 거야.

가이 : 별의 웅이구멍이군. 기억임자(셀퍼 티
클)이라는 흑성 연료가 몰려 있어서 음소가 모

이기 쉬운 장소야.

루크 :아, 알고 있었어. 무식하다 보고서 연속으로 설명하지 마.

제이드 : 세피로트에서 무엇을.....

이온 :말씀드릴 수 없어요. 교단의 기밀 사항입니다.

루크 : 맨날 그거냐. 열받게시리.

이온 : 미안해요.

루크 : 맞아. 제이드, 당신은? 봉인술이란 거 몸에는 영향 없는 거야?

제이드 : 신체의 능력도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체내의 폰슬롯이 막힌 것이니까요.

유우 : 주인님 착하세염!

루크 : 아, 야냐! 이 아저씨가 쓰러지길라고 한다면 귀찮으니까.....

가이 : 썩스러워가지고.

루크 : 안 썩스러~!

티아 : 모두 해제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제이드 : 봉인술(안티 폰슬롯)은, 일정 시간마다 암호가 바뀌는 자율쇠 비슷한 겁니다.

제이드 : 조금씩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좀 더 걸릴 것 같군요.

제이드 : 뭐~ 원래 능력이 워낙 다르기에 다소 떨어진 정도라면, 전투력은 여러분에 비해 손색이 없을 듯 합니다.

루크 : 기분 나쁘게시리.....

제이드 : 미안합니다. 타고난 정직이라.

루크 : 흠. 그럼 이온은 졸라짱센 투명대령한테 맡기고 우리도 잠 좀 자자.

.....

제이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소모는, 병약하시기 때문만은 아닐 터.....

제이드 : 설마 이온 님께서도 루크와 마찬가지로 이신 게.....?

(속박 중 페이스 채트)

루크 : 휴우~ 겨우 좀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자겠네.

가이 : 하하. 루크 너한테 야속은 힘들었냐?

루크 : 별거 아냐..... 라고 말하고 싶어도. 역시 침대가 낫쥬.

가이 : 도적이냐 마물도 나타나지 않으니 불침번을 세울 필요도 없고 말이다.

루크 : 뭐, 어떤 놀이 나오더라도 여유 만만이겠지만.

가이 : 마르쿠트의 사령술사에 오라클 향상. 가이 : 거기에 로렐라이 교단 도사에 김라스카 공작의 아들. 이런 멤버라면, 도적이 아니라도 공무리를 뺄 걸.

이온 : 가이도 있고요.

가이 : 아냐 아냐, 난 그냥 하인이리니까.

루크 : 하하하.

제이드 : 그냥 하인, 일까요.....

(다음 날 마을을 나가려 할때 또 이벤트)

여행자 : 이런~ 어쩐다..... 액제류스로 가려 했는데 가도예를 따라가는 다리가 무너져 있어.

여행자 : 당신들도 남쪽으로 가려고? 다리는 못 건널테니 조심해.

여행자 : 그럼 별 수 없지. 난 엔게이브에나 가야겠어. 그럼 이만.

(그래도 일단 후브러스 강에 가 보거나 하자) (다리는 역시 건널 수 없으니, 뽕죽한 바위에서 있는 듯한 곳으로 가자)

<페이스 채트 '아니스란 대체...?'>

제이드 : 아니스와 만날 예정인 카이틀로 향하십시다.

루크 : 언제쯤에나 바티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냐고. 나 참.....

가이 : 로렐로 다리가 무너져 버렸으니, 바티칼로 돌아가려면 카이틀 항구에서 배를 탈 수 밖에 없겠고.

가이 : 딱 잘된 거 아냐? 수고를 덜어서.

티아 : 액세류스로 가는 길이, 재해로 무너져 버린 게 문제네.

티아 : 후브러스 강을 횡단할 수밖에 없을 거야.

제이드 : 지금 계절의 후브러스 강은 물의 흐름도 조용하고, 수위도 높지 않습니다.

제이드 : 최단거리를 지나게 된 셈이니 생각하기에 따라선 잘 된 것일지도 모르지요.

루크 : 흠음, 아니스도 그 강을 건넜다는 거야? 괜찮았을려나.

제이드 : 어이구 괜찮습니다. 아니스이거든요.

이온 : 아니스이니까요.

루크 : 흐~음. 뭐 암튼 후브러스 강으로 가자.

.....

가이 : 대체 아니스란 게 누구길래.....?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5)

[후브러스 강]

루크 : 여기만 넘으면 바로 킴라스카 영토라 이거지.

가이 : 그래. 후브러스 강을 건너 조금 가면 카이틀이라는 마을이 있다.

가이 : 그 부근은 비무장 지대라고.

루크 : 빨리 돌아가고 싶다아..... 이젠 온갖 일이 다 성가셔~.

유우 : 주인님, 힘내세염. 기운을 내세염!

루크 : 넌 열받으니까 말하지 말랬지!

유우 : 유우~.....

티아 : 화풀이는 그만 뒤. 유우가 불쌍해.

이온 : 루크. 귀찮은 일에 끌어들여 정말 미안해요.

루크 : 쫓.....

제이드 : 자, 루크 응석도 끝난 것 같으니 이만 갑시다.

루크 : 응석이란건 또 뭐야! 무시하지 마, 이 인간아!

(조금 내려가다 보면...)

제이드 : 루크. 잠시 기다리십시오.

루크 :왜 그러쇼? 미스터 대령?

티아 : 루크!!

제이드 : 지금까지 당신의 전투방식을 보아 왔습니다만, 당신은 음소(포닝)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크 : ? 음소를 쓰는 건 보술사가 하는 일인데? 나랑은 상관 없잖어.

제이드 : 이런 이런. 당신의 스승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 밖에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까.

티아 :

루크 : 선생을 업신여기지 마! 나한테 별 필요가 없었길래 배우지 않은 것 뿐이라고!

제이드 : 어찌 되었건 음소를 실전에서 쓰는 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제이드 : 그렇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싸우기 위해 배웠으면 한다는 겁니다.

루크 : 그딴 거 어케 알아!

가이 : 루크. 이쪽 형씨는 전투의 전문가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들어 두는 편이 나아.

루크 : 흠. 전쟁 해먹는 인간이니 뭐.

제이드 : 예에 말씀대로입니다. 딱 좋은 마물도 있고 하니 실전으로 가르쳐 드리지요.

제이드 : 저도 봉인술 때문에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이상의 짐덩어리는 원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위쪽 선택지를 고르면 FOF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페이스 채트 '물을 알보지 마'>

루크 : 다리가 떠내려갔다더니, 별 대단한 강도 아니네 뭐.

가이 : 이젠 물이 많이 줄은 거겠지. 비가 내린 다음엔, 강 색이 갈색으로 변해 난리잖냐?

루크 :그렇냐고 물어봐도 대답하기 곤란한데.

가이 :아차, 그 그랬지. 아무튼, 강 뿐만 아니라 물을 우습게 보다가 큰 코를 다치게 될 거다.

루크 : 너 그 소릴 자주 하더라. 바다가 무서운 법이다라던가.

티아 :확실히 바다는 무서울 것 같네.

제이드 :갈네..... 라니, 이거 꽤 신기한 뉴앙스이시군요.

제이드 : 다이아트가 있는 파다미야 대륙은 해수욕을 할 수 있을 장소도 상당히 많을 터입니다만.

티아 :아, 네에. 좀.....

제이드 : 뭐, 그런 그럴다 치고. 가이는 바티칼 출신이십니까?

가이 : 아닌데? 뭐 바다라면 좋아하지만. 해양 구조 자격증도 있고.

루크 : 헐. 너 진짜 뭐든지 다 할 줄 아는구나.

가이 : 그런 내가 말한다고. 암튼 강이건 바다건 자연을 몰로 보지 마.

루크 :그러면서, 왜 다들 나만 쳐다보는 거.

<페이스 채트 '자연재해'>

루크 : 아~ 축축하네... 진짜.

가이 : 너무 그러지 마라.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잖냐?

루크 : 그야 그렇지만..... 이럴 바에야 액제류스를 경유하는 편이 나았을지도.

티아 : 루크, 아직도 여행이 익숙하질 않아요?

루크 : 시끄러~. 무슨 일이던 짜증 안 나는 쪽이 나으게 당연한 거 아냐.

티아 : 다리가 무너져 버렸다는 듯 하니까, 당분간 액제류스 쪽으로는 못 가게 되지 않을까.

티아 : 복구에도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해. 천재지변 만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나 봐.

루크 : 흠, 이 부근은 지진이나 뭐 그런 재해가 잦은 거야?

가이 : 글썸다.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만. 자연재해란 게 원래 갑자기 일어나는 거고.

루크 : 영. 그야 그렇네.

(강을 건넌지 얼마 되지 않아 마물이 앞을 가로막는다)

티아 :라이거!

제이드 : 뒤쪽에서부터도 누군가가 옵니다.

가이 : '요수(妖獸)의 아리에타' 야. 걸렸나.....

아리에타 : 안 놓칠 거예요.....

이온 : 아리에타! 보내 주세요.
이온 : 당신이려면 알겠지요? 전쟁을 일으켜선 안된다는 걸.

아리에타 : 이온 님의 말씀..... 아리에타는 들어 드리고 싶어..... 요.
아리에타 : 하지만 그 사람들, 아리에타한테 적!

이온 : 아리에타. 이 분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리에타 : 아니..... 나쁜 사람들이예요.
아리에타 : 아리에타네 엄마..... 죽였는 걸!

루크 :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그런.....

아리에타 : 아리에타네 엄마는 집이 불타서 티클 숲에 이르렀어.
아리에타 : 엄마는 아이들을..... 아리에타네 동생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 뿐인데.....

티아 : 설마 라이거 여왕의 일? 하지만 저 앤 인간이잖아요?

이온 : 그녀는 호드 전쟁에서 양친을 잃고 마물의 손에 의해 자라났습니다.
이온 : 마물과 이야기 할 수 있는 힘을 평가받아 오라클 기사단에 입대했지요.

루크 : 그럼 우리들이 죽인 그 라이거가.....

아리에타 : 그게 아리에타네 엄마.....!
아리에타 : 아리에타 당신들 용서 안 할거야!
아리에타 : 땅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죽일 거예요!

(그 때, 타이밍 좋게 지진이 일어난다)

제이드 : 지진인가.....!

가이 : 이봐, 저 증기 비슷한 건.....

티아 : 장기(障氣)야.....!

이온 : 큰일입니다! 장기는 맹독이에요!

아리에타 : 짹!!

(털퍼덕)

루크 : 들이마시면 죽는다는 거야?!

티아 :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마시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거야. 아무튼 여길 벗어.....

(땅이 갈라진다)

루크 : 어쩔 거야! 도망도 못 가잖아!

티아 :음.

제이드 : 보가(譜歌)를 노래해서 어쩔 셈이십니까.

이온 : 기다리세요, 제이드. 이 보가는.....

이온 : 유리아의 보가입니다!

.....

가이 : 장기가 사라졌어.....!?

티아 : 장기가 가진 고정 진동과 같은 진동을 부여했어.
티아 : 일시적인 방어벽이야. 길게는 못 견딜 거야.

제이드 : 소문으로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리아가 남겼다고 하는 7곡의 보가.....
제이드 : 그러나 그것은 암호가 복잡해서 읽을 수 있었던 자가 없었다 합니다만.....

가이 : 따지는 건 나중이야. 여기에서 벗어나야지.

제이드 : 그렇군요.

(제이드는 무기를 꺼내든다)

루크 : !!!

루크 : 그, 그만 뒤! 왜 개를 죽이려 드는 거야!

제이드 : 살려두면 또 목숨을 노리려 들 겁니다.

루크 : 그렇다고는 해도, 정신을 잃고 저항도 할 수 없는 상대를 죽이겠다니.....

티아 :정말로, 너무 몰러.

루크 : 시끄러! 쌀쌀맞은 지지배!

이온 :제이드. 그냥 가 주세요.
이온 : 아리에타는 원래 제 담당의 폰마스터 가디언입니다.

제이드 :뭐 좋습니다.

가이 : 장기가 살아나더라도 마시지 않을 장소까지 옮기는 정도는 괜찮겠지?

제이드 : 여기서 놓아 보내겠다는 이상 또 불만을 말할 처지는 아니겠지요.

티아 : 슬슬..... 한계야.

이온 : 가죠.

(티아가 포스 필드를 습득한다)

.....

루크 : 장기가 줄었구만.

티아 : 여기라면 오랜 시간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 이상 문제 없을 거야.

(필드로 나가자)

[필드, 루그니카 평원 남부]

<페이스 채트 '카이틀로'>

제이드 : 조금 서두르실까요.

루크 : 왜. 이젠 해안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면서?

제이드 : 아리에타가 쫓아오면 곤란하니까요.

루크 : 그, 그런가, 그랬지 참.....

가이 : 자. 아리에타한테 잡히기 전에 빨랑 카이틀로 가자.

(가다 보면 이벤트)

제이드 : 잠시 괜찮겠습니까?

루크 :왜 또. 이제 금방 카이틀인데. 이런 데서 뭘 하자고.

이온 : 티아가 불렀던 보가(譜歌) 일이군요.

제이드 : 예. 이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티아의 보가는 제가 아는 보가와는 다릅니다.
제이드 : 거기다 이온 님 말씀에 따르자면, 이것은 유리아의 보가라 하지 않습니까.

루크 : 앙? 그래서 그게 왜?

가이 : 유리아의 보가란 건 특별하거든.
가이 : 원래부터 보가라는 건, 보술의 영창(캐스팅) 부분만을 써서 선율이랑 합해 놓은 술법이라고.
가이 : 까놓고 말해서 보술 만큼의 힘은 없어.

이온 : 하지만 유리아의 보가는 다릅니다. 그녀가 남긴 보가는 보술과 동등한 힘을 지닌다는 듯 해요.

티아 :제 보가는 분명 유리아의 보가입니다.

제이드 : 유리아의 보가란, 보와 선율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까?

루크 : 그런 거야? 그냥 부르면 되는 게 아니고?

가이 : '악보에 담긴 의미와 상징을 바르게 이해하여 선율에 올리는 것으로 숨겨진 영지(英知)의 지도를 만든다'.

루크 :뭐? 의미를 모르겠어.

가이 :라는 얘기지. 세상에서 단 한명에게만 전수되는 기술 비슷한 거라더라.

티아 : 아..... 응. 그 말대로야. 잘 아네.

가이 : 옛날 주워들은 게 있어서.

제이드 :
제이드 : 당신은 어떻게 유리아의 보가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죠?

티아 :그건 저희 일족이 유리아의 피를 이어 받았기에..... 라는 사정입니다.
티아 : 진짜인지 어떤지는 몰라요.

제이드 : 유리아의 자손..... 그렇군.....

루크 : 그렇다는 건 반 선생도 유리아의 자손일까!?

가이 :뭐, 그렇겠지.

루크 : 찍인다~! 역시 내 스승님! 멋져!

티아 : . . .

제이드 : 감사했습니다. 조만간 기회가 온다면, 보가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군요.
제이드 : 특히 「대보가(大譜歌)」에 대해서.

루크 : 대보가? 뭐야 그건.

이온 : 유리아가 로랄라이와 계약한 증거로, 그 힘을 행사할 때에 사용했다는 보가를 말하는 거예요.

티아 :슬슬 가지요. 이미 의문에는 대답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국경의 요새 카이틀]

(조금 걸다 보면...)

루크 : 어, 아니스 아냐?

아니스 : 증명서도 여권도 잃어버렸답니다아. 지나가게 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병사 : 유감입니다만, 통행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스 :아잉~.
아니스 : (돌아서서).....너 발길에 등 뒤 조심해라.

이온 : 아니스. 루크한테 들리겠어요.

아니스 : !!!

(아니스의 태도가 돌변한다...)

아니스 : 까야~♡ 아니스의 왕자님♡

가이 :여자란 무섭군.

아니스 : 루크 님♡ 무사하셔서 다행이세요~! 너무 걱정하구 있었어요~!

루크 : 이쪽도 걱정했다고. 마물이랑 싸우다가 타르타로스에서 추락했다면서?

아니스 : 그렇습니다..... 아니스, 좀 무서웠어요..... 예해했.

이온 : 그렇다니까요.
이온 : 「이 자식 너 죽여버릴 거야!!」 라며 비명을 질렀었죠.

아니스 : ㄹ 이온 님은 조용히 해 주세요!
아니스 : 친서 만든 제대로 잘 지켜냈어요. 루크 님♡ 칭찬해 주세요♡

루크 : 어, 그래, 잘 했다 야.

아니스 : 아잉♡

제이드 :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아니스 : 아잉♡ 대령님도 절 걱정해 주셨어요?

제이드 : 예예. 친서가 없어져서는 큰일이니깐요.

아니스 : 대령님은 심술쟁이이세요.....

티아 : 그런데, 어떻게 검문소를 통과해야 할까요? 저도 루크도 여권이 없는걸요.

??? : 여기서 죽을 놈들에게 그런 건 필요 없어!

(기습을 피하려다 루크는 나동그라진다)

반 : 물러나라, 애쉬!

애쉬 :반, 비켜!

반 : 이게 무슨 짓이냐. 난 네게 이런 명령을 내린 기억이 없다. 철수해라!

(애쉬는 바깥같이 사라진다)

루크 : 선생님!

반 : 루크. 방금의 피하기는 보기에 좋지 않았다.

루크 : 헛. 만나자마자 갑자기 그러니까.....

티아 :반!

반 : 티아, 무기를 거두어라. 난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다.

티아 : 오해.....?

반 : 좀 진정해라. 내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을 마음이 생겼다면 속소까지 오도록.

루크 : 반 선생님! 도와 줘서..... 고마워요.

반 : 고생이 많았구나 루크. 하지만 잘 분발했다. 역시 내 제자로군.

루크 : 헤..... 헤헛!

.....

이온 : 티아. 이 상황에서는 반의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해요.
이온 : 서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기회를 무시하고 싸우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크 : 그러게. 번번이 무기나 꺼내들고 살벌한 지지배.

티아 : 이온 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가이 : 그럼 반 요장을 따라가 볼까.

(아니스가 동료가 된다)

<페이스 채트 '선혈의 애쉬'>

가이 : 방금 그게 「선혈의 애쉬」라. 너무 갑자기라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아니스 : 깜짝 놀랐어요~.
아니스 : 수석총장 님이 돌지 않았더라면 루크 님, 검에 베어 버렸을지도.

가이 : 그건 그렇다 치고, 이온을 노릴 뿐만 아니라 갑자기 치고 들어온다 이권가.
가이 : 놈들도 그만큼 필사적이라는 얘기일려나?

제이드 :그건 어떨까요. 뭐, 주의는 필요하겠지요.

가이 : 그래.

(속소로 가서 반에게 말을 걸자)

반 : 좀 진정했느냐?

티아 :왜 오빠는 전쟁을 막으려 하시는 이온 님을 방해하는 거지?

반 : 이런 이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건가.

루크 : 아니죠? 선생님!

티아 : 하지만 6 신장이 이온 님을 유괴하려.....

반 : 좀 진정해라 티아. 원래부터가. 난 왜 이온 님께서 여기 계시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이냐.

반 : 교단한테서는, 이온 님이 다아트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셨다는 이야기밖에 듣지 못했네.

이온 : 미안합니다, 반. 제 독단이에요.

반 : 이렇게 된 경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이드 : 이온 님을 데리고 나온 것은 저입니다. 제가 설명하도록 하지요.

(설명)

반 :과연. 사정은 알았다.
반 : 분명 6 신장은 내 부하이지만, 동시에 그들은 대영사 파이기도 하지.
반 : 아아 대영사 모스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가이 : 그런 거군.
가이 : 반 요장께서 소환되신 것도, '마르쿠트에게서 이온 님을 되찾아라' 라고 시키려는 거였을지도.

반 :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반 : 방금 전 너희들을 습격한 애쉬도 6 신장이다만, 놈이 활동중이라는 사실은 나도 몰랐다.

티아 : 그럼 오빠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야?

반 : 아니, 부하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관계가 없지 않군.
반 : 허나 나는 대영사 파가 아니다.

아니스 : 처음 듣는 이야기에요, 수석총장 님.

반 : 6 신장의 지휘자이기 때문에 대영사 파에 휘쓸리는 경향은 있다만.
반 : 그것보다 티아. 너야말로 대영사 휘하 정보부에 소속되어 있을 터. 왜 여기에 있지?

티아 : 모스 님의 명령으로 어떤 것을 탐색하고 있어. 이 이상은 말 못해.

반 : 제 7 보석(講石)이냐?

티아 : —— 기밀사항입니다.

루크 : 제 7 보석? 그건 또 뭐야?

일행 :

루크 : 왜 그래. 한심하다는 얼굴로.....

가이 : 아주 그냥 온실속의 푸성귀이지 원.....

티아 : 시조 유리아가 2000년 전에 노래했던 예언이야. 세계의 미래사가 쓰여 있어.

이온 : 너무나도 장대한 예언이기에 그게 기록된 보석도, 산 만한 크기인 것으로 7 개가 되었다.

이온 : 그것이 여러 영향으로 파괴되어서, 일부는 하늘에 보이는 보석대(講石帶)가 되고 일부는 지표로 떨어졌죠.

아니스 : 지표에 떨어진 보석은, 마르쿠트와 킨라스카에서 서로 차지하려 들어, 그게 전쟁의 발단이 되었다구요.
아니스 : 보석이 있다면 그 만큼 세계의 미래를 알 수 있으니까요.....

루크 : 흐~음. 암튼 7 번째 예언이 쓰여 있다는 게 그 제 7 보석이라는 거네.

제이드 : 제 7 보석은 유리아가 예언을 노래한 뒤, 스스로 감추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이드 : 그렇기에 여러 세력이 제 7 보석을 찾고 있습니다.

루크 : 그걸 티아가 찾고 있다는 거야?

티아 : 글썸, 어떨까.....

반 : 뭐 됐다. 아무튼 나는 모스 공과는 관련이 없네.

반 : 6 신장에게도 공연한 짓은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 두마.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른다만...

가이 : 반 요장. 여권에 대해서입니다만.....

반 : 아아. 파브레 공작에게서 임시 여권을 받아두었다.

반 : 만일을 위해 가져온 예비까지 합치면 딱 사람 수에 맞겠지.

(여권을 받는다)

루크 : 이걸로 국경을 넘을 수 있겠군.

반 : 여기서 쉬고 나서 가도록 해라. 난 먼저 국경을 넘어 배를 수배해 두마.

가이 : 카이틀 군항에서 량데뷰라는 거군요.

반 : 그렇다. 국경을 넘어 바다를 끼고 가면 금방이다. 길 잃지 말도록.

.....

루크 :헤헤, 역시 반 선생한테 잘못 없었잖어.

티아 : 신용 못하겠어.

루크 : 난 니 쪽이 더 못미더운데?

티아 :그러던지.

가이 :싸늘한 관계구만.

<페이스 채트 '아니스 등장'>

티아 : 아니스.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니스 : 루크 님♡ 저 혼자서 쓸쓸했어요 오~♡

루크 : 어어, 그래;; 잘 함유해서 다행이야.

이온 : 수고가 많았네요 아니스.

제이드 : 하마터면 걱정할 뻔 했지 뭐니까.

아니스 : 에잉~. 처음부터 걱정 좀 하시라구요.

티아 : 이제 나머지는, 바티칼 국경으로 향하는 것 뿐이네.

제이드 : 그렇습니다. 6 신장에게 습격이라도 받지 않고서 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아니스 : 왜 왜? 가이 나한테 흥미 있어요?

가이 : 아니, 제이드와 이온의 말을 듣다 보니 대체 어떤 애일까 싶어서.....

아니스 : 으음~. 전, 그냥 평범하고 귀여운 여자애랍니다.

제이드 : 아니스 평범의 기준은 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

이온 : 하하하.

제이드 : 대령님 너무해~! 이온 님도 웃을 상황 아녜요~!

루크 : 야 야. 히히덕거리지 말고 가자 가.

가이 : 어 미안미안. 뭐 아니스, 잘 부탁한다.

아니스 : 잘 부탁~♡

(여권이 있으므로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다. 국경을 넘어 남쪽의 카이틀 항구로 가자)
(킨라스카 방면 검문소의 속소에서 쉬면 가이와의 수련 이벤트가 일어나, 루크가 순신검을 배운다)
(속박 중에 페이스 채트)

루크 : 너, 왜 그리 반 선생이랑 사이좋게 못지내는 거야. 남매라면서?

티아 : 말 했지 않아? 신용할 수 없어서 그래. 오빠는 아직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루크 : 너도 아직 숨기고 있는 거 있잖어.

티아 :

루크 : 육비권이나.

유우 : 싸우지 맙시다, 예영~!

루크 & 티아 : ...!(찌릿)

유우 : 유우~.....

가이 : 관뉘라 유우. 옛 말에 '부부싸움은 개도 안 먹는다' 라는 말까지 있으니.

루크 & 티아 : ...!! (찌릿)

가이 : ;; 유우~...

유우 : 따라하지 말아 주세염~!

가이 : 하하하하.

루크 : 웃기는 짓 하지 말어.

티아 : 후우.

가이 : 슬슬 가자. 둘 다. 싸우겠다면 일이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잖냐.

루크 : 알았다니께.

티아 : 그러네.

[카이를 군항]

루크 :어영? 뭐지?

티아 : 마물 울음소리.....

아니스 : 저건..... '음침에타' 의 애완동물이야!

가이 : 음침에타라면.....?
가이 : (털썩).....흐악!

아니스 : 아리에타! 6 신장 요수의 아리에타!

가이 : 아..... 알았으니까 손대지 마~~!!

티아 : 항구 쪽에서 날아왔지. 가 보자.

제이드 : 자 가이. 너무 좋아하지 말고 이만 가십시오.

가이 : 싫어하는 거라고~~~!!

<페이스 채트 '습격! 아리에타'>

티아 : 역시 온 모양이야. 아리에타.

가이 : 그래.

아니스 : 왜 왜? 음침에타랑 무슨 일 있었어?

가이 : 후브러스 강에서도 나타났었다니까.
가이 : 그 때는 그 애, 장기에 걸려 쓰러져 버렸었지만.....

이온 : 제가 부탁해서 그냥 놀아달라고 했거든요.

아니스 : 후브러스 강이라면 바로 저기잖아. 그러고도 바로 쫓아왔다는 거야?

아니스 : 변함없이 음침에타 쟈, 끈질겨~. 사는 것도 급하구~.

아니스 : 거기다, 이 쪽 얘기는 전혀 듣지도 않구. 진! 짜! 귀찮아~.

제이드 : 이렇게 될 줄은 알고 있었습디만. 이미 지난 일이니, 이 건은 그만 하지요.

이온 : 지금은 우선 소동이 일고 있는 쪽으로 가 봐요.

티아 : 그럴네요.

(조금만 나아가 보면 항구가 난장판이 된 광경을 볼 수 있다)

루크 :으.....

반 : 아리에타! 누구의 허가를 받고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아니스 : 역시 음침에타! 남한테 폐 끼치지 말라구 했잖아!

반 : 너희들이냐...

아리에타 : 아리에타, 안 음침하다 뭐! 아니스 심술쟁이....!!

티아 : 무슨 일이 있었지.

반 : 아리에타가 마을을 시켜 배를 습격하고 있던군.

아리에타 : 총장님..... 죄송해요..... 애쉬가 그러라길래.....

반 : 애쉬라.....

(하늘로 이탈하는 아리에타)

아리에타 : 배를 고칠 수 있을 정비사 님은 아리에타가 데려갈게요.

아리에타 : 돌려받고 싶다면, 루크와 이온이 코럴 성으로 와라..... 예요.

아리에타 : 두 사람 안 오면..... 저 사람들..... 죽일..... 거예요.

.....

가이 : 반 요장, 배는요?

반 :미안하다. 전멸인 모양이다.
반 : 기관부 수리에는 전문가가 필요하나, 골려간 정비사 이외에게 지시하자면 훈련선이 귀환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제이드 : 아리에타가 말하던 '코럴 성' 이라는 곳은?

가이 : 분명, 파브레 공작의 별장이었어. 이전 전쟁에서 전선이 막쳐오는 바람에 포기했던.....

루크 : 어? 그랬어?

가이 : 야 야! 7년 전 니가 유괴당했을 때 발견되었던 데가 코럴 성 아냐 임마!

루크 : 나 그 때 일은 하나도 기억 안 난다니까. 혹시, 가 보면 기억이 날려나.

반 : 갈 필요는 없겠지. 훈련선이 귀환하는 것을 기다려라. 아리에타 일은 내가 처리하마.

이온 :그렇습디만, 그것은 아리에타의 요구를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됩디다.

반 : 지금은 전쟁을 회피하는 쪽이 중요하지 않으니겠는지요?

반 : 루크. 이온 님을 데리고 국경으로 돌아가다오. 여기에는 간이 휴식시설밖에 없으니 말이다.

반 : 난 여기 남아서 아리에타 토벌에 착수해야겠다.

루크 : 예, 예. 선생님.

(항구를 나가려 하면...)

정비대원 1 : 기다려 주십시오! 도사 이온!

아니스 : 도사님께 무슨 불일이지요?

정비대원 1 : 요수의 아리에타에게 잡혀간 것은 저희 대장님이십니다!

정비대원 1 : 부탁드립니다! 부디 도사님의 힘으로 대장님을 구해 내 주십시오!

정비대원 2 : 대장님은 예언을 충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경건한 로렐라이 교 신자이십니다.
정비대원 2 : 올해의 생탄제 예언에서도, 큰 재앙이 피해갈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서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정비대원 1 :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좋.....!

이온 :알겠습니다.

제이드 : 괜찮으시겠는지요?

이온 : 아리에타는 제가 오라고 이야기했었지요.

티아 : 저도 이온 님의 생각에 찬성이예요.

루크 : 차가운 지지배가 별 소릴 다 하는구만.....

티아 : 재앙이 피해갈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자를 죽게 내버려둔다면, 예언을 무시하는 일이 돼.

티아 : 그건 유리아 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일이야. 그리고...

루크 : 그리고?

티아 :아무것도.

제이드 : 그야 예언은 지켜야 하겠습니까만은.

아니스 : 저기요, 저도 코럴 성에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요.

가이 : 코럴 성에 간다면, 나도 좀 조사해 보고 싶은 게 있지. 따라갈란다.

제이드 : 아리에타도 여성입니다만.

가이 : 새, 생각나게 하지 좀 마!

유우 : 주인님도 가실 거예요?

루크 :가기 싫으. 선생도 안 가는가 낫겠다고 말하셨자녀.

이온 : 아리에타는 당신도 오라고 이야기 했었는데요.

정비대원 2 : 대장님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대장님은 바티칼에 남은 가족도.....

루크 :알았어. 가면 되잖아? 아~, 피곤해~.....

정비대원 1 : 가..... 감사합니다!

정비대원 2 : 코럴 성은 여기에서 남동쪽으로 바다를 끼고 가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제이드 :라 합니다. 가지쇼.

루크 :응? 당신 코럴 성에 가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었어?

제이드 : 아니오, 별로. 저는 어느 쪽이라도 좋습니다.

루크 : 뭐야 그게. 별난 인간.

[필드, 루그니카 평원 남부]

<페이스 채트 '코럴 성으로'>

루크 : 결국 가야 되냐.....

이온 : 정비대장도 아리에타도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가요. 정말 미안해요. 끌어들여 버려서.....

루크 : 그만 해 임마. 싸울 수 없는 니가 간다는데 내가 안 갈 수도 없겠잖냐.

루크 : 마물이 나오면 넌 틀러나 있어.

아니스 : 루크 니임♡ 저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사와요♡

이온 : 예, 아니스가 보호를 받아요? 그럴 필요가 있으~!...

아니스 : 덮쳐오는 마물! 연약한 소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왕자님♡

아니스 : 아, 공자이셨지. 아무튼 멋져요 그런거!

이온 : 하하.....

루크 : 나, 나몰라지 말고, 빨랑 가자니까!

아니스 & 이온 : 예!

<페이스 채트 '소녀의 비밀'>

아니스 : 흥흥~ 흥흥흥~♪

루크 : 야, 티아. 뭐 좀 물어보자.

티아 : 뭔데?

루크 : 있잖아, 웬지 다들 그런갑다 하길래 물어보기 힘들었는데.....

루크 : 아니스 인형 저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보슬이냐?

티아 :글세.

루크 : 글세라니.....

가이 : 나도 신경 쓰이더라 그거. 야, 루크, 네가 좀 물어보고 와.

루크 : 내가? 그런 건 가이가 할 일이잖아... 루크 : 아니스. 좀 물어봐도 돼냐? 그 인형 말인데.....

아니스 : 이 '토쿠나가' 말씀이세요?

루크 :토쿠나가, 라. 앙튼 그거, 어떻게 커지는 거야?

아니스 : 그건 말이죠. 소녀의 비밀이라니다 ☆

루크 : 뭐어?

아니스 : 보솔의 일종이지만요, 자세한 건 로렐라이 교단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소녀의 비밀이라니다.

루크 :라는 것 같은데, 티아?

티아 :난 인형사(퍼펙터)가 아닌 걸. 몰라.

루크 :으~. 신경쓰이는데, 망할.

(코렐 성에 가기 전 숙박을 하면 페이스 채트)

가이 : 어지간히 돌아가기 힘들구나, 루크.

루크 : 글게 말야. 겨우 킴라스카 영토에 들어 왔는데도.....

티아 : 카이틀에서 배에 타기만 하면, 여행 진도가 빨라질 거야. 조금만 참아.

루크 : 그래서 참고 있잖아. 어린애 취급하지 말란 말야!

티아 : 그럴구나..... 미안해.

(루크는 가 버린다)

제이드 : 어린애는 자신이 어린애라는 것을 모르기에 어린애, 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렐 성으로 가자. 들은 대로 항구에서 동쪽이다)

[코렐 성]

루크 : 여기가 내가 발견되었다는 장소.....? 엉망 아냐. 뭐라도 나올 것 같아.

가이 : 어때? 뭐 좀 생각 안 나냐? 유괴 당했을 때의 일이라던가.

아니스 : 루크 님께선, 옛날 일 아무것도 생각 안 나신다면서요?

루크 : 으~음..... 7년 전에 바티칼의 집에 돌아갔던 부분 밖에 기억이 없어.

아니스 : 루크 님 안돼셨어. 제가, 기억을 되찾으시도록 거들어 드릴게요!

티아 :이상하네. 이미 오래도록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을 텐데 사람 손이 가 있는 것 같아.

유우 : 마물이 있어염..... 기척이 느껴져염.

가이 : 정비대장이라는 작자는, 안에 있을러나. 가 보자.

<페이스 채트 '기억'>

루크 : 역시, 앙것도 기억 안 나.

가이 : 그러냐. 뭐, 돌아다니다 보면 뭔가 떠올리지도 모르지.

루크 : 딱히 아무래도 좋지만. 곤란할 것도 없고.

가이 : 보통은 신경 쓰일 것 같은데 말이다. 네 그런 부분은 감탄스럽다니까.

루크 : 그래? 어릴 적 일 따위, 어차피 시시한 일 뿐일텐데 뭐.

가이 : 나탈리아 님도 안됐구만 참.....

<페이스 채트 '꿈의 계획'>

아니스 : 하우~. 여기가 미래의 아니스 별장.....

루크 : 음? 뭐라고 하지 않았냐?

아니스 : 아, 루크 님! 여긴 루크 님 별장이지요.

루크 : 어 뭐랄까, 아버지 거지. 자세한 건 모른겠지만.

가이 : 분명..... 여길 실제 별장으로 쓰고 있던 건, 상당히 예전 일이었다는 것 같아. 가이 : 세대가 다를 정도..... 라고 들었지.

루크 : 그럼, 왜 지금도 신주단지 모시듯 간직하고 있는 거야?

가이 : 간직하고 있다기 보다는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거 아니겠냐?
가이 : 뱀두고 있는 것 치고는 유지비도 안 들 테고.

아니스 : (충얼).....오케바리. 장래엔 여길 아니스 전용 별장으로.

루크 : 음.....? 아니스는 혼잣말 많은 애구만. 이상하게.

.....

아니스 : 쿠궁~~~~~!!! 난데없이 꿈의 계획에 위기가 닥친 걸지도.....

(성에 들어가면...)

루크 : 여기가 우리 별장이었던 말이지.....

가이 : 루크. 너무 혼자 떨어지지 마라.

루크 : 아 참! 안다니까.....

(옆의 석상이 움직인다)

제이드 : 루크!?

티아 : 루크! 뒤!

루크 : 어?

(서프라이스 배틀)

가이 : 그래서 말했잖나. 떨어져 다니지 말라고.

티아 : 당신이 방심하는 바람에 모두의 진형이 무너지고, 전투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반성해 줘.

루크 : 시꺼~! 알 게 뭐야! 도대체가 뭐냐고! 방금 그건!

(서프라이스 엔카운트의 설명을 듣게 된다)

제이드 : 침입자 격퇴용의 보솔인형인 듯 하군요.

제이드 : 이것은 비교적 신형인 듯 합니다. 겉모양은 엉망입니다만.

아니스 : 아잉~. 루크 니임! 아니스 너무 무서웠어요~.

가이 : 자자, 저런 마물도 있으니까.....

루크 : 알았어 그래! 조심하면 되잖아! 이씨!

<페이스 채트 '유우가 무서워 하는 것'>

루크 : 아까 마물, 몸 안이 파랗게 빛나던데.

가이 : 그래. 어쩌면 문의 장치와 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

아니스 : 그치만, 다가가면 획 사라져서 도망가 버려요~.

티아 : 어떻게 해야 되담.....

유우 : 주인니임~, 쥐, 쥐가 있어염~! 무서워염~!

루크 : 아잉!

제이드 : 유우는 쥐를 무서워합니까?그러도 너무 일반적이라 약간 유감입니다.

가이 : 일반적이라니.....

루크 : 아~ 짜증나게~, 그딴 건 불이라도 뽐

어서 쫓아 버려.

유우 : 유우우~, 알겠어염~.

루크 & 티아 & 제이드 & 가이 : 맞아, 불이야!

아니스 : 불~?

(페이스 채트대로, 도망치는 유령은 불을 맞춰서 잡을 수 있다. 구슬의 색을 맞춰가며 진행하자)
(자주색 빛이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루크 : 뭐야!? 왜 이런 기계가 우리 별장에 있는 거지?

제이드 : 이것은.....!

아니스 : 대령님, 뭔가 이시겠어요?

제이드 :아닙니다확신이 없어서야.....

제이드 : 아니, 확신을 할 수 있었다 치더라도.....

루크 : 왜, 원데..... 나랑 상관 있는 거야?

제이드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좀 더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가이 : 희한하군. 당신이 고민을 다 하고.....
가이 : 가이 나도 신경이 쓰이는 구석이 있어. 혹시 당신이 생각하는 게 루크 유괴랑 관련이 있다면.....

(그 때 쥐가 짹짹)

아니스 : 까악~(털썩).

가이 :으, 우왁!! 하지 맞!!!

(부자연스러운 정도로 반응하는 가이)

아니스 : 뭐, 뭐야.....?

가이 :어나.....

제이드 : 방금의 놀람은 자연스럽지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이 :미안하군. 몸이 멧대로 반응해서.....
가이 : 미안했다 아니스. 다치진 않았나?

아니스 :으, 응응.

이온 :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냥 여성을 싫어하는 체질이라고는 생각되질 않아요.

가이 : 미안하다..... 나도 몰라. 어릴 적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가이 : 단지 빠져 있는 기억이 있긴 한데, 어찌면 그게 원인일지도.....

루크 : 너도 기억에 문제가 있었어?

가이 : 아냐..... 라고 생각해. 한 순간뿐이거든..... 곁여린 기억은.

티아 : 어떻게 한 순간이란 걸 아는데?

가이 : 알지. 빠져 있는 건..... 내 가족이 죽었을 때의 기억 뿐이니까.
가이 : 내 이야기는 이만 됐어. 그것보다 당신 얘기는.....

제이드 : 당신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제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페이스 채트 '가이의 마음'>

루크 : 가이 녀석..... 양친을, 잃었었구나.....

티아 : 당신도 몰랐던 일이라는 거네.

루크 : 어, 나, 유괴당하기 전의 기억 다 잃어버려서. 어릴 때 들었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억 못하니까.
루크 : 거기다 재, 자기 옛날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말야.

티아 : 대령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
티아 : 그가 이야기 해 줄때까지 따지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해.

루크 :가이에 대해서라면, 니가 말 안해도 다 안다고! 번번이 시끄럽게.

<페이스 채트 '의문의 음기관(音機關)'>

제이드 :

아니스 : 대령님임, 아까 보업(講業)장치를 보시고 나서부터 뭔가 계속 생각하고 계시네요.

제이드 : 추궁이라니..... 아니스 답지 않군요.

아니스 : 대령님의 진지하신 얼굴이 희한해서 그래요.

제이드 : 거 이상하군요. 저는 언제나 진지 그 자체입니다만.

아니스 : 예엑~.

제이드 : 하하하. 어쨌든, 저 음기관에 대해서는 확신을 얻었을 때 스스로 이야기 하겠습니까.

제이드 : 그러니 지금은 미루어 두지요. 아시겠습니까?

아니스 : 네에~.

(진행하다 보면 아리에타와 같이 다니던 라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 쫓아가자)

루크 : 저있다!

아니스 : 루크 님! 쫓아가요!

유우 : 유우도 갈래염!

이온 : 아, 기다려 주세요. 아리에타에게 너무 난폭한 짓은 하지 말아 주세요!

티아 : 기다려! 함정일지도 몰라.....!

제이드 : 이런 이런, 가 버렸습니다. 성질이 급하군요.

가이 :바보구만~, 저 녀석들!

[코럴 성 옥상]

(바보 루크는 올라가자 마자 마을에게 낚인다)

아니스 : 아잉..... 이온 님을 감싸고 말았어요. 루크 님, 죄송해요.....

(획)

아니스 : 아야~!? 너무해 아리에타! 아프잖아!

아리에타 : 너무한 건 아니스잖아.....! 아리에타의 이온 님을 뺏아 간 주제에!

이온 : 아리에타! 그게 아니예요. 이온 : 당신을 폰 마스터 가디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이 : 루크!

티아 : 정말..... 덜렁이라니깐.....!

(디스트가 나타나, 아리에타와 함께 루크를 들고 된다)

유우 : 아! 큰일이예요!

제이드 : 디스트까지 엮여 있었습니까. 이것 참 피곤하군요.

티아 : 괜찮을려나..... 정말.....

가이 :응? 티아, 왜? 방금 뭐라고 했어.

티아 :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어서 루크랑 정비대장을 구해 내자.

아니스 : 제 탓이에요... 흐앙. 정말 분해! 아리에타 저 바보!

제이드 : 자 자, 진정하십시오. 저 모양새라면, 목숨을 빼앗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이드 : 거기다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이온 님께서는, 아직 여기 계시니 말입니다.

[아까 지나쳤던 의문의 음기관]

디스트 :과~연. 음소 진동수까지 동일하다니이. 이걸 완벽한 존재입니다.

싱크 : 그런 건 어찌되었건 상관 없어. 놈들이 여기로 돌아오기 전에 정보를 지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디스트 : 그렇게 여기 정보가 소중했다면, 애쉬보고 이 코럴 성을 쓰지 말라고 했더라면 됐을 게 아닙니까.

싱크 : 그 멍청이가 멋대로 쓴 거야. 나중에 각하보고 벌을 내려 주십사 해야겠지.

싱크 :봐, 여기 멍청이도 눈을 뜬 모양이야.

디스트 : 상관 없습니다. 이미 그의 동조 폰슬롯은 개방시켰으니까.

디스트 : 그럼 저는 실례하겠습니다. 어서 이 정보를 해석하고 싶으니까요. ㅎㅎㅎㅎ.

루크 :너네들 대체..... 나한테 뭘.....

싱크 : 가르쳐 줄 의리가 없는데.

(가이가 등장. 싱크는 공격을 피하지만...)

싱크 : 아차!

(싱크가 디스크를 되찾기 위해 반격하나, 가이가 간단하게 막아내고 싱크의 가면까지 튕겨낸다)

가이 :어.....? 너는.....?

아니스 : 가이! 왜 그래!

싱크 : 제길..... 다른 녀석들도 따라왔나.....! 싱크 : 이번 건은 정규 임무가 아니라서 말이야.

싱크 : 이 손으로 너희들을 죽이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아리에타에게 말길까.

싱크 : 그 계집애는 인질과 함께 옥상에 있지. 쫓아다니느라 수고를 하셨어.

.....

루크 : 흐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온 : 왜 그러세요, 가이?

가이 :아니, 아무것도 아냐. 가이 : 이상한 음보반(音譜盤 = 폰 디스크)을 얻었는데 이게 뭘까 싶어서.

이온 : 나중에 제이드 보고 조사해 달라 하지요.

티아 :괜찮아 루크? 대체 당신을 끌어다가 뭘 어떻게 할 생각이었을까.....

루크 : 어떻게 알아! 젠장!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아니스 : 아리에타 탓이에요! 저 애 그냥 안 둘거야!

제이드 : 옥상..... 이랬습니까. 같은 것을 몇 번이고 왕복하는 것도 귀찮습니다만 별 수 없습니다. 가지요.

(음보반을 손에 넣는다)

(음보반을 손에 넣는다)

<페이스 채트 '6 신장의 목적은?'>

가이 :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는 해도, 오라클 녀석들의 활동. 전혀 파악이 안 되는데.

아니스 : 오라클 기사단이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한다는 건 아녜요.

티아 : 응. 6 신장이 어딘가에서부터 밀명을 받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티아 : 아리에타에게서 뭔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스 : 저 음침에타는 아마,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지 않을까.

아니스 : 원래가 밀명을 받는다는 게 어울리지도 않구.

티아 : 분명히, 카이틀에서는 애쉬에게 부탁받았다고 했었지.

가이 : 애쉬라..... 6 신장, 선혈의 애쉬 말이 구만?뭐 어차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일인가.

아니스 : 맞아 맞아. 거기다 이온 님과 대령님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바티칼에 가 버리시면,

아니스 : 6 신장이 뭘 하더라도 상관 없는 일이야.

가이 : 그렇군.

(이제 옥상에 올라가자)

루크 : 헤헬, 몇번씩이나 같은 수법에 걸려들 거라 생각 마.

아니스 : 루크 님, 멋지세요~♡

제이드 : 당신 치고는 잘 하셨습니다.

루크 : 일일이 시끄러!

아리에타 : 아리에타 친구한테..... 볼..... 뽀..... 았어.....! 이젠 용서 안 할거야!!

루크 : 시꺼! 고생이나 시키고 이 망할 꼬마!

아리에타 : 됐다 뭐! 당신들 물리치고 이온 님을 되찾을 거다 뭐!

아리에타 : 엄마의 원수! 여기서 죽어버려!!

<BOSS - 아리에타, 라이거, 프레스베르그>

라이거와 프레스베르그에게 전위를 맡기고 후방에서 스파크 웨이브 등의 보솔로 공격해 온다.

플레이어가 직접 아리에타에게 붙어 영창을 방해한다면, 아니면 다소의 손해를 감소하고 서둘러 두 마물부터 해치우자.

다만 후반에 사용돼 오는 네가티브 게이트는 위력이 상당하므로, 피할 수 있다면 재빨리 범위 내에서 피하자.

제이드 : 역시 저번에 놓아 보냈던 것이 손해로 돌아왔군요.

이온 : 기다려 주세요! 아리에타는 데리고 돌아가서 교단 청문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온 : 그러니, 여기서 생명을 빼앗는 건.....

반 : 그 말씀대로 하시는 편이 낫겠지요.

루크 : 선생님.....

반 : 카이틀에서부터 도사 님이 도착했다는 전령이 오질 않길래, 혹시나 싶어 와 봤더니만.....

이온 : 미안합니다, 반.....

반 : 지난 일은 이야기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 : 아리에타는 제가 보호하기로 하겠습니다만 괜찮겠습니까?

이온 :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친 곳도 돌봐 주세요.

가이 : 이런 이런..... 킴라스카 병사들을 죽이고 배를 파괴한 죄, 폐하나 군부에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고?

이온 : 교단에서 온당한 수속을 밟은 후 처벌을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온 : 그게 규율이라는 거예요.

반 : 카이틀 사령관인 알만다인 백작에게서, 병사들과 마차를 빌렸습니다.

반 : 정비대장도 이쪽에서 데리고 돌아가겠습니다.

반 : 이온 님께서는 어찌시겠습니까? 저로서는 동행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이온 : 여기 코럴 성에 흥미가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선택지>

나도 마차가 좋은데 걸어서 돌아갈래 ← 선택

루크 : 걸어서 가고 싶은데. 어차피 배에 타기만 하면 바로 바티칼이잖나.

가이 : 항로 상의 사정으로 도중에 케세드니아에 들르겠지만 알아.

이온 :아무래도 걸어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 모양이니, 천천히 가겠습니다.

반 :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길.

(딱히 무엇을 골라도 상관 없을 것 같지만, 역자는 걸어서 항구까지 돌아가는 편을 골랐다)
(성을 걸어서 나가는 길에 소드 댄서를 몰리치고 가자)

<페이스 채트 '효율 좋게!>

루크 : 후우.

티아 : 왜 그래?

루크 :아니, 암컷두 아냐. 녀뉘.

티아 :루크도 전투에 익숙해지기 시작해구나. 이제 주변의 기척에도 좀 더.....

루크 : 크야!! 미안하다 그래! 마을에게 걸리기만 해서!

티아 : 알고 있다면 됐어.

티아 : 극단적으로 도망쳐 다닐 건 없지만, 되는데로 싸울 필요도 없어.

티아 : 이제부터 마을의 기척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다니자.

루크 : 그래 그래.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6)

(코럴 성을 나기 전 소드댄서를 몰리치자)

<페이스 채트 '어쩌면 흑시...!>

루크 :대체 뭐였던 거냐고, 방금 그런.

가이 : 웬만한 마물들하고는 강함이 틀리던데.

티아 : 이상한 음소가 느껴졌어. 보통 생물하고는 달라.....

루크 : 어, 야. 보통 생물과 다르다니..... 유령이나 뭐 그런 거 아냐.....

가이 : 설마. 유체인 것처럼은 안 보이더구만.

루크 : 마, 말고. 마을의 종족인 「유령」이 아니라, 사람의 원한이 모여서 된 뭐 그런 거 있잖아.....

가이 : 하하하! 귀신 족속을 얘기하는 거였냐.
가이 : 그런 게 어디 있어.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이미 해치웠으니까 괜찮지 뭐.

티아 :그렇다면 좋겠지만.

루크 : 재,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카이틀 군항]

정비대원 :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장님을 구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루크 : 아~ 진짜 고생했더니까.....

아니스 : 루크 님 대활약이셨어요♡

루크 :헤, 헤헛. 뭐 그 즘 했을려나.....

티아 :잡혀갔던 주제에.

루크 : 시끄럽다고!

정비대원 : 오라를 기사단 수석총장 반 그란츠 요장 각하로부터 전언이 있습니다.

정비대원 : 그란츠 요장 각하께서는 카이틀 방면 사령관 알만다인 대장각하와 회담중입니다.

정비대원 : 여러분께서도 남시 후 회담 장소에 방문하셔서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비대원 : 또한, 배의 정비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루크 : 수고가 많습다.

정비대원 : 당치도 않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럼

정비임무로 복귀하겠습니다!

루크 : 회담이라니 어디서 하는 건데?

가이 : 항구 쪽에 내빈용 방이 있었을 거다.

루크 : 그럼 이따가 찾아가 볼까.

<페이스 채트 '여성 공포증을 고치자!>

아니스 : 으~응.....

제이드 : 아니스. 왜 그러십니까?
제이드 : 일단 루크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티아가 방해가 되니, 암살 계획이라도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스 : 그런 살벌한 건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오! 가이 일이에요.

제이드 : 아하, 여성 공포증이군요.

아니스 : 저렇게 진짜로 무서워하게 만들고 나니, 놀러머기가 미안해졌다고나 할까요.

가이 :정말로 무서워해서 미안하군 그래.

아니스 : 와앗!!

가이 :괜찮어. 그렇게 신경쓰지 마. 이온도 말한 적 있다만, 꿀림을 당하는 와중에 극복하게 될 지도 모르고 말야.

제이드 : 과민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등에 달라 붙었을 때였지요.

제이드 : 그것만 조심하면서 놀러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스 : 라져! 마구 못살게 해 줘야지! 찰싹~.

가이 : 그그그..... 그만해에에에에에에에.....

아니스 & 제이드 : 찰싹찰싹 끈적끈적 찰싹찰싹 끈적끈적.

가이 :이, 일에는 한도란 게 있다고!! 그리고 제이드 당신도 들뜨지 마!!

제이드 : 어품.

(항구 내의 회견 장소로 가자. 킨라스카 군 기지라 되어 있다)

알만다인 백작 : 아니 이런, 루크 님.

루크 : ??

알만다인 백작 : 기억 안 나십니까. 어리셨을 적 한 번 바티칼의 맥에서 만나 뵈 알만다인입니다.

루크 : 기억 안 나.....

알만다인 백작 : 루크 님께서 아직 어리셨으니 말입니다. 어쩔 수 없지요.

반 : 이온 님. 알만다인 백작에게 아리아타 군을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이온 : 제 시종의 잘못, 용서해 주시기를.

알만다인 백작 : 다편이 성의있는 대응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루크 : 아 맞다. 백작이 아버지한테 전령 좀 보낼 수 없어?

알만다인 백작 : 전령 말씀이십니까? 전서구라면 바티칼 도착 전에 전달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루크 : 그거면 돼. 이제부터 도사 이온과 마르쿠트 군의 제이드 카티스 대령이 간다고.....

제이드 :루크. 당신은 사려란 게 부족하시군요.

알만다인 백작 :카티스 대령이라니 「사령술사(네크로맨서) 제이드」 말인가...!

제이드 : 그 말씀대로. 인사도 없이 실례가 많았습니다.

제이드 : 마르쿠트 제국황제 피오니 9 세 폐하께서 보내신 대표로서, 화평의 친서를 맡고 있습니다.

알만다인 백작 :어지간히 초라한 사절단 이시구려.

제이드 : 허다한 방해공작을 받는 바람에, 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만.

루크 : 이 인간들 날 도와줬거든. 어떻게 잘 좀 해 줘봐.

알만다인 백작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본국으로 전서구를 날려 보내기로 하지요.
알만다인 백작 : 내일은 배도 출항시킬 수 있으므로 오늘은 이 항구에서 쉬어 주십시오.

이온 : 신세를 지겠습니다.

(다음 날 선착장의 병사에게 말을 걸면 배를 탈 수 있다)

이온 :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알만다인 백작 : 좋은 여행 되시길!

[연락선 컷 벨트]

(선실을 나가려 하는 순간 다시 언젠가의 두통이...)

루크 : (또냐.....!)

「눈을 떠라..... 어서..... 내 목소리에.....」

루크 : 으윽!

(목소리가 멎은 후 선실을 나가면...)

병사 : 루크 님. 그란츠 요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병사 : 갑판에서 기다리라 하십니다만.

루크 : 반 선생님이? 알아어.

<페이스 채트 '처음 보는 바다!>

루크 : 모처럼의 배 여행인데 또 두통이나 오고, 나 참.....

루크 : 뭐, 그래도 나쁜 건 아닐지도. 바다도.....

유우 : 굉장해염! 주위가 전부 물 밖에 없어염!

루크 : 짜증나게~! 일일이 난리치지 마!

유우 : 유우..... 저, 바다는 처음이예염. 깜짝 놀라서 그래염.

루크 : 아 진짜. 바다라 해 봤자 별 것도 아니구만. 할 일도 없고. 따분해 돌아가시겠다 그냥.

유우 : 그치만, 주인님 방금 나쁘지 않다구 하셨어염.

루크 : 빙신! 이 돼지웁승아! 내가 기뻐한다는 거야 그래서? 양?

유우 : 유, 유우~.....

(배를 돌아다니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상좌도 털어먹자)

가이 : 너, 나랑 처음으로 만났을 때 일, 기억하고 있나?

루크 :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니까. 유괴되기 전 아냐.

가이 :그랬지 음. 너, 전혀 다르니까.

루크 :어?

가이 : 아니, 네가 너라서 다행이라는 얘기가 임마.

.....
제이드 : 혹시 자신이 자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루크 : 뭐? 무슨 소리야?

제이드 : 아니오..... 제가 한 말입니다만 우스운 질문을 했습니다. 잊어 주십시오.

.....

이온 : 이번 일로 인고벨트 폐하의 노여움을 사서, 화평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예요.

루크 : 괜찮어. 백부님한테 잘 말해줄게. 아버지랑 어머니한테도 부탁하고.

이온 : 그리고 보니, 루크 모친께서는 폐하의 여동생 되시는 분이셨군요.

루크 : 그렇다 이거야. 뭐 안심하라니까.

.....

아니스 : 이상한 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루크 : 뭐?

아니스 : 루크 님께서는 티아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지>

짜증나~
좋아하는 타입일려나 ← 선택

루크 : 좋아하는 타입이랄까.

아니스 :하우. 그러시군요요. 저도 티아 씨처럼 뽕뽕해지고 싶어요.....

아니스 : 그러면 루크 님께 어울렸을 지도 모르는데.

아니스 : 저, 아직 어린애지만..... 루크 님이 정말 좋아♡ 예요.

루크 : ;;

루크 : 바, 바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아니스 : 루크 님, 귀여우셔♡

.....

티아 : 당신 정식적인 '제 7 음보술사(세븐스 포니머)'가 아니었던 거구나.

루크 : 너, 전에도 제 7 음보술사가 어쩌구 그랬었지. 그러니까 그게 뭔데.

티아 : 가정교사한테서 안 배웠어?

루크 : 몰라. 기억 자체가 없구만.

티아 : 기억장애를 일으킨 건 7년 전이었다면서. 그 뒤로는 공부 하나도 안 한거야?

루크 : 그 밖에 배울 게 산처럼 많길래 말이지.

루크 : —— 부모 얼굴이라던가.....

티아 : ...

티아 :모든 물질에는 음소(音素 = 포닉)이 포함되어 있으며, 음소는 6 가지 속성으로 나뉘어 있어.

루크 : 뭐, 뭐야. 가르쳐 줄 마음이 든 거야?

티아 : 그 음소를 별의 핵인 기억입자(셀퍼 티클)와 연결시키면 막대한 연료가 되구.

티아 : 그래서 기억입자를 하늘 위의 음보대(音譜帶)로 보내서, 온 세계에 연료를 공급하는 반영구 기관을 만들었어.

티아 : 그게 바로 플래닛 스톱.

루크 : 어렵군..... 그래서?

티아 : 그러다가 플래닛 스톱이 6 속성의 음소와 기억입자 간에 돌연변이를 일으켰던 거야.

티아 : 그렇게 탄생한 게 7 번째 음소. 그게 제 7 음소(세븐스 포닉).

티아 : 그걸 서서 보술을 쓰는 사람이 제 7 음보술사.

루크 : 뭔가 뜬금없는 얘기인데. 하지만 난 보술사가 아닌데?

티아 : 하지만 당신은 나랑 초진동을 일으켰어.

티아 : 제 7 음소를 쓸 소양이 있는 거지. 이것만은 선천적인 소양이니까.

루크 : 듣고 보니, 제이드도 못 쓰는 거였지. 제 7 음소는.

티아 : 응. 제 7 음보술사는 수가 적어.
티아 : 예언을 노래하는 예언사(스코어러), 그리고 치료사(힐러)도 제 7 음보술사야.

루크 : 요약하면 특별한 음소를 쓸 수 있는 특별한 보술사란 애기가.....

티아 :미안해.

루크 : 뭐, 뭐야. 왜 그래 갑자기?

티아 : 나..... 당신 기억장애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

티아 : 지금까지 나, 당신한테 심술맞은 소리만 했었어. 자신이 창피해.....

루크 :버, 별로, 그런.....

티아 : 정말 미안해.

(뒷 갑판에 가면...)

루크 :으음..... 아... 파.....!

루크 : (몸이 멋대로..... 움직여.....!?)

루크 : 왜..... 왜 맘대로 움직이는 거야.....

「겨우 붙잡았느냐.....」

루크 : 누, 누구야!

「나와 같은 힘을, 보여 보라.....」

루크 : 네가 날 조종하고 있는 거야? 너 뭐야! 역시 환청이 아.....

반 : !

루크 : 뭐, 뭐야 이거.....! 싫어, 하지 마!

반 : 루크! 진정해라! 진정하고 심호흡을 해봐라.

반 :그래. 그대로 천천히 의식을 양손 앞으로 가져가는 거다.

반 : 루크.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힘을 빼고 그대로.....

.....

반 : 루크, 괜찮나.

루크 : 나..... 대체 뭐가.....

반 : 초진동(超振動)이 발동된 것이겠지.

루크 : 초진동.....? 타타르 계곡으로 날려갔을 때의.....?

반 : 확실히 그 힘의 정체도 초진동이었다. 불완전한긴 했다만.

루크 : 선생님..... 나 대체 어떻게 되어 버린 거예요.....?

반 : 너는 자신이 유괴되어 7년 간이나 갇혀있었던 것을 의아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나?

루크 : 그건..... 아버지라던가가 걱정하길래.....

반 : 그게 아니다. 세계에서 단 한명, 단독으로 초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너를 킨라스카에서 사육하기 위함이었던 거다.

루크 : 선생님, 잠깐만요. 뭐가 원지..... 대체 초진동이란 건.....?

반 : 초진동은 제 7 음보술사가 서로 간섭하여 발생하는 힘이다. 모든 물질을 파괴하거나, 재구성시키지.

반 : 원래는 특수한 조건 아래 제 7 음보술사가 둘 있어야만 비로소 발생한다.

루크 : 그걸 난 혼자서 일으킬 수 있다고요? 지금처럼.....?

반 : 그래. 훈련을 한다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것은 전쟁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 네 아버지도 국왕도 그것을 알고 있다.

반 : 그렇기에 마르크도 너를 탐냈단다.

루크 : 그럼 나는 병기로서 언급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루크 :!!!

루크 :설마 평생 이렇게!?

반 : 니탈리아 왕녀와 약혼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 같히는 장소가 성으로 바뀔 뿐이겠지.

루크 : 그런 건 싫어!

루크 : 분명 바깥 세상은 귀찮은 일도 많지만, 계속 집에 갇혀 있다가 전쟁 때가 되어서나 동원된다니...

반 : 진정해라, 루크. 일단은 전쟁을 막는 거다. 그리고 그 공을 내외에 알려라.

반 : 그렇게 하면 평화를 지켜낸 영웅으로서 네 지위가 굳혀질 거다.

반 : 적어도 불합리한 감금에서는 해방될 수 있겠지.

루크 :그렇까. 선생님,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반 : 걱정 마라. 자신을 가져라. 넌 선택받은 거다.

반 : 초진동이라는 힘이 너를 영웅으로 만들어 줄 거다...

루크 : 영웅... 내가 영웅.....

(기적 소리)

반 : 도착한 모양이구나. 여기서 바티칼 행 배로 갈아 타야 할 거다.

반 :기운 내라, 루크. 미래의 영웅이 침울한 얼굴을 해서야 보기에 좋지 않아.

루크 :에!

[유통거점 케세드니아]

반 : 난 여기서 실례하마. 아리에타를 다탈트의 감사관에게 넘겨지 않아선 안 되니 말이다.

루크 : 에엑! 선생님도 같이 가지시.

반 : 나도 나중에 바티칼로 가겠다. 조르기만 해선 못 써.

루크 :하지만요.

티아 : . . .

반 : 배는 킨라스카 쪽 항구에서 출항한다. 킨라스카 영사관에 가서 물어보거라. 그럼 바티칼에서 또 만나지.

반 : 티아에게도 루크를 부탁하마.

티아 : 아..... 네! 오빠.....

.....

유우 : 주인님, 새 마을이예요! 모래가 잔뜩 있어염!

루크 :시끄러, 돼지원숭이.

티아 : (이렇게나 귀여운데.....)

<페이스 채트 '영웅을 향해'>

루크 : 제 7 음소, 초진동이라.....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갇혀 지낼까 보나.

루크 : 그래도 전쟁을 막아내서 내 능력을 인정시켜, 영웅이란 게 되면,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

이온 : 루크 왜 그러세요?

루크 : 응, 아니. 암것도 아냐! 그보다 전쟁은 절대로 막아내자 야!

이온 : 아, 예. 물론이죠.

<페이스 채트 '이제 곧 돌아갈 수 있어!>

아니스 : 이젠 영사관에 들러서 배를 탈 뿐이네요~.

가이 : 루크의 대모험도 일단락이구만~.

루크 : 야 야, 대모험 아니라니깐. 거기다 바티칼에 도착한다 해도 아직 끝나는게 아냐.

아니스 : 맞아요 맞아. 루크 님께서는 바티칼에 닿으신 다음에도 종대한 임무가!

가이 : 폐하에게 잘 말씀드리는 게 남아 있나.

아니스 : 저를 양친께 소개하신다는 임무도요 ♡

루크 : 아버지네랑 만나고 싶어? 그럼 만나고 가든지.

아니스 : 정말요? 전개가 빨라질 것 같은 예감? 까앙~♡

루크 & 가이 : 왜 이런데 애.....?

<페이스 채트 '유통거점'>

루크 : 우와..... 뭔가, 와글와글 굉장한 도시인데.

가이 : 그렇지 뭐. 전 세계의 물건이 모인다는 말까지 있으니 말이다.
가이 : 마르쿠트에 킴라스카로 빠져나가는 농작물 및 약초는 반드시 여기 케세드니아 영사관에서 검역을 받는다고.
가이 : 당연히, 킴라스카에서 나가는 물건도 같은 수속을 거치고 있고.

티아 : 당신이 입에 대고 있는 것의 거의 전부 가, 이렇게 바티칼로 유통되고 있던 거야.

루크 : 아하, 꽤 긴 여행을 해 온 셈이었구만.

가이 :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이다만.

루크 : 우리가 뭘 채소냐고.....

(영사관에 향하기 전 마을을 구경해 보자)
(가게의 단에서 '교역품을 조달해 오면 직인을 통해 아이템을 작성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조금 걷다보면 이벤트가...)

노와르 : 엄머, 이 근방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품 있는 오빠.....♡

루크 : 어? 뭐, 뭐야.

노와르 : 모처럼 미남 얼굴인데 그런 식으로 찡그러서야..... 아·카·워·요 랍니다.

아니스 : 아앙..... 아니스의 루크 님께서 엔아줌마한테.....

노와르 : 엄~머, 미안하네 아가씨..... 방해가 된 것 같으니 이만 가자지.

티아 : 기다리세요.

노와르 : 어머니?

티아 :흥친 것을 내놓고 가지쇼.

루크 : 헉? 우웻! 지갑이 없어~!?

노와르 :하, 머지리만 모인 게 아니었냐.
노와르 : 요크! 뒷 일을 맡길께. 튀자, 우르시!

(도적들이 도망치지만 티아에게 걸린다)

티아 : 움직이지 말아요. 흥친 것을 돌려준다면 무사히 놔 줄 테니.

.....

요크 :우리들 「칠흑의 날개」를 적으로 돌리다니, 배짱이 좋군. 어디 두고 보라.

(줄행랑)

루크 : 저 새퀴들이 칠흑의 날개였나! 알았다면 아주 그냥 목사발을 내는 거였는데!

티아 : 어머, 지갑을 뜯긴 사람이 할 말 같진 않은 걸.

루크 :

티아 : 그리고 대령님 루크가 소매치기 당하는 걸 아시면서 왜 잠자코 계셨어요.

제이드 : 어이쿠, 들켰습니까. 재미있을 것 같길래, 그만.

루크 :말을 하란 말야 이 인간아!

(다시 구경하고 다니다 보면, 초반에 만났던 가두마차 마부를 만날 수 있다)

마부 : 어어, 너희들이구만! 마침 잘 됐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거든.

루크 : 뭐가?

마부 : 다리가 부서져서 돌아갈 수 없게 됐었지만,
마부 : 그 때의 보석을 그란코크마에서 팔았더니 뱃속에 거스름까지 남을 정도길래 말이다.

티아 : 파..... 파신 거예.....요?

마부 : 그래, 정말 고맙다.
마부 : 또 언제라도 마차를 이용해 줘. 뭐 다리가 수리된 다음이 되겠다만.

티아 :

루크 : 야, 왜?

티아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루크 : 흐~응?

티아 : (어머니..... 죄송해요.....)

(영사관으로 가기 전, 아스터라는 대부호의 자택에 방문해 보자)

아스터 : 이거 이거. 이온 남이 아니십니까!
아스터 : 사전에 알려주셨다면 성대하게 마중을 내갔을 것을.....

이온 : 괜찮습니다. 은밀한 여행이거든요.

가이 : 이 짬 되는 자택이라면 음보반(폰 디스크) 해석기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아스터 : 잘 보냈습니다. 확실히 제 집에는 해석기도 있지요.

제이드 : 그거 잘 됐습니다. 이온 님, 저번의 음보반을 해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 수 없겠습니까.

이온 : 그래도 될까요?

아스터 : 저희 케세드니아 상인 길드, 이온 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요.

가이 : 이 음보반을 해석하고 싶은데요.

아스터 : 기다려 주십시오. —— 누구 없느냐!
아스터 : 저기 음보반을 해석해 오너라.

하인 : 알겠습니다.

가이 : 잘 부탁해.

루크 : 이온 이 사람이랑 아는 사이였냐.

아스터 : 저희들은 도사 님의 힘으로, 이렇게 국경 위에 유통거점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티아 : 상인 길드는 다아트에 막대한 헌금을 하고 있어.

티아 : 땀가로서 교단은 케세드니아를 자치구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스 : 아스터 님 엄청난 부자이시네요♡
아니스 : 저..... 감격해 버렸어요♡ 하잉~. 저도 이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네요♡

하인 : 이것이 해석 결과입니다.

가이 : 땡큐.

루크 : 양이 엄청난데.

가이 : 배에서 읽으면 되겠다.

제이드 : 그럼 가십시오. 신세를 졌습니다.

아스터 : 뭔가 금품을 빌리시겠다면 언제라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잊히히...

(이 밖에도 거리에서, 사막이 위험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대충 구경했다면 거리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킴라스카 병사 : 여기 계셨습니까. 배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킴라스카 측 항구로.....

티아 : !! 위험해!

(싱크가 습격해서 음보반을 빼앗는다. 가이는 감쇄가 좋지 않은 공격을 받고...)

싱크 : 그걸 내 놔!

제이드 : 여기서 싸움을 벌이는 것은 폐가 됩

니다. 어서 배로!

루크 :젠장! 뭐야 저거!

싱크 : 놓칠까 보냐!

.....

병사 : 루크 님. 출발 준비가 끝났습니다.

루크 : 빨리 출발해!

병사 : 예?

루크 : 쫓기고 있다고! 서둘러!

.....

싱크 :크, 놓쳤나.

디스트 : 하~ 핫핫하! 실수를 냈군요, 싱크?

싱크 : 당신인가.

디스트 : 뒷 일은 이 나한테 맡기십시오.
디스트 : 초 울트라 슈퍼 하이 그레이드한 제보솔로, 저 속을 알 수 없는 장발 안경잡이를 처참하게.....
디스트 :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십시오! 내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싱크 : 저 가이라는 놈은 커슬롯으로 물들여놔. 언제라도 조종할 수 있어.
싱크 : 당신은 '포미클리 계획'의 서류를 확실하게 처분하십시오.

디스트 : 예익~~~~!! 잘난 듯!! 두고 보십시오!! 복수 일기에 적어둘 겁니다!!

[다시 연락선 컷 벨트 안]

루크 :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가이 : 제길....., 열풍의 싱크에게 공격받았을 때, 서류 중의 일부를 떨군 모양이야.

제이드 : 보여 주십시오.

.....

제이드 : 동위체 연구인 모양이군요.
제이드 : 3.14159265358979323846..... 이걸 로렐라이의 음소 진동수인가.

루크 : 로렐라이? 동위체? 음소 진동수? 뭔지 모르겠음~.

티아 : 로렐라이는 제 7 음소(세븐스 포넌)의 식집합체의 총칭이야.

아니스 : 음소는 일정량 이상 모이면 자아를 갖게 된다는 듯 해요. 그걸 다루면 고등 보솔을 쓸 수 있어요.

가이 : 각각 이름이 붙어있지. 제 1 음소 집합체가 '새도우' 라던가 제 6 음소는 '렘' 이라던가.....

제이드 : 로렐라이는 아직 관측된 적은 없습니다. 있지 않을까... 라는 가설이지요.

루크 : 헐~. 다들 잘도 아는데 진짜.

가이 : 뭐어..... 상식이거든. 실은.

티아 : 여쩔 수 없는 걸. 이제부터 알아 나가면 돼.

아니스 : 뭔가..... 티아 씨 말인데 갑자기 루크 님께 상냥해졌네요.

티아 : 그, 그런 건 아니야.
티아 : 마, 맞아! 음소 진동수라는 건 말이지, 모든 물질이 발산하고 있는 것이고. 지문처럼 똑같은 사람은 없어.

가이 : 엄청 어색하게 말을 돌리는군.....

티아 : 가이는 조용히 해 줘!
티아 : 동위체는, 그 음소진동수가 완전히 같은 두 물체를 말하는 거야.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제이드 : 뭐어, 동위체가 아무데나 널려 있다면, 여기저기서 초진동이 일어나 성가실 겁니다.

루크 : ...!!

제이드 : 동위체 연구는 병기로도 돌릴 수 있기에 군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니스 : 옛날 연구되었다던 '포미클리' 라는 기술이라면 동위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였죠?

제이드 & 이온 : . . .

가이 : 포미클리라면 복사기 비슷한 거였나?

제이드 : 아뇨, 포미클리로 만들어지는 복제는, 기껏해야 그냥 모조품입니다.
제이드 : 걸모습은 똑같습니다만 음소 진동수는 달라져 버리지요. 동위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루크 : 아~ 증말~! 모르겠어! 어려운 애긴 그만 하자고. 그 서류는 제이드 당신이.....

병사 : 크, 큰일입니다! 케세드니아 방면에서부터 수많은 마을과..... 정체불명의 음소 반응이!

(과양)

티아 : 큰일이야! 적!

(전투)

티아 : 역시 이온 님과 친서를 킴라스카까지 보내지 않겠다는 걸까.....?

가이 : 배 짜로 가라앉히는거 아냐 저거?

유우 : 주인님, 큰일이예요! 유우는 해엄 못 처염!

루크 : 시꺼. 알아서 빠져 죽던가!

제이드 : 하지만 물에 빠뜨릴 생각이라면 쳐들어 오진 않았겠지요.

아니스 : 그럼 배를 빼앗을 셈이에요!

가이 : 이것 참. 제압당하기 전에 브릿지를 확보하라는 건가?

제이드 : 그렇게 됩니다.

루크 : 오라클 자식들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싶나. 귀찮네 거.....

제이드 : 귀찮아 하시지 마시고. 갑시다.

<페이스 채트 '오라클 기습!>

아니스 : 증말~! 왜 또 습격해 오는 거냐구우!

티아 : 바다 위에서 습격을 받는다면 도망칠 곳이 없어. 어찌든 적들은 그걸 노린 걸지도 몰라.

제이드 : 그냥 계획성이 없었던 것 뿐이겠지요.

아니스 : 어라? 대령님, 웬지 의욕이 없지 않으세요? 아까 스스로 귀찮아지 말자구 하셨으면서요.

제이드 : 기분 탓입니다. 실제로 귀찮아지기 전에 브릿지로 서두르지요.

티아 : 그러네요. 어서 가지요.

.....

제이드 : 이 얼떨 보아 계획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수상한 습격.....
제이드 : 제 예감이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브릿지로 가자. 처음 댕을 때 제이드가 있던 곳이다)

선장 : 누군가에게 습격을 받게 된 모양입니다!
선장 : 저는 여기서 떨어질 수가 없으니, 여러분께서 갑판 쪽을 보고 와 주십시오.

(갑판으로 통하는 출구로 나가자)

선원 : 우왁! 이, 이 녀석.....

강동로봇? : 이 탈로우 X 님이 가져가겠으셈!

선원 : 그 보석(譜石)을 돌려 내놔!

탈로우 X : 못 주셈! 실험에 써 버릴 것이셈.

루크 : 어떻게 된 거야?

선원 : 빼, 빼겼어! 보석의 조각을 저 굉장한 로봇에게 빼앗겨 버렸다고.

가이 : 보석 파편? 보업에 쓸려는 건가?

제이드 : 아마 그럴겠지요. 거기다 저 약취미한 로봇. 역시 그 자의 짓입니까.....

티아 : 대령님, 짚이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제이드 :
제이드 : 유감입니다만, 약간. 아무튼 보석의 파편은 귀중한 자원입니다. 되찾으십시오.

(탈로우 X 를 잡자. 배가 흔들릴 땐 뛰지 말고 걸을 것)

탈로우 X : 버럭~! 방해하지 마셈!

가이 : 박살나기 싫다면, 말로 할 때 그 보석을 내 놔.

탈로우 X : ...광패이셈! 약당이셈! 그래도 무서우니 돌려주겠으셈.

(보석을 넘기고 도망치는 강동로봇)

탈로우 X : 두고 보셈~!

일행 :

루크 : 도망갔는데.....

아니스 : 뭐랄까, 저거 물에 젖어도 관찮을러 나요?

탈로우 X : 끄악~, 이셈~!

일행 :

제이드 : 물론, 내버려 둥시다.

가이 : 뭐, 보석 파편을 되찾아서 다행이군. 여기.

선원 : 고, 고마워..... 답례라 하긴 뭐하지만 이걸 당신들에게 주지. 내겐 필요없는 물건이니.....

(캐퍼시티 코어 '노빌레' 와 중요 아이템 '윈드 부츠' 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다 웃었으면 갑판으로 가자)

루크 :적들 두목은 어디 있는 거야! 빨리 좀 끝내자고.

디스트 : 하~ 핫핫핫! 핫~ 하하하핫!
디스트 : 야만스런 원숭이들, 잘 들으시오. 아름다운 나의 이름을. 내가 바로 오라클 6 신장, 장미의.....

제이드 : 이런. 코흘리개 디스트 아니십니까.

디스트 : 장미! 로·즈! 장미의 디스트 남이시다!

아니스 : 「사신 디스트」 짱아요.

디스트 : 닥치십시오! 그런 별칭을 인정할 것 같나! 장미야, 장미!!

루크 : 뭐야, 아는 사이였어?

아니스 : 저는 같은 오라클 기사단이니가요..... 하지만 대령님은.....?

디스트 : 거기 약질 제이드는 이 천재 디스트 님의 과거 친구.

제이드 : 어디 사는 제이드이십니까? 그런 웃기는 친구를 둔 제이드는.

디스트 : 뭐이 어째요?

제이드 : 이거 이거. 화를 내시면 또 콧물이 나올 겁니다.

디스트 : 에이익~~~! 안 납니다!!

루크 : 유, 유치해.....

가이 : 이런 걸 따 시킨다고 하는 거구만.....

디스트 :뭐 좋습니다! 자, 음보반의 데이터를 내놓으십시오!

제이드 : 이것 말씀이십니까?

(제이드가 자료를 꺼내자마자, 엄청 빠르게 채 간다)

일행 : !!

디스트 : 하하하! 밤심했군요 제이드!

제이드 : 드리겠습니다. 그 서류 내용은 전부 다 읽기했으니까요.

디스트 : 에이익~~~!! 원숭이가 나를 우습게 보다니!
디스트 : 이 나의 슈퍼 울트라 고저스한 기술을 맞고서 후회나 하십시오!

<BOSS - 카이저 디스트 R>

로봇. 긴 리치의 팔을 이용해 드릴과 해머 등 범위가 넓은 공격을 한다. 전열의 캐릭터로 진행을 막고, 그 사이 제이드의 스플래셔로 두들기자. 울축성 FOF도 좋다. 프리런을 잘 활용하면 헛방도 유도할 수 있으니 시도해 보자.

(로봇이 부서진 여파로 멀리 날려가는 디스트...)

루크 : 이봐..... 저거.....

제이드 : 죽여서 죽을 사나이가 아닙니다. 바퀴벌레 수준의 생명력이거든요.
제이드 : 그보다 브릿지를 보러 가지요.

가이 : 나도 같게. 여성 일동은 루크와 이온을 지키고 있어 줘.

아니스 : 어라? 가이 혹시 우리가 무서운 거야?

가이 :아, 아냐. 아니라고 했다!

(가이 도망)

루크 : 우린.....

티아 :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자.

이온 : 그래요.

아니스 : 평화의 사자라는 것도 힘든 일이네요 오.....

루크 :증말 그럴다고.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7)

[바티칼 항구]

골드버그 : 처음 뵈겠습니다. 킴라스카 람발디어 왕국군 제 1사단 사단장인 골드버그입니다.
골드버그 : 이번의 무사 귀국을 축하드립니다.

루크 : 수고가 많습다.

골드버그 : 알만다인 백작에게서 비둘기를 전해 받았습니다.
골드버그 : 마르쿠트 제국에서부터 오시는 화평의 사자가 동행하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이온 : 로렐라이 교단 도사 이온입니다.
이온 : 마르쿠트 제국황제 피오니 9세 폐하의 청으로 친서를 가져왔습니다.
이온 : 국왕 인고벨트 6세 폐하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골드버그 :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세실 장군이 책임을 지고서 성까지 모실 것입니다.

세실 : 세실 소장입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이 : (음찐)

세실 : 왜 그러시는지?

가이 : 아, 아니 저는..... 가이라 합니다. 루크 님의 부하입니다.

티아 : 로렐라이 교단 오라클 기사단 정보부 제 1소대 소속 티아 그란츠 향장(嚮長)입니다.

아니스 : 로렐라이 교단 오라클 기사단 폰마스터 가디언 소속 아니스 타들린 주장(奏長)이에요.

제이드 : 마르쿠트 제국군 제 3사단 사단장 제이드 카티스 대령입니다. 폐하의 대리로서 방문했습니다.

골드버그 & 세실 : !!

세실 : 귀공께서 그 제이드 카티스.....!

제이드 : 케세드니아 북부 전투에선 세실 장군 덕분에 크게 혼이 났었습니다.

세실 : 재미있으신 농담을..... 제 군은 거의 전멸이었지요.

골드버그 : 황제의 심복으로 이름 높으신 대령께서 대리 오실 줄은... 골드버그 : 과연. 마르쿠트 측도 진심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제이드 : 국경의 긴장상태가 후드 전쟁 때보다도 살벌한 지금, 진심으로 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이 : . . .

골드버그 : 말씀대로입니다. 그럼 루크 님께서는 저와 바티칼 수비대와 함께 먹으로.....

루크 : 잠깐! 난 이온한테서 백부님께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 내가 성으로 데려갈 거야!

이온 : 고마워요. 든든하네요.

티아 : 루크, 다시 봤어. 당신도 자기 책임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구나.

루크 : 으, 응..... 뭐.....

골드버그 : 명심했습니다. 그럼 공작님께의 연락을 세실 장군에게 부탁하지요. 골드버그 : 세실 장군, 가 주겠나?

세실 : 알겠습니다.

루크 : (좋아, 이걸로 영웅이 될 찬스가 생겼군)

이온 : 그럼, 루크. 안내를 부탁드릴게요.

루크 :그래, 가자.

(아래쪽으로 가서 천공객차라 불리는, 케이볼카 비스무리한 탈 것에 타자)

[빛의 수도 바티칼]

루크 : 여기가... 바티칼?

가이 : 왜. 처음 본 듯한 반응을 다 하고.....

루크 : 별 수 없잖어! 기억 안 난다니깐!

가이 : 그런가..... 기억 잃은 뒤로 밖에는 나온 적이 없었지.

아니스 :광장한 거리! 세로로 길고 높네요.

유우 : 티글 숲의 몇배나 되염!

가이 : 여긴 하늘의 보석(譜石)이 낙하해서 만든, 지면의 웅덩이에 세워진 도시라고.

티아 : 자연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는 말이네. 합리적이야.

루크 : (제기랄..... 돌아왔다는 기분이 조금도 들질 않아)

(거리로 나가려는 도중, 칙칙의 날개를 발견하게 된다. 뭔가 좋지 않은 의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거리에서, 동쪽 경사면의 폐쇄된 공장지대가 마을의 소굴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쇼핑을 하기엔 경제적인 제약이 크겠지만, 합동상점도 구경해 보자. 안쪽에 있는 투기장은 아직 들어갈 수 없다) (관광이 끝났다면 엘리베이터를 통해 성으로

간다)

<페이스 채트 '바티칼이란 어떤 거리?>

루크 :찢.

티아 : 루크, 표정이 우울하네.

아니스 : 모처럼 돌아왔다지만, 처음 와 본 곳 이랑 다를 바가 없으시니까요. 루크 님, 가엾으셔서...

티아 & 가이 : 루크, 저기...

가이 : 야 루크. 거리 구경 좀 하러 안 갈래?

루크 : 어영? 왜 이제와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가이 : 그러지 말고. 모처럼이니 여행지인 셈치고서 더 돌아다녀 보면 되잖나. 가이 : 좀 더 놀다 가자.

루크 : 난 별로.....

가이 : 바티칼 처음인 사람도 있지? 좀 더 돌아다니다 가도 되냐?

이온 : 그럴군요. 저는 괜찮아요.

제이드 : 뭐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스 : 저두요~.

티아 : 으응. 괜찮을 것 같아.

가이 : 이렇게 됐으니, 루크 양마. 가자.

루크 : 나 참. 별 수 없지!

[바티칼 성, 알현실 앞]

병사 : 지금 대영사 모스께서 폐하께 알현중이십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루크 : 모스란 작자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면서?

루크 : 백부님에게 관한 소리 하기 전에 들어가자!

병사 : 그만두어 주십시오!

루크 : 난 파브레 공작가의 루크야! 핵방을 놓겠다면 널 찌르라고 얘기해 줄 테다!

이온 : 루크, 괜찮을까요. 이렇게 억지로.....

루크 : 괜찮어.

.....

모스 : 마르쿠트 제국은 수도 그란코크마의 방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스 : 엔게이브를 보급거점으로 하여 센트비나까지.....

모스 & 알바인 : !!

알바인 : 무례한! 누구의 허가로 알현실에.....

루크 : 시끄러워, 입다물고 있어!

인고벨트 6세 : 그 쪽은..... 루크냐? 슈잔느의 아들인.....!

루크 : 그렇습니다. 백부님.

인고벨트 6세 : 그런가! 이야기는 들었다. 마르쿠트에서 무사히 잘 돌아왔구나. 인고벨트 6세 : 그러면 옆에 있는 자들이.....

루크 : 로렐라이 교단 도사 이온과 마르쿠트군의 제이드죠.

이온 : 덕분에 무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폐하. 이온입니다.

모스 : 도, 도사 이온..... 차, 찾고 있었습니까.....

이온 : 모스,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이온 : 폐하, 이쪽이 피오니 9세 폐하의 대리 제이드 카티스 대령입니다.

제이드 : 어전에서 실례하겠습니다. 제이드 : 우리 군주로부터, 위대하신 인고벨트

6세 폐하께 보내는 친서를 맡아 방문했습니다.

(친서를 넘긴다)

루크 : 백부님. 모스가 하는 말은 거짓부렁예요. 난 이 눈으로 마르쿠트를 보고 왔습니다. 루크 : 수도에는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엔게이브나 센트비나는 평화 그 자체더군요.

모스 : 무, 무슨 말씀이신가!나는 마르쿠트의 위험성을 폐하께.....

루크 : 시끄러! 전쟁이나 일으키려 하는 게! 당신 졸라 재수 없다고!

인고벨트 6세 : 루크, 진정하거라. 이렇게 친서가 왔지 않느냐. 나도 그것을 무시할 생각은 없단다.

인고벨트 6세 : 모두들, 긴 여행을 하느라 수고들이 많았네. 일단은 천천히 여행의 피로들을 풀게나.

알바인 : 사자 여러분의 객실을 성 안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안내를 하겠습니까만.....

이온 : 혹시 허락된다면 저는 루크네 저택을 견학하고 싶네요.

알바인 : 그럼 용무가 끝나시면 성으로 와 주십시오.

모스 : 티아는 남게. 그 건에 대해, 자네한테서 보고를 받아야 하니.

티아 : 모스 님. 제게는 루크를 저택까지 바래다 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티아 : 잠시 후 다시 보고를 올리러 오겠습니다.

모스 :괜찮겠지. 모스 : 그럼 폐하.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모스 퇴장. 나가면서 루크를 한번 갈퀴본다)

인고벨트 6세 : 루크야. 실은 내 여동생 슈잔느가 병으로 쓰러졌단다.

루크 : 어머니가요!?

인고벨트 6세 : 내 대리로서 나탈리아를 병문안 보낸 참이다. 잘 부탁한다.

<페이스 채트 '친서'>

루크 : 역시 모스 저 자식,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모양인데.

루크 : 마르쿠트 얘기를 지어내서 백부님한테 속삭거리는 거 보라고.

제이드 : 어쨌든, 폐하께서 친서를 받아주신 것이니, 말씀하셨던 대로, 박정하게 대하실 일은 없겠지요.

루크 : 나중에 더 진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얘기해 줄게.

제이드 : 믿음직하십니다. 역시 권력자의 아들 이시군요.

루크 : 거 일일이 승질나게 하네.....

제이드 : 이거 실례. 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당신 덕택이십니다.

루크 : 흥, 기분 좋은 얘기가 늘어놓긴.

(성을 나와 왼쪽에 있는 저택이 루크네 집이다)

워병 : 루크 님!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크 : 아버지! 지금 돌아왔어요!

파브레 공작 : 보고는 세실 장군에게서 들었다.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가이도 수고가 많았네.

가이 :엣.

파브레 공작 : 사자 여러분도 함께 계시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편안히.

이온 : 감사합니다.

파브레 공작 : 그런데 루크. 반 요장은?

루크 : 선생요? 케세드니아에서 헤어졌어. 나 중에 배로 온냈는데.....

세실 : 파브레 공작님..... 저는 항구로.....

파브레 공작 : 음. 반에 대한 일은 말기겠네. 나는 성으로 올라가지.

일행 : ?

파브레 공작 : 자네 덕택에 루크가 날려갔다는 것 같더군.

티아 :폐를 끼쳤습니다.

파브레 공작 : 반의 여동생이라 들었다.

티아 : 네.

파브레 공작 : 반을 암살할 생각이었다는 보고도 들었네만. 실은 반과 공모했던 것은 아니었지?

티아 : 공모?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파브레 공작 : 뭐 됐네. 가지, 세실 소장.

가이 : 뭔가 이상하던데. 주인 어른.

루크 : 반 선생님이 어쩐다는 거지.....

티아 : 나도 여기서.....

가이 : 온 김에 사모님한테도 사과하고 가. 가이 : 사모님이 쓰러지신 건, 아마 루크가 없 어졌기 때문일 걸.

티아 :그렇구나. 그렇게.

<페이스 채트 '검의 내력'>

티아 : 여러가지가 장식되어 있는 게, 역시 공작가의 저택이네.

루크 : 난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흥미도 없어서.

가이 : 아깝다 야. 저택 안에는 유서바른 게 잔뜩 놓여 있다고.

티아 : 그럼, 현관 앞에 걸려있던 그 검에도 무슨 내력이 있어?

가이 :아아, 그 검이 신경쓰이는 거냐. 가이 : 들은 얘기로는, 무슨 전투에서 적 의..... 수급과 함께 가지고 돌아왔다는 듯 하 더군.....

루크 : 수급이라면.....

가이 : 모가지. 대장의 머리야.

루크 :음. 웬지, 이 검이 무서워졌어.....

(응접실로 가면...)

나탈리아 : 루크!

루크 : 으엑.....

나탈리아 : 어머니 뭐지요 그 태도는!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가이 : 아니, 저기, 나탈리아 님. 루크 님께선 쑥쓰러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탈리아 : 가이! 당신도 당신이예요! 나탈리아 : 루크를 찾으러 가기 전에 제게 들 르라고 전하지 않았었나요? 왜 잠자코 떠났지 요!

가이 : (덜덜덜)저 저같은 하 하인이 성에 갈 수 있을 리 없잖습니까요!

나탈리아 : 어째서 도망가나요.

가이 : 아시잖습니까!

나탈리아 : 제가 루크와 결혼을 하면 당신은 제 하인도 되시는 거예요. 좀 익숙해지시길!

가이 : 우리입니다악!!

나탈리아 : 이상한 사람. 저렇게 한심한데도 왜 시녀들은 가이를 그리 좋아하는담. 나탈리아 : 그건 그렇고 큰일이네요. 반 요 장.....

루크 : 선생이 뭐 어떻게 된 거야?

나탈리아 : 어머니, 아버님께 들지 못하셨어요?

나탈리아 : 당신이 이번에 튕겨나갔던 것은 반 요장이 꾸민 일이라는 혐의가 있사와요.

티아 : 그래서 저보고 공모라고.....

나탈리아 : 어머..... 거기 계시는 분은.....? 나탈리아 : 루크!! 설마 시녀를 꼬시기라도 한 건 아니시겠죠!

루크 : 내가 왜 저런 차가운 여자한테 작업을 걸어! 루크 : 글고, 시녀도 아냐! 선생님의 동생야.

나탈리아 :아하. 당신이 이번 소동의 장 본인이신..... 티아 씨 이셨나요?

루크 : 그것보다, 선생은 어떻게 되는 건데!

제이드 : 공주 전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바티칼에 도착하시는대로 체포되어 최악의 경우 처형까지 가는 게 아닐런지?

아니스 : 흐양! 이온 님! 총장님 큰일나셨나 봐요!

이온 : 그렇군요. 서둘러 다아트 쪽에서 항의를 보내기로 하지요.

루크 : 저기, 선생님은 상관 없어! 그러니까 백부님한테 얘기좀 해 줘! 선생을 도와 달라 고!

나탈리아 :알겠사와요. 루크의 부탁이시 니.

나탈리아 : 대신, 그 약속을 빨리 기억해 내 주시기를.

루크 : 어릴 적 했던 프로포즈 약속 따위 기억 안 난다고 했잖어!

티아 & 아니스 : !!!!

나탈리아 : 기억 장애이시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생각나는 말이 그 약속이라면 운명적이지 않을까요.

루크 : ;;;; 루크 : 됐으니까 어서 돌아가서 백부님에게 선생 얘기나 잘 하고 와!

나탈리아 : 정말이지... 짓궂으신 분. 알겠사와요.

<페이스 채트 '상류계급?'>

루크 : 나 참. 나탈리아 재는 변한 게 없다니 까.

가이 : 만나자마자 나탈리아 월드이더만.

아니스 : 공주님~, 이라는 느낌인 분이셨죠~. 아름다운 복장. 우아하신 분위기. 품위있는 말투. 아니스 : 저런 게 이른바 상류계급? 좀 떠들썩한 것까지 포함해서요.

제이드 : 그렇다면, 아니스도 상류계급이군요.

아니스 : 우음~. 그게 무슨 의미이세요!

가이 : 아하하!

루크 : 아~아, 시끄럽다니깐.....

(다음엔 파브레 내외의 사실로 향하자)

슈잔느 : 아아, 루크! 정말로 루크구나..... 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슈잔느 : 네가 또 좋지 못한 우리들에게 끌려간 것은 아닌지 해서.....

루크 : 괜찮아. 이렇게 돌아왔잖아.

티아 : 사모님, 용서해 주시기를. 티아 : 제가 장소도 가리지 않고서 제 오라비를 쓰러뜨리려 했기에 아드님 되시는 분을 끌어들이고 말았습니다.

슈잔느 :당신이 반의 동생이라는 티아 양?

티아 : 네.

슈잔느 :그랬나요. 그럼 이번 일은 루크의 생명을 노린 악한들의 짓이 아니었던 거군요.

티아 : 로펠라이와 유리아에 걸고서, 아니라 단언하겠습니니다.

슈잔느 : 고마워요. 하지만 티아 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슈잔느 : 당신은 친오빠를 쓰러뜨리겠다는 생각을 그만 두세요. 혈연끼리 싸우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티아 : 말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슈잔느 : 루크. 네가 돌아와 줬으니, 어머니는 괜찮다. 모두에게 인사하고 오거라.

루크 : 어..... 응.....

<페이스 채트 '근사한 저택'>

아니스 : 루크 님 덕 멋지잖아요. 이런 근사한 곳에 다 있구~.

루크 : 그래? 난 이런 높은데에 있다는 건 몰라서 말야.

아니스 : 장소도 그렇지만~, 건물도 근사한걸요~.

루크 : 보통이겠지, 이런 건.

아니스 : 아잉~, 정말, 겸손하시기도 하셔라♡ 하지만, 그런 점도 멋지세요.

아니스 : 아니스도, 이런 집에 살아보고 싶여라아~☆

유우 : 유우는 티글 숲이 좋아염. 티글 숲 쪽이 더 근사해염~!

루크 : 맘대로 얘기에 끼어들지 마, 이 돼지원숭이!

유우 : 유우우우우~.....

.....

아니스 : 찢, 방해를 하다니.....

(...이제 루크의 방으로 가... 기 전, 정원사 펠영감에게 말을 걸어보자)

펠 : 무슨 불일이 있으시요?

제이드 : 저는 제이드라 합니다. 제이드 :실례입니다만, 어딘가에서 만났 적이 있으십니까?

펠 : !! 기, 기억에 없소만.....

제이드 : 그렇습니까.....

(뭔가 켕기지만, 어쩐든 루크의 방으로 가서 쉬자)

.....

가이 : 그럼 나도 가 봐야겠다. 가이 : 니 탐색을, 나 같은 하인 따위에게 맡겼다 해서 백광기사단 님들이 성질나셨다더라. 가이 : 보고 삼아 아침이라도 먹고 와야지.

이온 : 저희들도 나가 볼게요.

아니스 : 루크 님. 아니스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이드 :꽤 흥미가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 : 잘들 가.

티아 :나도 모스 님께 보고하러 갈게.

루크 : 어..... 그래.....

티아 : 상냥한 어머니이셔. 효도해 드려.

루크 : 뭐야. 니가 잔소리할 일이나.

티아 : 그러게..... 그럼.

루크 : 아, 잠깐 기다려.

티아 :왜?

루크 : 너무 신경쓰지 마.

티아 : ?

루크 : 어머니가 쓰러진 건, 원래부터 몸이 약했던 것 뿐이니까.

티아 :고마워.

(동료들과 헤어진다)

「킴라스카 란발디어 왕국 바티칼, 농의 데칸 농 2일」

하녀 : 루크 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날씨가 좋아요.

하녀 : 단지 로렐라이 교단의 예언의 의하면 비가 약간 올지 모르는데요.

하녀 : 오늘 아침, 나탈리아 전하께서, 사자가 왔으니 성에 방문하시라는 말씀이 있으셨답니다.

루크 : 나, 집 밖으로 나가도 돼?

하녀 : 괜찮으시다는 것 같아요.

<페이스 채트 '성에 들어가자'>

루크 : 나탈리아가. 무슨 일일려나?

루크 : 집에 오지 않고서 성으로 오라는 건 백부님이 불 일이 있다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루크 : 반 선생님 일일까?그건 앎튼, 간단히도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구만.

루크 : 심정이 복잡해..... 지금까지진 대체 뭐였나 이거야.

(성으로 가면 티아와 모스가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티아 : 그러면 제 7 보석(譜石)은 액제류스에.....?

모스 : 그렇다. 아마 루크가 액제류스로.....

루크 : 내가 어쩐다고?

모스 : !! 이거 루크 님.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모스 : 카티스 대령은 이미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크 :제이드가?

모스 : 가십시오.

[알현실]

인고벨트 6세 : 오오. 기다리고 있었다, 루크.

알바인 : 어젯밤 긴급회의가 소집되어 마르쿠트 제국과 화평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인고벨트 6세 : 친서에는 화평조약 체결 제안과 함께 구원 요청이 쓰여 있더구나.

알바인 : 현재, 마르쿠트 제국의 액제류스라는 광산도시가, 알바인 : 장기(障氣) 즉 대기(농)의 독으로 괴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탈리아 : 마르쿠트 측에서 주민을 구출해 내길 원해도, 나탈리아 : 액제류스로 이어지는 국도가 장기에 완전히 휩싸여 있다는 듯 해요.

인고벨트 6세 : 허나, 액제류스는 원래 우리나라의 영토. 당연히 카이를 쪽에서부터도 국도가 이어져 있다.

인고벨트 6세 : 그래서 우리 나라에 주민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단다.

루크 : 그야, 저 쪽 사람들을 돕는다면 화평 증거야 되겠죠.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대요.

파브레 공작 : 폐하께서는 감사하게도 너를 킴라스카 란발디어 왕국의 친선대사로 임명하셨다.

루크 : 나를!? 싫어요! 이제 싸우거나 하는 건 사절이라고.

인고벨트 6세 : 나탈리아에게서 반 이야기를 들었다.

루크 : !!!

인고벨트 6세 : 반이 범인인지 어쩐지는 우리도 헤아리기 힘든 참이야. 거기서, 다. 인고벨트 6세 : 네가 친선대사로서 액제류스가 준다면 반을 석방하여 협력시키도록 하마.

루크 : 반 선생 잡혀 있었어요!?

나탈리아 : 성 지하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루크 :알았어. 선생님을 석방시켜 준다면.....

제이드 : 반 요장이 끼면 말을 잘 듣게 되시는군요.

루크 :시끄러워.

인고벨트 6세 : 그래도 잘 결심을 해 주었구나.

인고벨트 6세 : 실은 말이다, 이 역할은 네가 아니어선 안 될 의미가 있다.

루크 :에?

파브레 공작 : 이 보석(譜石)을 보라. 이젠 우리 나라 영토에 떨어진 유리아 쥬에의 제 6 보석 일부다.

인고벨트 6세 : 티아여. 이 보석의 아래쪽에 기록된 예언을 읽어 보게.

티아 :네.

티아 : ND 2000. 로렐라이의 힘을 계승하는 자, 킴라스카에 탄생하리.

티아 : 그는 왕족과 이어진 붉은 머리칼의 남아. 이름은 성스러운 불꽃의 빛이라 지어지니.

티아 : 그는 킴라스카 란발디어를 새로운 번영으로 인도하리라.

티아 : ND 2018. 로렐라이의 힘을 계승하는 젊은이, 사람들을 이끌고서 광산의 도시로 향한다. 거기서.....

티아 :이 다음부터가 빠져 있습니다.

인고벨트 6세 : 됐네. 즉 루크, 너는 선택받은 젊은이라는 것이다.

(회상)

반 : 괜찮다. 자신을 가져라. 난 선택받은 거다.

반 : 초진동이라는 힘이 너를 영웅으로 만들어 줄 거야.

루크 : 영웅..... 내가 영웅.....

(현재로 복귀)

파브레 공작 : 지금까지 그 힘을 노리는 자들에서 지키기 위해 어쩔수 없이 연금 생활을 강요했었다만.

파브레 공작 : 지금이 바로 영웅이 될 때란다.

루크 : (그렇구나..... 역시 선생님 말대로였어)

제이드 : 영웅입니까.....

알바인 : 무슨 말씀이시라도? 카티스 대령.

제이드 :아닙니다. 그러면 동행자는 저 이외에 누가 됩니까?

모스 : 로렐라이 교단으로서는 티아와 반을 동행시키고 싶다 생각하오.

파브레 공작 : 루크, 너는 누구를 데려가고 싶느냐? 아야 그렇군. 가이를 심부름꾼으로 데려가면 되겠구나.

루크 : 아무나 상관 없어요. 선생님이 있다면야.

나탈리아 : 아버님, 역시 저도 사자로서 함께.....

인고벨트 6세 : 그것은 안된다고 어제 말했지

않느냐!

나탈리아 : ...

루크 : 백부님. 나, 선생 만나고 와도 돼요?

인고벨트 6세 : 좋을대로 하거라. 다른 동행자는 성 앞에 대기시켜 두마.

(루크에게 친선대사의 칭호)

<페이스 채트 '수감된 반'>

루크 : 반 선생님, 잡혀 있었다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친선대사.....

루크 : 액제류스 사람들을 구해내면, 선생님을 봐 주겠다, 라 그랬지~.

루크 : 거기다, 평화조약이 잘 맺어지면 난 영웅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루크 : 그러면, 선생님 말대로 자유로워 질지도..... 빨리 선생님 만나서 이 애길 전해야지!

(전에는 통행할 수 없었던 흙의 왼쪽 문을 통해 지하로 가자)

루크 : 선생님!

워병 : 간단한 경위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

반 : 지금 여기에는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 내 말을 차분하게 들어주었으면 한다.

루크 :에?

반 : 내 밑으로 오지 않겠니? 오라클 기사단의 일원으로서.

루크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반 : 너는 액제류스로 가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겠지.

반 : 하지만 그 역할을 마치는 것으로 너는 킴라스카의 개가 되어 평생을 바티칼에 얽매인 채 살게 될 거다.

루크 : 왜, 왜죠.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영웅이 되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반 : 그래도 액제류스는 좋지 않아. 너도 유리아 쥬에의 예언을 들었겠지.

루크 : 예. 내가 킴라스카를 번영으로 이끌 거라니 어쩌느니.

반 : 그 예언에는 계속되는 부분이 있단다. 「젊은이는 힘을 재앙으로 바꾸어 킴라스카의 무기가 되리라」 라는.

반 : 그래서 교단의 상층부는 네가 루크니까 평야에 전쟁을 초래할 거라 생각하고 있다.

루크 : 내가 전쟁을.....? 그런 말도 안 되는.....!

반 : 유리아의 예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 한번도, 말이다.

반 : 난 네가 전쟁에 이용되기 전에 구해내고 싶다는 거다!

루크 : 하지만 어쩌라고요. 내가 액제류스에 안 가면 거기가 위험할텐데.

반 : 예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반 : 네가 액제류스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동한다. 그 결과로 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반 : 그러니 액제류스에서 사람들을 옮기지 않고 장기(障氣)만을 없애면 된다.

루크 : 장기라면 그 독 비슷한 거죠. 그걸 어떻게.....

반 : 초진동을 일으켜 장기를 중화시키자. 그 다음, 나와 함께 다아트로 망명하면 된다.

반 : 그것으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너도 자유를 손에 넣는 거야.

루크 :할 수 있을까요. 초진동이라 해도 스스로 일으킬 수 있을지 어떻게.

반 : 나도 힘을 빌려주마. 배 위에서 초진동의 폭주를 수습했던 것처럼 말이다.

루크 :알았어. 나, 해볼게요.

반 : 이 계획은, 직전까지 아무에게도 말해서

는 안 된다.

(그러나, 이미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반 : 특히 캄라스카의 인간에게 알려지면 너를 다아트로 망명시킬 기회가 사라지고 말아.

루크 : 저기요, 왜 선생님은 날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는 거예요?

반 : —— 너는 기억장애로 잊고 말았었지.

루크 :내가 무슨 말이라도 했었어요?

반 : 나와 함께 다아트에 가고 싶다고. —— 어린 네가 그랬었던단다.

반 : 초진동 연구 때문에 끔찍한 실험을 받고 있었던 너는, 이 나라에서 도망쳐 나가고 싶어 했었어.

반 : 그래서..... 내가 너를 유괴했었다. 7년 전 그 날에.

루크 : 선생님이지? 날 유괴했던 건 제국이 아니라 선생님이었던 건가요?!

반 : 이번은 실패하지 않겠다. 내게는 네가 필요해.

루크 :나, 남한테서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거 처음이야.

루크 : 선생님 만은, 언제나 날 칭찬하고 야단치고, 진심으로 대해 줬었죠.

루크 : 나..... 선생님 따라갈래요!

반 : 좋다. 그럼 갈까. 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

루크 : 예!!

<페이스 채트 '루크와 반'>

루크 : 해해.....

반 : 왜 그러냐? 루크.

루크 : 이제부터의 일을 생각하니 두근두근 거려서요. 선생님이랑 여행하는 거 처음이고.

반 : 그러냐..... 처음은 아니다, 만.

루크 : 어, 하지만, 난.....

반 : 됐다 루크, 너는 이제부터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거야. 떠오르지 않는 기억에 연연할 거 없다.

루크 : 예!

반 : 알겠지만, 우리의 포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선 안 된다.

루크 : 알았어요!

(성 밖으로 나가자)

티아 : 오빠.....

반 : 이야기는 다 들었다. 언제 출발이지?

가이 : 그 일로 제이드가 제안을 할 생각이 있나 봅니다.

제이드 : 반 요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 뭐 좋습니다. 제이드 : 중앙 대해를 오라클의 배가 감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영사파의 방해공작 아니겠습니까.

티아 : 대령님.....

제이드 : 사실입니다. 워어 대영사 파인지 어떤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지만, 제이드 : 어쨌든 바다는 위험합니다.

루크 : 그럼 어쩌자고.

제이드 : 바다에는 미끼 배를 출항시키고 우리는 육로를 통해 케세드니아로 갑시다. 제이드 : 케세드니아 다음부터의 로탈로 해는 마르쿠트의 제압 아래 놓여 있습니다. 제이드 : 배를 타고 카이틀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반 : 과연. 그럼, 이렇게 하세. 내가 미끼 배에 타지.

루크 : 예에~!?

반 : 내가 액제류스 구원대에 동행한다는 사실은 발표되어 있겠지?

반 : 그렇다면 내가 배에 오르는 것으로 신빙성을 올리겠다. 오라클은 더욱 저 배가 구원대의 본대라 생각할 터.

제이드 : 괜찮겠지요. 어차피 당신을 믿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루크 : 하지만!

반 : 루크, 나를 못 믿겠느냐?

루크 :알았어요.

반 : 그럼 난 항구로 가마. 티아, 루크를 부탁하겠단다.

.....

제이드 : 우리는 인원이 적은 쪽이 눈에 띄지 않을 겁니다. 이 이상은 동행자를 늘리지 않도록 합시다.

제이드 : 이야기를 전해 들 테니 도시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

루크 : 자 그래서, 남은 건 쌀쌀한 여자애랑 여자 싫은 사람이나.....

가이 : 오해를 부를 만한 말 좀 하지 마! 여성분들은 아주 좋아한다고!

티아 : 여자를 좋아한다고 크게 외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까.....

가이 : 그게 아냐! 그게 아니고!

티아 : 자, 가자.

가이 : 사람 말 좀 들어~!

(티아와 가이가 다시 합류한다. 거리로 나가면 아니스도 기다리고 있다)

아니스 : 루크 님!

가이 : 으헉.....

아니스 : 뵈고 싶었어요♡하지만 루크 님께선 맨날 티아랑 같이 계시네요. 아니스 :차사해요.

티아 : 아..... 미, 미안해. 그래도 안심해 아니스. 좋아서 같이 있는 건 아니니깐.

루크 : (웬지 상처 받는데.....)

제이드 : 아니스. 이온 님과 같이 계시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스 : 대령님! 그게요..... 아침에 일어나니 침대가 텅 비어서..... 아니스 : 거리에서 물어봤더니, 어딘가의 서커스단 같은 작자들이, 이온 님 비슷한 사람과 함께 도시 밖으로 나갔다고.....

티아 & 가이 : !

가이 : 서커스 단? 야 설마.....

제이드 : 당했군요. 철축의 날개의 짓입니다.

루크 : 뭐야!? 아 그러고 보니 그것들 오라클 놈들이란 원가 썩덕거렸지, 찌구만 그 자식들!

가이 : 쫓아가자!

아니스 : 안돼~! 도시를 나가면 바로 6 신장 싱크가 버티고 있다가 태클 걸거란 말이야.

티아 :어쩐담. 6 신장이 있다면 우리들이 육로로 갈 것도 들고고 말 거야.

아니스 : 후예? 루크 님 일행 배로 액제류스 가시는 거 아니셨어요?

루크 : 아니, 거긴 미끼야. 제길, 어떻게 밖으로 빠져 나가야했는데.....

아니스 : 그렇다면 저도 도중까지 데려가 주세요! 아니스 : 도시 바깥으로 나간다면 이온 님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루크 : 제이드, 어쩔까?

제이드 : 어쩔 수 없겠지요. 허나 이번의 이온 님 유괴에는 모스의 개입이 없는 모양입니다.

아니스 : 그러네요. 화 내던걸요, 모스 님.

티아 : 그 얘기는, 역시 6 신장과 모스 님은 관련이 없으시다는 걸까.....?

제이드 : 그렇다고 해도, 모스가 전쟁을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의 부정으로는 이어지지 않겠습니다만.

루크 : 6 신장 녀석들 이온으로 어찌러는 거야? 전에는 분명히.....

루크 : 세피로트인가 하는 곳에 데려갔었다는 데.

제이드 : 추측하기에는 정보가 모자라는군요. 제이드 : 그보다 이 도시를 어떻게 탈출할지가 중요합니다.

가이 : 가다려 봐..... 좋은 방법이 있어. 가이 : 구 시가지에 있는 공장 터로 가자. 천공객차로 갈 수 있을 거야.

루크 : 공장터? 알았어.

(아니스와 제이드도 합류한다)

<페이스 채트 '6 신장에 대비해서'>

루크 : 체엿, 모처럼 선생이랑 여행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만.

티아 : 어쩔 수 없어. 이전처럼 배 위에서 승격을 받으면 위험할 테구.

제이드 : 그렇습니다. 사막을 넘는 것도 가혹한 일이긴 합니다만, 달아날 곳이 있지요. 제이드 : 그 편이 승격당했을 때에는 대응하기 편하겠지요.

루크 : 안 걸린다는게 전제잖아.

가이 : 그래도, 오라클 놈들은 끈질기니 말야.

제이드 : 예. 경계는 해 두는 편이 나을 겁니다.

<페이스 채트 '유식한 가이'>

아니스 : 어서 이온 님을 찾으러 가요~.

티아 : 그래. 가이가 말한 공장 터로 서두르자.

아니스 : 가이~. 어디로 가면 돼? 그 공장 터라는 데.

가이 : 항구로 가는 천공객차 반대편에, 병사들이 서 있던 승강장이 있었잖아. 가이 : 거기가 공장 터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천공객차라고.

가이 : 옛날엔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용했다는 듯 하다면, 공장이 폐쇄된 후로는 계속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거지.

루크 : 흐~음, 가이. 어떻게 그리 잘 알어?

가이 : 어릴 적부터..... 어딘가 가 본적이 없는 곳이라도 찾아내면 가 보고 싶어지는 성미라서. 가이 : 어쩌다 알아낸 거다. 그 때엔 흥미 없었지만서도.

루크 : 흐~음. 그렇구만.

아니스 : 얘기 그만 하구 가자니깐~.

티아 : 응응. 그래. 가자 둘 다.

<페이스 채트 '바티칼 넓구나~'>

루크 : 이렇게 광장한 도시였다니.....

티아 : 당신,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느냐.

루크 : 어. 거리 안에 투기장도 있고 군 시설도 있었을 줄은 말야.

티아 : 나도 처음 왔을 때엔, 너무 크길래 놀랐어.

티아 : 로렐라이 교단의 수도원이 바티칼에 있으니까, 약간은 이해하고 있었다 생각했는 데.

루크 : 사람은 와글와글, 시설은 왕창. 거리는 절라 크고, 원가 믿기 어렵더라.
루크 : 집 아래 이런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니 말이지.....

티아 : 괜찮잖아. 일단은 거리로 돌아온 거니깐. 이제부터 많이 보고 다녀.

루크 : 뭐, 이만큼 크면 한동안 질리진 않겠다만. 다음번엔 언제 집에서 나올 수 있을런지 원.....

(거리로 내려가면...)

가이 : 어 맞아, 다들, 잠깐 관촬을까?

티아 : 왜 그래?

가이 : 언젠가 루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장소가 있어서. 이 기회에 데려가고 싶어서 그런단만.....

루크 : 날? 재밌는 데야?

아니스 : 하지만 이온 남이!

가이 : 그건 알고 있어. 하지만, 이남이 오래도록 갈혀 살았다는 것도 고려해 줄 수 없겠나.

가이 : 그리고 여행에도 도움이 될 일이야. 부탁하마.

아니스 :그럼 잠깐 만이야.

가이 : 미안하다. 모두도 미안.

[미야기 도장]

미야기 : 어서 오시오.

가이 : 여기서다.

루크 : 어디야, 여기?

가이 : 민간 도장이지. 너 검술 좋아하잖아? 여기라면 여러가지로 연습을 할 수 있거든.

루크 : 헤에~!

미야기 : 여기는 무술에 익숙한 자에게..... 음, 무어야. 기본이 되어 있는 모양이구먼?

티아 : 아시겠어요?

미야기 : 뭐어, 사람이 가진 독특한 공기..... 같은 걸로 말일세.

미야기 :하지만, 아직도 한참 멀었구만 그래.

루크 :뭐라고라.

미야기 : 자 자, 좀 듣게. 급한 성질은 손해라네.

미야기 : 약하다는 이야기가 아닐세. 창의적인 수련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아니스 : 창의적 수련요?

미야기 : 음. 기술 같은 것은 그 쓰는 법에 따라 보다 차이가 있는 효과를 일으키지.

미야기 : 사용자의 수련 방식에 따라서, 기술이야 천차 만별이라 할 수 있을걸세.

루크 :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미야기 :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가르치겠다는 것이지.

.....

미야기 :라는 말이네.

제이드 : 과연. 킴라스카 무술에 대해서는 여러 소문을 들어 왔습니다만..... 이거 재미있습시다.

미야기 : 무술이 발달한 바티칼 만의 기법이네.

아니스 : 그치만, 저희는 이 나라의.....

미야기 : 허허, 뭐 상관 없소. 전해지지 않는

기법 따위, 어찌 연마가 되겠나.

미야기 : 그렇다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말해줘야 하겠지.

미야기 : 나머지는 살리는 것도 썩히는 것도 그 본인에 달렸으리... 라는 이야기가 되려나?

가이 : 과연.....

티아 : 그럼, 잘 들었습니다.

미야기 : 뭔가 싸움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양 말고 물어 오게나.

미야기 : 이 문은 누구에게라도 열려 있으며 알기를 원하는 자 모두에게 전하기 위해, 여기에 있네.

미야기 : 더욱 정진하길 바라며 내가 보내는 선물이야. 챙겨두게.

(카마인 챔버를 하나 받는다. 동시에 배틀 커스텀 메뉴에 FS 챔버도 추가된다)
(여관에서 숙박하면 볶음밥의 조리법을 배울 수 있다)
(대충 준비가 끝났다면, 양쪽 중 오른쪽 방면의 천공객차를 타고 공장 터로 향하자)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8)

(폐쇄된 공장 터 방면의 천공객차를 타러 가면)

가이 : 이상하군. 언제나 여기엔 병사가 지키고 있었을 건데.....

루크 : 병사? 왜?

가이 : 출입 금지이니까.

행인 : 거기 병사님이라면 성에서 불러들였다느니 어쩌느니 해서 가 버리더구먼.

행인 : 당신들도 공장 터로 가는 거요?

행인 : 아까 어떤 젊은 아가씨도 혼자 천공객차에 타더니만, 요즘은 그런 게 유행인가 보오?

아니스 : 응? 누군가가 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루크 : 뭐, 괜찮잖어? 그보다 여기 타는 거지. 빨랑 가자!

[바티칼 폐공장]

(내려서 몇발자국 걸어가면 이벤트)

가이 : 바티칼이 보석(譜石)의 낙하 흔적 자리였다느니 알겠지.

가이 : 여기에서 안쪽으로 나아가면 낙하 충격으로 생긴 자연의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다.

제이드 : ! 과연, 공장 터라면.....

티아 : —— 배수를 내보내는 시설이 있겠지요.

가이 : 그런 이치. 여기 배수시설은 이미 가동 안 되고 있지만, 지나갈 수는 있을 테니까.

??? : 어머나, 가이. 당신 박식하시군요.

일행 : !!

나탈리아 : 찾아냈사와요.

루크 : 뭐야, 너. 그런 차림으로 왜 어걸.....

나탈리아 : 그야 당연하지요. 적국끼리 화평을 맺는다 하는 중요한 일에, 왕녀인 제가 가지 않아선 어찌 되었어요.

루크 :바보냐 너. 바깥 세상은 공주님께서 태평하게 다닐 만한 세계가 아니라고.

루크 : 까딱하면 마물 뿐 아니라 인간하고도 싸우게 될 걸.

나탈리아 : 저도 3년 전, 케세드니아 북부 전투에서 장병 위문을 나간 적이 있는 걸요.

나탈리아 : 각오라면 되어 있사와요.

아니스 : 위문이란 실제 싸움은 다르구요, 공주님께서 짐이 되실 것 같으니깐 남아 계시는 쪽이 좋겠다 생각해요~♡

티아 : 실례인 줄은 압니다만, 동감입니다.

가이 : 나탈리아 님. 성으로 돌아가시는 편이.....

나탈리아 : 입 다루세요! 저는 '란발디어 류 아처리(archery)' 마스터 랭크예요. 거기다, 치유사(힐러)로서의 학문도 쌓았습니다.
나탈리아 : 저기 어리석어 보이는 꼬마 오라클이나 귀염성 없는 오라클 아가씨보다는 도움이 되겠지요.

아니스 :뭐야, 이 거만한 언니!

나탈리아 : 품위가 없군요. 교양없음이 드러나고 있사와요.

티아 : 질리는 공주님이셔....

제이드 : 이거 재미있게 됐습니다 그러.

가이 :저래서 여자는 무섭단 말이지.

루크 : 뭐라도 됐으니, 따라오지 마!

나탈리아 :그 이야기를 들통내 버릴 거예요.

루크 :그, 그 얘기라니, 뭐 월.

나탈리아 : 저, 우연히 듣고 말았답니다. 당신과 반 요정이 성 지하에서.....

.....

루크 : 야, 어디까지 들었어!?

나탈리아 : 당신을 유괴했던 것이 저 분이었고, 디아트로 같이 망명하시겠다..... 라는 이야기였지요.

루크 :그 전은?

나탈리아 : 듣지 못했사와요. 저, 처음부터 엿들으려 했던 건 아니니까요.

나탈리아 : 그저 당신에게, 저도 데려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 하다가.....

루크 :같이 간다면, 말 안 할거야?

나탈리아 : 망명을 하시게 되시더라도, 저와의 약속을 기억해 내 주시겠다면요.

루크 :좋아, 손가락 걸고 약속이다.

나탈리아 :손가락 걸기 싫어하시지 않으셨나요?

루크 : 뭐?

나탈리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

루크 : 나탈리아도 같이 가기로 했어.

일행 :

루크 : :::

나탈리아 : 잘 부탁드리겠사와요.

티아 :루크. 알아봤어.

루크 : 음..... 시끄러워~! 아무튼 친선대사는 나야! 내가 하는 말은 절대! 알았지!

나탈리아 : 아, 그렇지요 참. 이후 제게 경여는 그만두어 주시와요. 이름도 그냥 부르시길.

나탈리아 : 그렇치 않으면 왕의 딸이라는 것이 들통 날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동료 나탈리아가 가담한다)

<페이스 채트 '반 선생과의 밀담'>

루크 : 나탈리아..... 나랑 반 선생이 했던 이야기, 백부님이나 아버지한테 말 안했지?

나탈리아 : 얘기 안 했답니다.

루크 : 진짜야?

나탈리아 : 네에. 당신께서 정하신 일에 대해, 주제넘은 소리를 할 생각도 없거니와.

나탈리아 : 타인의 비밀을 재잘조잘 말하고 다닐 만큼 가벼운 입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루크 : 그래, 알았어. 그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줘.

나탈리아 : 가이에게도 말씀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루크 :어. 선생님이 그러지 말라 했으니까.

나탈리아 : 그러시군요..... 알겠사와요.

<페이스 채트 '공주님 지키기'>

나탈리아 : 어서 여기를 빠져 나가도록 하세요!

가이 : 야, 루크. 괜찮을까? 이대로 데리고 가도.

루크 : 별 수 없잖아..... 여기서 머뭇거리 뉘자 좋을 일 하나도 없고.

제이드 : 보호하는 역할 힘드시겠습니까. 동정이 가능한군요.

가이 : 당신은 보호 안 하겠다는 듯한 말투 아뇨.

제이드 : 헛헛하. 당연하진 말씀은.정중하게 사퇴하겠습니다.

나탈리아 : 무엇을 몰래 이야기 하시고들 계시는지? 남자 분이시라면 속닥거리시지 마시고 당당히 행동하세요.

나탈리아 : 그게 신사의 행실 아닐려나요?

제이드 : 이런. 야단을 맞았군요. 하하하.

(턴전 맵을 하나 이동하면 이벤트)

루크 : 야, 나탈리아! 천천히 좀 가자고!

나탈리아 : 뭐지요? 벌써 지치셨나요? 한심한 일이예요.

루크 :그, 그런 게 아냐!

아니스 :푸하~. 공주님인 주제에 뭐람, 저 바보같은 체력은.

나탈리아 :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스 : 암것도~.

나탈리아 : 도사 이온께서 유괴되셨다지 않아요.

나탈리아 : 거기다 우리들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서두르지 않아요 선 안 된답니다. 아닌가요?

티아 : 분명 그 말대로이지만, 이 주변은 어두우니까 조금 신중하게 나아가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해.

가이 : 맞습니다요, 나탈리아 님. 좀 천천히 걸으면 안 되겠습니까?

나탈리아 : 가이! 말을 놀이라고 이야기 했을 텐데요.

가이 : 이크, 그랬군요. 실례..... 가 아니라. 미안했다.

제이드 : 나탈리아. 이 6명 멤버로 여행을 하는 이상, 당신 혼자에게 모두가 맞추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제이드 :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당신께서 왕족이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계신 셈이니까요.

나탈리아 :확실히 그 말씀대로이네요. 미안해요.

아니스 : 어라, 의외로 말이 잘 통하네.

나탈리아 : 일일이 시끄럽사와요.

티아 :(한숨)

제이드 : 야아~, 여러분. 서로간의 이해가 깊어진 모양입니다. 다행입니다 다행.

루크 :어디가. 썰렁하기만 하구만.

(계속 진행하자)

(나탈리아에게 요리를 맡김에 따라 페이스 채트가 뜨니 참고하자)

<페이스 채트 '공주님의 시골벽적 요리 1'>

루크 :우역.

가이 : 루, 루크! 그런 표정 하지 말어. 나탈리아한테 미안하잖냐.

루크 :그, 그래도 맛 없으니까 그럴지.

가이 : 루크!

나탈리아 :괜찮사와요. 저, 정말로 요리를 못 하는 걸요.

루크 : 못 한다던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데.

가이 : 니가 하는 요리도 먹을 게 못 되잖어.

나탈리아 : 이 참에, 철저하게 수행해 보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루크 : 그래 그래. 맛없는 걸 먹게 되는 사람 입장도 좀 되어 보라고. 우릴 위해서라도 연습 좀 해라.

나탈리아 :정말 실례스러우서라!

가이 : 자 자. 루크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 당연히 맛보는 데엔 협력해 주겠지 뭐.

루크 : 헉.....

나탈리아 :호호호호호! 그러시군요. 등백 먹여드리겠습니다와요!

<페이스 채트 ' 제 7 음보술사 나탈리아'>

나탈리아 :후우. 연습과 다르게, 실전은 꽤나 어려운 것이군요.

루크 :그럼 돌아가면 될 걸 가지고.

나탈리아 : 농담 마시기를! 전 돌아가지 않겠사와요!

나탈리아 : 그리고 지금도, 제 치유술(治癒術)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요!

가이 : 확실히 지금까지 제 7 음소(세븐스 포님)가 필요로 하는, 치유술을 쓸 수 있었던 건 티아 뿐이었으니까.

가이 : 제 7 음보술사(세븐스 포니머)인 나탈리아가 치유사(힐러)로서 동행해주는 건, 고마울 지도 모르겠는데.....

루크 : 가이! 나탈리아가 따라오면, 너도 마구 휘둘러서 고생할 거라니까.....

나탈리아 : 루크! 약속을 잊으셨어요?

루크 : 으.....

나탈리아 : 아무튼, 제가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당신 자신께서 허락하셨지 않아요?

나탈리아 : 이 이상 아쉽게 종얼거리는 등의 미련 많은 모습은 보이시지 말아 주시길. 아셨겠지요.

루크 :쳇, 잔소리 마녀.

나탈리아 : 그 입 다무세요!

루크 : 아야..... 재길~, 이래선 폭력 마녀잖아.....

(기계류를 조작하고 드럼통에 불을 붙여가며 계속 진행하자)
(페이스 채트가 많이 발생한다)

<페이스 채트 '리더, 나탈리아!?'>

나탈리아 : 자아, 일초라도 빨리 액체류스로!

루크 : 여.

제이드 : 그렇습니다.

가이 : 라져.

아니스 : 뭐랄까~, 남성진 쪽이 말을 잘 듣는 것 같네요.

티아 :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스 : 심정이 복잡한 것 같기도.....

<페이스 채트 '책임이 중대!>

제이드 : 루크. 유우에게 불 뿜기를 시키실 때에는, 신중하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루크 : 어? 왜?

제이드 : 우리들이 불을 붙이고 다니는 폐유는, 주위의 배관에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크 : 그래서?

티아 : 모르겠어? 잘못하면 배관을 통해 불이 터져나가서, 큰 화재가 날 거야.

루크 : 액.....!?

가이 : 그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다.

루크 :헹! 누, 누가 그런 실수를 한다고! 야, 돼지원송이! 너 이상한 데다 불 뿜으면 죽을 줄 알아!

유우 : 알았어염..... 책임이 중대해염.

.....

제이드 : 일단 말해두길 정말 잘 한 모양입니다.

<페이스 채트 '다들 사이좋게 좀 지내자...!>

나탈리아 : 가이, 아직 출구는 없었나요?

가이 : 글썄..... 나도 여기 들어온 건 처음이라 뭐라고 말 못하겠어.

나탈리아 : 휴우..... 먼지 투성이, 거기다 기름 냄새까지 나고..... 싫은 곳이에요.

루크 : 싫으면 돌아가든지.

나탈리아 : 어머! 그렇게 성가신 사람을 쫓아 보낼 셈이신지? 그렇게는 안된답니다!

아니스 :귀찮다는 걸 안다면, 돌아가면 될 걸.

나탈리아 : 뭐라고 하셨지요?

아니스 : 아양, 루크 님, 나탈리아가 괴롭혀요.

나탈리아 : 루크. 당신, 그런 어린애의 역성을 드시는 건가요?

아니스 : 뭐라구요.

나탈리아 : 뭐가요!

티아 :당신들 좀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루크 : 내 잘못이냐!

티아 : 조·용·히·하·하·라·구.

루크 & 아니스 & 나탈리아 :

가이 : 제일 불행한 건 나라니까.....

(턴전 후반까지 진행하면)

루크 : 무슨 냄새 나지 않냐.

아니스 : 기름 냄새 나요~.

가이 : 이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을 시절에 남은 걸려나? 그것치고는.....

티아 : 기다려! 소리가 들려.....

티아 :뭐가있어?

나탈리아 : 어머니,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걸요.

제이드 : 아니..... 있습니다. 마물일까요?

(각자 연장을 꺼내들지만...)

티아 : 위험해!

아니스 : 우왕! 나왔다야!

<BOSS - 아바돈>

처음에는 기름 점막에 감싸인 채 공격해 온다. 네가티브 게이트가 주무기인데, 영창이 상당히 빠르니 조심하자.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히면 물리공격으로 패턴이 바뀌고 버그 퍼레이드 같은 기술을 쓰지만 별로 무서울 건 없다. 낙승.

루크 : 뭐, 뭐였던 거야. 이 마물은.....

가이 : 이 근방에선 못 보던 마을인데. 안은 거미였던 모양이다?

티아 : 폐공장인걸. 거미 정도는 있어도 이상할 게 없긴 한데.....

제이드 : 기름을 먹이로 삼고 있던 참에, 음소 폭주에 의한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나탈리아 :저, 저기. 티아.

티아 : 응?

나탈리아 :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사와요.

나탈리아 :당신에게도 모두에게도 폐를 끼치고 말았네요.

티아 : ! ...괜찮아.

루크 : 뭐가 괜찮어. 발목 잡아채지 마.

티아 : . . .

루크 : 앙튼, 배수시설이란 건 대체.....

가이 : 아래 쪽 아니겠냐..... 음?

가이 : 저거..... 비상구지.

제이드 : 조사해 보십시오.

<페이스 채트 '모두의 힘'>

유우 : 주인님, 굉장해염~♪

루크 :어? 뭐가?

유우 : 전투 때 말이에염. 공격이 되게 많이 맞았어염. 저, 다 봤어염. 적어도 30번은 연속으로 맞았어염.

루크 :별 거 아냐. 그래도, 연계를 생각해 해서 기술을 쓰지 않음 안 되니까.....

유우 : 티아 씨라던가, 모두의 공격이 점점 맞추 제이드 씨 마법이 맞으면 마물 쫓 한방이 예염♪

루크 :

유우 : 아, 아파여~ 주인님, 왜 차시는 거예요~?

루크 : ...흥!

(비상구에 다가가자)

루크 : 좋아, 저기에 사다리를 내리면 밖으로 나갈 수 있겠군.

유우 : 맞아염, 주인님. 여길 나가면 그 다음은 목표! 케세드니아! 예염.

티아 : 케세드니아로 가려면 사막을 건널 필요가 있어, 도중에 오아시스가 있을테니 거기서 한번 휴식하자.

나탈리아 : 가이. 당신이 먼저 내려가세요. 제가 발을 헛디디면 당신이 구해야 할 테니까요.

가이 :내가 그런 걸 못 한다는 걸 알고서 저렇게 말하는군.

나탈리아 : 그것을 어서 극복하지 못하시면, 루크와 결혼했을 때 곤란하게 되는걸요.

아니스 : 루크 님께서는 훨~씬 더 젊고 펑펑한 애가 좋으시죠~♡
아니스 : 약혼 같은 건 언제라도 파기하실 수 있으시구요.

나탈리아 :워쥬.

아니스 : 뭐가아.....!

티아 :

티아 : 루크. 생각해 봤는데 당신 최악이야.

루크 : 왜 그러는데! 내 탓이냐고!!

제이드 : 아야~, 사이들이 좋으신 것 같아 다 행합니다.

루크 : 당신 눈 동태눈깔이지!!

(밖으로 나가면 갑자기 애니메이션 영상이 나온다)
(오라클 기사단이 이온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애쉬에게 달려드는 루크)
(그러나, 비에 젖어 머리카락이 내려간 애쉬의 모습, 루크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사실에 모두들 경악하는데.....)

싱크 : 애쉬! 지금은 이온이 우선이야!

애쉬 : 알고 있다!

애쉬 : 높은신 몸이시군! 줄줄이 여자들이나 끌고 다니고.

.....

루크 : 우욱... 저 자식... 왜 나랑 얼굴이 같.....

나탈리아 :어떻게 된 일이지요?

제이드 : 그건 그렇고..... 이온 님께서 끌려가 셧습니다만.

아니스 :아아앗! 아차~!

제이드 : 어찌 되었든 6 신장과 만난 시점에서 미끼 작전은 실패로군요.

가이 : 바티칼로 돌아가서 배를 쓰는 편이 낫지 않을까.

나탈리아 : 소용 없사와요.

루크 :왜.

나탈리아 : 아바돈께서는 아직 마르쿠트를 신 용하고 계시지 않으시답니다.
나탈리아 : 미끼 배를 출항시킨 뒤로는, 바다로부터 울지 모르는 습격에 대비해 항구를 봉쇄시켰을 거예요.

티아 : 육로를 따라가서 이온 님을 찾자.
티아 : 만일 이온 님의 생명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번 화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0 이 아니야.

아니스 : 그래요! 이온 님을 찾아 주세요! 가는 김에라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제이드 : 결정해 주십시오, 루크. 이온 님을 찾으며 육로로 나아갈지.
제이드 : 아니면 나탈리아를 폐하에게 인계하고, 항구의 봉쇄를 풀어달라 할 수도.....

나탈리아 : 그런 건 안 돼요! 루크! 알고 계시겠지요!

루크 : 아~! 시끄러워! 애당초 왜 내가 정해야 하는데.

제이드 : 책임자는 당신이 아니십니까?

루크 :비꼬기만 좋아하는 작자구만, 정말.

루크 : —— 육로! 나탈리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여러가지로 사정이 나쁘니까.

아니스 : 이온 님..... 어디로 끌려가신 걸까요오.

제이드 : 육상함이 떠나간 방향을 보아 하면 여기서부터 동쪽이니..... 딱 오아시스가 있는 방향이군요.

아니스 : 우리들도 오아시스에 갈 예정이었지요. 루크 님, 쫓아가 주실 거죠!

루크 : 그래.....

루크 : (아우튼..... 나랑 얼굴이 같은 그 자식..... 애쉬라고 그랬겠다... 으윽 기분이 안 좋아.....)

[필드, 아벨리아 평야 동부]

아니스 : 선혈의 애쉬, 루크 님이랑 꼭 닮았던데요.

가이 : 생이별한 형제~..... 같은 애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지. 나탈리아, 뭐 아는 거 없어요?

나탈리아 : 파브레 공작님의 아드님은 루크 혼자일 터예요.....

제이드 : 알 수 없는 것을 생각해 봤자 좋을 일이 없습니다.

제이드 : 애쉬 본인에게서 듣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우리들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지요. 틀림니까?

아니스 : 응. 애쉬 일은 역시 신경이 쓰여두, 지금은 이온 님을 구해내야 겠지요.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이온을 유괴한 것도 애쉬인 것이고, 이온을 구출해 내면 이 의문도 풀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가이 : 그렇군~. 일단은, 오아시스로 가는데 우선이란 뜻이구만.

아니스 : 응~. 가요~.

.....

제이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가. —— 어쩌면 이것조차도 예언에 기록되어 있던 것일까요.

<페이스 채트 '이온의 안부는?'>

아니스 : 아우~. 어서 이온 님을 찾지 않으면.....

티아 : 생명에 지장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돼.

루크 : 뭐랄까, 오라클 놈들의 목적은 대체 뭐야? 평화조약을 방해하겠다면, 우릴 막는 게 이득인 거 아니냐고?

아니스 : 이온 님을 데려가지 않아선 안 될 이 유가, 따로 있다는 말일까요?

티아 : 그런 얘기가 되겠네.....

루크 : 나 참. 귀찮게시리~.

아니스 : 그런 말씀 하시지 말아 주세요~. 루크 님~.

루크 : 알고 있어. 어쨌든, 오라클 놈들을 따라잡아야겠지.

티아 : 그래.

(필드를 나아가서 사막 가운데의 오아시스로 간다)

[사막의 오아시스]

(도착하자 마자.....)

「.....대답해.....! 대답해라!」

루크 : 아파..... 뭐야.....!?

가이 : 루크! 또 언제나의 두통이냐?

티아 : 언제나의 두통?

가이 : 유괴당했을 때의 후유증인 건지, 가끔 두통이 오고 환청까지 들린다는 듯 하더군.

「대답해라! 공병이!」

루크 : 누구야..... 넌.....!

「알면서 뭘 묻나, 나랑 닮은 놈」

루크 : 너, 애쉬냐.....!

「어딜 멍청하게 걸어다니는 거냐 멍청이. 이

온이 어찌 되어도 모른다」

루크 : 너.....! 대체 어디에.....

「자오 유적..... 네가 올 수는 없겠지. 느러터진 도련님」

아니스 : 루크 님! 괜찮으세요!

유우 : 주인님, 기분이 안좋으세요?

티아 : 정신 차려.

가이 : 또 환청이냐?

루크 : 환청인 걸까.....

나탈리아 : 애쉬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애쉬라면, 그 오라클의.....?

루크 :아까 목소리는 분명히 애쉬였어. 이온과 함께 자오 유적에 있다고.....

아니스 : 자오 유적!? 거기에 이온 님이!?

제이드 : 자오 유적..... 2000년 전의 그 자오 유적 말일까요.

루크 : 그건 어디 있는데?

제이드 : 글썄요, 유감입니다만 모릅니다. 책 읽자 분께서 찾아 주신다면 좋겠습니다만.....

루크 : 다, 당신 진짜로 승질 더럽구만.

제이드 : 아노 아노, 슬플 정도로 선량하고 성실합니다만은.

티아 : 대령님! 루크를 놀리시는 건 그만 해주세요.
티아 : 루크. 오아시스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루크 :어. 그래.

<페이스 채트 '자오 유적은 어디에?>

티아 : 자오 유적의 위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탈리아 : 대략적인 장소를 알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유적이라면 눈에 잘 띄지 않을까?

아니스 : 그치만 못 찾아내면, 바싹 마른 건어물이 되어버릴 거야.
아니스 : 사막인 걸. 대충 찌기는 위험하지 않을까.

티아 : 맞아. 유적이라 해도, 모래에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거기다 사막에서 사는 마물은 강할 것 같고.....

나탈리아 : 일이 꽤, 간단히 풀리지는 않는군요.

아니스 : 응~. 아무튼, 물어보자 물어보자!

나탈리아 : 그렇게 하지요.

<페이스 채트 '제이드는 뭐든지 알고 있다'>

티아 : 뭔가, 여러가지가 쓰러져 있네요. 유적이거나 다른 것의 잔해일까요?

제이드 : 이것은, 먼 옛날에 멸망했다 하는 도시의 잔해..... 정확히는 도시 외곽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탈리아 : 그럼, 과거에는 이 주변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이드 : 확증은 없습니다만. 그 옛날 이 근처는 사막이 아니었다는 모양입니다.

제이드 : 단지, 무슨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막이 되는 바람에 풍화를 일으켰다는 듯 하더군요.

루크 : 흐~음. 그럼 어떻게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막이 되었다면서?

제이드 : 그것은, 저 거대한 보석(譜石) 덕택 아니겠습니까.

제이드 : 저 보석이 낙하한 충격으로, 지하에 있었던 수맥이 뿜어나오게 된 겁니다.

가이 : 호오~~~~. 역시 제이드. 뭐든지 다 아는구만.

제이드 : 아니오. 아까 지나쳤던 상인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 뿐입니다.

루크 & 티아 & 가이 & 나탈리아 :대체 어느 틈에.

(100갈드를 내고 물을 마시면 페이스 채트)

루크 : 후우. 이제 좀 살겠네.

나탈리아 : 그렇네요.

루크 : 거 뭐냐, 한번 쉬고 나니. 다시 사막을 걷는 게 짜증나게 되는데~.

나탈리아 : 이해가 가요..... 역시 힘든 일인걸요.....

제이드 : 어이쿠. 두 분의 여행은 여기서 끝인 모양입니다.

제이드 : 뭐어, 왕궁에선 경험할 수 없었을 귀중한 체험도 하셨을 테니. 다행이 아니십니까. 그럼 어딘가에서 또 만납니다.

나탈리아 : 우, 무슨 말씀이시와요! 아직 성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서 가시죠, 루크!

루크 : 어영~뭐 어때. 저 인간 태클 따윈 무시하고..... 좀 더 쉬었다 가자고.

나탈리아 : 안 돼요! 어서 가세요!

루크 : 아, 알았으니까 잡아당기지 마!

.....

제이드 : 이거 꽤나, 다루기 쉬운 분이십니다.

(오아시스에서, 자오 유적은 사막의 동쪽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도구를 적당히 보급하고, 오아시스를 나와 유적으로 가자. 오아시스 동쪽 지점에서 살짝 남쪽이다)

<페이스 채트 '애쉬의 목소리'>

루크 : 애쉬 놈..... 어쩔 셈인 거지? 왜 그 자식 목소리가 들려오는 건데? 구역질 나게.

가이 : 지금까지 루크 너한테 왔던 두통이나 환청, 다 애쉬가 엮어 있었던 거 아니겠냐?

루크 : 어케 알아.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어.

가이 : 앗튼 그래서, 자오 유적 유적이라는 데 갈 거냐.

제이드 : 그것밖에 단서가 없으니 말입니다. 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루크 : 졸라 더운 사막을 걸어서 겨우 오아시스에 도착했구만, 또 사막을 서성거리야 되냐..... 나 잠.

<페이스 채트 '물놀이 최고! ~ 남자들의 경우'>

가이 : 그건 그래도, 굉장한 모래먼지야. 나중에 옷 벗어 털면 모래산이 다 생기겠다. 여기서 거 다 들어오니.

티아 : 정말 그래. 역시 나도 미역을 감고 싶은 기분이야.

루크 : 먹 감기라.....

나탈리아 : 루크! 뭘 또 헤벌죽 해 계시나요!

루크 : 뭐, 왜, 뭘 또!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니스 : 루크 님! 음침한 생각을 하실 틈이 있으시다면, 아서 이온 님을 구하려 가 주세요요.

루크 : 머, 멋대로 결정하지 마! 언제 누가 뭘 상상했다고! 제멋대로인 소리 말란 말야!

나탈리아 : 불결도 하셔라! 당신께서 이런 분이셨다니!

아니스 : 너무해요 너무해~!

루크 : 아~ 진짜~! 시끄럽다고~~!!!

제이드 :가이. 루크 덕택에 살았군요.

가이 :뭐, 뭐가?

제이드 : 입. 침 흘렸습니다. 들켰다면 명석말이였겠지요.

가이 : ::

[자오 유적]

가이 : 저거구만!

루크 : 이 안이라.....

나탈리아 : 안은 어두울 것 같네요.....

유우 : 유우가 불 뿜을게염!

루크 : 계속 뿜고 있을 수 있겠냐? 우리잖어.

제이드 : 바람이 있는 탓인지, 주위에 육상함이 통행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군요.

티아 : 이미 떠난 뒤인가, 아니면 아직 있는 것일까.....

아니스 : 아무튼 이온 님의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깐 가 봐요!

(유적을 탐사하자)

<페이스 채트 '6 신장의 의도'>

티아 : 점점 더 모르겠어. 6신장의 의도가 뭔지를.....

제이드 : 분명 헤아리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런 곳으로 이온 님을 끌고 와서는, 우리에게 그 장소까지 전하다니...

가이 : 우릴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 이라던가?

티아 : 너무 번거로워. 지금까지 항상 직접 습격해 왔었는데, 이제와서 그런 짓을 할까.....?

제이드 : 그렇군요. 뭐어, 어찌 되었건.....

가이 : 전진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거냐.

(진행하다 보면 웬 결정 비스무리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루크 : 응? 뭐야 이거?

티아 : 루크! 함부로 다가가면 위험해.

나탈리아 : 하지만, 예쁜 걸요. 위험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이드 : 오호, 이것은.....

유우 : 음소(音素)예염! 제 2 음소(세컨드 포님)예염!

아니스 : 예염? 어떻게 음소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제이드 : 그 만큼 농도가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가 폰 슬롯에 해당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루크 : 음소이란 건 역시 잘 모르겠단 말이지.....

티아 : 모든 생명체나 구조물은 고유한 진동과 거기에 따른 음향을 발산하고 있어.
티아 : 그것들은 우선 6 가지 음소(포님)로 크게 나뉘고, 진동과 결합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 개별적 존재를 확립시키고 있는 거야.

루크 : ???

가이 : 즉,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하나란 얘기가. 너도 음소랑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티아 :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일 만큼 한 가지 음소만이 결합되어 있는 것은 신기한 일이야.

나탈리아 : 그런데 유우. 당신은 뭘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우 : 소서러 링에 음소를 적시고 있어염!
유우 : 족장님이 말했어염! 음소로 물을 들이면 링이 더 강력해진다 그랬어염!

루크 : 흐~음. 펍이나 강력해지겠다.

아니스 :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것 같아?

유우 : 유우유우유우. 힘이 넘쳐올라염!

일행 : !!

유우 :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느낌이에요.

일행 : :::

루크 : 뭐야 그게. 시시하긴.....

유우 : 유 유 유 유 유우우~!
유우 : 힘이..... 넘치고 있어염~!!!

(움쳐있던 돌더미를 간단하게 부숴 버린다)

일행 : !!

유우 : 굉장해염! 뭐라도 부술 수 있을 것 같아염!

티아 : 소서러 링이 강력해진 것으로 인해, 장비하고 있는 유우가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말일까?

제이드 : 유우. 소서러 링을 보여주십시오.

유우 : 네예염.

제이드 : 그렇군요.....

가이 : 어때?

제이드 : 아마 결정체가 된 음소가 링에 새긴 것이겠지요. 문자가 생겨나 있습니다.

가이 : 문자? 뭐라고 쓰여 있는데?

제이드 : 보(講)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힘을 이룬 모양입니다.

루크 : 그 링, 전부터 뭐라고 쓰여 있었지 아냐?

티아 : 아마 그건, 지금까지 유우가 쓰고 있었던 제 5 음소(피프스 포닝)의 힘일 거야.
티아 : 이번엔, 새로운 약보가 새겨진 걸 통해 새로운 보술을 익힌 거구나.

유우 : 새로운 힘이에요~!!

루크 : 짜증난다고 했지, 이 돼지원송이!

제이드 : 이 링을 보면 한가지 좀 더 약보를 새길 수 있을 것 같군요.

아니스 : 헤에~. 그럼, 또 음소가 모여있는 곳을 찾아내면 꼭 시험해 봐야겠네요!

유우 : 저, 힘내서 더 많이 도움이 될게염!

(유우가 유우 어택을 배운다. 일부 길을 막는 돌덩이 등의 구조물을 파괴할 수 있다)

<페이스 채트 '액제류스로 서두르자'>

루크 : 액제류스 괜찮을려나?

나탈리아 :구조활동을 필요로 할 정도인 걸요.

제이드 : 한 동안은 견디겠지요. 구호물자는 전달되고 있을 겁니다.

제이드 : 뭐어. 안전한 곳까지 주민을 피난시키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진 않겠지요.

루크 : 좀 서두를까. 이 이상 선생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

제이드 : 우리들은 액제류스를 구원하기 위한 사절단입니다만?

루크 :일일이 잔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친선대사라고.

제이드 : 아이구 이거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친선대사 님.

루크 : 흥!

<페이스 채트 '이름있는 유적처럼'>

나탈리아 : 자오 유적이라는 곳에는 어떤 유래가 있나요?

제이드 : 끝째쉴시다. 역사 전반은 제 분야가 아니기에.

제이드 : 그저 내부의 모양을 보아 하면 오아시스에 있던 유적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루크 : 제이드도 모르는 게 있긴 하구만.

제이드 : 이거 영감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저는 아직 젊은 편이니,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스 : 젊은 편..... 이라니. 대령님, 벌써 30은 넘으셨지요.

제이드 : 예. 그렇습니다만 인간성에 연마를 가해 원숙미가 나가 시작하는 것은, 그래, 일러도 40 이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이드 : 나이를 보람차게 먹어서, 이름 있는 유적과 같은 품격을 풍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탈리아 : 어머니, 근사한 마음가짐이시와요.

제이드 : 뭐. 그것을 위해 젊은이들을 많이 들볶도록 해야겠습니다.

나탈리아 :기가 막히는 마음가짐이시군요.

(이제 길을 막는 바위를 부수러 가자)

루크 : 뭐야 이거, 짠나는 바위구만. 야 돼지 원숭! 아까 그걸로 바위 좀 뿌셔바바!

유우 : 알겠어염!

(광!)

아니스 : 와아! 굉장!

나탈리아 : 하지만 웬지 가엾사와요. 유우, 아픈 곳은 없나요?

루크 : 보술이라며? 괜찮겠지.

나탈리아 : 루크! 저는 유우에게 묻고 있는 거랍니다!

유우 : 걱정 마세염!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염!
나탈리아 씨는 상냥하시네염!

티아 : 정말이야. 좀 본받으면 안 돼?

루크 :시끄럽네 거.

루크 : 야! 빨리 와!

제이드 : 이런 점은 닳지 않았습니까.

아니스 : 누구랑요?

가이 : 나탈리아랑... 이겠지?

나탈리아 : 어머니! 그런 실례되는!
나탈리아 : 이보세요들! 어서 가시지 않으시겠어요!

일행 : (웃는다)

(이제 유적의 가장 안쪽까지 들어가자...)
(애쉬, 라르고, 싱크가 이온과 함께 있다)

라르고 : 도사 이온은 의식을 치르는 중이다. 양전히를 있어야.

티아 : 6 신장.....

나탈리아 : 무엇인가요 당신들은! 섬겨야 할 분을 유괴해 놓고서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아니스 : 싱크! 라르고! 이온 님을 돌려줘!

싱크 : 그렇게는 안 되지. 놈은 아직 할 일이 있어.

루크 : 그렇다면 힘으로라도.....

라르고 : 이거 재미있구면. 타르타로스에서 만

났던 겁쟁이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보아 주마.

루크 : 하항..... 제이드에게 당해서 죽다 만 작자가, 큰소리 치지 마!

라르고 : 후하하하하, 그야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리 쉽지 않을거다 애송이.....

싱크 : 6 신장 열풍의 싱크..... 진지하게 하겠다.

라르고 : 마찬가지로인 흑사자 라르고. 자아, 정정당당히 승부다!

<BOSS - 라르고, 싱크>

4대 2이지만 상대의 능력이 높으므로 그리 만만치 않다.
공격의 위력은 라르고가 더 센 편이나, 플레이어는 민첩하고 보술을 구사하는 싱크 쪽을 직접 마크하는 것을 추천.
크리티컬 가드 등의 방어기법을 활용하며 맞싸우다가 큰 빔들을 보일 때 마구 때려주자.
둘 다 HP가 줄면, 자광뇌아섬 등의 오의와 썬더 블레이드 같은 강력한 공격을 해 오므로 아군 HP를 잘 관리하도록.

싱크 :크.....

라르고 : 으음.....!

애쉬 : 두 놈이나 합쳐서 뭘 하고 있나! 머저리들!

(루크와 애쉬가 싸운다. 모습 뿐만 아니라 기술까지 심하게 닳았는데...?)

루크 : 방금..... 방금 그건 반 선생님의 기술이야! 왜 그걸 니가 쓰는 건데!

애쉬 : 그야 당연하지! 유포가 같은 말이다, 이 멍청아! 나는.....!

싱크 : 애쉬! 그만 해!
싱크 : 가만 놔두면 당신은 항상 너무 지나쳐. 감을 치워. 어서!
싱크 : 거래를 하지. 이쪽은 도사를 넘겨주겠어. 그 대신 여기서의 싸움은 이쯤 해두고 싶은데.

가이 : 이대로 너희들을 작살내면 그런 거래는 할 필요도 없는데 말이지.

싱크 : 여기가 사막 아래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당신들을 생매장 시킬 수도 있단 말이야.

라르고 : 물론 이쪽도 휘말려들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상관 없다.

티아 : 루크. 거래에 응하자.
티아 : 지금은 빨리 이온 님을 되찾아서 액제류스로 향하는 편이 나아.

제이드 : 육로를 지나고 있는 만큼 늦어졌으니 말입니다.

루크 :알았어.

(이온을 되찾는다)

아니스 : 이온 님! 걱정했어요.....

이온 :폐를 끼치고 닳았네요.

싱크 : 그대로 잠자코 밖으로 나가시지. 흑시 돌아와서 얼쩡거리다면 그 댐 정말로 매장시킬 거야.

가이 : . . .
가이 :역시 닳았어...

나탈리아 : 저런 천한 무리들에게 명령을 받다니 노여운 일이네요.

가이 : 어? 아아, 그렇지. 하지만 나탈리아. 참아 달라고.

나탈리아 : 알고 있사와요. 지금의 저는 왕녀라는 신분을 숨기고서 여행하는 중니까요.

라르고 : !! 나탈리아.....?

나탈리아 :뭐지요?

루크 : 나탈리아! 가자.

나탈리아 : 네.....

.....

싱크 : 저게 나탈리아 왕녀라..... 인연이네, 라르고.

애쉬 :야 라르고. 너 나탈리아와 무슨 관계라도 있나?

라르고 :글쎄. 옛날 일이다. 잊어버렸군.

싱크 : 6 신장에게 서로의 과거를 알 필요는 없지. 당신도 그걸 몸으로 이해하고 있잖아?

싱크 : 「정스러운 불꽃」이 타고 남은 찌꺼기인 당신이려면 말이지.....

애쉬 :칫.

싱크 : 저 가이란 놈..... 눈치 챘군.

(돌아 나오면 기억진이 탈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 썩 보물이 있다면 단숨에 빠져나갈 수 있다)

<페이스 채트 '이온 구출'>

가이 : 후~, 어찌 되었건. 무사히 이온을 구출할 수 있었구만!

아니스 : 정말이에요~. 이온 님, 얼마나 걱정했대요.

이온 :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루크 : 진짜 그래! 반 선생님 기다시리다 목이 빠지겠다.

아니스 : 자.....

이온 : 미안합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여러분. 도와주신 일,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티아 : 도사 이온!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큰 일이 없었다고는 해도, 이런 위험에 처하게 해드려.....

이온 : 됐어요, 티아..... 고마워요. 자, 케세드니아로 향하지요.

.....

아니스 : 우웬~~~.....

가이 : 루크는 루크대로 사정이 있어서 저래. 자, 케세드니아로 서두르자.

아니스 : 예휴... 그 다음은 배로 카이틀, 걸어서 액제류스..... 갈 길이 멀기도 해라.

(밖으로 나오면...)

아니스 : 후~. 역시 덥고 모래투성이에 먼지투성이라도 바깥이 좋아!

이온 : 여러분. 폐를 끼쳤습니다. 제가 방심하는 바람에.....

아니스 : 그래요, 이온 님! 정말로 큰일이었대니까요!

제이드 : 그런데 이온 님. 그들은 당신께 무엇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까? 여기도 세피로트이지요?

이온 :예. 로렐라이 교단에서는 세피로트를 지키기 위해 '다아트 식 봉주(封呪)' 라는 봉인을 걸어 두었습니다.

이온 : 그것은 역대의 도사 밖에 해제시킬 수 없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풀라 시키더군요.....

가이 : 왜 세피로트를 지키고 있는데?

이온 : 그것은..... 교단의 최고 기밀입니다. 하지만 봉인을 풀어 보았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말이지요...

루크 : 음~, 뭐 아무래도 좋지만. 빨랑 마을에나 가자고. 말라 죽겠어.

티아 : 그래. 케세드니아로 향하자.

나탈리아 : 찬성이랍니다.

유우 : 유우도 예염!

루크 :돼지원송이 넌 닥치고 있어 임마. 더워.

유우 : 유우..... 죄송해염.

(유적에서의 불일은 일단 끝났다. 오아시스 북쪽의 케세드니아로 가자)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9)

[유통거점 케세드니아 남부]

가이 : 겨우 케세드니아까지 왔구만.

티아 : 여기서부터 배를 타고 카이틀로 가는 거지?

제이드 : 마르쿠트 영사관으로 가면 배까지 안 내해 줄 겁니다.

(그 때 다시 루크에게 이상이 온다)

루크 :또인가!

가이 : 루크! 또냐? 요즘 빈번해졌는데.....

루크 :괜찮아. 잠잠해졌어.

가이 : 아니. 만약을 위해 좀 쉬는 편이 낫겠다.

아니스 : 그럼 숙소로 가요. 이온 님 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루크 :알았어.

<페이스 채트 '루크의 두통'>

티아 : 루크를, 액제류스에 가기 전에 제대로 의사한테 진찰을 받게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몰라.

나탈리아 : 치유사(힐러)의 치유술로는 부상이나 해독 같은 것 밖에 해낼 수 없으니까요.
나탈리아 : 티아와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사 와요.

제이드 : 액제류스로 서두르지 않아선 안 됩니다 다만..... 본인에게 달렸지요. 물어보는 게 어떨겠습니까?

가이 : 음~, 바티칼에 있었던 시절, 진찰을 받은 적이 있다만. 결국 뭔지 모르고 끝났어.
가이 : 본인도 짜증난다면 안 가려 하지 않을 까.

티아 : 그렇구나.....

제이드 : 흠. 케세드니아에 바티칼 이상 가는 의사는 없을 테이고... 지금은 진찰을 받게 해도 소용이 없을 듯 합니다.

나탈리아 : 그렇네요.....

(시장 안의 숙소로 향하면 다시 루크에게 이상이 온다)

루크 : 음.....

「이봐! 왜 그러시냐? 그 쪽은 숙소가 아닌 데」

루크 : 시..... 꼬.....

「하하 꿀 좋군. 넌 나와 이어져 있어. 넌 나란 말이다!」

유우 : 주인님! 괜찮으세요!?

티아 : 루크, 정신 차려.

「좋~아..... 저 여자에게 검을 들이대 보라」

루크 : 닥쳐.....! 날 조종하지 마.....!

(스름)

티아 : 루크! 왜 그래!?

루크 : 아..... 아... 나! 몸이 멋대로.....! 하. 하지 마!

(결국 루크는 쓰러진다...)

가이 :루크 녀석 어떻게 돼 버린 거야?

아니스 : 건강에는 문제가 있다. 라.
아니스 : 간호를 할 바에는 골짜기 세상을 틀 만한 돈 많은 영감 쪽이.....

나탈리아 : ? 뭐라고 말 했나요? 아니스.

아니스 :에헤♡ 아무것도 아니야♡

티아 :대령님. 루크에 대해 뭔가 짚이시는 부분이 있으시지 않나요.

제이드 :글쎄요.

나탈리아 : 애쉬인가 하는, 그 루크와 닮은 남자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지요?

제이드 :지금은 언급을 피합시다.

가이 : 제이드! 생색 내지 마.

제이드 : 생색을 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루크의 일은 누구보다도 루크 자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유우 : 주인님이 눈을 뜨셨어염.

루크 :내가 어떻게 됐다고?

제이드 :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습니까? 아직도 누군가에게 조종당한다는 느낌은 있으십니까?

루크 : 아니..... 지금은 별로.....

제이드 : 아마, 저번의 코렐 성에서 디스트가 무슨 짓을 꾸민 것이겠조.
제이드 : 그 멍청한 사람을 붙잡으면 술수를 풀라고 하겠습니까. 그 때까지 참아 주십시오.

루크 :부탁할게. 나 참.
루크 : 근데 이온은 어떻게 할거야?

티아 : 일단 6 신장의 목적을 알 수 없는 이상, 그들에게 이온 님을 빼앗기는 것은 피하는 게 나아.

이온 : 혹시 폐가 되지 않는다면 저도 데려가 주실 수 없으시겠어요?

아니스 : 이온 님! 모스 님이 화내실 거예요!

이온 : 저는 피오니 폐하에게서 친서를 맡았습니다. 그러니 폐하께 액제류스 구출에 대해서도 같이 전해드렸으면 해요.

제이드 : 괜찮지 않겠습니까. 액제류스에서의 활동이 마무리 되면 저와 함께 수도로 향하시지요.

제이드 :어이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루크였지요.

루크 :맘대로 해!

이온 : 또 한동안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거리에서 불일을 다 봤다면 시장 북쪽에 있는 마르쿠트 영사관으로 향하자)
(그 전에 단의 가게에 들러, 모인 교역품을 남품해 보는 것도 좋겠다)

영사 : 대령님. 루크 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요장으로부터 전서구가 와 있습니다.
영사 : 그만큼 요장에서는 선발대와 함께 액제류스로 향하실 모양이십니다.

루크 : 에엑~!? 선생님 뭐가 그렇게 빨라!

이온 : 우리들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그 때, 영사관 근처에 잠입해 있던 싱크가 무언가를 발동시킨다)

루크 : 가이!?
루크 : 아야야.....! 어, 야. 설마 너도 애쉬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건...!

가이 : 아냐..... 별로 환청같은 게 들리는 건 아닌데.....

제이드 : 이런, 상처가 나 있군요..... 이 문장 같은 형태는. 설마 「커슬롯」 일까요.

루크 : 커슬롯?

이온 : 인간의 폰슬루에 거는 다아트 식 보술의 한 가지예요.

이온 : 뇌세포에서부터 정보를 읽어들이, 거기에 새겨진 기억을 이용해 사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만.....

영사 : 의사나 치유사를 부르시겠습니까?

가이 :난 괜찮아. 그보다 배에 타서, 빨리 반 요장을 따라가지.

루크 :그래도. 위험한 거 아냐?

이온 : 커슬롯은 술자와의 거리에 따라 위력이 달라지죠.

이온 : 술자가 가까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케세드니아가 떨어지는 편이 낫겠어요.

영사 : 그럼 이쪽으로 와 주시기를.

(가이를 부축하며 떠나는 일행)

이온 : ...'다아트 식 보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도사 뿐'..... 역시 그는.....

.....

싱크 : 생각보다 저항력이 강하군.
싱크 :뭐 좋아. 어차피 액제류스 건에 휘말리게 될 테니.

(배를 타고 카이를 군항까지 가게 된다)

[또 다시 연락선 컷 벨트]

가이 : 거 참 이상하군. 케세드니아가 떠나자마자 아픔이 완전히 사라졌어.

루크 : 뭐야. 걱정이나 시키고.

가이 : 미안 미안!

티아 : 그럼 역시 커슬롯의 술자는 케세드니아가 근처에 있었던 거구나.

나탈리아 : 다행이에요, 가이. 케세드니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서.

가이 : 어. 그렇게 말야.
가이 : 그러고 보니, 이 상처를 낸 건 싱크였는데. 설마 그 놈이 술자일려나.

이온 : 아마 그럴것지요.

[카이를 군항]

<페이스 채트 '부상을 입은 가이'>

이온 : 가이..... 괜찮으세요?

가이 : 어. 아프지도 아무렇지도 않아. 미안하다. 이온 너한테까지 걱정을 끼치고.

이온 :아니예요.

가이 :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으니 별 상관 없겠지만, 액제류스 건이 정리되고 나면 어떻게 하는 편이 나올려나.

이온 : 가이.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가이 : 괜찮다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돼.

이온 : 그럴... 네요.

(항구를 나가려 하면, 제이드가 액제류스는 항구의 북동쪽에 있는 데오 고개를 넘어서 간다는 것을 알려준다)
(필드로 나가 북동쪽으로 향하자)

<페이스 채트 '액제류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가이 : 액제류스, 피해가 어떤 느낌일 거 같

냐?

티아 : 장기(障氣)의 피해가 심하다면, 현장에서의 간호는 별로 효과가 없어.

나탈리아 : 그렇군요. 피해자들의 피난을 우선으로 삼아야겠지요.

가이 : 그렇다고는 해도, 마르쿠트 측에서부터도 킴라스카 쪽에서부터도 국도를 쓸 수가 없으니 말야.

나탈리아 : 저와 티아 만으로 모든 피해자를 진찰할 수는 없겠지만요, 피난 준비가 끝날 때까지 힘내기로 하지요.

가이 : 양 나라에 피난을 준비한다는 연락은 가 있을 테니, 며칠 내에 손을 써 주겠지.
가이 : 그 때까지 힘좀 쓸 수밖에.

나탈리아 : 네. 백성을 구하는 것 역시,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의무. 주민들의 신뢰에 보답하지 않아서는!

티아 : 그러네.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도록 하자.

<페이스 채트 '전쟁과 모스'>

루크 : 암튼, 내가 액제류스 녀석들을 도우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거겠지?

아니스 :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요~. 그렇게 간단하게 될까야.

티아 : 응..... 킴라스카와 마르쿠트 간의 긴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나까.
티아 : 각지에서 꼼꼼한 활동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루크 : 그냥 저 모스 자식이 닥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아니스 : 모스 님은 이온 님의 행동을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구, 뭔가 어려울 것 같지만요~.

티아 :

루크 : 왜 그래. 너, 이제 모스 편은 안 들기로 했냐?

티아 : 말해봐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액제류스를 구하면 알아 줄 거라 생각해.

루크 : 행. 어떨런지 원.....

<페이스 채트 '액제류스의 광맥산물'>

티아 : 이 근처의 광물자원은, 마르쿠트 제국이 관리하고 있구나.

가이 : 뭐어, 액제류스가 저쪽 나라 동네이니 말이다.

가이 : 그야 이 근처 킴라스카 영토에도 광산은 있지만, 액제류스의 산물에 비하면 질이 꽤 떨어지는 모양이더군.

나탈리아 : 우리 나라는 물자가 부족해지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전쟁의 기색이 커지면.....

아니스 : 아하~. 다아트를 지나는 삼각 교역이라면, 관세를 확실하 물게 되니깐.

이온 : 미안하게 됐어요. 교단의 운영자금 등을 생각하다 보니.....

나탈리아 : 그 건에 대해, 조만간 도사(道師)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 참이지요.
나탈리아 : 물론, 다아트가 있었기에 비로소 적국 마르쿠트와의 무역이 성립되고 있긴 하 하지만...

제이드 : 경제회의는 합당한 장소에서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티아 : 그랬지요. 지금은 액제류스 쪽이 우선이었어요. 제가 이상한 화제를 꺼내서..... 죄송해요.

제이드 : 얼떨 토크 중 미안합니다만, 지금은 6 신장 일도 신경이 쓰이니 말입니다.

가이 :그렇군.

[데오 고개]

루크 : 체엿. 선생님을 따라잡긴 힘들 것 같구만. 사막에서 한눈 팔지 말 걸 그랬지.

아니스 : 한 눈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이 세요.

루크 : 한 눈은 한눈이잖아. 지금은 이온이 없더라도 나만 있으면 전쟁은 안 일어나는 거고.

아니스 : 당신..... 바보세요.....?

루크 : 바, 바보라고.....!

티아 : 루크. 나도 방금 그런 거만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해.

나탈리아 : 이 평화는, 아버님과 마르쿠트의 황제가 도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기에 성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탈리아 : 이온이 없어도 중재를 할 사람이 없어도 되고 말아요.

이온 : 아니요, 양국 모두 제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유리아가 남긴 예언(스코어)」를 원할 뿐이지요.
이온 : 실은 저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가이 : 그런 방식의 생각에는 찬성 못 하겠는데. 이온 네게는 억제력이 있다 이거야.
가이 : 그게 유리아의 예언의 덕이라 해도 말이다.

제이드 : 과연 과연. 모두들 젊은 나이이군요. 그럼 술술 가십시다.

가이 : 이 상황에서 잘도 저런 말이 나오는군. 방심 못 할 아저씨야.
가이 : (그래도 루크 도련님. 방금 그건 상당히 NO GOOD 이었어 임마...)

(유우 어택으로 바위를 깨고 고개를 올라가자)

<페이스 채트 '실언'>

아니스 : 정말이지 참. 루크 님, 진짜(바보?)!

제이드 : 이런 이런. 아직도 화가 나 계십니까? 아니스 치고는 희한한 일입니다.

아니스 : 그, 그렇지 않답니다아..... 전 루크 님(의 재산)을 아~주 좋아하는걸요☆

제이드 : 정말이십니까? 이온 님을 팔보기에, 아무리 아니스라 해도 화를 내게 된 게 아니었지요?

아니스 : 네? 그, 그렇지 않단니까요~.....
아니스 :뭐어, 조~금, 쏠리긴 했었지만요.....

제이드 : 흠..... 그렇군요.
제이드 : 국가간의 미묘한 정세나 각 요인의 행동과 관계가 멀다고는 해도. 역시 실언이었습디다.
제이드 : 아니, 과연 실언이었다, 라 해야 할까요?

아니스 : 아이 참, 그 이야기는 됐어요!! 대령님, 어서 가요.

제이드 : 예 예.

<페이스 채트 '액제류스로 가는 길'>

나탈리아 : 생각했던 것 보다, 길이 준비가 되어 있군요.

가이 : 진짜구만. 지금은 이 길, 별로 쓰이지도 않을 건데 말이야.

루크 : (슬그머니 끼어들며)어째서?

가이 : 이 길은 원래, 액제류스가 킴라스카 영토였던 시절에 이용되었던 길이니깐.

나탈리아 : 마르쿠트에 빼앗긴 지금이 되어서는, 이 쪽 길을 쓸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이드 :뭐어 다음 전투의 목적이 액제류스라면 정비해 두는 편이 득책이겠습니까만.

나탈리아 : 무슨 의미이신지요.

제이드 : 만약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제이드 : 이 길을 낸 킴라스카의 통목기술이 고등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탈리아 :정말이지 당신께선 일일이 비위에 거슬리는 말투를 사용하시는군요.

제이드 : 헛헛하. 듣고 보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올라가던 도중...)

이온 : 하아..... 혁, 허억...

아니스 : 이온 님!

티아 : 괜찮으신가요? 조금 쉬시겠어요?

이온 : 아니요..... 전 괜찮아요.

아니스 : 안돼요! 모두들, 잠시 휴식요!

루크 : 쉬어?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먼저 가 있다고!

나탈리아 : 루크! 괜찮지 않을까요!

가이 : 그래. 산길이 험하니 별 수 없잖나?

루크 : 천선대사는 나란 말야! 내가 간다면 가는 거야!

일행 : ...

아니스 : 다..... 당신 말인...

제이드 : 그럼 잠시 쉬십시오. 이온 님, 괜찮으시겠지요?

루크 : 야!

이온 : 루크,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루크 :쫓. 알았어.
루크 :잠시만이야.

이온 : 고맙습니다.

(휴식 중)

티아 : 루크. 왜 그렇게 초조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태도는 그만두는 편이 좋아.

루크 :왜 또. 뭐가.

티아 :이젠 됐어.

루크 : 뭐가 어쩐다고! 젠장!

(기억진을 지나 고갯길을 내려가자)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즈음에 누군가가 위협사격을 해 온다)

리그렛 : 멈춰라!
리그렛 : 티아, 왜 그런 녀석들과 언제까지도 행동을 같이 하고 있지.

티아 : 모스 님의 명령이십니다. 교관님이야말로 왜 이온 님을 끌어다 체피로스를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죠!

리그렛 : 인간의 의지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야.

티아 : 무슨 의미이십니까.....

리그렛 : 이 세계는 예언(스코어)에 지배되고 있어.

리그렛 : 무엇을 할 때에도 예언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게 이상하는 생각은 해본 적 없나?

이온 : 예언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리그렛 : 도사. 당신은 그럴더라도,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예언에 의지하며 거기에 지배 받고 있어.

리그렛 : 심한 자는 저녁식사의 반찬조차 예언에 기대는 꼴이야. 당신들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스 : 그럴게까지 심하진 않지만..... 예언에 미래가 적혀 있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쪽이.....

가이 : 생일에 노래되는 예언은 그런대로 참고도 되고 말야.

나탈리아 : 그럴사오. 거기다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인생의 예언을 듣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이드 :결국 예언에 의지하는 것이 편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제이드 : 그래 봤자 유리아의 예언 이외는 애매해서, 해석해 내는 것이 힘들지만.

리그렛 : 이런 의미야. 이 세계는 미쳐 있지. 누군가가 바꾸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리그렛 : 티아.....! 우리와 함께 오너라.

티아 : 저는 아직 오빠를 의심하고 있어요. 당신께선 오빠의 충실하신 오른팔.
티아 : 오빠를 향한 의문이 풀리기 전까지 당신 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리그렛 : 그렇다면, 실력으로라도 너를 막도록 하마!

<BOSS - 리그렛>

마탄의 리그렛. 혼자 등장했기에 간단하게 생각될 수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강적이다. 무기로 사용하는 보업총의 연사력과 사정거리가 우수하니, 공격할 틈을 주지 말고 근접전으로 몰아세우자. 번튼을 허용했을 때 맞게 될 에끌레르 러름에 대비해, 프리 런과 조작 캐릭터 변경 등을 써서 가능한한 흠여질 것. 또한 빛 속성 FOF가 생기면 플럼 루주가 발동되므로 근처에 갈 생각도 하지 말자. 6 신장이 다 그렇지만, HP가 떨어지면 강력한 공격을 마구 써 온다. 레이저 레이저와 홀리 랜스에 주의.

리그렛 : 티아..... 그 미완성품에게서 떨어지라 했다!

루크 : 미완성이라니 날 말하는 거야!?

제이드 :그래, 역시 너희들이냐! 금기의 기술을 부활시킨 것은!

이온 : 제이드! 안 됩니다! 모르는 편이 나은 것도 세상에는 있는 법이에요.

제이드 : 이온 님..... 알고 계셨는가!

루크 : 뭐..... 뭐야? 날 내버려두고 대화를 진행시키지 마!

루크 : 저게 무슨 소리야! 나랑 관계 있는 거지!?

제이드 :누구의 제안이었나. 디스트냐!?

리그렛 : 포미클리 말인가? 알아서 어쩌려는 거지?

리그렛 : 주사위는 던져졌다. 사령술사 제이드!

(리그렛은 섬광탄을 터뜨리고 이탈한다)

제이드 :크. 웃기지도 않아!!!

아니스 : 대령님..... 희한하게 정말로 화내시고 계세요.....

제이드 : 실례. 냉정함을 잃었습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액제류스로 서두릅시다.

(루크를 놔두고 떠나는 일행)

루크 : 까불지 마! 나만 따지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유우 : 주인님, 화내시면 안돼염.....

루크 : 이놈이고 저놈이고 날 우습게 보고서 업신여기고 있어! 난 천선대사란 말야!

유우 : 주인님.....

루크 : 선생 뿐이야..... 날 이해해 주는 건 선생님 만이야.....!

<페이스 채트 '바보취급 하고 있어!>

루크 : 치잇.....

유우 : 주인님.....

루크 : 내가 모르는 데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루크 : 그 리그렛이라는 여자! 나보고 미완성이라고!?

루크 : 찢! 쓰브! 티아도 제이드도 이온도 다들, 다들 중요한 애긴 하나도 안 해주고!!

루크 : 우습게 보다니..... 난 천선대사란 말이야!

유우 : 화 내시지 말아주.....

루크 : 그럴 거면 나한테 말도 걸지 마! 짜증나! 이놈 저놈 전부 다!

유우 : 주인님.....

(...필드로 나가서 액제류스로 향하자. 바로 북동쪽에 있는 구덩이 같은 마을이다)

<페이스 채트 '상냥한 반 선생님!>

루크 :젠장! 다 같이 날 업신여기고...

티아 : 루크..... 확실히 우리도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어.

티아 : 하지만 당신의 그 태도가, 모두에게서 설명할 의욕을 빼앗은 것도 사실이야.

루크 : 흥, 또 잔소리나 하려고! 쫄쫄알 시끄러워! 이 냉혈한 지지배!

티아 : 적당히 좀 해. 어린이에 같이.....

루크 : 시끄러! 선생은 그런 식으로 날 바보취급하지 않았어! 언제나 내게 상냥했어!

루크 : 내가 모르는 것도 제대로 다 설명을 해줬었어! 선생님.....

티아 :그럼, 당신은 오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인형같은 사람이구나.

루크 : 뭐가 어째!

티아 : 이젠 됐어. 다만, 한가지만 충고하겠는 데.

티아 : 당신, 조금은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돌이킬 수 없게 될 거야.

루크 :제기랄.....! 선생님.....!

[광산마을 액제류스]

(들어가면 수많은 주민들이 장기로 인한 질병에 신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루크 : 이..... 이건.....

제이드 : 상상했던 것 이상이군요.....

루크 : 어, 아, 나탈리아. 지저분하니 그만 뒤. 옮을지도 모른다고...

나탈리아 :뭐가 더럽지요? 뭐가 전염된다고요? 바보같은 말씀 하시지 마세요!

나탈리아 : (환자를 돌보며)괜찮으신가요?

???: 당신들 킴라스카 쪽에서 왔소?

루크 : 어..... 저기.....

나탈리아 : 저는, 킴라스카의 왕녀 나탈리아입니다.

나탈리아 : 피오니 9 세 폐하에게서 의뢰를 받고 모두들 구출하러 왔답니다.

???: 아아! 그란츠 씨라는 사람에게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파이로프 : 나는 파이로프입니다. 저기 갱도에서 현장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파이로프 : 총장님까지 쓰러지는 바람에 내가 대리로 잡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소.

제이드 : 그란츠 요장(謠將)과 구조대는?

파이로프 : 그란츠 씨라면 갱도 안이외다. 저기서 쓰러진 동료들을 구출해 주고 있지요.

가이 : 이 근처는 그래도 아직 후브러스 강에서 봤던 장기(障氣)보다 낫다는 느낌이군.

아니스 : 갱도 안은 끔찍하다는 것 같아.

티아 :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 갱도로 가

보자.
티아 : 루크!

루크 : 아..... 어어..... 응.....
(사람들과 대화를 해 보자)

<페이스 채트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루크 :

가이 : 루크, 우리까지 비실비실거리면 마을의 모두가 불안해져 버려. 빠릿빠릿하게 하자 야.

루크 : 빠릿하고 빠삭하고, 친선대사인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가이 : 야 야, 할 일이야 산처럼 있잖아. 환자를 호송하거나, 짐을 옮기거나.....

루크 : 그러니까, 왜 내가 그런 걸 해야 되나 이거야.

가이 : 루크.....

루크 : 왜, 왜 그래....

가이 : 너 임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냐?좀 더, 잘 생각해 봐.

.....

루크 : 나 참. 한 사람 한 사람 구해서 어느 세월에 끝나. 내 초진동이면 장기를 한방에 날려보낼 수 있구만.

루크 : 그럼..... 일단은, 선생님을 찾아야겠지.

<페이스 채트 '참극'>

나탈리아 :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심하군요.....

아니스 : 사망자가 나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겠어~. 서두르지 않으면 큰일날 것 같아.

가이 : 길가에 텅굴고 있는 사람이나, 강도 안에 남겨져 있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이거 일났는데.

이온 : 아직 정도가 가벼운 사람도 몇 사람 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구조를 돕게 하는 것도 가혹한 일이겠네요.

티아 : 흠어지는 편이 좋을지 모르겠어.

나탈리아 :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선 안되겠어요. 흠어질지 어떨지는, 그 다음에 정하기로 하시와요.

제이드 : 일단, 마을을 구석구석까지 조사하지 않고서는.....

티아 : 루크, 그래도 되지?

루크 :

나탈리아 : 루크! 듣고 계시나요?

루크 : 아, 어어.

<페이스 채트 '광산마을 액제류스'>

가이 : 벽 안에 묻혀있는 파란색이나 녹색 돌..... 저게 광석이군?

제이드 : 그렇지요. 액제류스의 광석은 무기나 갑옷의 원료로서, 아주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아니스 : 그럼, 지금 슬쩍해 가면 큰 부자가 되겠네요!

아니스 : ...라니 농담이예요~;; 냐하하하 냐하하하.....

나탈리아 :이곳의 모두는, 생명을 걸고서 나라를 위해 그 광석을 채굴하고 계시는 것이시지요.

나탈리아 : 우리도, 모두를 돕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요.

아니스 : 응. 그러자.

루크 :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장기를 없애는 거 아냐.....?

<페이스 채트 '액제류스의 재난'>

가이 : 액제류스라면, 옛날엔 김라스카 영도였지.

제이드 : 예에, 그랬었지요. 원래부터가 이 부근은 항상 영도 다툼이 휘말려 왔으니.....

가이 : 역시 액제류스 광산의 채굴권은 매력적인가 보구만.

제이드 : 그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광산을 가진 것 만으로도, 물자에 관해서는 두다리 뺀고 잘 수 있으니 말입니다.

가이 : 그런 시시한 다툼에 휘말리며 사는 국민들은 못 살 지경일 거야.

제이드 :거기다 이 장기가 아닙니까. 액제류스 여러분에게는 동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숙소에서 쉬면 페이스 채트)

제이드 : 친선대사라는 분은 아무래도 별 도움이 안 될 모양이십니다.

아니스 : 사람 손이 부족한데두~. 증말~.

가이 : 여쩔 수 없는 결지도 몰라. 이런 건 처음일테니 말야.

나탈리아 : 루크도 분명 며칠만 지나면, 왕족으로서 친선대사로서 그 역할을 다해 줄 거라 생각한답니다.

나탈리아 : 그 때까지는 우리를 만이라도 힘을 내지요. 고통받고 있는 백성을 위하여.

제이드 : 그렇습니다만, 이대로 이 마을에 오래 머물렀다가는, 우리들도 장기에 중독되고 맙니다.

제이드 : 쓸모없는 인간은 머릿수에 낄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행동에 폐가 되니 말입니다.

아니스 : 독하시네요~. 대령님.

제이드 : 사실이여 여쩔 수 없습니다.

가이 : 뭐어, 그럴지도 모르지.....

(페이스 채트를 다 보고, 마을의 참사도 눈으로 확인했다면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 14 강도로 향하자)

하이먼 : 그란츠 항장(嚮長)님이십니까!
하이먼 : 저는 모스 님께 제 7 보석(講石) 건을 알린 하이먼입니다.

티아 : 수고하십니다.

이온 : 제 7 보석? 설마 발견된 것입니까!

하이먼 : 예. 다만 진위 여부는 파내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이온 : 티아, 당신은 제 7 보석을 확인해 주세요. 저는 루크 일행과 함께 선발대를 쫓겠습니다.

티아 : 알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을 부탁드릴게요.

(티아와 헤어진 후 강도로 들어가게 된다)

[액제류스 제 14강도]

<페이스 채트 '안으로...!>

루크 : 여기도 장기가 꼭 들어차 있는데.

아니스 : 이 안에 장기의 발생원(源)이 있을까요요.

가이 : 그렇다는 건 안으로 들어갈수록 위험해 진다는 얘기일지도 모르겠군.

제이드 : 티아도 안 계시고 하니, 조금 위험하겠습디다 이거.

제이드 : 하지만, 안에 아직 남겨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스 : 발생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모

르고. 나아가 봐야 한다, 라는 거네요.

루크 : (충열)발생원..... 반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걸 없애면, 다들 날 다시 봐 줄지도 몰라.....

가이 : 루크, 뭐하냐? 가자.

루크 : 어, 그래.

(어느 정도 내려가면 광부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루크는 혼자 망설이고...)

나탈리아 : 정신 차리시와요. 지금 도와드리겠어요.

제이드 :이상합니다. 선발대의 모습이 없군요.

(그 때 다시 루크에게 이상이 온다)

루크 :으음.....! 또야.....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건 그만 뒤라!」

<페이스 채트 '선생님은 어디에.....?'>

루크 : 또 두통이.....

유우 : 주인님, 괜찮으세요?

루크 : 시끄러~! 너도 저리 가!

유우 : 유우우~.....

루크 : 또 나 혼자 할 일이 없잖아..... 선생님, 진짜 어디로 가 버린 거야.
루크 : 선생님이랑 만나기만 하면, 장기를 없앨 수 있는데.....

<페이스 채트 '친선대사로서'>

루크 : 대체 선생님 어딴거야.....

이온 : 루크, 어쨌든 지금은 마을 사람들을 돕는 것을 생각하지요.

루크 : 선생도 이 마을에서 구조활동 하고 있을 거 아냐. 선생님이라면 애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줄 거야.
루크 : 난 선생님을 찾고 싶다고!

이온 : 하지만요 루크, 마을 사람들은 한시라도 빨리 구조받길 원하고 있을 거예요.
이온 : 친선대사로서의 당신의 활동에 기대하고 있...

루크 : 나도 알아! 그런 소릴 일일이 안 해도!!

이온 : 그러신가요..... 알겠습니다.

(지하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면, 갑자기 위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온다)

제이드 : ...위의 상태가 수상하군요. 보고 오겠습니다.

(반에게 다가가는 루크와 이온. 그러나 직전에.....)

「안쪽으로 가지 마! 돌이킬 수 없게 될 거다! 말을 들어!」

루크 :니 명령 따윈 누가 듣는다고...

.....

반 : 겨우 왔느냐.

루크 : 선생님! 이런 데 있었나요. 다른 선발대는?

반 : 다른 장소에 대기시켜 두고 있다.
반 : ——도사 이온. 이 문을 열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온 :이건, 다아트 식 봉주. 그럼 여기도 세피로트로군요. 여기를 여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어서...

반 : 아니오. 여기 액제류스를 재생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루크 : 이온! 부탁할게. 선생님 말대로 하면 다 잘 될거라고.

이온 :알겠습니다.

(봉인이 풀린다)

「그만 뒤! 가지 마! 액제류스를 멸망시킬 셈 이냐!」

루크 : 무슨 소리야! 난 여기 장기를 중화시키려는 것 뿐인데!

.....

(알 수 없는 시설로 진입한다)

이온 : 여기는..... 자오 유적이나 슈레 언덕과 같은.....

반 : 루크. 이 쪽으로.....

<페이스 채트 '선생님한테 말하면.....!>

루크 : 난 이제부터 영웅이 되는 건데. 애쉬 명령 따낼 들을 줄 알고.....!

이온 : 루크, 모두와 떨어져서 행동하셔도 되겠어요?

루크 : 선생님이 있잖아. 거기다, 내가 이제부터 액제류스를 구하겠다는 거야. 모두도 불만 없겠지 뭐.

이온 : 무슨 말씀이시죠?

루크 : 선생을 따라가면 알게 돼.

이온 :

반 : 자아, 루크. 저 음기관 —— 패시지 링까지 내려가서, 장기를 중화시키거라.

이온 : 무슨 애기인가요? 중화같은 걸 시킬 수 있습니까?

루크 : 그게 가능한단 말야. 난 선택받은 영웅 이니까.

(한편 캥도에선...)

제이드 : 티아!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소동은.....

티아 : 대령님! 선발대가 몰살 당해 있었습시다!

티아 : 타르타로스를 나포했던 오라클이 매복해 있다가 선발대를 제거한 모양이에요!

제이드 : 그래서 선발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제이드 : 역시 액제류스 구원을 방해하기 위하여.....

티아 : 아니요, 그들은 저를 데려가기 위해 오빠의 명령으로 정박해 있던 거예요!

제이드 : 무슨 말씀이신지?

티아 : 아까 제 7 보석을 확인하러 갔을 때 —— 결국 그것은 제 7 보석은 아니었습니다만...

티아 : 아무튼 그 때, 저는 오라클에게 끌려갈 뻔 했었던답니다.

제이드 : 왜 당신을.....

티아 : 오빠의 지시였지요! 오빠가 저까지 휘둘러줄게 하지 않기 위해서.....!

티아 : 오빠는 어디 있나요! 오빠는 무서운 일을 저지러려 하고 있습니다!

애쉬 : 야! 그런 데서 수다떨 틈이 있다면 그 머저리 도령을 어떻게 꺼내 와! 죽는다!

티아 : 그가, 애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틀림없어요!

티아 :오빠는.....

(다시 시설)

반 : 그래 그대로 집중하거라.

루크 :

반 : 자아..... 「어리석은 복제 루크」. 힘을 해방시켜라!

(알 수 없는 힘이 일어나 이온과 유우를 날려보낸다)

루크 : 뭐..... 뭐야!? 내 안에서 뭔가가.....

(회상)

반 : 루크,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힘을 빼고 그대로.....

"내가 지시를 하면 너는 온몸의 폰슬릿을 해방시켜 초진동을 발산해라"
"그래, 지금 쓰고 있는 그 힘이다. 구호는....."
"「어리석은 복제 루크」"

(현재. 다시 캥도)

티아 :오빠는.....

티아 : 액제류스를 소멸시킬 생각인 거예요!!

(다시 시설. 루크가 무언가를 기동시키고 무릎을 꿇는다)

반 :이제야 겨우 도움이 되었군. 복제품.

루크 : 선생..... 님.....?

애쉬 : 제기랄! 이미 늦었나!

반 : 애쉬! 왜 여기에 있나! 오지 말라고 했을 터이다!

애쉬 :아깝게 됐군 그래.
애쉬 : 나 뿐만이 아니야. 당신이 빼돌리려 했던 당신 여동생도 데리고 왔지!
(괴조를 불러 애쉬와 함께 이탈하는 반)

애쉬 :뉘! 나도 여기서 죽을 거다!

반 : 이온을 구할 생각이었다만 별 수 없지. 너를 잃을 수는 없으니.

티아 : 오빠! 역시 배신했어! 이 외각대지는 존속시켜 두겠다고 말했잖아!
티아 : 이런다면 액제류스 사람들도 타르타로스에 있는 오라클도 모두 죽어 버릴거야!!

반 :메쉬티아리카. 너도 조만간에 알게 될 거다. 이 세계의 구조의 어리석음과 추함들.
반 :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너만은 살아남았으면 한다.
반 : 네게는 보가(謠歌)가 있다. 그것으로.....

제이드 : 큰일이군! 캥도가 무너집니다!

티아 : 내 곁으로!빨리!

(액제류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무비를 볼 수 있다.....)

[붕괴된 액제류스]

유우 : 주인님! 다행이세염!

<페이스 채트 '대체 무슨 일이.....?>

루크 :제길,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루크 : 액제류스의 장기를 없애기 위해 초진동을 써더니, 캥도가 무너져서..... 그리고.....?
루크 : 제길, 영문을 모르겠어.....

(동료들에게 말을 걸자)

(일행이 마계 클리포드로 흘러들어왔다는 사실, 타르타로스의 방어보술이 작동되어 선체만은 무사하다는 사실을 듣는다)

???:으으.....

티아 : 누가 있어!

존 : 아..... 빠..... 아퍼..... 아빠.....

나탈리아 : 기다리세요! 지금 구해 드리겠어요!

티아 : (덱)안돼! 이 진흙 바다는 장기를 머금은 바닥 없는 바다야. 설부르게 들어갔다간 살아 나올 수 없어.

나탈리아 : 그럼 저 애는 어떻게 하나요!

티아 : 여기서부터 치유술을 걸어 볼게. 달을 지도 몰라.

가이 : 야! 일났어!

(아버지의 주검과 함께 가라앉은 존...)

제이드 : 이런!

존 : 엄..... 마... 살려줘... 요..... 아... 빠... 살... 려줘...

(...결국 가라앉고 만다)

아니스 : 여기도 무너져 버리는 거야!?

제이드 : 타르타로스로 가십시오. 긴급 부표가 작동되어서 이 진흙 위에서도 떠 있습니다.

[육상장갑함 타르타로스]

제이드 :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아 : 마계(클리포드)에는 유리아 시티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마 여기서 서쪽이 됩니다.

티아 : 일단은 거기를 목표로 삼아요.

제이드 : 잘 아시는 모양이십니다. 이 자리를 피한 후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페이스 채트 '반의 진의'>

나탈리아 : 아까 그 아이..... 살릴 수 없었사와요.....

이온 :유감이지만, 그 시점에선 이미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온 : 우리들이 좀 더 그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 무언가 방법이 있었을 지도 모르지만요.....

티아 :오빠를 막을 수만 있었더라면, 그 애도 액제류스 사람들도 희생되지 않았을 텐데.....

루크 : 뭐야!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나랑 선생님은 장기를 없애려 했던 것 뿐이라고!
루크 :없애려 했던 것 뿐인데.....

티아 :지난 일은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가이 : 티아.....

제이드 : 그렇습니다, 그보다도 반의 의도가 신경이 쓰이는군요. 왜 그가 그런 짓을.....

이온 : 알 수 없습니다.
이온 :하지만 액제류스를 붕괴시키는 것만이, 반의 계획 전부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이온 : 무언가, 아직 그 다음 일이.....

나탈리아 : 이 이상의 피해는, 절대로 막아내지 않아선 안 돼요.

티아 : 응..... 이번에는말로 오빠를, 막지 않으면.

(서쪽으로 가다 보면...)

가이 : 가도 가도 아무것도 없군..... 이봐, 여기 땅 밑이야?

티아 :어떤 의미로는.
티아 : 당신들이 사는 곳은, 여기선 외각대지(外殼大地)라 불리고 있어.

티아 : 이 마계에서 뻗어 있는 세피르트 트리라는 기둥에 받쳐진 공중대지이지.

나탈리아 : 의미를..... 모르겠는데요.

티아 : 옛날, 외각대지는 여기 마계에 있었어.

아니스 : 믿을 수가 없어.....

티아 : 2000년 전, 울드란트를 원인 불명의 장

기가 감싸서 대지가 오염되기 시작했었어.
티아 : 그 때 유리아가 일곱 예언을 읽어들이며, 멸망을 피하고 번영할 수 있을 길을 발견했던 거야.

이온 : 유리아는 예언을 기초로 해서, 지각을 세피로트로 받쳐 부상(浮上)시키는 계획을 제안했었어.

가이 : 그게 외각대지의 시작, 이라.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이온 : 예. 이 이야기를 아는 것은 로렐라이 교단의 영사직 이상과 마계 출신 사람들 뿐입니다.

아니스 : 그럼 티아는 마계의.....?

이온 :어쨌든 우리는 무너져 추락했었죠. 살아난 건 티아의 보가 덕분이네요.

제이드 :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야기를 들을 대로라면, 액제류스는 기동에 지령되고 있던 것이 아니었는지?

이온 : 그건..... 기동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스 : 어째서요?

루크 :나, 난 몰라! 난 그냥 장기를 정화시키려고 했던 것 뿐이야!
루크 : 그 장소에서 초진동을 일으키면 장기가 사라질 거라 그랬어.....!

티아 : 당신은 오빠에게 속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액제류스를 받치고 있던 기동을 지워 버렸어.

루크 : 그런! 그럴 리가.....

이온 :반은 당신께 패시지 링으로 가라고 명령했었지요.
이온 : 기동은 패시지 링이 만들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티아 말대로일 겁니다.
이온 : 제가 명칭했어. 반이 루크에게 그런 짓을 시키려 하고 있었다니.....!

제이드 :적어도 루크가 사전에 우리에게 상담을 해 주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제이드 : 설사 장기를 중화시키는 게 가능한 일이었다 해도, 주민들을 모두 피난시킨 후에 해도 좋을 일이었겠지요.

제이드 :지금 말해봤자 소용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만.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액제류스는..... 소멸되었으니까요.

나탈리아 : 몇천명이라는 인명이, 한 순간에.....

루크 :내,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냉담한 시선을 한 몸에 받는 루크...)

루크 :난..... 난 아무 잘못도 없어.
루크 : 그치만, 선생이 그랬던 말야..... 맞아, 선생이 그러라고!
루크 :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루크 : 난 잘못 없어! 난 잘못 없어!!!

티아 :대령님?

제이드 : 브릿지로 돌아가 있겠습니다.
제이드 :여기 있자니 멍청한 발언에 속이 뒤집히는군요.

루크 : 뭐야! 난 액제류스를 구하려 그런 건데!

나탈리아 : 변하시고 마셨군요..... 기억을 잃은 다음의 당신은 마치 다른 사람 같으세요.....

루크 : 너, 너네들도 아무것도 못 했잖아! 나만 탓하지 마!

이온 : 당신 말씀대로입니다. 저는 무력해요. 하지만.....

아니스 : 이온 님! 저런 형편없는 사람은 내버려 두셔도 돼요.

루크 : 나, 나쁜 건 다 선생이야! 난 잘못 없어! 그렇지, 가이, 그렇지!?

가이 : 루크..... 날 너무 한결시키지 마라...

티아 : 조금은 좋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바보였어.....

루크 :왜, 어째서야! 왜 다들 나만 욕하는 거야!

유우 : 주인님..... 기운을 내세영...

루크 : 다, 닥쳐! 니가 뭘 안다고!

유우 : 저두..... 제 잘못으로, 친구들 많이 죽게 만들었으니까.....
유우 : 그러니까 주인님 마음..... 알 것 같아염...

루크 : 너 따위랑 같이 취급하지 마!
루크 : 너 따위랑..... 으흠..... 크... 으아.....

<페이스 채트 '책임'>

나탈리아 : 우리들 이외에는 아무도 살아 있지 않은 것일까요.....?

가이 : 그럴겠지. 아마 다들..... 저 진흙 바다에.....

아니스 : 정말..... 최악이야.....

이온 :제 책임입니다..... 제가 그 때, 아무 생각 없이 문만 열지 않았더라면.....

아니스 : 분명 문을 연 건 이온 님일 지 모르겠지만요, 정말로 잘못이 있는 건 수석총장일랑.....

일행 :

제이드 : —— 아니스, 내버려 두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가이 :말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지금은 동료들끼리 싸우고 있을 틈은 아니잖아?

제이드 :확실히 그렇습니다. 유리아 시티에 도착하지 못하면 우리들도 위험하겠지요.

.....

루크 :젠장.

(다시 가다 보면 이벤트)

제이드 : 대단히 강한 음소(포닉)반응을 감지했습니다. 이대로 서쪽 방향입니다.

티아 : 아마 거기가 유리아 시티일 거예요.

(유리아 시티라는 곳에 다가가자)

나탈리아 : 뭔가 보이기 시작했사와요!

아니스 :저거 폭포!?

티아 : 외각대지에서부터 떨어지는 바닷물이 큰 폭포를 이루고 있어. 도시는 그 안이야.

가이 : 타르타로스 이거, 수압 때문에 납작해지는 건 아니겠지?

티아 : 관찰아. 지면에 가까운 곳은 수분이 기화되고 있으니까.

제이드 : 그러면 입학하겠습니다.

[감시자의 도시 유리아 시티]

아니스 : 후아.....! 여기가 유리아 시티?

티아 : 응. 안에 시장님이 있어. 거기로 가자.
티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다들 시장님 댁으로 갔는데.

루크 :어차피 다들 나만 탓하는데 뭐. 가기 싫어...

애쉬 : 어디까지 썩어 있는거냐! 미완성품!

루크 :너, 넌!
루크 : 왜 니가 여기에 있어! 선생님은 어디 있고!

애쉬 : 흥! 배신당하고서도 아직 「선생」인가.

루크 :배신했다고.....? 그럼 선생은 정말로 내게 액제류스를.....

애쉬 : 제기랄!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반의 속셈을 눈치챘더라면 이런 일은!
애쉬 : 너도 녀야! 왜 깊이 생각도 안 하고서 초진동을 썼냐고!?

루크 : 너, 너까지 내 잘못이라는 거야!

애쉬 : 당연히 잘못이지! 미친 개소리 집어쳐!

루크 : 난 잘못 없어! 난 잘못 없어! 난.....

애쉬 : 웃기지 마! 복제품이다보니 골통까지 열등해진 거냐!?

루크 : 복제? 그러고 보니 선생도 나보고 복제라고.....

애쉬 :너,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있었나! 하, 이거 웃을 일이군!

루크 : 뭐, 뭐야.....! 무슨 소리냐고!

애쉬 : 가르쳐 주지. 「루크」.

티아 : 애쉬! 안 돼!

애쉬 : 나와 네가. 왜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생각하나?

루크 :아, 알게 뭐야.

애쉬 : 난 바티칼에서 태어난 귀족이지. 7년 전에 반이라는 악당에게 유괴되었었다.

루크 :설.....마.....

애쉬 : 그래! 넌 나의 열성 복제인간이다. 그냥 모조품이란 말이야!

루크 : 거.....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애쉬 :해 보자는 거냐? 이 복제가.

루크 : 거짓말 하지 마!!!

<BOSS - 애쉬>

루크와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 지더라도 문제 없으니 걱정 말자. 설명 끝.

루크 :거, 거짓말이야..... 난.....

애쉬 : 나도 인정하기 싫다고! 이런 쓰레기가 내 복제라니!
애쉬 : 이런 쓰레기에게, 내 가족도 있을 곳도.... 전부 빼앗겼다니.....
애쉬 : 한심해서 구역질이 난다! 죽어 버려!

(화면이 화이트 아웃. 그리고 루크에게 '복제인형'의 칭호가...)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10)

[유리아 시티 시장네 집]

티아 :있어? 애쉬!

「왜 내가, 애쉬 웃을 입고 있는 거지?」

티아 : 애쉬!

애쉬 : 듣고 있다. 소리지르지 마.

티아 : 아무튼 타르타로스를 올려보내는 일에 대해선 시장님께..... 할아버님께 말씀드려 줘.

「.....어떻게 된 거야? 왜 티아가 날 보고 애쉬라고.....」

「들리나, 루크. 네 몸은 저 쪽에 있다」
「나와 너는 완전동위체. 즉 너는 음소 진동수까지 동일한 완벽한 복제다」

「나..... 난 복제 따위야.....」

「완전한 복제와 피형자 사이에는, 폰슬롯을 통한 연결이 이루어진다」
「네 폰슬롯이 내 쪽에 열리도록, 코럴 성에서 그렇게 조작했던 거다」
「그 이후로 너, 몇번인가 내 목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지」

「그럼 이번엔 내 목소리가 네 머리 속에.....? 그럼 역시 난.....」

「목소리 뿐만이 아니야. 난 네 몸도 조종해 봤었다..... 뭐 쓰레기인 넌 흉내낼 수 없을지도 모르지」

「.....바보 취급 하다니! 나도 해 보겠어!」

(이제 애쉬를 조작하게 된다)

<페이스 채트 '루크와 애쉬'>

루크 :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애쉬 : (흥, 복제 놈이 가진 의지의 힘 따윈 그게 전부다)

루크 : (잘보지 마! 절대로, 이 몸을 조종해 줄 테니까.....)

애쉬 : (모조품 주제에 큰소리를 치는군. 할 수 있다면 어디 해 봐라! 이 미완성!)

루크 : (제길.....!)

<페이스 채트 '애쉬의 계산'>

루크 : (.....왜 나랑 회선을 연결했던 거야?)

애쉬 : (.....이렇게까지 멍청한 미완성인 줄 알았더라면, 연결따윈 하지 않았겠지)

루크 : (뭐..... 뭐가 어째! 그럼 왜.....)

애쉬 : (네게 반의 계획을 저지시키기 위해서였다!)

루크 : (.....액제류스 얘기인가...)

애쉬 : (그것도 있다만, 카이틀에서 널 습격한 다음, 반에게서 널 이용해 외각대지 놈들을 소멸시킬 거라는 말을 들었다)

애쉬 : (난 6 신장이라는 입장을 이용해서 반의 동향을 탐지하고, 네게는 표면적인 행동을 맡길 셈이었다만.....)

루크 : (그럼 그렇다고 처음부터.....)

애쉬 : (네게 그걸 전했다 해서, 네가 그걸 믿었을 것 같나?)

애쉬 : (믿기는 커녕, 반에게 멍청하게 일러바치거나 했겠지!!)

루크 : (.....그건.....)

애쉬 : (헛! 복제품 따위에게 기대를 걸었던, 내가 머저리였던 거다)

(돌아다니며 루크의 동료들에게 말을 걸어보자)

유우 : 제 주인님은 루크 님 뿐이세요. 저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루크 : (유우.....)

.....

티아 : 외각대지로 돌아간다면서. 난 안 간다고 했잖아.

루크 : (위쪽 세계로 돌아가려는 거야?)

애쉬 : (여기 있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 말이다)

.....

나탈리아 : 루크!아, 아니, 애쉬. 나탈리아 :안녕히 계셨나요?

애쉬 :그다지.

나탈리아 :저기! 저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계시는지?

애쉬 :

나탈리아 : 미, 미안해요. 이상한 질문을 했네요.

.....

가이 : 루크는 어떻게 됐지.

애쉬 :자고 있다. 저러다 알아서 일어나겠지.

가이 : 그러냐..... 혼자 곰곰히 생각해 보면 루크도 깨달을 거야. 자신이 이제부터 뭘 해야 할 지.

애쉬 : 흥, 어떨까.

루크 : (가이.....)

애쉬 : (가이 놓은 옛날과 다를 바 없이 착하기만 하군...)

가이 : 이크. 난 아직 널 신용한 게 아냐.

애쉬 :

가이 : 이상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따라갈 거다.

애쉬 :맘대로 하시지.

.....

아니스 : 정체를명 「선혈의 애쉬」가 바티칼 귀족이었을 줄은 말이야.

애쉬 : 너도 간다고 했었다.

아니스 : 난 그냥 이온 님을 따라갈 뿐이니까. 아니스 : 루크도 저어~런 바보였을 줄은 몰랐구.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바보는 좀 그렇지~.

애쉬 : (.....라는군. 복제)

루크 : (.....)

아니스 : 마계 여기 하늘 색도 괴상하고 바깥은 장기 전지이고. 빨리 외각대지로 돌아가고 싶어~.

.....

이온 : 당신은 여기에 오시는 건 처음이셨지요.

애쉬 :그래.

이온 : 저는 이 도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온 : 이 도시 사람들과 저는, 예언에 대한 견해가 너무 다르니까요.

.....

제이드 : 그 작전은, 액제류스의 세피로트를 이용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루크 : (그 작전?)

애쉬 : (타르타로스를 외각(外殼)으로 돌려보낼 거다)

루크 : (그런 게 가능해!?)

애쉬 : (시끄러워! 복제 년 입 다물고 있어!)

제이드 : 왜 그러십니까, 벌레를 씹으신 얼굴로..... 아니, 언제나 그런 표정이셨지요.

애쉬 :

(이제 중앙관리시설 안쪽의 회의실에 있는 시장과 만나자)

테오도로 : 어쩐가, 마계(클리포드)의 감상은.

애쉬 : 소문대로...... 기분이 좋은 곳은 아니군.

테오도로 : 하늘은 장기와 외각대지에 덮여 있고 대지에는 드러난 맨틀 위에 액상화된 지각 일부가 흐르고 있네.

테오도로 : 간단히 말해 인간이 살 장소가 아닙니다.

루크 :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사는 건데?)

애쉬 :당신들도 외각으로 이주하는 게 어때.

테오도로 : 알면서 무얼 묻냐. 우리에게는 감시자의 역할이 있네. 이 땅을 떠날 수는 없어.

루크 : (감시자라니..... 뭘 감시한다고)

애쉬 : 타르타로스를 외각으로 옮기는 일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듯 하더군요.

테오도로 : 타르타로스엔 패시지 링과 동일한, 음소 활성화 장치를 설치했다. 테오도로 : 1번 만이라면 액제류스의 세피로트를 자극시켜, 다시 기동을 뺀치게 할 수 있을 테지.

애쉬 : 세피로트 트리에 올라타는 모양으로 외각에 올라간다는 말인가.

테오도로 : 그렇네. 허나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 육상함이 필요한가?

애쉬 : 필요하기에 말하고 있지 않나!

테오도로 : 알았다. 그럼 당장 타르타로스로 이동하겠나?

(이동하고 싶다면 아래 선택지를 고르자)

애쉬 : 이만한 육상함을 단 4명에서 움직일 수 있겠나.

제이드 : 최저한의 이동만 가능하긴 하겠습니 다만.

아니스 : 저기, 세피로스라면 우리네 외각대지를 받치고 있는 기둥인 거죠.

아니스 : 그걸로 어떻게 위에 올라가요?

이온 : 레피로트란 별의 음소(포닝)이 집중되어, 기업입자(셀퍼 티클)이 뿜어 올려지고 있는 장소예요. 이온 : 그 기업입자의 분출을 인위적으로 강력하게 만든 것이 「세피로트 트리」, 즉 기둥이지요.

가이 : 요약하면 기억입자에 타고서 올라가는 거구만.

제이드 : 일시적으로 세피로트를 활성화 시켜서 분출시킨 기억입자를 타르타로스의 돛으로 받아냅니다.

나탈리아 : 무사히 성공한다면 좋겠는데요.

애쉬 :걱정 마라. 시작한다!

[외각대지 필드, 루그니카 평야 남쪽]

제이드 : 제대로 올라온 모양입니다.

나탈리아 : 여기가 공중에 있었다니 믿기 어렵사워요.....

가이 : 자 그래서? 타르타로스를 어디다 세우면 되는데?

애쉬 : 반은 베르켄드의 제 1 음소연구소에 자주 출입했었다. 거기서 정보를 수집하기로 하자.

아니스 : 수석총장이?

애쉬 : 난 반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었다. 놈의 진짜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놈의 행동을 알 필요가 있어.

아니스 : 나랑 이온 님은 그냥 다아트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애쉬 : 이쪽 일이 끝나면 돌아가게 해 주지. 나는 타르타로스를 몰 인원이 필요한 것 뿐이다.

가이 : 자기 부하를 쓰면 될 걸 가지고.

애쉬 : 그럴겐 안 돼. 내 행동이 반에게 고스란히 알려지겠지.

나탈리아 : 괜창치 않겠어요. 우리들도 반의 목적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온 : 나탈리아 말대로예요.

아니스 :이온 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돕겠지만요.

제이드 : 저도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입니다.

제이드 : 잠시간 애쉬에게 협력할 생각입니다.

가이 : . . .

애쉬 : 베르켄드는 여기서 동쪽이다. 자아, 거 들어.

<페이스 채트 '다시 외각대지로'>

나탈리아 : 무사히 마계(클리포드)에서 탈출할 수 있었사와요.

아니스 : 타르타로스에서 봤던, 그 커다란 기둥이 세피로트였던 거지?
아니스 : 그게 외각대지를 받치고 있었다니 믿 기지가 않아.

나탈리아 : 네..... 하지만 우리들은, 거기에 올라타 마계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니스 : 정말,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애쉬 :이론은 잘못이 없었다. 성공하는게 당연했어.

가이 : 결과가 제대로 된 것 뿐이겠지. 실패했다면 우리 다 죽었을지도 몰라.

나탈리아 : 가이, 당신 루..... 아니 애쉬에게 가시를 세우고 계시지 않나요?

가이 : 이거 실례했군(가 버린다).

나탈리아 : 가이..... 아직도 그런.....

애쉬 : 나탈리아! 내버려 뒀다. 난 아무 상관 없다.

나탈리아 : 애쉬.....

<페이스 채트 '루크를 생각하다'>

가이 :유리아 시티는 멀리 아래쪽, 이라.

나탈리아 :가이. 당신, 루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가이 :응? 어어, 뭐... 그렇지. 티아 이외엔 다들 돌아와 버렸고.....
가이 : 저 녀석, 완전히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해서.
가이 : 거기다, 역시 아직 루크 저 놈한테는, 내가 붙어 있어줘야.....

나탈리아 : 그런 것을 자의식 과잉이라 하는 거랍니다. 도대체가 당신은 루크 응석을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나탈리아 : 적어도 모두들, 루크의 무책임한 발언 때문에 기가 막혀 있었어요.

가이 :하지만. 개는 복제였다 말이야.
가이 : 7년 전 저택으로 돌아온 후, 루크가 저런 식으로 자라게 된 책임은 내게도 있어.
가이 :그리고, 너에게도.

나탈리아 :그렇군요. 그렇지도 몰라요.

나탈리아 : 확실히 당신 생각하시는 대로, 루크에게 지금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가 가요.
나탈리아 : 하지만 그렇다면..... 7년간 존재가 완전히 잊혀져 있었던 애쉬는, 누가 지탱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나탈리아 : 그것도 저나 당신 같은 어릴 적 친구의 역할이라 생각한답니다.

가이 :분명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 겠군.....

(타르타로스를 몰아 적당히 돌아다녀 보자)
(세리던 항구로 가면 호위 사기단에 걸린 닉 선생을 돕는 이벤트가 발생. 자동으로 다아드 항구로 가며 나탈리아의 오의 습득)
(베르켄드 항구로 가자)

[베르켄드 항구]

나탈리아 : 분명 베르켄드는 당신 아버님의 영지였었지요. 옛날 돌이서 베르켄드의.....

애쉬 :시가지는 남쪽이다. 가자.

나탈리아 : 애쉬.....

<페이스 채트 '반의 단서를 찾아서.....'>

아니스 : 베르켄드에 가면 수석총장의 목적이란 걸 알 수 있을까~?

이온 : 어떨까요. 그래도, 그 밖에 단서가 없으니깐요.

제이드 : 그렇습니다. 일단은 베르켄드의 제 1 음기관 연구소에 가 볼 수밖에 없겠지요.

애쉬 : 그래. 놈이 빈번하게 드나들고 있는 곳이니, 무언가 비밀이 있을 거다.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분명 단서가 발견될 거예요.

가이 :그리 잘 될려나.

나탈리아 : 가이! 무엇이지요, 그 태도는.....

애쉬 : 나탈리아! 내버려 뒀.

.....

아니스 : 우와~, 뭔가 험악해~. 저기요 대령님, 왜 저러는 걸까요?

제이드 : 아니스, 괜한 추궁을 하지 않는 것이 숙녀의 마음가짐입니다.

(국도를 따라 베르켄드로 가자)

[음기관도시 베르켄드]

(제 1 음기관 연구소는 시가지를 지나 총계를 올라가면 있다)

[베르켄드 제 1 음기관 연구소]

(의무실의 사람을 뒤통수면 다크 씰 등 아이렘과, 특히 아니스 전용 장신구 전쟁여신의 인형을 입수할 수 있다. 장비시킨 후 전투시 주목)
(복제 연구시설까지 들어가서 스피노사라는 노인에게 말을 걸자)

스피노자 : !! 너는 루크!? 아니..... 애쉬..... 이냐?

애쉬 : 흠, 킴라스카의 배신자가 아직 뻔뻔하게 이 도시에 있을 줄은..... 정말 웃기는군.

나탈리아 : 배신자라니 무슨 말씀이시지요?

애쉬 : 이 자는..... 내유괴를 한 몫 거들었던 자다.

제이드 : 설마 금기인 '포미클리' 에 손을 댔던 것은.....!

애쉬 :제이드. 당신 상상대로다.

스피노자 : 제이드! 사형술사(네크로맨서) 제이드!

제이드 : 포미클리를 생물에 응용하는 것은 금지되었을 터입시다만.

스피노자 : 포미클리 연구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시험해 보고 싶을 연구일세!
스피노자 : 자네도 그렇지 않나 제이드 카티스! 아니, '제이드 발표아 박사'
스피노자 : 자네는 포미클리를 탄생시킨 사람이야! 복제를 수십개나 만들었었지!

애쉬 & 가이 & 아니스 & 이온 & 나탈리아 : !!

제이드 :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포미클리의 원리를 고안해 낸 것은 저이니.

스피노자 : 그렇다면 자네가 나를 책망할 수는 없네!

제이드 :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 해서 상대를 감싸는 것 같은.
제이드 : 그런 상처를 서로 할아주는 것 같은 짓은 제 취미가 아닙니다.
제이드 : 저는 자신의 죄악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기로 삼았던 겁니다.
제이드 : 생물 복제는, 기술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이드 : 당신도 연구자라면 잘 아실 텐데요. 최초의 생물 복제체가 어떤 말로를 맞았는지.

스피노자 : 나, 나 나는 그저..... 반 님이 말씀하신 보관계획에 협력했을 뿐이야!
스피노자 : 복제 정보를 보존시킬 뿐이라면.....

애쉬 : 보관 계획? 무슨 이야기인가.

스피노자 : 너, 몰랐던 게냐!

애쉬 : 됐으니 설명해 어서!

스피노자 :말 못한다. 안다 생각하고서 그만 입에서 새 버렸네만 이것만은 말 못해.

(제이드에게 '포미클리 발안자' 의 칭호)
(시설을 나가려 하면...)

연구원 1 : 이런, '포미닌' 이 부족해졌군. 그게 없으면 복제를 만들 수 없는데.

연구원 2 : 벌써냐? 다음에 '와이온 거울동굴' 로 채취하러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연구원 1 : 그 동굴은 여러가지로 편리하지만, '라디시어 대륙' 까지 가야 한다는 게 귀찮지 참.....

(그렇듯한 정보를 들었다. 이제 밖으로 나가자)

<페이스 채트 '금기의 기술'>

이온 : 당신께서 포미클리 기술의 발안자이셨던 거군요.....

제이드 : 예. 포미클리가 가진 몇가지 문제점. 그것을 무시하고서라도 해 보고 싶었던 것이, 과거에 있었습시다.
제이드 :졌었던 것이겠지요. 저도.

이온 : 제이드.....

아니스 : 괜찮으세요, 이온 님? 얼굴빛이 좋지 않으신데요?

이온 : 아니요..... 괜, 괜찮습니다..... 그저 좀, 놀라는 바람에.....

가이 :즉, 당신이 포미클리를 탄생시켰기에, 루크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스 : 그렇다면, 대령님이 루크 아버님이란 얘기가 될까?

제이드 : 부친, 입니까..... 제 아들이라면 더 총명하고 귀염성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아니스 : 와아 너무하셔~.

제이드 : 원체가 애쉬에게 포미클리를 적용시킨 것은 제가 아니라 반이니깐요.
제이드 : 루크의 부친에는 반이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루크 : (아버지..... 선생이..... 하지만.....)

애쉬 : (.....)

(밖으로 나오면)

나탈리아 : 반은 복제의 정보를 모아 뭘 어떻게 할 생각일지요.

아니스 : 그야 복제를 만들려 하는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애쉬 :와이온 거울동굴로 가겠다.

나탈리아 : 서쪽의 라디시어 대륙에 있다는 동굴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왜.....

제이드 : 복제에 대해 조사할 생각이신 거겠지요. 거기에서는 포미닌을 채취할 수 있다 하니까요. 거기다.....

나탈리아 : 거기다?

제이드 :위어, 여러가지로 말입니다. 라디시어 대륙이라면 킴라스카 영토. 마르쿠트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제이드 : 디스트는 원래 마르쿠트의 연구자였으니, 포미클리 기술을 훔쳐 달아나기에 좋은 장소였겠지요.

애쉬 :수다는 그 쯤들 떠시지, 가자.

아니스 :에이~. 가는 편이 나올까요, 이온 님.

이온 : 그래요. 지금은 양전히 애쉬 말에 따라 보도록 하지요.

가이 : 난 빠질란다.

애쉬 & 아니스 & 이온 & 나탈리아 : !!

애쉬 :어째서냐, 가이.

가이 : 루크가 걱정되서. 그 녀름 데리러 가 줘야지.

아니스 : 기막혀! 그런 바보는 내버려 뒀도 되는데.

가이 : 바보이기에 내가 붙어있지 않으면 걱정된단 말야.
가이 : 거기가 그 녀석이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어.

나탈리아 : 가이! 당신은 루크의 부하이자 친구가 아니신가요. 진짜 루크는 여기에 있다고요.

가이 : '진짜 루크' 라면 그 놈이겠지. 하지만.....
가이 : 내 친구는 저 밑의 멍청이 쪽이라고.

루크 : (.....가이, 고마워.....)

제이드 : 데리러 가시는 것은 자유이십니다만. 어떻게 유리아 시티로 돌아가실 셈이신지?

애쉬 :다아트 북서쪽에 '아라미스 용수동'이라는 장소가 있다.
애쉬 : 혹시 북제 놈이 여기 외곽대지로 돌아 오겠다면, 거길 통하게 되겠지.

가이 : 미안하다. 애쉬.

애쉬 :흠. 네가 그 놈을 선택할 건 알고 있었다.

가이 : 반 요장에게서 들었다, 라는 거냐? 뭐 어 —— 그것 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면.

나탈리아 : 무슨 말씀이신지.

가이 :암것도 아냐. 그럼.

나탈리아 : 루크! 막지 않으실 거예요!

애쉬 :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그건 이미 내 이름이 아냐.

나탈리아 : . . .

(가이와 헤어진다)

<페이스 채트 '떠나가는 가이'>

나탈리아 : 가이를, 말리지 않으셔도 괜찮으셨나요?

애쉬 :녀석 마음대로 하라지.
애쉬 : 너도, 그 북제에게 가고 싶다면 언제라도 가도 상관 없어.

나탈리아 :저는.....

제이드 :망설이실 만도 합니다.
제이드 : 루크가 북제인간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보냈던 7년이라는 시간이나 추억은 사라진 게 아니니까요.

나탈리아 :

제이드 : 뭐, 그것은 어찌 되었건. 가이가 빠진 것이 전력전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이드 : 와이온 거울동굴에도 분명 마물은 있을 테지요.

애쉬 :이제 가이 이야기는 하지 마. 마물쭈, 놈이 없더라도 내가 처치해 주지.

제이드 : 아이구. 이쪽 루크도 가이가 맘에 드셨던 겁니까. 친구가 떠나가서 서운하진 모양입니다.

애쉬 :시끄러워!

제이드 : 흠. 미묘하게 성격도 닮아 있군요.
제이드 : 이론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만, 자란 환경이 닮았다면 그도 이렇게 되었을지 모르

겠습니다.

<페이스 채트 추억>

나탈리아 : 이런 곳에 복제 연구시설이 있었을 줄은.....
나탈리아 : 저..... 자기 나라인데도 모르는 일 이 너무 많사와요. 왕녀로서 실격이네요.....

애쉬 : 성 안에 있는 것 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어릴 적에 배우지 않았나?

나탈리아 : 그..... 그 때 일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탈리아 : 당신께서 저를 처음으로 성 밖으로 데리고 가 주셔서..... 그리고는.....

애쉬 :성 안에 있었던 게 바티칼 안에 있던 것으로 바뀐 것 뿐이다.
애쉬 :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다리로 확인해야 해.
애쉬 : 그러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정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다.

나탈리아 :당신께서는 변함이 없으시어요

나탈리아 : 어리셨을 적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여, 제 모자란 부분을 받쳐 주시지요.

애쉬 :착각하지 마. 난 옛날의 내가 아니야.
애쉬 : 7년 전 유괴 때 내 안의 루크는 죽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건, 루크의 환상이야.

나탈리아 : 그렇지 않사와요!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신께선..... 역시 루크이사라는 것을.

애쉬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애쉬 : 나는 애쉬(ash = 재)다. 성스러운 불꽃... 즉 루크의 타고 남은 찌꺼기야!

.....

나탈리아 :그래도 저는, 당신이.....

(베르켄드 항구에서 출항해, 바로 서쪽 라시디어 대륙의 와이온 거울동굴로 향하자)

[와이온 거울동굴]

나탈리아 : 무언가 축축한 공기로군요.

이온 :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니까요.

아니스 : 이온 님은 타르타로스에서 기다려 주세요!

이온 : 저도 흥미가 있습니다만.....

아니스 : 안돼요! 위험하니깐요!

애쉬 : 도사는 돌아가시지. 따라오면 방해가 돼.

이온 :유감입니다.

루크 : (좀 데리고 가 줘라!)

애쉬 : (바보냐 너? 싸우지도 못하는 놈을 뭐 하러 데리고 다니냐)

제이드 :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페이스 채트 '의문의 시설'>

나탈리아 : 저기요, 애쉬.
나탈리아 : 아까는 북제가 어머니 하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기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인가요?

애쉬 :나도 자세한 건 모른다.
애쉬 : 단지, 이곳에서 무언가의 복제 연구가 행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아니스 : 포미닌이 어찌구 그랬으니깐. 입구에도 잔교가 있었구, 사람이 자주 온다는 느낌이야.

제이드 : 일단, 안쪽까지 들어가 보십시오. 뭔가 알 지 모르니까요.

아니스 : 대령님은 웬~지, 이번에도 뭔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요.

제이드 : 엉뚱한 말씀을. 저도 여기 와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저.....

애쉬 : 음?뭔가 알고 있나?

제이드 :아니오. 아무것도.

.....

제이드 : 「와이온」 동굴입니까..... 정말 바보 같습니다.....

<페이스 채트 '굴욕'>

아니스 :헤에~. 아니스 대 발견! 애쉬 말인데 의외로 상냥하네☆

애쉬 :무슨 소리야.

아니스 : 이온 님 일 말이야아. 말은 방해된다 구 했어도, 실은 위험에 처하지 말았으면 했던 거지?

애쉬 : 내가 방해된다면 방해가 된다는 뜻이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

아니스 : 또 또~! 썩스러워 하는 것 봐☆

애쉬 : 이..... 이 꼬마가! 입 다물고 어서 걷기나 해!

아니스 : 헤~. 그렇게 금방 발끈하는 것도 상당히 루크랑 닮아 있네.

애쉬 : 뭐..... 뭐가 어째!!

아니스 : 것 봐~~~ 또 화내지!)

애쉬 :크!!

(동굴 안을 진행하다 보면 웬 해파리 같은 것들을 볼수 있다)

나탈리아 : 저건, 무엇일까요?

(방심하고 다가가는 나탈리아를 공격하려던 해파리 들을 단숨에 해치우는 애쉬)

아니스 : 애쉬! 멋져~♡

애쉬 :무사한가?

나탈리아 : 아..... 네. 괜찮사와요. 고마워요, 애쉬.....

애쉬 :제이드. 이 놈들을 본 적이 있나?

제이드 : 생물은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
제이드 : 흠..... 이 부근에 서식하는 것들과는 다릅니다. 신중 치고도 조금 묘하군요.

애쉬 :간단히 풀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애쉬 : 가자.

<페이스 채트 '루크의 걱정'>

루크 : (.....아, 방금 마물이랑 붙었을 때, 너 일부러 대충 싸운 거 아냐!?)

애쉬 : (뭐?바보냐?)

루크 : (설마 아군인 척 하면서, 모두를 마물에게 죽게 만들려 하는 건.....)

애쉬 : (제정신이나 너! 그렇지력 강한 녀석들이지만, 원래가 내 팔꿈에도 못 미치는 거란 말이다)
애쉬 : (후우..... 이 이상 쓸데없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각오를 해야 할 거다)

루크 : (워, 워야..... 어차피 떨어져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할 거면서.....!)

애쉬 : (네게는, 말이지.....)

루크 : (야..... 설마..... 하지 마.....!)

애쉬 : (흠..... 아무 짓도 안 하마..... 네가 조용히 구경하고 있는다면)

루크 : (.....)

(안쪽으로 진행하면 웬 시설을 발견하게 된다)

나탈리아 : 여기는.....?

제이드 : 포미클리 연구시설인 것 같습니다. 폐기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애쉬 : 연산기는 아직 살아있군.

제이드 : 대단하십니다. 루크였다면 가동시킬 수 없었겠지요.

애쉬 : 이건..... 포미클리 효과범위에 대한 연구..... 인가.

제이드 : 데이터 수집 범위를 넓히는 것을 통해 거대한 크기의 복제를 만들려 했던 모양입니다.

아니스 : 커다란 거라면..... 집 같은 거요?

제이드 : 더 큰 것이지요. 제가 연구에 몸담고 있었던 시절에도, 이론상으로 작은 설정도라면 복제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아니스 : 크다아.....

애쉬 :뭐야 이걸!? 말도 안 돼!!

나탈리아 : 왜 그러시는지?

애쉬 : 봐라! 반 농들이 연구하는 중인 최대 복제 작성범위를!

제이드 :약 30,000,000 평방 킬로미터!? 여기 울드란트 지표의 10분의 일은 됩니다!

나탈리아 : 그런 커다란 것을! 복제를 만들더라도 놓을 자리가 없을 텐데요!

제이드 : 채취해서 보존했던 복제 제작정보 일람표도 있습니다. 이걸..... 마르쿠트 군이 폐기시켰을 데이터로군요.

애쉬 : 디스크가 빼돌린 건가?

제이드 :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소멸된, 호드에 살던 주민들의 정보입니다. 제이드 : 과거, 제가 채취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니 틀림 없을 것입니다.

나탈리아 : 설마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호드를 복제로 부활시키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제이드 :신경이 쓰입니다. 이 정보는 가져가기로 할까요.

(그러던 중 아니스가 뭔가를 발견한다)

아니스 : 어라, 이거 티끌?

나탈리아 : 어머니! 이런 곳에 갇혀 있다니 먹이는 어떻게 하고 지냈을까.

애쉬 : 살아있는 것을 보니 누가 여기서 기르고 있는 것일테지. 아마 이 농들은 복제와 오리지널(즉 피험체)이다.

제이드 : 그런 듯 하군요. 별 모양의 멍이 같은 자리에 나 있습니다.

아니스 : 이 애들도 유우처럼 불을 뿜거나 할 수 있을까.

(화북)

아니스 : 와아, 깜짝이야!

나탈리아 : 이 애도 같을까요.
나탈리아 : 어머, 이 쪽은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제이드 : 복제는 능력이 열등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이 복제인 것이겠지요.

아니스 : 하지만 대령님. 여기 붙어있는 인식표를 보니 여기 허약한 애가 오리지널인 것 같은걸요.

제이드 : 그렇습니까. 분명 복제 정보를 채취할 때, 피험체에게 나쁜 영향이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나탈리아 : 어머니..... 악영향이라면.....

제이드 : 최악의 경우에는, 죽습니다.
제이드 : 완전동위체라면 다른 현상이 일어난다는 연구결과도 듣긴 했습니다만.....

루크 : (그, 그런..... 내가 태어난 것 때문에 이 녀석이.....)

제이드 : 나탈리아, 거기다 애쉬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이드 : 복제 정보를 채취당한 피험체에게 이변이 일어나는 것은, 무기물의 경우 10일 이내가 됩니다.

제이드 : 생물의 경우에는 더욱 빠릅니다. 7년이나 싱싱하신 애쉬에게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나탈리아 : 다행이에요.....

루크 : (다행이다.....)

애쉬 : (쓰레기한테 걱정을 받다니 나도 갈 데까지 갔군 그래.....)

루크 : (.....뭐, 뭐라고!)

애쉬 : (시끄러워! 닥쳐!)

아니스 : 하~아. 복제란 너무 어려워. 이거 대령님이 생각해 내신 기술이죠?

제이드 :예, 그렇습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의 하나입니다만.

애쉬 :술술 뜨지.

아니스 : 결국 여기서 알아낸 건 총장이 뭔가 커다란 복제를 만들려 하고 있다는 일 뿐?

애쉬 : 그거면 충분하다..... 가자.

나탈리아 : 가시다니, 어디를.....

애쉬 : 뒷 일은 나 혼자서 어떻게 해 보마. 너희들은 고향으로 바래다 주지.

(나가던 도중.....)

애쉬 :조심해라. 뭔가가 있군.

나탈리아 : 네.....!?

<BOSS - 양규라 브루프>

해파리 왕초. 어패류인 주제에 물속성 내성이 없는 동편지 같은 보스이다.

덩치가 크고 파워가 조금 있으나 행동이 굼뜨므로, 영창을 방해하고 막을 걸 막으면서 다 같이 공격하면 된다.

가끔 조개 껍질 안에 숨으며 브루프(해파리)를 3 마리씩 불러내지만 능력이 낮으므로 크게 위협적이지 못하다.

거품발사가 좀 귀찮을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그 자리에 축적으로 물속성 FOF가 생기므로 변환기술로 보복해 주자.

아니스 : 뭐예요, 방금 그거! 컷어! 기분 나빠!

제이드 : 포미클리 연구에는 생물에 악영향을 미치는 약품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이드 : 그 영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탈리아 : 애쉬..... 저어, 감싸 주시어서 정말 고마워요.....

애쉬 :가, 가지 이만!

<페이스 채트 '엔션트 광석'>

아니스 : 저기요 저기요, 이 근처 말인데 거울 같지 않아요? 신기해라~.

아니스 : 혹시 캐서 가지고 돌아가면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요?

나탈리아 : 어머, 정말이시와요. 이것이 거울 동굴이라 불리는 이유이겠지요.

제이드 : 엔션트 광석입니다. '포미닌' 은, 저런 돌에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

제이드 : 일부 연구자들에게는 비싸게 팔 수 있겠지요.

아니스 : 저, 정말이세요!?

애쉬 : 그럴 틈이 어디에 있나. 필요하다면 나중에 알아서 캐러 와.

아니 : 아잉~!

제이드 : 어차피 특수한 도구를 쓰지 않고서는 채굴할 수 없습니다. 안됐군요.

아니스 : 아이~~~~잉!

(타르타로스까지 돌아가면 이온이 반기... 려하는 참에)

이온 : 어서오세.....

아니스 : 지진!?

나탈리아 : 까악.....!

(이번에도 나탈리아를 보호하는 애쉬)

나탈리아 : 아, 저기..... 고맙습니다.....

애쉬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성에서 빠져나가려고 창에서 뛰어 내리다.....

애쉬 : ...방금 지진, 루그니카 남부가 무너져 내린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스 : 그럴 수가! 어째서!?

애쉬 : 남 루그니카를 받치고 있던 '세피로트 트리' 를 루크가 소멸시켰기 때문이지.

애쉬 : 지금까지 다른 지방 세피로트의 지탱으로 간신히 떠 있었겠지만 그것도 한계일 거다.

제이드 : 다른 지방으로의 영향은.....?

애쉬 : 우리들이 도사를 끌고 다니며 세피로트의 문을 열게 시켰던 것을 잊었나?

이온 : 문을 열더라도 패시지 링은 '유리아 식봉주' 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취급할 수 없을 텐데요.

애쉬 : 반 녀석은 그걸 움직였던 말이다!

제이드 : 즉, 반은 세피로트를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제이드 : 그렇다면 그의 목적은..... 외각대지를 더더욱 붕괴시키는 일일까요?

애쉬 : 그런 듯 하다.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다음 번엔 센트비나 주위가 무너진단대군.

애쉬 : (시간이 없군. 너와 놀아주는 건 여기까지다!)

[감시자의 도시 유리아 시티]

(벌떡 일어나는 루크)

루크 :회선이 끊긴 건가.

유우 : 주인니임!

루크 : 유우.....

(창 너머 저 편에 서 있는 티아를 바라보는 루크)

루크 : 맞아! 센트비나가 위험해!

[유리아 시티 세레니아 꽃밭]

티아 : 루크.....눈을 떴구나.

루크 : 여기..... 꽃밭?

티아 : 세레니아 꽃이야. 마계(클리포드)에서 자라는 건 밤에 피는 이 꽃 정도니까.....

티아 : 여긴 외각대지가 하늘을 덮고 있기에 별도 거의 들지 않고.....

티아 : 그건 그렇구. 댜지 초조한 것 같은데.

루크 : 참 그랬지! 외각대지로 돌아가고 싶어.

티아 : 금방 돌아갈 수 있을거야. 지금은.....

루크 :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단 말야! 이대로는 센트비나도 붕괴될 거라고, 애쉬가.....

티아 :무슨 이야기야? 하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는데.....

루크 : 안단 말야! 나랑 그놈은 이어져 있으니

까!

티아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센트비나가 무너지는 걸 어떻게 막을 생각인데?

루크 : 아, 그런.....

티아 : 당신,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
티아 : 타인의 말에만 좌지우지 되고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스스로 이해하려 하지도 않으면서.....
티아 : 그래서는 액제류스 때와 마찬가지로야.

루크 :하하,정말 그래.
루크 : 반 선생이 그랬다고. 애쉬가 그랬다고..... 라면서. 그런 말만 하면서.....
루크 : 이래선..... 모두가 정떨어져서 날 버리는 것도 당연하겠지.

티아 : 알고 있었어? 다들 외각으로 돌아갔다는 걸.....

루크 : 아까 말했잖어. 나랑 애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놈을 통해 봤어.
루크 :역시, 난 애쉬의 그놈의 복제였던 거구만.....

티아 : 루크.....

루크 : 난, 지금까지 자신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지.....
루크 : 아니, 자신도 볼 수 없었던 걸지도 몰라.....

티아 :그래.

루크 : 나, 변하고 싶어.
루크 :변하지 않아선 안 된다고.

티아 : 정말로 변하고 싶다 생각한다면..... 변할 수 있을지도 몰라.
티아 : 하지만, 당신이 변한다 해서 액제류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아니야.
티아 :수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진실도.
티아 : 그 만큼의 죄를 짊어지고서. 당신 어떻게 변할 생각인데.

루크 : 모르겠어.
루크 :너무 촌스럽다, 나. 이런 말 밖에 할 수 없잖니.
루크 : 액제류스 일..... 사과해서 될 일이라면 얼마든지 사과할 거야.
루크 : 내가 죽어서 액제류스가 부활한다면..... 조금은 무섭지만..... 죽을래.
루크 : 하지만 현실은 그런 게 아니잖어. 죄를 갚으려 한다면, 모두 다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루크 : 그러니까,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할 거야.
루크 :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생각했어. 변하고 싶다고.

티아 : 역시 이해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간단히.....
티아 : 죽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루크 :당장 믿어달라는 말은 안 할게.
루크 :티아. 분명 단도 가지고 다녔지?

티아 : 응, 있긴 한데.....

루크 : 잠깐 빌려 줘.

(감동적인 전개와 함께 애니메이션 무비가 나온다. 루크 변모)

티아 : 루크.....!

루크 : 이걸로, 지금까지의 나랑은 작별할래.

티아 :응.

루크 : 이제부터의 나를 좀 지켜봐 줘, 티아. 그리고서 판단해 줬으면 좋겠어.
루크 :지금 당장은 잘 안 될지 몰라. 실패할 지도 모르지. 그래도 난..... 변할 테니까.

티아 :그렇구나. 지켜볼게. 당신을.

루크 : 부탁해.....

티아 : 응, 하지만 마음 놓지 마. 난 언제라도 당신을 포기할 수 있으니까.
티아 :그보다, 센트비나가 정말로 붕괴한다면 그것을 막을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돼.

루크 :그렇구만. 그래도 어쩐다.

티아 : 시장님께..... 할아버님께 여쭙보자. 회의실에 계실 거라 생각해.

루크 : 좋았어, 가자.

(새로운 결심을 굳힌 루크와 티아의 2인 파티가 결정된다. 회의실로 가자)

<페이스 채트 '자신의 의지로.....'>

루크 : 붕괴를 막을 방법 같은 건 상상도 가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센트비나에 가지 않으면.....

티아 : 그러네. 붕괴는 막을 수 없더라도 주민들을 피난시킬 수는 있을 거야.
티아 : 아무튼 할아버님께 이야기를 들어 보자.

루크 :티아.

티아 : 왜?

루크 :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루크 : 유리아 시티 시장님한테 애길 들더라도 이해가 안 가서 네게 여러가지 조언을 듣게 될 지도 모르겠지만.....
루크 : 어떻게 할 지는, 확실히 스스로 정할래.

티아 : 그렇구나..... 하지만, 처음부터 변명하듯 「아무것도 모르니까」라는말은 하지 말아줘.

루크 : 아..... 이런. 미안.

티아 : 급하게 변하려 하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루크 : 그랬지. 어, 일단은, 시장님처럼 얘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어.

티아 : 응. 자, 가자.

<페이스 채트 '잃어버린 기술'>

루크 : 여긴, 외각 대지에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도시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던데.

티아 : 장기가 분출되고 있기에 그렇다는 이야기야?

루크 : 그것도 있지만..... 봐, 건물 구조라던가, 재질이라던가.....

티아 : 그러네. 확실히 외각대지의 시가와는 차이가 있어.
티아 :하지만, 이 도시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루크 : 무슨 소리야?

티아 : 이 도시는 외각대지를 부상시키기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즉 창세력 시대의 도시야.
티아 : 장기에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해, 당시에 최선이었었던 기술을 쓴 것 같다고는 해두.

티아 : 지금은 그 기술이 거의 다 소실되어 버려서.....

루크 : 응? 그럼 이 건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티아 : 맞아. 그래서 간단한 수리는 할수있지만, 근본적인 개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야.

루크 : 뭔가 믿기가 힘든 얘기구만.

(나가기 전 안쪽 방에 들러보면, 티아에게서 중요 아이템 캐릭터 디스크를 받고 그 방에서 인명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11)

(시장의 집을 나와 중앙시설의 회의실로 향하자)

<페이스 채트 '은혜는 평생 잊지 않아염!>

유우 : 유우우~ 유우유우~♪

티아 : 후훗, 왠지 기분이 좋아 보여. 유우.

유우 : 맞아염. 기분이 좋아염. 주인님께서 기운을 되찾으셔서 유우도 기뻐염!

티아 : 그렇구나..... 하지만 유우. 너 항상 루크에게 구박 받았었잖니? 루크가 미워지거나 하진 않았어?

유우 : 저는 다 알아염. 주인님은 실은 좋은 사람이세염.
유우 : 그래서 티글 숲에서 저를 구해주셨던 거예염.

티아 :하지만 유우. 너도 상당히, 루크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유우 : 기뻐염! 도움이 되고 있데염! 저, 이제부터도 볼 뺨고 돌 부수고 하면서 힘낼게염!
유우 : 낼게염~♪ 낼게염~♪ 낼게염~♪

.....

티아 : 정신적인 면에서..... 라는 의미였는데.....
티아 : 어쨌든 「티글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 정말이었구나.

(회의실에 들어가려 하면)

???: 티아, 찾고 있었어. 제 3 보가(譜歌) 말인데..... 어머, 그 애 일어났구나.

티아 : 아, 레일라 님! 제 3 보가의 「상징」을 찾아내신 건가요?

루크 : 제 3 보가란 게 댜데? 내가 맨날 부르는 그 보가?

레일라 :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루크 : ??

티아 : 내가 부르고 있는 유리아의 보가는 전부 7 가지가 있어.

루크 : 아하. 그 중의 3번째 보가란 애긴가.
루크 :알래? 그래도 너, 항상 보가는 2가지밖에 안 쓰고 있잖어.

티아 : 어쩔 수 없어. 내가 「상징」을 모르는 걸.

레일라 : 유리아의 보가는 선율을 아는 것 만으로는 안 된단다.

레일라 : 보가에 담긴 의미와 영지(英知)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노래에 지나지 않으니까.

레일라 : 맞아 참. 부탁받았던 제 3 보가 상징 말인데, 반이 두고 갔던 책에 숨은 페이지가 있지 뭐니.

레일라 : 어쨌면, 거기에 내용이 남겨져 있을지도 몰라. 시간이 나면 나 좀 만나러 와 주렴.

루크 : 보가란 것도 힘든 일이구만.

티아 : 응. 상징을 해독하는 게 어려우니까. 내가 상징을 알고 있는 건 제 3 과 제 5 이외의 보가야.

티아 : 거기다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 건 아직 제 1과 제 2 뿐.....

루크 : 상징을 알고 의미를 이해 못 하면 정말 그냥 노래인 모양이네.

티아 : ...

티아 : 실은, 유리아의 보가는 일곱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지는 보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

티아 : 일곱 보가를 연속으로 부르는 것을 통해 「대보가(大譜歌)」가 돼. 그건 상징을 모르더라도 가능하고.

티아 : 노래가 계약의 상징 그 자체이니까.

루크 : 로렐라이의 계약의 증거라는 대보가구나! 거기엔 무슨 힘이 있는데?

티아 : 대보가와 로렐라이의 열쇠가 합쳐지면, 로렐라이를 소환할 수 있다고 들었어.

루크 : 뭔가 엄청난 것 같구만!

티아 : 그러게. 하지만 로렐라이의 열쇠라는 물건은 잊혀져 버린 것 같고. 나도 일곱번째 보가를 몰라.

티아 : 그러니 결국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지도 모르겠어.....

루크 :기, 기운 내.
루크 : 대보가가 어떤 건진 모르겠지만, 난 니가 부르던 제 1 그리고 제 2 보가에 맨날 도움 받았으니까.....
루크 : 그거면 충분하잖아!

티아 : 루크..... 아..... 고마워.....

[유리아 시티 중앙시설 회의실]

테오도로 : 오오, 티아가 왔구나.
테오도로 : 그 쪽은, 분명히.....

루크 : 어..... 아, 안녕..... 하세요. 나, 루크라고 해요.

유우 : 유우예염.

루크 : 야 년 조용히 해 봐.
루크 : 저기..... 액제류스 일로..... 폐를 끼쳐드려서..... 미..... 미안했습니다.....

테오도로 : 자네가 루크의 복제인가. 과연 꼭 닮았소이다.

티아 : 할아버님!!

테오도로 : 이거 실례했군. 허나 액제류스 일을 우리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네만.

루크 : 무, 무슨 말씀이죠?

테오도로 : 액제류스 붕괴는, 유리아의 예언(스코어)에 쓰여 있었다. 즉 일어날 일이었기에 일어난 거요.

티아 : 무슨 말씀이시죠, 할아버님! 전.....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 없어요! 그래서 호드랑 마찬가지로요!

테오도로 : 이것은 비예언(秘預言 = 클로즈드스코어). 로렐라이 교단의 영사적 이상인 자 외에는 모르는 예언이다.

루크 : 예언으로 알고 있었다면 왜 막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까!!

테오도로 : 루크, 외각대지의 주인이 할 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구려.
테오도로 : 예언은 준수되어야 할 것. 예언을 지키며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 로렐라이 교단의 가르침이러오.

루크 : 그, 그야 그렇지만.....

테오도로 : 생일에 왜 예언을 듣는가? 그것은 다음 1 년의 미래를 알고서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티아 : 그렇다면 왜 액제류스 소멸을 세계에 알리지 않았던 거지요?

루크 : 맞아! 그걸 알고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사람도.....

테오도로 : 그게 문제라는 거네. 죽는다는 예언을 들으면 사람은 편히 지낼 수 없게 되는 법이오.

루크 : 그딴 건 당연해.....! ...요! 누구라도 죽고 싶지는 않아.....!

테오도로 : 그런 식으로 알려져서 곤란하다는 것이외다. 유리아는 알곱 예언으로 이 올드란트의 변영을 노래했지.
테오도로 : 그대로 역사를 움직여 가지 않는다면 올 변영도 오지 않게 될 것이오.
테오도로 : 우리들은 유리아의 예언을 기초로 하여 외각대지를 변영으로 이끄는 감시자.
테오도로 : 로렐라이 교단을 그것을 위한 도구인 겁니다.

티아 :그래서 대영사 모스께선 어쩔 수 없이, 도사 이운을 연금시키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루크 : 반 선생님도..... 예언을 알고서 내게.....?

테오도로 : 그 말대로다.

티아 :할아버님께서 그러셨죠.
티아 : 호드 전쟁은 마르쿠트도 킴라스카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었다고! 그런 거짓말이셨나요!?

테오도로 :미안하구나. 어린 네게 진실을 전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다. 허나 반은 진실을 알고 있었지.

티아 :그렇다면 역시 오빠는 세계에 복수를 할 셈이예요.
티아 : 오빠가 그러던 걸요. 예언에 속박된 세계 따윈 없어져 버리는 편이 낫다고!

테오도로 : 티아, 반이 세계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은 네 오해야.
테오도로 : 분명 호드 일로, 반에게는 예언을 증오하고 있던 시기도 있었다.
테오도로 : 그러나 지금은 감시자로서 훌륭하게 일하고 있지 않느냐.

루크 :훌륭? 액제류스가 멸망하는 걸 보고 있던 게!?
루크 : 당신들 정상이 아냐! 미쳤다고!!

테오도로 : 그렇지 않네. 유리아는 제 6 보석의 마지막에 이런 예언을 노래했었지.
테오도로 : '루크니카의 대지는 전란에 휩싸이며 마르쿠트는 영토를 잃으리라'.
테오도로 : '결과로 킴라스카 란발디어는 변영하며, 그것이 미증유 변영의 첫 걸음이 되리니'.

테오도로 : 미증유 변영을 외각대지에 불러오기 위해, 우리들은 감시를 계속하고 있던 것이오.

티아 : 하지만 할아버님..... 오빠는 외각대지의 센트비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단구요!

테오도로 : 센트비나는 절대로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전쟁이 그 주변에서 벌어질 테니.
테오도로 : 뭐라 해도 그런 이야기는 예언에 하나도 없었던 말이다.

직원 : 테오도르 시장님. 슬슬 각의(閣議) 시간입니다.

테오도로 : 지금 가겠다. —— 둘 다, 그리 걱정이ら면 '유리아 로드' 를 통해 외각대지로 가 보는게 어떠냐.
테오도로 : 너희들의 걱정은 기우인 거란다.

루크 : 티아, 외각대지로 돌아가자! 여기 있어봤자 별 볼일 없겠어.

티아 :그렇게. 하지만 출발 전에 짐을 좀 챙기고 싶어. 한번 내 방에 들렀다 갈 수 있을까?

루크 : 어, 그래.....

(티아의 방이란, 루크가 계속 누워 있었던 그 방이었다... 루크는 그것을 깨닫고 밧그레해진다)

<페이스 채트 '새로운 여행으로'>

티아 : 또, 여기에서 여행을 떠나야 되는구나.....

루크 : 응?

티아 : 당신이란 처음으로 만났던 것도, 여기가 시작이었어.....

루크 : 그랬었나.....

티아 : 응. 오빠를 막기 위해, 여기에서.....

루크 :티아.

티아 : 이번에는 말로 오빠를, 막지 않아선 안 돼..... 그리고, 센트비나의 사람들을 구해야지.

루크 :그렇지. 액제류스 꼴을 두 번 보는 건 사양할래!!

(시장의 집 1층에서 테이블을 조사하면 라면의 조리법을 알 수 있다)

[유리아 시티 시장 자택 2층 티아의 방]

티아 :오빠는 오래도록 예언을 증오하고 있었어. 이 방에서 언제나 말했지.
티아 : 딱 거기 당신이 있는 자리에 서서, 호드를 버린 세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루크 : 왜 호드에 집착하는데?

티아 : 16년 전 호드 전쟁에서 마르쿠트 영토였던 호드 섬이 소멸되었는지? 거기가 나와 오빠의 고향이야.
티아 : 호드는 액제류스와 마찬가지로 마계로 무너져 내렸어.
티아 : 그 때, 오빠와, 나를 배고 계셨던 어머니도 마계로 떨어졌어. 아마 오빠도 보가를 불렀던 것이겠지.
티아 : 내가 외각대지에 가기 전이었어. 오빠가 희한하게 이 도시로 돌아온 적이 있었던 거야.

(회상)

리그렛 : —— 애쉬가 뭔가 눈치를 챈 듯 해요.

반 : 애쉬는 묘한 부분에서 깨끗함을 따지는 놈이다.
반 : 이 계획이 외각대지의 주민들을 소멸시키는 것이란 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겠지.

리그렛 : 감시로 싱크를 붙이시겠습니까.

반 : 그러지.

(현재)

티아 : 오빠가 무언가 어처구니 없는 짓을 꾸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적어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
티아 : 그런 건 용납할 수 없었어. 설사 호드가 예언 탓에 버려졌다 하더라도...
티아 : 그래서..... 오빠랑 같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막으려고.....

루크 : 티아!

티아 : 하지만 나, 실패한 것 같아. 액제류스를 구할 수 없었던 걸.

루크 : 그건 내가.....

티아 : 당신 혼자만의 탓으로 돌릴수는 없어.
티아 : 난 오빠를 막기 위해서..... 외각에서의 임무를 맡은 것이었으니까.

루크 : 넌 강하구만.

티아 :그런, 걸까.

루크 : 지나칠 정도로. 그래도..... 말해 줘서 고맙다.
루크 : 너에 대해 좀 알게 된 듯한 느낌이 들어.

티아 :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은 거 이게 처음이야.

루크 :그, 그랬던가.

유우 : 두 분이 사이 좋아지셔서 정말 기뻐염!

루크 : 벼, 별로 그런 건 아냐 짜사!

루크 : 암튼 뭘 챙기러 온 건데?

티아 : 음소학(音素學) 책이야. 당신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루크 : 뭐가?

티아 : 당신은 초진동을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할 거라 생각하니까. 초진동도 제 7 음소로 발생하니,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루크 :그런 얘기구만. 땡큐.

(‘음소학 원론’ 책을 입수한다)

티아 : 유리아 로드는 회의장 오른쪽이야. 자.

<페이스 채트 '마계에 남았던 이유'>

루크 : 티아, 너 왜 애쉬랑 같이 안 갔던 거냐?

티아 : 내가 왜 가야 했는데? 애쉬를 따라갈 이유는 없어.

루크 : 그야 그렇지도 모르겠다만.....

티아 : 난 대영사 모스의 명령으로 제 7 보석을 찾고 있었어. 결국, 액제류스에 있었던 건 가짜였지만.

티아 :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는 해도, 애쉬랑은 상관이 없어. 더욱이 그는 오빠의 부하야.
티아 :선부르게 신용할 수는 없으니까.

루크 : 어..... 그러면.....

티아 : 자만하지 말아 줘. 당신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

티아 : 할아버님께 내 이후 행동을 상담하자고 생각했던 것 뿐이야.

티아 : 그 전에 당신이 깨어났다는 얘기. 그게 전부.

루크 :그그랬나. 역시 그럴겠지...

티아 :하지만. 지금 당신이랑 같이 있는 건, 당신이 정말로 변할지 어떨지를 지켜보기 위해서야. 열심히 해 봐.

루크 :어. 알고 있어. 나.....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볼거야.

(유리아 로드로 간다. 회의실 오른쪽의 입구이다)

티아 : 이 길을 열면 파다미아 대륙에 있는 아라미스 용수동굴로 연결될 거야.

티아 : 거기 마물 소굴이라서 그러는데. 준비는 다 됐어?

(아래 것을 고르면 외각대지로 갈 수 있다)

루크 : 어. 됐어.

유우 : 저, 두근두근거려염!

티아 : 걱정 마 유우. 자아, 길을 열게.

[아라미스 용수동]

(점병)

유우 : 유우~~~~!?

루크 : 뜨악 갑자기 물 속 아냐!?

티아 : 괜찮아. 젖거나 하진 않을 거야.

루크 : 뭐였던 거야 저거?

티아 : 세피로트가 밀어올리는 힘으로 물이 튕겨나간다는 것 같아.

루크 : 세피로트라..... 대륙을 띄우다니 굉장한 힘이구만.

루크 : 난, 그런 중요한 걸 소멸시키고 말았던 건가.....

티아 : 풀 죽어 있어 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그렇지?

루크 : 그랬지. 그보다는 이제부터 할 수 있을 일을 하는 거였어.

루크 :안되겠다 나 이거~.

<페이스 채트 '유리아 로드'>

유우 : 괴, 괴, 굉장했어염~!

루크 : 갑자기 물 속에 팽겨쳐 졌을땐, 진짜 좋았다고. 세프로트를 이용했던 거 같은데. 무슨 원리아?

티아 :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도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야.

티아 : 여기 유리아 로드처럼, 창세력 시대의 보술이나 음기관도 많이 있지만 그 원리는 완전히 해명되어 있지 않아.

루크 : 그러냐..... 창세력 시대란 건 굉장한 시대였는지 분명.

티아 : 그렇지 참. 당시 기술의 대다수는, 유리아가 개발에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 같아.

루크 : 그렇다는 애긴 유리아 로드도.....

티아 : 유리아가 낸 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어. 그래서 「유리아 로드」.

유우 : 유우도, 유리아 님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배웠어염.

루크 : 그랬나. 난, 유리아에 대해서 흥미같은

게 없었으니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았지.....

티아 : 이제부터 알아가면 될 거라 생각해. 조금씩이라도.

루크 : 그렇군.

(동굴 안에 들어가면.....)

가이 : 겨우 기어나왔냐.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다, 루크.

루크 : !!

가이 : 헐~. 머리카락 잘랐구나. 좋은데. 깔끔하고.

루크 : (애쉬와 이어져 있을 때에 봤던 대로야! 가이는 날 기다려 주고 있었어.....)

루크 : 가..... 가이!

루크 :

가이 : 영? 왜?

루크 :나, 난..... 루크가 아니니까.....

가이 : 암마~. 너까지 애쉬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루크 : 하지만 난, 복제인데.....

가이 : 됐잖아. 저쪽은 루크라 불리기를 싫어 하더구만. 니가 그냥 루크 가져.

루크 : 가지라니..... 너, 변한 게 없구나 진짜.

가이 : 니 쪽은 꽤나 사람이 비굴해진 것 같다면.

루크 : 비굴하다고!

가이 : 그래 비굴. 이제 와서 이름이 뭐 어떻다고.

가이 : 모처럼 기다려 준 거니 좀 더 기쁜 얼굴 좀 하면 안되냐.

루크 :어. 고맙다.

가이 : !!!!!

가이 : 루크가 고맙다, 라니.....!?

티아 : 루크, 달라지고 싶어.

(화들짝)

루크 & 티아 :

티아 : 당신은 변하질 않는구나.....

(가이에게 '이해심 많은 소꿉친구' 의 칭호) (이제 동굴을 나아가자)

<페이스 채트 '루크, 변하다?'>

가이 : 루크 녀석, 뭔가 느낌이 달라졌더군.

티아 : 그래. 그렇지도 몰라.

가이 : 루크한테 있어서는, 남들보다 더 괴로운 사건이 되어 봤으니 말이다. 액제류스 일도 반 이상 일도.

티아 : 그래도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지 어떨지는 루크에게 달렸어.

티아 : 이제부터의 그를 보고 있으면, 금방 알게 될 거야.

가이 : 괜히 너무 깊이 생각해서 좌절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만.....

티아 : 가이가 있는 걸. 이해해 줄 사람이.

가이 : 너도 있고 말이지.

티아 :맞아.

가이 : 자, 슬슬 갈까.

티아 : 응.

(던전맵을 하나 넘어가면...)

루크 : 왜..... 날 기다려 줬던 거야?

가이 : 친구잖냐. 아, 나, 하인이었지. 미안 미안.

루크 :난 복제라니까. 니 주인이 아니라고.

가이 :딱히 네가 내 주인이라 해서 사이 좋게 지냈던 게 아냐.

루크 :뭐?

가이 : 뭐, 너는 너. 애쉬는 애쉬.

가이 : 복제건 뭐건, 내게 있어서의 진짜는 너 만이라는 얘기가.

<페이스 채트 '예언에 없는 미래라 해도!>

루크 : 있잖냐, 티아. 태오드로 씨 말인데, 액제류스 붕괴가 예언에 있었다고 그랬지.

티아 : 응. 할아버님께선 알고 계셨던 것 같아.

루크 : 그렇다면, 더 나중 일도 들어 두었더라면 이제부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가이 : 그건 어떨려나. 예언에 쓰여 있는 걸 안다고 해도 결국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괜히 더 괴로워질지도 모르지.

티아 : 그래. 할아버님도 날 신경쓰시느라 액제류스 일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던 것 같으니.....

루크 : 그렇지도 모르겠지만.....

티아 : 거기다 할아버님께서, 센트비나 붕괴는 예언에 나와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 티아 : 그렇다면 우리들의 행동에는 쓸모가 없을지도 몰라.

가이 : 그러게. 무너질지 어떨지는 그 때가 되어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지. 가이 : 다만,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면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 뿐이다.

루크 : 그렇군! 좋아! 어쨌든 서두르자!

(진행함에 따라 가이와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된다)

가이 : 너 말야, 기억하고 있냐?

가이 : 유괴된 다음이니까 네가 태어나고 나서 바로 다음 쯤 될려나.

루크 : 왜? 뭔 일 있었어?

가이 : 기억이 없어서 괴롭지 않냐고 물었던 니, 네가 하는 말이 「옛날 일만 보고 있어 봤자 전진할 수 없어」였지. 가이 : 그러니까 과거 같은 건 필요없다, 라고.

루크 : 하하하..... 바보구만. 나, 과거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였는데.

가이 :아니. 상당히 진리라고 생각했다. 난.

.....

가이 : 힘들었지. 여러가지로.....

루크 :그런 말이나 하고 있을 수 있겠냐. 내 탓에 다들 죽어 버렸는데.

가이 : 그 한 부분엔 내 책임도 있군.

루크 : 니가 무슨 책임이 있다고.

가이 : 기억이 없는 텅 빈 너를 제멋대로이고 생각 없는 도련님으로 기른 원인 중의 하나가 나이기도 하거당.

루크 :엥?

가이 : 걷는 법도 기억 못 했던..... 이 아니라 몰랐던 널 돌봤던 게, 나왔으니까.

가이 : 이번에 진짜 반성했다.

.....

루크 : 액제류스 일, 어떻게 속죄해야 될까.....

티아 : 어려운 이야기야. 그저 사과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니까.

가이 : 그래. 사과를 한다는 건 분명 중요한 일이다만, 사과를 받는 쪽이 난감해지는 케이스가 되어 왔으니.

루크 : 난감해져? 왜?

가이 : 잃어버린 게 크면 클 수록,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냐?

가이 : 사과를 하는 쪽은 후련해지겠지만, 받는 쪽은 '아 그러십니까' 하고 용서할 수도 없을 노릇이고.

티아 : 일생 잊지 않고 책임을 계속 저 나가는 것..... 일까.

티아 : 응응, 너무 막연하구나.

루크 : 내가..... 행복해지지 말자..... 라는 건 어때?

가이 : 그게 말이 되냐.

루크 : 그럴까 진짜. 그래도 난 원래 태어날 리가 없었던 생명이잖아. 그런 놈이 액제류스를.....

가이 : 아~ 아~ 아~ 아~. 비관적인 소리 좀 그만 해라. 짜증날려 그런다.

티아 : 가이! 루크도 진지하게 생각해서.....

가이 : 일단 남을 도와 봐. 남은 인생 다 써서 전세계를 행복하게 만들어 보라.

루크 : 그, 그런 걸 어떻게 해!

가이 : 그딴 건 알고 있어. 그냥 그 정도 기세로 뭘 좀 해보란 얘기가.

루크 :어, 아하.....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동굴을 통과한 일행 앞에...)

루크 : 우왁!?

가이 : 제이드!?

제이드 : 아아, 다행입니다. 길이 엇갈리지 않을까 해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니다.

티아 : 대령님, 왜 여기에.....

제이드 : 가이에게 부탁할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루크를 기다린다고 했기에 찾으러 온 겁니다.

가이 : 나한테?

제이드 : 이온 님과 나탈리아가 모스에게 붙들렸습니다.

루크 : 뭐어!?

제이드 : 아이구 루크. 당신도 계셨습니까.

루크 :있으면 안돼나고.

제이드 : 아니오, 별로. 그보다 모스에게 잡힌 두 사람을 구해내지 못한다면 일이 커지게 됩니다.

제이드 : 근처에 마르쿠트 군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가이에게 협력을.....

가이 : 일이 커진다니 뭐가 어떻게 되는데.

제이드 : 액제류스가 소멸된 사건을 계기로, 킬라스카는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이드 : 아마 나탈리아의 죽음을 전쟁 구실로 삼으려는 것이겠지요.

티아 : 그랬지..... 외각 사람들은 왜 액제류스가 소멸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어.....

제이드 : 이온 님께서도 그것을 경계하시어 교단에 돌아가시자 마자, 붙잡히신 모양입니다.

가이 : 좋아, 루크. 둘을 구하러 가자.
가이 : 전쟁 따윈 일으켜서야 되겠냐. 그렇지?

루크 :그래. 다아트에 가면 되는 거지?

제이드 : 뭐어 그렇게 됩니다. 노파심에서 설명해 두겠습니다만 다아트는 여기에서 남동쪽

입니다.

제이드 : 미아가 되시는 등 방해가 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티아 : 루크. 한번 잃은 신용은 간단히 되찾을 수 없는 법이야.

루크 :아, 알고 있어.

(제이드가 가담한다. 그의 말대로 남동쪽 다아트로 가자)

<페이스 채트 '따끔한 인사'>

제이드 : 나 원 이것 참. 또 당신과 행동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루크 :미안. 그래도 나, 저번 같은 바보짓은 안 할 거야..... 라 생각해.....

제이드 : — 꼭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이 : 자 자. 이 멤버라면 루크의 처음 여행 때랑 같잖아. 욕심각신 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티아 :하지만, 그 때와는 많은 사정이 달라지고 말았어.

루크 :응.

가이 : 제이드 당신도, 풀이 죽어있는 애한테 으뜸장을 놓으며 재미있어 할 정도로, 빼박한 인격은 아니잖아?

제이드 :뭐, 언제까지고 함께 있어 줄 의리도 없고 하니. 한 동안은 견디기로 하지요.

가이 : (.....아 거 그러지좀 말라니께)

<페이스 채트 '총본산, 다아트'>

가이 : 생각해 보니, 다아트란 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일지도 모르겠군.

루크 : 무슨 얘기야?

가이 : 예언을 관리하는 종교단체의 총본산이니까.

가이 : 설마, 무너질 지도 모르는 토지 위에 그런 걸 세울 리가 없지.

제이드 : 그렇습니다.

제이드 : 이전부터 자레호 화산이라는 활화산이 있었기에 파다미아 대륙은 위험한 땅이라는 말을 들어 왔습니니다만,

제이드 : 무너져 내릴지 어떨지가 비예언(클로즈드 스코어)에 미리 적혀 있었다면, 분명 가이 말대로입니다.

티아 : 그러고 보니, 외각은 원래의 지표랑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화산 활동이 있는 걸까.

가이 : 그건 나도 신경이 쓰이고 있던 부분이야.

루크 : 글쿠만, 외각이란 건, 지각 부분만을 띄워올린 거니까, 원래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는데.

제이드 : 그것은 세피르트 트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이드 : 그것이 방출하고 있는 것은 음소(포남)이나 기억입자(셀퍼 티클)만이 아니라,

제이드 : 혹성의 생명력 같은 것도 순환시키고 있다 보는 것이 옳겠지요.

티아 :유리아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을 고안해 냈던 것이네요.

제이드 : 유리아 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10명 제자', 그리고 '서전크로스 박사' 도, 말이지요.

[필드, 파다미아 대륙]

<페이스 채트 '다아트로!>

유우 :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워요!

루크 : 아직 시작된 게 아냐! 서두르면 막을 수 있어!

유우 : 그치만 그치만 센트비나엔 안 가두 되

염?

루크 : 응, 그랬지. 센트비나도 위험한데.

티아 : 루크. 당황해 봤자 도움이 안 돼. 티아 : 아무튼, 일단 다아트에 가서 도사 이온과 나탈리아를 구해 내자.

루크 : 그래도 다아트 놈들이라면, 다들 그 모스 패거리 아냐?

루크 : 쉽게 풀리진 않을 건데, 그러다가 모스 게 다 늦게 되면 어쩐다.....

티아 : 교단은 대영사파 만이 아니야. 도사 파나 총립 교단원은 우리 편이지.

티아 : 괜찮아. 너무 초조해 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

루크 :그, 그렇군. 잘 알았어 티아. 다아트로 빨리 가자.

(다아트로 향하면, 도중에 제 4 비석의 언덕이라는 곳을 지나게 된다)

[제 4 비석의 언덕]

유우 : 주인님! 저기가 다아트일까요?

루크 : 난 모르겠어. 그래?

티아 : 응 맞아. 저기 교회에 이온 님과 나탈리아가 갇혀 있는 거구나.

제이드 : 전쟁을 막아 낼 가능성이 있는 두 분이시니 말입니다.

제이드 : 모스로서도 다아트 밖으로 내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겠지요.

루크 : 백부님한테 나탈리아 연금되 있다는 얘길 전하면 되지 않을까?

티아 : 나탈리아는 분명 액제류스에서 희생되었다고 생각되고 있을거야. 그건 어려워.

가이 : 그렇지. 게다가 페하에게는 모스의 임금이 작용하고 있어. 우리들만으로 어떻게 구해보자.

제이드 : 아니스가 교단의 상황을 정탐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루크 : 아니스를 찾을 수 밖에 없었군.....

<페이스 채트 '아니스를 따라서'>

가이 : 아니스는 어디에 있을려나?

제이드 : 그녀는 상당히 행동파라 말입니다. 어설프게 찾기보다는 가만히 기다리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지요.

루크 : 하지만, 센트비나 때처럼 죽죽 앞서 가면 어쩔려고.

제이드 : 아니스는 불필요하게 앞서 나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과는 달라서 말입니다.

루크 :아, 알았어 그래. 그럼 기다리자 뭐.

가이 : 야 루크. 비꼬는 것까지 순순하게 들으면, 앞으로는 대령 형씨에게 계속 당하기만 할 걸?

루크 : 아니, 모. 혼자 앞서 나갔던 건 사실이니까.

제이드 : 흠음. 주고 받는 방식이 전이량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저만 나쁜 사람 같지 않습니다.

티아 : 아이 참! 어서 아니스를 찾아야만 한다니까요. 자, 어서들 가요!

남자들 : 알고 있어(요).

[로렐라이 교단 총본산 다아트]

(적당히 장비나 아이템을 정리해 두자)
(임구 왼쪽의 교단인에게 말을 걸면 '서주의 음반' 이라는 중요 아이템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노점의 요리사 복장을 한 사람에게 말을 걸면 피자의 조리법을 배울 수 있다)
(속소에서 쉬기로 하면 이벤트가 일어난다)

루크 : 제이드. 부탁할 게 있어.

제이드 : 왜 그러십니까. 정색을 다 하시고.

루크 : 음소학 책을 읽고 초진동 제어를 공부해 보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면 안 될까.

제이드 :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제 7 음소는 못 쓰니까요.

루크 : 음..... 그럼 티아에게 부탁할 수 밖에 없나.....

티아 : 나한테 배우는 게 싫다면 그냥.....

루크 : 누, 누가 싫었나! 부..... 부탁할게.....

티아 : ???그래?

.....

루크 : 어우 야! 언제까지 이런 걸 하면 되는 데.

티아 : 조용히! 그냥 눈을 감고 있으라는 게 아니야. 이 세계에 흐르고 있는 음소를 듣는 거지.

루크 :들릴 리가 있겠냐고.

티아 : 귀로 듣는 게 아니야. 온 몸의 폰슬룻으로 느끼는 거야.

루크 : 음~.

「귀로 듣는 게 아니야. 온 몸의 폰슬룻으로 느끼는 거다」

티아 : (리그렛 교관님.....)

(회상 시작)

티아 :온 몸의 폰슬룻으로 느낀다구요?

리그렛 : 그래. 음소(포닝)는 '소리와 속성의 융합체'야. 눈으로 볼 수 있을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아.

리그렛 : 하지만 폰슬룻이라면, 음소 — 즉 진동을 감지해 낼 수 있지.

리그렛 : 거기서부터 몸 안으로 음소를 불러들이는 것이 보슬의 기초다.

티아 : 네. 알겠습니다.

리그렛 :좋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리그렛 : 티아, 너는 요령이 좋구나. 과연 각하와 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

티아 : 가..... 감사합니다!!

리그렛 : 하지만 자만은 하지 말아라.
리그렛 : 네가 각하의 여동생이라는 것 만으로도, 억울한 중상이나 비방을 받게 될 일도 있을 거야. 어리석은 일이지만.

티아 : 명심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리그렛 : 그럼 딱딱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리그렛 : — 티아, 반 총장께서 네게 보내는 편지를 알아 가지고 있단다.

티아 : 오빠가요?

리그렛 : 총장께서는 네 성장을 기대하고 계시지.

리그렛 : 언젠가는 너를 오른팔로 삼을 생각이 실 거야. 기대에 잘 보답하도록.

티아 : 하지만 교관님. 저는, 오빠의 오른팔이 교관님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리그렛 : 어머니. 고맙다.

리그렛 : 하지만 나는 그저 교활한 지혜와 기역력 만으로 간신히 도움이 되고 있을 뿐이야. 리그렛 : 그러니 각하를 위해서라도 — 아니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서, 너는 살아 남을 능력을 익히도록 해라.

리그렛 : 이제부터, 세계가 어지러워 질 테니까.

티아 : 네, 교관님!

(다시 현재)

루크 :들려.

티아 : 거기까지!

티아 : 지금 감각. 안쪽에서부터 힘이 넘쳐나 오는 듯한, 온 몸이 진동하는 듯한 감각을 잊지 않아 줘. 그게 음소(音素)야.

루크 :그래. 뭔가 뻘이 온 것 같아.

티아 : 초조해 하기 없기. 훈련은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니까.

루크 : 나두 안다니까.

루크 :그래도. 고..... 고마워.

(그 후 페이스 채트로 전환)

제이드 : 루크. 맥을 잠시 짚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루크 : 어? 상관은 없는데.....

제이드 : 흐음..... 문제 없는 모양이군요.

티아 : 대령님. 루크에게 무슨 일이라도?

제이드 : 완전 동위체인 복제인간..... 이라는 것은, 저도 처음이라 말입니다.
제이드 : 지금은 존재가 안정되어 있습니다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예측하기 힘들니 말입니다.

루크 : 어..... 나, 나..... 이상하게 되어 버리는 거야 나중예?

제이드 : 걱정 마십시오. 원래부터 이상하셨으니까.

루크 : 무슨 의미야 그게.....

제이드 : 저도 정기적으로 당신 건강을 신경 쓰기로 하였습니다만,
제이드 : 당신도 스스로 무슨 이변이 왔다 생각하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루크 : 어. 고마워, 제이드.

제이드 : ...루크가..... 답례를..... 하셨단 말입니까.....

루크 : 어, 어째서 다들 일일이 놀라고 난리야!

가이 : 그게 바로 '평소 행실' 이라는 거다.

유우 : 행실이에염!

루크 :(빠직) 으~..... 입 다물어, 돼지원숭.

유우 : 유우우우~;;

<페이스 채트 '다아트 사람들'>

가이 : 웬지, 사람이 많은 느낌이다만.
가이 : 여기 사는 인간들은, 대체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거지?

티아 : 로렐라이 교단은, 신자에게서부터 들어오는 기부금이 주된 재원이야.

티아 : 그러니까, 나나 아니스처럼 오라클에 소속된 사람은, 생활비를 교단에서 지급받게 돼.

티아 : 일반적 신자인 사람들은, 자급자족으로 지내고 있어.

가이 : 자급자족? 장사는 금지되어 있나?

티아 :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아트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그 필연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야.

티아 : 우리가 지나온 제 1 자치구에 여인숙이 있었는데, 거긴 특별하게 허가를 받은 케세드니아 사람들.

가이 : 흐~음. 예언에 지켜지며 최저한의 생활만 할 수 있으면 만족이라는 얘기인가.

(이제 제 1 거주구를 빠져나가 정면에 있는 교회로 향하자)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12)

[로렐라이 교단 총본산 다아트]

(교회의 정면 층계에 접근하면 누군가가 튀어나온다)

가이 : 우아아아악!?

루크 : 아니스!

아니스 : !!

아니스 : 우와! , 애쉬, 머리 잘랐어?

루크 : 어, 난.....

아니스 : 아. 아니네. 루크구나.

아니스 : ...???

아니스 :

아니스 : !!!

아니스 : 에에엑!? 왜 그 도련님이 이런 데 있는 거야!?

아니스 : 거기다, 뒤에 계시는 건 대령님 일행? 와하♡ 이거 혹시 로렐라이의 뜻?

일행 :

가이 :요란하구만 진짜.

제이드 : 아니스, 일단 이온 님 탈환을 위한 전력을 모아 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되어 계십니까?

아니스 : 이온 님이랑 나탈리아는 교회 지하에 있는 오라클 기사단 본부로 연행되었어요!

루크 : 맘대로 들어가도 돼나?

티아 : 교회 안이라면. 하지만 지하의 오라클 본부는, 오라클의 구성원 밖에 들어갈 수 없어.....

가이 : 침입할 방법 없나? 어떻게 해서든 둘을 구해내지 않으면 진짜 전쟁이 터져 버려.

아니스 : 뭐랄까 벌써 시작될 분위기이지만.

제이드 : 티아, 제 7 보석(譜石)이 가짜였다는 보고는 아직 안 하셨겠지요.

제이드 : 우리들을 제 7 보석 발견의 증인으로 서 본부에 동행시킬 수는 없겠습니까?

티아 : 알겠습니다. 자치반의 영사 트리트하임에게 신청해 볼게요.

루크 : 트리트하임이라는 녀석은 안에 있지? 일단 들어가 보자.

[다아트 교회 내부]

<페이스 채트 '되찾지 않아선 안 될 신용'>

아니스 : 루~크. 이젠 몸은 괜찮아졌어? 무리하지 말고, 그냥 계속 자고 있었어도 되는데~♪

가이 : 야 야. 너무 심하잖나.....

루크 : 아냐. 이런 말을 듣더라도 별 수 없는 데 뭐. 그래도 퍼질러져 있을 수는 없어.
루크 : 무슨 말을 듣더라도, 난 해내야 해!

아니스 : 어라? 뭔가 열혈 루크가 되어 버렸네?

아니스 : 뭐 그야 어쨌든. 이온 님이랑 나탈리아가 큰일이야~. 어서 구하지 않으면.

루크 : 그랄구만. 트리트하임이란 사람을 만나러 갈까.

아니스 : 액? 또 루크가 짱 먹게!?

루크 : 어?

가이 : 뭐..... 자 자. 이, 일단 가거나 하자.

<페이스 채트 '일그러진 애정!?'>

아니스 : 이온 님, 괜찮으실까아.....? 어디 가시기만 하면 맨날 잡히시니.....

아니스 : 종말..... 무슨 공주님두 아니구!

티아 : 그 만큼 이 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분이시라는 뜻이야.

아니스 : 으~응..... 그건 알고 있지만, 그 성격도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스 : 조금..... 도 아니고, 상당히 멍하니 니깐.

루크 : 그, 그렇지. 이용당하기 쉬운 성격이라고 할까.....

티아 : 도사 이온은 훌륭한 분이셔.
티아 : 그, 그야..... 분명, 타인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지나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킨 했지만.....

가이 :틀림없이 (만담의)바보 역할이지 저건.

제이드 : 이온 님이 바보 역할이시라면, 참견하는 역할은 아니시겠습니까.
제이드 : 주중 만담입니까..... 그거 재미있었습니다.

아니스 : 아이 참! 다들 그만 해! 이온 님을,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가이 : 야 야. 아니스 니가 꺼낸 얘기잖어?

아니스 : 난 괜찮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쁘게 말하는 건 절~~대 안 돼!! 다음에도 그러면 죽을 줄 알아!

루크 : 무, 무서라~.

티아 : 왜 저러는 걸까.....

가이 : 그야, 그거지. 안 그래, 대령.

제이드 : 예예. 사랑(愛 = あい)이군요.

일행 : 사랑!?

유우 : 맛(味 = あじ)이염!?
유우 : 이온 씨는 무슨 맛이세염? 사과 쥬리 맛이세염?

제이드 : 로렐라이 교단 맛이겠지요.

유우 : 괴, 굉장하세염~~!

루크 :누가 이 인간들 조용히 좀 시켜 줘...

(서 있는 교단인에게 말을 걸어보자)

파멜라 : 어머 어머 어머! 아니스, 오랜만이구나.

아니스 : 엄마. 저금 잘 하구 있어?

파멜라 : 어머 어머 어머. 걱정 마. 매일 나오는 급료는 로렐라이에게 확실히 바치고 있으니깐.

아니스 : 아~작도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노후엔 어쩌려고!

파멜라 : 괜찮아. 예언대로만 살아가면 돈 같은 것은 필요 없으니깐.

아니스 :아~, 역시 내가 인생역전을 노려야 하나.....

루크 : ;;

(트리트하임은 가운데의 큰 문을 통해 갈 수 있는 예배당에 있다)

트리트하임 : 로렐라이 교회에 어서 오십시오.
트리트하임 : 개인적인 예언(스코어)은 매 주 령의 날 미사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트리트하임 :음? 그 쪽은 창사(唱師) 타들린과 창사 그란츠가 아닌가.

티아 : 영사 트리트하임. 대영사로부터 받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티아 : 따라서 보고를 위해, 여기 있는 증인들과 함께, 본부로의 출입허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트리트하임 :음. 대영사 모스라..... 그 래 알았네. 이걸 가지고 가게.

티아 : 감사합니다.

(나무패를 받는다)

<페이스 채트 '아니스 대활약'>

티아 : 그래서 어떤 경우로, 이온 님과 나탈리아가 연금 같은 것을 당하게 된 거지?

아니스 : 음~ 그러니까. 애쉬 개가 우릴 바래다 주기로 했었거든.
아니스 : 그래서, 일단은 나랑 이온 님을 다아뜨까지 태워주긴 했었는데, 거기서 전쟁이 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제이드 : 나탈리아가 도사 조칙(詔勅) 발령을 제안했던 겁니다.
제이드 : 그래서 교회로 향하던 더 중 돌 다 붙들리고 만 듯 하더군요.

가이 : 하더군요, 라니. 당신은 뭐 하고 있었는 수?

제이드 : 타르타로스의 육상주행 기능을 복원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니스 : 나만 간신히 빠져나와서, 대령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거야.
아니스 : 그 다음 바로 교회로 돌아와서, 두 사람의 행방을 정탐하고 있었다는 얘기.

루크 : 아니스 대활약 좀 하는데.

아니스 : 도련님이랑은 틀리니깐~.

티아 : 그래서, 타르타로스의 육상 주행기능은 어떻게 되었나요?

제이드 : 틀렸습니다. 일부에 마계(클리포드)의 진흙이 스며들어, 부품이 고장나 있었습니다.

가이 : 오오. 희한하게 대령은 활약을 하지 못한 모양이군 이번엔.

제이드 : 저 혼자만 항상 열심히 하는 것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제이드 : 자, 사정이 이해가 가셨다면, 두 사람의 구출을 서두르십시오.

(이제 교회 홀의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 쪽 가다 보면...)

모스 : 에에이! 반 놈과는 아직도 연락이 안 되나!?

리그렛 :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총장 각하게 서는 베르켄드로 시찰을 나가셨기에.....

모스 : 겨우 예언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던 말이다.
모스 : 이런 중요한 때에 그 자는 무얼 하고 있는 겐가!

리그렛 : 대영사 모스께서는 한 발 앞서 바티칼로 향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모스 : 별 수 없군, 그렇게 할까.

리그렛 : 배웅하겠습니다.

.....

티아 : 모스 님, 거기다 교관님까지..... 전 말로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계셨다니.....

루크 : 어쨌든 이온을 찾아내서 전쟁을 막게 만들어야 해!

가이 : 그래.

(다시 안으로 쭈욱 들어가자. 나무패가 있다면 교단 병사가 지키고 서 있는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오라클(신탁의 방패) 본부 대광장]

루크 :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지?

아니스 : 모르겠어. 이 잡듯이 뭉치기라도 해야.....

루크 : 그렇게 놀다간 들켜 버린다고.

티아 : 가능한한 눈에 띄지 않게 할 수밖에 없겠어.

제이드 : 그렇군요. 적에게 발각되면 원군을 부르지 못하도록..... 확실히 숨통을 끊어놓아야만 하겠습니다.

루크 :맘이 무거운데.

가이 : 별 수 없지. 꾸물거리다간 진짜 전쟁이 터질 거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죽어.

루크 : (또 누군가의 원한을 사게 되겠구나..... 난.....)

<페이스 채트 '예언을 지키는 일'>

티아 : 대영사 모스..... 왜 이런 짓을.....
티아 : 예언에 있는 올드란트의 변영을 바라고 하시는 행동이라는 건 확실하지만.....

루크 :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켜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티아 : 예언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우리들 로렐라이 교단에 속하는 자들은 그렇게 배워왔어.

제이드 : 올드란트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언을 지키며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이드 : 그것을 감안하자면 모스의 견해나 행동도 약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이드 : 그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로렐라이 교도인 것이겠지요.

루크 : 그럼, 두 사람은 이대로 전쟁이 터져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설마?

제이드 : 물론 전쟁은 막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서 이온 님과 나탈리아를 구출하지 않아선 안 되겠지요.

루크 : 그래. 두 사람은 여기 어딘가의 방에 있을 거야. 빠짐없이 찾자고.

티아 : 응.

<페이스 채트 '오라클 본부란 어떤 곳?'>

루크 : 있잖어. 여긴 어떤 시설인 거냐?
루크 : 본부라 할 정도이니 상당한 수의 오라클 기사단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스 : 그걸 들어서 어쩔려구? 도련님한테는 상관 없는 일일 것 같은데~.

가이 : 쌀쌀맞구만.....

루크 : 나, 난 그냥..... 지금까지 모르던 게 너무 많다 보니.....

아니스 : 흐~응. 뭐, 좋아. 일단 가르쳐 주긴 하겠지만, 실은 비밀이런 거 알아 뉘.
아니스 : 본부는 따지면 오라클의 어두운 부분이 돼.
아니스 : 일반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건, 여기의 군대적 색채가 너무 강하기 때문.
아니스 : 오라클 병사는, 원래 다들 여기서 훈련하고 있단구. 나도 그랬고..... 티아도죠?

티아 :아, 아니. 난..... 리그렛 교관님이 유리아 시티에 와 주셨었으니까.....

아니스 : 옹? 그랬어? 역시 총장의 동생이라 그랬던 걸까..... 뭐, 어때.
아니스 : 또 기숙사 같은 데도 여기에 있어서, 말단 병사들은 여기서 자고 먹고 하기도 해.
아니스 :저기, 이 정도면 될까?

루크 : 어. 충분해. 고맙다.

아니스 : 하우왓! 루크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어!

가이 : 하하, 처음엔 놀란다니까 다들~.

루크 : 미, 미안하다 그래.....

(각 방의 문은 유우 어택으로 징을 두들기면 열린다. 문을 열어가며 진행하자)

<페이스 채트 '징을 쳐라!>

제이드 : 이 징을 두들기면 튀어나온다니, 꽤나 성실하지 않습니까.

티아 : 집합 신호이니까요. 당연한 일입니다.

제이드 : 하지만, 이거라면 장난을 칠 우려가 있겠습니다.

티아 : 오라클 기사단은 질서를 지키는 로렐라이의 기사입니다. 그런 어린애 같은 장난을 하는 사람은.....

제이드 : 없으십니까? 그래도 지금 징을 두들겨 끌어낸 다음에 슬쩍..... 비슷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스 : 네~에☆ 오히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아♪

유우 : 재미있어염~.

티아 : 이,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적을 유인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제이드 : 명령도 없는데 불필요하게 두들겨서, 오라클 여러분을 혼란시킨다. 음~. 즐거운 장난입니다.

티아 :분명히 명령은 없습니다만..... 그건..... 역시 이거 장난하는 걸까.....

제이드 : 음 음, 청춘의 고민이군요. 젊은 시절에는 고민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이 : 억지로 고민하게 만들고서 잘도 말한다.....

(열심히 방을 뒤지다 보면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루크 : 이온! 나탈리아! 무사하냐?

나탈리아 :루크이시지요?

루크 : 애쉬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나탈리아 : 아무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사오요!

아니스 : 이온 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이온 :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일부러 와 주셔서 감사해요.

티아 : 이번 연금(軟禁) 사건에 오빠는 관련되어 있었나요?

이온 : 반의 모습은 본 적 없습니다. 다만, 6신장이 저를 데리고 나가겠다는 허가를 받으려 하는 것 같더군요.
이온 : 모스는 일촉에 부쳤습니다만.....

티아 : 세피로트 트리를 없애기 위해, 다아트 식 봉주를 해제하시도록 시키려는 거야.....

아니스 :그렇다는 건, 언제까지고 여기 있다가는, 총장 일당이 이온 님을 데려가기 위해 올 거란 말이야?

가이 : 그런 셈이다. 빨리 튀자.
가이 : 일단 도시 바깥까지는 괜찮겠지. 그 다음 일은 완전히 도망친 다음에 정하면 돼.

루크 : 그럼, 제 4 비석이던가? 그게 서 있던 언덕까지 달아나자.

(자동으로 교회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

[로렐라이 교단 총본산 다아트]

<페이스 채트 '또, 이 멤버로.....'>

아니스 : 다시 이 멤버가 모였네.

제이드 :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긴 합니다만.

이온 : 이것도 로렐라이의 인도인 것일까요.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유리아 예언에 관련된 자, 각국의 중요한 입장의 인간..... 우연이 아닌 듯한 느낌도 듭니다.

가이 : 이것도 예언에 기록되어 있을려나.

아니스 : 그럴지두~.

나탈리아 : 그렇다손 치더라도..... 루크, 머리칼을 자르신 탓일지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으시어요.

루크 : 그, 그래?

제이드 : 당신 나름대로, 여러 생각을 하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워어 이제 와서, 라는 느낌도 듭니다만.

루크 :으.....

아니스 : 사람 성격, 하루 아침에 변할 리 없다고도 하니깐요.

이온 : 아니스, 제이드. 저는 당신들의 의견에 솔직히 찬성할 수 없네요.
이온 : 루크는 원래부터 성난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법을 잘 몰랐을 뿐입니다.

루크 : 돼, 됐어, 이온! 그냥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거나 해.

티아 : 그런 셈이네. 자아, 이런 곳에 계속 서서 이야기 하는 것은 위험해. 가자.

<페이스 채트 '스파이 의혹!?'>

티아 : 대영사 모스..... 정말로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계셨다니.....

루크 : 티아..... 저기.....

티아 : 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엔, 확실히 이야기 하는 편이 좋아.

루크 :그니까, 나... 저번에 네가 첩자 아니냐고 의심했던 적이 있었지.

티아 : 으응...

루크 : 잘못했다!!

티아 : 루크 ?

루크 : 너, 실은 모스의 스파이 같은 게 아니더라고.

티아 : 됐어. 내가 대영사 모스의 부하인 건 사실이니,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도 우리는 아니야..... 하지만 믿어 줘.
티아 :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만은 막고 싶다 생각하고 있다는 걸.

[다아트 제 4 비석의 언덕]

(회의를 시작하는 일행)

가이 : 추적자는 없는 모양이다.

티아 : 공공장소에서 이온 님을 납치하는 것 같은 짓은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

아니스 : 그치만,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들~? 전쟁 시작될 것 같은 게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

루크 : 바티칼로 뛰어서 백부님을 말리면 되는 거 아냐?

티아 : 잊었어? 폐하께서는 모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적의 품으로 뛰어드는 건 위험해.

나탈리아 : 유감이지만요, 티아의 말대로일지도 몰라요. 아버님께선 모스를 신뢰하시고 계신답니다.

제이드 : 저는 센트비나가 무너져 내릴 거라는 이야기도 염려가 됩니다.

이온 : 그렇다면 마르쿠트의 피오니 폐하께 힘을 빌리는 것은 어떨겠어요.
이온 : 그 분께서는 싸움을 바라고 계시지 않는데다, 루크니카가 무너질 징조를 보인다면 폐하의 귀에도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니스 : 그러면 되는 거 아니예요?

루크 : 좋아, 그럼 결정됐군. 근데 마르쿠트로 갈 배는 어쩔래?

제이드 : 애쉬가 타르타로스를 다아트 항구로 남겨 두었습니다. 일단은 항구로 향합니다.

루크 : 애쉬가..... 알았어. 항구는 북서쪽이지. 가자.

[필드, 파다미아 대륙]

<페이스 채트 '애쉬의 의도는?'>

루크 : 애쉬 자식, 왜 타르타로스를 남겨두고 간 거지.

나탈리아 : 우리들을 배려해 주신 것이 아닐려나지요?

제이드 : 어떨까요. 타르타로스는 마르쿠트 선적의 배입니다.
제이드 : 단지 양 나라에 걸쳐 사용하기에는 불편했던 것일 뿐일지도 모르지만.

가이 : 어쨌든 간에 살았어. 배가 없어 여기서 발이 묶이는 것도 사양이니 말이다.

루크 : 애쉬라..... 그 놈, 지금 뭘 하고 있을려나.

가이 : 글썽다.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요?

나탈리아 : 가이! 그는 우리들의 편이시어요. 어째서 그렇게 적시를 하시는 것이죠?

제이드 : 과연 아군..... 이라 단언해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의논한 대로 다아트 항구로 가자. 국도를 따라가면 직빵)

[다아트 항구]

루크 : 황제가 있는 그란코코마라면 여기서 어디 쫓이 되는 거야?

아니스 : 그니까... 분명 북서쪽.

가이 :맘에 좀 걸려서 그런다만, 그란코코마는 전시상황에서 요새가 되는 동네였지. 항구로 진입할 수 있겠나?

제이드 : 잘 아십니다 그려. 그렇습니다.

아니스 : 그래도 지금은 아직 개전(開戰)이 되지 않았는걸요?

제이드 : 그야 그렇습니다만, 킨라스카의 공격을 경계해서, 외부로부터의 침입경로는 봉쇄해 두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루크 : 제이드 이름 대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냐?

제이드 : 지금은 역효과일 겁니다.
제이드 : 액체류스 소멸 이후 행방이 묘연해진 군인이,
제이드 : 탐승한 부하는 모두 죽었으며 거기다 나포까지 되었을 터인 육상함으로 등장.
제이드 : —— 되려 공격을 받게 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군요.

이온 : 어딘가에 정박시켜 두고 육지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맨몸으로 간다면, 어쩌면.....

티아 : 로렐로 다리가 아직 수리중이었지요. 거기라면 배를 뱌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제이드 :그것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탈리아 : 결정이 되었군요. '로렐로 다리' 를 목표로 삼지요.

아니스 : 우아..... 걸어야 되는구나아.....

<페이스 채트 '타르타로스, 만신창이'>

루크 : 역시 해로(海路)로는 그란코코마에 못가는구나아~.

가이 : 그렇게 말이다. 억지로 돌파하려 한다면 타르타로스가 못 견딜 것 같더라.

제이드 : 타르타로스의 기능을 완전히 살린다면 돌파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제이드 : 승무원이 우리를 만이라면 그것도 무리일 데고, 무엇보다 광공책으로 나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루크 : 우린 싸움걸러 쳐들어가는 게 아니니 말이지.

가이 : 거기다 타르타로스가 골로 가더라도 하면, 앞으로 불편해질 것 같고.

제이드 : 그 말씀대로입니다. 지금 정세에서 배를 새로이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요.

제이드 : 아직은 타르타로스가 움직여 주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루크 : 마계에서 올라올 때에도 꽤나 우리를 했고 하니. 이 이상 타르타로스에게 부담을 걸지 않는 게 나을 거야.

가이 : 루크, 너 올라올 때 일 아냐?

루크 : 어. 나랑 애쉬는 이어져 있어. 루크 : 그놈 눈을 통해 밀려올라올 때의 상황도 보였었다고. 그러니 잘 기억하고 있지.

제이드 :

가이 : 뭐, 타르타로스 뿐만 아니라, 다들 꽤 지쳐 있지. 암튼 출발하기 전까지는 느긋하게 쉬자.

루크 : 그럴까.

(다시 타르타로스를 몰아 로텔로 다리로 가자. 게임 초반에 무너졌던 그 다리다)

[필드, 바다 위]

<페이스 채트 '탈 것은 뭐가 제일?>

루크 : 타르타로스 바다 위에서도 제대로 움직이잖아. 놀랐다고.

가이 : 원래부터 수록양용이니까. 그렇다고는 해도, 기본은 육상함이다. 가이 : 수상주행은 어디까지나 덤이야 덤. 속도는 군함보다 훨씬 떨어지지.

제이드 :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온 : 그래도 저는, 타르타로스만 하는 이동에 익숙해져 버려서요. 웬만한 연락선보다 쾌적해요.

루크 : 나도 나도.

나탈리아 : 어머니, 루크. 타르타로스는 그래도 마르쿠트 선적이랍니다. 나탈리아 : 우리 킴라스카 란발디어 왕국의 프린세스 나탈리아 호가 훨씬 쾌적했사와요.

아니스 : 나도 그 쪽이 더 좋겠어~!

가이 : 그러냐? 남자라면 잠차코 타르타로스지.

유우 : 그래염~!

아니스 : 티아는? 역시 프린세스 나탈리아 호가 더 좋지.

루크 : 타르타로스겠지.

티아 : 나..... 난..... 토쿠나가(아니스 인형) 쪽이..... 제일.....

제이드 :(쓴웃음)

티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다리가 걸쳐진 강으로 향하는 도중 이벤트. 상태가 좋지 않은 타르타로스가 트러블을 일으킨다)

나탈리아 : 까악!

아니스 : 가라앉아 버리는 거야?

제이드 : 보고 오겠습니다.

가이 : 나도 가지. 음기관 수리라면 약간은 거들 수 있어.

유우 : 주인님. 유우는 헤엄 못 쳐염.....

루크 :알고 있어 임마. 괜찮아. 침몰하거나 하진 않을 테니.

제이드 : 기관부를 당했습니다만 가이가 응급처치를 해 준 덕에 대충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 : 일시적인 거야. 가능하다면 어디 항구에서 수리라도 하고 싶군.

티아 : 여기서라면, 정확할 수 있을 항구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케텔부르크 항구예요.

루크 : 그럼 거기 가자. 괜찮지 제이드.

제이드 :뭐, 그러십시오.....

[케텔부르크 항구]

제국 병사 : 실례합니다. 여권과 선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이드 : 나는 마르쿠트 군 제 3 사단 소속 제이드 카티스 대령이다.

제국 병사 : 시.....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대령님께서서는 역제류스에서.....

제이드 :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극비사항이다. 임무수행 중, 배의 기관부가 고장났기에 방문했네. 제이드 : 사정 설명은 지사인 오스본 자작에게 하지. 선내의 검역은 자유롭게 해도 상관 없다.

제국 병사 : 숙지했습니다. 마을까지 안내를 할까요?

제이드 : 아니, 됐네. 나는 여기 출신이라서. 지리라면 알고 있어.

제국 병사 :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례하겠습니다.

루크 : 해에~, 제이드 여기 출신이었구나.

제이드 :뭐, 그렇습니다.

루크 : 수리는 어쩔거야.

제이드 : 그것도 지사에게 보고해서 부탁하도록 하십시오.

루크 : 알았어. 그럼 케텔부르크로 서두르지요.

(항구에서 참고정리 미니게임을 할 수 있다) (이 외에 항구에서 할 일은 별로 없으니 서쪽의 케텔부르크로 향하자. 필드의 적이 갑자기 강하니 조심하자) (술술 제이드에게 비오의가 생겼다면 그에 따른 페이스 채트가 뜬다)

<페이스 채트 '제이드, 회복 순조'>

제이드 :흐음.

가이 : ?왜 그래 제이드?

제이드 : 아니오..... 몸의 감각이 이전으로 돌아온 모양입니다. 꽤 많이 풀린 모양이군요. 제이드 : 그래도 아직, 옛날의 절반 수준이라고나 할까요?

가이 :봉인술 효과 말이군요? 하지만, 그렇게 대량생산이라도 되는 날엔.....

제이드 : 아마 괜찮을 겁니다. 대인병기로서는 제작단가가 너무 비싸니 말입니다. 제이드 : 뭐라나 한 개 제조하는 데에 국가예산의 약 10%가 든다는 얘기이니까요. 제이드 : 오라클의 모두에게는 사랑술사(네크로맨서)의 이름이 어지간히 위협적이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가이 :그걸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 당신이 더 굉장하슈.

제이드 : 감사합니다.

[실버나 대륙, 은세계 케텔부르크]

(주민들에게서 '제이드 발포아 박사' 에 대한 이야기를 어렵듯이 들려낼 수 있다. 네이스 박사라는 자는 6 신장의 한 명이라는데...?) (거리를 적당히 구경한 후 먼저 카지노로 가보자)

<페이스 채트 '황제 폐하가 사모하던 사람'>

루크 :귀족들의 별장지라는 것치고는, 그리 거창한 건물이 없는데 .

가이 : 야 야, 너네 집이랑 비교하면 어떡하냐.

가이 : 왕위 계승권을 가진 너한테 있어선 어디든 다 초가집이리니까.

루크 :따, 딱히 그런 생각으로 한 말은 아냐 임마!

제이드 : 자 자. 여기가 그리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황제 폐하의 뜻이시기도 한 겁니다.

나탈리아 : 어머. 폐하께서 이곳에 무언가 특별한 추억이라도 있으신가요? 나탈리아 : 역시 자신이 성장한 장소를 소중하고 여기시고 계신 것일런지요.

제이드 :뭐어, 폐하의 첫사랑이셨던 분이. 이 마을을 귀족들 멋대로 개발시키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나탈리아 : 어머니♡

아니스 : 짜잉~.....

티아 :근사해요.

제이드 : 결국, 그 사람은 신분이 너무 달랐기에 폐하와는 맺어지지 못했대지요. 제이드 : 그래서 폐하께서는, 꽤 결혼을 하실 생각을 가지시지 않는 것이십니다.

나탈리아 : 안타까운 이야기이시와요.....

아니스 : 웅클~. 아니스 감격.

티아 :보답받을 수 없는 사랑이었던 것이구나.

가이 : 그렇다는 건, 여기에 위락시설이 많은 것도. 첫사랑 상대 때문인가.

제이드 : 아아니오. 그것은 단순히 폐하의 취미이십니다.

여성 일동 :(한숨)

[케텔부르크 카지노]

(카지노에 처음 가 보면 이벤트)

루크 : 해에..... 여기가 카지노구나! 재밌어 보이는데!

나탈리아 :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무언가 너무 반짝반짝거려서 차분히 있기가 힘이 들어요.

티아 : 그래. 분명 예쁜긴 해도..... 정신이 아득해질 것 같아.

가이 : 귀족들의 별장지로서 이 근처가 개척될 때 같이 세워졌던 거다. 여기엔 소박한 전설이 있는데 말이지. 가이 : 안쪽에서 두번째 자리에서 대박을 내면 성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인생역전이라던가.....

(아니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간다...)

가이 :나 참. 호객을 위해 지어낸 구라라니까.

.....

아니스 : 아이 참! 어째서야~! 차사해~!

티아 : 왜 그러니, 아니스? 다들 보고 있어.

아니스 : 미성년자는 카지노에서 못 논다잖아. 아왕~!

가이 : 하하하, 너무 빠지지 마라. 보호자랑 같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고. 제이드에게 즐라보는 게 어때?

아니스 : 아빠아♡ 용돈 좀 주세요♡

제이드 : 거절하겠습니다아.

아니스 : 아잉~. 그럼 가이가 칩 좀 받아다 줘

♡

가이 : 으허어어억!

아니스 : 첫. 가이에겐 이 아니스의 미인계가 안 통했지.

(아니스에게 '어른스런 아이(?)' 의 칭호가 부여된다)

<페이스 채트 '의외의 복병'>

아니스 : 카지노에서 대박. 아싸 좇구나! 부자가 되어서! 사교계의 꽃!
아니스 : 초감부의 눈에 들어, 인생역전..... 우헤히.....

가이 :야 야. 심하게 낙관적인 상상이다 너.

아니스 : 긍정적이라 말해줬음 좋겠어. '믿는 자는 버는 법' 이라구!

나탈리아 : 그 격언이라면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가 아닐지요?

아니스 : 구원은 됐으니까 돈 벌고 싶어.

가이 :뭐, 칩은 도로 환금 안된다만.

아니스 :영?

나탈리아 : 어머, 어째서이지요?

가이 : 전쟁으로 힘들 때에 도박이라니 말이 안 된다면서, 선대 황제가 환금을 금지시켰으니까.

아니스 : 우왕~~ 사기야~!! 마르쿠트 정말 싫어!!

(적당히 즐겼다면 다음은 호화롭기로 유명한 케텔부르크 호텔이다)
(2층 레스토랑에서 티아의 서빙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다. 한번 플레이 하고 나면 칭호 '어쩌다 된 웨이트레스' 입수)
(다 놀았으면 이젠 지사의 집이 있는 고급주택가로 간다)

<페이스 채트 '완벽한 사람'>

티아 :

루크 : 뭐하나 티아? 동상 같은 걸 쳐다보고.

티아 : 응응, 정말 당당한 모습의 동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루크 : 들고 보니 뽀대나는데. 누군가 모델이 있었을지도?

제이드 : 그 동상의 모델은, 피오니 폐하의 3대 전에 해당하는 분이십니다.

아니스 : 아, 옛날 임금님이라는 얘기군요요?

제이드 : 그렇습니다. 여기 강설지대(降雪地帶)를 리조트 지로 개척하신 분으로, 카지노나 호텔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티아 : 그럼, 지금 케텔부르크의 초석을 쌓으신 분이시군요.

아니스 : 첫! 그만한 유능함에, 저런 미형이였다면 불만 없었을 텐데.

<페이스 채트 '천재!? 디스트'>

티아 : 이 마을 출신의 두 천재..... 발포아 박사과 네이스 박사라는 사람은..... 대령님과?

이온 : 디스트랍니다.

아니스 : 하우아!? 디스트가 천재요!?

이온 : 아니스, 그렇게 놀랄 일은 없겠지요.
이온 : 당신의 음소 진동수에 맞추어, 토쿠나가가 거대화될수 있도록 개조해 준 건 디스트였잖아요.

티아 :네!? 그 토쿠나가를..... 그가.....?

이온 : 디스트는 저래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이온 : 식당 구석에서 외토리로 식사를 하고

있는 걸, 아니스가 가엾게 생각해 말을 걸어주었지요.

아니스 :음, 응. 그랬더니 지금의 토쿠나가를 만들어 주었어.
아니스 : 나쁜 인간은 아니지만, 그리 좋은 인간도 아니랄까~. 입을 열었다 하면 대령님 얘기밖에 안 하구.

제이드 :신물이 올라옵니다 그려.

루크 : 이 마을 천재라는 건 어느 쪽이건 다 거시기하지 않냐.

가이 : 뭐, 맞지.

제이드 : 두 분도 토쿠나가처럼 개조해 드리길 원하십니까.
제이드 : 변변치 못한 재주이긴 합니다만 저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티아 :토쿠나가! 근사해라.....

루크 & 가이 : 정중히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주택가의 한 집에 접근하면...)

아니스 : 하아~ 굉장한 저택♡ 여기 사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제이드 : 분명 아직 독신이라지요. 30은 넘었을 겁니다만.

아니스 : 액, 혹시 여기 대령님 집이라던가? 그럼 대령님이라도 좋겠어요오♡

제이드 :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절하겠습니다.
제이드 : 하지만 저 집 주인이라면 기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환영이라는 사람이니까요.

아니스 : 누구인데요.

제이드 : 피오니 폐하이십니다.

아니스 : 이야호~! 인생역전♡

루크 : 황제는 수도 출생 아니었어?

가이 : 분명, 제위 계승권 다툴땐서 어렸을 때 이 마을로 쫓겨왔던 거 아니었나?

제이드 :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 때에 거쳐 하시던 저택이지요.

<페이스 채트 '정치에 휘말려 드는 아이들'>

루크 : 마르쿠트 황제 세습제던가?

나탈리아 : 기본적으로는 그리 되지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요.....

루크 : 음~음. 피오니 폐하의 제위계승 난리란 거 뭐였을려나.

티아 : 전 황제 때는, 전시 중의 정권이라 적도 아군도 많았을 테니까.
티아 : 그 전 황제의 아들인 현 황제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일지 몰라.
티아 :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조작이었을 지도 모르겠어.

나탈리아 : 그렇다면 연금 같은 것을 시키지 않아도 되었지 않았을려나요?
나탈리아 : 거기에는, 여기와같이 관광객이 많은 마을은 오히려 위험할 게예요.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듯 하네요.

루크 : 나도 신변을 지킨다, 라는 구실로 갇혀 살았었다만..... 나 참.

루크 : 정치에 휘말려 드는 건 애들한테 끝장 나는 민폐라고.

나탈리아 :

루크 : 조금 신경이 쓰였을 뿐야. 이상한 소리 꺼내서 미안했다.

(길고 긴 마을 관광 및 페이스 채팅을 마쳤다면 영사의 집으로 가자)

[케텔부르크 지사관]

네프리 :오빠!?

일행 : (쿠궁)

루크 : 오빠!? 어어!? 진짜!?

제이드 : 야아, 네프리. 오랜만이에요. 당신 결혼식 이래입니까?

네프리 :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액제류스에서 별세했다 들었는데.....

제이드 : 실은 말입니다.....

(설명한다)

네프리 :뭔가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네프리 : 만일을 위해 타르타로스를 정경시킬 테니까, 보급을 끝나는 대로 피오니 님을 뵈도록 해 줘.
네프리 : 정말 걱정하고 계시더라.

제이드 : 어이쿠, 저는 이미 죽었다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닐지.

네프리 : 오빠가 살아있다 믿고 계시던 건 폐하 뿐이셨어.
네프리 : 여러분도 출발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이 마을은 관광지이니 위험은 없을거라 생각해오.
네프리 : 숙소를 잡아 놓겠습니다. 편하게 쉬세요.

(루크에게만 가만히 이야기)

네프리 : 미안하지만요, 드릴 이야기가 있으니 이따가 혼자서 와 주세요.

[케텔부르크 호텔]

지배인 : 지사님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편하게 주세요.

루크 : 아, 나 네프리 씨 집에 뭐 놓고 왔다. 갔다올게.

가이 : 나도 갈까?

루크 : 네프리 씨 여자라는 거 알지.

가이 : 미인을 보는 건 좋아해.

나탈리아 : 가이도 남성이시니까요.....

아니스 : 연상인 유부녀인데~?

가이 : 야, 야냐! 이상한 의미가 아니라.....

유우 : 주인님, 저두 갈래영!

루크 : 아~ 정말 귀찮게! 혼자 갔다 온다!

(그러나 유우는 기어이 따라간다)

[다시 케텔부르크 지사 네프리 자택]

네프리 : 미안해요. 당신이 복제라고 들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오빠에 대해 말해두지 않아선 안되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루크 :무슨 얘기죠.

네프리 : 오빠가 왜 포미클리 기술을 탄생시켰는가..... 입니다.
네프리 :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요. 그것은 제주의가 산만해서, 소중히 여기고 있던 인형을 망가뜨리고 만 날이었어요.
네프리 : 그 때 오빠는, 포미클리의 기초가 되는 기술을 구축해서, 인형의 —— 복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프리 : 그게 오빠가 아홉살 때 얘기예요.

루크 : 미..... 믿을 수 없어.....

네프리 : 그렇지요. 하지만 사실이랍니다.
네프리 : 보통은 같은 인형을 살 것을, 오빠는 복제를 만들었어. 그 발상이 정상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루크 : 정상이 아니라니 그런 말투는.....

네프리 :지금은 그래도 조금 상냥해졌지만, 어린 시절의 오빠는 악마같은 사람이었어요.
네프리 : 어른들도 어려워 다루지 못하는 보살을 자유롭게 구사해, 아무 해도 없는 마물들을

잔인하게 죽이며 즐겼지요.
네프리 : 오빠는, 생물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루크 : 그런 식으로는 보이지 않던데요.....

네프리 : 오빠를 바꾸어 놓은 것은 네비림 선생님이었습시다.
네프리 : 네비림 선생님께선 제 7 음소를 다루시는 치유사(힐러)이셨죠.
네프리 : 오빠는 제 7 음소를 쓸 수 없었기에 선생님을 존경했었어요. 그리고 비극이 일어났어.
네프리 : 제 7 음소를 쓰려다가, 오빠는 제어할 수 없는 보살을 발동시키고 말았습시다.
네프리 : 오빠의 보살은 네비림 선생님을 해치고 집을 찢터미로 만들었습시다.

루크 : 죽이고 만 거야!?

네프리 : 그 때엔 그래도 살아 계셨지요. 오빠는 당장이라도 숨을 거두실 것 같던 선생님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시다.
네프리 : 지금이라면 복제를 만들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네프림 선생님을 살 수 있어, 라고.

루크 : !!!!

네프리 : 오빠는 네비림 선생님의 정보를 추출해 복제를 제작했습시다.
네프리 : 하지만 탄생했던 복제는 단순한 괴물이었지요.

루크 : 진짜 네비림 씨는?

네프리 : 돌아가셨어요.
제프리 : 그 후 오빠는 재능을 평가받아, 제국군의 명가인 카티스 가의 양자로 들어갔어요.
네프리 : 아마 오빠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선생님을 부활시키기 위한 연구를 해 보고 싶었던 거라 생각해요.

루크 :그래도 지금은 생물 복제를 그만두게 했다면데요. 왜?

네프리 : 피오니 님 덕택이었지요. 황송한 일이지만, 피오니 님께서는 오빠의 친구분이시니까요.

루크 : 그랬나.....

네프리 :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오빠는 지금도 네비림 선생님을 부활시키고 싶어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루크 : 그럴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프리 : 그렇군요. 기우일지도 모르지요.
네프리 : 그래도 저는, 당신이 오빠를 말릴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프리 :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들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시 베텔부르크 호텔]

제이드 : 네프리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오셨습니까.

루크 :아,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제이드 : 나쁜 아이입니다. 거짓말을 하시다니.

루크 :으왜 들통난 거지.

제이드 : 뭐어 좋겠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선생님의 부활은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루크 : 진짜? 진짜지?

제이드 :이유라면 당신께서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이드 : 저는, 네비림 선생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편해지기 위하여.
제이드 : 허나 복제에게 과거의 기억은 없습니다. 용서를 받을 도리가 없지요.

루크 : 제이드.....

제이드 : 저는 평생 과거의 죄에 자책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루크 : 죄라면..... 네비림 선생을 죽게 만든 것 말아야?

제이드 : 글썄요..... 사람이 죽는 것 따위 별

일 아니라 생각하고 있던 자신, 알지도 모르니다.

루크 : 나..... 나도, 복제를 만들 힘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해.....

제이드 : 이런 이런. 위로라도 해 주시려는 겁니까?

제이드 : 약간은 빗나간 위로입니다만 뭐어..... 마음은 받아 두도록 하지요.
제이드 : 그보다,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시기 없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루크 :명심할게.

제이드 : 약속하신 겁니다.

(자동적으로 숙박을 하며 페이스 채팅 발송)

유우 : 추워워~. 배에 두른 소서러 링도 싸늘해져서 추워워.

이온 : 티클은 추위에 약하군요. 저도 추위는 조금 대하기 어렵습니다.

유우 : 역시 햇님이 있는 뽕뽕송한 데가 좋아영...

티아 : 하지만 조금 춥더라도, 눈 내린 거리의 밤은 달빛이 푸르고 눈은 은색이라..... 정말 환상적이라.

나탈리아 : 이런 풍경 속을 연인과 함께 걸어보고도 싶은 법이지요.

아니수 : 와와~. 왠지 그런 거 몸부림치게 좋을 것 같아.

루크 : 예취! 어 추워추워. 복대 어딴냐 복대.

가이 : 어휴..... 왜 관광지 여성들은 다들 대범하게 다가와서 밥다 말부터 거는 거냐고... 무서워서 어디 다니겠나.

나탈리아 :이 멤버라면, 그런 것은 별로 기대하기 힘들겠사워요.

아니스 : 앗!? 이 패거리 중의 유일한 양심일지도 모르지 않을지 모를지도 모르는 대령님은?

이온 : 예쁜신 여성 분과 함께 어딘가로 외출하시던 것 같습니다만.....

아니스 : 우음. 여기에도 이런 미녀가 한가득인데~!

이온 : 후후, 그러게요.

티아 : 어머, 괜찮잖아. 배를 차갑게 하고 다니는 정도라면 귀염성이 있어 좋은 걸.

나탈리아 : 어머니.....

아니스 : 아하.....

이온 : 후후후.....

티아 : 뭐..... 왜?

나탈리아 : 아무 것도 아니랍니다.

아니스 : 행복해지길.

이온 :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티아 :유우를 말한 거였는데.....

(다음 날 체크아웃을 하려 하면)

직원 : 감사했습니다.

네프리 : 타르타로스 점검이 끝났어요. 언제라도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가이 : 좋아, 그럼 그란코크마로 향할까.

티아 : 응, 한시라도 빨리, 센트비나 봉고 위험을 황제 폐하께 알리지 않으면.

나탈리아 : 그렇사워요. 일단은 로otel로 다리로서두르시지요.

아니스 : 예휴..... 그 다음은 걸어야 되나..... 저기요 대령님~! 제가 지치면 좀 업어 주세요오~♡

제이드 : 거절하겠습니다. 나이 탓인지 몸의

마디마디가 아프군요.
제이드 : 그란코크마로 가려면, '다리에서 북동쪽으로 전진한 곳에 위치한 테오르 숲을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이드 : 저 같은 아저씨에게는 힘든 길입니다. 젊으신 여러분께서 제 방패가 되어 앞길을 헤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이 :잘도 말하는군.....

루크 : 어디, 그렇게 결정된 이상 뭉기적거리고 있을 수 없지. 가자! 모두들.
루크 : 그럼 네프리 씨. 신세 졌어요.

네프리 : 여러분도 몸조심 하시길.

네프리 : 오빠. 폐하께 안부 전해 줘.

<페이스 채팅 '과오와 변명'>

루크 : 야 유우, 요전 네프리 씨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나?

유우 : 무슨 이야기영?

루크 : 제이드가 스스로 죽이고 만 사람..... 루크 네비림 선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복제 기술을 만들어 냈다는 거.

유우 : 유우, 어려운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영.

루크 : 그러냐. 미안하다. 왠지, 누군가에게 들어 보고 싶어져서.

제이드 :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 아니셨습니까.

루크 : 우웁!

제이드 : 이 모양을 보아 하니 누군가에게 이야기 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려.

루크 : 아니, 말 안해. 절대로 걱정 마!

유우 : 유우도 절대예영!

제이드 : 한없이 불안합니다만. 뭐 누군가에게 말해봤자 별 볼일 없을거라는 사실은 루크 자신이 잘 아실테니 말입니다.

루크 : 어. 해선 안될 일을, 저지른 거.
루크 : 그 변명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거니와, 원체가 변명거릴 찾아서는 안된다, 라는 거겠지.

제이드 : 그렇습니다. 과오를 숨기기 위한 변명 따위에 힘을 쏟는다면, 사람은 점점 그 쪽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제이드 :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아선 안 될 일을 확실히 받아들여야겠지요.

루크 : 응.

유우 : 알겠어영!

제이드 : 대답 잘 하셨습니다. 혹시 누설시킨 때에는 무~서운 벌. 이것도 아시겠습니까?

루크 : 그, 그래.

유우 : 네, 예영.....

(이제 무너진 로otel로 다리에서 타르타로스를 세우고 도로로 그란코크마로 향하자)

(제이드 말대로 도중에 테오르 숲을 지나게 된다)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13)

[테오르 숲]

마르쿠트 병사 1 : 누구냐!

제이드 : 나는 마르쿠트 제국군 제 3 사단 사단장 제이드 카티스 대령이다.

마르쿠트 병사 2 : 카티스 대령님!? 대령님은 액제류스 소멸에 휘말려 드셨다고.....

제이드 : 내 신원은, 케텔부르크의 오즈본 작이 보증한다. 황제 폐하와의 알현을 희망하고 싶네.

마르쿠트 병사 1 : 대령님 혼자이시라면 통행하셔도 좋습니다만.....

아니스 : 엑~! 여기 계시는 분은 로렐라이 교단 도사 이온 님 되시는 분이시라고요!

루크 : 좀 지나가게 해 주면 댁나!

마르크트 병사 1 : 안 됩니다. 이것이 함정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르크트 병사 1 : 설사 다아트에서 오신 분이 라 하시더라도 거절하겠습니다.

제이드 : 여러분은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폐하게 만나뵙기만 하면 바로 통행 허가를 받아 오겠습니다.

가이 : 그 때까지 여기서 죽치고 있어야 하나. 뭐 할 수 없지.

루크 :체엿.

마르크트 병사 2 : 그러면 안내하겠습니다.

(제이드와 헤어진다)

루크 : 아직 멀었나아~.

나탈리아 :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꽤 힘든 일이에요.

(그 때 비명 소리가 들려온다)

티아 : 방금 그건.....!?

유우 : 비명이에요.....

나탈리아 : 가 보지요!

(숲을 나아가면 아까의 제국 병사가 널부러져 있다)

나탈리아 : 정신 차리시와요!

마르크트 병사 : 오라클(신탁의 방패) 병사들이..... 제길.....

티아 : 오라클..... 설마 오빠.....?

루크 : 그란코크마에서 뭘 하려고 저래?

아니스 : 설마 세피로트 트리를 없애기 위한 작업이라던가?

이온 : 아니오, 이 근처에 세피로트는 없을 터인데요.....

루크 : 말하고 있어 봤자 아무 도움도 안 돼! 오라클 자식들을 따라가 잡아서 깨내자.

나탈리아 : 그럴사웁니다. 이런 행패를 허용할 수는 없사와요!

티아 : 기다려! 마음대로 들어갔다 마르크트 군에게 발견되면.....

가이 :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서 나아가길 수밖에 없겠지. 마르크트랑 싸우는 건 번지수가 틀린 일이니까.

아니스 : 숨바꼭질이구나. 이온 님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온 : 아, 예!

티아 :어느 틈엔가 가기로 결정됐어..... 아이 참.....

(그란코크마는 숲을 북서쪽으로 나아가면 나온다. 나무를 유우 어택으로 흔들며 병사들을 유인하며 나아가자)

<페이스 채트 '두 나라 간의 긴장상태'>

루크 : 아까 입구에서 마르크트 병사.....
루크 : 우리들이 숲에 들어가려 하니까 「함정 일지도 모른다」 라고 그랬었지.....

티아 : 응..... 그 만큼 마르크트와 킴라스카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이야기일 거야.

아니스 : 그러게. 이온 님까지 계시는데.....

이온 :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무력한 탓에.....

아니스 : 아니에요요! 그런 뜻이 아니라구요 오!

가이 : 어쨌건 꽤나 위험한 수준까지 간 모양이다. 이대로는 진짜 전쟁이 나 버리겠는데.....

루크 : 빨리..... 한시라도 빨리 이 숲을 나가자.

<페이스 채트 '숨바꼭질은 특기?'>

아니스 : 숨으면서 진행한다니, 뭔가 두근두근 거려.

가이 : 맞아. 그래도 이걸 완전 무슨 숨바꼭질이구만.

루크 : 숨바꼭질이라, 어릴 적 이래 처음인데.

가이 : 그러고 보니, 루크는 숨바꼭질의 천재였지.

아니스 : 헤에~, 루크, 굉장하네. 그런 쪼잔한 기술이 특기였구나.

루크 :으..... 쪼잔해서 눈물이 나게 미안하다 그래.

가이 : 뭐. 그런 수법이었어. 발견될 것 같으면, 즉시 이동해서 다른 장소에 숨는다. 그런 잔머리가 끝내줬다니까.

아니스 : 흐~응. 하지만 아니스랑 승부하면 절대로 이 아니스가 이길텐데 뭐.
아니스 : 역시, 숨바꼭질은 귀엽고 작은 몸으로 잘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해.

루크 : 이것보라. 스스로 지가 귀엽다는데.

아니스 : 뭐야. 아니스가 하나두 안 귀엽다는 말이라도 할 셈이야!?

루크 : 쪼잔한 사람이 하는 말에 뭘 그리 신경을 쓰고 그래. 유우 수준 섹시함도 없는 주제에.

아니스 : 유우 수준이라니 무슨 소리야! 나도 쫄만 자라면, 티아처럼 뺨뺨해질 거라구!

루크 : 바~아보. 니가 저런 뺨뺨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티아 : 메, 메, 뺨뺨이라니 대체 무슨 얘기가야! 당신들 바보!? 좀 조용히 해!!

전원 :

나탈리아 :티아. 당신 목소리가 가장 크답니다.

티아 :미, 미안.....

(숲을 진행하면...)

루크 : 이제 곧 출구인데. 오라클 놈들 벌써 도시로 들어가 버린거 아냐?

나탈리아 : 마르크트 병사가 쓰러져 있사와요!

(다가가는 나탈리아에게 기습공격을 거는 라르고)

라르고 : 공주님 치고는 괜찮은 반사신경이다.

나탈리아 : 당신은 사막에서 만났던..... 라르고!

루크 : 침입자는 너였나! 그란코크마에 무슨 볼 일이 있어!

라르고 : 앞쪽만 신경 써서는 안 되지. 애송이.

루크 : 어?

(루크에게 검을 휘두르는 가이)

루크 : 가이!?!?

아니스 : 잠깐 잠깐 어떻게 된 거야!?

이온 : 큰일이야! 또 커슬롯입니다! 어딘가에 싱크가 있을 거예요.....!

라르고 : 어허. 나를 잊지 말아라!

나탈리아 : 그럴게는 안 됩니다!

라르고 : 흐, 후하하하하하! 제법이군, 공주님.

(땅이 흔들린다)

아니스 : 깧, 또 지진!

티아 : 나탈리아, 위!

(티아와 나탈리아에게 들쭉날쭉 싱크가 모습을 드러낸다)

싱크 :지진 때문에 기척을 완전히 숨길 수 없었나.

루크 : 역시 이온을 노리는 건가! 아님 다른 목적이라도 있나!

아니스 : 대영사 모스의 명령? 아님 역시 수석총장?

라르고 : 어느 쪽이건 마찬가지다. 우리들은 도사 이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싱크 : 액제류스와 함께 사라졌으리라 생각했더니만..... 대단한 생명력이군.

나탈리아 : 입을 되는 대로.....! 마을 하나를 소멸시켜 두고서 잘도 그런.....!

싱크 : 말은 바로 하시지. 소멸시킨 건 그 쪽 복제야.

마르크트 병사 : 무슨 소란이냐!

싱크 : 라르고, 일단 물러나자!

라르고 : 어쩔 수 없군.....

마르크트 병사 : 누구냐, 너희들은!

티아 : 카티스 대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수상한 사람을 발견해 여기까지 추격했습니다.

마르크트 병사 : 수상한 사람? 방금 도주한 자들 말인가?

티아 : 오라클 기사단이었습니다. 그들과 전투가 벌어져 동료가 쓰러졌습니다.

마르크트 병사 : 그러나 너희들 중에도 오라클 기사단의 구성원이 끼어 있군.
마르크트 병사 :수상한 놈들이다. 연행해라.

루크 :개기지 않는 편이 나을려나.

티아 : 당연하지.

[물 위의 제국수도 그란코크마]

병사 : 프링스 소장님!

프링스 : 수고가 많군. 저들을 이쪽이 넘겨받으려 하네만, 문제 없겠나?

병사 : 예!

프링스 : 루크 경이십니까. 파브레 공작의 아드님 되시는.

루크 : 어떻게 날.....!

프링스 : 제이드 대령에게서, 당신들은 테오르 숲으로 마중나가 주었으면 한다는 부탁을 받았습시다.
프링스 : 그 전에 숲에 들어오신 모양이십니까만.....

티아 : 죄송합니다. 마르크트 분들이 죽음을 당하셨기에 이대로 있다가는 위험하리라는 생각이 들어.....

프링스 : 아니오, 감사를 할 것은 저희 쪽입니다.
프링스 : 다만 소란이 일어났으므로 황제 폐하를 알현할 때까지 여러분은 포로로서 취급하려 합니다.

루크 : 그런 건 됐어!
루크 : 그보다 가이가! 동료가 쓰러져 버렸고.....

이온 : 그는 커슬롯에 걸려 있습니다.
이온 : 거기다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침

식된 모양입니다.

이온 : 어딘가 안정시킬 수 있을 장소를 빌려 주신다면, 제가 풀어보려 합니다.

루크 : 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이온 : 라기보다는, 저밖에 풀 수 없는 것이겠지요.

이온 : 이것은 본래 도사에게 밖에 전수되지 않는 다아트식 보술의 일종이니까요.

프링스 : 알겠습니다. 성 아래 시가지에 숙소를 준비하겠습니다.

프링스 : 그러나 폐하와의 알현이.....

이온 : 황제 폐하께서는 조만간 다른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이 쪽이 경정이 됩니다.

프링스 : 알겠습니다. 그럼 부하를 숙소에 남겨 두겠습니다.

아니스 : 저도 남을래요! 이온 님의 호위니까요.

루크 : 잠깐! 나도 같이.....!

이온 :루크. 금방 아시게 될 일이니, 지금 이야기 해 둘게요.

이온 : 커슬롯이란 건, 결코 마음대로 상대를 조종하는 술법이 아닙니다.

루크 : 무슨 말이야?

이온 : 커슬롯은 기억을 뒤흔들어 이성을 마비시키는 술법.

이온 : 즉..... 원래부터 '가이에게 당신을 향한 강한 살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공격을 하는 것 따위는 시킬 수 없습니다.

이온 :그런 이야기가 돼요.

루크 :그, 그럴 수가.....

이온 : 해주(解呪)가 끝날 때까지 가이에게 다가오시면 안 됩니다.

(티아와 루크를 남기고 일단 헤어지는 일행)

프링스 : 괜찮으시다면, 잠시 성 아래 거리를 보고 오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프링스 : 도시 밖으로는 나가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쪽이 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지 않을까.....

티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링스 :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성 앞에 대기하고 있을테니 말을 걸어 주십시오.

.....

루크 :잠시 혼자 있게 해 줘.

(다시 혼자가 되는 루크)

<페이스 채트 '가이의 본심은.....?>

루크 : 가이가 날 미워하고 있었다니..... 지금까지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았는데..... 어릴 적, 뭘 일이 있었던 건진 모르겠지만.

루크 : 혹시 죽이고 싶을 정도의 일이 있었다면 그 기회는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 그래도 저놈은 날 계속 도와줬지.....

루크 : 가이한테서..... 확실히 애길 듣고 싶군.....

(잠시 거리를 구경하며 총극에서 벗어나자)
(항구로 쪽으로 통하는 다리 위에서 이벤트가 있다)

루크 :따라오지 마.

티아 : 약속했잖아. 당신을 지켜보겠다고.

유우 : 저는 주인님을 따라갈 거예요.

루크 :좀 내버려 두라니까!

티아 :내버려 두면, 당신 또 제멋대로 생각할 것 같아서.

루크 : 제멋대로라니 뭘!

티아 : 가이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을 거라고.

루크 : 그래도 미워한다잖아. 그러니.....

티아 : 당신 바보지?

루크 : 뭐야!

티아 : 자신이 아주 조금도 타인의 악의를 받을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어?

루크 :그런 건 아냐.

티아 : 가이도 인간인 걸. 분명 지금까지 당신을 모시면서 울컥할 일도 있었을거라 생각해.

티아 : 그래도 그는 당신을 데리러 와 줬었어.

루크 : 그럴지도 모르겠다만.....

티아 : 가이는 당신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시기가 있었어.

티아 : 그러면서도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거라 믿어 주었던 말이야. 그렇잖아?

루크 :너 말야, 진짜 따끔하게 밖에 말을 못하는구나.

티아 : 응.....?

루크 : 위로해 주려 하고 있는 건 알아도, 그래서야 이쪽이 더 상처를 받자너.

티아 :미, 미안해. 그래..... 말이 심했구나.....

루크 : 그래도..... 난 허접이니까. 그 정도 말을 듣는 게 정신이 번쩍 날지도 몰라.

티아 :루크.....

루크 : 바보구만, 나.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어땀다고. 황제랑 만나 봐야겠쥬.

루크 : 유우 야마..... 너도 고맙다.

유우 : 괜찮아염! 그보다 제이드 씨랑 나탈리아 씨를 찾으러 가세염!

(제이드는 세이브 포인트 바로 위에 있는 주점 2층에 있다. 나탈리아는 항구의 선착장에 서 있다)
(거리에서 피오니와 프링스가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두 사람과 만나고 다른 준비도 끝났다면 궁전 앞의 프링스에게 말을 걸자)

[제국수도 그란코크마 궁전]

피오니 : 여어, 당신들이쇼. 우리 제이드를 끌고 다니면서 돌려 보내주지 않았다는 양반들은.

루크 :에?

피오니 : 저놈 무슨 봉인술 같은 걸 다 처맞고. 쓸모없는 친구였지?

루크 : 아뇨..... 그럴지는.....

제이드 : 폐하. 손님을 당황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피오니 : 하하, 글썽만. 잡소리 해 봤자 좋을 일도 없나. 본론으로 들어가자.

피오니 : 제이드에게서 대체적인 이야기는 들었다.

루크 : 이대로 가면 센트비나가 마계(클리포드)로 무너져 내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피오 : 그럴지도 몰라. 실제로, 센트비나 주변은 지반이 내려앉고 있다는 듯 하다.

나탈리아 : 그렇다면, 도시 주민들을 피난시키지 않아서는!

피오니 : 그렇게 해 주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지만 의회에서 온갖 태클이 들어오더군.

나탈리아 : 어째서이신지요, 폐하! 자국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제이드 : 킴라스카 군의 압력이 있다는 겁니다.

놀드하임 : 킴라스카 란발디어 왕국에서부터 성명이 있었소.

제제만 : 왕녀 나탈리아와 제 3 왕위 계승권자

루크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제만 : 액제류스 짜로 소멸시키기를 꾀한 마르쿠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강하게 항의하는 바이다... 제제만 : 그리고 로렐라이와 유리아의 이름 아래, 즉시 제재를 내려야 하리라, 라고 말일세.

티아 : 사실상의 선전 포고예요.

나탈리아 : 아버님께서서는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셔요!

놀드하임 : 과연 오해이겠습니까 나탈리아 공주.

놀드하임 : 우리들은 킴라스카가 전쟁의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액제류스를 소멸시켰다 보고 있소만.

나탈리아 : 우리 나라는 그와 같은 비열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루크 : 그래! 거기다 액제류스는..... 내 탓에.....

제이드 : 루크. 사정은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나탈리아도 좀 진정하십시오.

제이드 : 정말로 킴라스카가 전쟁을 위해 액제류스를 소멸시켰는지 어떤지는 이제와선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피오니 : 그래. 센트비나의 지반이 가라앉고 있는 것도 킴라스카의 짓이다... 의뢰가 그리 많고 있는 게 문제라고.

티아 : 주민을 구출하러 나선 군대를 도시째 소멸시킬 계획일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군요.

피오니 : 그런 의미야.

피오니 : 제이드 한테 사정을 듣기까진, 킴라스카가 무슨 초진동 보업(講業)병기라도 개발해 낸 줄 알았지 다들.

루크 : 적어도 액제류스가 날아간 건 킴라스카의 짓이 아니야!

루크 :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대로 가면 센트비나는 무너져. 그렇다면 도시 사람들을 구하는 게 당연하잖아!

루크 :어아니.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혹시 군을 움직이실 수 없다면 우리들이 가게 해 주세요.

나탈리아 : 저도 부탁드리겠사와요. 나탈리아 : 그렇다면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마르쿠트 군이 휘말려 들 일은 없다 생각합니다.

피오니 : 이거 놀랐는데. 왜 적국의 왕족에 해당하는 당신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나서나?

나탈리아 : 적국이 아니지요! 적어도 서민들은 국가를 당연한 듯 왕래하고 있습니다.

나탈리아 : 그리고 고난에 처한 백성을 구한느 것이 왕족으로 태어난 자의 의무입니다.

피오니 :그 쪽은 어떤신가? 루크 경.

루크 : 난, 이 나라에 있어서는 큰 죄인입니다. 이번 일도 내 탓일 거야.

루크 :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어. 모두를 구하고 싶다고요!

피오니 : 라는, 사정인 듯 하다. 어떤가, 제제만.

피오니 : 당신의 수제자인 제이드는 센트비나 건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을 믿어도 될 거라 말하고 있다만.

제제만 : 폐하. 이 친구들이라니 실례하십시오.

제이드 : 센트비나 구출은 제 부대와 루크 일행으로 행하며,

제이드 : 북상해 올 킴라스카 군은 놀드하임 장군이 견제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제만 : 주제넘은 소리를 하는구먼. 뭘 알았다. 그런 방향으로 의외를 움직여 보도록 하십시오.

피오니 : 신세를 지는군, 영감.

루크 : 그럼, 센트비나 사람들을 죽게 놔두지는.....

피오니 : 물론 그럴겐 안 하지. 라고는 해도, 직접 구하러 가는 건 귀공 일행이 되겠다만.

피오니 :우리 소중한 국민이다. 구출에 힘을 빌려줬으면 좋겠네. 부탁하지.

루크 :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나탈리아 : 저도입니다.

티아 : 내리시는 어명대로.

피오니 : 난 이제부터 의회를 소집하지 않음 안 돼. 뒷 일을 맡기마. 제이드.

.....

제이드 : 이거 이거 큰 일이 되어 났습니다. 도시 하나의 주민을 전원 피난시킨다니.

루크 :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뭐를 하면 돼?

제이드 : 폐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액제류스 때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우려해, 군이 시에 진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제이드 : 일단 우리가 센트비나로 가서 맥가반 전 원수님께 협력을 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가이가 걱정된다. 이제 그란코크마 호텔로 가보자)

제국 병사 : 해주(解呪)에 성공하셨다는 듯 합니다.

[그란코크마 호텔]

루크 : 가이! 미안하다.....

가이 :루크?

루크 : 나..... 분명 네게 미움받을 짓을 한 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가이 : 하하하하, 그게 뭐 소리야. 가이 :니 닳이 아니냐. 내가 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했던 것은 네 닳이 아니라고. 가이 : 난..... 마르쿠트 사람이야.

아니스 : 아? 가이 그랬어?

가이 : 난 호드 출신야. 그리고, 내 다섯 살 생일날에 집엔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가이 : 그래서, 예언사가 내 예언을 마약 노래 하려던 참에, 전쟁이 터졌어.

티아 : 호드 전쟁.....

나탈리아 : 호드를 침공했던 건, 분명 파브레 공작이었사와요.....

가이 : 그래. 우리 가족은 공작에게 살해당했지. 가족 뿐만이 아니야. 하인들도 친척도 다. 가이 : 늙은, 내 소중한 모든 것을 웃으며 밟아 짓밟았던 거다. 가이 :그래서 난, 공작에게 나와 같은 기분을 맛보게 해 줄 셈이었어.

제이드 : 당신이 공작에게 스며들었던 것은 복수를 위해서, 옳습니까? 제이드 : 갈디오스 백작 가문의 '가이랄디어 가란'.

가이 :이크.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냐.

제이드 : 조금 신경이 쓰이길래 조사해 보았습시다. 제이드 : 당신의 검술이 호드 특유의 방패를 쓰지 않는 검술, 알버트 류였으니까요.

루크 :그럼, 역시 가이 넌 내 옆에 있는 게 싫은 거 아니냐? 루크 : 난 복제라고는 해도 파브레 가문의.....

가이 : 그런 건 아니야. 뭐, 양금이 하나도 없다 하면 구라가 되겠지만.

루크 : 하, 하지만.

가이 : 내가 따라가겠다는 걸 니가 싫어한다면, 깔끔히 떠나지. 가이 : 그렇지 않다면, 좀 더 같이 다니게 해 줄 수 없겠냐? 아직,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거든.

루크 :알았어. 가이를 믿을게. 루크 : 아니..... 가이, 믿어 줘..... 가 맞을라나.

가이 : 하하, 뭐 어때. 어느 쪽이던.

이온 : 다행이야. 두 분이 다루시는 게 아닐까 해서 조마조마하고 있었어요.

제이드 : 자, 기본종게 마무리 된 것 같으니. 슬슬 센트비나로 향하도록 하실까요.

아니스 : 아하, 사자한테서 들었어요. 센트비나에 간다고.

아니스 : 그치만 이온 님께서 커슬롯을 푸시느라 치치셨고, 위험하기도 하니깐 저랑 여기 남으실 거예요.

이온 : 아니스. 저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와 같이 가면 뭔가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고요.

아니스 : 이온 님!?

이온 : 아니스, 그리고 여러분. 저도 데려가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루크 : 반 선생이 이온을 노리고 있다면 어디에 있건 위험하겠지. 어때, 모두.

제이드 : 눈에 보이는 만큼, 가까이있는편이 차라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군요.

아니스 : 정말~! 이온 님 바보!

(가이에게 '마르쿠트 귀족' 칭호) (이제 센트비나로 간다. 선택지에서 '예' 라 답하면 단숨에 갈 수 있지만... 역자는 이번에도 걸어갔다) (테오르 숲에서 북동쪽 필드로 나가면 만능식칼이라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 나탈리아 칭호 이벤트에 관련이 있으며 레시피와는 무관)

<페이스 채트 '아니스, 기본 다운!>

아니스 : 전쟁은 날 것 같지, 도시는 무너질 것 같지 이온 님은 반 총장한테 노려지고 있지.

아니스 : 6 신장은 끈질기지, 모스 님은 음흉스럽지, 음침메다는 암울하지, 애쉬는 의문이지.

아니스 : 우리 집은 가난하지, 배는 고프지. 이쌍, 뭔가 압박~.

가이 : 너 뭔가 기분 나쁘구나, 아니스.....

아니스 : 별로~~. 기분 하나도 안 나쁘지~롱. 그보다 가이, 몸은 좀 괜찮아?

가이 : 이온 덕분에 쾌유됐다. 그래도, 이번엔 좀 우리를 시킨 것 같은데.

아니스 : 이온 님, 괜찮으세요? 얼굴빛이 좋지 않으신데.....

이온 : 다아트 식 보술을 썼기에 조금 지치긴 했습니다만, 괜찮아요.

아니스 : 둘 다 피곤한 느낌이고 하니, 좀 더 여유있게 가도 될 걸 가지구~ 도, 아니시. 아니스 : 이온 님은 피오니 폐하 계시는 데에서 보호해 달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요~.

이온 : 아니오. 센트비나 일이 너무 늦게 되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무리를 해서라도 가지 않아선 안 되요.

가이 : 그럴거만~. 꾸물거리다가 센트비나가 박살나기라도 한다면, 그건 후회하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닐테니.

아니스 : 피잇. 어쩔 수 없지 뭐.

<페이스 채트 '궁시렁거리기 없기!>

유우 : 땅에 큰 구멍이 뚫려있었어염.

루크 : 붕괴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 거지..... 내가 액제류스의 세피로트를 없애 버렸으니까.....

아니스 : 루크 말인데, 언제까지고 궁시렁 거리는 사람이네에~.

루크 : 뭐야! 나도 책임을 느끼고서.....

아니스 : 와, 화났다. 그치만, 책임이고 자시고 하는 건, 귀찮으니 나중에 해 줬으면 좋겠어요~오.

루크 : 크.....

아니스 : 암튼~, 분발하려 한다는 건 알겠지만. 너무 공하게 책임을 느끼는 것도 나쁘다 생각한답니다~야

루크 :허걱, 설마 아니스 니가, 위로해 주고 있는 거냐?

아니스 : 그래 그래~☆ 즐겁게 라는 건 무리라도, 기운을 내렴~, 이라는 느낌? 나이스 위로?

유우 : 나이스이세염~.

아니스 : 오오. 이 생을 뭘 좀 아는데

루크 : 하하하. 땡큐. 아니스.

아니스 : 네 네~☆

.....

아니스 : 나 참~~, 수고를 끼치는 도련님이라니까.

<페이스 채트 '센트비나로!>

티아 : 센트비나도 걱정되지만, 전쟁 건도 염려가 돼.

티아 :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

루크 :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건 우리랑..... 애쉬밖에 없다고.

루크 : 애쉬 자식은 어디서 자빠져 있는지 모르니, 우리가 센트비나에 갈 수밖에 없어.

제이드 : 센트비나의 위기를 구하면, 양 나라의 오해를 푸는 것으로도 이어질 터입니다. 제이드 : 거기다, 전쟁 회피에 중요한 인물들이 센트비나를 구하는 것이니, 더 강한 의미가 부여되기도 할 테고 말입니다.

티아 : 센트비나 주민을 구하는 것이, 그대로 전쟁을 막는 것에 이어진다면.....

제이드 : 너무 낙관적인 시각은 안 되겠습니까만,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양이겠지요.

루크 : 하지만, 센트비나를 구하지 못한다면.....

제이드 : 상황이 보다 더 나쁜 쪽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티아 : 최악의 경우만을 염두에 두고 있어도 좋을 일이 없어. 그렇지?

루크 : 어. 센트비나를 구하고, 전쟁도 막기..... 그래야겠지.

(센트비나로 걸어가던 도중 필드에서 다시 소드맨서와 싸울 수 있다)

<페이스 채트 '역시..... 유령!?!>

루크 :역시 유령이었던 거 아니냐?

가이 : 유령이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고, 강해졌거만.

아니스 : 대령님, 저거 대체 뭡가요.

제이드 : 어떤 의미로, 유령일지도 모르겠습시다.

가이 : 이거 놀랐는데. 당신이 유령을 믿고 있었다니 말야.

제이드 : 믿는다고 보다는, 부정을 할 근거가 없을 뿐입니다.

제이드 :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이상,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스 : 아무튼, 대령님은 저게 유령이라는 말씀이세요?

제이드 : 티아도 음소(포님)의 이상을 지적했었습니다만,

제이드 : 죽은 인간의 음소가 음소대(音素帶)로 돌아가지 않고 한데 모이게 되어 버린 것..... 일지도 모릅니다.

제이드 : 그것을 유령이라 부를 수 있을지 어떨지는 문제가 따릅니다만.

루크 : 왜 모인 건데? 역시 원한땀시?

제이드 : 글썄요? 그것이 들고 있던 무기에서 강한 음소반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이 :그렇다고 친다면, 또 부활하는 거 아냐 저거?

아니스: 예역. 또 싸우는 건 년덜머리 나~!

루크 : 만나지 말거나 빌자.

[다시 성채도시 센트비나]

(일이 급하므로 마르쿠트 군 기지로 뛰어 들어가 보면...)

그런 맥가반 : 그러나 아버지. 카이들을 돌파당한 지금, 군이 이 도시에서 철수할 수는 없단 말씀입니다.

아버지 맥가반 : 허나 민간인들 만이라도 대피시키지 않는다면 지반이 무너져 내려 액제류스처럼 되고 말 게야!

그런 맥가반 : 황제 폐하의 명령 없이 저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루크 : 피오니 황제의 명령이라면 여기 내렸어!

맥가반 부자 : !!

그런 맥가반 : 카티스 대령!? 살아 계셨나!

아버지 맥가반 : 그래서, 폐하는 뭐라 하시던가?

제이드 : 민간인을 엔게이브 방면으로 피난시키라는 어명이십니다.

그런 맥가반 : 그러나 그러서는 이 마을의 수비를.....

루크 : 무슨 소릴 하는 거야. 이 주변 이미 붕괴가 시작되고 있잖어!

제이드 : 국도 도중에서 제 부대가 민간인 호송을 넘겨 받겠습니다.

제이드 : 주둔군은 민간인 이송 후, 서쪽으로 나아가 동 루그니카 평야에서 놀드하임 장군 휘하에 가세해 주십시오.

그런 맥가반 : 숙식했다.

그런 맥가반 :센트비나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로군.

아버지 맥가반 : 좋아, 나는 도시의 모두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오마.

티아 : 우리도 거들자.

루크 : 그래!

(거리로 나가자)

<페이스 채트 '힘내라 루크'>

가이 : 루크 놈, 아주 그냥 기합이 뽕세게 들어갔는데.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액제류스 때의 모습이 거짓말이었던 것만 같아. 달라졌군요. 그도.

티아 : 활동하지 않으면, 액제류스 때 일이 생각나서 불안해지는 것일지도 몰라.

나탈리아 :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가이 : 그래도 괜찮잖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말야.

티아 : 맞아..... 자, 우리도 돕자.

나탈리아 : 네.

<페이스 채트 '새 사람이 된 열혈 바보'>

제이드 : 역시 도시의 전원을 이동시키는 것은 좀 힘들겠습니다 이거.

아니스 : 설명을 확실히 해 가면서 유도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엄청 커져 버릴지두요~.

루크 : 남아있는 사람이 없도록, 제대로 구석 구석까지 다 찾아야겠어.

루크 : 이동은 여자랑 아이들부터 우선시키면 되지? 아, 노인도.

제이드 :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루크 : 그럼, 마차도 필요할려나?

루크 :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마차는 그쪽에 쓰는 편이 아닐까?

제이드 : 그럴것군요.

루크 : 오케이, 그럼 난 저쪽 보고 온다.

제이드 : 흠음. 저는 편해져서 좋습니다만, 조금 곤혹스럽군요.....

아니스 : 액제류스 때하고는 많이 틀리네요~.

제이드 : 그의 「달라지고 싶다」 라는 마음은, 진짜였던 모양입니다.

아니스 : 썩~~~~~금은, 인정해 줘도 될까..... 열혈 바보 같아 보이지만.

제이드 : 기본적으로는 역시 바보 아니겠습니까.

루크 : 야~~.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여기 좀 도와 줘.

제이드 : 이거 이거. 바보같다는 말을 들어 버렸습니다.

아니스 : 아하하하.

(한참 열심히 피난을 유도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공격을 걸어온다)

제이드 : 피하십시오!

루크 : 뭐, 뭐야.....!?

디스트 : 하~ 핫핫하. 겨우 찾아냈습니다 제이드!

제이드 : 이런 바쁜 때에..... 옛날부터 당신은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시는 분이셨지요.

디스트 : 마음대로 말하십시오. 그보다 도시 이온을 넘겨 받아야겠습니다.

제이드 : 거절하겠습니다. 저것을 치워 주시겠습니까.

디스트 : 호오? 이런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구해내겠다는 말씀입니까? 네비링 선생님은 포기한 주제에.

제이드 :너는 아직도 그런 멍청한 소리를!

디스트 : 금방 포기해 버린 너에게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은 없어! 자아 도사를 내놓으시지!

<BOSS - 카이저 디스트 RX>

약점속성 물. 디스트 자신작인 최신행 로봇... 이긴 한데, 공격력이 늘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전의 그 거랑 딱히 다를 게 없다. 여전히 공격의 리치와 범위는 좋지만 덩치도 크므로, 조작하는 캐릭터로 프리런을 구사해 가며 앞에서 치는 식으로 나가면 재밌을 정도로 두들겨 패 줄 수 있다. HP가 떨어졌을 때 같기는 폭격만 조심하자. 제이드가 파티에 있다면 더 쉽고, 그렇지 않더라도 만만하다. 낙승.

디스트 : 아아아아아! 나의 귀여운 카이저 디스트 호가!

디스트 : 두고 보십시오! 다음 번에야말로 당신들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줄 테니!

(디스트 도주)

제이드 : 소용 없을 것 같지만, 만약을 위해 추적하라.

병사 : 옛날!

(진동이 심해진다)

루크 : 제기랄! 맥가반 씨 일행이!

티아 : 기다려 루크! 그럼 내가 뛰어내려 보자 (譜歌)를 불러서.....!

제이드 : 기다리십시오. 아직 상당한 수의 주민들이 남겨져 계십니다.

제이드 : 당신의 보가로 전원을 구하는 것은 역시 어려운 겁니다. 확실한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아버지 맥가반 : 우리들은 신경 쓰지 말게나! 그보다 도시의 모두를 부탁하네! —!

루크 : 젠장! 어떻게 안 되나!

아니스 : 하늘을 날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가이 :하늘이라. 그리고 보니 세리던에서 비행실험을 하고 있던 말을 들었었지.

루크 : 비행실험? 그게 원데?

가이 : 분명, 교단이 발굴해 냈다고 하는 옛날의 부력기관이라더라.

가이 : 유리아 시절에는 그걸 탈 것에 달아서 하늘을 날았던거야. 음기관 매니아들 사이에서 좀 화제가 되었었다.

이온 : 확실히, 킨라스카와 기술제휴를 한다는 이야기에 승인을 한 적이 있어요. 비행실험은 시작되고 있을 터입니다.

루크 : 그거야! 그 비행실험에 쓰고 있다는 걸 빌려오자!

루크 : 서두르면 맥가반 씨 일행을 구출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제이드 : 허나 시간이 되겠습니까?

제이드 : 액제류스 때와는 경과가 좀 다른 모양입니다만, 그래도.....

티아 : 오빠 말에 의하면 호드 붕괴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면 것 같습니다.

티아 : 클리포드(마계) 와 외각대지 사이에는 '디바이딩 라인'이라는 역장(力場)이 존재해서,

티아 : 거기를 넘은 직후부터 급격하게 낙하속도가 올라간다고.....

루크 :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면 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올 거 아냐!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할 수 있는 일은 완수해야 합니다.

제이드 : 세리던은 라디시어 대륙의 바티칼 측에 붙어 있었지요.

제이드 : 킨라스카 군에게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가이 : 좋아, 서둘러 타르타로스로 돌아가자!

(타르타로스까지 뛴다)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14)

(세리던으로 가기 위해, 무너진 로탈로 다리에 세워 둔 타르타로스까지 뛴다)

<페이스 채트 '최종병기, 이온'>

티아 : 하늘을 나는 음기관(音機關)이라니, 상상도 가지 않아.

아니스 : 정말 그래. 가이, 음기관으로 하늘같은 데를 날 수 있어?

가이 : 원래 요즘 시대 음기관으로 하늘은 못 날어.

가이 : 하지만 창세력 시대의 부유기관이 발굴되었기에, 그 연구가 시작된 거다.

아니스 : 그치만, 세리던의 기술자들은 완고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니스 : 그렇게 귀중한 걸 쉽게 빌려줄까?

가이 : 그, 그건 나도 모르지...

아니스 : 여차하면, 루크나 나탈리아가 갈드로 현찰 막치기!

가이 : 야 야, 현찰이라니..... 바티칼까지 자금 모으러 돌아가자고? 그건 어렵지 않겠냐.....

아니스 : 그럼, 티아랑 나랑 나탈리아가 미인

계로!
티아 : 뭐어! 그, 그런 건, 곤란해!
가이 : 거, 워냐, 아마 미인계도 안 통할 것 같다만.....
아니스 : 우헤? 글쿠나. 그럼, 역시 이온 남한테 부탁드릴 수 밖에 없나~.
가이 : 처음부터 그러면 되는 거였잖어.
아니스 : 이온 남은 최종병기이사라구!
티아 : 그럴구나.....

(셰리던 항구에 타르타로스를 정박시키고 북동쪽의 셰리던으로 뛰어가자)

<페이스 채트 '디스트, 용서가 안 되네!>

나탈리아 : 아까 전의..... 디스트라 했었나요? 백성을 보고 보잘것 없는 버려지라니..... 용서가 안 되는군요!

이온 : 전투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네요.

루크 : 그 대신, 구할 수 있었을 사람들을 탈출시키지 못 했다고! 망할!

제이드 : 티아 말씀대로라면, 마계(클리포드)로 떨어질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는 듯 하니. 제이드 : 우리에게도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루크 : 어. 서두르자!

이온 : 디스트는 쫓아 보냈습니다만 다른 6 신장들도 방해해 해 올지 몰라요.

나탈리아 : 정말이지, 질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어요.

제이드 : 질러 준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루크 : 방해해 온다면 밧아 놓으면 된다는, 그런 방식은. 실은 옳지 못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루크 :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암튼 빨리 가자!

나탈리아 : 네. 가지지요.

[기술자의 마을 셰리던]

<페이스 채트 '가이의 외외인 일면'>

티아 : 셰리던이라면, 분명 외곽까지의 조선업 관련을 한 손에 거머쥐고 있는 곳이었어.
티아 : 샌트비나에서라면 바다를 넘어 멀리 서쪽, 라디시어 대륙 동쪽이 돼.

루크 : 흐~음.....

가이 :

그렇다니까! 셰리던은 킴라스카의 영토이지만, 전 세계에서 우수한 기술자들이 모여든다 이거야. 셰리던 주위에 큰 계곡 났나. 거기의 건조한 돌은 음기관..... 특히 보업(講業)병기에 빼놓을 수 없는 물건야. 지리적으로도 다아트에 가깝기에, 다아트를 경유해 마르쿠트에 전함이나 육상함을 팔고 있는 거지. 즉 다시 말하자면.....

루크 : 크아~~~! 시구라~~~!!!

가이 : ::

아니스 : 우와..... 오타쿠 같아.....

나탈리아 : 가이의 음기관 사랑에는 기가 막혀요.....

제이드 : 역시 편집광이십니다.

가이 : 미안하군!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비행정 용의 도크가 있다. 모여있는 세 사람에게 다가가자)

??? : 어찌 됐나!? 응? 어찌 됐어!

??? : 들림 없네! 메지오라 돌풍에 휘말려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구먼.

??? : 무슨 소리이고, 아스톤. 당신 눈도 늦었잖수. 잘못 본 거 아니우?

아스톤 : 늙은이의 눈은 먼 쪽이 더 잘 보이게 된다는거 알잖는가, 타마라.

??? : 어쩌면 좋노. 이대로는 부유기관도 짱이 아닌가.

타마라 : 무슨 소리유, 이에몬! '알비올' 에 갇혀 있는 건 당신 손자인 긴지잖수!
타마라 : 걱정도 안 되시우!

루크 : 원 일 있었어요?

이에몬 :알비올이 메지오라 고원에 추락했다 안하냐.

가이 : 알비올이라면 고대의 부유기관을 탐재했다는, 그런가!

아니스 : 우아~. 그럼 헛걸음이었다는 얘기야?

가이 : 아냐. 분명 부유기관은 두 개 발굴되었다 들었는데.....

이에몬 : 잘 아는구먼. 그래도 제 2 부유기관은 아직 기동조차 안 시켰어.

아스톤 : 그보다 이에몬, 당장이라도 구조대를 편성해서 긴지와 부유기관을 회수해야 하지 않겠나!

이에몬 : 그러세나. 부유기관만 돌아오면은 2 호기에 붙여다가 실험을 재개시킬 수 있으니 말이지.

타마라 : 이 박정한 영감 좀 보시게!

.....

제이드 : 메지오라 고원은 마물들의 소굴입니다. 구조대가 되려 조난을 당하고도 남겠지요.

티아 : 하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추락한 부유기관이 없다면 하늘을 날 수는 없다는 것 같아요.

루크 : 암튼, 일단은 부유기관을 좀 빌릴 수 없겠냐고 상담해 보자.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저 이에몬이라 하는 노인 분께 여쭈면 되지 않을까요.

이온 :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은 더 이야기가 잘 통할거라 생각합니다. 가지죠.

(마을 가운데 집회소로 들어가 노인 트리오에게 말을 걸자)

이에몬 :무슨 말인지는 잘 알았네. 돌아가신 줄 알았던 나탈리아 님께서 살아 계셨다니.

이에몬 : 거기다 마르쿠트의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활동하고 계신다라.....

루크 : 마르쿠트이니 킴라스카이니 하는 애긴, 지금은 아무래도 좋잖아!

타마라 : 그렇지요. 다만 우리도 곤란해 하는 참이랴우. 알비올 1 호기가 메지오라 고원에 추락해 버려서.....

아스톤 : 안에 조종사가 갇혀 있는 상태에서 메지오라 돌풍이 불기 시작하는 바람에. 당장이라도 벼랑에서 떨어질 것 같다네.
이스톤 : 구조대를 파견하려 해도 마르쿠트와 전쟁이 시작된다면서 군인 양반들이 다 나가 버렸지 뭐냐.

루크 : 그럼 내가 갈래!

나탈리아 : 말씀 잘 하셨사와요 루크! 그래야 왕가의 푸른 피가 흐르는 사람이지요!

루크 :따, 딱히 왕가라던가 그런 건 상관 없다고!

나탈리아 :네?

루크 : 그저 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루크 : 원래부터가 남을 돕는데 왕가이니 귀족이니, 그런 건 별 상관 없잖을까..... 라던

가.....

루크 : 아, 아무튼 그, 그게 다야!

티아 :저희들 중에는,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에게 맡겨 주실 수 없을 까요?

가이 : 그 대신, 은 아님니다만 우리들이 부유기관을 회수해 돌아오면 2호기를 좀 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에몬 : 2 호기는 미완성이네만. 구동계에 일부 부족한 부품이 있어.
이에몬 : 전쟁에 맞추느라, 반 이상의 부품을 다 육상함 제조로 돌려 버렸다.

제이드 : 타르타로스도 원래는 육상함이었습니다. 쓸 수 있는 소재가 있으시다면 사용해 주십시오.

루크 : 제이드! 그래도 돼!?

제이드 : 이온 남, 여기 남으셔서 타르타로스까지 이 분들을 안내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이드 : 우리들이 부유기관을 회수해 돌아오는 사이, 2 호기를 완성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온 : 저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에몬 :부품만 있다면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완성시켜 보이겠네.

루크 : 그래, 그럼 우리 그 메지오라 고원으로 가자. 그래서, 장소는.....?

아스톤 : 메지오라 고원은 여기서 북서쪽이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게나.
아스톤 : 이 발사장치로 알비올을 고정시킨 다음, 벼랑 밑으로 내려보내는 걸세.
아스톤 : 거기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위험하니 말이지.

루크 : 하지만 쓰는 법을.....

가이 : 음기관이라면 나한테 맡겨. 거기다 제이드도 잘 알테고.

제이드 : 글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가이 :방심 못할 아저씨구만. 진짜.

(런처라는 아이템을 받는다. 북서쪽의 메지오라 고원으로 가자)
(나가기 전 여인숙에서 머물면 루크의 공부 이벤트가 이어진다)

[셰리던 속소]

티아 : 루크. 음소학(音素學) 공부 계속하자.

루크 :어, 응.....

티아 : 싫어?

루크 : 아, 아냐!!

.....

루크 : 아~씨! 또 뺏사리냐!

티아 : 음소(포닝)..... 특히 제 7 음소는 정말로 섬세해. 술자의 기운이 흩어지면 쉽게 음소를 폭주시켜.
티아 : 자, 다시 한 번!

루크 : 응~.

「워 하나 티아. 기가 흐트러져 음소가 모여있질 않아」

(회상 개시)

티아 : 죄..... 죄송합니다.....

리그렛 : —— 이만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티아 : 교관님! 저라면 상.....

리그렛 : 음소는 취급을 그러치면 폭주를 일으켜.

리그렛 :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일단 네 부상을 치료하면서 이야기를 듣기로 하지.

티아 : !!

리그렛 : 팔이 상했구나. 어쩌다 그랬니.

티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리그렛 : 고자질이 될 거라 생각한다면, 상대의 이름이나 소속은 말할 필요 없다.
리그렛 : 총장께서 너를 내게 맡기셨으니까. 사정을 들을 의무가 있는 거야.

티아 : 제가 사관 후보생임에도 불구하고,
티아 : 외각대지의 사관학교에 통학하지 않고서 리그렛 교관님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비위에 거슬린 모양이었어요.

리그렛 : 다른 사관 후보생들과 무슨 일이 있었구나?

티아 :

리그렛 : 너는 세상 사는 법을 잘 몰라.

티아 :서투르다는 자각은 있습니다.

리그렛 : 그래. 정직하게 바로 앞을 보며 산다. 내가 잃어버리고 만 미덕이야.....

티아 : 교관님.....

리그렛 : 다만 그 성격은 군인에게는 부적합해. 그렇기에 총장께서 너를 외각 쪽의 사관학교에 보내지 않았을 것일지 모르지.

티아 : 필요하다면 달라져 보이겠습니다. 저는 교관님처럼.....

리그렛 : 나처럼 되고 싶다 생각한다면, 일단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그만 둘 일이야.
리그렛 : 자신의 다리로 서서, 스스로의 머리로 생각할 것.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하는 것은 너란다.

(다시 현재)

루크 :티아. 오늘 고맙습니다.
루크 : 대충 자기 안에 제 7 음소(세븐스 포닝)를 모으는 감각을 익혔어.

티아 : 초진동(超振動)은 당신이 몸 안에서, 제 7 음소를 간섭시키는 것을 통해 발생돼.
티아 : 그것을 제어하는 일은 제 7 음소를 몸 안에 모으는 게 기본이구.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루크 : 어..... 갈 길이 멀구나야.....

<페이스 채트 '가이의 파라다이스'>

가이 : 야! 저거 봐봐 루크, 보업(講業)의 산 아니냐, 이 마을!

루크 : 못 살겠네, 뭘 혼자 봉 뜨고 난리냐고.

가이 : 너 임마, 세리던이라 하면, 세계에서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보업의 마을이란 거 모르냐.

가이 : 여기서, 어떻게 진정할 수 있겠냐 이거야!

티아 : 가이, 정말로 보업을 좋아하는구나.....

루크 : 그야 뭐, 저건 이미 좋아한다는 수준이 아냐.
루크 : 보업이니 음기관이니 하는 데엔 사족을 못 써서, 이것저것 만들어 대질 않나 참.

티아 : 평소에는 칭찬하지만, 지금은 신이 나서 마치 어린아이 같아.

루크 : 가이한테 있어서 꿈 같은 곳이었지.....

가이 : 헉! 음소식 냉온방 보업기다! 야 두 사람,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보러 가자!

루크 :가이목적은 잊지 말아 주라.....

[필드, 라디시어 대륙]

<페이스 채트 '긴지를 구하라! '>

나탈리아 : 시작기(試作機) 안에 갇혀계신다는 긴지라는 분은, 무사하실까요?

제이드 : 아직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듯 합니다. 다만, 시작기 채로 버랑 아래로 떨어진다면 살아남을 수 없겠지요.

루크 :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겠어. 센트비나도 언제 마계로 떨어져 내릴지 모르니까.

나탈리아 : 시간과의 승부이어요.

제이드 : 그럴습디만, 준비는 게을리 하시지 마시길. 아까도 말했습디만 메지오라 고원에는 마을이 있으니 말입니다.

루크 : 알았어. 이에온 씨에게서 받은 음기관 쪽은 잘될 것 같아?

제이드 :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탈리아 : 어머니, 애매하기도 하셔라.

제이드 : 하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염려하셔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메지오라 고원]

티아 : 저게 그거네.

아니스 : 어라..... 뭔가 위험하네.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잖아.

제이드 : 안 좋군요.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루크 :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

제이드 : 조종사는 살아남지 못하겠지요. 부유기관도 부서질지 모릅니다.

유우 : 큰일이에요!

가이 : 발사장치는 기체 양쪽에서 쏘아 넣지 않아선 안 돼. 두 패로 갈라지자!

티아 : 어떻게 나눌까. 당신은 누구랑 가고 싶어?

루크 : 두 팀으로 나뉘었다면 난.....

(편성을 하자. 3명의 두 팀으로 제이드와 가이 중 한 명은 아마 필수. 역자는 '루크, 티아, 가이'였다)

티아 : 그럼, 서두르자.

가이 : 발사장치라면 내게 맡겨 뒤.

아니스 : 그 쪽 실패하지 말라구!

제이드 : 저희 쪽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탈리아 : 서로 힘내지요.

(타임 어택이 시작된다. 12분의 여유가 있으며 전투도 시간에 포함되므로 재주껏 진행하자)
(루크 팀이 진행하던 도중...)

루크 : 뭐..... 뭐야?

티아 : 마을이야..... 상당히 가까워!

가이 : 위험해, 뒤 쪽이다!

<BOSS - 블레이드 렉스>

용가리. 불에 약하지만, 팀이 나뉘어 있으므로 약점속성을 공략할 기회가 있을지는 미지수. 전투력이 탁월하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역자는 가이와 루크 콤비로 마구 때려쳤다. 파이어 샷 등의 특기를 사용하지만, 다른 보스들처럼 위협적인 발악은 하지 않는다. 서둘러 잡아 버려자. 참고로 물리치면 '마검 네비럼' 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

루크 : 간신히 정리했네.

가이 : 나탈리아네도 공격받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루크 : 어. 그러게.

<페이스 채트 '루크 걱정? '>

제이드 : 흠..... 루크랑 떨어져 행동하니, 그것은 그것대로 걱정이 됩니다.
제이드 : 역시 문제야는 눈에 보이는 곳에 두

어야 했을까요.
제이드 :뒤편 후회해도 별 소용은 없습디만.

(시간 안에 도착하면)

루크 : 늦지 않았어!

가이 : 대령에게 그 쪽을 부탁할게! 못 쓴다고 잡아떼진 않겠지!

제이드 : 나이 든 사람은 소중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

가이 :잘도 저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알비올과 긴지의 구출은 성공으로 끝난다)

긴지 : 구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루크 : 다친 데 없어?

긴지 : 예. 덕분에.

티아 :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부유기관도 회수할 수 있었고 하니 시간이 아까워.

루크 : 그렇지. 긴지, 움직일 수 있어?

긴지 : 예, 저는 괜찮습니다.

(부유기관을 손에 넣고 자동으로 세리던으로 돌아간다)

[다시 기술자의 마을 세리던]

긴지 : 감사했습니다! 저는 먼저 가서 부유기관을 전하고 오지요!

(비행정 도크로 따라가려던 참에.....)

킴라스카 병사 1 : 너희들이야! 마르쿠트 선적인 육상함으로 바다를 건너왔다는 상식없는 녀석들은!

킴라스카 병사 2 : 음? 너는 마르쿠트 군인이군!?

루크 : 일 났다.....!

아니스 : 일단 도망가자!

킴라스카 병사 2 : 잡아라!

[격납고 안]

이에온 : 오오! 돌아왔구먼! 지금 아스톤이 부유기관을 장착하는 중일세!

킴라스카 병사 : 수상한 놈들! 여길 열려라!

타마라 : 무슨 소란이시우?

제이드 : 킴라스카 병사들에게 발각당하고 말았습니다.

타마라 : 그할구만, 당신 마르쿠트 군인이셨지.

이에온 : 이 마을에서는, 원래부터 마르쿠트 군함도 취급하고 있으니 말이네.
이에온 : 전쟁이 터지기 직전만 아니었다면 상상하게 여겨질 필요도 없었겠다만은.....

타마라 : 육상함이라 하니 말인데, 덕들이 타고 온 육상함에서 부품을 송두리째 접수했다우.
타마라 : 제조가 중지되었던 부품도 있길래 기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지.

이온 : 덕분에 타르타로스는 항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요.

아니스 : 그치만, 알비올이 잘 난다면 타르타로스는 필요 없겠어요.

아스톤 : 「재대로 난다면」 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아스톤 : 우리들의 꿈과 희망을 실은 알비올은 결코 추락 따위는 하지 않는단 말일세.

루크 :추락했었자나요.

가이 : 야~~!! 빨리 어떻게 해 봐! 문 부서진

다!

티아 : 알비올 2 호기네요?

아스톤 : 음 완성 되었어! 2 호기 조종사도 준비가 완료된 참이지.

이에온 : 그래, 바깥 병사들에게는 우리가 둘러대겠네. 서둘러!

나탈리아 : 하지만, 바깥 병사들은 상당히 사나워져 있사와요. 제가 이름을 밝히고.....

타마라 : 시간이 없다 하잖았수? 우리에게 말겨요.

아스톤 : 나이트 사람을 우습게 봐선 안 되지! 자아, 자네들은 꿈의 넓은 하늘로 날아오르게!

루크 : 뭣 일 부탁함다!

(병사들이 들어닥친다)

이에온 : 여기서부터는 못 지나가! 우리들 세리던 3총사의 이름에 걸고!

[알비올 내부]

??? : 기다리고 있었어요.

루크 : 당신은?

??? 저는 2 호기 전속 조종사 노엘. 1 호기 조종사 긴지의 여동생이랍니다.
노엘 : 오빠 대신 여러분을 센트비나로 모시겠습니다.

루크 : 잘 부탁할게!

노엘 : 자, 가시지요!

(알비올에 탑승해 센트비나로 가게 된다)

[성채도시 센트비나(붕괴 중)]

루크 : 맥가반 씨! 모두들! 괜찮아요?

아버지 맥가반 : 오오, 자네들. 이 탈 것은.....!

제이드 : 원수님.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시지요. 일단 올라타 주십시오. 여러분도.

(센트비나가 통째로 외각에서 뚝 떨어져 마계의 진흙바다 위에 었히는 영상을 보게 된다)

[알비올 내부, 마계 비행 중]

아버지 맥가반 : 구해 주어서 감사하네. 허나 센트비나는 어떻게 되어 버리는 것인지.....

티아 : 지금은 아직 떠 있습니다만 이대로 있으면 얼마 안 가 맨들 속으로 가라앉아 버릴 거예요.....

아버지 맥가반 : 그럴 수가! 어떻게 좀 안 되겠나!?

티아 : 여기는 호드가 무너져 내렸을 때의 상황과 비슷해요. 그 때엔 결국 한 달 후에 대륙 전체가 가라앉았다 하지요.

아버지 맥가반 : 호드..... 그럴구먼..... 이것은 호드의 복수인가.

제이드 : . . .

루크 :진짜 어떻게 안 되나.

유우 : 살 곳이 없어지는 건 너무 가없어염.....

아니스 : 도대체 대지가 무너진다는 것 만으로도 상식에 벗어난 사태인데. 아무 생각두 안 떠오르다구~. 완전 무리야!

루크 : 맞아, 세피로트는?
루크 : 여기가 떨어진 건, 반 선생이 패시지 링이란 걸 만져서 세피로트를 어떻게 했기에 그런 거잖어.
루크 : 그렇다면 부활시키면 되는 거 아냐?

티아 : 하지만 우리들, 패시지 링을 쓰는 법은 모르는 걸.

루크 : 그럼 선생을 추궁해서.....!

가이 : 야 야 루크. 그건 우리야. 안다니까, 네 기분도...

루크 : 모른다고! 가이도, 모두도!

티아 : 루크.....

루크 : 모른다 말야! 액제류스를 멸망시킨 건 나니까! 그래도 그렇기에 어떻게 해 보고 싶은 거라고!
루크 : 이런 걸로는 전혀 속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그럼 적어도 이 도시 만이라도!!

제이드 : 루크! 그만 하십시오. 초조해 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루크 : !!

제이드 : 일단 유리아 시티로 감시다. 그들은 세피로트에 대해 우리보다 잘 압니다.
제이드 : '여기 있는 모두도 다들 센트비나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티아 : 그래. 지금이라면 할아버님께서도 힘을 빌려주실 지 몰라.

제이드 : 그리고 루크. 방금 그것은 마치 떠쓰는 어린애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제이드 : '여기 있는 모두도 다들 센트비나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루크 :미안그렇겠지.....

가이 : 뭐, 신경쓰지 마라. 우린 아무렇지도 않으니.

노엘 : 그럼 알비올을 발진시킬게요.

(이제부터 알비올을 쓸 수 있다. 유리아 시티로 가자)

<페이스 채트 '구한 생명의 무거움, 소중함'>

나탈리아 : 아무튼, 주민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예요.

가이 : 그러게. 일단 살리고 봐야지.

루크 : 그래도, 센트비나 그 자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난.....

가이 : 안다니까. 아까 소리지르는 거 봤으니 말야.

나탈리아 : 루크, 킴라스카 왕가의 인간으로서 당신께선 백성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었다 생각해요.
나탈리아 : 센트비나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구할 방법을 찾으도록 하세요.

루크 :알고 있어. 서둘러도 소용 없다고 제이드에게 혼난 잠이니까.

가이 : 그래 그래. 지금은 모두를 구출할 수 있었다는 걸로 만족하자고.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죄책감을 계속 느끼는 것 만이 속죄하는 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페이스 채트 '죽음의 세계, 장기(障氣)의 세계'>

제이드 : 하늘에서 보는 마계(클리포드)는 한층 더 무시무시하군요.

루크 :센트비나 사람들, 이거 보고 더 불안해 하는 거 아닐까.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나탈리아 : 도시가 무너져 떨어진 것만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일 텐데, 여간 마치 죽음의 세계인 듯 하나니까요.

제이드 : 어째서..... 이 흑성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나탈리아 : 네? 그건, 창세력 시대의 전쟁이 원인이라 들었는데요.....

제이드 : 예. 그리고 장기를 지하에 봉인시켰지요.

제이드 : 아니, 실제로는 지각을 위로 띄우는 것으로 외각대지를 만든 셈이 됩니다만.....
제이드 : 과연 전쟁 정도로 장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루크 : 전쟁 이외의 요인이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제이드 : 확증은 없습니다. 단지 조사는 해 보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탈리아 :창세력 시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힘든 일이겠지만, 염두에 두는 편이 좋을 것 같사와요.

루크 :어.

[감시자의 도시 유리아 시티]

티아 : 할아버님!

테오도로 : 오리라 생각해 기다리고 있었소.

티아 : 할아버님, 힘을 빌려주세요! 센트비나를 구하고 싶어요.

테오도로 : 그럴 수 밖에 없겠지. 예언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들도 두려우나.....

이온 : 대화 전에 센트비나 분들을 쉬게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테오도로 : 그럴구려. 이쪽에서 말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맥가반 :신세를 지겠소이다.

아버지 맥가반 :
아버지 맥가반 : 루크. 너무 낙심하지 말거라.

루크 : 예?

아버지 맥가반 : 제이드는 웬만한 일로 남을 야단치지 않는다. 아까 전의 그것도 네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게야.

제이드 : 원수님! 무슨 말씀을 다 꺼내십니까.

아버지 맥가반 : 노인에게는 싫은 사람을 꾸짖을 정도의 시간은 없네. 꼬마 제이드도 마찬가지야.

제이드 : 원수님께서도 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먼저 가겠습니다.

가이 : 하하, 정곡이었던 모양이군. 꽤 귀여운 구석이 있는데 저 아저씨도.

아니스 : 아하하, 진짜 그래~♡

루크 : 티아.
루크 :저기, 고마워.

티아 : 왜 그래? 갑자기.....

루크 : 너, 맨 처음부터 제대로 날 아단처 주고 있었으니까.

티아 : 그, 그건..... 별로.....

루크 :이상해졌나 부다. 나. 혼나는 건 항상 짜증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티아 : 그리 바람직한 일도 아니야.

루크 :아, 안다니까!

(유리아 시티 중앙관리시설 회의실로 가자)

<페이스 채트 '애쉬라는 사나이'>

루크 : 이 거리를 걷고 있자니, 애쉬에 대해 생각하게 되 버려.

티아 : 애쉬에 대해서?

루크 : 어. 이 도시에서 그 농한테 진실을 듣고, 녀석을 통해서, 몰랐던 걸 조금씩 알게 돼서.....

루크 : 그래서 내가, 변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걸지도 모르니까.

티아 : 그래.....

루크 : 짜식, 그 뒤로 전혀 우리한테 접촉해 오질 않는데. 전에는 심심하면 튀어나왔던 놈이.

티아 : 그러네. 그는 대체 뭘 위해 행동하고 있는 걸까.....

티아 : 어쩌면 다음에 만날 때도, 적으로서가 아닐지 몰라.

루크 : 설마, 그 녀석이란 사이 좋게 지내라는 거야!?

티아 : 꼭 싸워야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의미야.

루크 :

티아 : 애쉬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엔 언제나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 그것을 잊지 말아 줘.

루크 :노력은 해 보지.

<페이스 채트 '사람은 변할 수 있을... 러나?>

티아 : 일단 한 숨 돌렸어.

가이 : 센트비나 사람들은, 여기서의 생활에 익숙해 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루크 : 그래.

가이 :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잘 됐다야 루크. 제이드, 널 좀 인정해 준 모양이던데.

티아 : 대령님 뿐만이 아니야. 아니스도 나탈리아도 물론 우리들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

루크 :스스로는 암것도 몰라. 하지 않아선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 뿐이니까. 루크 : 달라지자 라던가, 전이란 비교해서 이렇게 하자 라던가, 그런 건 생각도 못 했었고.....

가이 : 모~, 「새 사람이 될 거다~」라고 외치면서 그러는 것도, 솔직히 수상하거덩.

티아 : 후훗. 맞아.

루크 : 농담으로 돌리지 말어!

가이 : 미안 미안. 뭐, 아무튼 일이 진정될 때까지 힘내자.

[유리아 시티 중앙관리시설 회의실]

루크 : 단도직입으로 묻죠. 센트비나를 구할 방법 없습니까.

테오도로 : 어려운 일이오. 유리아가 사용했던 로렐라이의 열쇠가 있다면 어쩌면..... 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루크 : 로렐라이의 열쇠? 그건 뭔데요?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제이드 : 로렐라이의 검과 보주(宝珠)를 가리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이드 : 분명, '플래닛 스톰' 을 발생시켰을 때에 썼다고 했었지요. 제이드 : 유리아가 로렐라이와 계약을 나눈 증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테오도로 : 그렇소. 로렐라이의 열쇠란, 유리아가 로렐라이의 힘을 빌려 만든 보술(講術) 병기라 일컬어지고 있오.

티아 : 로렐라이의 검은 제 7 음소를 걸집시키고, 로렐라이의 보주는 제 7 음소를 확산시켜. 티아 : 열쇠 그 자체도 제 7 음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구.

티아 : 유리아는 열쇠에 로렐라이 그 본인을 갖들게 해서, 로렐라이의 힘을 자유롭게 조종했다고.....

테오도로 : 그 진위야 어찌 되었건, 세피로트를 자유로이 조작하는 힘은 분명히 있었다는 듯 합니다.

티아 : 하지만 로렐라이의 열쇠는 플래닛 스톰을 발생시킨 뒤 별의 핵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테오도로 : 그 말대로요. 이 자리에 없는 것—— 아니 현존하는지도 모르는 것에 의존할 수는 없겠지.

테오도로 : 무엇보다, 한번 무너져 내린 이상 센트비나를 외곽대지까지 다시 부상시키는 것은 우리라 생각합니다.

아니스 : 아~웅. 어떻게 안 되는 걸까야.

테오도로 :아니, 액상화 된 대지에 가라앉지 않게 하는 정도라면, 어쩌면.....

루크 : 방법이 있는 겁니까!?

테오도로 : 세피로트는 패시지 링이라는 장치에 제어를 받고 있소. 테오도로 : 패시지 링을 조작해서 세피로트 트리를 부활시키면 진흙 바다 위에 띄워놓는 정도는...

티아 : 센트비나 주변 세피로트를 제어하는 패시지 링은 어디에 있나요?

테오도로 : 슈레 언덕이란대. 센트비나의 동쪽이군.

이온 : 그리고 보니 타르타로스에서 붙들렸을 때, 끌려갔던 곳이 슈레 언덕이었어요. 이온 : 기 때엔 아직 알버트 식 봉주(封呪)와 유리아 식 봉주로 수호되고 있었기에 걱정을 하지 않았습시다만.....

테오도로 : 알버트 식 봉주는 호드와 액제류스의 패시지 링이 소멸함에 따라 같이 사라졌소. 테오도로 : 허나 유리아 식 봉주는 약속의 때가 올 때까지 풀리지 않을 터였는데.

아니스 : 그치만 총장은 그걸 풀고 패시지 링을 조작했다는 이야기네요.

테오도로 :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들도 모르오.

제이드 : 그란츠 요장(譚將)이 어떻게 유리아 식 봉주를 풀었는지는 나중에 돌림시다. 제이드 : 패시지 링 조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테오도로 : 제 7 음소가 필요하다고 들었소이다. 모든 조작반이 제 7 음소 없이는 움직이지 않아.

가이 : 그렇다면 우리 편에는 3명이나 사용자가 있잖나.

나탈리아 : 저와 티아와 루크이시지요.

테오도로 : 다음으로는 반이 패시지 링에 관한 것을 해 두지 않았다면.....

티아 : 그것은 가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겠어.

루크 : 센트비나 동쪽이라면 아마 도시와 함께 무너졌겠지.

<페이스 채트 '슈레 언덕으로'>

제이드 : 슈레 언덕의 패시지 링, 입니까.

아니스 : 정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온 : 알 수 없어요. 반이 아무 대비도 해 두지 않았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제이드 : 그렇습니다. 그란츠 요장의 모락은 아직은 빈틈이 없으니 말입니다.

아니스 : 대령님이 말씀하시니, 뭔가 비웃는 것처럼 들려요.

제이드 : 이거 이상합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온 : 하하..... 반에 대해서는 생각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데니, 슈레 언덕에 가 볼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스 : 겐네요~.

(알비올에 타고 가서 무너진 센트비나의 동쪽에 내리면 슈레 언덕으로 갈 수 있다)

[슈레 언덕]

(입구에서 이온이 주는 힌트대로 유우 파이어를 써서 붉은 보석을 3개 맞추면 시설로 가는 길이 나타난다)

<페이스 채트 '창세력의 유산'>

가이 : 액제류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패시지 링이 있는 곳은 뭔가 분위기가 다르니까.....

티아 : 세피로트 트리를 지키기 위한 장소이니까. 창세력(創世曆) 시대의 양식일 거라 생각해.

아니스 : 글쿠나. 여기도 2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네.

제이드 : 그렇게 됩니다. 과연..... 이라 해야 할까. 상당히 고도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이드 : 현대의 기술로는, 이런 건축물은 지을 수 없습니다.

가이 :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문명이 더 나왔다는 말야?

티아 :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 유리아 시티의 설비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구.

가이 :어떤 시대였을러나? 유리아가 살았던 시대라는 거. 흥미가 많이 생기는데.

루크 : 니 경우이니, 음기관이 목적이지?

가이 :뭐, 그것도 있다만. 외각을 만들자! 라는 발상을 다 하는 시대 아니었겠나?

나탈리아 : 예. 틀림없이 격동의 시대였겠지요.

티아 : 지금도 격동의 시대야. 유리아의 예언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으니까.

나탈리아 : 분명히..... 그렇사와요.

제이드 : 뭐, 인간의 역사는 항상 격동의 역사입니다.

제이드 : 그것보다, 할 수 있을 일을 해내 버리도록 하십시오.

아니스 : 대령님은 여전히 담백맨이시네요~.

(계속 안으로 들어가면...)

가이 : 가이 : 그냥 음기관이 아니군. 뭘 어쩌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

루크 : 제 7 음소를 쓰라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이온 :이상합니다. 이것은 유리아식 봉주가 해제되어 있지 않아요.

제이드 :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란츠 요장은 이것을 조작한 게.....

아니스 : 에엑~ 여기까지 와서 헛걸음이었다는 건가요?

나탈리아 : 뭔가 방법이 있을 터예요. 조사해 보도록 하시어요.

(이후 제이드에게서 바닥의 봉진 3개를 제거하라는 조언을 듣는다) (얻을 수 있는 4가지 색 음소구슬로 악보를 완성시켜 진행하자)

<페이스 채트 '공포! 반'>

나탈리아 : 반은 정말로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군요.

아니스 : 그러게~. 지식도 있구, 머리도 엄청 잘 돌아가구, 검술도 굉장하구, 제 7 음소도 쓸 수 있구. 아니스 : 초인이야 초~인. 수영도 있구.

나탈리아 : 그 수영은 능력이었나요?

아니스 : 수영 능력이지~. 수석총장은 분명 수영에서 힘이 나오고 있는 걸 거야!

나탈리아 : 어머니..... 그 수영에 그런 비밀이.....

아니스 : 은근히 눈썰도 굉장하다구.

나탈리아 : 눈썹까지! 눈썹에는 대체 어떤 힘이 있는가요?

아니스 : 눈썹은~..... 색적장치야. 그리고 거기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최면능력을 방사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탈리아 : 과..... 과연 오라클의 총장이로군요. 가볍게 볼 수 없겠사와요.

가이 : 티아, 저런 소릴 하고 있는데 놔둬도 돼냐?

티아 : 꽤..... 괜찮지 않을까?

제이드 : 우핫핫하하. 수업이야 어쨌든, 그런 초 요장은 그 지모를 잘 살리는 능력을 가진 듯 합니다.

제이드 : 앞으로도 계속 선수를 치게 놔두면, 조금 성가시겠지요.

가이 : 그래도, 어떻게 하려고?
가이 : 싸워서 이길지 어떨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있는 곳을 모르는데?

티아 : 애쉬라면 뭔가를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이 : 애쉬라.....

(봉진을 모두 해제하면...)

티아 :
티아 : 이래도 안 되는 걸까.....

나탈리아 : !!
나탈리아 : 티아! 잠깐 거기 보석에 다가가 주시겠어요?

티아 :? 상관은 없지만.
티아 : !! (이건.....!?)

제이드 : 티아에게 반응을 했군요? 이것이 유리아 식 봉주입니다. 경고..... 라 나와 있군요.

이온 :모르겠어요. 그래도 분명 지금은 해주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제어할 수 있겠네요.

아니스 : 아, 이 문자 패시지 링의 설명 같아.

제이드 :그란츠 요장, 그랬다 이겁니까.

티아 : 오빠가 뭔가를 해 놓았나요!?

제이드 : 세피로트 트리가 재생되지 않도록 밸브를 잠가 두었습니다.

나탈리아 : 무슨 뜻이시지요?

제이드 : 즉 암호를 통해 조작할 수 없게 만들어 두었다고나 할까요.

유우 : 암호, 뭇 푸세염?

제이드 : 제가 제 7 음소를 쓸 수 있었다면 풀어 보였겠지요. 허나.....

루크 :내가 초진동으로, 암호인가 밸브인가 하는 걸 지우면 어떨까? 초진동도 제 7 음소잖아.

제이드 :암호만을 지울 수 있다면 어떻게 될 지도 모릅니다.

티아 : 루크! 당신은 아직 제어를.....!

루크 : 훈련은 계속 하고 있어! 거기다, 여기서 실패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결과는 같으니까.

티아 :그러네. 그 말 대로야.

제이드 : 제 3 세피로트를 나타내는 그림의 가장 바깥쪽이 붉게 빛나는 거 보이십니까.
제이드 : 그 붉은 부분만을 삭제해 주십시오.

루크 : 해볼게.

(초진동을 구사하는 루크. 잘 된 느낌이다)

제이드 :기동된 모양입니다. 세피로트에서부터 땅을 띄우기 위한 기억입자(셀퍼 티클)가 발생되었습니다.

티아 : 그러면 센트비나는 맨들로 가라앉지 않았군요!

루크 :됐어! 해냈다고!!
루크 : (와락) 티아! 고마워!

티아 : 나, 난, 아무것도 안 했어. 패시지 링을 조작한 건 당신이려구.

루크 : 안 그래. 티아 니가 없었다면 기동되지 않았을 거지나.

루크 : 그리고 모두도.....! 다들 거들어 줬으니까. 모두들..... 진짜 고맙다!

나탈리아 : 웬지 루크가 아닌 것 같사와요.

가이 : 뭐 어때. 이런 쪽이 조금은 애교가 있으니.

나탈리아 : 당신은 루크 파이시니까요.

가이 : 딱히 그런 건 아니다만. 나탈리아도 애쉬 파인 건 아니잖아.

나탈리아 :저로서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걸요.

아니스 :!!
아니스 : 아~앗! 기다려 주세요! 아직 기뻐해선 안 돼요! 저 문장 좀 보세요!

가이 :야. 여기 세피로트는 루그니카 평야의 거의 전역을 받치고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
가이 : 그렇다는 건 엔게이브도 무너진다는 뜻 아니야!?

아니스 : 그렇지~!? 엔게이브 엄청 위험하다는 느낌이지!?

티아 :

나탈리아 : 큰일이예요! 외각으로 돌아가서 엔게이브의 모두를 피난 시키지요!

루크 :티아. 뭘 일 있냐?

티아 : 조금 지친 모양이야..... 하지만 괜찮아.

(루크에게 '패시지 커맨더' 의 칭호)
(이제 바깥으로 나가자)

<페이스 채트 '티아가 걱정'>

루크 : 야 티아. 너 괜찮어?

티아 : 무슨 얘기야?

루크 : 무슨 소리냐니..... 아까 피곤하다 그랬자나.

티아 : 아..... 현기증이 조금 났을 뿐이야. 괜찮아.

루크 : 진짜지? 너, 항상 꽤 무리하며 사니까, 신용이 잘 안 간다고나 할까.....

티아 : 신용하기 힘들어서 미안해.

루크 :그, 그런 말이 어딴냐! 난 그냥.....

티아 :미안해. 분명 내가 이상했어. 걱정해 줘서 고마워.

루크 : 어..... 응. 아니, 괜찮다면야..... 사, 상관 없지만 뭐.

(시설을 나오면)

루크 : 저기, 생각해 봤는데. 알비올 힘 만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제이드 : 타르타로스 대와 같은 요령으로 세피로트의 힘을 제어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루크 : (애쉬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 봤던 그건가.....)

가이 : 그렇군. 세피로트는 유리아 시티의 북동쪽에 있지. 가 보면 바로 알게 될 일야.

루크 : 유리아 시티 북동쪽이라. 알았어, 가보자.

(들은 대로다. 유리아 시티의 북동쪽 지점으로 날면 외각대지로 돌아갈 수 있다. 거꾸로 마계로 갈 수도 있다)

[필드, 루그니카 평야 비행 중]

(킴라스카 왕국군과 마르쿠트 제국군이 격렬하게 싸우는 무비를 보게 된다)

나탈리아 : 왜.....! 어쩌서 싸움이 시작된 것이지요!?

제이드 : 이걸..... 큰일이군요. 자칫하다가 양군이 전멸할 겁니다.

아니스 :아, 맞아. 여기 루그니카 평야였지. 아래엔 이미 세피로트 트리는 없으니깐.....

티아 : 이게..... 오빠가 노린 바였던 거야.....

루크 : 무슨 뜻이야?

티아 : 오빠는 외각 사람들을 소멸시키려 하고 있었어.

티아 : 예언을 통해 루그니카 평야에서 전쟁이 있을 것을 알고 있던 오빠라면.....

제이드 : 슈레 언덕의 트리를 제거해 정장에 모여있던 양 나라 군대를 무너뜨린다..... 확실히 효율 좋은 학살법입니다.

루크 : 웃기지도 않아!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이 하고 있는 일은 엉망 진창이야!

나탈리아 : 전쟁이 여기라면, 킴라스카의 본진은 카이틀이겠지요. 제가 본진에 가서 정전을 시키겠사와요!

티아 : 엔게이브도 신경이 쓰여. 거기는 중요한 보급 거점이라 생각되고 있었을 테니까.

티아 : 센트비나를 잃은 지금, 그 마을은 너무나도 무방비해.

아니스 : 무너지기도 전에 침공당해서 뭉개졌을 거란 얘기? 무서워라.....

루크 : 두 패로 나뉘는 건 어때. 엔게이브 상황을 보러 가는 팀이랑 카이틀로 정전을 요청하러 가는 팀으로.

제이드 :엔게이브에는 제가 끼어야 할 겁니다. 마르쿠트 군에 속한 사람이 없다면 이야기가 통하지 않겠지요.

나탈리아 : 저는 카이틀로 가겠사와요.

이온 : 저는 어느 쪽이라도 좋아요. 조금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요.

가이 : 루크, 넌 어쩔래?

<선택지>

엔게이브로 갈까
카이틀이 낫겠군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15 , 이온 동행 엔게이브 루트)

<선택지>

엔게이브로 갈까 ← 선택
카이틀이 낫겠군

루크 : 엔게이브로 갈까. 거기 사람들한테 신세도 졌고 하니까. 신경 쓰여.

가이 : 알았어. 그럼 편성은 어쩔래.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있냐?

(선택 - 아니스)

아니스 : 루크 그렇게나 날 의지하고 있었구나. 좋아~, 같이 힘내자.
아니스 : 이온 님은 저랑 같이 가 주세요.

이온 :그러, 지요.

제이드 : 일단 카이틀 부근에서 나탈리아 팀을 내려 놓을시다. 그 후 우리들은 알비올로 엔게이브에 가는 겁니다.

루크 : 그거면 됐어. 다들, 가자.

(나탈리아 팀과 카이틀에서 헤어진다)

[식량의 마을 엔게이브]

(식량을 포함한 물자의 가격이 경총 뛰어오른 것을 알 수 있다)
(로즈 부인네 집으로 가자)

로즈 : 대령 양반! 전선(戰線)이 북상해 온다는 게 사실이유.

제이드 : 그리 쉽사리 돌파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마을이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로즈 : 어떻게 될려나오. 그런코크마로 피난을 가려 해도 벌써 수도 방위작전에 돌입해 있다는 듯 싶으니.....

제이드 : 예. 그란코크마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도시는 전시 하에서는 요새가 되니까요.

루크 : 어차피 대륙은 위험해. 아예 케세드니 아로 갈 수 없을까.

아니스 : 거기는 자유 상인들의 마을이니까아, 안심이겠죠.

이온 : 예. 아스타라면 받아들여 줄 거예요.

제이드 : 허나 이 마을의 전원을 알비올에 태우는 것은 무리입니다.

제이드 : 그렇다 해서 도보로 전장 안을 이동하는 것도 위험할 겁니다.

로즈 : 노인과 아이들 만이라도 그 알 위시기 인가에 태워 줄 수 없겠수.
로즈 : 나머지는 여기 남았다가 킴라스카 군에게 투항해서.....

루크 : 그래서서 무너져 내릴 위험이 남아 있어!

로즈 : 무너지다니..... 여기가 센트비나나 액제류스처럼 사라진다는 말이니!

제이드 : 유감입니다만 그 말대로입니다.

로즈 :그렇다면 도보로 케세드니아까지 달아나야겠어요. 다행히, 다리도 수리가 되었구.

루크 : 저기. 알비올은 노엘한테 맡기고, 우리도 걸어서 피난하는 사람들을 호위하자.

제이드 : 루크.....
제이드 : 그렇군요. 단지 우리들 만으로는 불안합니다. 엔게이브 주둔군에게 말을 해 두고 오겠습니다.
제이드 : 적어도 우리 후방을 1개 소대가 지켜 준다면.....

(노약자들의 피난이 개시된다)

제이드 : 혹시 예정보다 빨리 반송(搬送)이 끝난 경우, 알비올이 이쪽으로 와 주기로 해 두었습니다.

제이드 : 뭐어.....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루크 : 그렇구만..... 왕복을 몇 번 해야 될지 모르니.

아니스 : 마르쿠트 군의 모두가 뒤쪽을 지켜 준다면 조금은 안심이에요요.

루크 : 어. 아우튼 모두를 지켜내야 돼.

<페이스 채트 '전쟁이! ~ 제이드 루트'>

루크 : 쌍! 왜 전쟁이 시작돼 버린 거냐고.

제이드 : 역시 대영사 모스를 막아 두지 않아선 안 됐었나..... 부주의했습니다.....

루크 : 나탈리아네, 정전(停戰)으로 잘 몰고 갈 수 있을까?

제이드 : 글썽울시다. 어떻게 되든, 엔게이브 사람들은 이동하지 않아선 안 됩니다.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 말입니다.

루크 : 알고 있어! 꾸물거릴 틈은 없다는 말이

켰지.

제이드 :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전장을 민간인과 함께 이동하는 것은,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고생스럽습니다.
제이드 : 만전의 태세로 임하도록 하십시오.

루크 : 어, 그렇게!

제이드 : 당분간 보급도 할 수 없을지 모르니다. 여기서 가능한 한 준비를 하고서 가지요.

루크 : 알았어.

(필드를 뛰어서 케세드니아까지 가자. 먼 여행 길이다)
(도중에 야영을 하게 된다)

제이드 : 여기서 일단 휴식을 취하십시오.

루크 : 대충 무사히 여기까지 왔는데.

제이드 : 예. 잘 하셨습니다. 좀 더 고생할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만 다시 봤습니다.

루크 :지금 어디 쯤이야?

제이드 : 아직 전 여정의 반도 안 될 겁니다.

루크 : 그런가..... 아직 멀었군.

마을 사람 : 저어..... 거기 군인 아저씨는 타르타로스에 타고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만.

제이드 : 예. 타르타로스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마을 사람 : 승무원 중에 '마르코' 라는 병사는 없었습니까?

아니스 : 마르코라면 대령님의 부관이었지요.

마을 사람 : 부관! 그렇습니까! 마르코가 그런 출세를!
마을 사람 : 녀석은 우리 자랑스런 아들놈입니다! 마누라도 기뻐하겠군!

루크 : 어..... 하지만.....

마을 사람 : 그래서, 그 놈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마을 사람 : 이런 전쟁입니다. 전선으로 출병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까.

루크 : 저..... 저기..... 아드님은.....

제이드 : 아버님께는 안되신 일입니다만 아드님께서는 적의 습격을 받아 전사하였습니다.

마을 사람 : !!
마을 사람 : 어, 언제!? 언제였습니까! 이 전 타르타로스가 엔게이브에 왔을 때에는, 그 녀석도 건강하게.....!

제이드 : 그 후였습니다. 도사를 노리던 악한들의 습격에 대항하다 명예로운 전사를 마쳤습니다.

이온 : 죄송합니다. 제 힘이 모자라.....

마을 사람 :그랬습니까. 우리 마르코는 도사님을 지키고서.....
마을 사람 : 마르코가 태어났을 때 로렐라이 교단의 예언사(스코어러)님께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 : 이 아이는 언젠가 고귀한 분의 힘이 되리라고. 그러니 군인으로 키우라는 말을 듣고서.....

마을 사람 :이 불효자놈.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해도 그렇지 부모보다 먼저 갈 줄은.....!

.....

루크 : 마르코는 예언 탓에 죽게 된 게 아닐까.

아니스 : 예언사도 죽음의 예언만은 하지 않아. 죽는다는 예언은 다들 동요하게 되니깐.

이온 : 안타깝지만 그게 규칙인 거랍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은 바꾸어 놓고 싶습니다만.....

루크 : 그런 건 비정상이야..... 액제류스랑 마찬가지로 아니냐고!

제이드 : 여기서 화를 내도 아무 소용이 없습

니다.
제이드 : 지금은 엔게이브의 주민들을 케세드니아에 도착시키는 것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루크 :알았어.

(계속 진행하면 두번째 야영을 하게 된다)

루크 : 겨우 반은 넘었는데.....

주인 : 미안합니다. 여기 흑시 치유술사(힐러)님 아니면 외상약의 예비를 구할 수 없을까요?

제이드 : 부상자이십니까?

미리암 : 아니요..... 제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루크 : 당신은.....? 분명 여자들은 알비올로 이동하라 했었는데.....

주인 : 우리도 그렇게 말했는데 말입니다. 미리암 씨가, 자기는 됐으니 다른 사람을 태워달라며 들질 않길래.....

루크 : 그럴 수가.....

미리암 : 괜찮아요. 당연히 저도 죽을 생각 같은 것은 없지않아요.

미리암 : 단지, 저는 남편도 아이도 잃어버렸기에.....

루크 : 전쟁 탓인가요.

주인 : 이 분 남편 되는 사람은 액제류스 광산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루크 : !!

미리암 : 하필이면, 아들이 아빠를 만나고 싶다면 그 마을에 머무르고 있던 때에 소멸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루크 :어저기.....

제이드 :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허나, 그렇다면 더더욱 당신께서는 살아남지 않으셔서는 안 됩니다.
제이드 : 돌아가신 가족의 뒤편까지.....

미리암 :네.....

제이드 : 약은 이따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이드 : 두 분을 대열로 모셔가게.

.....

루크 : 제이드! 왜 사과하려는데 막은 거야!

제이드 : 지금 여기서 진실을 고해 쓸데없는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이드 : 최악장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훗날, 저 분이 마을로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루크 : 말을 그런 식으로 할 건 없잖어!

제이드 : 액제류스를 소멸시킨 대죄인을 믿고 따라갈 마르쿠트 사람이 있다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군요.

루크 : . . .

제이드 : 사죄를 하시는 것은 자유이십니다만 때와 장소 정도는 가려 주셨으면 합니다.

(세번째 휴식)

제이드 : 겨우 야영지입니다그려. 케세드니아는 이제 바로 코앞입니다.

루크 : 어, 여기까지 부상자를 내지 않고 올 수 있었어. 이 뒤로도.....

제이드 : 그렇습니다. 최후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십시오.

미리암 : 어제는 감사했어요.

루크 : 아..... 당신은.....

미리암 : 덕택에 다리가 나아서 오늘은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었답니다.
미리암 : 당신도 군인이시군요. 그렇게 작은데도.

이온 : 그녀는 제 오른팔이랍니다.

아니스 : 에헤헤~ 그 정도로 대단하긴 하지요 오~.

미리암 : 도사 이온께 그렇게까지 신뢰를 받고 있다니.....

미리암 : 부모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시겠어요. 소중한 딸이 이렇게 훌륭해졌다면서.....

아니스 :아아우어떨까요.

미리암 : 분명 그럴 거랍니다. 부모님께 잘 해드리세요.

아니스 :에.....

이온 :남편 되시는 분과 아드님 일은 안 되셨습니다.

미리암 : 네에..... 이런 때엔 예언이 사람의 수명까지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암 : 그렇게 된다면, 남겨진 시간을 소중한 거 여기러 생각할 테니까요.

이온 :그렇겠습니까? 수명을 알고 나면 자포자기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미리암 : 글썄요. 그 가능성도 있겠지만, 가족을 잃은 지금의 세계는.....

미리암 : 아이 참. 교단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랍니다. 놔두리예요. 단순한.....

이온 :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행운의 예언이 내리기를.

미리암 : 고맙습니다.....

.....

루크 : 난 예언으로 자기 수명을 아는 일 따윈 사양이야. 설사 알게 되더라도 온 힘을 다해 피할 거다.

이온 :그래도 지금 사람들은 예언에 순순히 따르는 사람들 뿐이에요. 유감이지만요.....

아니스 :그래도 그 쪽이 편하니까.....

제이드 :그것이 사람들의 본심일 겁니다.

루크 :그런 건 부자연스러워.....

(이벤트 필드의 출구는 로텔로 다리이다)

[유통거점 케세드니아 남부]

루크 : 겨우 도착했나.....

제이드 : 사상자는 없습니다. 뭐, 넘어져서 다 치거나 한 사람은 있습니다만.

루크 : 그래..... 다행이다. 다들 무사해서.

마을 사람 1 :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마을 사람 2 : 모두가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킴라스카 군인들에게 많이 걸렸다면 아이템이 시시한 것으로 바뀌거나, 아예 없어지는 듯 하다)

마을 사람 1 : 아무리 감사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 2 : 수고하셨습니다!

루크 :헤헤.....

제이드 : 잘 됐군요. 그리고, 정말로 잘 힘내셨습니다.

루크 : 아냐. 제이드나 모두가 도와줘서 그래.

제이드 : 아부하서 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니다.

일행 : (웃는다)

제이드 : 자아, 우리들도 거리로 가십시오.

[한편, 카이틀 킴라스카 군 본부]

나탈리아 : 세실 장군!

세실 : 너희들은 먼저 가라!

세실 :아니 나탈리아 전하!? 살아 계셨습니까!!

나탈리아 : 그래요. 우리들은 살아 있습니다. 이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즉시 군대를 물리세요.

세실 :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 혼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세실 : 이번 작전의 총대장은 알만다인 대장 각하이시므로.

나탈리아 : 그렇다면, 알만다인 백작에게 이야기 하세요!

세실 : 그것이..... 알만다인 대장께서는 대영사 모스와 회담을 나누시기 위하여 케세드니아로 향하셨습니다.

나탈리아 : 케세드니아!? 어째서 전쟁 중에 총대장이 전장을 떠나는 것이지요.

세실 : 이번 작전에 대영사 모스로부터 원수를 갚는다는 인정을 받아 대의명분을 얻는다... 그것을 위한 거러입니다.

티아 : 전투 정당성의 증명은 도사 이온밖에 행하실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도사께서는 이 개전 자체를 부정하고 계세요.

나탈리아 : 그런..... 얼마 안 가 전장도 소멸된단 말이어요!

세실 : 소멸? 마르쿠트 군이 그런 병기를 동원했다는 말씀이신지?

나탈리아 :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찌 되었던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세실 :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에게 군대를 물릴 권한은 없습니다.

나탈리아 : 그렇다면 알만다인 백작을 만나러 가지요.

세실 : 전시 하에서의 해로는 위험합니다. 전하를 배에 태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병사 : 세실 장군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실 : 알았다.

세실 :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이만 어전에서 실례하겠습니다.

세실 : 전하에 대해서는 카이틀 항구에 전령을 보내겠으니 마중을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가이 : 조심하라고.

세실 :? 네? 예예. 고마워요.

.....

나탈리아 : 카이틀에 끌려갔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어요. 육로로 케세드니아로 향하지요!

티아 : 위험해. 전장을 가로지르게 되는 걸.

나탈리아 : 그렇더라도 알만다인 백작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나탈리아 : 우리들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전쟁에 의미가 없다는 일도 알아 주실 터예요.

티아 :어쩔 수 없네. 우리는 하지 말아줘. 신중하게 가자.

가이 : 이런 이런. 넌 고집이 세서 탈이다. 모시겠습니다. 예.

가이 : 그래도 조심해라. 여기서 네가 죽기라도 한다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나탈리아 : 미안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탈리아 팀으로 케세드니아까지 가자. 역시 도중에 야영 이벤트가 있다)

나탈리아 :겨우 야영지까지 왔군요.

티아 : 케세드니아까지는 아직 멀었네.....

일행 : !!!

나탈리아 : 거기 누구 계시나요!?

프링스 : 저입니다.

가이 : 이거 놀랐군. 프링스 장군이신가. 왜 이런 곳에 있어?

나탈리아 : 그래요. 이 근처에는 킴라스카 군이 진을 쳐 두고 있는걸요!

프링스 : 부하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제게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티아 : 그래서 장군님 스스로 척후를? 아니면 나탈리아의 생명을.....

프링스 : 부디 오해하시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당신들께 위해를 가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프링스 : 정찰도 아닙니다. 다만 이 전장을 어서 떠나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나탈리아 : 무슨 말씀이신지?

프링스 : 이대로라면, 저희들은 당신들을 해치지 않아선 안 됩니다.

프링스 : 당신들께서는 킴라스카 진영의 분을 이시니까요.

나탈리아 : 저희들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케세드니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탈리아 : 설사 위험하다 해도 물러날 수는 없사와요.

프링스 : 그것은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질 겁니다.

프링스 : 저는 부하들에게 당신들만을 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티아 : 당신의 입장은 이해가 가요. 저희들도 좋아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프링스 : 알겠습니다..... 사정을 아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을 공격하지 말도록 전해 보겠습니다.

프링스 : 그러나..... 싸우게 되더라도 저희 병사들을 원망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

나탈리아 : 우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해주셨는데..... 미안한 일이에요.

가이 : 하지만 이대로 전쟁이 계속되다간 외곽대지 봉괴에 말려들겠지. 안 그래?

나탈리아 :네. 내일부터도 마르쿠트 분들과는 다투고 싶지 않네요.

티아 : 그래..... 신중하게 가자.

(두번째 야영)

나탈리아 :겨우 오늘의 야영지로군요.

가이 : 어떻게 대충 마르쿠트 군과 마주치지 않고 올 수 있었구만.

나탈리아 : 이 다음도 그랬으면 좋겠사와요.

가이 : 케세드니아까지는 이제 반인가.....

일행 : !!

나탈리아 : 누구이시지요!?

세실 : 세실 소장입니다.

티아 : 어떻게 여기를.....

세실 : 부하에게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 왜 이런 장소에.....

나탈리아 : 말했으 테지요. 이 싸움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라도 알만다인과 만날 생각이어요.

세실 : 무리이십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우리군의 세력권입니다. 아무쪼록 카이틀로 돌아가 주십시오. 너무 위험합니다.

티아 : 이대로 전쟁을 계속하다가는 모두가 목숨을 잃게 돼요.

세실 : 우리 군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나탈리아 : 그런 이야기가 아니어요. 이 전쟁터 자체가 위험하답니다.

나탈리아 : 이대로는 킴라스카 군도 마르쿠트 군도 소멸되어 버리겠지요.

세실 : 전하..... 제 입장도 생각해 주십시오.

나탈리아 : 당신에게는 미안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것이 제 사명인 거예요.

세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호위는 따르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탈리아 :알겠사워요. 그 성의는 감사히 받아들이지요.

티아 : 하지만 너무 수가 많으면 거꾸로 눈에 띄게 될 거예요.

세실 : 예, 잘 알겠습니다. 내일 이후, 우리 군의 1 개 소대를 여러분의 후방에 붙이겠습니다.
세실 : 아무쪼록 조심하세요.....

(세번째 야영)

나탈리아 :여기가 오늘의 휴식 장소로군요.

티아 : 케세드니아까지 얼마 안 남았어.

나탈리아 : 네에.....

일행 : !!!!

나탈리아 : 누구이신지?!

프링스 & 세실 : !!

프링스 :킴라스카 군!

세실 : 마르쿠트 군인가!

티아 : 두분 다 그만하세요!

세실리아 : 세실 장군. 검을 거두세요. 이 분은 우리들에게 해를 끼칠 분이 아니셔요.

세실 : 하지만!

프링스 : 세실 장군.....? 당신이 킴라스카 군의.....

세실 : 귀공은 누구이신가.

프링스 :아스란 프링스 소장이다.

세실 : 프링스 장군이었나!

티아 : 우리들은 정전을 위해 케세드니어로 항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앞에서 싸우시는 건 그만 두어 주세요.

프링스 : 그 일로 왔습니다. 여러분의 후방에 있는 킴라스카 호위를 해산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세실 : 무슨 소리인가! 여기서부터는 마르쿠트의 세력권이야. 나는 호위를 증원시킬 허락을 받으려 왔단 말이다!

프링스 : 이 부근에서 케세드니아 주변까지의 우리 군에게는, 사정을 설명해 두었다.
프링스 : 나탈리아 전하 일행만이라면 통행시켜 드릴 수 있지만, 킴라스카 군이 따라붙어 있다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네.

세실 : 그런 이야기를 신용할 수 있겠나.

나탈리아 : 기다리세요, 세실 장군. 프링스 장군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랍니다.

세실 : 그렇습니다만.....

나탈리아 : 이미 결정했어요.

프링스 : 무슨 일이 있을 때엔, 내가 스스로의 목숨으로 사죄하겠습니다.

나탈리아 : 세실. 제게 명령을 내리게 만들지 말아 주세요.....

세실 :귀공 따위의 목숨으로 나탈리아 님의 고귀하신 생명을 대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는 나탈리아 님을 위해 내가 물러나지.

프링스 : 드릴 말씀이 없군.

나탈리아 : 그럼 두 분 모두, 이대로 다투시지 말고 진영으로 돌아가시도록 하시어요. 아시겠지요.

.....

티아 : 내일은 마르쿠트 군이 공격해 올 일은 없다는 이야기구나.

나탈리아 :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어요. 우리가 호위가 없으니까요.

티아 : 응. 그 말대로야.

(네번째 야영)

나탈리아 : 오늘은 이 쯤에서 휴식하지요.

[유통거점 케세드니아 북부]

나탈리아 : 여러분. 고마워요. 덕분에 필요없는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티아 : 아직 안심해서는 안 돼. 이제부터 알만다인 백작을 설득하지 않아선 안 되는 걸.

나탈리아 : 네.

(엔게이브 팀과 마찬가지로, 전투를 잘 피해서 왔다면 좋은 아이템을 얻는다)

[유통거점 케세드니아 시장]

루크 :저건!

나탈리아 : 루크!

루크 : 왜 여기 있어!? 전쟁을 말린대던 건 대체.....

나탈리아 : 총대장 알만다인 백작이 대영사 모스와의 회담을 위해 케세드니아로 향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루크 : 저, 전쟁터를 뛰어왔단 말야! 바보 아냐 너! 위험하잖아!!

나탈리아 : 다, 당신께서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셨지 않아요!?

가이 : 둘 다 진정 좀 하라고.

이온 : 그래요. 이 마을에 정전(停戰)의 중요한 물이 있는걸요.

이온 : 여기서 다투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러 가지요.

루크 : 어..... 그런가. 그랬었지. 그 쪽이 더 중요하니까.

<페이스 채트 '무사 합류'>

루크 : 나 참, 위험하게시리 말야.

제이드 : 그것은 피차일반, 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가이 : 모, 양튼 무사하게 합류해서 다행이야.

유우 : 진짜 그래영~.

티아 : 엔게이브 사람들도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야.

나탈리아 : 그렇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랍니다.

아니스 : 맞아! 말리 알만다인 백작을 만나서 얘길 해야지.

이온 : 예. 서두르지요!

(시장을 내려가면 알만다인과 모스를 보게 된다)

나탈리아 : 알만다인 백작! 이건 어떻게 된 일이지요!

알만다인 : 나탈리아 전하!?

나탈리아 : 제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마르쿠트 황제 피오니 9세 폐하에게서도 말이 있었을 텐데요!

알만다인 : 그러나 실제로 전하를 알현해 볼 수는 없었기에, 폐하께서 마르쿠트의 모략이라

하시며.....

나탈리아 : 제가 금방 성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제 부덕함 때문입니다.
나탈리아 : 하지만 이렇게 만난 지금 더 이상 이 전쟁에 대의는 없어요. 즉시 휴전 준비에 착수하십시오!

루크 : 알만다인 백작. 루크입니다.

알만다인 !! 살아..... 계셨단 말인가.....!

루크 : 액제류스가 소멸되었던 건 내가 — 제가 초래한 일입니다.
루크 : 비난을 받을 사람은 마르쿠트가 아닌 이 루크 폰 파브레 단 한명!

나탈리아 : 이번 싸움이 오해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루크 : 그리고, 지금 전장이 되어 있는 루그니카 평야는, 액제류스와 마찬가지로 붕괴..... 소멸될 위험이 있어!

나탈리아 : 자아, 싸움을 그만두고 지금 당장 국경을 여세요!

모스 : 기다리시게, 여러분. 가짜 공주에게 신하의 예를 취할 필요는 없소이다.

나탈리아 : 무례한 것! 아무리 로렐라이 교단의 대영사라 하더라도,
나탈리아 : 나를 모욕하는 것은 킴라스카 란발디어 왕국을 모욕하는 일이다!

모스 : 나는 전부터, 경건한 신자에게서 비통한 참회를 받아오고 있었다.
모스 : 그 사나이는, 왕비의 시녀와 자신 사이에 태어난 여자아이들, 황송하게도 왕녀 전하와 바꿔쳤다고 털어놓았다.

루크 : 헛소리 집어쳐!

모스 : 헛소리가 아니다. 그럼 그 자의 머리칼과 눈동자 색은 어떻게 되나.
모스 : 과거부터, 란발디어 왕가에 태어난 자는 붉은 머리칼과 녹색 눈동자를 가졌었다.
모스 : 허나, 저 자는 금발, 돌아가신 왕비님께서 여두운 밤과 같은 흑발이셨지 않았나.
모스 : 이 이야기는 이미 폐하에게도 전했다. 확실한 증거물과 함께 말이지.
모스 : 바티칼에 간다면, 폐하께서는 그대에게 나라를 속인 대죄인으로서 벌을 내리시겠지!

나탈리아 : 그런..... 그럴 리가 없사워요.....

(나탈리아에게 '가짜 공주님'의 칭호.....)

모스 : 백작님. 슬슬 전쟁터로 돌아가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알만다인 :으, 으음. 그렇구려.

루크 : 이봐, 기다려! 전장이 무너진단 말야!!

모스 : 그게 어쩔다는 건가.

일행 : !!!!!

모스 : 전쟁만 무사히 발생시킨다면 예언은 완수되는 셈이 된다.
모스 : 유리아 시티 놈들은 겨우 붕괴 따위를 가지고 무엇을 두려워하는 건지.

티아 : 대영사 모스..... 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모스 : 흥. 진짜로 무서운 자는 네 오빠가 아니겠나.

모스 : 그보다 도사 이온. 이제와서 아직도 정전을 주장하실 셈이십니까.

이온 : 아니오. 저는 한번 다아트로 돌아가려 생각합니다.

아니스 : 이온 님!? 진심이세요!?
아니스 : 귀국하신다면, 총장이 트리를 없애기 위해 세피르트의 봉인을 열라고 시킬 거라구요요!

모스 : 반이 멋대로 나서지는 못하게 할 것이다.

모스 :역시 이 이상, 외각 붕괴를 노리게 해서는 약간 귀찮으니 말이지.

아니스 : 실력 행사로 나온다면.....

이온 : 그렇게 되면, 아니스가 도우러 와 주겠지요.

아니스 :후해?

이온 : 창사(唱師) 아니스 타틀린. 현재 부로, 당신을 폰마스터 가디언(고사수호역) 직에서 해임하겠습니다.

아니스 : 자, 잠깐 기다려 주세요! 그런 건 곤란해요!!

이온 : (소근)루크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마시고 잘 지키면서, 전해 들은 것은 나중에 반드시 제게 전해 주세요.

아니스 : !!

(아니스에게 '전 수행원' 의 칭호)

이온 : 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께도 아니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온 : 다아트로 가지지요.

모스 :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

루크 : 이온 녀석, 무슨 생각이 있어서.....

제이드 : 아니스를 여기에 남겨 두셨다는 것은, 조만간에 다시 돌아오실 생각이시겠지요. 그보다 ——.

나탈리아 :저라면, 괜찮아요. 그보다 바티칼로 가지요.

나탈리아 : 이제 킴라스카 군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버..... 아니 국왕 폐하 뿐이시랍니다...

티아 : 그렇다면 국경을 넘을 방법을 찾지 않아선 안 돼.

제이드 : 여기는 국경선 위의 거점입니다. 분명 뚫고 들어갈 곳이 있을 겁니다.

가이 : 루크. 한동안 나탈리아한테서 눈 떴지 마라. 걱정된다.

루크 :어.

<페이스 채트 '나탈리아의 비밀'>

아니스 : 나탈리아, 진짜 공주님이 아닌 걸까.....

가이 : 진짜이건 아니건, 우리에게 있어선 아무 다를 바 없어. 그렇지?

제이드 : 우리들은 그래도 좋겠습니다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나 할까요.

티아 : 그래요, 걱정이 돼.

루크 : 나도 자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던 때, 엄청 엄청 좌절했었지.....

루크 : 모스 저 자식..... 설사 구라였다 하더라도 용서 못 해.....

티아 : 루크.....

제이드 : 그녀의 문제는 그녀 자신이 답을 찾아내지 않아선 안 됩니다.

제이드 : 쌀쌀맞은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은 전쟁을 멈추는 일부터 생각하십시오.

루크 : 그래야, 되나.....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15 , 티아 동행 엔게이브 루트)

<선택지>

엔게이브로 갈까 ← 선택
카이트를 낮출까

루크 : 엔게이브로 갈까. 거기 사람들한테 신세도 족고 하니까. 신경 쓰여.

가이 : 알았어, 그럼 편성은 어쩔래.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있냐?

(선택 - 티아)

티아 : 다행이야. 선택해 줘서. 정신 바짝 차

리고 해 나가자.

아니스 : 이온 님은 저랑 같이 가 주세요.

이온 :그러, 지요.

제이드 : 일단 카이트를 부근에서 나탈리아 팀을 내려 놓읍시다. 그 후 우리들은 알비올로 엔게이브에 가는 겁니다.

루크 : 그거면 됐어. 다들, 가자.

(나탈리아 팀과 카이트에서 헤어진다)

[식량의 마을 엔게이브]

(식량을 포함한 물자의 가격이 경총 뛰어오른 것을 알 수 있다)
(로즈 부인네 집으로 가자)

로즈 : 대령 양반! 전선(戰線)이 북상해 온다는 게 사실어우.

제이드 : 그리 쉽사리 돌파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마을이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로즈 : 어떻게 될려나요. 그런코크마로 피난을 가려 해도 벌써 수도 방위작전에 돌입해 있다는 듯 싶으니.....

제이드 : 예. 그란코크마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도시는 전시 하에서는 요새가 되니까요.

루크 : 어차피 대륙은 위험해. 아예 케세드니아로 갈 수 없을까.

티아 : 맞아. 교단의 지배력이 강한 마을이니가 전장에 가까워도 안전할 거야.

제이드 : 허나 이 마을의 전원을 알비올에 태우는 것은 무리입니다.

제이드 : 그렇다 해서 도보로 전장 안을 이동하는 것도 위험할 겁니다.

로즈 : 노인과 아이들 만이라도 그 알 워시기 인간에 태워 줄 수 없겠수.

로즈 : 나머지는 여기 남았다가 킴라스카 군에게 투항해서.....

루크 : 그래서 무너져 내릴 위험이 남아 있어!

로즈 : 무너지다니..... 여기가 센트비나나 액제류스처럼 사라진다는 말이니!

제이드 : 유감입니다만 그 말대로입니다.

로즈 :그렇다면 도보로 케세드니아까지 달아나야겠어요. 다행히, 다리도 수리가 되었구.

루크 : 저기. 알비올은 노엘한테 맡기고, 우리도 걸어서 피난하는 사람들을 호위하자.

제이드 : 루크.....

제이드 : 그렇군요. 단지 우리들 만으로는 불안합니다. 엔게이브 주둔군에게 말을 해 두고 오겠습니다.
제이드 : 적어도 우리 후방을 1개 소대가 지켜준다면.....

(노약자들의 피난이 개시된다)

제이드 : 혹시 예정보다 빨리 반송(搬送)이 끝난 경우, 알비올이 이쪽으로 와 주기로 해 두었습니다.

제이드 : 뭐어.....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루크 : 그렇구만..... 왕복을 몇 번 해야 될지 모르니.

티아 : 마르크트 군이 병사들을 빌려 준 게 그나마 다행이야. 등 뒤를 신경쓰지 않아도 될 테니까.

루크 : 여. 아무튼 모두를 지켜내야 돼.

<페이스 채트 '전쟁이! ~ 제이드 루트'>

루크 : 쌍! 왜 전쟁이 시작돼 버린 거냐고.

제이드 : 역시 대영사 모스를 막아 두지 않아선 안 됐었나..... 부주의했습니다.....

루크 : 나탈리아네, 정전(停戰)으로 잘 몰고 갈 수 있을까?

제이드 : 글썽울시다. 어떻게 되든, 엔게이브 사람들은 이동하지 않아선 안 됩니다.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 말입니다.

루크 : 알고 있어! 꾸물거릴 틈은 없다는 말이겠지.

제이드 :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전장을 민간인과 함께 이동하는 것은,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고생스럽습니다.
제이드 : 만전의 태세로 임하도록 하십시오.

루크 : 어, 그렇게!

제이드 : 당분간 보급도 할 수 없을지 모르니다. 여기서 가능한 한 준비를 하고서 가지요.

루크 : 알았어.

(필드를 뛰어서 케세드니아까지 가자. 먼 여정 같이 된다)
(도중에 야영을 하게 된다)

제이드 : 여기서 일단 휴식을 취하십시오.

루크 : 대충 무사히 여기까지 왔는데.

제이드 : 예. 잘 하셨습니다. 좀 더 고생할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만 다시 봤습니다.

루크 :지금 어디 쯤이야?

제이드 : 아직 전 여정의 반도 안 될 겁니다.

루크 : 그런가..... 아직 멀었군.

마을 사람 : 저어..... 거기 군인 아저씨는 타르타로스에 타고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만.

제이드 : 예. 타르타로스를 지휘하고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마을 사람 : 승무원 중에 '마르크' 라는 병사는 없었습니까?

루크 : 마르크라면 제이드 부관이었지 아마.

마을 사람 : 부관! 그렇습니까! 마르크가 그런 출세를!

마을 사람 : 녀석은 우리 자랑스런 아들놈입니다! 마누라도 기뻐하겠군!

티아 : 하지만..... 그는.....

마을 사람 : 그래서, 그 놈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요?

마을 사람 : 이런 전쟁입니다. 전선으로 출병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까.

루크 : 저..... 저기..... 아드님은.....

제이드 : 아버님께는 안되신 일입니다만 아드님께서는 적의 습격을 받아 전사하셨습니다.

마을 사람 : !!

마을 사람 : 어, 언제!? 언제였습니까! 이 전 타르타로스가 엔게이브에 왔을 때에는, 그 녀석도 건강하게.....!

제이드 : 그 후였습니다. 도사를 노리던 악한들의 습격에 대항하다 명예로운 전사를 마쳤습니다.

이온 : 죄송합니다. 제 힘이 모자라.....

마을 사람 :그랬습니까. 우리 마르크는 도사 이온을 지키고서.....

마을 사람 : 마르크가 태어났을 때 로렐라이 교단의 예언사(스코어러)님께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 : 이 아이는 언젠가 고귀한 분의 힘이 되리라. 그러니 군인으로 키우라는 말을 듣고서.....

마을 사람 :이런 못난 놈.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해도 그렇지 부모보다 먼저 갈 줄은.....!

.....

루크 : 마르크는 예언 탓에 죽게 된 게 아닐까.

티아 : 예언사도 죽음의 예언만은 하지 않아. 해서는 안 되게 정해져 있어.

티아 : 가령 그 예언에 죽음이 쓰여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루크 : 그런 건 비정상이야..... 액제류스랑 마찬가지로 아니냐고!

제이드 : 여기서 화를 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이드 : 지금은 엔게이브의 주민들을 케세드니아에 도착시키는 것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루크 :알았어.

(계속 진행하면 두번째 야영을 하게 된다)

루크 : 겨우 받은 넘었는데.....

주민 : 미안합니다. 여기 혹시 치유술사(힐러)님 아니면 외상약의 예비를 구할 수 없을까요?

티아 : 저도 일단은, 치유술사입니다.

제이드 : 부상자이십니까?

미리암 : 아니요..... 제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루크 : 당신은.....? 분명 여자들은 알비올로 이동하라 했었는데.....

주민 :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데 말입니다. 미리암 씨가, 자기는 됐으니 다른 사람을 태워달라며 들쭉 날갈래.....

루크 : 그럴 수가.....

미리암 : 괜찮아요. 당연히 저도 죽을 생각 같은 것은 없지만요.
미리암 : 단지, 저는 남편도 아이도 잃어버렸기에.....

루크 : 전쟁 탓인가요.

주민 : 이 분 남편 되는 사람은 액제류스 광산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루크 : !!

미리암 : 하필이면, 아들이 아빠를 만나고 싶다면서 그 마을에 머무르고 있던 때에 소멸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루크 :어저기.....

제이드 :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허나, 그렇다면 더더욱 당신께서는 살아남지 않으셔서 안 됩니다.
제이드 : 돌아가신 가족의 뉘까지.....

미리암 :네.....

제이드 : 티아, 저 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이드 : 두 분을 대열로 모셔가게.

.....

루크 : 제이드! 왜 사과하려는데 막은 거야!

제이드 : 지금 여기서 진실을 고해 쓸데없는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이드 : 죄악감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훗날, 저 분이 마을로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루크 : 말을 그런 식으로 할 건 없잖아!

제이드 : 액제류스를 소멸시킨 대죄인을 믿고 따라갈 마르쿠트 사람이 있다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군요.

루크 :

제이드 : 사죄를 하시는 것은 자유이십니다만 때와 장소 정도는 가려 주셨으면 합니다.

(세번째 휴식)

제이드 : 겨우 야영지입니다그러. 케세드니아는 이제 바로 코앞입니다.

루크 : 어. 여기까지 부상자를 내지 않고 올 수 있었어. 이 뒤로도.....

제이드 : 그렇습니다. 최후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십시오.

미리암 : 어제는 감사했어요.

루크 : 아..... 당신은.....

미리암 : 티아 씨 덕분에 다리가 나아져 오늘엔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었답니다.

티아 : 아니요, 치유술사로서 당연한 일인걸요.

미리암 : 티아 씨는 다아트 오라클 기사단에 소속되어 계시는군요?

티아 : 아..... 네. 그렇습니다.

미리암 : 부모님께서 걱정은 안 하세요?

티아 :두분 다 별세하셨으니까요.

미리암 : 어머..... 미안해요. 그랬군요. 쓸쓸하겠어요.

티아 :아니요.....

미리암 : 쓸쓸하지 않으리라고요. 저도 남편이랑 아들을 잃고 나니..... 마음이 구멍이 뿅 뿅러 버렸답니다.
미리암 :정말, 예언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전해 줄려나오.

티아 : 예언은..... 아뇨, 예언이 뭐라고 말하던, 전쟁은 끝내지 않아선 안 돼요.

미리암 : 하지만 예언에 아직 10년은 전쟁이 계속된다고 나와 있다면 싸움은 그만큼 계속될 거잖아요?

티아 :10년 계속된다 노래되더라도 계속되게 해선 안된다 생각해요.

루크 :티아.....

미리암 :다아트에 계시는 본인데도 무서운 말을 하시네요.
미리암 : 하지만.....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고맙았어요 티아 씨.

.....

루크 :티아. 달라졌구나 너. 괜찮겠냐?

티아 :예언에서 벗어나다니, 실은 무서워.
티아 :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예언에 의지하는 건 더 무서우니까.....

제이드 : 그러시겠지요. 심경이 복잡하실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루크 :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진짜 예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모양인데.
루크 : 난 갇혀 살았던 만큼 예언과는 거의 접촉한 적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이드 : 그렇군요. 예언은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이벤트 필드의 출구는 로텔로 다리이다)

[유통거점 케세드니아 남부]

루크 : 겨우 도착했다.....

제이드 : 사상자는 없습니다. 워, 넘어져서 다치거나 한 사람은 있습니다만.
루크 : 그래..... 다행이다. 다들 무사해서.

마을 사람 1 :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마을 사람 2 : 모두가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다. 이걸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킴라스카 군인들에게 많이 걸렸다면 아이템이 시시한 것으로 바뀌거나, 아예 없어지는 듯 하다)
마을 사람 1 : 아무리 감사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 2 : 수고하셨습니다!

루크 :헤헤.....

제이드 : 잘 됐군요. 그리고, 정말로 잘 힘내

셨습니다.

루크 : 아냐. 제이드나 모두가 도와줘서 그래.

제이드 : 아부하셔 봤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다.

일행 : (웃는다)

제이드 : 자아, 우리들도 거리로 가십시오.

[한편, 카이틀 킴라스카 군 본부]

나탈리아 : 세실 장군!

세실 : 너희들은 먼저 가라!
세실 :아니 나탈리아 전하!? 살아 계셨습니까!!

나탈리아 : 그래요. 우리들은 살아 있습니다. 이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즉시 군대를 물리세요.

세실 :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 혼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세실 : 이번 작전의 총대장은 알만다인 대장 각하이시므로.

나탈리아 : 그렇다면, 알만다인 백작에게 이야기 하세요!

세실 : 그것이..... 알만다인 대장께서는 대영사 모스와 회담을 나누시기 위하여 케세드니아로 향하셨습니다.

나탈리아 : 케세드니아!? 어쩌서 전쟁 중에 총대장이 전장을 떠나는 것인지요.

세실 : 이번 작전에 대영사 모스로부터 원수를 갚는다는 인정을 받아 대의명분을 얻는다... 그것을 위한 거래입니다.

아니스 : 진짜예요!? 그런 건 원래 이온 남이 결정하시는 일인데. 모스 그 인간, 진짜 열받아!

이온 : 그건 형식 상의 일이나가요.
이온 : 그래도, 역시 그렇게 나왔어 이거군요. 제가 다아트를 떠나선 안 되는 것이었잖아요.....?

아니스 : 무슨 말씀이세요. 다아트에 계셨다면 세피르트의 봉인이나 풀고 계셨을 거라구요.

나탈리아 : 그런..... 얼마 안 가 전장도 소멸된단 말이어요!

세실 : 소멸? 마르쿠트 군이 그런 병기를 동원했다는 말씀이신지?

나탈리아 :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위험한 상황이라구요.

세실 :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에게 군대를 물릴 권한은 없습니다.

나탈리아 : 그렇다면 알만다인 백작을 만나러 가지요.

세실 : 전시 하에서의 해로는 위험합니다. 전하를 배에 태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병사 : 세실 소장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실 : 알았다.
세실 :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이만 어전에서 실려하겠습니다.
세실 : 전하에 대해서는 카이틀 항구에 전령을 보내겠으니 마중을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가이 : 조심하라고.
세실 :네? 예예. 고마워요.
.....
나탈리아 : 카이틀에 끌려갔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어요. 육로로 케세드니아로 향하지요!
이온 : 케세드니아로 가려면 그 방법밖에 없겠지요.
아니스 : 위험하세요! 그런 일은 하시게 할 수 없어요!
나탈리아 : 그렇더라도 알만다인 백작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나탈리아 : 우리들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전쟁에 의미가 없다는 일도 알아 주실 터예요.

이온 : 가시지요. 아니스.

아니스 : 이온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어쩔 수 없네요..... 정말~.....

가이 : 이런 이런. 난 고집이 세서 탈이다. 모시겠습니다. 예.
가이 : 그래도 조심해라. 여기서 네가 죽거나 한다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나탈리아 : 미안해요. 잘 부탁드립니다와요.

(나탈리아 팀으로 케세드니아까지 가자. 역시 도중에 야영 이벤트가 있다)

나탈리아 :겨우 야영지까지 왔군요.

가이 : 케세드니아까지는 아직 멀었지.

일행 : !!!

나탈리아 : 거기 누구 계시나요!?

프링스 : 저입니다.

가이 : 이거 놀랐군. 프링스 장군이신가. 왜 이런 곳에 있어?

나탈리아 : 그래요. 이 근처에는 킨라스카 군이 진을 쳐 두고 있는걸요!

프링스 : 부하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제게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가이 : 정찰은 장군 스스로가 할 일이 아니라 생각되는데..... 설마 나탈리아를 싸움에 이용하려는 생각은 아니겠지.

프링스 : 부디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당신들께 위해를 가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프링스 : 정찰도 아닙니다. 다만 이 전장을 어서 떠나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나탈리아 : 무슨 말씀이신지?

프링스 : 이대로라면, 저희들은 당신들을 해치지 않아선 안 됩니다.

프링스 : 당신들께서는 킨라스카 진영의 분들 이시니까요.

나탈리아 : 저희들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케세드니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탈리아 : 설사 위험하다 해도 물러날 수는 없사와요.

프링스 : 그것은 당치 않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제부터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질 겁니다.

프링스 : 저는 부하들에게 당신들만을 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스 : 그야 뭐, 장군님 말도 이해는 가요. 하지만 우리도 못 물러난다구요.

아니스 : 아, 그래도 싸우고 싶다는 소리 아닌 거 아시죠?

프링스 : 알겠습니다..... 사정을 아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을 공격하지 말도록 전해 보겠습니다.

프링스 : 그러나..... 싸우게 되더라도 저희 병사들을 원망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

나탈리아 : 우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해주셨는데..... 미안한 일이에요.

가이 : 하지만 이대로 전쟁이 계속되다간 외곽 대지 봉괴에 알려들겠지. 안 그래?

나탈리아 :네. 내일부터도 마르쿠트 분들과는 다투고 싶지 않네요.

이온 : 예. 신중하게 가시지요.

(두번째 야영)

나탈리아 :겨우 오늘의 야영지로군요.

가이 : 어떻게 대충 마르쿠트 군과 마주치지 않고 올 수 있었구만.

나탈리아 : 이 다음도 그랬으면 좋겠사와요.

가이 : 케세드니아까지는 이제 반인가.....

일행 : !!

나탈리아 : 누구이시지요!?

세실 : 세실 소장입니다.

티아 : 어떻게 여기를.....

세실 : 부하에게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장소에.....

나탈리아 : 말했을 테지요. 이 싸움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라도 알만다인과 만날 생각이어요.

세실 : 무리입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우리군의 세력권입니다. 아무쪼록 카이틀로 돌아가 주십시오. 너무 위험합니다.

가이 : 이대로 전쟁이 계속되면 모두 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세실 : 우리 군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나탈리아 : 그런 이야기가 아니어요. 이 전쟁터 자체가 위험하답니다.

나탈리아 : 이대로는 킨라스카 군도 마르쿠트 군도 소멸되어 버리겠지요.

세실 : 전하..... 제 입장도 생각해 주십시오.

나탈리아 : 당신에게는 미안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것이 제 사명인 거예요.

세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호위는 따르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나탈리아 :알겠사와요. 그 성의는 감사히 받아들여지죠.

가이 : 그래도, 너무 큰 규모가 되면 괜히 더 눈에 띄 수밖에 없을걸.

세실 : 예. 잘 알겠습니다. 내일 이후, 우리군의 1 개 소대를 여러분의 후방에 풀어놓겠습니다.

세실 : 아무쪼록 조심하세요.....

(세번째 야영)

나탈리아 :여기가 오늘의 휴식 장소로군요.

가이 : 케세드니아까지 이제 금방이다.

나탈리아 : 네에.....

일행 : !!!!

나탈리아 : 누구이신지!?

프링스 & 세실 : !!

프링스 :킨라스카 군!

세실 : 마르쿠트 군인가!

가이 : 둘 다 그만 뒤!

세실리아 : 세실 장군. 겸을 거두세요. 이 분은 우리들에게 해를 끼칠 분이 아니셔요.

세실 : 하지만!

프링스 : 세실 장군.....? 당신이 킨라스카 군의.....

세실 : 귀공은 누구이신가.

프링스 :아스란 프링스 소장이다.

세실 : 프링스 장군이었던!

가이 : 우린 전정을 위해 케세드니아로 향하고 있다고.

가이 : 그런 우리 앞에서 싸우겠다는 걸 우리가 가만 놔둘 거라 생각하쇼.

프링스 : 그 일로 왔습니다. 여러분의 후방에 있는 킨라스카 호위를 해산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세실 : 무슨 소리인가! 여기서부터는 마르쿠트의 세력권이야. 나는 호위를 증원시킬 허락을

받으러 왔단 말이다!

프링스 : 이 부근에서 케세드니아 주변까지의 우리 군에게는, 사정을 설명해 두었다.
프링스 : 나탈리아 전하 일행만이라면 통행시켜 드릴 수 있지만, 킨라스카 군이 따라붙어 있다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네.

세실 : 그런 이야기를 신용할 수 있겠나.

나탈리아 : 기다리세요, 세실 장군. 프링스 장군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랍니다.

세실 : 그렇습니다만.....

나탈리아 : 이미 결정했어요.

프링스 : 무슨 일이 있을 때엔, 내가 스스로의 목숨으로 사죄하겠다.

나탈리아 : 세실. 제게 명령을 내리게 만들지 말아 주세요.....

세실 :귀공 따위의 목숨으로 나탈리아 님의 고귀하신 생명을 대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는 나탈리아 님을 위해 내가 물러나지.

프링스 : 드릴 말씀이 없군.

나탈리아 : 그럼 두 분 모두, 이대로 다투시지 말고 진영으로 돌아가시도록 하시어요. 아시겠지요.

.....

아니스 : 내일은 마르쿠트 군인들이 공격 안 해오겠구나.

나탈리아 :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어요. 우리도 호위가 없으니까요.

아니스 : 알구 있어어.

(네번째 야영)

나탈리아 : 오늘은 이 쯤에서 휴식하지요.

[유통거점 케세드니아 북부]

나탈리아 : 여러분, 고마워요. 덕분에 필요없는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가이 : 그래도, 아직 일이 남아 있다. 알만다인 백작을 설득해야 되잖아?

나탈리아 : 네.

(엔게이브 팀과 마찬가지로, 전투를 잘 피해서 왔다면 좋은 아이템을 얻는다)

[유통거점 케세드니아 시장]

루크 :저런!

나탈리아 : 루크!

루크 : 왜 여기 있어!? 전쟁을 말린다면 건 대체.....

나탈리아 : 총대장 알만다인 백작이 대영사 모스와의 회담을 위해 케세드니아로 향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루크 : 저, 전쟁터를 뛰어왔단 말야! 바보 아냐 너! 위험하잖아!!

나탈리아 : 다, 당신께서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셨지 않아요!?

가이 : 둘 다 진정 좀 하라고.

이온 : 그래요. 이 마을에 정전(停戰)의 중요한 물이 있는걸요.

이온 : 여기서 다투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러 가지요.

루크 : 어..... 그런가. 그랬었지. 그 쪽이 더 중요하니까.

루크 : 어..... 그런가. 그랬었지. 그 쪽이 더 중요하니까.

<페이스 채트 '무사 함류'>

루크 : 나 참, 위험하게서리 말야.

제이드 : 그것은 피차일반,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이 : 모, 암튼 무사하게 합류해서 다행이다 야.

유우 : 진짜 그래요~.

티아 : 엔게이브 사람들도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야.

나탈리아 : 그렇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랍니다.

아니스 : 맞아! 말리 알만다인 백작을 만나서 애길 해야지.

이온 : 예, 서두르지요!

(시장을 내려가면 알만다인과 모스를 보게 된다)

나탈리아 : 알만다인 백작! 이걸 어떻게 된 일이지요!

알만다인 : 나탈리아 전하?

나탈리아 : 제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마르쿠트 황제 피오니 9 세 페하에게서도 말이 있었을 텐데요!

알만다인 : 그러나 실제로 전하를 알현해 볼 수는 없었기에, 페하께서 마르쿠트의 모략이라 하시며.....

나탈리아 : 제가 금방 성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제 부덕함 때문입니다.

나탈리아 : 하지만 이렇게 만난 지금 더 이상이 전쟁에 대의는 없어요. 즉시 휴전 준비에 착수하십시오!

루크 : 알만다인 백작. 루크입니다.

알만다인 !! 살아..... 계셨단 말인가.....!

루크 : 액제류스가 소멸되었던 건 내가 — 제가 초래한 일입니다.

루크 : 비난을 받을 사람은 마르쿠트가 아닌 이 루크 폰 파브레 단 한명!

나탈리아 : 이번 싸움이 오해에서 일어난 것이 라면, 한시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나요!

루크 : 그리고, 지금 전장이 되어 있는 루크니 카 평야는, 액제류스와 마찬가지로 붕괴..... 소멸될 위험이 있어!

나탈리아 : 자아, 싸움을 그만두고 지금 당장 국경을 여세요!

모스 : 기다리시게, 여러분. 가짜 공주에게 신하의 예를 취할 필요는 없소이다.

나탈리아 : 무례한 것! 아무리 로렐라이 교단의 대영사라 하더라도.

나탈리아 : 나를 모욕하는 것은 킴라스카 란발 디어 왕국을 모욕하는 일이다!

모스 : 나는 전부터, 경건한 신자에게서 비통한 참회를 받아오고 있었다.

모스 : 그 사나이는, 왕비의 시녀와 자신 사이에 태어난 여자아이를, 황송하게도 왕녀 전하와 바꿔쳤다고 털어놓았다.

루크 : 헛소리 집어쳐!

모스 : 헛소리가 아니다. 그럼 그 자의 머리칼과 눈동자 색은 어떻게 되나.

모스 : 과거부터, 란발디어 왕가에 태어난 자는 붉은 머리칼과 녹색 눈동자를 가졌었다.

모스 : 허나, 저 자는 금발. 돌아가신 왕비님께서는 어두운 밤과 같은 흑발이셨지 않았나.

모스 : 이 이야기는 이미 페하에게도 전했다. 확실한 증거물과 함께 말이지.

모스 : 바티칼에 간다면, 페하께서는 그대에게 나라를 속인 대죄인으로서 벌을 내리시겠지!

나탈리아 : 그런..... 그럴 리가 없사와요.....

(나탈리아에게 '가짜 공주님' 의 칭호.....)

모스 : 백작님, 슬슬 전쟁터로 돌아가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알만다인 :으, 으음. 그럴구려.

루크 : 이봐, 기다려! 전장이 무너진단 말야!!

모스 : 그게 어쩔다는 겐가.

일행 : !!!!!

모스 : 전쟁만 무사히 발생시킨다면 예언은 완수되는 셈이 된다.

모스 : 유리아 시티 농들은 겨우 붕괴 따위를 가지고 무엇을 두려워하는 건지.

티아 : 대영사 모스..... 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모스 : 흥, 진짜로 무서운 자는 네 오빠가 아니겠나.

모스 : 그보다 도사 이온. 이제와서 아직도 정전을 주장하실 셈이십니까.

이온 : 아니오. 저는 한번 다아트로 돌아가려 생각합니다.

아니스 : 이온 님!? 진심이세요!?
아니스 : 귀국하신다면, 총장이 트리를 없애기 위해 세피로트의 봉인을 열라고 시킬 거라구요요!

모스 : 반이 멋대로 나서지는 못하게 할 것이다.

모스 :역시 이 이상, 외각 붕괴를 노리게 해서는 약간 귀찮으니 말이지.

아니스 : 실력 행사로 나온다면.....

이온 : 그렇게 되면, 아니스가 도우러 와 주겠지요.

아니스 :후해?

이온 : 창사(唱師) 아니스 타틀린, 현재 부모, 당상을 폰마스터 가디언(고사수호역) 직에서 해임하겠습니다.

아니스 : 자, 잠깐 기다려 주세요! 그런 건 곤란해요!!

이온 : (소근)루크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마시고 잘 지키면서, 전해 들은 것은 나중에 반드시 제게 전해 주세요.

아니스 : !!

(아니스에게 '전 수행원' 의 칭호)

이온 : 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께도 아니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온 : 다아트로 가지지요.

모스 :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

루크 : 이온 녀석, 무슨 생각이 있어서.....

제이드 : 아니스를 여기에 남겨 두셨다는 것은, 조만간에 다시 돌아오실 생각이시겠지요. 그보다 —.

나탈리아 :저라면, 괜찮아요. 그보다 바티칼로 가지요.

나탈리아 : 이제 킴라스카 군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바..... 아니 국왕 페하 뿐이시랍니다...

티아 : 그렇다면 국경을 넘을 방법을 찾지 않아선 안 돼.

제이드 : 여기는 국경선 위의 거점입니다. 분명 뚫고 들어갈 곳이 있을 겁니다.

가이 : 루크. 한동안 나탈리아한테서 눈 떴지 마라. 걱정된다.

루크 :어.

<페이스 채트 ' 나탈리아의 비밀' >

아니스 : 나탈리아, 진짜 공주님이 아닌 걸까.....

가이 : 진짜이건 아니건, 우리에게 있어선 아무 다를 바 없어. 그렇지?

제이드 : 우리들은 그래도 좋겠습니다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나 할까요.

티아 : 그래요, 걱정이 돼.

루크 : 나도 자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말을 들

었던 때, 엄청 좌절했었지.....

루크 : 모스 저 자식..... 설사 구라였다 하더라도 용서 못 해.....

티아 : 루크.....

제이드 : 그녀의 문제는 그녀 자신이 답을 찾아내지 않아선 안 됩니다.

제이드 : 쌀쌀맞은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은 전장을 멈추는 일부러 생각하십시오.

루크 : 그래야, 되나.....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15 , 이온 동행 카이틀 루트)

<선택지>

엔게이브로 갈까
카이틀이 낫겠군 ← 선택

루크 : 카이틀이 낫겠어. 나도 일단은 왕위 계승자니까. 어떻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

가이 : 알았다. 그럼 편성은 어쩔래.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있나?

(선택 - 아니스)

아니스 : 루크 그렇게나 날 의지하고 있었구나. 좋아~, 같이 보내자.
아니스 : 이온 님은 저랑 같이 가 주세요.

이온 :그러, 지요.

아니스 : 이온 님은 저랑 같이 가 주세요.

이온 :그러, 지요.

제이드 : 일단 카이틀 부근에서 나탈리아 팀을 내려놓지요. 그 후 우리들은 알비올로 엔게이브에 가겠습니다.

루크 : 그렇게 해 줘. 다들, 가자!

(카이틀에서 나탈리아, 아니스, 이온과 함께 내린다)

[국경의 검문소 카이틀]

루크 : 세실 장군!

세실 : 너희들은 먼저 가라!
세실 :아니, 루크 님! 거기다 나탈리아 전하께서도? 살아서 돌아오셨습니까!!

나탈리아 : 그래요. 우리들은 살아 있습니다. 이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즉시 군대를 물리세요.

세실 :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 혼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세실 : 이번 작전의 총대장은 알만다인 대장 각하이시므로.

루크 : 그럼, 알만다인 백작한테 말 좀 해 봐!

세실 : 그것이야..... 알만다인 대장께서는 대영사 모스와 회담을 나누시기 위하여 케세드니아로 향하셨습니다.

루크 : 케세드니아!? 왜 전쟁 중에 총대장이 전장을 떠나고 난리인데!

세실 : 이번 작전에 대영사 모스로부터 원수를 갚는다는 인정을 받아 대의명분을 얻는다... 그것을 위한 거래입니다.

아니스 : 진짜예요!? 그런 건 원래 이온 님이 결정하시는 일인데. 모스 그 인간, 진짜 열받아!

이온 : 그런 형식 상의 일이니깐요. 이온 : 그래도, 역시 그렇게 나왔다 이거군요. 제가 다아트르를 떠나선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스 : 무슨 말씀이세요. 다아트르에 계셨다면 세피로트의 봉인이나 풀고 계셨을 거라구요.

세실 : 교단 내의 사정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세실 : 어쨌든 알만다인 대장께서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정전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나탈리아 : 그럴 수가..... 얼마 안 가 전장도 붕괴된단 말이어요!

세실 : 붕괴?

루크 : 액제류스처럼 없어져 버린단 말야!

세실 : 마르쿠트 군이 그런 병기를 동원했다는 말씀이신지?

나탈리아 :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세실 :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저에게 군대를 물릴 권한은 없습니다.

루크 : 그럼 알만다인 백작한테 물어보러 가자. 이전처럼 카이틀에서 케세드니아로 가는 배를 빌려서.

나탈리아 : 안 되어요, 루크. 케세드니아의 우리나라 항구는 바티칼 쪽에 만들어져 있답니다.

나탈리아 : 그 때엔 휴전 상태였기에 마르쿠트 쪽 항구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세실 : 전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본래 카이틀·케세드니아 간의 항로는 알버트 해를 동쪽으로 돌아 지나가는 것이니까요.

세실 : 거기다 전시 하에서의 해로는 위험합니다. 전하를 배에 태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병사 : 세실 소장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실 : 알았다.

세실 :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이만 어전에서 실례하겠습니다.

세실 : 전하에 대해서는 카이틀 항구에 전령을 보내겠으니 마중을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

나탈리아 : 카이틀에 끌려갔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어요. 육로로 케세드니아로 향하지요!

루크 : 육로로 케세드니아 가자고?

이온 : 케세드니아로 가려면 그 방법밖에 없겠지요.

아니스 : 위험하세요! 그런 일은 하시게 할 수 없어요!

나탈리아 : 그럴더라도 알만다인 백작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나탈리아 : 우리들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전쟁에 의미가 없다는 일도 알아 주실 터예요.

루크 : 나탈리아가 간다면, 난 나탈리아를 지킬 뿐야.

이온 : 가지지요. 아니스.

아니스 : 이온 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어쩔 수 없네요..... 정말~.....

나탈리아 : 미안해요. 잘 부탁드립니다와요.

루크 : 좋아, 가자.

<페이스 채트 '전쟁이! ~ 나탈리아 루트'>

루크 : 지 멋대로인 짓만 하고 있어! 모스 그 자식!

나탈리아 : 분명 복수를 전쟁의 구실로 삼도록, 아버님께 그리 속삭였을 터이지요.

루크 : 전부 다 모스 속셈대로란 얘기가. 알고 있었는데 막질 못 했어!

나탈리아 : 지난 일을 후회해 보았자 소용이 없사와요.

나탈리아 : 아우튼 알만다인 백작과 만나서, 우리들의 무사함을 알리고 전정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루크 : 어, 알고 있어..... 그보다, 이런 상화에서 제이드네는 관참을라나.

루크 : 제네들도 전장 안을 이동하게 되는 거 아냐?

나탈리아 : 분명히 걱정은 되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지요.

나탈리아 : 그것이 이번 개전(開戰)의 원인이

우리들의 의무 아니겠어요?

루크 : 그렇군. 잘 알았어! 서두르자.

나탈리아 : 기다리시어요. 여기서 가능한 한의 준비를 하고 가는 편이 낫지 않으시겠는지요?

루크 : 글쿠만. 엔게이브에 들을 수도 없으니 말야. 그러지.

(이제 케세드니아로 가자. 중간 중간에 야영을 하게 된다)

나탈리아 :겨우 야영지까지 왔군요.

루크 : 케세드니아까지는.....

나탈리아 : 아직 한참 멀었사와요.....

일행 : !!!

나탈리아 : 거기 누구 계시나요!?

프링스 : 저입니다.

루크 : 프링스 장군!? 왜 이런 데에!

나탈리아 : 그래요. 이 근처에는 킨라스카 군이 진을 쳐 두고 있는걸요!

프링스 : 부하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제게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아니스 : 음~. 정찰이세요? 아님 설마 나탈리아를.....

이온 : 그렇진 않을 겁니다. 맞지요, 장군.

프링스 : 부디 오해하지시 말아 주십시오. 저는 당신들께 위해를 가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프링스 : 정찰도 아닙니다. 다만 이 전장을 어서 떠나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나탈리아 : 무슨 말씀이신지?

프링스 : 이대로라면, 저희들은 당신들을 해치지 않아선 안 됩니다.

프링스 : 당신들께서는 킨라스카 진영의 분들 이시니까요.

나탈리아 : 저희들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케세드니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탈리아 : 설사 위험하다 해도 물러날 수는 없사와요.

프링스 : 그것은 당치 않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제부터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질 겁니다.

프링스 : 저는 부하들에게 당신들만을 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루크 :그건 알고 있어. 우리도 장군이랑 싸우고 싶은 건 아냐.

루크 : 이래 뵈도 최대한 싸움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프링스 : 알겠습니다..... 사정을 아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을 공격하지 말도록 전해 보겠습니다.

프링스 : 그러나..... 싸우게 되시더라도 저희 병사들을 원망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

나탈리아 : 우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와 주셨는데..... 미안한 일이어요.

루크 : 그래도 이대로 전쟁이 계속되면 외각대지가 무너져서 다들 죽어.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자나.

나탈리아 :네. 내일부터도 마르쿠트 분들과는 다투고 싶지 않네요.

루크 : 어. 신중하게 행동하지. 싸우지 않아도 되도록.

(두번째 야영)

나탈리아 :겨우 오늘의 야영지로군요.

루크 : 그래. 어떻게 잘 마르쿠트 군과 안 만나고 올 수 있었지.

나탈리아 : 이 다음도 그랬으면 좋겠사와요.

루크 : 케세드니아까지 이제 절반이란 얘기가.....

일행 : !!

나탈리아 : 누구이시지요!?

세실 : 세실 소장입니다.

루크 : 어떻게 여길.....

세실 : 부하에게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시다. 왜 이런 장소에.....

나탈리아 : 말했을 테지요. 이 싸움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라도 알만다인과 만날 생각이어요.

세실 : 무리이십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우리군의 세력권입니다. 아무쪼록 카이틀로 돌아가 주십시오. 너무 위험합니다.

루크 : 안 돼. 이대로 전쟁을 계속하면 다들 죽어 버린다고.

세실 : 우리 군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나탈리아 : 그런 이야기가 아니어요. 이 전쟁터 자체가 위험하답니다.

나탈리아 : 이대로는 킨라스카 군도 마르쿠트 군도 소멸되어 버리겠지요.

세실 : 전하..... 제 입장도 생각해 주십시오.

나탈리아 : 당신에게는 미안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것이 제 사명인 거예요.

세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호위는 따르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나탈리아 :알겠사와요. 그 성의는 감사히 받아들이지요.

루크 : 그래도 너무 많은 수는 필요 없어. 겨우 눈길을 끄니까.

세실 : 예. 잘 알겠습니다. 내일 이후, 우리군의 1개 소대를 여러분의 후방에 붙이겠습니다.

세실 : 아무쪼록 조심하세요.....

(세번째 야영)

나탈리아 :여기가 오늘의 휴식 장소로군요.

가이 : 케세드니아까지 이제 금방야.

나탈리아 : 네에.....

일행 : !!!!

루크 : 누구야!

프링스 :킨라스카 군!

세실 : 마르쿠트 군인가!

루크 : 야, 두 사람 그만 해!

세실리아 : 세실 장군. 겁을 거두세요. 이 분은 우리들에게 해를 끼칠 분이 아니셔요.

세실 : 하지만!

프링스 : 세실 장군.....? 당신이 킨라스카 군의.....

세실 : 귀공은 누구이신가.

프링스 :아스란 프링스 소장이다.

세실 : 프링스 장군이었나!

루크 : 둘 다. 우린 정전을 위해 케세드니아로 향하고 있어. 그런 우리 앞에서 싸우는 건 허락 못해.

프링스 : 그 일로 왔습시다. 여러분의 후방에 있는 킨라스카 호위를 해산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세실 : 무슨 소리인가! 여기서부터는 마르쿠트의 세력권이야. 나는 호위를 증원시킬 허락을 받으러 왔단 말이다!

프링스 : 이 부근에서 케세드니아 주변까지의 우리 군에게는, 사정을 설명해 두었다.

프링스 : 나탈리아 전하 일행만이라면 통행시

켜 드릴 수 있지만, 킴라스카 군이 따라붙어 있다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네.

세실 : 그런 이야기를 신용할 수 있겠나.

나탈리아 : 기다리세요, 세실 장군. 프링스 장군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랍니다.

루크 :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엔 우리들이 나탈리아를 지키면 돼. 안심하라고.

세실 : 그렇습니다만.....

나탈리아 : 이미 결정했어요.

프링스 : 무슨 일이 있을 때엔, 내가 스스로의 목숨으로 사죄하겠다.

루크 : 세실, 부탁할게.

세실 :귀공 따위의 목숨으로 나탈리아 님의 고귀하신 생명을 대신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는 루크 님을 보아 내가 울러나지.

프링스 : 드릴 말씀이 없군.

나탈리아 : 그럼 두 분 모두, 이대로 다투시지 말고 진영으로 돌아가시도록 하시어요. 아시겠지요.

.....

루크 : 내일은 마르쿠트 군인들이랑은 안 싸워도 되겠다.

나탈리아 :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어요. 우리도 호위가 없으니까요.

루크 : 알고 있어.

(네번째 야영)

나탈리아 : 오늘은 이 뜰에서 휴식하지요.

[유통거점 케세드니아 북부]

루크 : 겨우 도착했나.....

나탈리아 : 루크. 고마워요. 당신께서 진로를 똑바로 정해주셨기에 필요없는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루크 : 아냐. 세실이나 프링스 장군 덕이지다.

나탈리아 : 어머니, 경손해지셨는걸요. 좋은 일이지와요.

루크 : 뭐야 그게..... 뭐 됐어. 거리로 가자. 이제부터 알만다인을 설득시킨다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나탈리아 : 네.

(전투를 잘 피해서 왔다면 좋은 아이템을 얻는다)

[한편, 식량의 마을 엔게이브]

(로즈 부인의 집으로 가자)

로즈 : 대령 양반! 전선(戰線)이 북상해 온다는 게 사실이우.

제이드 : 그리 쉽사리 돌파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마을이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로즈 : 어떻게 될려나요. 그런코크마로 피난을 가려 해도 벌써 수도 방위작전에 돌입해 있다는 듯 싶으니.....

제이드 : 예. 그런코크마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도시는 전시 하에서는 요새가 되니까요.

제이드 : 근본적으로 이 대륙 자체가 위험합니다. 차라리 케세드니아까지 피난을 하는 편이 바람직할 겁니다.

티아 : 그래요. 교단의 지배력이 강한 마을이니 전장에 가까워도 안전할 거예요.

가이 : 킴라스카에 가까운 만큼 거꾸로 안전할 지도 모르지.

제이드 :하지만 이 마을의 전원을 알비올

에 태우는 것은 무리일 테지요.
제이드 : 그렇다고 해서 도보로 전장 안을 이동하는것도 위험할 겁니다.

로즈 : 노인과 아이들 만이라도 그 알 뷔시기 인간에 태워 줄 수 없겠수.
로즈 : 나머지는 여기 남았다가 킴라스카 군에게 투항해서.....

제이드 : 아닙니다, 그래서야 붕괴의 위험이 남아 있으니까요.

로즈 : 무너지다니..... 여기가 센트비나나 액 제류스처럼 사라진다는 말인가요!

제이드 : 유감입니다만 그 말대로입니다.

로즈 :그렇다면 도보로 케세드니아까지 달아나야겠어요. 다행히, 다리도 수리가 되었구.

제이드 :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알비올은 노엘에게 맡기고, 우리들은 걸어서 이동하는 쪽을 호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드 : 지금 가서 엔게이브 주둔군에게 말을 전해두고 오겠습니다.

제이드 : 적어도 우리 후방을 1개 소대가 지켜준다면.....

(노약자들의 피난이 개시된다)

제이드 : 혹시 예정보다 빨리 반송(搬送)이 끝난 경우, 알비올이 이쪽으로 와 주기로 해 두었습니다.

제이드 : 뭐어.....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티아 : 그나마 마르쿠트 군이 군사를 빌려준 게 다행이에요. 등 뒤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걸어서 케세드니아까지 가자. 중간에 계속 야영 이벤트가 있다)

티아 : 여기가 오늘의 야영지점이군요.

제이드 : 뭐, 오늘은 잘 된 셈입니다. 적과 만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티아 : 내일부터도 또 힘내지요. 그런데 여기는 전 여정의 어디쯤 될까요?

제이드 : 아직 반도 되지 않았습시다.

마을 사람 : 저어..... 거기 군인 아저씨는 타르타로스에 타고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만.

제이드 : 예. 타르타로스를 지휘하고 있었습시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마을 사람 : 승무원 중에 '마르코' 라는 병사는 없었습니까?

티아 : 마르코라면 대령님의 부관인.....?

마을 사람 : 부관! 그렇습니까! 마르코가 그런 출세를!

마을 사람 : 녀석은 우리 자랑스런 아들놈입니다! 마누라도 기뻐하겠군!

티아 : 하지만..... 그는.....

마을 사람 : 그래서, 그 놈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마을 사람 : 이런 전쟁입니다. 전선으로 출병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까.

제이드 : 아버님께는 안되신 일입니다만 아드님께서는 적의 습격을 받아 전사하셨습니다.

마을 사람 : !!

마을 사람 : 어, 언제!? 언제였습니까! 이 전 타르타로스가 엔게이브에 왔을 때에는, 그 녀석도 건강하게.....!

제이드 : 그 후였습니다. 도사를 노리던 약한들의 습격에 대항하다 명예로운 전사를 마쳤습시다.

이온 : 죄송합니다. 제 힘이 모자라.....

마을 사람 :그랬습니까. 우리 마르코는 도사 이온을 지키고서.....

마을 사람 : 마르코가 태어났을 때 로렐라이 교단의 예언사(스코어러)님께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 : 이 아이는 언젠가 고귀한 분의 힘이 되리라고. 그러니 군인으로 키우라는 말을 듣고서.....

마을 사람 :이런 못난 놈.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해도 그렇지 부모보다 먼저 갈 줄은.....!

.....

티아 : 대령님.....

제이드 : 칭찬받는 것도 매도 당하는 것도 부모를 울게 만드는 것도 군인에게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신경 쓰이지 마십시오.

제이드 : 그보다 지금은, 엔게이브의 주민들을 케세드니아에 도착시키는 것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두번째 야영)

제이드 : 겨우 절반을 넘었습니다.

주인 : 미안합니다. 여기 흑시 치유술사(힐러) 님 아니면 외상약의 예비를 구할 수 없을까요?

티아 : 저도 일단은, 치유술사입니다.

제이드 : 부상자이십니까?

미리암 : 아니요..... 제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제이드 : 분명히 여성 분들은 알비올에 타시라 전했을 터입니다만.

주인 : 우리도 그렇게 말했는데 말입니다. 미리암 씨가, 자기는 됐으니 다른 사람을 태워달라며 들질 않길래.....

제이드 : 분명히 여성 분들은 알비올에 타시라 전했을 터입니다만.

티아 : 그런.....

미리암 : 괜찮아요. 당연히 저도 죽을 생각 같은 것은 없지만요.

미리암 : 단지, 저는 남편도 아이도 잃어버렸기에.....

제이드 : 전쟁 탓이셨습니까.

주인 : 이 분 남편 되는 사람은 액제류스 광산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티아 & 가이 : !!

미리암 : 하필이면, 아들이 아빠를 만나고 싶다면서 그 마을에 머무르고 있던 때에 소멸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제이드 :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허나, 그렇다면 더더욱 당신께서는 살아남지 않으셔서 안 됩니다.

제이드 : 돌아가신 가족의 뒤편까지.....

미리암 :네.....

제이드 : 티아, 저 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이드 : 두 분을 대열로 모셔가게.

.....

티아 :무슨 말을 해 주어야 할 지 알 수 없었어요.

제이드 : 지금 여기서 진실을 고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이드 : 무언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면, 훗날 저 분이 마을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티아 : 분명 원망을 받겠지요.

제이드 : 별 수 없습시다.

(세번째 야영)

티아 : 겨우 야영지까지 왔네요. 케세드니아는 이제 바로 앞이에요.

제이드 : 예. 여기까지 부상자를 내지 않고 왔기도 하니,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십시오.

미리암 : 어제는 감사했어요.

가이 : 당신은.....

미리암 : 티아 씨 덕분에 다리가 나서 오늘은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었습시다.

미리암 : 어머..... 실밥이 풀리셨네요.....

가이 :우, 으와악!?

미리암 : ...까악!?

가이 : 헉!? 미, 미안합니다.....

미리암 :저어제가, 뭔가 불쾌하실 일이라도 하고 만걸까요?

가이 : 아, 아니, 아닙니다. 그저..... 제가.....

미리암 : 저기..... 얼굴빛이 좋지 않은신 데.....

가이 :뭐지? 뭔가 생각이 내려 그랬는 데.....

가이 : (죽음의 냄새..... 비명..... 나는.....? 숨어 있나?)

제이드 : 미안합니다. 그도 지쳐 있는 것이겠지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미리암 : 아..... 네. 왠지 죄송했어요.

가이 :아뇨. 저야말로 부인에게 상처를 받게 해 드리다니 자신이 한심하군요.
가이 : 정말로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미리암 : 어머니..... 신기하신 분. 마치 어떤 가의 귀족 같으셔라.

가이 :그, 그럴습니까. 아무튼 미안했습니다.

미리암 : 아니요, 몸 조심하시길.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

제이드 : 가이..... 괜찮습니까?

가이 :그래. 하지만 왜 저렇게 겁을 먹은 거지.

제이드 :여기가 전장이라 그럴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좀 쉬십시오.

가이 :그렇게 할게. 미안하군.

.....

티아 : 가이, 괜찮을까요.

제이드 : 으~음. 염려가 되는군요. 거기다 그의 여성 공포증은 상당히 뿌리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제이드 : 분명 생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지요.

(이벤트 필드의 출구는 로탈로 다리이다)

[유통거점 케세드니아 남부]

가이 : 겨우 도착했다.....

제이드 : 사상자는 없습니다. 뭐, 넘어져서 다치거나 한 사람은 있습니다만.

마을 사람 1 :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마을 사람 2 : 모두가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전투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면 아이템이 시시한 것으로 바뀌거나, 아예 없어지는 듯 하다)

마을 사람 1 : 아무리 감사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 2 : 수고하셨습니다!

제이드 :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분발하셨군요.

가이 : 아니, 역시 제이드다, 라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제이드 : 아부하셔 봤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일행 : (웃는다)

제이드 : 자아, 우리들도 거리로 가십시오.

[유통거점 케세드니아 시장]

루크 :저건!

제이드 : 루크! 왜 여기 계십니까? 정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루크 : 총대장 알만다인 백작이 대영사 모스랑 회담하러오고 여기 온다더라고. 그래서 따라온 참인데.....

제이드 : 그래서 전쟁터를 뚫고 나오신 겁니까? 위험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루크 : 그 쪽이야말로, 그란코크마로 도망칠 줄 알았어.....

제이드 : 그란코크마는 요새도시입니다. 개전과 동시에 외부에서 침입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루크 : 그래서 케세드니아에.....

제이드 : 그래서, 알만다인 백작과의 이야기는 것은?

루크 : 지금부터 하러 가려고.

나탈리아 : 서두르시와요.

(시장을 내려가면 알만다인과 모스를 보게 된다)

나탈리아 : 알만다인 백작!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요!

알만다인 : 나탈리아 전하!?

나탈리아 : 제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마르쿠트 황제 피오니 9세 폐하에게서도 말이 있었을 텐데요!

알만다인 : 그러나 실제로 전하를 알현해 볼 수는 없었기에, 폐하께서 마르쿠트의 모략이라 하시며.....

나탈리아 : 제가 금방 성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제 부덕함 때문입니다.
나탈리아 : 하지만 이렇게 만난 지금 더 이상이 전쟁에 대의는 없어요. 즉시 휴전 준비에 착수하십시오!

루크 : 알만다인 백작. 루크입니다.

알만다인 !! 살아..... 계셨단 말인가.....!

루크 : 액제류스가 소멸되었던 건 내가 — 제가 초래한 일입니다.
루크 : 비난을 받을 사람은 마르쿠트가 아닌 이 루크 폰 파브레 단 한명!

나탈리아 : 이번 싸움이 오해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요!

루크 : 그리고, 지금 전장이 되어 있는 루그니카 평야는, 액제류스와 마찬가지로 붕괴..... 소멸될 위험이 있어!

나탈리아 : 자아, 싸움을 그만두고 지금 당장 국경을 여세요!

모스 : 기다리시게, 여러분. 가짜 공주에게 신하의 예를 취할 필요는 없소이다.

나탈리아 : 무례한 것! 아무리 로렐라이 교단의 대영사라 하더라도,
나탈리아 : 나를 모욕하는 것은 킴라스카 란발디어 왕국을 모욕하는 일이다!

모스 : 나는 전부터, 경건한 신자에게서 비통한 참회를 받아오고 있었다.
모스 : 그 사나이는, 왕비의 시녀와 자신 사이에 태어난 여자아이를, 황송하게도 왕녀 전하와 바꿔쳤다고 털어놓았다.

루크 : 헛소리 집어쳐!

모스 : 헛소리가 아니다. 그럼 그 자의 머리칼과 눈동자 색은 어떻게 되나.
모스 : 과거부터, 란발디어 왕가에 태어난 자는 붉은 머리칼과 녹색 눈동자를 가졌었다.
모스 : 허나, 저 자는 금발. 돌아가신 왕비님께서 어두운 밤과 같은 흑발이셨지 않았나.
모스 : 이 이야기는 이미 폐하에게도 전했다. 확실한 증거물과 함께 말이지.
모스 : 바티칼에 간다면, 폐하께서는 그대에게 나라를 속인 대죄인으로서 벌을 내리시겠지!

나탈리아 : 그런..... 그럴 리가 없사워요.....

(나탈리아에게 '가짜 공주님'의 칭호.....)

모스 : 백작님. 슬슬 전쟁터로 돌아가시는 게 어떨지겠습니까.

알만다인 :으, 으음. 그렇구려.

루크 : 이봐, 기다려! 전장이 무너진단 말야!!

모스 : 그게 어쩐다는 건가.

일행 : !!!!!

모스 : 전쟁만 무사히 발생시킨다면 예언은 완수되는 셈이 된다.
모스 : 유리아 시티 놈들은 겨우 붕괴 따위를 가지고 무엇을 두려워하는 건지.

티아 : 대영사 모스..... 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모스 : 흥. 진짜로 무서운 자는 네 오빠가 아니겠나.

모스 : 그보다 도사 이온. 이제와서 아직도 정전을 주장하실 셈이십니까.

이온 : 아니오. 저는 한번 다아트로 돌아가려 생각합니다.

아니스 : 이온 님!? 진심이세요!?
아니스 : 귀국하신다면, 총장이 트리를 없애기 위해 세피르트의 봉인을 열고 시킬 거라구요!
요!

모스 : 반이 멋대로 나서지는 못하게 할 것이다.

모스 :역시 이 이상, 외각 붕괴를 노리게 해서는 약간 귀찮으니 말이지.

아니스 : 실력 행사로 나온다면.....

이온 : 그렇게 되면, 아니스가 도우러 와 주겠지요.

아니스 :후해?

이온 : 창사(唱師) 아니스 타틀린. 현재 부로, 당상을 폰마스터 가디언(고사수호역) 직에서 해임하겠습니다.

아니스 : 자, 잠깐 기다려 주세요! 그런 건 곤란해요!!

이온 : (소근)루크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마시고 잘 지키면서, 전해 들은 것은 나중에 반드시 제게 전해 주세요.

아니스 : !!

(아니스에게 '전 수행원'의 칭호)

이온 : 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께도 아니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온 : 다아트로 가시지요.

모스 :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

루크 : 이온 녀석, 무슨 생각이 있어서.....

제이드 : 아니스를 여기에 남겨 두었다는 것은, 조만간에 다시 돌아오실 생각이시겠지요. 그보다.....

나탈리아 :저라면, 괜찮아요. 그보다 바티칼로 가지요.

나탈리아 : 이제 킴라스카 군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바..... 아니 국왕 폐하 뿐이십니다.

티아 : 그렇다면 국경을 넘을 방법을 찾지 않아선 안 돼.

제이드 : 여기는 국경선 위의 거점입니다. 분명 뚫고 들어갈 곳이 있을 겁니다.

가이 : 루크. 한동안 나탈리아한테서 눈 떴지 마라. 걱정된다.

루크 :어.

<페이스 채트 '나탈리아의 비밀'>

아니스 : 나탈리아, 진짜 공주님이 아닌 걸
까.....

가이 : 진짜이건 아니건, 우리에게 있어선 아
무 다를 바 없어. 그렇지?

제이드 : 우리들은 그래도 좋겠습니다만, 본인
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나 할까요.

티아 : 그래요, 걱정이 돼.

루크 : 나도 자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말을 들
었던 때, 엄청 좌절했었지.....

루크 : 모스 저 자식..... 설사 구라였다 하더
라도 용서 못 해.....

티아 : 루크.....

제이드 : 그녀의 문제는 그녀 자신이 답을 찾
아내지 않아선 안 됩니다.
제이드 : 쌀쌀맞은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은
전쟁을 멈추는 일부터 생각하십시오.

루크 : 그래야, 되나.....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15 , 가이 동행 카이틀
루트)**

<선택지>

엔게이브로 갈까
카이틀이 낫겠군 ← 선택

루크 : 카이틀이 낫겠어. 나도 일단은 왕위 계
승자니까. 어떻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

가이 : 알았다. 그럼 편성은 어쩔래. 같이 가
고 싶은 사람 있나?

(선택 - 가이)

가이 : 좋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아니스 : 이온 님은 저랑 같이 가 주세요.

이온:그러, 지요.

제이드 : 일단 카이틀 부근에서 나탈리아 팀을
내려놓지요. 그 후 우리들은 알비홀로 엔게이
브에 가겠습니다.

루크 : 그렇게 해 줘. 다들, 가자!

(카이틀에서 나탈리아, 가이와 함께 내린다)

[국경의 검문소 카이틀]

루크 : 세실 장군!

세실 : 너희들은 먼저 가라!
세실 :아니, 루크 님! 거기다 나탈리아
전하께서도!? 살아서 돌아오셨습니까!!

나탈리아 : 그래요. 우리들은 살아 있습니다.
이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즉시 군대를
물리세요.

세실 :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 혼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세실 : 이번 작전의 총대장은 알만다인 대장
각하이시므로.

루크 : 그럼, 알만다인 백작한테 말 좀 해 봐!

세실 : 그것이..... 알만다인 대장께서는 대영
사 모스와 회담을 나누시기 위하여 케세드니
아로 향하셨습니다.

루크 : 케세드니아!? 왜 전쟁 중에 총대장이
전장을 떠나고 난리인데!

세실 : 이번 작전에 대영사 모스로부터 원수를
갚는다는 인정을 받아 대의명분을 얻는다...
그것을 위한 거래입니다.

가이 : 로렐라이 교단의 전투 정당성 증명은
도사 밖에 행할 수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세실 : 교단 내의 사정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세실 : 어쨌든 알만다인 대장께서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정전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나탈리아 : 그럴 수가..... 얼마 안 가 전장도
붕괴되던 말이어요!

세실 : 붕괴?

루크 : 액체류스처럼 없어져 버리단 말야!

세실 : 마르쿠트 군이 그런 병기를 동원했다는
말씀이신지?

나탈리아 :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세실 :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저에게
군대를 물릴 권한은 없습니다.

루크 : 그럼 알만다인 백작 만나러 가자. 이전
처럼 카이틀에서 케세드니아로 가는 배를 빌
려서.

나탈리아 : 안 되어요, 루크. 케세드니아의 우
리나라 항구는 바티칼 쪽에 만들어져 있습니
다.

나탈리아 : 그 때엔 휴전 상태였기에 마르쿠트
쪽 항구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세실 : 전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본래
카이틀·케세드니아 간의 항로는 알버트 해를
동쪽으로 돌아 지나는 것이니까요.
세실 : 거기다 전시 하에서의 해로는 위험합니
다. 전하를 배에 태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병사 : 세실 소장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실 : 알았다.
세실 :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이만 어전
에서 실례하겠습니다.

세실 : 전하에 대해서는 카이틀 항구에 전령을
보내겠으니 마중을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가이 : 조심하라고.

세실 :네? 예예. 고마워요.

.....

나탈리아 : 카이틀에 끌려갔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어요. 육로로 케세드니아로
향하지요!

루크 : 육로로 케세드니아 가자고?

가이 : 농담하지 마.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고.
전장을 뚫고 나가야 되는구만.

나탈리아 : 그럴더라도 알만다인 백작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나탈리아 : 우리들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안
다면 이 전쟁에 의미가 없다는 일도 알아 주
실 터예요.

루크 : 나탈리아가 간다면, 난 나탈리아를 지
킬 뿐야.

가이 : 이런 이런. 난 보잘 것 없는 하인이니
원. 어울려 드리겠습니다요.

루크 : 가이! 난 그런 생각으로 한 말이.....

가이 : 바아보. 좀 빼져서 그래 본 거야 임마.
가이 : 암튼 조심들 해라. 여기서 너네 둘이
어떻게 되더라도 한다면 죽도 밥도 안 될 테
니까.

나탈리아 : 미안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루크 : 좋아, 가자.

<페이스 채트 '전쟁이! ~ 나탈리아 루트'>

루크 : 지 멋대로인 짓만 하고 있어! 모스 그
자식!

나탈리아 : 분명 복수를 전쟁의 구실로 삼도
록, 아버님께 그리 속삭였을 터이지요.

루크 : 전부 다 모스 속셈대로란 애기가. 알고
있었는데 막질 못 했어!

나탈리아 : 지난 일을 후회해 보았자 소용이
없사와요.

나탈리아 : 아무튼 알만다인 백작과 만나서,
우리들의 무사함을 알리고 전장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루크 : 어, 알고 있어..... 그보다, 이런 상화
앵서 제이드네는 괜찮을라나.

루크 : 재네들도 전장 안을 이동하게 되는 거
아냐?

나탈리아 : 분명히 걱정은 되지만, 지금은 우

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지요.
나탈리아 : 그것이 이번 개전(開戰)의 원인인
우리들의 의무 아니겠어요?

루크 : 그렇군. 잘 알아어! 서두르자.

나탈리아 : 기다리시어요. 여기서 가능한 한의
준비를 하고 가는 편이 낫지 않으시겠는지요?

루크 : 글썄만. 엔게이브에 들를 수도 없으니
말야. 그러지.

(이제 케세드니아로 가자. 중간 중간에 야영을
하게 된다)

나탈리아 :겨우 야영지까지 왔군요.

루크 : 케세드니아까지는.....

나탈리아 : 아직 한참 멀었사와요.....

일행 : !!!

나탈리아 : 거기 누구 계시나요!?

프링스 : 저입니다.

루크 : 프링스 장군!? 왜 이런 데에!

나탈리아 : 그래요. 이 근처에는 킴라스카 군
이 진을 쳐 두고 있는걸요!

프링스 : 부하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제
게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가이 : 정찰은 장군 스스로가 할 일이 아니라
생각되는데..... 설마 나탈리아를 싸움에 이용
하려는 생각은 아니겠지.

프링스 : 부디 오해하시지 말아 주십시오. 저
는 당신들께 위해를 가하기 위해 온 것이 아
닙니다.

프링스 : 정찰도 아닙니다. 다만 이 전장을 어
서 떠나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나탈리아 : 무슨 말씀이신지?

프링스 : 이대로라면, 저희들은 당신들을 해치
지 않아선 안 됩니다.

프링스 : 당신들께서는 킴라스카 진영의 분을
이시니까요.

나탈리아 : 저희들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케세드니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탈리아 : 설사 위험하다 해도 물러날 수는
없사와요.

프링스 : 그것은 당치 않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제부터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질 겁니다.
프링스 : 저는 부하들에게 당신들만을 공격하
지 말라는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루크 :그건 알고 있어. 우리도 장군이랑
싸우고 싶은 건 아냐.

루크 : 이래 봐도 최대한 싸움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프링스 : 알겠습니다..... 사정을 아는 자들에
게는, 여러분을 공격하지 말도록 전해 보겠습
니다.

프링스 : 그러나..... 싸우게 되시더라도 저희
병사들을 원망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

나탈리아 : 우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와
주셨는데..... 미안한 일이에요.

루크 : 그래도 이대로 전쟁이 계속되면 외곽대
지가 무너져서 다들 죽어.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나.

나탈리아 :네. 내일부터도 마르쿠트 분들
과는 다투고 싶지 않네요.

루크 : 어. 신중하게 행동하지. 싸우지 않아도
되도록.

(두번째 야영)

나탈리아 :겨우 오늘의 야영지로군요.

루크 : 그래. 어떻게 잘 마르쿠트 군과 안 만
나고 올 수 있었지.

나탈리아 : 이 다음도 그랬으면 좋겠사와요.

루크 : 케세드니아까진 이제 절반이란 애긴

가.....

일행 : !!

나탈리아 : 누구이시지요!?

세실 : 세실 소장입니다.

루크 : 어떻게 여길.....

세실 : 부하에게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장소에.....

나탈리아 : 말했을 테지요. 이 싸움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라도 알만다인과 만날 생각이어요.

세실 : 무리입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우리군의 세력권입니다. 아무쪼록 카이틀로 돌아가 주십시오. 너무 위험합니다.

루크 : 안 돼. 이대로 전쟁을 계속하면 다들 죽어 버린다고.

세실 : 우리 군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나탈리아 : 그런 이야기가 아니어요. 이 전쟁터 자체가 위험합니다.

나탈리아 : 이대로는 킴라스카 군도 마르쿠트 군도 소멸되어 버리겠지요.

세실 : 전하..... 제 입장도 생각해 주십시오.

나탈리아 : 당신에게는 미안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것이 제 사명인 거예요.

세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호위는 따르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탈리아 :알겠사와요. 그 성의는 감사히 받아들이지요.

루크 : 그래도 너무 많은 수는 필요 없어. 거꾸로 눈길을 끄니까.

세실 : 예. 잘 알겠습니다. 내일 이후, 우리군의 1개 소대를 여러분의 후방에 붙이겠습니다.

세실 : 아무쪼록 조심하세요.....

(세번째 야영)

나탈리아 :여기가 오늘의 휴식 장소로군요.

가이 : 케세드니아까지 이제 금방야.

나탈리아 : 네에.....

일행 : !!!!

루크 : 누구야!

프링스 :킴라스카 군!

세실 : 마르쿠트 군인가!

루크 : 야, 두 사람 그만 해!

세실리아 : 세실 장군. 감을 거두세요. 이 분은 우리들에게 해를 끼칠 분이 아니셔요.

세실 : 하지만!

프링스 : 세실 장군.....? 당신이 킴라스카군의.....

세실 : 귀공은 누구이신가.

프링스 :아스란 프링스 소장이다.

세실 : 프링스 장군이었나!

루크 : 둘 다. 우린 정전을 위해 케세드니아로 향하고 있어. 그런 우리 앞에서 싸우는 건 허락 못해.

프링스 : 그 일로 왔습니다. 여러분의 후방에 있는 킴라스카 호위를 해산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세실 : 무슨 소리인가! 여기서부터는 마르쿠트의 세력권이야. 나는 호위를 증원시킬 허락을 받으러 왔단 말이다!

프링스 : 이 부근에서 케세드니아 주변까지의 우리 군에게는, 사정을 설명해 두었다.

프링스 : 나탈리아 전하 일행만이라면 동행시켜 드릴 수 있지만, 킴라스카 군이 따라붙어 있다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네.

세실 : 그런 이야기를 신용할 수 있겠나.

나탈리아 : 기다리세요, 세실 장군. 프링스 장군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랍니다.

루크 :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엔 우리들이 나탈리아를 지키면 돼. 안심하라고.

세실 : 그렇습니다만.....

나탈리아 : 이미 결정했어요.

프링스 : 무슨 일이 있을 때엔, 내가 스스로의 목숨으로 사죄하겠다.

루크 : 세실, 부탁할게.

세실 :귀공 따위의 목숨으로 나탈리아님의 고귀하신 생명을 대신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는 루크님을 보아 내가 물러나지.

프링스 : 드릴 말씀이 없군.

나탈리아 : 그럼 두 분 모두, 이대로 다투시지 말고 진영으로 돌아가시도록 하시어요. 아시겠지요.

.....

루크 : 내일은 마르쿠트 군인들이랑은 안 싸워도 되겠다.

나탈리아 :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도 호위가 없으니까요.

루크 : 알고 있어.

(네번째 야영)

나탈리아 : 오늘은 이 쯤에서 휴식하지요.

[유통거점 케세드니아 북부]

루크 : 겨우 도착했다.....

나탈리아 : 루크, 고마워요. 당신께서 진로를 똑바로 정해주셨기에 필요없는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루크 : 아냐, 세실이나 프링스 장군 덕이다.

나탈리아 : 어머니, 경손해지셨는걸요. 좋은 일이지와요.

루크 : 뭐야 그게..... 뭐 됐어. 거리로 가자. 이제부터 알만다인을 설득시킨다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나탈리아 : 네.

(전투를 잘 피해서 왔다면 좋은 아이템을 얻는다)

[한편, 식량의 마을 엔게이브]

(로즈 부인의 집으로 가자)

로즈 : 대령 양반! 전선(戰線)이 북상해 온다는 게 사실이유.

제이드 : 그리 쉽사리 돌파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마을이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로즈 : 어떻게 될려나요. 그런코크마로 피난을 가려 해도 벌써 수도 방위작전에 돌입해 있다는 듯 싶으니.....

제이드 : 예. 그런코크마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도시는 전시 하에서는 요새가 되니까요.

제이드 : 근본적으로 이 대륙 자체가 위험합니다. 차라리 케세드니아까지 피난을 하는 편이 바람직할 겁니다.

티아 : 그래요. 교단의 지배력이 강한 마을이니 전장에 가까워도 안전한 거예요.

아니스 : 거기는 자유 상인들의 마을이니까야, 안심이겠죠.

이온 : 예. 아스터라면 받아들여 줄 겁니다.

제이드 :하지만 이 마을의 전원을 알비올에 태우는 것은 무리일 테지요.

제이드 : 그렇다고 해서 도보로 전장 안을 이동하는것도 위험할 겁니다.

로즈 : 노인과 아이들 만이라도 그 알 뷔시기 인가에 태워 줄 수 없겠수.

로즈 : 나머지는 여기 남았다가 킴라스카 군에게 투항해서.....

제이드 : 아닙니다, 그래서야 봉괴의 위험이 남아 있으니까요.

로즈 : 무너지다니..... 여기가 센트비나나 엑제류스처럼 사라진다는 말인가요!

제이드 : 유감입니다만 그 말대로입니다.

로즈 :그렇다면 도보로 케세드니아까지 달아나야겠어요. 다행히, 다리도 수리가 되었구.

제이드 :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알비올은 노엘에게 맡기고, 우리들은 걸어서 이동하는 쪽을 호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드 : 지금 가서 엔게이브 주둔군에게 말을 전해두고 오겠습니다.

제이드 : 적어도 우리 후방을 1개 소대가 지켜준다면.....

(노약자들의 피난이 개시된다)

제이드 : 혹시 예정보다 빨리 반송(搬送)이 끝난 경우, 알비올이 이쪽으로 와 주기로 해 두었습니다.

제이드 : 뭐어.....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티아 : 그나마 마르쿠트 군이 군사를 빌려준게 다행이에요. 등 뒤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걸어서 케세드니아까지 가자. 중간에 계속 야영 이벤트가 있다)

티아 : 여기가 오늘의 야영지점이군요.

제이드 : 뭐, 오늘은 잘 된 셈입니다. 적과 만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티아 : 내일부터도 또 힘내지요. 그런데 여기는 전 여정의 어디 쯤 될까요?

제이드 : 아직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 : 저어..... 거기 군인 아저씨는 타르타로스에 타고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만.

제이드 : 예. 타르타로스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마을 사람 : 승무원 중에 '마르크' 라는 병사는 없었습니까?

아니스 : 마르크라면 대령님의 부관이었지요.

마을 사람 : 부관! 그렇습니까! 마르크가 그런 출세를!

마을 사람 : 녀석은 우리 자랑스런 아들놈입니다! 마누라도 기뻐하겠군!

티아 : 하지만..... 그는.....

마을 사람 : 그래서, 그 놈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마을 사람 : 이런 전쟁입니다. 전선으로 출병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까.

제이드 : 아버님께는 안되신 일입니다만 아드님께서는 적의 습격을 받아 전사하셨습니다.

마을 사람 : !!

마을 사람 : 어, 언제!? 언제였습니까! 이 전 타르타로스가 엔게이브에 왔을 때에는, 그 녀석도 건강하게.....!

제이드 : 그 후였습니다. 도사를 노리던 악한들의 습격에 대항하다 명예로운 전사를 마쳤습니다.

이온 : 죄송합니다. 제 힘이 모자라.....

마을 사람 :그랬습니까. 우리 마르크는 도사님을 지키고서.....

마을 사람 : 마르크가 태어났을 때 로렐라이 교단의 예언사(스코어러)님께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 : 이 아이는 언젠가 고귀한 분의 힘이 되리라고. 그러니 군인으로 키우라는 말을 듣고서.....
마을 사람 :이런 못난 놈,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해도 그렇지 부모보다 먼저 갈 줄은.....!

.....

티아 : 대령님.....

제이드 : 칭찬받는 것도 매도 당하는 것도 부모를 울게 만드는 것도 군인에게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신경 쓰시지 마십시오.
제이드 : 그보다 지금은, 엔게이브의 주민들을 케세드니아에 도착시키는 것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두번째 야영)

제이드 : 겨우 절반을 넘었습니다.

주민 : 미안합니다. 여기 혹시 치유술사(힐러)님 아니면 외상약의 예비를 구할 수 없을까요?

티아 : 저도 일단은, 치유술사입니다.

제이드 : 부상자이십니까?

미리암 : 아니요..... 제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제이드 : 분명히 여성 분들은 알비올에 타시라 전했을 터입니다만.

주민 : 우리도 그렇게 말했는데 말입니다. 미리암 씨가, 자기는 됐으니 다른 사람을 태워달라며 뜰질 않길래.....

티아 : 그런.....

미리암 : 괜찮아요. 당연히 저도 죽을 생각 같은 것은 없지만요.
미리암 : 단지, 저는 남편도 아이도 잃어버렸기에.....

제이드 : 전쟁 탓이었습니까.

주민 : 이 분 남편 되는 사람은 액제류스 광산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티아 & 이온 & 아니스 : !!

미리암 : 하필이면, 아들이 아빠를 만나고 싶다면 그 마을에 머무르고 있던 때에 소멸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제이드 :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허나, 그렇다면 더더욱 당신께서는 살아남지 않으셔서 안 됩니다.
제이드 : 돌아가신 가족의 뉘까지.....

미리암 :네.....

제이드 : 티아, 저 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이드 : 두 분을 대일로 모셔가게.

.....

티아 :무슨 말을 해 주어야 할 지 알 수 없었어요.

제이드 : 지금 여기서 진실을 고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이드 : 무언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면, 훗날 저 분이 마을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야기 하면 될 겁니다.

티아 : 분명 원망을 받겠지요.

제이드 : 별 수 없습니다.

(세번째 야영)

티아 : 겨우 야영지까지 왔네요. 케세드니아는 이제 바로 앞이에요.

제이드 : 예. 여기까지 부상자를 내지 않고 왔기도 하니,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십시오.

미리암 : 어제는 감사했어요.

티아 : 당신은.....

미리암 : 티아 씨 덕분에 다리가 나서 오늘은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었답니다.

티아 : 아니요, 치유술사로서 당연한 일인걸요.

미리암 : 티아 씨는 다아트 오라클 기사단에 소속되어 계시는군요?

티아 : 아..... 네. 그렇습니다.

미리암 : 부모님께서 걱정은 안 하세요?

티아 :두분 다 별세하셨으니까요.

미리암 : 어머..... 미안해요. 그랬군요. 쓸쓸하겠어요.

티아 :아니요.....

미리암 : 쓸쓸하지 않을거예요. 저도 남편이랑 아들을 잃고 나니..... 마음이 구멍이 뻥 뚫려 버렸답니다.

미리암 :정말, 예언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전해 줄려나요.

티아 : 예언은..... 아뇨, 예언이 뭐라고 말하던, 전쟁은 끝내지 않아선 안 돼요.

미리암 : 하지만 예언에 아직 10년은 전쟁이 계속된다고 나와 있다면 싸움은 그만큼 계속될 거잖아요?

티아 :10년 계속된다 노래되더라도 계속되게 해선 안된다 생각해요.

미리암 :다아트에 계시는 분인데도 무서운 말을 하시네요.

미리암 : 하지만.....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고마웠어요 티아 씨.

.....

제이드 :의외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

티아 :예언에서 벗어난다니, 실은 무섭습니다.

티아 :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예언에 의지하는 건 더 무서우니까요.....

제이드 : 그러시겠지요. 심경이 복잡하실 것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제이드 : 예언은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이벤트 필드의 출구는 로탈로 다리이다)

[유통거점 케세드니아 남부]

티아 : 겨우 도착했네요.....

제이드 : 사상자는 없습니다. 뭐, 남겨져서 다치거나 한 사람은 있습니다만.

마을 사람 1 :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마을 사람 2 : 모두가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전투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면 아이템이 시시한 것으로 바뀌거나, 아예 없어지는 듯 하다)

마을 사람 1 : 아무리 감사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 2 : 수고하셨습니다!

제이드 :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발하셨습니다.

아니스 : 역시 대령님이시네요!

제이드 : 아부하셔 봤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일행 : (웃는다)

제이드 : 자아, 우리들도 거리로 가십시오.

[유통거점 케세드니아 시장]

루크 :저건!

제이드 : 루크! 왜 여기 계십니까? 정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루크 : 총대장 알만다인 백작이 대영사 모스랑 회담한답시고 여기 온다더라고. 그래서 따라온 참인데.....

제이드 : 그래서 전정터를 뚫고 나오신 겁니까? 위험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루크 : 그 쪽이야말로, 그란코크마로 도망칠 줄 알았어.....

제이드 : 그란코크마는 요새도시입니다. 개전과 동시에 외부에서 침입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루크 : 그래서 케세드니아에.....

제이드 : 그래서, 알만다인 백작과의 이야기라는 것은?

루크 : 지금부터 하러 가려고.

나탈리아 : 서두르시와요.

(시장을 내려가면 알만다인과 모스를 보게 된다)

나탈리아 : 알만다인 백작! 이런 어떻게 된 일이지요!

알만다인 : 나탈리아 전하!

나탈리아 : 제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마르쿠트 황제 피오니 9세 폐하에게서도 말이 있었을 텐데요!

알만다인 : 그러나 실제로 전하를 알현해 볼 수는 없었기에, 폐하께서 마르쿠트의 모략이라 하시며.....

나탈리아 : 제가 금방 성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제 부덕함 때문입니다.
나탈리아 : 하지만 이렇게 만난 지금 더 이상이 전쟁에 대의는 없어요. 즉시 휴전 준비에 착수하십시오!

루크 : 알만다인 백작, 루크입니다.

알만다인 !! 살아..... 계셨단 말인가.....!

루크 : 액제류스가 소멸되었던 건 내가 —— 제가 초래한 일입니다.
루크 : 비난을 받을 사람은 마르쿠트가 아닌 이 루크 폰 파브레 단 황명!

나탈리아 : 이번 싸움이 오해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루크 : 그리고, 지금 전장이 되어 있는 루그니카 평야는, 액제류스와 마찬가지로 붕괴..... 소멸될 위험이 있어!

나탈리아 : 자아, 싸움을 그만두고 지금 당장 국경을 여세요!

모스 : 기다리시게, 여러분. 가짜 공주에게 신하의 예를 취할 필요는 없소이다.

나탈리아 : 무례한 것! 아무리 로렐라이 교단의 대영사라 하더라도,
나탈리아 : 나를 모욕하는 것은 킨라스카 란발디어 왕국을 모욕하는 일이다!

모스 : 나는 전부터, 경건한 신자에게서 비통한 참회를 받아오고 있었다.
모스 : 그 사나이는, 왕비의 시녀와 자신 사이에 태어난 여자아이를, 황송하게도 왕녀 전하와 바꿔쳤다고 털어놓았다.

루크 : 헛소리 집어쳐!

모스 : 헛소리가 아니다. 그럼 그 자의 머리칼과 눈동자 색은 어떻게 되나.
모스 : 과거부터, 란발디어 왕가에 태어난 자는 붉은 머리카락과 녹색 눈동자를 가졌었다.
모스 : 허나, 저 자는 금발, 돌아가신 왕비님께서는 어두운 밤과 같은 흑발이셨지 않나.
모스 : 이 이야기는 이미 폐하에게도 전했다. 확실한 증거물과 함께 말이지.

모스 : 바티칼에 간다면, 폐하께서는 그대에게 나라를 속인 대죄인으로서 벌을 내리시겠지!

나탈리아 : 그런..... 그럴 리가 없사워요.....

(나탈리아에게 '가짜 공주님'의 칭호.....)

모스 : 백작님, 슬슬 전쟁터로 돌아가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알만다인 :으, 으음. 그렇구려.

루크 : 이봐, 기다려! 전장이 무너진단 말야!!

모스 : 그게 어쩔다는 건가.

일행 : !!!!!

모스 : 전쟁만 무사히 발생시킨다면 예언은 완수되는 셈이 된다.

모스 : 유리아 시티 농들은 겨우 붕괴 따위를 가지고 무엇을 두려워하는 건지.

티아 : 대영사 모스..... 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모스 : 흥. 진짜로 무서운 자는 네 오빠가 아니겠나.

모스 : 그보다 도사 이온. 이제와서 아직도 정전을 주장하실 셈이십니까.

이온 : 아니오. 저는 한번 다아트로 돌아가려 생각합니다.

아니스 : 이온 님!? 진심이세요!?
아니스 : 귀국하신다면, 총장이 트리를 없애기 위해 세피로트의 봉인을 열라고 시킬 거라구요!
오후!

모스 : 반이 멋대로 나서지는 못하게 할 것이다.

모스 :역시 이 이상, 외곽 붕괴를 노리게 해서는 약간 귀찮으니 말이지.

아니스 : 실력 행사로 나온다면.....

이온 : 그렇게 되면, 아니스가 도우러 와 주겠지요.

아니스 :후해?

이온 : 창사(唱師) 아니스 타틀린, 현재 부로, 당신을 폰마스터 가디언(고사수호역) 직에서 해임하겠습니다.

아니스 : 자, 잠깐 기다려 주세요! 그런 건 곤란해요!!

이온 : (소근)루크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마시고 잘 지키면서, 전해 들은 것은 나중에 반드시 제게 전해 주세요.

아니스 : !!

(아니스에게 '전 수행원' 의 칭호)

이온 : 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께도 아니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온 : 다아트로 가지요.

모스 :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

루크 : 이온 녀석, 무슨 생각이 있어서.....

제이드 : 아니스를 여기에 남겨 두셨다는 것은, 조만간에 다시 돌아오실 생각이시겠지요. 그보다 ——.

나탈리아 :저라면, 괜찮아요. 그보다 바티칼로 가지요.

나탈리아 : 이제 킴라스카 군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버..... 아니 국왕 폐하 뿐이시랍니다....

티아 : 그렇다면 국경을 넘을 방법을 찾지 않아선 안 돼.

제이드 : 여기는 국경선 위의 거점입니다. 분명 뚫고 들어갈 곳이 있을 겁니다.

가이 : 루크. 한동안 나탈리아한테서 눈 떴지 마라. 걱정된다.

루크 :어.

<페이스 채트 ' 나탈리아의 비밀' >

아니스 : 나탈리아, 진짜 공주님이 아닌 걸까.....

가이 : 진짜이건 아니건, 우리에게 있어선 아무 다를 바 없어. 그렇지?

제이드 : 우리들은 그래도 좋겠습니다만, 본인 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나 할까요.

티아 : 그래요, 걱정이 돼.

루크 : 나도 자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던 때, 엄청 좌절했었지.....
루크 : 모스 저 자식..... 설사 구라였다 하더라도 용서 못 해.....

티아 : 루크.....

제이드 : 그녀의 문제는 그녀 자신이 답을 찾아내지 않아선 안 됩니다.

제이드 : 쌀쌀맞은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은 전쟁을 멈추는 일부터 생각하십시오.

루크 : 그래야, 되나...

디어비스 대사해석본(16)

[유통거점 케세드니아 마르쿠트 방면]

(주점의 문을 통해 바티칼 쪽으로 넘어가려 하면, 웬 사나이가 길을 막고 양호를 대라 한다)

우르시 : 크헤헤. 양호 살 생각 없나?

루크 : 어! 너네들은!

노와르 : 어머니. 언젠가 만났던 도련님 일행 아니셔.

아니스 : 앗..... 당신들! 이온 님을 유괴해 내질 않나 여기서 돈을 뜯질 않나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거앗!

노와르 : 아항. 하지만 돈이 너무 좋은 걸 어쩌겠어.

아니스 : 누군 싫어하는 줄 알아!

가이 :야 야. 양튼 칠흑의 날개 형씨들. 대체 얼마에 팔겠다고 그래?

우르시 : 머릿수 여섯이니.....

유우 : 유우도 있어영!

우르시 : 7 명이니 7000 갈드 되겠습니다.

티아 : 기가 막히는 장사야.....

루크 : 이 바보야. 니가 쓸데없는 소릴 하니가 1000 갈드 불었자나.

유우 : 유우우우우.....

요크 : 낼 거야? 안 낼거야?

<선택지>

비싸..... ← 선택
알았어

루크 : 비싸.....

가이 : 그렇지. 원체부터, 정직하게 바보처럼 낼 필요가 없다 생각된다.

아니스 : 여기 아직 마르쿠드 땅이죠? 대령님, 체포해 버리세요.

제이드 :라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지나 가게 해 주신다면, 놓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요크 : 말해 두겠는데, 형씨. 당신들이 우리 평민을 괴롭히는 전쟁을 해 쳐먹으니까,
요크 : 우린 그걸 그걸 이용해 돈 좀 벌어보자 이거 야나.

나탈리아 :그도 그렇사와요. 여기서는 돈을 지불하고.....

티아 : 나탈리아 답지 않아.

티아 : 전쟁이 있었건 없었건 범죄를 행하는 건 개인의 도덕에 벗어나는 일일텐데.

나탈리아 : 그건..... 그렇지만요.....

제이드 : 그럼 현병을 불러 오겠습니다.

노와르 : 기다리셔.

노와르 :좋아. 당신들은 지나가게 해 주지. 대신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구.
노와르 : 전쟁으로 국경을 봉쇄당해 곤란해진 끝에 여길 지나가려 드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루크 : 고마워.

(주점의 문을 지나 킴라스카 영으로 넘어가자)

<페이스 채트 '칠흑의 날개' >

가이 : 나 참, 같이 못 놀겠군. 칠흑의 날개 농들.

제이드 : 범죄 행위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내버려 두도록 하십시오.

아니스 : 전쟁을 먹이로 삼는 악랄한 무리들! 용서할 수 없사와요오~!

나탈리아 : 정말이시와요!

아니스 : 나 참! 진짜 의적이 들으면 웃겠지만 아주 그냥!

루크 :그걸, 지금 내 흥내라고 내냐?

아니스 : 바보는 바보라서 바보인 것이니 말입니다. 어쩔 수 없겠습니다야.

제이드 : 아니스, 흥내대기가 점점 본심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아니스 : 예구!

제이드 : 뭐어 그들처럼, 살아가기 위한 수단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도 전쟁의 상처라 할 수 있겠지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티아 :어서 전쟁을 말리지 않아선 안 되겠네요.

(킴라스카 쪽으로 넘어가서 필드로 나가려 하면, 자오 사막으로 나가는 길마저 봉쇄된다. 아스터의 저택으로 가 보자)

[아스터 저택 아스터의 방]

아스터 : 아니 루크 님! 나탈리아 님도!
아스터 :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나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재회할 수 있어 기쁩니다. 헛하히히히...

제이드 : 실은 당신께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만.

아스터 : 엔게이브 주민을 받아들여 달라는 말씀이시라면, 아까 이온 님에게서 의뢰를 받았 습니다. 안심하시길.

루크 : 다행이다.....

제이드 : 덕택에 살겠습니다. 감사.

아스터 : 별 일 아닙니다. 잊히히...

루크 : 그런데 자오 사막에서 뭘 일 있었어?

아스터 : 이거 귀가 좋으십니다..... 조금 곤란한 일이 일어났지 뭐니까.
아스터 : 지진 탓인지, 자오사막과 이스파니아 반도에 균열이 가서 이 부근이 가라앉고 있다 합니다.

아니스 : 그럼, 흑시가 아니라도!!

티아 : 케세드니아가 무너지고 있는 거야.....!

하인 : 전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시 32분부로 킴라스카 군이 엔게이브에 도달했습니다!

제이드 : 이런 이런, 이동했건 남았었건 엔게이브 주민들은 위험에 처할 운명이었다..... 라고나 할까요.

티아 : 노엘..... 늦지 않았을까.

아스터 : 수고했다. 계속 상황을 감시해라.
아스터 : 방금 말씀에서, 케세드니아가 무너진 다 들었습니다만?

루크 : 액제류스나 센트비나랑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라고!

아스터 :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스터 : 여기는 양 나라의 국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 이 전시하에서는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가이 : 이 근처에도 패시지 링이 있었고, 반 요장이 그걸 멈췄다는 얘기가 되나?

나탈리아 : 그렇다면 자오 유적이겠어요. 이온이 끌려갔었던.....

루크 :젠장, 어쩌라고? 지금 당장이라도 세피로트 트리를 부활시키지 않았다간.....

제이드 : 아니오, 그것은 무리라고 테오도로 씨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허나.....

아니스 : 대령님! 뭔가 생각이 있으세요!?

제이드 : 아뇨, 트리는 재생시킬 수 없더라도 세피로트가 밀어 올리는 힘은 아직 살아있을 겁니다.

제이드 : 그것을 이용해서, 승강기처럼 천천히 내려보낼 수는 없을까 해서 말입니다.

티아 : 패시지 링을 조작할 수 있을까요.

제이드 : 그것만은 알 수 없습니다.

루크 :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보자. 이대로는 무너지는 걸 앉아서 기다리게 될 뿐야!

아스터 : 하시고들 계시는 이야기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만.....

루크 : 케세드니아가 사라지는 걸 막을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아스터 : 무슨 뜻이십니까?

가이 : 실은.....

(설명한다)

아스터 :마계(클리포드)입니까. 금방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스터 : 하지만 어찌 되었건, 저희들에게는 당신들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스터 :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제게 맡겨 주십시오. 케세드니아를 부활드리겠습니다.

루크 : 좋아, 자오 유적으로 가 보자!

루크 :나탈리아.

나탈리아 : 네? 아, 아아. 네. 가야지요.....

루크 : 그니까..... 기운 내, 아직 모스가 했던 말이 진짜인지 어떤지도 모르잖어.

나탈리아 : 네.....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어요.....

<페이스 채트 '자오 유적으로'>

티아 : 오빠..... 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전쟁터 뿐만이 아니라, 케세드니아까지 무너뜨리려 하다니.....

티아 : 이런 짓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까.....

루크 : 티아.....

가이 : 반 요장이 노리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제이드가 제안한 대로 해 보지.

아니스 : 이젠 도망칠 구석이 없으니깐, 해볼 수밖에 없대구!!

루크 : 글치. 이 주변이 떨어진다면 우리도 위험해. 노엘은 아직 안 돌아왔으니.

티아 : 자오 유적의 패시지 링도 슈레 언덕 때 처럼 잘 조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루크 : 이번에도 될 대로 되라는 식인가..... 암튼 할 수밖에 없어.

(이제 자오 사막으로 나가려 하면...)

병사 : 아스터 님에게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봐, 들리나. 복제!」

루크 :아야.....!

「사막 오아시스까지 와라. 할 말이 있다」

루크 :오아시스?

「그래. 알았다면 당장 와라!」

가이 : 또 그 두통이나? 분명 애쉬 목소리가 들린다 했었지.

루크 :그래. 나 그놈 복제니까.

나탈리아 : 애쉬.....! 애쉬는 뭐라고 하셨나요?

루크 : 어..... 응..... 사막 오아시스까지 오라던데. 할 말이 있다면서.

티아 : 오빠가 뒤에서 지시한 건 아닐까.

제이드 : 그건 어떨려나요. 한결같이 반의 편이라고만 생각하기도 힘듭니다.

루크 : 오아시스에 들렀다 가자. 애쉬 애길 들은 다음에 세피로트를 제어하러 가도 늦지 않을거야.

(들은대로 오아시스로 가자)

<페이스 채트 '애쉬로부터의 호출'>

티아 : 애쉬..... 이번에 불러낸 데엔..... 뭔가 속셈이 있는 것일지도 몰라. 조심해서 만나자.

나탈리아 : 애쉬는 우리들의 적이 아니어요!

아니스 : 아군이라 하기도 힘들지 않을까야. 애쉬, 저번에도 뭘 하고 있는지 말두 안 해줬었구.

티아 : 그랬어?

나탈리아 : 네. 자세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조사하고 싶은 것이 있다, 라는 말씀은 하셨었지만요.

티아 : 그래..... 아무튼 지금은 애쉬와 오빠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역시 경계만은 해두는 편이 좋겠다 생각해.

나탈리아 : 알겠사와요.....

[사막의 오아시스]

애쉬 : 이제야 왔나.....

루크 : 얘기관 건 뭐야.

애쉬 : 뭔가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나? 의식이 뒤섞여 휘저어진다고 할까.....

루크 : 뭐? 뭘 소리야 너..... 니가 나랑의 회선을 연결해 오지 않는 이상 괴상한 일 없구만.....

애쉬 :그러나.

나탈리아 : 애쉬.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어딘가 몸이 좋지 않으시다면가.....

애쉬 :별로.

가이 : 야, 그게 다냐.

애쉬 :엔게이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전장이 붕괴되는 것도 얼마 안 남았겠지.

티아 : 그럴 수가!

나탈리아 : 이대로는 전쟁터에 있는 모두가 죽고 말아요!

애쉬 : 바보가. 너도 여기 있다면 붕괴에 휘말려서 죽어!

나탈리아 : 그런 일은 알고 있사와요.

나탈리아 : 그래서 우리들은 세피로트의 분출을 이용해, 케세드니아를 안전하게 강하(降下)시킬 생각인걸요.

애쉬 :그런 게 가능한가?

제이드 : 글썽올시다?

애쉬 : 교활한 작자로군.

애쉬 : 혹시 지금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같은 방법으로 전장도 내려보낼 수 없겠나?

티아 : 하지만 슈레 언덕에 가는 게 늦지 않을지 어떨지.....

애쉬 : 늦지 않아. 원래부터 세피로트는 별의 내부에 이어져 있는 것이니. 당연히, 패시지 링끼리도 이어져 있다.

애쉬 : 링은 평소에는 잠들어 있으나, 가동만 시키면 먼 곳의 링에서 다른 링을 조작할 수도 있다.

제이드 : 자오 유적의 패시지 링을 기동시킨다면, 이미 켜져 있는 슈레 언덕의 링도 조작할 수 있겠나?

애쉬 :반이 그렇게 말했었다.

나탈리아 : 애쉬! 어디로 가시나요.

애쉬 : 난 반의 동향을 캐내마. 놈이 다음에 어디를 떨굴 작정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거다.

애쉬 :뭐, 너희들이 이 대륙을 안전하게 내려보내지 못한다면 나도 여기서 뉘지겠지만.

나탈리아 : 약속하지요. 확실히 내려보내겠다고. 맹세할게요.

애쉬 : 손가락 걸기라도 하자는 거냐? 유치하군.

나탈리아 : 애쉬.....!

애쉬 : 세상에 절대라는 일은 없는 거다. 그랬기에 난 그 때.....

애쉬 :난 가야겠다. 너희들도 꾸물거리지 마.

<페이스 채트 '애쉬가 했던 말의 의미는?'>

루크 : 애쉬 자식, 결국 무슨 불일이었던 거야? 지 할말만 다 하고 가던데.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가이 : 잘 모를 놈야. 변함없이 말이다.

제이드 : 용건은 알 수 없었습니다만 중요정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이드 : 전장이 무너진다면가, 패시지 링의 성질이라면가, 를 말입니다.

나탈리아 : 역시 우리들을 돕기 위해.....

제이드 :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다 할 수 있습니다.

루크 : 그렇지. 하지만, 반 선생과의 연결은 이젠 없는 것 같더구만.

가이 : 쓸데없이 일이 더 복잡해진 것 뿐일지도 모르겠다만.

제이드 : 뭐어,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일단, 자오 유적으로 서두르십시오.

(다시 자오 유적으로 가자)

[자오 유적]

<페이스 채트 '다시 자오 유적'>

아니스 : 이런 데에 두번이나 볼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

티아 :얼마 전 일이었는데도, 전에 왔을 때와는 상당히 달라졌어. 우릴 감싸고 있는 상황이.....

제이드 : 그렇습니다. 그 때엔 그란츠 요장(謫將)도 적이 아니었지요. 아니, 그 본성을 간파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니스 : 맞아요 맞아. 지금 생각해 보면, 설마 총장이! 라는 느낌이던 걸~.

제이드 : 아니스도, 아직 모두에게 그다지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지요 아마.

아니스 : 하왓! 그렇지 않아요 뭐. 지금도 옛날도 귀여운 아니스 그 자체라구요!

제이드 : 어이쿠, 그러셨습니까. 귀여우신 아

니스 양♪

아니스 : 뭔가 엄청 열 받네요!

티아 : 두 사람은 변함없다, 일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이벤트)

아니스 : 패시지 링~♪ 패시지 링~♪

나탈리아 : 긴장감이 전혀 없사워요.

가이 : 하하, 뭐 어때.
가이 :그보다, 애쉬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될라나?

나탈리아 : 애쉬를 믿지 못하시겠어요?

가이 : 아니. 다만 함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구석은 있지.

티아 : 확실히.....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어.

제이드 : 패시지 링의 성질을 생각해 보더라도 정보는 옳은 것이었다 생각합니다.
제이드 : 단지,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일행 : . . .

루크 : ...지금은 외각대지를 무사히 내려보내는 것만 생각하자.
루크 : 그리고 애쉬도 외각대지를 소멸시키고 싶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거야.

티아 : 그러네..... 이려고 있는 동안에도 사태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니스 : 뭇들 해~? 빨랑 끝내자구~.

가이 : 하하..... 아니스처럼 사는 게 지금은 제일일지도 모르겠다.

(이전 라르고 & 싱크와 싸웠던 곳으로 향하면...)

아니스 : 우양!?

루크 : 다리가 흔들리고 있어?

티아 :다리 뿐만이 아니야. 이 지하도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제이드 :미약하긴 합니다만 보술(講術)이 느껴집니다.

티아 : 저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만.....

가이 : 함정인가? 아니면.....

나탈리아 : 적일런지요?

루크 : 그렇다 해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적어도 신중하게 나아가자.

제이드 : 이런, 당신답지 않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려.

루크 : 시꾸라.

가이 : 돌아가려 하니 다리가 없어져 있더라..... 라는 일은 사양이다만.

아니스 : 무서운 소리 하지 마~!

(얼마 안 가서...)

루크 : 뭐, 뭐야!? 지진!?

제이드 : 아닙니다. 이젠.....

티아 : 위험해!

(빠다귀로 된, 용가리와 전갈의 퓨전 비스무리한 게 나타난다)

제이드 : 옵니다!

<BOSS - 티란피온>

언데드... 를 위장한 전갈, 거대보스 족속이긴 한데, 디스트의 로봇 같은 것보다는 좀 더 강하고 멧집도 있다.
노멀 기준에서 HP가 20000 가량으로 떨어지면 뒤집어 쓰고 있던 해골바가지가 부서져 본 모습을 드러낸다.

이 때부터는 덩치가 크다는 것을 이용해 꼬리를 마구 돌려 공격하는 등 횡포를 일삼으니 조심하자.
약점은 없지만 딱히 내성도 없으므로, 전열 캐릭터로 마크하고 뒤쪽 티아나 제이드의 보술로 공격하는 게 편하다.

가이 : 이놈은 대체.....?

티아 : 창세기 시대의 마물이 아닐까. 이전 유리아 시티에 있는 책에서 본 적이 있어.
티아 : 하지만, 이렇게 호전적이진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나탈리아 : 여기엔 이전 오라클의 6 신장이 와 있었지요. 그들이 자극시켜 둔 것이 아닐지요?

루크 : 유적을 지키고 있었던 것 뿐일지도 몰라.

아니스 : 아무래도 좋다구우. 암튼 이런 게 또 나오지 말 것을 기도하자는 느낌~.

제이드 : 동감입니다. 그럼 가실까요.

[자오 유적 패시지 링 관리시설]

(조금 들어가면 이벤트)

아니스 : 와아~ 넓다~아! 높아~아!

루크 : . . .

티아 : 왜 그래, 루크.

루크 : 이런 거 위에서 살고 있었다니 믿기가 않는다 싶어서.

티아 : 하지만, 이게 진실이야. 인간이란 자기 범위에 있는 것 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니까.

제이드 :하나 호기심, 지식욕은 때때로 필요없는 진실을 사람에게 들이댑니다.

가이 : 외각 대지도 마찬가지로.

나탈리아 : 그래도 우리들은 보고 만 것이니까요, 현실에서 도망칠 수는 없답니다.

루크 :빨랑 갈까. 붕괴가 우릴 기다려 주진 않을 거야.

<페이스 채트 '언제까지 걸어야 되는 걸까?>

아니스 : 패시지 링 아직 멀었어~. 되게 머네~.

가이 : 전에 왔을 때보다도 더 깊어 들어가고 있으니 말이다. 그야 길게도 느껴지겠지.

아니스 : 이미 엄청 내려왔는걸? 돌아갈 땐 이걸 또 올라간다니~! 말두 안 돼. 완전 말두 안 돼!

유우 : 말이 안 돼염~!

제이드 : 응석을 부리고 있을 틈은 없습니다.

아니스 : 안다구요요. 이왕~.

제이드 : 돌아갈 때엔 가이가 업어다 준답니다.

아니스 : 왓? 진짜!? 가 아니라, 괜찮아?

가이 :그렇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니스 : 가이가 그럴지 뭐..... 특이체질이라니깐.

가이 : 특이체질이냐..... 여성이 몸에 잘 받는 체질이 된다면 좋겠다만~.

일행 :

제이드 : 썰렁해진 공기 덕택에 좀 기운이 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어서 가십시오.

(제어장치에 다가가면...)

티아 :다행이야. 여기도 나와 반응을 해주었어.

아니스 : 역시 총장이 막아 났네요.

제이드 : 그런 듯 합니다. 하지만..... 세피로트가 폭주.....?

루크 : 저기, 붉은 부분 깎아내면 되지.

(초진동을 구사한다)

루크 : 이 다음은?

제이드 : 아아, 예. 빛의 바로 위에 위로 향하는 화살표를 그려 주십시오.

티아 : 제가 대신 할까요?

제이드 : 아니요. 억지로 양호를 소거시켰기에, 통상의 조작으로는 써 낼 수 없습니다.

제이드 : 루크의 초진동으로 억지로 깎아 가지 않으면.....

제이드 : 다음으로 명령을 기입해야 합니다만 고대 이스파니아어 어를..... 모르시겠지요?

루크 : 당연하잖나!

제이드 : 알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포닉 언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법은 거의 같은 것으로 되겠지요.

루크 : 뭐라고 쓰는데?

제이드 : 트리 상승. 속도 3 배. 고정.

루크 : 알았으.

가이 : 잘 되가는 모양이구만.

아니스 : 그치만 아직 엔게이브가.....

제이드 : 이어서 제 4 세피로트에서 제 3 세피로트로 선을 이어 주십시오.

제이드 : 다음에는 제 3 세피로트에 아가와 같은 것을 기입해 주십시오.

루크 : 제 3 세피로트란 게 슈레 언덕 거기였지. 해볼게.

(영상이 뜬다. 대충 잘 된 모양)

제이드 :내려가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제이드 : 만일을 위해 강하가 종료될 때까지 패시지 링 곁에서 대기하도록 하십시오.

.....

제이드 : 완전히 내려온 것 같습니다. 패시지 링에도 이상은 없군요.

루크 : 다행이구만.
루크 :헤헤, 뭔가 너무 잘 돼서 맥이 빠질 정도인데.

아니스 : 너무 우쭐거리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루크 :음. 그건 그럴지도.

가이 : 엇, 순순한데.

루크 : 우쭐해 있다가 뒷감당 안되는 짓을 저지르는 건..... 무서우니.

티아 : . . .

루크 : 티아. 그런 표정 안 해도 나 이제 폭주 안 한단니까.

티아 : 응응. 그런 게 아니고.....

아니스 : 분명 지쳐서 저런 걸 거야. 어영부영하다가 내려오는 데 하루 종일 걸렸다구.

(티아가 쓰러지지만 가깝던 가이가 받아주지 못해 그대로 털썩...)

루크 : 야, 괜찮어!?

티아 : 미안해, 괜찮아.

가이 : . . .

티아 : 컨디션 관리도 못 하다니 병사로서 실격이네.

나탈리아 : 병사이니 하는 걸 염려하기보다 좀 더 자기 몸 걱정을 하세요. 정말로 괜찮은가

요?
티아 : 고, 고마워. 하지만 정말 괜찮아.
제이드 : 그렇다면 밖으로 나갑시다. 마계(클리프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을 테니 말입니다.

가이 : (금적금적)

제이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생각하신다면 원인을 캐내시는 편이 좋을리라 생각합니다.

가이 : 뭐? 아아..... 그렇군.

<페이스 채트 '강화작전 대성공!>

유우 : 대성공이에요~!

제이드 : 전장도 잘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루크 : 어. 이번에 여러 패시지 링을 동시에 조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루크 : 혹시 지금 있는 링에서 거리가 떨어진 장소가 무너지기 시작해도
루크 : 이 방법이려면 링 원격조작으로 내려보낼 수 있다고.

가이 : 그래. 이걸로 이제 허둥지둥거릴 필요는 없어진 셈야.

루크 : 전장터 쪽도 전장이 통째로 떨어졌으니, 상황이 바뀌어 있겠지.

가이 : 뭐어, 센트비나 봉괴에서부터 여기까지 쉴 틈도 없었으니 말이다.
가이 : 여기서 한숨 돌려도 되지 않겠냐? 티아도 꽤나 피로가 쌓여 있는 모양이네.

루크 : 그게 좋을지도 모르겠어.

유우 : 갯어염~.

(밖으로 나가자)

[자오 유적, 마계]

루크 : 틀림없이 마계구만.....

아니스 : 근데, 여기서 어떻게 외각으로 돌아가게?

가이 : 그랬나. 알비올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었지.

제이드 : 할류 장소는 케세드니아로 정해 두었습니다.
제이드 : 노엘의 실력이라면, 강하 중인 대륙에도 착륙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티아 : 일단 케세드니아로 가 보자.

[유통거점 케세드니아, 마계]

노엘 : 여러분! 무사하셨군요!

루크 : 그 쪽이야말로! 언제 케세드니아에 도착했어?

노엘 : 이 부근이 내려오기 조금 전이었어요.

티아 : 엔게이브의 모두는?

노엘 : 무사히 여기까지 날랐군요.

아니스 : 다행이야~. 수고했어♡

제이드 : 도착하자마자 미안합니다만 다시 비행할 수 있겠습니까?

노엘 : 물론이지요. 저는 알비올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준비가 끝나시는 대로 와 주세요.

가이 : 외각으로 돌아가게?

제이드 : 조금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기에 마계(클리프드)의 하늘을 날아 보았으면 합니다.

루크 : 뭐가 신경쓰이는데?

제이드 :확증이 없는 일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스 : 대령님이 저렇게 말하실 때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다죠.....

루크 : 알았어. 그럼 암튼 날아 볼까.

<페이스 채트 '애쉬 일'>

루크 : 으~음.....

제이드 : 무슨 일이십니까, 루크. 희한하게 진지한 얼굴로. 배탈이라도 나셨습니까?

루크 : 왜 그렇게 되는 건데! 잠깐, 애쉬에 대해 생각해 봤던 것 뿐이라고.

제이드 : 호오.

루크 : 자식이란 유리아 시티에서 만났을 땐 말하다 보니 냅다 뺨이 돌아서 싸우게 됐었는데,
루크 : 오아시스에선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질 않았단 싶어서.

루크 : 케세드니아를 내려보내는 일로 머리가 썩 차 있었으니까 그 때엔 신경을 못 썼었거든.....

제이드 : 그도 다른 일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으니 말입니다. 의식이 취져버린다면가는 말을 했었고요.

루크 : 전에는 나, 두통 나고 환청도 들리고 그랬었는데. 그걸 말하는 거였을라나.....

제이드 : 코럴 성에서 당신과 애쉬의 회선이 연결된 다음은 서로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제이드 : 그 이전의 그것은 다른 요인이 있었겠지요.

루크 : 최근엔 그 환청이 안 들린단 말이지, 나.

루크 : 애쉬랑 연결되고 나서, 대충 익숙해져 버린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제이드 : 흠. 그가 좀 더 무언가 이야기 해준다면 추측도 가능하겠습디다만..... 그도 솔직하질 못하니깐요.

루크 : 「그도」 라니..... 제이드 당신이랑 같다는 뜻야?

제이드 : 음. 그렇게 반격을 하셨습니까.

루크 : 영?

(상인들은 숙소에 몰려서까지 장사를 하는 근성을 보이고 있다)
(예의 마차 마부에게서, 초반에 티아의 손을 떠난 펜던트는 그란코코마의 라이즈라는 세공사에게 팔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마을에서의 볼 일이 끝났다면 필드로 나가 알비올에 올라타 비행하자)

[알비올 내부]

루크 : 우와, 저 세피로트 트리 맛이 간 것 같지 않아?

아니스 : 반짝거리는가 하면 흐릿해지기두 하고..... 꺼지기 직전의 음식등불 같아.

제이드 : 역시 세피로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까..... 패시지 링의 경고대로입니다.

아니스 : 세피로트가 폭발요?

제이드 : 예. 아마 무언가의 영향을 받아 세피로트가 폭발을 일으켜, 트리가 기능 부전에 다른 것이겠지요.
제이드 : 요즘 지진이 잦았던 것도, 붕괴 탓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티아 : 기다려 주세요! 트리가 기능 부전에 빠진다면 외각대지는 설마.....

제이드 : 패시지 링이 사용량을 견딜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디다. 세피로트가 폭발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제이드 : 패시지 링이 고장나면 트리도 사라져, 외각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 멀지 않은 미래에.

루크 : 진짜냐! 유리아 시티 놔들 그걸 알고나 있어?

티아 : 할아버님께선, 이 이상 외각이 떨어지지 않을거라 말씀하고 계셨어..... 모를 거야.

가이 : 저기. 케세드니아도 세티로프 힘으로, 액상화(液狀化) 된 대지 위에 떠 있는 거지?
가이 : 그럼, 패시지 링이 망가지면.....

제이드 : 진흙 바다에 삼켜지겠지요. 액상화되어 있는 마계의 대지가 고형화(固形化) 되더라도 한다면 얘기가 다릅니다만.

나탈리아 : 원래부터가, 장기의 오염과 액상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각 대지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나탈리아 : 외각 대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조차 대지의 액상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루크 : 있자나, 유리아 예언에 세피로트가 폭주한다는 말은 나온 적 없어?
루크 : 폭주하는 데엔 이유가 있을거 아냐. 대처법이나 뭐 그런 거 예언 없냐고.

티아 : 남아있던 하더라도 할아버님까지는 열람하실 수 없을 기밀정보 아닐까.

아니스 :이온 님이라면.
아니스 : 이온 님이라면..... 유리아 시티의 최고 기밀을 조사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해.....

루크 : 진짜!?

아니스 : 응. 그래두 도사이시구.....

루크 : 그렇다면 다아트로 가지! 뭔가 대처법이 있을지 몰라!

나탈리아 : 하지만 전쟁을 말리기 위해 바티칼에 가기로 했던 건 어떻게 하지요.

티아 : 전장(戰場)이 강화했다면 전쟁 같은 걸 따질 여유들은 없어졌을 거라 생각해.

나탈리아 :네, 그렇다면 좋겠지만요.

(예전처럼 유리아 시티의 북동쪽을 통해 외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외각으로 돌아가 날다 보면 다시 회화가 이어진다)

제이드 :루크니까 대륙에서 외각 대지에 남아있는 곳은, 그란코코마 주변만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탈리아 : 패시지 링이 잘 기능해서 전장의 병사들이 무사했다면 좋겠는데요.....

가이 : 그래. 그리고 카이트에도 주민들이 남아있었을 테지. 거기까지 떨어졌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

루크 : 다들 혼란스러워 하고 있겠지.....

(목적지는 다아트이지만, 그 전에 들르고 싶은 곳이 있다면 다녀 보자)

[로렐라이 교단 총본산 다아트]

<페이스 채트 '땀 냄새?>

나탈리아 : 사막에 비하면, 이 부근은 천국이 아닌가요.

아니스 : 화산 영향 때문에 실은 꽤 찜찜, 그런 느낌이 안 들어. 다아트 최고~.

루크 :그래도, 우리들 땀 냄새 안 나냐?

가이 :음~. 모두가 땀냄새 난다면 냄새아 모르지.

나탈리아 : 땀 냄새가 나는 왕녀라니아니, 생각해 보면, 저는 실은 왕녀가 아닐지도 모르는 것이었지요.....

티아 : 나, 나탈리아? 실망하지 마. 우리, 땀냄새는 나지 않을거라 생각해.

아니스 : 티아 티아. 위로하겠다면 그게 아니라 공주님일지 어떨지 쪽이 중요하대구.

티아 : 왓 아앗..... 미안.....

루크 : 으~음..... 냄새가 풍기는 건 아니겠지 만, 역시 신경쓰인다 이거야..... 어 근데, 루크 : 제이드 쪽에서는 희미하게 좋은 향기가 나는데. 향수?

제이드 : 향기는 신사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나탈리아 :군인 조차 몸가짐에 신경을 쓰고 계신데..... 나탈리아 : 아아..... 저는 상류계급 사람으로서 실격이어요.....

가이 : 나탈리아..... 점점 걱정하는 부분이 빛 나가기 시작하는군만.

루크 :나탈리아 의외로 맹한 구석이 있으 니까.....

(교회로 향하기 전 숙박을 하면 루크의 공부 이벤트가 이어진다)

티아 : 평소 하던 특별훈련 어떻게 할까? 당신 이미 최저한의 제어는 할 수 있는 것 같은 데.....

루크 : 최저한이자녀. 그러니 계속 해야지.

티아 : 알았어. 가자.

.....

루크 : 됐다!

티아 : 아..... 위험해!

「.....위험해!」

(회상 시작)

티아 :교교관님.....

리그렛 : 빈틈을 보이지 마라. 틈을 만들 때는 적을 유인할 때 뿐이야.

티아 : 교관님! 부상을!

리그렛 :별 일 아니다. 그보다 네게 다친 데는 없어?

티아 : 네, 네! 하지만 왜 오라클 기사단의 병사가.....

리그렛 : 반 총장께 적대하는 개혁파의 앞잡이 겠지. 어리석은 놈이야. 이런 짓을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는데.

티아 : 교관님..... 하지만 죽이시다니.....

리그렛 : —— 어설피구나 티아. 리그렛 : 네가 오라클 기사단의 정식 단원이 되면, 전장에 나가게 될 일도 있어. 리그렛 : 적을 살려두면, 그 대가는 자신의 목숨으로 치르게 된다.

티아 :그것이 군인의 일인 것이군요.

리그렛 : 그게 싫다면, 처음부터 각하가 너를 말리셨던 것처럼 군인이 될 생각은 버릴 일이야.

리그렛 : 싸우지 않고서도 각하의 힘이 되어 드릴 방도는 있으니까.

티아 :네네에.....

리그렛 : ——..... 개혁파에 장식 만인 지도자를 만들어 두는 편이 나을까.

티아 : 교관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그렛 :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현재)

루크 : 이걸 봐 줘!

티아 : 여기에 동지를 만들었던 거구나.....

루크 : 아직 숨은 붙어있지?

티아 : 응. 기절해 있을 뿐이야.

루크 : 그럼, 이놈 회복시켜 주라 티아. 그 다음 우린 여길 뜨게.

티아 : 루크..... 그러네. 그렇게 하자.

(장비나 아이템을 점검했다면 교회로 가자) (교회 앞에 소란이 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아트 교회 앞]

주인 1 : 언제쯤 되야 배를 내 줄거요.

주인 2 : 항구에 갔더니 여기 가 보라면서 쫓겨났다고!

트리트하임 : 루그니카 대륙의 80% 가 소멸되었다! 이 상황에서는 너무 위험하기에 정기선을 출항시킬 수 없소!

주인 3 : 거짓말 마! 그럴 리가 없잖아.

트리트하임 : 거짓말이 아니오! 루그니카 대륙의 소멸에 의해 마르쿠트와 킴라스카의 다툼도 휴전이 되었다.

트리트하임 : 어찌 되었건 자세한 상황을 알기 전에 배를 낼 수는 없소.

주인 1 : 루그니카 대륙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야. 그게 소멸되었다니..... 믿을 수 없군!

주인 2 :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세계가.....

.....

가이 : 이 상황에서 싸움을 계속할 정도로, 인고벨트 폐하도 어리석진 않았다는 얘기로군.

나탈리아 : 네, 그나마 다행이어요.

루크 : 그래도, 이 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큰 혼란이 일겠지.....

티아 : 이 다음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알 수 있다면 그것도 진정시킬 수 있을 거야.

제이드 : 그런 결론입니다. 이온 님과 면회를 해 봅시다.

[로렐라이 교단 총본산 다아트 교회]

가이 : 이온은 어디 있는 거야?

제이드 : 자신의 개인실에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티아 : 하지만 도사의 방에는 교단의 간부 밖에 들어갈 수 없어.

티아 : 열쇠 대신 봉진(封陳)을 설치해서 침입자 대비책으로 삼고 있어.

아니스 : 그런 때엔, 폰 마스터 가디언(도사수호역)인 이 아니스에게 말기시라♡

루크 : 전, 가디언이겠지.

아니스 : 아잉~. 「전」이긴 하지만, 방으로 통하는 보진(譜陳)을 발동시키는 주문은 확실히 알고 있는 걸.

루크 : 보진이라면 저기 옆 방에 있던 그거지?

아니스 : 그래. 자, 가자~.

<페이스 채트 '위정자로서의 의무'>

나탈리아 : 결국 루그니카 평원의 대부분이 무너져 버렸사와요.

아니스 : 하지만, 역시나 전쟁은 멈췄는 걸~.

티아 : 세계에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쟁이 멎지 않는다는 것도 알קות은 일이야.....

나탈리아 : 전쟁도 붕괴도 백성에게 있어 그 생명을 위협한다는 의미에서는 마찬가지..... 나탈리아 : 그 사실을 위정자들이 이해했다면, 전쟁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어요.

아니스 : 저기 높은 인간들은 맨날 자기네 생각만 하구. 진짜 정 떨어져.

티아 : 양 나라는, 이제부터 전쟁과 붕괴로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다스려 가지 않아서는 안 돼.

티아 : 이런 정세 아래에서야말로, 국가를 통치하는 자의 재능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닐까.

나탈리아 : 저는..... 역시, 저도 생각하지 않 아선 안 되겠지요..... 나탈리아 : 공무를 접해 온 사람으로서, 이제 부터 어떻게 해 나가야 할 지를.....

티아 : 나탈리아.....

(입구 오른쪽의 방으로 들어가자)

아니스 : 여기 여기. 아니스 : 그러니까..... 「유리아의 영혼은 도사와 함께」.

루크 : 우왓, 사라졌어!

티아 : 유리아 로드와 같은 원리야. 걱정할 필요 없어.

루크 : 좋아..... 가 볼까.

(이온의 개인실은 워프한 후 오른쪽 방이다. 그러나...)

루크 : 이온 녀석 어딜 간 거야.

티아 : 셋, 조용히. 누가 오고 있어!

아니스 : 이를 어찌..... 여긴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구우!

가이 : 숨자!

.....

모스 : 흠..... 누가 여기 있다 생각했는데..... 기분 탓이었는가.

디스트 : 그보다 대영사 모스. 아까 약속은 진짜이시겠지요.

디스트 : 전쟁 재개에 협력한다면 네비링 선생님의 복제 정보를.....

모스 : 말겨 뒤라. 반에게서 낚아채 줄 테니.

디스트 : 그렇다면 이 「장미의 디스트」가 전쟁을 재개시키기 위한 수단을 제안하기로 하겠습니까.

디스트 : 우선은 도사 이온에게 휴전을 파기한다는 도사 조칙을 내리게 하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모스 : 흠. 도사는 도서실에 있었지. 돌아오는 대로 준비시키게 하겠다.

.....

제이드 :지금 얘기를 듣는다면, 모스와 받은 각각 다른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듯 합니다.

루크 : 어. 뭐랄까 디스트가 자기 목적을 위해, 두 사람 사이에서 박쥐 짓을 해 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제이드 : 모스는 예언 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것일 뿐. 그렇다면 반의 목적은?

티아 : 외곽대지를 떨어뜨려서 인류를 소멸시키려는 게.....

제이드 : 저에게는, 그 사람이 그런 의미없는 살육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이드 : 모스 쪽이 목적은 명쾌한 만큼 위험이 느껴지지 않는군요.

가이 : 그렇다면, 일단 명쾌하신 적 쪽을 처리 하지.

가이 : 인고벨트 폐하에게 모스의 말을 곧이듣지 마시라고 진언해서 전쟁을 재개시키지 못하도록.....

나탈리아 :하지만, 제 말을아버님께서 믿어 주실런지요.

루크 : 나탈리아! 무슨 당연한 소릴 하고 있냐!

나탈리아 :전, 진짜 딸이 아닐지도 모르 는걸요.

일행 : . . .

아니스 : 아, 아이 참! 그 때는 그 때지! 그보다 도서실에 가자!

[교회 도서관]

이온 : 여러분!? 왜 이곳에.....

루크 : 이온, 외곽대지가 위험해졌어! 그러니 좀 가르쳐 주라!
루크 : 유리아 예언에, 세피로트의 쪽주에 대해서는 쓰여있지 않던?

(이온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이온 :과연. 그런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이온 : 실은 저, 지금까지 비예언(秘預言 = 클로드 스코어)을 확인했던 적이 없습니다.

아니스 : 액!? 그러셨어요?

이온 : 예. 비예언을 알고 있었다면, 저는 루크와 만났을 때 금방 누구였는지 알았을 테지요.

이온 : 액제류스 일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요.

루크 : . . .

이온 :그렇기에 저는 비예언을 모두 이해하기 위해 다아트로 돌아왔던 겁니다.

나탈리아 : 하지만 그 비예언에 세피로트 쪽주 이야기는.....

이온 : 예. 나와있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을 위해, 예배당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사해 보기로 하지요.

루크 : 예배당 안쪽? 뭐하러?

이온 : 보석(譜石)이 안치되어 있어요. 거기서 예언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스 : 이온 님! 그러면 건강을 해칠 거예요!

이온 : 말리지 말아 주세요, 아니스. 필요한 일이지요.

[예배당 안쪽 보석 앞]

이온 : 이 보석은, 제 1 에서 제 6 까지의 보석을 결합시켜 가공한 겁니다.

이온 : 도사는 보석의 파편에서부터 그 예언을 모두 읽을 수 있지요.

이온 : 다만 양의 수준이 다르니까, 붕괴에 대한 예언만을 발췌해 낼게요.

이온 :

ND 2000. 로렐라이의 힘을 계승하는 자, 킴라스카에 탄생한다. 그는 왕족에 관련된 붉은 머리카락의 남아이니.
이름을 성스러운 불꽃의 빛이라 칭한다. 그는 킴라스카 란발디어를 새로운 번영으로 이끌 것이다.

ND 2002. 영광을 쥐는 자 자신이 태어났던 성을 멸한다. 그 이름을 호드라 한다.
이 후, 계절이 일주하기까지 킴라스카와 마르크트 사이에 전란이 이어지리라.

ND 2018. 로렐라이의 힘을 계승하는 젊은이, 사람들을 이끌고 광산의 도시로 향한다.
거기서 젊은이는 힘을 재앙으로 삼아 킴라스카의 무기가 되어 도시와 함께 소멸될 것이다.
그런 후 루크니카의 대지는 전란에 휩싸이며, 마르크트는 그 영토를 잃으리라.
결과로 킴라스카·란발디어는 번성하며, 그것이 미증유의 번영의 제 1 보가 된다.

아니스 : 이온 님!

이온 :이것이 제 6 보석의 붕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이 : 역시 액제류스 붕괴와 전쟁에 대해서 밖에 나와있지 않군. 그래.....

루크 : 어쩌면, 세피로트 쪽주는 제 7 보석에 노래되어 있을지도 모르지.

티아 : —— 로렐라이의 힘을 계승하는 자라니 누굴 말하는 걸까.

나탈리아 : 당연히 루크가 아닐려나요.

티아 : 그래도 루크가 태어난 건 7년 전인걸.

제이드 : 지금은 2018년입니다. 2000년이라 한정되어 있으니 그것은 애쉬이겠지요.

티아 : 하지만, 액제류스와 함께 소멸될 것이라 했던 애쉬는 살아 있어요.

아니스 : 그 이전에, 액제류스로 갔던 건 애쉬가 아니라 루크라구. 이 예언 수상해.

가이 : 분명 애쉬도 나중에 오긴 왔지만, 녀석은 그 시점에서 성스러운 불꽃의 빛(루크)이라 불리고 있던 건 아니니 말이다.

티아 : 유리아의 예언에는 루크가 —— 복제라는 존재가 빠져 있어.

루크 : 그건 즉, 내가 태어났기에 예언이 뒤를렸다고 말하려는 거야?

티아 :루크?

(그 때 오라클 병사들이 들어닥친다)

병사 : 찾아왔다, 쥐새끼 놈들!

아니스 : 큰일.....!

이온 : 여러분, 달아나 주세요! 아니스도!

제이드 : 알비올로 돌아가지요!

[로렐라이 교단 총본산 다아트 거리]

(빠져 나오지만 모스가 병사들과 함께 가로막고 있다)

티아 : 대영사 모스.

티아 : 이미 올드란트는 유리아의 예언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스 : 닥쳐라, 티아! 제 7 보석을 탐색하는 것을 잊고 이놈들이랑 어울려 다니다니!
모스 : 알겠나, 유리아의 예언대로 루크가 죽고 전쟁이 시작되면 그 뒤 번영이 찾아올 거란 말이다!

디스트 : 저항은 그만 두십시오, 제이드. 그러지 않는다면 이 여자의 생명은 없습니다.

(노엘이 붙잡혀 있다...)

디스트 : 하~핫핫하! 꿀 좋군요, 제이드.

제이드 : 칭찬을 받아 영광입니다.

디스트 : 아무도 칭찬 안 했습니다!

루크 : 우릴 뭘 어쩔 셈이야.

모스 : 바티칼로 데리고 가마. 거기서 전쟁을 재개시키기 위해 이용해 주지.

디스트 : 연행하십시오!

[배 안, 수감중]

나탈리아 : 노엘은 괜찮을려나요.

아니스 : 다아트는 종교 자치구인걸. 괜히 죽이거나 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가이 : 우린 어떻게 될 거 같냐?

제이드 : 루크는 처형되겠지요. 예언대로 만들기 위해.

루크 :그 편이 나올지도.

티아 : 루크, 무슨 소릴 하는 거야!

루크 : 하지만 그걸잖어. 내가 태어났기에 이 세계는 번영의 예언에서 벗어난 거야.
루크 : 그래서 예언에 없는 세피로트 쪽주도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냐고.

가이 : 너 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루크 : 그렇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거기다 티아도 말했잖어.

루크 : 유리아의 예언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티아 : 바보!

루크 : 바..... 바보라니 뭐가!

티아 : 난 그냥, 당신이 유리아의 예언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다면!
티아 : 예언과는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뿐이야!

루크 :티아.....

티아 : 당신, 달라진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 식으로 금방 토라져서는! 이젠 알아서 해!

루크 : 티아..... 미안.....

티아 :

루크 :미안해.....

[빛의 수도 바티칼 궁전 나탈리아 방]

(나탈리아에게 말을 걸자)

루크 :모두랑 뿔뿔이 헤어져 버렸군.

나탈리아 :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알바인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들어온다)

알바인 : 킴라스카 왕녀의 이름을 사칭한 메릴. 그리고 파브레 공작의 아들을 사칭한 루크.

나탈리아 : 메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알바인 : 왕국은 그대들에게서 왕위 계승권을 박탈하는 바이다.

알바인 : 또한 액제류스에서 구조대를 참혹하게 살해한 죄도 무겁다.

나탈리아 : 우,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랍니다!
그런 짓은, 저는.....!

알바인 : 당신도 일단은 왕족으로서 자랐다. 적어도 최후에는 깨끗하게 자결을 하시오.
알바인 : 고통이 없게, 라는 페하로부터의 배려이다.

나탈리아 : 독(毒).....!

(그 때, 자주 들었던 그리운 노랫소리가...)

알바인 :무, 무슨 일이..... 나.....?

(과당)

티아 : 늦지 않았네.

루크 : 티아! 모두들! 어떻게 여기에!

가이 : 감옥에 내던져졌었다만 예기치 못한 협력이 들어와서 말이다.

아니스 : 설명은 나중에! 빨리 달아나자!

나탈리아 : 기다려 주시어요! 아버님께..... 폐하와 만나게 해 주세요!
나탈리아 : 폐하의 진심을..... 듣고 싶습니다.

루크 : 나도 부탁할게.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백부님과는 만날 필요가 있어.

제이드 :위험만은 각오해 주십시오.

나탈리아 :고마워요.

루크 : 티아.

루크 :배에서 바보같은 소리나 늘어 났으니 버려질 거라 생각했어. 와 줘서 고맙다.

티아 :바, 바보.

(알현실로 향하자)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17)

[킴라스카 궁전 알현실]

인고벨트 6 세 : 나탈리아.....

나탈리아 : 아버지!

모스 : 역적 놈들! 아직도 살아 있었는가!

나탈리아 : 아버지! 저는 진실로 아버님의 딸이 아니라는 말씀이신지요!?

인고벨트 6 세 : 그..... 그것은..... 나도 믿으려고는.....

모스 : 전하의 묘소가 증언했다. 너는 돌아가신 왕비님을 모시고 있던 시녀 실비아의 딸 메틸. 그렇지?

유모 :네. 진짜 나탈리아 님께서는 사산이셨습니다. 하지만 왕비님께서는 마음이 약하셨지요.

유모 : 그래서 저는 며칠 빨리 태어났던 제 딸 실비아의 아이를 왕비님께.....

나탈리아 :그, 그게 정말인가요, 할멈.

모스 : 이제 와서 보기 흉하다. 메틸.
모스 : 너는 액제류스로 향하던 도중 자신이 진짜 왕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
모스 : 실제 양친과 갈라졌다는 원한에 의해 액제류스 소멸에 가담했다.

나탈리아 : 아, 아니어요! 그런 일이.....!

루크 : 백부님! 진심입니까! 저런 이야기를 진짜로 믿고 있는 거냐고요!

인고벨트 6 세 : 나로서도 믿고 싶지는 않았
다! 허나.....

인고벨트 6 세 : 저 자가 말했던 장소에서 갖난 아이의 유골이 발견되었던 말이다!

루크 :그게 사실이라 해도 나탈리아는 당신의 친딸로서 길러졌잖아!
루크 : 무엇보다 저지른 적도 없는 죄로 벌을 받다니 말이 안 된다고요!

모스 : 낯 일 같은 투로 이야기를 하시는군. 귀공도 여기서 죽는 겁니다. 액제류스 소멸의 주도자로서.

인고벨트 6 세 :너희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마르루트에 재차 선전포고를 걸 것이다.

모스 : 저 둘을 죽여라!

(짹짹 도주하기 시작하는 일행)

디스트 : 뭘 하고 있습니까! 라르고! 다른 자의 손에 어떻게 되어도 됩니까?

라르고 :큭. 억지로 데려왔나 싶던가만 이런 일이었을 줄은!

디스트 : 애쉬! 마침 잘 됐군! 그 자들을 잡으십시오!

나탈리아 : 루..... 애쉬.....

(그러나 애쉬는...)

애쉬 : 겨우 감옥에서 꺼내왔더니만 이런 테서 무슨 헛질들이야! 빨리 가라!

루크 : 네가 도와왔던 거냐! 그럼 너도 같이.....

애쉬 : 시끄러! 누군가가 이 놈들을 막아야 된다! 어서 꺼져!

나탈리아 :무사하시기를!

디스트 : 에이익~! 배신자!

애쉬 :주절주절 시끄럽군. 너도 반을 배신하고 모스에게 정보를 흘리고 있었잖아.

라르고 :네 놈! 6 신장이면서도 총장을 배신하고 있었던 거냐!

디스트 : 나는 목적만 달성하면 됩니다. 받을 향한 충성보다 우선할 일이 있어서 말이지요.

.....

[바티칼 궁전, 도주 중]

나탈리아 :아버님.....

가이 : 모처럼 녀석이 만들어 준 탈출 기회를 날려서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탈리아 :네그건안답니다.

루크 : 일단 바티칼에서 빠지자! 이 도시에 있다가는 애쉬의 호의가 헛수고로 돌아가!

[바티칼, 탈출]

펠 : 루크 님! 명령하신 대로 백광기사단의 모두가 여기서부터의 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루크 : 명령.....?

펠 : 음? 머리 모양이.....? 역시 아까는 가발을 쓰고 계셨습니까.....?

루크 : (애쉬가 손을 써 준 건가.....)

루크 : 고마워 펠! 영감은 도망가!

펠 : 아니오, 미력하게나마 여기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나탈리아 : 위험해요! 달아나시기를!

가이 : 걱정 마라. 펠 영감은 내 검술 사부이니까. 뒷일 부탁하마, 펠.

펠 : 가이탈디어 님. 무사하시기를 빌고 있겠습니다.

.....

백광기사단원 : 이 자리는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백광기사단원 : 루크 님, 전하를 부탁드립니다. 전하께서는 우리 나라 희망의 별이십니다!

루크 : 맡겨 뉘!

.....

병사 : 에에이! 기다려라! 역적들!

(그러나 그 때...)

병사 : 무, 무슨 짓이냐!

시민 1 : 나탈리아 님 어서 달아나십시오!

나탈리아 : 어, 어째서 저를.....!

시민 2 : 서커스 차림을 한 자들에게 들었습니다! 공주님께서 무고한 죄를 뒤집어쓰시고 처형되실 거라는 이야기들!

시민 1 : 존안은 알지 못했습니다만 위층에서도 망쳐 오셨으니 분명 공주님이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민 2 : 자, 달아나십시오!

티아 : 가자! 나탈리아.

나탈리아 : 아..... 네에.....

.....

골드버그 : 기다려라! 그 자는 왕녀를 사칭한 대죄인이다! 즉각 체포해서 넘겨라!

나탈리아 : 그래요! 여러분, 저는 왕가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가짜입니다.

나탈리아 : 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셔서는 안 되어요! 부디 피하십시오!

시민 3 : 나탈리아 님께 왕가의 피가 흐르시건 말건 우린 아무래도 좋습니다!

할멈니 : 우리들을 위해 양로원을 열어 준 게 당신이라우!

시민 4 : 일자리를 잃은 우리들 평민을 항구 개척사업에 고용해 주셨던 것도 나탈리아 님 이시다!

골드버그 : 에에이, 시끄럽다, 비켜라!

(시민들에게 무기를 휘두르는 폭력경찰... 아니 골드버그)

루크 : 하지 마!

골드버그 : 에에이! 시끄럽다!

(피억)

루크 : 애쉬.....!?

애쉬 :쓰레기 놈. 킴라스카의 시민을 지키는 게 네놈들 군인의 일이 아니었나!

애쉬 : 여긴 우리들에게 맡겨라. 어서 가라, 나탈리아!

나탈리아 :애쉬.....

애쉬 :너는 약속을 지켰더군.

나탈리아 : 애쉬..... 「루크」! 기억하고 계셨군요!

애쉬 : 가란 말이다!

애쉬 :그런 찌그러진 표정을 한 여자와 함께 무슨 나라를 바꾸겠나!

나탈리아 : !!

나탈리아 :알겠사옵니다!

애쉬 : 루크! 일을 망치면 내가 널 죽일 테다!

루크 :헛. 너나 무사하지시!

시민 5 : 자오 사막은 도중에 사라져 있습니다! 이니스타 습지로 향해 주십시오.

루크 : 알았어. 고마워!

.....

"나탈리아 님 무사하십시오!"

"모처럼 살아서 돌아오셨다고!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전쟁은 싫다오! 나탈리아 님이시라면, 분명 전쟁을 말려주실 게야!"

"군인들은 우리가 막겠습니다! 서두르세요!"

"나탈리아 님! 사막은 위험합니다! 국도를 남쪽으로 내려가, 이니스타 습지로!"

"이니스타 습지는 여기에서 남서쪽이랍니다. 조심하세요!"

<페이스 채트 '여기에서 벗어나자!>

루크 :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군. 이번엔 진짜 애쉬 놈한테 빛만 졌는데.

나탈리아 : 애쉬.....
나탈리아 : 그건 그렇고..... 결국 아버지님께서 제대로 이야기를 듣지 못했사와요.....

티아 : 폐하께서도 많이 괴로워하고 계셨어. 한번만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분명.....

나탈리아 : 그렇군요. 그렇게... 믿고 싶사와요.

가이 : 암튼 일단 바티칼에서 떨어져서, 어딘가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편이 낫겠다.

티아 : 케세드니아는 마계(클리프드)이고, 노엘 이랑 알비올은 다아트이니, 이니스타 습지를 넘을 수 밖에 없겠어.

가이 : 습지의 국도 따위 지금은 다 썩었을 테니 마물이 우글거려겠지.

루크 : 별 수 없어. 언제까지고 여기서 죽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티아 : 그러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됐다. 필드로 나가 바티칼 남서쪽의 이니스타 습지까지 뛰자)

(남서라 해도 바로 남서쪽은 산맥에 막혀 있으니 국도를 따라가다가 다리를 건너야 한다)

[이니스타 습지]

나탈리아 :

나탈리아 : 애쉬는 무사할까요.....

티아 : 괜찮아. 그에게는 킴라스카 사람들도 편을 들어주고 있었어.

나탈리아 : 그렇군요. 저를 위해서, 모두들.....

가이 : 감사의 마음은, 올드란트를 구하는 것으로 표현하면 돼.

가이 : 지금 이 대지에 위험이 닥치고 있다는 걸 아는 건 우리 뿐이다.

나탈리아 :네.

루크 : 이 습지 어디로 이어지고 있냐?

아니스 : 분명 베르켄드였다.

루크 : 일단 거기서 애쉬랑 합류하자.

가이 : 하지만 베르켄드는 파브레 공작의 영지야. 방심할 수는 없을 거다.

루크 : 알고 있어.

뮤우 :여기 습지 뭔가 무서운 기척이 느껴져.

제이드 :그렇군요. 질이 안 좋은 마물과 만나지 말기를 비십시오.

<페이스 채트 '나탈리아의 이후'>

아니스 : 나탈리아, 역시 기운이 없네요~.

제이드 :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 최근의 사건들은 그녀에게 있어 자극이 너무 강했습니다.

아니스 : 기분이 정리될 때까지 계속 우울해 있을려나요.

제이드 :베르켄드에 도착하면, 이후 나탈리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려해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이드 : 그녀는 이 이상 우리와 함께 행동하지 않는 편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니스 : 그럴 수가! 왜지요!?

제이드 : 우리들은 한번 더, 인고벨트 폐하와 만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제이드 : 혹시 나탈리아가 그 때 왕에게 부정을 당한다면, 그녀는 더욱 깊은 상처를 입게 될 지도 모릅니다.

아니스 : 아우~.....

제이드 : 뭐어, 나탈리아 자신이 정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만.

(진행 중 이벤트)

제이드 & 가이 : ...

루크 : 왜 그래? 둘 다.

가이 : 제이드가 말했던 악질 마물 말인데.....

루크 & 티아 & 아니스 & 나탈리아 : ??

제이드 : 역시, 단순한 소문은 아닌 모양입니다.

루크 : 여기 뭐가 있더라도 하다고?

가이 : 꽤 옛날 얘기다만..... 이 근방에 여행자를 습격하는 흉폭한 마물이 있었다던 듯 하더군요.

제이드 : 퇴치하기 위해 몇번이나 토벌대가 파견되었던 것 같습니다만.

제이드 : 결국 그것은 성공하지 못하고, 그 마물이 싫어한다는 꽃을 심는 것에 의해 이 습지에 격리시켜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이 : 그냥 미신인갑다 했었지만 아까 꽃, 봤지? 아무래도.....

루크 : 진짜라는 얘긴가.....?

아니스 : 엑~! 이미 죽지 않았겠어?

제이드 : 그렇다면 좋겠습니다만.....

(그 때 함께나 쓸 것 같이 생긴 마물이 다가온다)

일행 : !!!

(줄행랑)

루크 : 우, 웃기지도 않아!

티아 : 저 마물이..... 방금 이야기의.....?

제이드 : 저 마물과 싸워 봤자 이쪽에는 득 될 일이 없습니다.

제이드 :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로서는 쓰러뜨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지요.

제이드 : 전투를 피하며 습지를 빠져나가야 할 겁니다.

나탈리아 : 어째서 쓰러뜨릴 수 없다고 단언하시나요?

가이 : 단순한 강함 만으로 잡을 수 있다면 과거의 토벌대가 다굴쳐서 잡아 버렸을거라 이거지!

제이드 : 그런 이치입니다. 지금은 도망가십시오.

제이드 : 라프레스 꽃가루를 싫어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다면 습지를 빠져나가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루크 : 알았어! 혹시 걸리더라도 바로 튀는 거다!

티아 : 잘 알았어.

<페이스 채트 '도망치는 게 이기는 것!>

아니스 : 초 깜짝! 뭐였어? 방금 마물!

루크 : 너무 큰 소리는 안 내는게 낫지 않겠냐? 아직 우릴 찾아다니고 있을 지 모른다고.

아니스 : 우울~. 무려 루크한테 주의를 받다니~.

제이드 : 허나, 진짜로 나타나라고하는..... 정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티아 : 역시..... 물리치기 힘들겠지요?

제이드 : 정상적으로 맞붙어 이길 상대가 아니겠지요. 지금은 라프레스 꽃가루를 달고서 도망쳐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가이 : 이 질리게 넓은 습지를..... 라는 얘긴가. 쟀장. 나탈리아, 괜찮겠냐?

나탈리아 : 신경 쓰이지 말아 주시기를..... 저라면 괜찮답니다.

가이 : 그래.....

제이드 : 어쨌든, 아까 전의 마물과 마주치더라도 일제히 도주하시는 겁니다.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가십시오.

(걸리면 베히모스라는 보스급 적과 싸우게 된다. 노멀 기준으로 9만의 HP와 높은 공격력으로 무장한 강적이다)
(잡더라도 1 경험치 1 갈드도 얻을 수 없으니 심심한 사람만 싸워보자. 싸우기도 걸리기도 싫다는 사람은 홀리 보틀을 쓰자)

(진행하다 보면...)

루크 : 왜 그래, 나탈리아.

나탈리아 :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티아 : 몸이라도 안 좋아?

(그 때 베히모스가 돌아달라고 다가온다)

나탈리아 : 까악!?

티아 : 아차!

루크 : 큰일이다!

제이드 : 아니스! 라프레스 꽃가루를!

아니스 : 네에!!

(도망가는 베히모스)

루크 : 이 틈에 여길 쓰자!

<페이스 채트 '괴물의 약점!?'>

아니스 : 사냥감이라니..... 우리가 먹이란 말이야!? 라프레스 꽃이 있어서 다행이야아.

가이 : 그러게 진짜. 하지만, 저런 딱대 큰 마물이, 이런 것에 겁을 먹을 줄은.....

제이드 :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라프레스 꽃가루가, 마물의 뇌신경을 자극하는 것이겠지요.

아니스 : 헤에~, 겨우 꽃가루 때문에 그렇게 되는군요.

제이드 : 이 세상에는, 더욱 더 믿기 어려운 일이 아직 많이 존재합니다.
제이드 : 이런 작은 꽃가루에도, 저런 커다란 마물을 쫓아보낼 힘이 있다.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가이 : 저런 덩치가, 고작 꽃가루 따위에 당해 버린다는 걸 생각하면 별 것도 아니지.

가이 : 안 그러냐? 나탈리아.

나탈리아 : 후훗..... 그렇군요.

<페이스 채트 '나탈리아를 위해 해줄 수 있을 일!>

루크 : 나탈리아 재, 마음 좀 진정된 모양이다.

티아 : 가이 덕택이야.

가이 : 아니, 그래도 괴로운 듯한 얼굴 보는 건 싫겠잖냐? 동료이고 말이다. 우리가 격려해 줘야지.

티아 : 당신 정말 상냥한 사람이네.

루크 : 타고 난 거겠지만.

가이 : 너한테 타고 났다는 말을 들을 줄은.

뮤우 : 천연스러우세염~!

루크 : 너도 천연기념물이다 그래!

뮤우 : 뮤우.....

티아 : 후훗. 아무튼, 나탈리아는 이제부터도 힘들 거라 생각해. 우리들이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루크 : 그렇지.

(진행함에 따라 다시 이벤트)

나탈리아 : ...

가이 : !

가이 :제이드. 휴식!

제이드 : 이런 이런. 당신도 호인이십니다.
제이드 : 아까 일도 있고 하니 주변에는 주의해 주십시오.

가이 : 어. 이런 데서 나탈리아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바티칼의 모두가 대성통곡이겠지.

아니스 : 그렇다니까안. 나탈리아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었구나 해서 깜짝 놀랐어.

루크 : 나탈리아는 공공사업을 꾸리고 있었어.
루크 : 그 수익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돌렸던가..... 그래서 존경받고 있었다나.

가이 : 루크가 왕자님이었다면 그저 왕궁에서 주지욕립이었겠지.

루크 : ...

티아 : 위정자도 개인의 자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네.

가이 : 그렇다니까. 바티칼의 모두는 김라스카의 공주가 아닌 나탈리아를 좋아했던 거다.

나탈리아 :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가이 : 폐하가 끝까지 너를 거절한다면 마르쿠트로 와라. 너라면 대환영이지.

나탈리아 :당신, 잘도 맨얼굴로 그런 말쑤를 하실 수 있으시군요.

루크 : 아~아. 가이에게 넘어가서 마르쿠트로 망명하지 말라고!

아니스 : 그보다 인고벨트 폐하는 퇴위하시라 하구, 나탈리아가 여왕님 되면 안 돼?

나탈리아 :후훗.
나탈리아 :죄송해요안되겠네요, 울 생각은.....

가이 : 됐어 됐어. 여러가지로 놀랐겠지.

.....

나탈리아 :미안했어요, 모두들. 이젠 펜찰사와요. 가이도..... 고마워요.

가이 : 나탈리아가 미소를 되찾는데 도움이 됐으니 나아 기쁘지.

나탈리아 : 웬지 쑥쓰러워지는군요.

(다가가지만 가이는 주춤)

나탈리아 :있고 있었네요. 미안해요.

(녹색 기억진을 지나면...)

루크 : 대충 습지를 넘어갈 수 있을 모양인데.

(어지간히 외로웠는지, 베히모스가 그 때 또 나타난다)

루크 : 가이! 큰일이야! 저대로는 당해 버리겠어!

제이드 : 어쩔 수 없습니다. 그를 구출하는 것이 녀석을 유인하지지요.

루크 : 알았어! 우리가 붙잡아 놓고 있는 동안 구해와 줘!

루크 : 그 다음 바로 튀는 거다!

제이드 : 알고 있습니다.

<BOSS - 베히모스>

설명은 아까 한 대로이다. 특기는 딱히 없고 무식하게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타입인데 그 래도 약간 위협적이다. 역시 돈 한푼에 1 경험치도 안 주니 노멀기준 HP 90,000을 다 깎는 게 귀찮다면 그냥 도주 하는게 득이다. 참고로, 위에서의 일부 대사는 파티 구성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역자의 경우는, 당시 제이드와 가이가 전투 비참하였기에 저렇게 되었다).

루크 : 지금이다!

가이 : 됐다!

제이드 : 결정타는 먹이지 못했는지 모릅니다만, 지금은 충분합니다! 가십시오!

루크 : 알았어!

(눈썹이 휘날리게 된다)

루크 : 후~. 간신히 도망왔네.

아니스 : 후아~..... 엄청 위험했어~.

가이 : 그래도 저 베히모스란 건 공격이 거의 먹히지 않는다는 소문이었었는데 루크 기술은 통하더군요.

나탈리아 : 루크의 초진동이 영향을 미쳤던 것 일려나요.

뮤우 : 주인님, 평강하세요!

루크 : 헤..... 헤헤. 뭐, 뭐 대충.

제이드 : 공격이 먹혔던 것은 두 번이었지요. 어느 쪽도 티아의 보가(謠歌)가 발동 중이었습 니다.

제이드 : 그 부분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크 : 뭐, 일단 베히모스는 따돌렸으니 마을 로 가자.

가이 : 그러지. 베르켄드는 산을 따라 서쪽으로 나아간 자리에 있다.

루크 : 알았어.

(아벨리아 평야를 나아가 베르켄드로 가자)

[다시 음기관도시 베르켄드]

루크 : 일단 여기까지 도망오긴 했는데 다음엔 어쩔래?

제이드 : 그러고 보니 스피노자라는 사나이가 이 도시에서 반과 결탁해 복제 연구를 하고 있었습 니다.

티아 : 오빠가.....

제이드 : 반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잠시 제 1 음기관 연구소의 스피노사를 추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루크 : (선생..... 날 속이고..... 복제를 만들려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루크 :가 불래.

(음기관 연구소로 가자)

<페이스 채트 '귀족이란'>

티아 : 베르켄드는 당신 아버님의 영지였지.

루크 : 그런 듯 하던데.

티아 : 수도 바티칼과는 습지로 차단되어 있기에, 인척관계인 파브레 공에게 다스리게 해 둔 걸까.....

제이드 : 그럴 겁니다. 아무 귀족이나 보냈다가, 적대행동을 취하기라도 한다면 귀찮을 테니 말입니다.

루크 : 귀족이라.....

나탈리아 : 왜 그러시어요. 갑자기 우울해져서 서는.....

루크 : 귀족이란 대체 뭘까.

나탈리아 : 영지를 다스리는 영주랍니다.

루크 :음. 그런 건 알고 있긴 한데 말야. — 아냐, 역시 됐어 그냥.

나탈리아 : 어머니, 루크 이상하시러.

제이드 : 루크. 당신의 그 의문, 깊숙히 생각해 보신다면 재미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루크 : 그래? 하지만 그 전에 난, 내가 뭘까 라는 걸 생각하지 않음 안 되고.....

.....

가이 :심술사냥구만 대령은. 계급제도의 모순이라는 걸 지금의 루크에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간, 쾨히 더 혼란스러워 할 걸.

제이드 : 여러 가치관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니 말입니다. 제이드 : 그것이 결국에는 그가 말하는 「자신이 무엇인가」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티아 :다양한 가치관계제도 부족한 것이네요.

가이 : 그거라면, 대다수의 인간이 그렇지.

가이 : 자신의 지식이나 감각이 옳다고 믿는 쪽이 여러모로 편하니 말야.

제이드 : 그래서 바보라는 게 일목요연입니다. 한탄스러운 일이지요.

제이드 : — 라는 이런 것도, 좁은 시야로 보는 방식이겠습니까.

가이 : 하하하, 틀림 없는 말이군.

(음기관 연구소에 접근하면 올라를 기사단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는 척을 한다)

기사 : 바티칼에서 성대하게 난리를 피우신 모양이십니다 특무사단장님!

루크 : ...특무사단장(特務師團長)?

기사 : 반 수석총장께서 부르십니다! 출두해 주셔야 합니다 애쉬 특무사단장!

제이드 : 반 요장과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안전하게 잡혀가 보십시오.

[베르켄드 제 1 음기관연구소 반 사무실]

기사 : 애쉬 특무사단장을 연행했습니다.

티아 : 오빠! 리그렛 교관님!

루크 : 선생! 선생님은 액제류스에서 날... 나 를.....

리그렛 :어처구니 없는 혼동이군. 각하, 물러가게 하시겠습니까.

반 : 아니, 됐다.

티아 : 오빠!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세피르트 트리를 지워서 외각을 무너뜨리다니!

루크 : 그래요, 선생! 유리아의 예언(스코어)에도 이런 일은 나와있지 않아.....

반 : 유리아의 예언이라..... 한심하군.

반 : 그런 웃기는 것에 의지하고 있다면 인류는 사멸하게 될 거다.

나탈리아 : 당신도 외각대지를 붕괴시켜 이 세계의 멸망을 재촉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반 : 그것이 유리아의 예언에서 해방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제이드 : 죽어 버린다면 예언도 상관 없게 되니 말입니다.

반 : 아니야. 죽는 것은 유리아의 망령과도 같은 예언과 그것을 받드는 로렐라이 뿐이다.

아니스 : 로렐라이라니 제 7 음소(세븐소 포넵) 의식집합체? 아직 미확인일 텐데.....

반 : 아니, 존재한다. 그것이 예언을 노래하는 힘의 원천이 되어 이 별을 미치게 만들고 있는 거다.

반 : 로렐라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면 이 별은 언제까지고 예언에 속박되어 있을 테지.

루크 : 외각이 부너져 소멸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루크 : 그렇게 되면 예언을 따질 마당이 아니게 되어 버린다고요!

반 : 복제가 있지. 예언대로밖에 살아갈수 없는 인류따윈 그저 인형. 복제로 대응시키면 된다.

가이 : '포미클리' 로 대지나 인류의 모조품을 만들겠다고? 바보 같은!

반 : 그럼 물겠다. 가이랄디어 가란 갈디오스. 반 : 호드가 소멸될 것을 예언으로 알고 있었 으면서도 멸망하게 놔둔 인류가 어리석다는 생각은 안 드나?

가이 : 그것은.....

반 : 내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반 : 이전부터의 약속대로 귀공이 내게 협력을 하다면 기쁘게 받아들이지.

루크 : 이전부터의 약속.....? 가이, 무슨 이야기야?

가이 : 그게 말이다.....

반 : 갈디오스 백작가는 대대로 우리들의 주 군.

반 : 파브레 공작가에서 재회했던 때부터 호드가 소멸당한 것의 복수를 맹세한 동지다.

(그 때 충격음이 들린다)

일행 : !!

리그렛 : 온 모양입니다.

나탈리아 : 애쉬!

반 : 오래 기다렸다. 애쉬. 반 : 네 초진동이 없으면 내 계획은 성립될 수 없어. 나와 함께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만들자.

애쉬 : 거절한다! 초진동이 필요하다면 저기 복제나 쓰시지!

반 : 송사리에게는 불일이 없다. 저것은 열성 품이니가. 혼자서는 초진동을 완전히 다룰 수도 없어.

루크 : !!

반 : 저것은 예언대로 역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위장시키기 위한 소모품이었다.

티아 : 그 말, 어서 취소해!

반 : 티아. 너도 그만 정신을 좀 차려라. 반 : 그 쓰레기와 함께 패시지 랭을 재기동 시

키며 다니고 있는 모양이지만 세피로트가 폭주한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다.

(리그렛이 나선다)

반 : 놔 뒤라, 리그렛. 이 정도의 적은 별 것도 아니다.

제이드 : 티아. 무기를 거두십시오..... 지금의 우리들로서는 이득이 적습니다.

가이 : 어. 이 상황에서라면, 우리도 무사히 끝날 수 없겠지.

가이 : 설령 같이 쓰러지게 되더라도 안 돼. 외각을 무사히 내려보낼 일이 아직 남아있어.

애쉬 :반. 여기서 서로 물러나지. 괜찮겠나?

리그렛 : 괜찮으시겠습니까?

반 : 애쉬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리그렛 : 수석총장의 말씀은 끝났어. 나가라.

(연구소 바깥으로 나가자)

나탈리아 : 애쉬..... 바티칼에선 도와 주셔서 고마웠어요.

루크 : 그래. 네 덕야. 여기까지 도망쳐 올 수 있었던 건.

애쉬 : 착각들 하지 마라. 도사의 지시가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 뿐이니.

아니스 : 이온 님이!?

애쉬 : 너희들에게 넘겨줄 게 있다. 속소까지 와라.

(말대로 따라가자)

<페이스 채트 '반의 계획'>

루크 : 반 선생은 예언에서부터 세계를 해방시키려 하고 있던 건가.....?

티아 : 세계의 사람들을 소멸시키고, 복제를 생산해 내서까지 그런 짓을 하는 데에 의미가 있을 리 없어!

제이드 : 말씀대로입니다. 그의 생각은 너무 비약되어 있습니다.

제이드 : 예언을 억지로 제약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이 : 하지만, 예언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 말이다.

나탈리아 :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새로운 희생을 늘릴 이유는 되지 않아요!

아니스 : 그 말대로야~.

티아 : 아무튼, 오빠를 막지 않으면 올드란트에는 계속 위험이 닥쳐 있게 될 거야.

루크 : 선생, 계획엔 내가 아닌 애쉬가 필요하다 그랬었지..... 하하, 나 또, 부정당해 버렸군.

티아 : 루크.....

루크 : 괜찮아 티아.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모. 어쨌든 지금은 애쉬 말을 들어보자. 열받는 놈이지만 힘은 합쳐야겠지.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속소로 돌아가시지요.

<페이스 채트 '애쉬와 함께.....'>

루크 : 애쉬 자식, 적인지 아군인지 진짜 분명하질 않다니가.

뮤우 : 그치만, 주인님을 많이 도와주셨어염.

루크 : 뭐~ 그렇긴 하다면..... 녀석, 자기라고 하는 건 조금도 말 안하니가.

뮤우 : 의문이예요~.

루크 : 이제부터 같이 다녀 출라나? 저 놈.

뮤우 : 주인님은 그 쪽이 좋으세요?

루크 : 웃기지 마!!
루크 : 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하려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 같이 다니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고.

뮤우 : 그럼, 주인님, 친구가 되자고 말씀하시면 돼염.

루크 : 그거야말로 웃기지 마!!

(속소로 향하는 길에 이벤트)

루크 : 야, 가이. 있잖아, 아까 선생과 네 얘기 말인데.....

가이 : 음? 아아, 그거냐.....

루크 : 네가 커슬롯으로 날 공격했던 거.....

가이 :그렇지. 반이 말했던 건 사실이다. 그는 내 동지였어.

가이 : 하지만..... 지금은 아냐. 놈 내 목적은 달라져 버렸으니까.

티아 : 그걸 믿으라는 이야기?

제이드 : 우리가 의심을 잘 한다는 사실은 아시겠지요.

아니스 : 맞아 맞아.

나탈리아 : 그만들 하시어요! 우리가 모두 루크를 버려줬을 때 가이만은 루크를 맞이하려고 했어요.

나탈리아 : 그 사실까지 부정들을 하시려고요?

제이드 : 작전일지도 모릅니다.

루크 : !!

가이 : 믿으란 소린 안 하마. 내가 반의 첩자라 생각한다면 난 너희들과 떨어지면 돼. 그게 다야.

루크 :난가이를 믿어.

가이 : 괜찮겠나?

루크 :그래도, 난 가이 니가 믿어줬음 하니까. 내가 달라질거란 이야기. 그걸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

가이 :그런가.

나탈리아 : 가이는 적국의 사람이었으면서도 저를 격려해 주었답니다.

나탈리아 : 그것이 우리들을 속이기 위한 연기였다는 생각은, 제게는 들지 않아요!

티아 : 난 가이를 의심하고 있진 않아. 오빠가 가이를 첩자로 쓸 생각이었다면 그 사실을 더 교묘하게 숨겨두었을 테니까.

제이드 : 예, 그 이야기라면 동감입니다. 예의 삼아 의심하는 척 한 것이지요. 일단 말입니다.

아니스 :그렇게 착하게 놀다간 언젠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아니스 : 뭐, 난 상관 없지만. 충고도 했고.

가이 : 하하, 뭐 아무려면 어때. 이제부터도 잘 부탁한다.

루크 : 내가 할 말야. 가이..... 난 널 믿고 있으니까.

가이 :어. 알고 있다.

[음기관 도시 베르켄드 여관]

루크 : 노엘! 무사했었구나!

노엘 : 네. 애쉬 씨에게 구출받았어요.

루크 : 애쉬한테.....?

뮤우 : 다행이세요!

노엘 : 하지만 알비올의 비행기능은 다아트에서 봉인당하고 말았어요.

티아 : 어떻게 된 거야? 날 수 없었다면 어떻게 여기로.....

노엘 : 수상 주행은 가능했기에 그걸로 간신히요.

가이 : 그랬나. 아마 부유기관을 조작하고 있는 비행보석을 뺀 거겠지.

루크 : 그럼 그걸 찾지 않는다면 날 수 없는 건가.

가이 : 그래. 현재로선 배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이지.

애쉬 : 이온에게서 이걸 넘기고 오라는 부탁을 받았다.

제이드 : 이것은 창세력 시대의 역사서..... 로렐라이 교단의 금서(禁書)입니다.

아니스 : 금서라면, 교단이 유해도사로 지정해서 회수해 버렸던 책이겠네요.

제이드 : 예. 그것도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애쉬 : 당신에게 넘기면 외각 대지를 강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 그러더군요.

제이드 : —— 읽는 데 시간이 걸릴 모양입니다. 이야기는 내일 해도 되겠습니까?

가이 : 그래도 되잖겠어? 이 중에서 그 책을 이해할 수 있을 사람은 제이드 정도이니.

루크 : 부탁할게, 제이드.

제이드 :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창세력 시대의 역사서를 손에 넣는다)
(자동으로 숙박한다)

루크 : 다들 어디 간 거야?

뮤우 : 주인님이 일어나시질 않으니까 방을 먼저 나가셨어염.

루크 : 좀 깨울 것이지.....

(나가서 제이드에게 말을 걸자)

루크 : 제이드! 뭐 좀 알아냈어?

제이드 : 예. 마계(클리포드)의 액상화(液狀化) 원인은 지핵(地核)에 있는 모양입니다.

나탈리아 : 지핵? 기억 입자(셀퍼 티클)가 발생한다는 혹성의 중심부 말씀이신지요?

제이드 : 예. 본래 정지된 상태여야 할 지핵이 격렬하게 진동을 하고 있다. 이것이 액상화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티아 : 그렇다면 왜 유리아 시티의 모두들은, 지핵의 진동에 대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던 걸까요.

루크 : 유리아의 예언에 나와있지 않았기에~ 라던가?

제이드 : 그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진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플래닛 스톱' 이기 때문입니다.

루크 : 플래닛 스톱이라면 분명, 인공적인 혹성 연료 공급기관이었지?

티아 : 맞아. 기억하고 있었구나.

티아 : 지핵의 기억입자가 제 1 세피로트인 라디에이트 게이트에서부터 분출되어서는.

티아 : 제 2 세피로트인 업소브 게이트에서, 다시 지핵으로 모여들어. 이게 혹성연료 즉 플래닛 스톱이야.

나탈리아 : 듣고 보니 플래닛 스톱은 창세력 시대에, 서던크로스 박사가 제창해 시작된 것이었지요.

제이드 : 예. 아마 당초에는 플래닛 스톱으로 인해 지핵에 진동이 생기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이드 : 실제로, 진동이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허나 긴 시간에 걸쳐 변형이 발생해 지핵이 흔들리게 되었다...

아니스 : 서던크로스 박사도 지핵의 진동을 상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גיע요.

제이드 : 지각의 진동을 멎게 하기 위해서는 플래닛 스톱을 정지시키지 않아선 안 됩니다만.

제이드 : 플래닛 스톱을 정지시킨다면 보습도 보습도 효과가 지극히 약해집니다. 음기관도 쓸 수 없게 되겠지요.
제이드 : 외각을 받치고 있는 패시지 링도 완전히 정지됩니다.

루크 : 손 쓸 도리가 없자나.....

제이드 : 아니오, 플래닛 스톱을 유지시킨 채, 지핵의 진동을 정지시키면 됩니다.

루크 : 그런 게 가능하긴 하고?

제이드 : 이 문서에는, 그것을 위한 초안이 적혀 있었습니니다.

티아 : 다만 유리아의 예언에 반하고 있었기에 문서로서 봉인되었다는?

제이드 : 예. 세피로트 폭주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 대지의 액상화를 개선시키고 그 위에 외각대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겠지요.
제이드 : 무엇보다 액상화 개선을 위해서는 문서에 쓰여있는 음기관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제이드 : 이 도시 연구자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겠습니니다.

애쉬 : 그러나 이 도시 놈들에게는 모두 아버지와의 입김이 달고 있다.

루크 :아, 아버지.....!?

애쉬 :뭐냐!? 뭐가 이상하다고!

아니스 : 헤에~ 애쉬도 역시 귀족 도련님이셨구나아♡

나탈리아 : 애쉬! 어딜 가시나요!

애쉬 :산책이다! 이야기는 나중에 들을테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진행해 뒤!

아니스 : 우아, 화내 버렸네. 헤에~, 실패 실패♡

제이드 : 귀여운 구석도 있지 않습니까.

나탈리아 : 정말! 그를 놀리는 것은 그만들 두어 주셨으면 하는군요!

티아 : 애쉬 말대로라면 연구자들의 협력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가이 : 아니, 방법은 있다. 헨켄이라는 연구자를 찾아보자.

루크 : 찾아서 어쩔려고?

가이 : 만난 다음의 즐거움♡으로 해 두지.

(들은대로 헨켄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가자)

<페이스 채트 '티아의 비밀'>

아니스 : 하우? 티아, 뭐 보고 있어?

티아 : 짹.

아니스 : 아~, 지금 뭐 숨겼지~!

티아 : 아, 안 돼. 보지 말아줘.

아니스 : 에이~ 어머서. 뭘 숨겼냐 하면.....아, 돼지도끼(부우사기) 인형.....

티아 : 아, 아니, 아니야! 어쩌다 베르켄드 상점에서 발견해서, 딱히 귀엽다 생각한 건 아니야.
티아 : 그건, 단지..... 저기..... 그러니까.....
아니스..... 비밀로 해 줄거지?

아니스 : 응 응. 아니스는 비밀을 지키는 착한 아이인 걸. 아, 나 갑자기 시폰 케이크가 먹고 싶은데~!

티아 :가게에서 보면 사 줄게.

아니스 : 티아 정~말 좋아☆

<페이스 채트 '해결의 실마리'>

루크 : 제이드 말대로 지핵의 진동을 잘 막는다면, 다들 살 수 있겠지!

가이 : 겨우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구만.

나탈리아 : 그럴사오요. 붕괴나 장기(障氣)에 의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나탈리아 : 그 다음은 킨라스카, 마르쿠트 양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만 남겠지요.

루크 : 나탈리아 너한테 있어선, 그 쪽을 해결하는 게 더 힘들지 않겠어?

나탈리아 : 솔직히, 모르겠답니다.....

가이 : 뭐 뭐. 양 나라도 지금은 전쟁 상대가 아니니, 그 건은 나중에 돌리자.

루트 : 그랬지. 일단 헨켄이란 연구자를 찾자.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18)

[베르켄드 제1 음기관연구소 복제연구시설]

헨켄 : 지사 들에게는 비밀로 일을 맡으라는 게냐? 거절한다.

캐시 : 지사는 어쨌든, 여기 책임자는 오라클 기사단의 디스트라우. 들켰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가이 : 흠음~, 그럼 이 문서와 관계있는 복원은 세리던의 이에온 팀한테 맡겨야겠구만~.

헨켄 : 무, 무어야!? 이에온이라고!?

캐시 : 말도 안 되지! 또 타마라 네한테 창세력 시대의 음기관을 가로채기 당할 수 있겠수?!

헨켄 :조, 좋아. 이렇게 되면 그 일이란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구만.

아니스 : 뭐야 뭐야? 왜 할아버지들 이에온 씨 일행을 눈엣가시로 여기는대요?

캐시 : 이에온 네와 우리들은 왕립대학원 시절부터 음기관 연구로 다투고 있는 경쟁상대라 우.

헨켄 : 우리를 「베르켄드 '이' 반」은 이에온들의 「세리던 '메' 반」과는 99승 99패. 이 이상 질 수 있겠나!

루크 : 아, 가이. 너 이거 알고 있었어?

가이 : 음기관 매니아들 사이에선 유명하다고. 「이 반」과 「메 반」의 대립.

헨켄 : 허나 우리들 만으로는 디스트에게 정보가 새어나갈지 모른다. 지사를 끌어들이는 편이 나을 게야.

티아 : 하지만 저희들은 지사님에게는 쫓기고 있는 입장인 걸요.

캐시 : 괜찮아유. 지사 설득은 우리들에게 맡기시구라.

헨켄 : 좋아, 가자. 캐시!

나탈리아 :가 버리셨사오요.

제이드 : 이런 이런. 그럼 작전 설명은 지사 앞에서 하도록 하지요.

(노인 콧비를 따라가기에 앞서, 반 사무실의 서재를 뒤적거리면 달걀덮밥의 조리법을 배울 수 있다)
(제이드가 보습에 대한 많은 책을 썼으며, 티아도 반도 그 독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구시설을 나와 베르켄드 지사관으로 향하자)

[베르켄드 지사 빌리지언의 집]

빌리지언 : 루크 님!

캐시 : 안심들 하시우. 지사는 협력을 해 주실 모양이서.

빌리지언 : 저는 파브레 공작님의 명령대로 루크 님과 나탈리아 전하를 찾고 있으니 발견되지 않았단...
빌리지언 : 그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헨켄 : 말하는 것 보게. 문서의 내용에 흥미진진이었던 주제에.

제이드 : 좋습니다. 그럼 간단히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가이.

가이 : 내가 하나? 뭐 상관없지.....

(설명한다)

빌리지언 : 과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쉽게는 믿기 어렵군요.....

캐시 : 무슨 소리우. 실제로 루그니카 대륙이 소멸되었지 않아.

헨켄 : 일단은 지핵(地核)의 진동 주파수를 예측할 필요가 있겠다.

루크 : 지핵 진동주파수라니 어떻게 알아보는 데?

제이드 : 패시지 링을 통해 세피로트 트리에 계속 장치를 투입해 보면 알 거라 생각합니다.
제이드 : 그러니, 아직 강하(降下)하지 않은 외각 대지의 세피로트로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우 : 슈레 언덕두 자오 유적두 마계(클리포드)에 있어염.

티아 : 유리아 시티에서 할아버님께 여쭙볼까?

나탈리아 : 마계로 간다면 알비올의 비행기를 되찾지 않아선 안 되겠사오요.

루크 : 그랬지. 지금은 못 나는 거였어. 어쩔래? 유리아 로드 쓸까?

아니스 : 그럼 다아트에 가자. 어쨌든 이온 님이 세피로트의 장소를 알구 계실지도 모르고.

루크 : 맞아. 어차피 세피로트 입구는 다아트식 봉주(封呪)로 봉인되어 있으니까. 이온도 데리고 가야 돼.

헨켄 : 계속 장치는 우리가 복원시켜 두겠네.

가이 : 부탁한다. 그 사이 우리는 다아트로 가자.

(바깥으로 나오지만...)

루크 :뭐, 뭐야?

애쉬 : 방금 스피노자가 도망가더군.

헨켄 : 스피노사가? 무얼 하고 있던 게야?

제이드 :지금 이야기를 엇들고서 신고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캐시 : 스피노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우!

아니스 : 사랑은 겉보기로 알 수 없답니다.

애쉬 :뭔가 새어서는 곤란할 이야기라도 했었나?

나탈리아 : 파브레 공작이나 반에게는 비밀로, 문서에 나왔던 음기관을 복원시키려는 것이어염.

루크 : 그 사이 우린 이온을 데리고 올 거고.

애쉬 :어쨌든 스피노자를 잡아두면 되는 거로군. 내가 놈을 찾아 두지.

나탈리아 : 애쉬! 우리들에게 협력해 주시는 것이시군요!

루크 : 그렇다면 같이 스피노자를 찾자!

애쉬 : 차, 착각하지 마라! 나도 스피노자에게는 들어낼 것이 있어. 그러는 김에 거들어 주겠다는 것 뿐이다.
애쉬 : 너희들과..... 복제 녀석과 어울려 다닐 생각 따윈 없다!

루크 : 윈 소리아 너! 어디로 도망쳤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탈 것도 필요할 거 아냐!

애쉬 : 닥쳐! 네놈들은 어서 이온이나 데려오란 말이다.

(가 버리는 애쉬)

루크 : 아 씨 열받아! 저 새퀴보다 먼저 스피노자를 찾아내 버려야지!

캐시 :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그만두시구라.

캐시 : 방금 젊은이, 이에온의 젊은 시절과 닮아 있었습다. 분명 실은 혼자서 쓸쓸해 하고

있는 것이라우.

헨켄 : 흥. 더욱 맘에 안 들어.
헨켄 : 알았나, 루크. 스피노자는 배를 타고 국외로 도망칠 게야. 저 친구보다 먼저 찾아내게!

루크 : 당연하지!

티아 :말해 두겠는데. 이온님을 모셔오는 쪽이 더 중요해.

루크 : 시..... 시꾸라! 다아트로 가기 전에 잠깐 다른 마을에 들러 조사해 보는 정도는 괜찮을거 아냐?

제이드 : 이런 이런. 이상한 쪽으로 지길 싫어하십니다 그려.

(선택지에서 위를 고르면 다아트까지 직행할 수 있지만 역자는 이번에도 스스로...)
(나가기 전 여관에서 숙박하면, 가이가 반과 만나 결별을 선언하는 이벤트를 볼 수 있다)

<페이스 채트 '애쉬한테는 질 수 없다!>

루크 : 애쉬 자식, 일일이 뺨돌게 만들고 있어!

나탈리아 : 무슨 말씀이신지요? 협력해 주신다는 뜻 한데요.

루크 : 돕겠다면 같이 다니면 될 거 아냐. 내가 큰맘먹고 권해 줬구만!

나탈리아 : 어머니, 그야 그렇사옵지만.....

루크 : 절대로 녀석보다 먼저 스피노자를 발견해 줄 테다! 가자! 나탈리아!

.....

나탈리아 : 묘한 데서 고집스러워지시는 부분은 똑같으시네요...

(베르켄드 항구에서 또 창고정리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다)
(스피노자를 찾는다면 다아트 제 4 비석의 언덕 → 케텔부르크 → 그란코크마 입구의 경로가 된다)

[로렐라이 교단 총본산 다아트 제 4 비석의 언덕, 스피노자 추적 중]

애쉬 :그렇군. 다아트의 위조여권을 손에 넣었나.

노와르 : 아마 케텔부르크 행 배에 탔겠지.

애쉬 : 좋아. 너는 베르켄드로 돌아가 영감들의 상황을 살펴 뒤라.

노와르 : 후후. 사람을 마구 부러먹는 걸.
노와르 : (나탈리아에게) 저 도련님, 꽤나 멋져♡

나탈리아 : 뭐..... 뭔가요!

노와르 : 후훗. 질·투·하·지·마.

애쉬 : 흥. 꽤나 느려터진 도착 아닌가.

루크 : 직행해 온 거야, 이것도! 도대체가 넌 무슨 수로 여기에.....

애쉬 : 당연히 배 아니겠나. 멍청이.

루크 : ...--+

애쉬 : 스피노자는 놔 두고 어서 이온이나 데려와라.

.....

루크 : 스피노자가 케텔부르크로 갔다고 그랬잖아...

티아 :여기까지 와서 스피노자를 쫓아갔다고는 안 할거지?

나탈리아 : 어머, 따라가야 하지 않을려나요.

나탈리아 :애쉬도 참 저런 여자와.....

티아 :어휴 정말. 마음대로 하시죠 네!

[은세계 케텔부르크, 스피노자 추적 중]

우르시 : 놓은 여기서 편지를 쓴 뒤 그란코크마 행 배에 탔다는 것 같습니다요.

애쉬 : 편지.....? 누구 앞으로냐?

우르시 : 그게 좀, 이미 화물선에 실려 버려서 알 수 없었습니다.

애쉬 : 쫓. 알았다. 너는 베르켄드에서 노와르와 합류해라.

우르시 : 알았습니다.

애쉬 :아직도 이런 데서 어슬렁거리고 있나. 적당히 해라!

애시 : 나탈리아! 너도다! 어서 다아트로 가!

.....

루크 : 월 또 소릴 지르고 난리래.

티아 :그러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건 나인데.

루크 :어, 응. 미안하다니까.....

가이 : 말은 저렇게 하면서, 끝끝내 그란코크마까지 쫓아갈 표정이군.

제이드 :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스 : 이온님과 만날 수 있는 건 언제가 될까요요~. 아왕~.....

[올 위의 제국수도 그란코크마, 끈질기게 스피노자 추적 중]

요크 : 동료가 항구에 깔려있다. 배가 도착하는 대로 그 장소로 유도할 거다.

애쉬 : 좋아. 이걸로 잡을 수 있겠군.

루크 : 뭐야..... 결국 저놈한테 진 건가.....

애쉬 : 이게 이기고 지는 문제냐, 열성 놈!

루크 :열성 열성 거리지 마!

나탈리아 : 그래요, 애쉬. 말이 조금 지나치시어요.

애쉬 :흥. 너까지 그 놈 역성을 드는 거냐.

나탈리아 : 그런 말은 한 적 없사와요!

제이드 : 어여~ 즐거운 부부싸움 중에 죄송합니다만, 슬슬 다아트로 가면 안되겠습니까?

애쉬 :누, 누가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냐!

나탈리아 : 그, 그렇사와요!

제이드 :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제 스피노자는 발견했으니 뒷 일은 애쉬에게 맡기십시오.

티아 : 그래요.

루크 : ...ㄷ

가이 : 하하. 아직도 스피노자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꿈해 있는 거냐.

요크 : 그럼 여기까지 힘냈던 형씨에게 좋은 걸 주지.

(칠흑의 날개 뱃지를 입수)

루크 : 뭐야 이거?

요크 : 이걸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 동료도 도와 줄 거다. 심심한 때에 시험해 보라고.

루크 : 뭐 좋지. 받아들게.

아니스 : 이걸로 겨우 다아트네요요.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바람에 이젠 기진맥진이에요요.

루크 : 미안했다, 아니스. 모두도 쏘리.

제이드 : 그럼 다아트로 가실까요.

(이제 다시 다아트로 가자)

[로렐라이 교단 총본산 다아트 제 4 비석의 언덕]

아니스 : 됐다~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어~♡

티아 :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왜 이리 많이 걸렸을까.

제이드 : 누군가가 땀 길로 새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시겠습니까~.

루크 : 너희들 그만 좀 괴롭혀!

나탈리아 : 하지만 진실인 걸요.

가이 : 그래 그래. 편 들어주기 힘들겠다.

유우 : 힘들겠어염.

루크 : 너까지 따라하지 마!

[로렐라이 교단 총본산 다아트]

(교회 앞으로 가자)

루크 : 이번엔 모스 놈들한테 잡히지 않게 조심해야지.

나탈리아 : 모스는 분명 아직 바티칼에 있을 거랍니다.

제이드 : 그렇군요. 허나 6 신장이 여기에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티아 :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어요.

아니스 :미안. 아빠, 엄마.

루크 : 응? 아빠? 아빠라 그랬냐?

아니스 : 응, 응응. 아빠네한테 물어보면 6 신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지도..... 라구.

가이 : 그랬나. 아니스네 부모님은 여기 살고 계셨지.

루크 : 오케이, 애길 들어보자.

(자동으로 교회 안 아니스 부모님네 방으로 가게 된다)

올리버 : 이런, 아니스! 들었다. 이온님께서 일을 지시받아 분발하고 있는 모양이더구나.

아니스 : 아빠, 엄마. 6 신장 녀석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아요?

파멜라 : 어머 어머 어머. 그런 말투는 못 써요 아니스.

아니스 : 피~.

올리버 : 하하하하. 아니스, 토라진 얼굴을 하면 안 되지.

아니스 : 그보나 6 신장이라던가 대영사 모스는? 뭐 하구 있어?

올리버 : 모스 님과 라르고 님, 디스트 님께서는 킴라스카의 바티칼로 가셨지.

파멜라 : 리그렛 님께서는 베르켄드 시찰 중이시고.

올리버 : 싱크 님께서는 라디에이트 게이트로 가셨더구나.

파멜라 : 아리에타 님께서부터는 업서브 게이트에서 이쪽으로 돌아오신다는 연락이 있었던다.

루크 : 엇, 마침 완전 빈집인데.

티아 : 이 틈에 이온님을 모시고 나오자.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제이드 : 이온 님께서는 어느 쪽에 계십니까?

파멜라 : 아까까지 도서실에 계셨었지만, 슬슬 집무실로 돌아가실 시간이라 생각해요.

가이 : 좋아. 이온을 만나러 가자.

(이온의 개인실로 이동)

이온 : 여러분! 무사하셨군요!

루크 : 이온 니가 애쉬를 보내 준 덕에 알아.

이온 : 아니오, 애쉬가 신속하게 움직여 준 덕택이지요. 그런데 왜 다시 여기로 돌아올 오셨나요?

아니스 : 이온 님의 힘이 필요하게 됐다고요 오.

제이드 : 자세한 설명은 가이가 드릴 겁니다.

가이 :또 나입니까요.

(설명한다)

이온 : 지핵의 진동 주파수 측정입니다. 이온 : 제가 알고 있는 세피로트라면 업서브 게이트와 라디에이트 게이트네요. 거기라면 전에 다아트 식 봉주를 해제하게 됐어요.

제이드 : 그곳은 플래닛 스톨의 발생지점과 집속지점이니 계획에는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루크 : 그럼 어쩐다?

루크 : 유리아 시티에서 애길 들자면 유리아 로드를 쓰던가, 비행보석을 되찾아야겠는데.

이온 : 아깝지만, 비행보석은 디스트가 가지고 가 버린 모양이에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나탈리아 : 곤란하게 됐사와요. 그 외의 세피로트 장소는 모르시는지요?

이온 : 확증은 없습니다만, 타르타로스에서 리그렛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온 : 다리가 무너졌으므로 타타르 계곡의 세피로트는 나중으로 돌리지, 했나.....

가이 : 듣고 보니 분명 이스파니아 반도에도 세피로트가 있다고 배웠었다.

티아 : 타타르 계곡에는 폰솔트에 곤잘 모여사는 세레니아 꽃도 피어 있었어.

이온 : 갈 가치는 있으리라 생각해요. 단지, 거기는 아직 다아트 식 봉주를 풀어두지 않았 습니다.

이온 : 제가 여기서 할 일은 끝났으니 여러분께 협력할게요.

루크 : 고맙다. 같이 가자.

(교회를 나가려 하는데 루크에게 다시 이상이 온다)

루크 : 으아..... 또.....

티아 : 루크, 괜찮아!?

애쉬 : (.....겨우 전달됐다! 미완성 녀석)

루크 : (애쉬..... 냐.....)

애쉬 : (나쁜 소식이다. 스피노자가 편지로, 지핵 정지계획을 반에게 누설시킨 모양이다)

애쉬 : (6 신장의 방해로 받아 스피노자를 빼앗겼다)

루크 : (뭐라고!)

애쉬 : (별 정보도 쥐고 있지 않던 스피노자를 실력행사로 빼앗아 갔다는 거다)

애쉬 : (놈들, 지핵이 멈춘다면 곤란해 지는 것일지도 몰라)

루크 : (헨켄 씨 일행은!? 이대로는 선생 일당에게.....)

애쉬 : (안심해라. 그 둘은 세리던 행 화물선에 태웠다. 축정기는 거기서 건네 받아라)

루크 : (넌 어쩔라고)

애쉬 : (난 지핵 진동의 의미를 계속 알아보면 서, 동시에 스피노자를 찾وما)

애쉬 : (너희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여기까지다)

나탈리아 : 루크! 애쉬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루크 :스피노자가 우리 계획을 반 선생에게 고자질한 모양이야.

루크 : 헨켄 씨 네는 세리던으로 피했는데.

제이드 : 일을 망쳤군요. 제 책임입니다.....

가이 : 당신 탓은 아니잖아.

제이드 : 엇듣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은 주의가 산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탈리아 : 애쉬는요?

루크 : 이젠 연락 안 할거래. 또 혼자 활동할 셈이겠지.

나탈리아 :그러신가요.....

가이 : 자, 6 신장에게 알려졌다면 길게 머물러서 좋을 일 없어.

가이 :나탈리아 너도, 알겠지?

나탈리아 :아, 네에. 괜찮습니다.

티아 : 그럼 우리들은 세리던으로 가야겠구나.

(다아트를 나가려 하면...)

파멜라 : 어머 어머 어머 아니스야. 아리에타님께서 돌아오셨단다.

아니스 : 우악! 일 났다아.....

파멜라 : 분명 아리에타 님을 찾고 있었지? 여러분이 오셨다는 것을 전해 드렸답니다.

아니스 : 우왕~! 엄마! 무슨 짓을 한 거야!

(울 게 온다)

아리에타 : 엄마의 원수!

아니스 : 장관, 음침에타! 이런 데서 날뛰면.....

아리에타 : 아니스 정말 싫어! 엄마네 원수 갚을 거야! 다들 가랏!

제이드 : 아니스! 이온 님을!

아니스 : 네!

아리에타 : 이온 님 안 뺏길거다 뭐!

파멜라 : 이온 님! 위험하세요!

파멜라 : 아악!

이온 : 파멜라!

아니스 : 엄마!?

제이드 : 자아, 어서 친구들을 물러가게 하십시오!

아리에타 : 흑.....! 하지만.....

이온 : 아리에타!! 파멜라를 끌어들이는 것은 영동한 짓이 아닙니까!!

아리에타 :이온 님다들, 그만해.....!

제이드 : 나탈리아! 파멜라 씨를!

나탈리아 : 알겠사와요!

파멜라 : 이온 님..... 다치신 곳은.....

이온 : 저라면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파멜라.

파멜라 : 이온 님을 지킬 수 있었다면 바라던 바랍니다.....

(그 때 가이의 뇌리에...)

「가이! 위험해!」 「갈디오스 가의 상속자를 지킬 수 있었다면 바라던 바야.....」

가이 :기억해냈다!

[다아트 교회 안 타들린 부부의 방]

올리버 : 덕택에, 파멜라의 화상이 거의 치유된 모양입니다.

나탈리아 : 늦지 않아 다행이었사와요.

이온 : 저를 위해..... 미안합니다, 파멜라.

파멜라 : 황송하신 말씀이세요.

파멜라 : 그보다 가이 씨의 혈색이 좋지 않으 시던데, 괜찮으실려나요?

아니스 : 아이 참! 죽다 살아난 건 엄마 쪽이 라구.

올리버 : 엄마라면 이제 괜찮을 테니 가이 씨에게 가 취 보려무나. 동료잖아?

아니스 :알았어. 하지만 무리하면 안 돼.

티아 : 가이는 예배당에 있어. 가 보자.

루크 :응. 파멜라 씨, 몸 조심해요.

파멜라 : 감사합니다.

<페이스 채트 '아리에타의 기습'>

아니스 : 다들, 고마워. 엄마를 도와줘서.

나탈리아 : 큰 일이 나지 않아 다행이어요.

아니스 : 진짜 고마워.

이온 : 저도 답례를 하게 해 주세요.

나탈리아 : 이온이 아리에타를 말려 주었기에 바로 치유시킬 수 있었던 거랍니다.

루크 : 끌어들이고 만 건 우리들야. 미안하다. 아니스.

이온 : 어쨌든, 아리에타가 저 만큼이나 함부로 사람을 다치게 할 줄은.....

아니스 : 음침에타, 폰 마스터 가디언(도사수 호역)이 아니게 된 다음부터 변해 버렸어 요.....

이온 :그런, 거겠지요.

(예배당에 있는 제이드와 가이에게 말을 걸자)

제이드 : 파멜라 씨께서는?

루크 : 이제 괜찮다는 것 같더라.

아니스 : 아리에타 개는요?

제이드 : 이온 님이 말씀하신 대로 트리트하임 영사에게 넘겨 두었습니다. 제이드: 뭐, 6 신장 중의 누군가가 돌아오면 바로 풀려날 겁니다만.

아니스 : 증말, 저 암울한 지지배.....

루크 : 가이 넌..... 괜찮냐? 뭐 생각난 것 같던데.....

가이 :어. 미안하다. 그런 때에 침착함을 잃어서.

티아 : 무엇을 기억해 냈는지 물어도 될까.

가이 : 내 가족이..... 다 죽었을 때 기억이지.

(회상)

마리 : 알겠지요, 가이랄디어. 너는 갈디오스 가의 상속자로서 살아남지 않아선 안 돼요. 마리 : 여기 숨어 있어요. 숨소리도 내선 안된답니다.

가이 : 누나!

마리 : 췌! 킴라스카 군대가 온 모양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알았지요.

파브레 공작 : 부녀자라 해도 봐주지 마라! 보술(講術)을 구사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위험이 된다!

군인 : 비켜!

마리 : 그쪽이야말로 물러가라! 천한 것들!

군인 : 에에이, 방해말고 비켜라!

마리 : 아악 —— !!

가이 : 누나!!

마리 : 가이! 위험해!!!

가이 : 으아악!!!!!!!

(현재)

가이 : 베일 뻥 했던 날 누나가 감싸 주었었지. 누나 뿐이 아냐. 하녀들도 모두 날 감싸려 다.....

가이 : 어느 틈엔가 나는 누나와 하녀들의 시신 밑에 깔려, 피범벅이 된 채 정신을 잃고 있었다.

가이 : 핏이 구하러 와 줬을 때엔 이미 내 기억은 없어져 있던 거였지.

제이드 : 당신의 여성 공포증은 그 때의 정신적인 부상이셨습니까.

가이 : 한심한 애기지. 목숨을 걸고 지켜 줬던 누나의 기억을 「무섭다」라고 여기게 될 줄은.....

루크 : 안 그래. 너, 아직 어린애였잖아? 루크 :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눈 앞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면.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그런데도 저는 당신이 여성을 두려워하는것을 재미있게 여겼다니..... 죄송해요.

아니스 :잘못했어요.

티아 : 나도 사과하지 않으면 안 돼. 정말 미안해.

가이 : 하핫, 무슨 소리들야. 그런 건 나도 잊고 있던 건데. 너네가 사과할 일이 있겠냐. 마음 쓰지들 말아 주라.

제이드 : 가이, 기분은? 이젠 활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이 : 물론이지.

제이드 : 그럼, 슬슬 다아트를 쓰십시오. 또 6신장과 마주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온 : 그렇지요. 분명 세리던으로 향한다 하셨지요.

가이 : 어. 나보다 오히려 헨켈 영감네가 걱정이야.

루크 : 가이. 무리하지 말어 .

가이 : 하나도 안 하고 있어. 가자!

(선택지에서 위를 고르면 세리던으로 바로 갈 수 있다. 역자는 이번에도 직접.....)

<페이스 채트 '가이의 과거'>

루크 : 가이 놈, 저렇게나 괴로운 과거가 있었구만.

티아 : 그래. 육친을 눈 앞에서 잃었다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더라도 이상할게 없어.

나탈리아 : 저..... 그것을 익숙해지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었다니.....

아니스 : 재미있다고 놀려먹구, 미안한 짓을 해 버렸어.

가이 : 그렇게 골똘히 생각할 거 없데도 저러네.

가이 : 나 자신도 잊은 일이라 했었잖나? 신경 쓰지들 마라.

제이드 : 그렇습니다. 본인은 여성 분들이 아주 좋은 모양이니.

가이 : 맞아 맞아.

제이드 : 앞으로도 팍팍 놀려 주셔도 될 겁니다.

가이 : 아니, 팍팍은 곤란한데.....

[기술자의 마을 세리던]

노와르 : 엄머, 아가들이네.

루크 : 너, 넌! 칠흑의.....

우르시 : 자주 만나는뎁쇼. 워, 애쉬 형씨를 위해 힘 좀 쓰다 보니 당신들과 관련을 갖게 된 겐니다만.....

나탈리아 : 애쉬와 당신들과는 어떤.....

요크 : 돈으로 고용되어 있을 뿐이지.

노와 : 질투할 필요 없어, 아가씨♡

요크 : 방금, 베르켄드의 연구자들을 여기로 실어 나른 참이다.

노와르 : 애쉬 도련님을 너무 악올리지 말라구♡ 우리에게 불똥이 튀니깐♡

.....

루크 :있잖나. 우리랑 완전 친한 척 하는데 저거 안 잡아도 돼?

티아 : 하지만 애쉬에게 고용되어 있다는 걸? 티아 : 그렇다면, 나탈리아를 도망시키기 위해 바티칼에서 시민들을 선동해 주었다던 서커스복장의 사람들이란 아마 그들이야.

아니스 : 어떻게 하다 보니 저 아줌마한테 도움을 받았다니깐.

제이드 : 별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못 본척 해주기로 할까요.

<페이스 채트 '칠흑의 날개'>

가이 : 칠흑의 날개 놈들과도, 슬슬 인연이 길어져 가는 모양이다만.

루크 : 처음엔 방해만 했어도 요즘엔 도움을 받는 일이 늘어서 묘한 느낌이지.

제이드 : 애쉬와 연결이 있는 것은, 지금 시정에선 그들 뿐이니까요. 제이드 : 애쉬의 동향을 파악해 두기 위해서는 나쁜 일은 아닐 겁니다.

아니스 : 그치만, 친하게 지내긴 힘들 거예요오.

나탈리아 : 분명 사이가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애쉬에 대해서는 알고 싶사와요.

제이드 : 칠흑의 날개야말로, 다음에 만날 때엔 적일지도 모를 집단이지만 말입니다.

아니스 : 돈의 망자(亡者)이니 말이죠! 증~말정떨어져!

제이드 : 아이구. 아니스랑 마찬가지로군요.

아니스 : 피잇. 저는 돈의 망자가 아니라 돈의 연인인걸요! 돈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나탈리아 : 사랑인가요. 사랑은 근사한 것이지요♪

아니스 : 그치 그치?

루크 : 쯤~까 이상하지 않냐?

가이 : 분명, 따져선 안될 걸.....

(집회소 앞의 두 할머니에게 말을 걸자)

타마라 : 아니, 당신들!

캐시 : 들었수? 스피노자 탓에.....

루크 : 어, 말은 들었어.

가이 : 캐시 씨는..... 다치신 곳도 없는 모양이십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이군요.

캐시 : 예, 예구야, 나 몰러. 이런 미남이 걱정을 다 해주구.....

타마라 : 워여, 캐시. 보통이 아니구먼.

가이 :아뇨 그런 뜻은.....

티아 : 그런데 두 분께서는 여기서 무엇을?

캐시 : 아아..... 잠깐 「이 반」과 「메 반」의 대립에 염증이 나서 말이우.

타마라 : 들어가면 알 거유.

[세리던 집회소]

헨켈 :그렇게 땀땀이 소갈딱지라서 그때 단위를 떨어뜨린 게야!

이에몬 : 시끄럽네! 그쪽이야 말로 동료에게 배반당하지 않았나! 불평을 하겠다면 나가!

아스톤 : 그렇지 그래! 아스톤 : 아니, 자네들은!

헨켈 : 오오! 진동 주파수의 측정기는 완성시켜 두었다.

아스톤 : 우리들의 힘을 빌려서 말일세.

헨켈 : 도구를 빌렸을 뿐이여!

가이 : 기운이 넘치는 영감님 들이시군.....

티아 : 여러분 진정하세요. 싸우시는 건 그만해 주세요.

제이드 : 측정기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이에몬 : 말은 들었네. 이에몬 : 진동수를 측정할 다음 지핵의 진동과 같은 진동을 가해 흔들림을 없앤다는 말이더군?

헨켈 : 지핵의 압력에 지지 않으면서 그만한 진동을 발생시켜 내는 장치를 만드는 건 큰일이 될 걸세.

아스톤 : 헛헛히. 그 역할, 우리 세리던 메 반에게 맡긴다면, 튼튼한 장치를 만들어 주겠네.

헨켈 : 360도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발생시킬 정밀한 연산기는, 우리를 베르켄드 이 반 외에는 만들 수 없으리라 생각한단만.

이에몬 : 100승 짜를 먼저 따내려는 심사구먼?

나탈리아 : 다투실 때일려나요 지금!? 나탈리아 : 여기 울드란트에 위험이 닥치고 있는 참에 이 반도 메 반도 없사옵습니다!

이온 :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 주신다면, 이 계획은 더욱 완박해지겠지요.

아니스 : 할아버지들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사이 좋게 좀 지내요오.

이에몬 :우리가 지핵의 흔들림을 억누를 장치의 바깥쪽을 만들지. 너희들은.....

헨켈 : 알고 있어! 연산기는 맡겨라!

루크 : 좋았으. 부탁할게 「이 반」에 「메 반」 여러분.

티아 : 우린 타타르 계곡으로 향하자.

(진동주파수의 측정기를 손에 넣는다) (타타르 계곡으로 가자. 게임 맨 처음에 루크와 티아가 떨어졌던 그 곳이다)

<페이스 채트 「메 반」과 「이 반」>

티아 : 지핵의 진동을 없애기 위한 보업기기(講業機器)는 이에몬 씨들에게 맡기면 관장을 것 같아.

이온 : 그렇네요. 우리들은 진동 주파수를 재기 위해 타타르 계곡으로 향해야지요.

가이 : 메 반과 이 반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들이 돌아왔을 때 쯤엔 벌써 준비가 끝나 있을 지도 모르지.

이온 : 그렇지요. 그들의 송씨는 확실하니까요.

티아 : 그래도, 이에몬 씨네, 정말로 사이가 나빠 보여.....

이온 : 사이가 좋기에 다투고 말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티아 : 그런 걸까.....

가이 : 티아와 루크 관계랑 마찬가지로 그래.

티아 :

가이 : 미, 미안하다 그래!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19)

[기술자의 마을 세리던]

(이전에 빠뜨린 이야기. 주점의 식탁 위를 조사하면 우동의 조리법을 알 수 있다)
(무기점 안쪽의 용광로에 있는 노인에게 말을 걸면, 재료를 가져온다면 무기를 제조해 주겠다고 한다)

[타타르 계곡]

루크 : 전에 왔을 땐 세피르트 같은 데는 없었다고 기억하는데 말이야.

티아 : 그 땐 밤이었으니까 못 보고 지나친 장소가 있었을지도 몰라.

아니스 : 어라아? 밤 중에 단 둘이 이런 데엘 왔었던 말이야? 수~상~해♡

나탈리아 :어머나, 루크! 당신, 티아와 그런 사이이셨나요!?

루크 : 자, 잠깐 스톱! 왜 얘기가 그쪽으로 가는데!

루크 : 그게 아니라, 전에 바티칼에서 날려졌을 때에.....

티아 : (딱 잘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티아 : 뭐 하고 있어? 가아지.

루크 :뭔가 열 받는데 이거.

가이 : 팍팍해라~.....

제이드 : 그러게 말입니다아.

가이 : 재밌어 보이는데, 대령.

제이드 : 예예, 즐기고 있습니다.

가이 :불쾌한 사람이슈.

<페이스 채트 '시작의 장소'>

루크 : 내 여행은..... 여기서 시작된 거지.

티아 : 끌어들이고 말았던 식이었어. 그 때엔 정말 미안하게 생각했었구.

루크 : 「그 때엔」이라..... 지금은 어떤데?

티아 : 당신이 계속 그 때나 마찬가지로였다면 미안한 마음도 없어져 있었을지 몰라.

루크 : 하하..... 그 때의 난 진짜 암것도 모르는 도련님이었으니까.

티아 : 지금은 도련님 아니야?

루크 : 음. 아직도 그런가?

티아 : 어떨려나?

루크 : 하하..... 그 때 난 정말 짜증나더라.
루크 : 어딘지 모를 곳으로 날려왔지, 귀염성 없는 여자애가 이것저것 잔소리 해대지.....
그래도, 지금은 감사하고 있어.
루크 : 나 그 때 여기서 날려오지 않았더라면 계속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을 거니까.

티아 : 그러네.

루크 : 힘껏 긍정 하지 말라고.....

티아 : 후훗.

<페이스 채트 '확률의 문제'>

가이 : 제이드도 그럭저럭 요리는 잘 하는구만.

제이드 : 뭐어, 별로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혼자 살다 보니 자연히 말입니다.

가이 : 당신이라면 종졸(從卒)이나 뭐 다른 종병이 만들어 주던 거 아냐?

제이드 : 가끔은 혼자 먹고 싶어지는 때도 있으니까요.
제이드 : 그러고 보면, 당신도 그런대로 요리를 하실 줄 아십니다 그러?

가이 : 뭐 그렇지. 안 싫어하거덩. 밥 짓거나, 물건 만들거나 하는 건.

제이드 : 음기관(音機關) 제조와 같은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가이 : 하하. 밤 늦게까지 음기관을 조립하거나 하다보니, 밥을 제때 못 먹게 되는 일이 많아서.
가이 : 최저한의 요리는 해낼 수 있게 되었어.

제이드 : 당신께서도 요리를 하실 줄 아는 덕택에 안심이 됩니다.

가이 : 뭐가?

제이드 : 지독한 요리에 걸릴 확률이, 3분의 1로 줄어드니까요.

가이 : 아하..... 저기 왕족 약 2 명의 요리는 무시무시하니까.....

(어느 틈에 다시 생겨난 보물상자들을 뒤지며 올라가면 오른쪽에 다른 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먼저 왼쪽 꽃밭으로.....)

루크 : 낮에는 안 피어 있군.

티아 : 응. 세레니아는 밤에 피는 꽃이니까.

루크 :왠지 여기 풍경이랑 마찬가지로인데.
루크 : 낮이지만 같은 장소에 서 있는데도, 나 그때와 지금은 어디가 좀 달라졌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티아 :좀 성장했어?

루크 : 했다고 생각하냐?

티아 : 응.

루크 : 진짜지!?

티아 : 인간이란 매일 세포가 새롭게 태어나거든.
티아 :농담이야. 자, 가자.

루크 : 너 말야. 좀 제이드랑 비슷해지기 시작했다고.

(이제 오른쪽의 통나무 위로 개울을 건너서 계속 진행하자)
(도중에 유우 어택으로 어딘가의 벽을 부수면 유우 왕을 습득할 수 있으니 찾아보자)

아니스 : 아~~~~~앗!?

티아 : 왜 그래, 아니스.

아니스 : 저건, 환상의 「푸른 고르곤 호드 호랑나비」!
아니스 : 잡기만 하면 한 마리에 400만 같대!!

가이 : 야, 아니스. 떨어진다.

아니스 : 저기 말야! 날 두고 어린애 취급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어.

(그 때 땅울림이 일어난다)

아니스 : 까악!?

티아 : 아니스!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절벽에 매달린 아니스를 끌어올리는 가이)

티아 : 가이!?

가이 :큅!

아니스 : 티아, 가이..... 고마워.

티아 : 난..... 그보다 가이, 당신.....

가이 :만졌다.....

유우 : 가이 씨! 힘내셨어영!

루크 : 잘 됐는데, 가이!

나탈리아 : 잘 하셨사와요. 아무리 과거의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아니스를 내버려 뒀더라면 실망했을 것이어요.

가이 :어, 그러게. 내 탓에 아니스한테 큰일이 안 나서 다행이다.

아니스 : 아~잉, 아니스 살짝 감동♡

제이드 : 가이는 마르쿠트의 귀족이셨지요. 분명 국고에 자산이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스 : 가이♡ 언제라도 나한테 프로포즈 해두 돼♡

가이 :사양할란다.

<페이스 채트 '극복해 낸 가이는 나이스 가이'>

제이드 : 이거 놀랐습니다. 그렇게나 여성과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 하고 계셨는데.

나탈리아 : 잊고 있던 기억이 살아나는 것으로,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는 것이군요.

티아 : 바로 원인을 알 수 없었기에 지금까지 괴로워하고 있던 것일지도 몰라.

아니스 : 우~음. 앙튼, 가이한테 고맙다구 해야지.

티아 : 이제부터 천천히 여성 공포증도 나아간다면 좋겠어.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제이드 : 어쩌면 아까 그걸로 단숨에 극복에 다가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스 : 어디 어디..... 가이~.

가이 : 음? 불렀냐?

티아 & 아니스 & 나탈리아 : 찰싹. 덤석.

가이 : 뭐, 우와오와아아~!!

아니스 : 안되겠네.

제이드 : 안되겠습니다.

<페이스 채트 '봉인술이란 어떤 느낌?'>

루크 : 제이드, 요즘 잘 나가는 것 같던데.

제이드 : 예, 봉인술(안티 폰슬릿)도, 꽤 해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루크 : 저기 말야, 그 봉인술이란 건 당하고 나면 어떤 느낌야?

제이드 : 글썽을시다..... 전신에 무게추가 걸려, 바닷속을 산책하게 되는 느낌..... 이라고 할까요.

루크 : 즉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진다는 뜻?

제이드 : 실제사레 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셈입니다.

루크 : 그래도, 라르고였나? 뭐 운이 없었지. 그런 상태인 인간에게 당하거나 했으니.....

제이드 :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루크.
제이드 : 그 때 어딘가의 왕족이 인질이 되어 있던 탓에 제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것입니 다만.....

루크 : 음..... 그, 그건.....

제이드 :뭣하면, 당신께서도 봉인술 한번 걸려보시겠습니까?

루크 : 하하;; 국가예산 급이라며? 뭘 그리 가까운 짓을.....;;

제이드 : 사양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폐하게 말씀드리지요.

제이드 : 아무쪼록 당신께서도, 바닷속을 걷는 기분을 실컷 맛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루크 : 왁, 미, 미안하다니까! 내가 잘못했으니 뵈 줘!

(계속 진행하면...)

루크 : 어, 뭐가 있는데? 마물인가?

유우 : 유우~! 유유우!

(히히힝~)

제이드 : 이 울음소리는.....

아니스 : 유니세로스!

이온 : 고대 이스파니아 신화에 나오는 「성스러운 자」 유니세로스 말인가요?

아니스 : 그래요! 환상의 유니세로스라고요!
아니스 : 잡는다면 5000만 갈드는 가벼워요!

제이드 : 유니세로스는 깨끗한 공기를 좋아하는 마을입니다. 거리로 끌고 가면 죽어 버릴지도 모르지요.

아니스 :아우.....

유우 : 거기다 유니세로스 씨 왠지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아염.....

가이 : 괴로워하고 있어? 대체.....

티아 : 뭔가가 오고 있어!

제이드 : 이런! 뒤쪽입니다!

루크 : 우왁! 유니세로스란 거 흥폭한 놈이었냐!?

아니스 : 그럴 리 없어어. 되게 양전해서 사람을 공격하거나 하진 않을 거라구!

나탈리아 : 또 오는군요!

티아 : 일단, 기절시켜서 어떻게 된 건지 살피자.

<BOSS - 유니세로스>

뿔 달린 페가서스. 날개 달린 유니콘. 요악하
자면 말 보스. 약점속성은 어둠이며 바람과 빛
속성에 내성이 있다.
뿔발로 걷어차는 등의 통상공격 외에도 에너
지 블라스트 등의 보술을 구사하며, 날라올라
광탄을 발사하기도 한다.
후반에 쓰는 돌진 공격으로 인해 페이스가 무
너질 염려가 있으니 그것만 대충 주의하자.
맷집이 별로 세지 않으므로 노멀 난이도 기준
으로 심하게 고전할 이유는 없으리라 본다.

티아 : 상처를 치료할께.

제이드 : 그래도, 이 다음엔 어떻게 하시겠습
니까? 눈을 뜨면 다시 습격해 올 지도 모릅니
다.

루크 : 유우보고 얘기좀 해 보라 하지 뭐.

유우 : 네, 주인님! 저, 열심히 할게염!
유우 : 유우, 유유유우~! 유유 유유!

.....

유우 :유니세로스 씨는 장기(障氣)가 싫
은시데염.
유우 : 그런데, 장기가 가까워 오길래 화가 나
있던 참에, 자기도 모르게 공격하고 마셨데염.

루크 : 장기? 이 근처에 장기 같은 건 안 나오
는구만.

유우 : 그치만 유니세로스 씨는 티아 씨가 장
기를 끌어들이고 계신 것 같데염.

티아 : !!

제이드 : 짚이시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티아 : 아, 아니요.....

제이드 : . . .

가이 : 잘 모르겠군. 티아가 마계(클리포드) 출
신이라는 사실이란 관계 있을라나?

(히히힝~)

루크 : 어, 가 버렸어.

유우 : 방금 그건 티아 씨에게 인사하신 거예
염. 다친 데를 고쳐 주어서 고맙다구 하셨어
염.

티아 : 그래.....

나탈리아 : 유니세로스가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던 것이겠지요.
나탈리아 : 오해가 풀려 티아에게 답례를 한
것이 아니겠어요.

루크 : 그렇구만. 잘 됐다, 티아. 걸어 채이지
않아서.

티아 : . . .

루크 : 그, 그런 표정 하지 마. 농담이라니까.

<페이스 채트 '어땀어?>

제이드 : 방금 전투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모두의 호흡이 잘
맞.....

아니스 : 네에! 네에~♪ 이 아니스의 공격이
절묘했으니 말이지~♡

루크 : 행. 내 공격 쪽이 더 효과적이었다 이
거야.

아니스 : 에엑~? 그럴까~?

루크 : 당연히 그렇지. 안 그러냐, 티아?

티아 :코멘트는 자제하도록 하겠어.

루크 : 원 뜻이야, 그게?

아니스 : 푸퐌. 뵘, 즉 내 말이 맞단 애기잖아
♪

티아 : 둘 다, 좀 더 거리에 신경을 쓰는 편이
좋을 거야.

루크 & 아니스 : 뭐~어!?

가이 : 자자, 뭐, 진정들 하라고.....

나탈리아 :

제이드 : 나탈리아, 하시던 말씀 계속 하십시
오.

나탈리아 :사양하겠사옵니다.

(세피로트로 향하는 문에 다가가자)

이온 : 여기는 제가 열게요.

(봉인을 푸는 이온)

아니스 : 이온 님, 관찮으세요?

이온 :에에, 조금 지쳤을 뿐입니다.

나탈리아 : 그러고 보니 패시지 링을 기동시킬
때, 티아도 피로해지는 느낌이었지요.
나탈리아 : 창세력 시대의 음기관이나 보술에
는 그런 작용이라도 있는 것일려나요.

이온 : 그런 것은 아니라 생각하지만요.....

티아 : 이온 님, 여기서 쉬시겠습니까?

이온 : 아니요, 가겠습니다.

루크 : 무리하지 마. 힘들면 바로 말해라.

이온 : 고마워요, 루크.

[타타르 계곡 세피로트 관리시설]

<페이스 채트 '2천년의 시간을 넘어'>

제이드 : 흐름.....

루크 : 응? 왜 그래, 제이드?

제이드 : 세피로트를 지키는 유적 내부의 마을
에게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루크 : 특징?

티아 : 그래. 슈레 언덕, 자오 유적을 거쳐 왔
었는데, 골렘과 같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마
물이 많았어.

제이드 : 2000 년 동안, 유적 안에 있으니 말
입니다.....
제이드 : 생물처럼, 먹을 것을 섭취하는 마을
은 남아있지 않은 것이겠지요.

루크 : 2000 년..... 세피로트를 지키기 위해
계속 여기 있었던 걸라나? 그렇게 생각하니
웬지.....

티아 : 응..... 서글프지. 하지만 루크. 감상에
젖더라도 소용이 없는 일이야.
티아 : 우리가 마을에게 쓰러질 의미는 없는
걸.

루크 : 어..... 알고 있어.

(조금 들어가면 소리굽쇠 비스무리한게 서 있
는 공간에서 진동이 일어난다)

루크 : 또 어딘가가 떨어진 거야!? 아니면.....

제이드 : 예. 세피로트의 폭주에 의한 세피로
트 트리의 기능부전 탓일지도 모릅니다.

나탈리아 : 아까의 지진도 그렇고 빈번해져사
와요.

가이 : 지진이 일면, 여기가 공중이란 게 생각
나서 꺼림칙한 기분이 든다만.

티아 : 어서 안심할 수 있을 대지로 되돌렸으
면 좋겠어.

(소리굽쇠를 유우 어택으로 때려서 근처의 등
근 물건을 반응시키며 진행하자)
(패시지 링 관리장치에 다가가나...)

티아 : . . .

가이 : 티아가 접근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이온 : 슈레 언덕 때와 마찬가지로. 유리아
식 봉주(封呪)가 풀려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루크 : 별 수 없쥬. 조사해 볼 수밖에. 조금,
성가시지만.....

(소리굽쇠를 잘 쳐서 바람개비 비스무리한 걸
멈추면 봉주가 풀린다. 관리장치 앞으로 돌아
가자)

이온 : 유리아 식 봉주가 해제된 모양이네요.
이제 티아가 다가가면 반응을 할 거예요.

가이 : 나중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주변 장치
를 확인해 보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군.

(장치가 반응한다)

티아 : 오빠는 여기에는 온 적이 없었구나.....

나탈리아 : 그렇다면 여기 패시지 링은 제 7
음소(세븐스 포닝)만 쓸 수 있다면 누구라도
조작할 수 있을려나요.

제이드 : 아니오, 조작반이 멈추어 있습니다.
제이드 : 아마, 슈레 언덕이나 자오 유적에서
반이 설치했던 암호를 무시하고 패시지 링을
제어했던 결과로.
제이드 : 별렬로 연결되어 있던 각지의 패시지
링들이 루크를 침입자라 판단해 긴급 정지를
일으키고 만 것이겠지요.

가이 : 그럼 제어를 할 수는 없는 거요?

제이드 : 뭐어, 루크의 초진동으로, 지금까지
와 같이 조작반에 필기해 나가면 작동되리라
생각합니다.

루크 : 힘으로 밀고 나가자는 건가. 그래서,
난 뭘 하면 되는데?

제이드 : 진동 주파수의 계측에는, 특별히 아
무 것도.

제이드 : 하지만, 이후의 일을 생각하자면 외
각을 강하(降下)시킬 준비를 해 두는 편이 낫
겠지요.

루크 : 그럼 뭘 또 쓰면 되는 거지?

제이드 : 제 4 세피로트와, 여기 —— 제 6 세
피로트를 선으로 이어 주십시오.

제이드 : 제 5 세피로트는 돌아서 말입니다.
그곳은 액체류스이니 연결해도 의미가 없습니
다.

제이드 : 제 3 세피로트와 제 1 세피로트도 선

으로 이어 주십시오.

제이드 : 제 6 세피로트 옆에 「트리 강하. 속도 통상」이라 적어 주십시오.

제이드 : 그리고 나서 「제 1 세피로트 강하와 동시에 기동」이라고.

루크 : 이게 무슨 의미인데?

티아 : 제 1 세피로트 — 즉 라디에이트 게이트의 패시지 령이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티아 : 여기 패시지 령도 기동되어서 내려가세요, 라는 명령이야.

제이드 : 그렇게 해서, 외각대지에 있는 모든 패시지 령에 같은 명령을 내리게 겁니다. 제이드 :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라디에이트 게이트의 패시지 령에 강하를 명령합니다. 제이드 : 그렇다면 외각 대지가 일제히 내려가겠지요.

가이 : 그렇군. 대륙 강하는 한번에 끝내자는 이야기인가.

루크 : 납득. 다음은 지핵(地核) 진동 주파수인데.

아니스 : 대령님. 어떻게 재실려구요?

제이드 : 간단합니다. 계측기를 중앙의 보석(譱石)에 가져다 대 주십시오.

가이 : 내가 하지. 이게 다야?

제이드 : 예.

아니스 : 재미없어~. 왠지 맥이 풀렸어요오.

제이드 : 재미를 위한 계측은 아니니 말입니다.

이온 : 그럼 세리던으로 돌아가시지요.

(이번에 여기에서 할 일은 끝났다. 세리던으로 가자)

<페이스 채트 '자아, 세리던으로!>

나탈리아 : 이번에는 예상 외로 일이 쉽게 풀렸사와요.

티아 : 패시지 령도 잘 기동되어 주었구.

가이 : 티아, 이번엔 몸이 안 좋아지거나 하진 않았나?

티아 : 응, 괜찮아. 전에는 단지 피로가 쌓여있었던 것 아닐까.

루크 : 지난번엔 전쟁터 뚫고 나오고 사막도 다니고 하느라 힘들었으니 말야. 암튼 다행이지 뭐.

가이 : 그래.

나탈리아 : 그런데, 진동 주파수 계측은 잘 되었나요?

가이 : 괜찮어. 제대로 계측 되었다 생각해.

티아 : 그렇다면 이젠 이에몬 씨 일행에게 넘기는 것만 남았네.

가이 : 그렇지. 이미 저 쪽 준비도 다 되어있을 지 모르겠다.

나탈리아 : 자아, 이 작전에 세계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티아 : 응. 실패는 용납되지 않아. 확실히 준비하고서 가자.

루크 : 어.슬슬, 지핵의 진동을 멈추는건가. 좋아, 세리던으로 향하자!

[기술자의 마을 세리던]

(집회소로 가기 전 여관에서 휴식하면 루크의 훈련 이벤트가 완결된다)

루크 : 티아, 슬슬 초진동 훈련 좀 하고 싶은데.

티아 :응? 응응. 그럼, 시작하자.

.....

티아 : 많이 제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루크 : 라고는 해도, 실전에서 쓸 정도로 강한 수준이 되면 아직 제어 안 되지만.

티아 : 아무것도 못 했던 이전에 비하면 훌륭한 편이야.

루크 : 티아. 지금까지 고마웠다.

티아 : !!
티아 : 루크.....

(과거 회상 시작)

리그렛 :거기까지!

티아 : 감사했습니다!

리그렛 : 이것으로 내 교련훈련은 전부 마쳤다. 다음부터는 실지 훈련이 될 거야. 마음 놓지 말도록.

티아 : 네!

리그렛 :여기까지 잘 분발했구나.

티아 : 아니요, 교관님 덕택입니다.

리그렛 :네게 이걸 맡겨둘게.

티아 : 교관님, 이 펜던트는.....

리그렛 : 반 총장님이 맡겨 두신 거야. 네 훈련이 끝나면 넘겨 주라고 하시더구나.

티아 : 오빠가.....

리그렛 : 그것은 네 어머니의 유품이기도 해.

티아 :어머니의!

리그렛 : 티아..... 만약에, 그래. 만에 하나 내가 전사하게 된다면 그 펜던트를 조사해 보렴.

티아 : 교관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시죠!

리그렛 : 만약에, 라잡니. 난 죽지 않아. 총장각하의 이상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티아 :교관님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리그렛 : 티아. 죽어서는 안 된다. 휴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남도록.

티아 : 닳!

(현실로 복귀)

루크 : 티아?

티아 :당신은, 내게 초진동 제어하는 법을 배우길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루크 : 바..... 아냐!채창피하길래 그런 거지!

티아 : 창피해?

루크 :여자애한테뭐랄까저기 너한테 배우는 게꼭팔리다 싶어서.....

티아 : 나한테 배우는 게 보기 안 좋다니 왜?

루크 : 그래도..... 난.....

루크 :아냐, 암것도!

루크 : 아무튼 지금은 엄청 고맙다. 너한테 배우길 잘 했다고. 땡큐.

티아 :나야 말로, 야. 고마워.

루크 :

티아 :

루크 : 도, 돌아갈까.

티아 : 그, 그러자!

(티아에게 '누나' 칭호)
(이제 집회소로 가자)

이에몬 : 오오, 잘 돌아왔다.

루크 : 이게 계측 결과래.

타마라 : 우리는 지금, 타르타로스를 개조하고 있던 중이지유.

제이드 : 타르타로스를?

캐시 : 타르타로스는 마계(클리포드)에 떨어지더라도 부서지지 않았을 만큼 튼튼하지. 캐시 : 지핵에 잠기는 용도로는 안성맞춤이라우.

제이드 : 타르타로스가 큰 활약을 합니다 고려.

이에몬 : 아직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네. 이 마을에서 잠시 쉬다 오게나.

<페이스 채트 '타르타로스, 마지막 큰 일!>

아니스 : 지핵 진동 정지에 타르타로스를 쓴다는 얘기네요.

제이드 : 원래부터 군함입니다만, 전쟁에서 쓰는 것보다도 유익한 활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스 :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이드 : 성공시키지 않아선 안 됩니다. 제이드 : 대지를 내려보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으니 말입니다.

아니스 : 알구 있어요오.

제이드 : 하하하. 어쨌든, 타르타로스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일이 될 겁니다.

아니스 : 네. 힘내 타르타로스!

(집회소 밖으로 나가면...)

루크 : 저기. 잠깐 괜찮을까?

티아 : 왜 그래?

루크 : 계속 생각했던 건데 대륙 강하 말야, 우리를 만으로 진행시켜도 되겠냐?

아니스 : 응? 무슨 이야기야.

루크 : 세계의 구조가 바뀌는 중요한 일이다. 루크 : 역시 백부님이나 피오니 폐하한테 사정을 제대로 설명해서 같이 협력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나탈리아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바티칼에 가지 않아서는 안 된답니다.

루크 : 가는 게 옳아.

나탈리아 : 루크.....

루크 : 도시의 모두는 목숨을 걸고 우리들을..... 나탈리아를 도왔었지. 이번엔 우리가 모두를 도울 차례야.

루크 : 백부님을 제대로 한번 설득해서 어영부영하게 끝난 평화조약을 맺게 만들지. 루크 : 그래서 김라스카도 마르쿠토도 다아도 힘을 합쳐서, 외각을 강하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나고?

티아 :루크! 응, 그 말대로야.

나탈리아 :잠시만, 생각하게 해 주시와요.

나탈리아 : 그게 제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서워요. 아버님께서 저를..... 거절하셨던 일이..... 나탈리아 : 미안해요.

제이드 : 어쩔 수 없습니다. 나탈리아가 결심을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겠지요.

(오른쪽으로 간 나탈리아에게 말을 걸면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한다. 속소에서 쉬자)

[그 날 저녁, 기술자의 마을 세리던]

루크 : (어딜 가는 거지?)

나탈리아 : 누구지요!?

나탈리아 : 애쉬.....! 왜 이곳에.....

애쉬 : 스피노자를 찾다가..... 잠시 말이다.

너야말로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나.

나탈리아 : 저는.....

애쉬 : 바티칼에 가는 게 아닌가?

나탈리아 : 알고 계셨는지요!?

애쉬 :두려워하고 있다니 너 답지 않군.

나탈리아 : 저라도! 저도 무섭다고 생각하는 일 정도는 있사와요.

애쉬 : 그래? 너에게는 몇만명이라는 바티칼 시민이 아군으로 붙어 있는데도?

나탈리아 :알고 있답니다, 그런 사실은.

애쉬 :—"언젠가 우리들이 어른이 되면 이 나라를 바꾸자."
애쉬 : "귀족 외의 사람도 가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탈리아 :"죽을 때까지 같이 있으면서 이 나라를 바꾸자"

애쉬 :그것은, 내가 왕녀였기에 했던 말이 아니야.

애쉬 : 출생 따윈 아무래도 좋다.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다.

루크 : (.....나도 돌아가자)

.....

루크 : 어.....

티아 :엿듣기는 좋지 않아.

루크 :들려 버렸던 거야. 거기다, 말을 걸기 어려운 분위기였고.

티아 : 그랬구나.

루크 :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탈리아는 애쉬랑.....

티아 :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애쉬는 루크로서 액제류스에서 죽었겠지.

루크 : 티아.....

티아 :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같은 가정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티아 : 당신은 당신만의 인생을 살고 있어.
티아 : 당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체험, 당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감정. 그것을 부정하지 말아 줘.
티아 : 당신은 여기 존재하는 거라구.

루크 :어. 고맙다.

[다음 날, 기술자의 도시 세리던]

나탈리아 :미안해요. 저, 마음이 약해져 있었사와요.

이온 : 그럼, 바티칼에 가시는 거군요?

나탈리아 : 네. 왕녀로서..... 아니요, 킨라스카의 인간으로서 할 수 있을 일을 하기로 했답니다.

가이 : 그렇게 나와야지.

제이드 :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지금까지의 경과를 인고벨트 폐하 앞의 서면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이드 : 외각 대지 강하의 문제점도 같이 말입니다.

아니스 : 문제점? 뭐가 있었나요?

티아 :장기(障氣), 이겠군요.

가이 : 그런가. 원래부터 외각대지는 장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도 했으니 말이다.

제이드 : 장기에 대해서는 베르켄드나 세리던 뿐만 아니라 그란코크마의 보술 연구, 제이드 : 거기다 유리아 시티도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이드 : 허나 그것을 위해서는 —

루크 : 그래. 일단은 킨라스카와 마르쿠트부터

손을 잡지 않으면.

나탈리아 : 가지지요, 바티칼로. 아버님을, 설득해 보이겠사와요.

(바티칼로 가자)

<페이스 채트 '나탈리아의 결심'>

아니스 : 외각 대지에 대해서, 폐하가 이해해 주실까요?

유우 : 걱정돼요...

티아 : 루크도 나탈리아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바티칼로 돌아가는 걸. 폐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루크 : 절대로 이해시키지 않음 안 돼.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머지 않아 외각 대지는 붕괴되어 버릴 테니,
나탈리아 : 무사히 내려보내기 위해 양 나라가 이번예마말로 손을 잡지 않아서는 안 된답니다.

이온 : 그 말대로예요.

루크 : 나탈리아, 결심해 줘서 고맙다.

나탈리아 : 제가 지금 하지 않아선 안 될 일은 출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 걸요.....
나탈리아 : 각오를, 굳혔사옵니다.

가이 : 나탈리아.....

유우 : 훌륭하세염!

제이드 : 아무튼, 세계의 구조가 바뀌는 일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 않는다면, 인류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아니스 : 그렇구나~. 전쟁 따윈 하고 있을 때가 아니네요!

이온 : 이미, 과거의 전쟁의 역사에 집착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가이 : 그래. 확실하 그 말대로다.

루크 : 좋아, 가자. 다들!

(바티칼로 가자. 알비올로 항구로 들어간 다음 천공객차를 탄다)

[빛의 수도 바티칼]

<페이스 채트 '국왕을 만나러 가자'>

루크 : 자 그럼, 백부님이랑 어떻게 만나다.

나탈리아 : 그렇지요. 정면으로 갔다가는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키고 말 것이어요.

이온 : 괜찮습니다. 제게 맡겨 주세요.

이온: 제 이름을 대면 병사들도 지나가게 해 줄거라 생각합니다. 정면으로 가지지요.

루크 : 그런가..... 그럼, 부탁하마. 이온.

나탈리아 : 부탁드립니다사와요.

이온 : 도사(導師)의 이름에 걸고, 반드시 두 분을 인고벨트 폐하가 계시는 곳까지 모시겠습니다.

(이온의 말대로, 당당하게 궁전 정문으로 향하자)

위병 : 나탈리아 전하.....! 돌아오실 줄은..... 각오는 되셨습니까!

이온 : 기다리십시오.

이온 : 저는 로엘라이 교단 도사 이온. 인고벨트 6 세 폐하께 알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위병 :예, 옛!

이온 : 대동한 자들은 마찬가지로 저의 벗이며 다아트가 그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
이온 : 무례한 대접이 돌아온다면 다아트는 킨라스카에 대해, 이후 일절의 예언을 배풀지 않게 되겠지요.

아니스 : 도사 이온의 명령이십니다. 길을 비키세요.

이온 : 가지지요. 일단은 국왕을 전람으로 부추기는 자들에게 엄한 처분을 내려야 해요.

루크 :나탈리아, 가자. 이번예마말로 백부님을 설득하는 거야.

나탈리아 : 네!

(성에 들어가 오른쪽 문으로 들어간 뒤 2 층 인고벨트 6 세의 방으로 가자)

나탈리아 : 아버님!

인고벨트 6 세 : 나탈리아!!

알바인 : 버, 병사들은 무엇을.....

루크 : 백부님! 여기에 병사가 무슨 필요가 있다고요. 나탈리아는 당신 딸이야!

인고벨트 6 세 :나, 나의 딸은 옛날에 세상을 떠났다.....

루크 : 아냐! 여기 있는 나탈리아가 당신 딸이란 말입니다! 17년의 기억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텐데요!

티아 : 루크.....

루크 :헛. 네게 전수받은 거다만.

인고벨트 6 세 : 기억.....

루크 : 갑자기 누군가에게 진짜 딸이 아니라는 소릴 듣더라도, 그 때까지의 기억은 변하지 않아.
루크 : 부녀 간의 추억은 두 사람만의 것이라고요.

인고벨트 6 세 : 그런 것은 알고 있다. 알고 있던 말이다!

루크 : 그렇다면!

나탈리아 : 됐어요, 루크.
나탈리아 : 아버님..... 아니, 폐하. 저를 죄인이라 말씀하시겠지만 그것도 좋겠지요.
나탈리아 : 그렇습니다만, 부디 이 이상 마르쿠트와 다투는 것은 그만 두어 주십시오.

이온 : 당신들에게 어떤 속생각이 있으셔서 액제류스에 사자를 보냈던 것인지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군요.
이온 : 그러나 저는, 피오니 9 세 폐하에게서 화평의 사자라는 의뢰를 받았습시다.
이온 : 제게 대한 신의에 당신들을 위하여 상처를 낼 생각은 없습니다.

제이드 : 황송합니다만 폐하. 젊은이들에게 다그침을 받으셔서야 스스로의 긍지가 용납하지 못하시겠지요.
제이드 : 후일 새로이, 폐하의 의지를 여쭙고 싶다 생각합니다.

루크 : 제이드!

가이 : 군대라도 매복시켜 놓는다면 어찌려고!

제이드 : 그 때엔, 이 도시의 시민들의 폐하의 적이 될 뿐이겠지요. 저번의 처형 소동 때처럼 말입니다.

제이드 : 더욱이 여기에는 도사 이온께서 계시니다. 아무리 대영사 모스가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제이드 : 도사의 생명에 불미스런 일이 생긴다면 다아트가 어떻게 움직일 지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고벨트 6 세 :나를 협박하는 것인가. '사령술사 제이드'.

제이드 : 이 사령술사(네크로맨서)가, 주위에 일절의 공작도 없이 이런 장소로 뛰어드리라 생각하시는지.
제이드 : 이 서면에, 지금, 세계에 닥치려고 있는 위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고벨트 6 세 :이것을 읽은 뒤, 내일 알현실에서 새로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네. 그 거면 되겠는가?

루크 : 백부님, 믿고 있을게요.

나탈리아 : 실례하겠습니다..... 폐하.

<페이스 채트 '폐하의 대답은.....?'>

제이드 : 나머지는, 폐하께 달렸습니다.

가이 : 시간을 주는 쪽이 더 성가시게 되는 거 아냐?

아니스 : 그래요~. 대영사가 분명 무슨 짓을 해 줄거야~ 절대루~.

티아 : 하지만, 폐하께서 망설이고 계셨어. 루크와 나탈리아의 말이, 분명 마음에 가 닿았을 거라고 생각해.

제이드 : 폐하의 대답이라면 이미 나와 있겠지요. 그것을 인정시키기 위해서는 뒷바라지가 필요한 겁니다.

제이드 : 그것을 위해 만든 유예기간, 임니다. 나쁜 결과가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티아 : 세계에 찾아오고 있는 위기..... 그걸 이해해 주신다면 분명.....

제이드 : 뭐어, 내일이면 알 일입니다. 지금은 밀어 보기로 하십시오. 란발디어 왕가의 기량을, 말입니다.

(궁전 바깥으로 나오면.....)

가이 : 들렸다 갈 거냐?

루크 : 아니, 아버지는 백부님 편이지.
루크 :지금은, 안 가는 편이 나아. 오늘은 시가지의 숙소에 머물자.
루크 : 그러고 보니 제이드, 이런 짧은 시간에 무슨 수를 써 냈다고?

제이드 :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루크 : 성에서 백부님한테 겁챌자나.

제이드 : 아하, 그야 당연히 허세 아니겠습니까.

루크 & 가이 :

(루크 말대로 숙소로 가서 쉬자)

<페이스 채트 '폐하에게의 알현'>

루크 : 백부님, 분명 알아 주시겠지.

나탈리아 : 정말로 이루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아버님이 아니실 거합니다.

이온 : 진실로 백성에 대해, 나탈리아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해해 주시겠지요.

루크 : 모스가 또 대가리 들이밀려나.....

이온 : 아마도요.....

나탈리아 : 이젠 모스도 상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해 보이겠사오.

제이드 : 뭐어, 주사위는 던져진 겁니다. 아무튼, 폐하와 만나 보십시오.

나탈리아 : 네! 가지요!

(숙박하면 이벤트가 진행된다)

티아 : 내일, 만약에 인고벨트 폐하께서 강경책으로 나오시면 어떻게들 할 거야?

루크 :아니, 설득할래. 어떻게 해서든.

가이 : 그래도 폐하가 간단히 납득할지 모르겠다.

나탈리아 : 그 때엔 제가 성에 남아 설득하도록 하지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루크 : 나탈리아.....!

나탈리아 : 어리석었답니다. 저, 나탈리아 : 액제류스나 전쟁중인 전선에 가 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제 할일이라 생각했었어요.

나탈리아 : 하지만, 아니었던 것이어요. 아버님 곁에서, 아버님이 그릇된 길로 가시는 것을 말리는 게 제 할 일이었다는 것이요.

티아 : 나탈리아. 역시 당신은 이 나라 왕녀야.

나탈리아 : 그렇길 원한다..... 라 생각한답니다. 진심으로. 저는 이 나라를 정말 좋아하니까요.

(다음 날, 자동으로 궁전 알현실로 이동한다)

인고벨트 6 세 : 그 쪽의 서면에는, 확실하게 눈을 돌렸다.

인고벨트 6 세 : 제 6 보석에 노래된 예언과 그대들의 주장에는 차이가 있는 모양이대만?

루크 : 예언은 이젠 도움이 안 돼요. 나..... 아니 제가 태어난 것으로 예언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고벨트 6 세 :복제, 인가.

나탈리아 : 아버님! 이젠 예언에 매달리더라도 변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나탈리아 : 바로 지금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의 수완이 드러날 때입니다.

나탈리아 : 이런 때를 위하여 우리들 왕족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드시지 않으시는지요?

나탈리아 : 적어도, 예언에 안주해서 사치스럽게 지내는 것이 왕족의 의무는 아닐 터합니다!

인고벨트 6 세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냐.

루크 : 마르쿠트와 화평을 맺고서 외곽을 마계(클리포드)로 내려보낼 것을 허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바인 : 무슨 말! 마르쿠트 제국은 오랜 적국. 그런 말을 올리다니 역시 매국노들이다.

모스 : 속으셔서 안 되십니다 폐하. 이 자들, 마르쿠트에게 매수라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스 : 결국은 왕가의 피도 흐르지 않는 가짜의 헛소리.....

이온 : 입을 다무십시오. 혈통에나 집착하는 어리석은 자.

제이드 : 태어나면서부터 왕녀인 사람은 없는 법입니다.

제이드 : 그러려는 노력을 한 사람만이 왕녀라 불리기에 마땅한 품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탈리아 :제이드가 말하는 것과 같은 품성이 저에게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탈리아 : 하지만 저는, 아버님 곁에서 17 년간 자랐습니다. 그 세월을 걸고서 저는 궁지를 가지고 선언하겠습니다.

나탈리아 : 저는 이 나라와 아버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르쿠트와의 평화와 대지의 강하(降下)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인고벨트 6 세 :좋겠지.

모스 & 알바인 : !!

루크 : 백부님! 진짜입니까!

모스 : 안 되십니다, 폐하!

알바인 : 이 놈들의 헛소리 따위에.....!

인고벨트 6 세 : 닥쳐라! 내 딸의 말을 헛소리라는 등 우롱하지 말아라!

나탈리아 :아버님.....

인고벨트 6 세 :나탈리아. 너는 내가 잊고 있었던 나라를 영려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었다.

나탈리아 : 아버님, 저는.....

나탈리아 : 왕의 딸이 아니었다는 사실보다 아버님의 딸이 아니라는 일 쪽이..... 괴로웠답니다.

인고벨트 6 세 :분명히 너는, 내 피를 이어받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인고벨트 6 세 : 허나..... 너와 함께 보냈던 시간은네가 나를 아버지라 불러 주었던 시간은잊을 수가 없구나.

나탈리아 : 아버님.....!

(나탈리아에게 '란발디어의 딸' 의 칭호)

.....

루크 : 다행이다 나탈리아.

가이 : 아아니. 아직 이제부터가 중요하지, 한 번 더, 부녀 사이를 다시 시작하는 거니 말이다.

나탈리아 :그렇사오.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는걸요.

아니스 :모스 님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온 : 다아트로 물려간 모양이지요. 일단은 나서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아니스 : 다아트로.....

루크 : 좋았어. 모스가 옆태클을 걸어오지 않을 동안에 이야기를 정리해 두자.

티아 : 그럼, 다음은 마르쿠트네. 가자.

<페이스 채트 '잘 됐어, 나탈리아'>

아니스 : 나탈리아, 다행이야~.

유우 : 다행이세영~.

티아 : 심 몇년간이나 같은 시간을 보냈는 걸..... 이미, 피의 이어짐 같은 건 관계 없을 거야.

나탈리아 : 고마워요. 인정을 받는다는 일이, 이월거나 기쁜 일이었다니 저, 처음 알았답니다.

가이 : 이제부터, 폐하와 새롭게 그 인식을 다져 나가면 돼. 정말 다행이다.

루크 : 그래. 백부님, 나탈리아를 받아들여 준 다음부터 전쟁나기 전의 그 사람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더라.

나탈리아 : 그렇사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 때와 같이 대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탈리아 : 방금 전의 가이 말대로, 우리에게 는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가이 : 그렇지. 그래도, 천천히 해 나가면 되는 거다.

아니스 : 이젠, 대영사가 임금님한테 이상한 소릴 할 틈도 없어졌을 테구 말이야.

티아 : 맞아. 킴라스카는 이제 안심해도 될 거라 생각해.

가이 : 그렇다면, 좋겠다만.....

루크 : 음? 가이, 왜?

가이 : 아니, 암것도 아냐. 다음은 마르쿠트였지, 그란코크마로 가자.

루크 : 어. 가야지.

(다음 목적지는 그란코크마이다. 가기 전에 투기장에 둘러 보자)

[바티칼 투기장]

루크 :음? 되게 시끌벅적한데.

가이 : !!

티아 : 무투대회(武鬪大會)인 것 같아.....

루크 : 무투대회!? 뭐야, 그게!?

가이 : 아차~..

티아 :왜?

가이 : 저택의 전원이 숨기고 있었거덩. 루크가 알면 「나도 나갈래」 하고 조물게 뻔하니깐.

나탈리아 : 저도 그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답니다.

루크 : 그, 그런 어린애는 아니라고!!

나이스 : 어~떨려나~>

제이드 : 이 나라의 무투대회는 유명합니다. 제이드 : 피오니 폐하께서도 가고 싶군, 보고

싫군, 참가하고 싶군, 이러시길래 큰일이었지 요.

가이 : 이번엔 개최 안 할줄 알았다만 뭐, 전쟁도 끝났고 하니.....

제이드 : 이런 놀이로 민중의 시선을 피하고 그들의 불안이나 불만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은 정치의 상투적인 수단입니다.

나탈리아 :일일이 비꼬아서 말씀을 하시느군요.

제이드 : 이거 실례.

<페이스 채트 '두근두근 투기장'>

루크 : 투기장이란 거 되게 재밌을것 같은데!

가이 : 너, 이런 건 진짜 좋아한다 야.

티아 : 싸움을 구경거리로 삼다니.....

나탈리아 : 하지만, 인기는 있습니다. 투기장의 패자(覇者)는 영웅 취급이지요.

제이드 : 인간은 잔혹한 생물이니, 투기장이 인기를 끄는 것도 수궁이 갑니다.

아니스 : 상금이 나올테니, 난 대단성!

루크 : 야, 티아. 딱히 죽이며 싸우는 것도 아닌데, 우리도 좀 참가해 보면 안되겠냐.

티아 :말려도 참가할 거잖아? 좋을대로 해.

<페이스 채트 '투기장은 역시 최고~!!'>

루크 : 아싸~! 이겼다~!!

아니스 : 상금 들어왔어! 잘했어 루크!

루크 : 그래, 해냈지 아니스!

가이 : 투기장이 엮이면, 둘 다 사이가 좋아지는구만.

루크 : 그래도 말야, 난 싸워서 재밌고.

아니스 : 난 상금이 들어와서 기쁘구.

루크 : 그럴쥬~?

아니스 : 그치~?

티아 :구경거리라는 건 좀 어떨까 하고 생각하지만, 우승한 건 축복하기로 할게.

가이 : 오호, 티아도 완만해진 모양인데.

티아 : 혼자서 화내고 있어도 별 수 없는 걸.

루크 : 헤헤, 사상자가 안 나오는 싸이라면, 마음껏 해볼 수 있으니까.

티아 : 그래. 실전보다는 훨씬 나은 편일 거야.

가이 : 어, 그렇구만.

(단체전 상급에서 우승을 하면...?)

사회자 : 그러면, 다음에 기다리는, 열전까지..... 응?

사회자 : 과, 관객 여러분, 기다려 주시길! 난 임 참가자가 나타났습니다~.

사회자 : 이제부터 엑시비전 매치를 행하려 생각합니다!

사회자 : 시작합니다~? 레디!! 고~!

<BOSS - 민트 아드네이드, 피리아 피리스, 나나리 프렛치, 릿드 허셀>

이번의 투기장 게스트는 올스타 팀 4인조. 릿드가 돌진, 나나리가 원거리 공격과 정술(보술 아님), 민트가 보조, 피리아가 전문적인 정술 공격을 가해온다.

개개인의 능력이 탁월하게 높은데다 행동도 매우 기만하므로, 난이도 노멀에서도 꽤나 어려운 전투가 된다. 이전의 전투로 인한 소모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전멸할 위험이 있으니 초반에 정신을 바짝 차리자.

당연하다는 듯, 각자 HP가 떨어지면 언젠가 한번씩은 봤던, 강력한 비장의 수를 마구 구사하니 이를 '악물도록', 특히 릿드는 전원에게 라이프보틀을 쓰고 극○벽을 갈기는 등의 만행을 서슴지 않으니 조심하자...! 솔직히 어느 정도의 레벨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플레이어에게 기량이 있더라도 이기기까지 극히 힘들다고 생각한다. 어렵다 생각되면 훗날에 다시 도전하는 여유를, 이긴다면 고급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니 나중이라도 분발하자.

사회자 : 대, 대승리~! 야호~! 브라보!

<페이스 채트 '의문의 전사 사용법'>

루크 : 마지막에 나타났던 엄청 강한 패거리, 대체 뭐였을라나.

제이드 : 그들을 소환했던 건 투기장의 주인이었습니다. 저 능력이라면 전투에 도움이 되겠군요.

티아 : 저도 신경이 쓰여 조사해 봤는데요, 티아 : 아무래도 그는 시공의 틈새에서부터 다른 시공의 물질의 그림자를 일시적으로 불러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루크 :분명 전투에 도움이 될 것 같은 한데.

티아 : 하지만, 소환할 수 있는 것은 그래봤자 그림자이니까, 상대에게 가하는 데미지도 그림자라나 봐. 티아 : 물론 아픔도 동반하니까 기절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루크 : 죽거나 죽이거나 할 수는 없다는 얘기구만.

제이드 : 흠. 그럼 마르쿠트 군에서 그 능력을 연구할 의미는 없겠습니까그러.

티아 : 네. 고문 정도에밖에 쓸 수 없을 테니까요.

루크 :둘 다 진지한 얼굴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루크 : 그 사람은 투기장을 즐겁게 만들려 해주고 있는 것 뿐이고, 이상한 데다 쓴다는 건, 내가 인정 안 할거야.

(파브레 공작 저택에 들르면 현관 근처의 램다스에게서 4 장의 오의서를 실수로 매각해 버렸다는 말을 듣게 된다) (항구로 행상인을 쫓아가지만 4개 중 3개는 이미 판 뒤라 마신권의 서만 되찾을 수 있다. 나머지는 전세게로 흩어졌다는데...) (다른 불일이 대충 끝나고 투기장에서 불타는 배들도 즐겼다면 그란코크마로 가자)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20)

<페이스 채트 '피오니 폐하를 만나러 가자'>

제이드 : 피오니 폐하 쪽은 문제 없을 겁니다.

이온 : 그렇군요. 폐하께선 처음부터 화평조약을 바라고 계셨으니까요.

아니스 : 그럼, 팍팍~ 보고해 버려서, 빨리 조약을 확정시켜 버리자구요~.

제이드 : 말로 하는 약속만을 주고 받을수는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조약 체결의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온 : 그래요. 그 일을 폐하에게 제안하지요.

[물 위의 제국수도 그란코크마 궁전]

(알현실로 들어가자)

피오니 : 그러나, 겨우 킴라스카가 회담을 할 생각이 들었던 말이지.

나탈리아 : 킴라스카·란발디어 왕국을 대표로 부탁드릴것이었어.

나탈리아 : 우리 나라의 행패를 용서하시기를. 그리고 아무쪼록 새로이 화평조약의.....

피오니 : 잠깐 스톱. 자신의 입장을 잊고 계시지 않으신가?

루크 & 나탈리아 : ??

피오니 :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킴라스카 왕국이 머리를 숙이는 일이 되잖나.

피오니 :말리지 않다니 사람이 나쁜군 제이드.

제이드 : 이런, 들켰습니까.

피오니 : 이번 일은 루그니카 평야 전투의 중전회의라는 명목으로 가지. 그래서, 어디서 회담할 건데?

제이드 : 본래대로라면 다아트이겠습니까만.....

이온 : 지금은 곤란하겠지요. 모스의 입김이 미치지 않을 장소가 바람직합니다.

루크 : 유리아 시티는 어때 티아.

티아 : 뭐? 하지만 마계(클리포드)인 걸? 괜찮을까?

루크 : 오히려 마계의 상황을 알려 두는 편이 나을 걸. 외각을 내려보내는 데가 마계인 거니까.

제이드 : 나쁘지 않군요. 그러면 폐하. 마계의 도시로 행차해 주셔야겠습니다.

피오니 : 케탈부르크에서 갇혀 살았던 걸 생각하면, 어디라도 천국이지. 까짓거 가 주마.

루크 : 이렇게 되면, 비행보석(講石)이 필요하겠어.

이온 : 그렇네요. 비행보석은 디스트가 가지고 있어요.

이온 : 다만 어디에 있는지는 다아트에서 트리트하임에게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가이 : 다아트라..... 모스도 돌아가 있을테지. 위험하겠군.

루크 : 망할! 왜 디스트 놈이 비행보석을 갖고 있는 거야. 귀찮게시리.

제이드 : 흥미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는 보업(講業)이나 음기관(音機關)의 편집관이니 말입니다. 가이와 마찬가지로.

가이 : 누가 편집공이라고?

제이드 : 그렇습니다. 가이와 디스트를 똑같이 취급하셔선 안 되지요, 루크.

루크 : 난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제이드 : 자 자, 언제까지고 장난만 치시지 마시고. 티아가 즐겨보고 계시는군요.

티아 :됐어요 그만.

<페이스 채트 '디스트의 정체는??'>

루크 : 디스트한테서 비행보석을 되찾자, 인가~. 다아트에 뉘뉘다면 좋겠는데.

제이드 :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만나 되찾을 수 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탈리아 : 저는 그 자가 싫사와요. 교만한 태도도 그럴거니와, 그 어투도.....

아니스 : 그러게~. 원가 도마뱀딱하고 말이야.

나탈리아 : 도마뱀..... 그래요, 분명히 도마뱀 비슷하지요.

아니스 : 아마 그 앉아있는 의자가 도마뱀 꼬리 대신이라.

아니스 : 위험해지면 뿡~ 하고 디스트가 튕겨나와서 의자를 미끼로 도망치는 구조일 거야!

나탈리아 : 어머니! 그럼 그 의자는 그의 영덩이에 달라붙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스 : 맞아 맞아. 분명 없어져도 다시 돌아날 거라구!

나탈리아 : 그는 인간이 아니었군요.....

루크 : 엄청난 구라를.....

제이드 : 핫핫하, 별로 틀리지도 않을 것 같은 이야기이니 괜찮지 않겠습니까.

루크 : 이보쇼.....

(그란코크마에 온 김에, 집합상점 1층으로 가보자)

[물 위의 제국수도 그란코크마 집합상점]

라이즈 : 내가 라이즈인데, 무슨 불일인가?

루크 : 전에 가두 마차 마부한테서 펜던트 산적 없어? 3 캐럿 정도의 스타 사파이어가 박혀 있는.....

라이즈 : 아하. 그거라면 분명히 내가 샀지.

루크 : 그거 되팔 수 없을까. 그건 원래 애 거래서.

티아 : 루크.....

라이즈 : 그야 상관없지만 나도 장사를 해야 먹고 사니까. 이윤은 붙여야겠어.
라이즈 : 100,000 갈드다.

티아 : 루크! 됐어.

루크 : 별 거 아냐. 10 만 갈드 쯤이야 아버지에게 말해서.....

티아 : 내가 곤란해. 거기다 당신 아버님의 돈은, 당신 아버님과 어머니의 재산이잖아?

루크 : 그거야..... 난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티아 :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티아 : 가령 당신이라도 애쉬라도. 파브레가의 자산은 공작님의 것이지, 당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야.

루크 : 그래도 야..... 저거 소중한 거잖아?

티아 : 응, 그건..... 그렇지만.....

라이즈 : 이봐 이봐. 어떻게 할 거야?
라이즈 : 100,000 갈드를 낼 마음이 들었나?

(전쟁 상황에서의 공수 등나 투기장 등을 많이 이용했다면 10만 갈드가 있을 것이다. 갈드가 된다면 질러보자)

루크 : 그거 파쇼!

티아 : 자, 잠깐 루크!

라이즈 : 고맙수다!

(티아의 펜던트를 다시 손에 넣는다)

루크 : 여기. 이거, 소중한 거였지.

티아 : 하지만..... 응응, 고마워 루크.....

라이즈 : 그럼 난 이만 실례하지.

.....

티아 :정말..... 다행이야.....

루크 : 저기, 티아. 원 사연이 있는 물건인지 물어봐도 돼나?

티아 : 어머니의... 유품.

루크 : !!그런 소중한 거였나. 그때 나, 진짜 지독한 말을 한 셈인데. 미안하다.....

티아 : 됐어.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펜던트를 되찾아 줬잖아.
티아 : 루크, 정말 고마워!

루크 : 벼, 별로..... 그런..... 감사를 들을만한 일도 아닌데 모. 그보다 가자 빨리!

유우 : 주인님 속쓰러워 하고 계세염. 역시 주인님은 실은 착한 사람이세염!

티아 :응, 맞아. 사려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상당한 부분도 많이 있구나.
티아 : (루크.....)

(이제 다아트로 간다)

[로렐라이 교단 총본산 다아트 교회 앞]

아니스 : 아아~!
아니스 : 누구야, 이 바보!

루크 : 편지인데. 이걸..... 디스트가 보낸 거야!

이온 : 뭐라고 쓰여 있나요?

루크 : 밍살스런 제이드 일당에게.

나탈리아 : 어머, 어느 틈엔가 제이드 일당으로 취급받고 있사온데요.

루크 : 비행 보석은, 내가 ——

"이 화려하신 장미의 디스트 님께서 맡아 가지고 있다."
"돌려받길 원한다면 우리가 맹세했던 장소로 와라. 거기서 진정한 결판을 내 보자!"
"무섭지. 그럴겠지. 하지만 겁을 먹었더라도 여기 오지 않는다면 비행보석은 손에 넣을 수 없다."
"그 곳은 다아트는 아니다. 절대 다아트가 아니니 어서 와라! 6 신장·장미의 디스트"

루크 :뭔가 엄청 다아트일 거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편지로군. 바보지, 이 인간.

티아 : 대령님, 어쩌시겠어요?

제이드 : 내버려 두십시다. 루크 말씀대로입니다. 분명 비행보석은 다아트에 있습니다.

이온 : 그렇습니다만, 디스트는 우리들에게.....

제이드 : 약속의 장소라는 곳은 아마 케텔부르크일 겁니다. 가만 두면 기다리다 지쳐서 얼어붙겠지요.

가이 : 불쌍한 인간이다.....

아니스 : 만약을 위해, 디스트가 여기 돌아왔는지 어떤지 트리트하임 님한테 물어볼까?

루크 : 그러자.

[다아트 교회 예배당, 자동으로 이동]

트리트하임 : 도사 이온!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이온 : 미안합니다. 하지만 일이 있어 좀 더 자리를 비워야겠습니다.

트리트하임 : 도사로서의 직위는 어찌 하시려는 것이십니까!
트리트하임 : 대영사 모스께서도 돌아오시자마자 오라클 기사단을 이끌고 아라미스 용수 동굴로 향하셨사온데.....

제이드 : 그렇군.....
제이드 : 유리아 로드를 막아서, 우리가 디스트와 만나려 가도록 꾸미고 있는 것이겠지요.

트리트하임 : 외출하시겠다면 적어도 폰 마스터 가디언(도사수호역)을 5명, 아니 10명은 더.....

이온 : 인원이 많다면 활동하기 힘들어요. 아니스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아니스 : 저어~, 영사 트리트하임. 오라클 기사단의 디스트는 어디서 뭘 하고 있나요?

트리트하임 : 율사(律師) 디스트라면 얼마 전에 여기로 돌아왔었습니다만, 다시 황급히 나갔지요.
트리트하임 : 수행원인 창사(唱師) '라이너' 라면 자세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루크 : 라이너라는 사람은 어딘데요?

트리트하임 : 지금은 오라클 본부에서 훈련을 행하고 있을 거요.

티아 : 가 보자.

루크 : 여.

(예전에도 침입했었던 오라클 기사단 본부로 간다. 같은 경로로는 갈 수 없지만, 교회 정문

오른쪽 입구로 가면 직빵)

[오라클 기사단 본부]

(오라클 병사들이 연장을 들고 길을 막는다)

아니스 : 물러나세요! 도사 이온의 어전이십니다!

병사 : 유감입니다만, 누구라 하더라도 여길 지나보내서는 안 된다는 디스트 향사(響士)의 명령이십니다.

제이드 : 후후후.....

병사 : 뭐..... 뭐가 우습나!

제이드 : 이런 실례. 당신들을 두고 웃은 것은 아닙니다.

병사 : 제길! 우습게 보다니! 도사 이온만은 다치게 하지 마라. 나머지는 죽여도 상관 없다!

루크 : 우웁, 온다!

(전투 후)

제이드 : 디스트도 바보로군요.

가이 : 뭐가 말야?

제이드 : 이런 식으로 방비를 굳혀서야, 여기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털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티아 : 아, 그러면 이곳에 비행보석이?

제이드 : 있지 않겠습니까.

나탈리아 : 어디에 숨겨 둔 것일까요.

이온 : 그것은 라이너가 알지도 몰라요.

루크 : 그럼 라이너라는 녀석을 찾지.

<페이스 채트 '신탁의 방패(오라클)의 병사들'>

제이드 : 어쨌든, 라이너를 찾으러 안쪽까지 들어가 보십시다.

아니스 : 오라클 병사들이 방해해 오긴 하겠지만요.

이온 : 그들은 이미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게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아니스 : 피이~. 본래의 오라클로서의 의무는 내팽개치구. 기분 나빠요!

제이드 : 일일이 설명이나 설득을 하고 있을 틈은 없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테지요.

이온 : 그렇네요. 별 수 없습니다.

아니스 : 다른 6 신장이 나타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제이드 : 그렇군요. 그렇게 바라는 바입니다.

(수련장의 맨 아래쪽까지 들어가자)

[오라클 기사단 본부 수련장]

아니스 : 찾았다! 저 사람이 라이너~.

루크 : 저거, 뭐 하는 거야?

티아 : 오라클 기사단의 청병에서 항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훈련이야.

이온 : 일단 이야기를 들어 보지요.

(말을 걸자)

라이너 : 아니 도사 이온! 어쩌서 이런 장소까지.....

이온 : 디스트가 말아 가지고 있는 비행보석이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라이너 : 아아, 그러려면 제가 말아두고 있습

니다.

티아 : 왜 당신이?

라이너 : 예. 저는 그저께부터 항상 승진훈련을 시작했기에 1개월 가까이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이너 : 그렇기에, 잠시 제게 맡겨주시겠다고 하시며.....

이온 : 그것을 넘겨주실 수 없겠어요?

라이너 : 그것은 도사님의 말씀이라도 따르기 곤란합니다.
라이너 : 디스트 님에게서, 한시라도 때 놓지 말고 보관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으니까요.

(뒤에서 슬며시 노래를 부르는 티아...)

루크 : 그래도 좀 어떻게.....

라이너 :음.....

(털퍼덕)

제이드 : 자아. 이것으로 알비올도 원상복귀입니다.

루크 :뭔가 악랄하단 느낌은 들지만.

가이 : 뭐, 아마 기분 탓은 아닐거란 생각이 든다.

나탈리아 : 괜찮을려나요. 이런 짓을 해도.....

이온 : 예. 양심이 찢리네요.

아니스 : 자~ 자~♡ 급한데 어찌겠어요.

티아 : 지금은 비상사야. 그만 가자.

루크 일동 : . . .

(비행보석을 손에 넣는다)

<페이스 채트 '라이너에게 미안한 짓을 했 나.....>

제이드 : 자아, 어서 노엘에게 비행보석을 전해다 주십시오.

나탈리아 : 아이 참. 억지스럽기도 하군요.

가이 : 하하하.....

제이드 : 라이너도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기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 없습니다.

가이 : 모, 설득하는 것도 엄청 피곤할 스타일 이긴 했다만...

나탈리아 : 하지만, 사정을 제대로 설명해 두어도 되지 않았을런지요?

제이드 : 그렇습니다. 티아, 설명을 하셔야지요.

티아 : 네? 저요?

가이 : 하하하..... 이젠 됐지 뭐.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제이드 : 자아, 6 신장이 돌아오기 전에 이곳을 나가십시오.

가이 : 그래 그래...

티아 : 내가..... 잘못된 걸까.....?

(교회를 나오면...)

루크 : 이걸로 다음은 알비올을 써서 백부님 일행을 나르면 되는 거군.

이온 : 그 전에 제안이 있는데요.

나탈리아 : 무엇이신지요?

이온 : 평화조약 체결 때에, 킴라스카와 마르쿠트, 그리고 다크도 강하 작전에 대해 승인시킬 수 있습니다.

이온 : 하지만 케세드니아는 자치구이지 국가가 아니라.....

제이드 : 모기장 바깥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온 : 본래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요, 아스터도 참석하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루크 : 어쩌다 그렇게 된 거라고는 해도 외각을 내려보내는 걸 처음으로 인정해 준 게 그 사람이니 말야.
루크 : 괜찮지 않겠냐?

가이 : 그럼, 우선 우리들은 케세드니아로 가자.

가이 : 우리가 아스터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 노엘보고는 폐하네를 유리아 시티로 옮겨달라 하면 돼.

아니스 : 그거라면 시간낭비가 없겠네.

이온 : 여러분. 감사합니다.

<페이스 채트 '이온의 제안'>

이온 : 여러분, 멋대로은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루크 : 됐더니까. 케세드니아엔 센트바나 사람들도 있어. 붕괴의 피해자가 모여있는 거라고. 말은 해 두는 편이 낫지.

티아 : 맞아. 그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어 두신다면.

티아 : 두 분 폐하께서도 외각 대지 강하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더 잘 되실거라 생각해.

이온 : 대지가 내려가면, 양 나라 모두 마계(클리포드)에서 생활하게 될 테고 말이예요.

루크 : 그런 거지. 아스터네한테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전해두는 게 나을 거고.

티아 : 그래.

(알비올의 비행기능이 부활된다. 마계와 외각을 돌아다니며 루크와 가이의 오의를 배우는 등 이것저것 해 보자)
(마계로 떨어진 엔게이브에 세실과 프링스의 이벤트가 있다. 남 카이틀과 엔게이브를 왕래하며 이벤트를 완수시킬 수 있다)
(대충 돌아다녔다면 케세드니아로 간다)

[마계, 유통거점 케세드니아]

노엘 : 그럼 저는 외각으로 돌아갈게요. 나중에 또 모시러 오겠어요.

루크 : 부탁할게.

[케세드니아 아스터 저택]

아스터 :과연. 그래서 제게. 황궁무지함입니다. 이히히히히...

아스터 : 먼저 강하(降下)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주의사항이나, 장기(障氣)의 폐해 등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티아 : 분명 강하 준비를 진행시키기 위한 참고가 되겠어.

루크 : 그러고 보니 장기 영향은 어때요? 그 밖에 어디 안좋은 데는?

아스터 : 노인이나 아이들이 장기에 쏘여 쓰러지고 있습니다.

아스터 : 증상이 심한 자는 유리아 시티 분들께서 데리고 가 주시길 합니지만 역시 전원은 좀.....

아스터 : 그 밖에는 한창 전쟁 중이었기에 비축해 두었던 식량이 줄어가는 것이 걱정입니다.

가이 : 폐하네한테 진정해 보는 게 어때.

이온 : 그렇네요.

나탈리아 : 그럼 출발은 언제로 하시겠어요?

아니스 : 아직 한 동안은 노엘 안 돌아올 거구.

제이드 : 여인숙에서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아스터 공께서도 준비하실 시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스터 : 그럼 속소의 요금은 제 쪽에서 처리

두기로 하겠습니다. 느긋하게 쉬시길.

루크 : 고마워. 신세지겠습다.

(속로로 자동으로 이동한다)

티아 : 왜 그래?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가 있다니.....

루크 : 아아..... 장기 일 말야.
루크 : 장기가 해롭다는 건 알아도, 구체적인 건 모르니까 되게 신경쓰여서.
루크 :살마 오늘 내일 다들 죽어버리거나 하진.....

티아 : 이전에도 이야기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오랜 시간동안 많이 마시지 않으면 큰 해는 없어.

티아 : 그렇지만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다음 세대에는 인구가 80%는 줄어 있을거라 생각해.

루크 :제길! 외각을 강하시켜 봤자 이러면 무슨 소용이야.

티아 : 그래서 평화조약 조항 중에 장기를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잖아.

루크 :알고 있어. 그래도 나..... 내 초진동은 장기를 분해시킬 수도 없다니.....

루크 : 웬지 속이 뒤들린단 말야. 전부 다..... 내가 초래한 일인데.....

티아 : 정신 차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보겠다고 당신이 그랬잖아.

티아 : 인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분명 보잘 것 없어. 하지만 사람은 서로간에 힘을 합칠 수 있는 걸.

티아 : 내가..... 우리들이 여기 있어.

루크 :어. 미안하다. 투덜거려서.

티아 : 아니야..... 그럼, 나 갈께. 잘 자.

루크 : 잘 자라..... 고마워.

(다음 날)

노엘 : 안녕히 주무셨어요.

루크 : 노엘! 어서 와! 백부님 일행은?

노엘 : 무사히 유리아 시티까지 모셨습니다. 노엘 : 여기 조금 일찍 도착했길래 한발 먼저 아스터 씨도 모시고 왔어요.

나탈리아 : 어머니! 그럼 당신 한 숨도 쉬지 않은 것이 아니신지요?

노엘 : 아니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틈이 날 때마다 확실히 쉬고 있으니까요.

이온 : 수고가 많으세요.

노엘 : 영광이에요. 그럼, 저는 알비올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요!

제이드 : 그럼, 우리도 유리아 시티로 향하십시오.

가이 :그래. 슬슬 때가 왔구만.

<페이스 채트 '평화조약 체결을 향하여'>

루크 : 드디어 평화조약이구만.

나탈리아 : 네. 길었지요.

제이드 : 희생도 있던 했습니다만, 어쨌든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유우 : 열심히 했어염~.

아니스 : 다음으로는 대지를 잘 내려보내고 장기도 없앨 수 있다면, 이겠네~.

티아 : 오빠가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아무튼 잘 됐어.

이온 : 그렇네요.

가이 : 글썸, 어떻게 될까, 이다만.

티아 : 왜 그래? 가이.

루크 : 뭐 신경쓰이는 일이라도 있냐?

가이 : 하하 암것도 아니라니까. 빨리 가자.

루크 : 어, 어어.

[관리자의 도시 유리아 시티 중앙관리시설 회의실]

테오도로 :그러면 이 서류에 두 분의 서명을.
테오도로 :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화평조약의 체결을 마칠것입니다.

가이 :잠깐 기다려라.

루크 : 야, 가이!

가이 : 미안해, 루크. 중요한 일이라 그런다. 잠깐만 조용히 해 봐.
가이 : 비슷한 일이 호드 전쟁 때도 있었지. 이번엔 지킬 겁니까.

인고벨트 6 세 : 호드 때와는 다르네. 그것은 예언의 의한 번영을 우리 나라에 불러오기 위해.....

가이 : 그런 것을 위해 호드를 소멸시켰단 말인가!
가이 : 그 곳에는 킴라스카 사람도 있었던 말이오. 내 어머니 같은.

(스름)

나탈리아 : 가이! 무슨 짓이신가요!

인고벨트 6 세 : 자네 모친.....?

가이 : 양제니 세실.
가이 : 당신이 화평의 증거로서 호드의 갈디오스 백작 가운데 시집 보냈던 사람이지. 잊었다고는 말 못할 거요.

파브레 공작 :가이. 복수를 위해 온 것이라면 나를 찔러라.
파브레 공작 : 갈디오스 백작부인을 해친 것은 나였다. 그 분이 마르쿠트 공작의 아내인이 되어 주시지 않으셨기에.

루크 : !! 아버지! 진짜로.....

파브레 공작 : 전쟁이었던 거다. 이기기 위해 서라면 뭐든지 해야 하는.
파브레 공작 :너를 죽게 만드는 것으로 루그니카 평야 전투를 발생시켰던 것처럼.

가이 : 어머니는 그래도 나아. 모든 걸 아시고서 시집오셨던 거니까.
가이 : 하지만 호드를 소멸시켜서까지다른 사람들을 휘말려 들게 할 필요가 있었나!?

피오니 : 검을 들이대야 할 곳은 이쪽일지도 모른다만. 가이랄디어 가란.

가이 :폐하?

피오니 : 어차피 조만간에 알 일이다. 호드는 킴라스카가 소멸시킨 게 아냐. 자멸(自滅)한 거지.
피오니 : —— 아니, 우리가 없앤 거다.

티아 :무슨 말씀이시죠!

피오니 : 호드에선 포미클리 연구가 행해지고 있었다. 맞아, 제이드.

제이드 :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인해, 호드에서 행해지고 있던 보술(講術) 실험은 전부 절수되었습니다.
제이드 : 그러나 포미클리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피오니 : 전 황제 ——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호드 찌로 킴라스카 군을 소멸시킬 결심을 했었다.

제이드 : 당시의 포미클리 피험자를 장치에 연결해, 피험자와 장치 사이에 인위적인 초진동을 일으켰다고 들었습니다.

가이 : 그래서..... 호드가 소멸된 거였나.....

피오니 : 아버지는 그걸 킴라스카 군의 소행으로 돌려서 국내의 반전론을 받아 뽕냈지.

아니스 : 너무해..... 그 피험자라는 사람 불쌍해요.

제이드 : 그렇지요. 피험자는 당시 11살의 어

린이었다고 기록에 그리 남아 있습니다.
제이드 : 가이, 당신도 만났던 적이 있지 모를 사람입니다.

가이 : 내가?

제이드 : 갈디오스 백작가를 섬기는 기사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분명..... 펜데 가였었다.

티아 : 펜데! 설마..... '반데스테르카 무스트 펜데!?!'

루크 : 티아, 아는 사람야?

가이 :알고 자시고, 펜데네 집 아들이라면 너도 알 거 아냐.

루크 : 뭐?

가이 : 반이다. 반 그란츠. 놈의 본명은 반데스테르카 무스트 펜데.

일동 : !!

제이드 : 그랬군, 그래서 봉인시켰던 생물 복제를 반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온 : 가이. 일단 검을 거두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이온 : 이 마당에, 여기 있는 사람의 거의 전부를 죽이지 않는 한 당신의 복수는 마칠 수 없습니다.

가이 :먼 옛날에 복수할 생각은 없었지만.

테오도로 :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반의 이름이 나온 듯 같습니다만, 이번엔 일단 해산하도록 하십시오. 관찰으시겠습니까.

(자동으로 휴식하게 된다)

<페이스 채트 '가이의 복수'>

가이 : 미안했다, 모두들. 난 어떻게 해서든 결론을 내리고 싶었던 거다.

가이 :어머니나 누나, 사라져 간 호드의 모두를 위해서라도.

아니스 : 전쟁이란, 정말 너무해. 너무 멋대로 라구.

나탈리아 : 자국을 위해서였다 해도, 너무한 일이어요.

제이드 : 그것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일행 :

루크 : 반 선생도 전쟁의 피해자였던 거구만.

티아 : 하지만, 지금 오빠가 하고 있는것은 복수라고 할 수조차 없어!

가이 : 그렇지. 반도 나랑 같은 아픔을 가지고, 나와 마찬가지로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였다는 생각을 해 왔다면,
가이 : 아무래도 그게 아닌 모양이다.

제이드 : 원래의 발단은 호드 전쟁이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것은 이미 변명거리가 되었습니다.

티아 : 네...

가이 :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지금 난 어떻게 해서라도 반을 막고 싶다고 생각한다.
가이 : 그걸 위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겠지 이제.

루크 : 그래. 알아어. 가자, 세리던으로!

(조약의 경과를 듣기 위해 중앙 관리시설 회의실로 가야 한다)
(하던대로 지핵의 진동을 멈추는 일을 맡게 되니 세리던으로 가자)
(나가기 전, 집 근처에 서 있는 사람이 오의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루크 어머니인 슈잔느에게서 용돈을 타서...)

[기술자의 마을 세리던 집회소]

이에온 : 오오. 타르타로스 개조는 다 끝났네.

루크 : 그런가! 역시인데요!

이에온 : 허 허 허. 연장자를 우습게 보지 마라. 타르타로스는 세리던 항구에 세워 두었다네.

타마라 : 다음은 올드란트 대해를 건너서 액제류스가 무너진 곳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서 지핵으로 들어가는 거지유.

이에온 : 단지 주의할 점이 몇가지 있네. 작전 중, 장거나 별의 압력을 막기 위해 타르타로스는 보술(講術)장벽을 발동시키게 된다.
이에온 : 여기에는 대단한 부담이 걸려서 말일세. 약 130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린다.

루크 : 130 시간이라니 되게 어중간한데.

이에온 : 그만큼 부담이 너무 센 거이지. 이에온 : 여기서부터 액제류스로 항행해, 지핵까지 도착하는 데 걸릴 시간을 거꾸로 셈해 간신히 음기관을 유지시키게 해 둔 걸세.

타마라 : 그리고, 출력이 높은 보술장벽을 발동시키는 데에는 보조기관이 필요하다우.
타마라 : 맥들이 지핵 돌입 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우리가 여기서 동화를 올리고.
타마라 : 그러면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아스톤이 보술장벽을 발동시켜 줄 거요.

가이 : 즉 우리가 이 마을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한정된 시간이 소비되기 시작한다는 말이로군.

제이드 : 여기서부터 액제류스까지는 타르타로스로 약 5 일.

제이드 : 지핵에 돌입에서부터 탈출까지를 약 10시간으로 해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힘들것습니다.

티아 : 아주 작은 자연이나 실패도 치명적이라는 이야기네요.

이에온 : 탈출은 알비올로 행한다. 그것을 위해, 압력을 중화시키는 음기관을 장착하지 않으면 안 되네.
이에온 : 작전을 개시하기로 정해지면, 알비올은 우리가 항구로 보내지.

타마라 : 음기관을 붙이면 아스톤이 타르타로스의 격납고에 넣어줄 게요.

아니스 :그럼 작전이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알비올은 쓸 수 없게 된다는 얘기네요.

타마라 : 맞수. 그렇게 되면 다른 곳으로 물건을 사러 갈 수도 없게 된다우.
타마라 : 그러니 남겨 둔 일이 있는지 잘 생각하고 나서 작전을 시작하시구라.

이에온 : 자, 알았으면 준비들 하고 와라. 출발 준비가 되었다면 내게 말을 걸게.

<페이스 채트 '단 한번의 찬스'>

루크 : 이젠 타르타로스로 지핵까지 가서 진동을 중화시키기만 하면 되지.

가이 : 그래, 슬슬 이다.

제이드 : 제한된 시간 내에서의 행동이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제이드 : 마무리 짓지 않은 일은 없으십니까?

아니스 : 아이 참~, 대령님, 겁주시지 마세요오.

제이드 : 아니오, 사실입니다. 작전을 개시하게 되면, 알비올도 쓸 수 없게 되니 말입니다.

나탈리아 : 하지만, 서두르지 않아선 안 되는 게 아닐런지요?

제이드 : 서두르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티아 : 준비도 그렇거니와,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마음을 확실히 정리해 두십시오, 라는 말씀이시군요?

루크 : 알아어. 그러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이드 :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현 시점에서의 할 일을 다 마쳤다 생각하면

이에온 영감한테 말을 걸어서 작전을 시작하겠다고 하자)

타마라 : 지핵에 도착한 다음, 타르타로스의 진동장치를 기동시키고 나서, 알비올로 타르타로스 갑판 위까지 가시구라.

이에온 : 갑판에 상승기류를 만들어 내는 보진을 그려 두었으니 말이네.
이에온 : 그것을 보조 출력으로 삼아 탈출하는 걸세.

타마라 : 알비올의 압력 중화장치도 3 시간밖에 안된다우.

이에온 : 서둘러 탈출하지 않는다면 납작하고 말 게야.

루크 : 처음부터 끝까지 목숨걸고 해야겠군.....

작업원 : 봉화가 올라왔습니다.

이에온 : 항구 쪽도 준비가 된 모양이다. 자아, 배웅해 주마.

티아 : 가자, 루크. 지금은 1 분 1 초가 아까워.

루크 : 그래.

(그러나 집회소를 나서려 하지만...)

티아 : 리그렛 교관님!?

리그렛 : 스피노자도 이야기 했었지만, 베르켄드의 연구자들이 도망친 곳이 세리던이라는 소문은 사실이였다.

루크 : 길 비켜.

리그렛 : 너희들을 보낼 수는 없다. 지핵이 정지상태에 빠져서는 곤란하니.
리그렛 : 항구도 오라클 기사단이 접수한 뒤다. 괜한 저항은 그만두고 무기를 버려!

이에온 : 타마라! 하게!

타마라 : 알았시우!

이에온 : 지금이다! 항구로 가라!

루크 : 하지만.....

타마라 : 저 작자들이 타르타로스를 가라앉히기라도 한다면 우리들의 한 일이 헛수고가 되잖수!

이에온 : 시간이 없다! 빨리 안 가나!

리그렛 : 가게 돌 것 같나!
리그렛 : 겁먹지 마라! 좁은 거리에서는 사령술사 제이드라 하더라도 보술을 구사하지 않을 거다!

루크 : 제이드!

제이드 : 우리입니다! 아군으로 식별할 수 없는 민간인이 너무 많습니다.

나탈리아 : 아악!?

리그렛 : 방해 마라!

이에온 : 우역!?

루크 : 이에온 씨!!

타마라 : 우리들 노인네들보다 맥들에게는 할일이 많을 거 아니겠수!

이에온 : 빨리..... 못 가겠나!!

제이드 :가십시다. 어서!

티아 : 루크!!

.....

오라클 병사 : 못 간다!

마을 사람 1 : 타르타로스에는 내 노력도 들어가 있던 말이다! 방해하게 돌까보나!
마을 사람 1 : 루크 님! 나탈리아 전하! 북쪽 출구가 뚫려 있습니다! 서둘러..... 으아악!

루크 : 제, 전장.....!

.....

오라클 기사 : 소용 없다!

마을 사람 2 : 여자라고 물로 보지 마!

나탈리아 : 위험해요! 그만두시어요!

마을 사람 2 : 괜찮아요! 그보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아악!!

나탈리아 : 이..... 무슨 일이람.....!

.....

오라클 병사 :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 주마!

마을사람 3 : 여긴 우리가 맡을게! 자 빨리가!

아니스 :미안해요!

(마을 위쪽으로 열심히 뛰면 킴라스카 군사들과 마주치게 된다)

킴라스카 기사 : 우, 무슨 일입니까!?

나탈리아 : 아아! 잘 와주셨어요!

루크 : 오라클이 마을의 모두를 공격하고 있어!

나탈리아 : 마을 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킴라스카 기사 : 명심했습니다!

제이드 : 자아, 서두르십시오.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게 됩니다!

리그렛 : 놈들을 쫓아라!

타마라 :젊은이들, 잘 해내시... 우...

리그렛 : 서둘러라! 항구의 군사들과 협공한다!
리그렛 :민간인이 나서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에온 : 「'에' 반」과 「'이' 반」..... 처음이자 마지막인 공동 작품이다..... 부탁하네..... 루크.....

(세리던을 뒤로 하고 항구로 가자...)

<페이스 채트 '세리던의 참극'>

아니스 : 할아버지 일행이!

티아 : 교관님..... 민간인을 해치시다니.....

루크 : 평화조약 때엔 방해 안 했었는데!

아니스 : 수석총장의 목적에 있어서 평화조약 같은 건 상관없었다는 뜻이야?

티아 : 그럴 거야.....

루크 : 쌍! 이런 중요한 때 애쉬 자식은 어디서 뭐 하고 자빠져 있는거야!

아니스 : 없는 사람 생각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구!

티아 : 그래..... 이에온 씨 일행의 행동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타르타로스!
티아 : 우린 실패할 수 없으니까!

루크 : 알고 있어!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21)

[세리던 항구]

(들어가면 뭔가 부연 게 깔려 있는데...?)

제이드 : 큰일이군! 자세를 낮추고 코와 입을 막으십시오!

루크 : 뭐, 원데!?

티아 : 이건 보업(謏業) 최면 연막이야!

가이 : 즉, 어떻게 중화는 못 시키나?

제이드 : 보술(謏術)로 날려보내겠습니다.

루크 : 푸후..... 겨우 숨 좀 쉬겠구만.

유우 : 그치만 졸려염.....

아니스 : 후아~... 나두.....

헨켄 : 다행이다. 너희들까지 잠들지 않아서.

캐시 : 역시 작은 아이들 쪽이 약빨이 센 것 같수.

나탈리아 : 어머니, 그럼 이것은 여러분이 꾸미신 일이셨군요?

아스톤 : 오라클 놈들이 타르타로스를 훔치려 하길래 말일세.

캐시 : 그 치들, 마을에도 간 것 같수만 타마라 네는.....

일행 : . . .

헨켄 : 설마.....!?

반 : 느긋하게 잡담이나 하고 있어도 되나?

루크 :서, 선생!

헨켄 : 스피노자.....! 우리들 동료 보다도 오라클 편을 드는 게냐!

스피노자 :나, 나는..... 난.....

리그렛 : 각하!?

반 : 실책이 아닌가, 리그렛.

리그렛 :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즉시 놈들을 처치하겠습니다.

제이드 : 루크! 안 됩니다.

루크 : 왜!

제이드 : 지금 우선해야 할 일은 지핵을 정지시키는 일입니다. 타르타로스도 가야 합니다.

루크 :제기랄!

(노인들이 목숨을 걸고 반을 가로막는다...)

티아 : 위험해요! 피하세요!

헨켄 : 그렇게는 안 되지. 이런 처지에 놓인 것은, 스피노자가 우리 「'이' 반」을 배신했기 때문이네.

캐시 : 이런 노친네라도 장애물은 될 수 있다우. 맥들은 어서 타르타로스도 가시우.

반 :비켜라.

스피노자 : 바보가! 어서 도망치게!

헨켄 : 동료의 잘못된 동료인 우리가 알아야 한다.

캐시 : 어서 가시구려!

제이드 :루크! 시간이 없습니다!

티아 : 오빠에게 따라잡히면 작전이 실패하게 돼! 이에온 씨 들의 죽음을 헛수고로 돌릴 거야!?

루크 : 알고 있어.....! 미안해..... 헨켄 씨, 캐시 할머니, 아스톤 씨.....!

.....

반 :노인이라 하나 그 각오는 훌륭하군.

(서격!!)

반 : 스피노자. 잘 봐 뒤라. 내 적으로 돌아선 자들의 말로를 말이다.

리그렛 : 각하. 싱크는 늦지 않은 모양입니다.

반 : 작전 자체는 실패했으나 미끼 역할은 된 셈인가. 좋겠지. 철수한다.

리그렛 : 숙지했습니다!

.....

헨켄 :미안하기는 무슨. 고맙다구.... 해
야지.....

캐시 :그렇시우저 애들이 돌아오면
.....말을 가려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구.....
랴.....

[개조 타르타로스 내부]

아니스 :왜야.....? 이에몬 할아버지네
는..... 상관도 없었는데.....

나탈리아 : 저는..... 자신의 국민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루크 :내가 무력했기 때문이야. 제기라
알!!

티아 : 좌절해 있을 시간은 없어. 우리에게 지
핵을 정지시킨다는 일이 남아 있어.

루크 : 너!! 말을 그렇게 해야겠냐!!

티아 : 여기서 울고 슬퍼해도 아무 소용도 없
단 말이야.

티아 : 대령님은 지금 홀로 작전을 준비하고
계셔. 그걸 잊지 말아 줘.

.....

가이 :개, 눈이 젖어 있었다는 것만 알아
라.

루크 :뭐?

가이 : 영감님들을 죽인 건 티아네 오빠야. 이
중에서 가장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 거 같
냐.

루크 :지핵으로 내려가는 장소는 액제류
스였지. 나도..... 브릿지에 가서 제이드 거들
게.

(약 125 시간 후...)

제이드 : 예정보다 1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
이상의 실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보가 울린다)

루크 : 뭐, 뭐야!?

티아 : 침입자야!

가이 : 설마 반 요장이나냐!

이온 : 어지간히 지핵이 멈추면 곤란해지는 모
양이에요.

나탈리아 : 어째서일려나요.....

아니스 :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은 침입자가 우
선이라구우. 어쩔 거야?

제이드 : 어쩔 수 없습니다. 지핵에 돌입한 다
음 격퇴할 수밖에 없겠지요.

나탈리아 :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사운데.....!

제이드 : 시작합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타르타로스가 별 내부로 들어가는 영상을 보
게 된다)

루크 :들어온, 건가?

제이드 : 그런 모양입니다.

가이 : 방금 한 순간 보였던 그건.....

나탈리아 : 어떻게 된 것이지요? 분명히 지핵
에 뛰어들기 직전 무언가가 빛나고 있는 것
같긴 했는데요.

가이 :어릴 적 호드에서 본 기억이 있어.
분명 저건.....

제이드 : 따지는 것은 나중에 하십시오. 이 쪽
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둘러 탈출하십시오.

.....

아니스 : 어라? 이에몬 씨 네가 말했던 보진
(譜陣)이 없는 걸?

싱크 : 여기 있던 보진은 내가 지웠으니까.

루크 : 침입자가 녀냐.....

싱크 : 안 놓칠 거다. 여기서 너희들을 진흙과
함께 가라앉혀야 되니.

싱크 : 죽어!

<BOSS - 싱크>

이전보다는 확실히 강해졌으나, 혼자 나왔으
므로 전력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느낌이다.
보솔 외에도 공파폭렬탄이란 걸 새로 쓰는데,
피할 수 있다면 꽤나게 피하도록,
당연히 도중부터 비오익인 아카식 토먼트 등
의 기술을 쓰므로, HP는 여유가 있을 때마다
넉넉하게 채워두자.
여담이지만 보스전 전용회화가 참으로 멋지구
리 하다(일일이 적을 수 없다는 것이 아쉽다).

루크 : 너..... 넌.....

아니스 : 세상에..... 이온 님이 둘.....!?

싱크 :크윽.

이온 : 역시..... 당신도 도사의 복제이군요.

가이 : 이봐! 당신 '도'라니 무슨 소리야!

이온 :예. 저는 도사 이온의 7 번째 ——
마지막 복제이니까요.

루크 : 복제!? 니가!?

아니스 : 거짓말이야..... 그래도 이온 님.....

이온 : 미안해요 아니스. 저는 태어난지 아직
2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디다.

아니스 : 2 년 이라면, 제가 이온님 당당의 폰
마스터 가디언(도사수호역)이 되었던 때.....
아니스 : 설마 아리에타를 해임시켰었던 건 당
신에게..... 과거의 기억이 없었기예?

이온 : 예. 그 때 피험자 - 오리지널 - 이온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온 : 하지만 뒤를 이을 사람이 없었기에 모
스와 반이 포미클리를 사용했던 겁니다.

싱크 :너는 가장 오리지널에 가까운 능력
을 가지고 있었지. 우리들 쓰레기와는 다르게.

이온 : 그런..... 쓰레기라니.....

싱크 : 쓰레기야. 능력이 뒤떨어졌기에 산 채
로 자레호 화산의 분화구에 내던져진 거고.
싱크 : 폐품이란 말이다..... 대용품조차 될 수
없는 복제 따윈.....

루크 :그런 소릴! 복제라 해도 우리 확실
하게 살아 있는데!

싱크 : 누군가에게 필요하다 여겨지고 있는 복
제 님의 말씀 따윈 들어먹기 싫군.

이온 :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같이 여길
탈출하자고요.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싱크 :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 건, 반이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싱크 : 결국..... 쓸모가 있는 놈 만이 숨쉬며
사는 걸 허락받았다는 얘기지.....

(싱크는 스스로 타르타로스에서 떨어진다...)

아니스 :이온 님. 울지 말아주세요.

이온 : 저는 울지 않는답니다.

아니스 : 하지만 눈물이.....

이온 :진짜네요.

나탈리아 : 형제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로이
까요.....

이온 : 그런가..... 제가 슬퍼하고 있던 거로군
요. 운 것은 태어나서 이게 처음입니다.

이온 : 그래..... 그랬던 겁니까..... 저는 중대
한 착각을.....

제이드 : 큰일입니다. 이전 시간이 없습니다.

가이 : 하지만 보진은 싱크에게 지워졌어.

제이드 : 제가 그리겠습니다. 허나 이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제이드 : 루크, 티아, 협력해 주십시오.

루크 : 그래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제이드 : 저는 여기서, 온 몸의 폰슬롯을 열어
음소(포닝) 덩어리를 생성해 내겠습니다.

제이드 : 루크는 유우의 불을 이용해서 그 덩
어리를 이동시켜 주십시오.

제이드 : 티아는 감판에 남아있는 보진의 흔적
을 근거로 지시를 내려 주십시오.

루크 : 요약하면, 내가 티아의 지시를 받으면
서, 유우 불로 음소 덩어리를 움직이라는 거
지.

티아 : 응. 그렇게 보진을 다시 그리는 거야.

제이드 :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니게임이 개시된다. 잘 한다면 티아에게 '보
(譜)를 읽는 자'의 칭호)

루크 : 대충 그랬구만.

제이드 : 예. 그럼 알비올로.....

루크 : 크윽!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들리느냐, 나와
같은 존재여」

루크 : 애쉬.....? 아니 틀려, 이 목소리는.....

티아 : 루크? 괜찮아? 고칠 수 없을지 시험해
볼게.

「나를 해방시켜 다오. 이 영원한 회랑의 감옥
에서.....」

(그 때 티아가 치유술을 걸기 시작하고...)

「유리아의 혈연인가.....! 힘을 빌리겠다!」

루크 : 아픔이..... 멎었어.....

티아 : 루크, 내 동위체 중 한 명, 겨우 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루크 : 티아? 아니..... 아니야.....

티아 : 나는, 너희들에게 있어 로렐라이라 불
리고 있다.

제이드 : 제 7 음소(세븐스 포닝)의 의식집합
체.....! 논리적으로는 존재가 증명되어 있었습
니다만.....

티아 : 그래. 나는 제 7 음소 그 자체.
티아 : 그리고 루크, 너는 음소 진동수가 제 7
음소와 같은 또 한명의 너와 함께, 나의 완전
동위체이다.

티아 : 나는 곧 너. 그렇기에 네게 부탁하고
싶다. 지금, 나의 힘을 무언가 닿지 않은 것이
빨아들이고 있다.

티아 : 그것이 지핵을 뒤흔들고 세피로트를 폭
주시키고 있는 것이다.

티아 : 너희들에 의해 지핵은 멈추고 세피로트
폭주도 멎었으나 내가 갈혀 있는 한은.....

루크 : 티아!

루크 : 티아! 괜찮냐!

티아 :괜찮아. 그냥 좀, 현기증이..... 나
어떻게 된 거야.....?

제이드 : 이곳은 위험합니다. 일단 지금은 알
비올로 이동하십시오.

[알비올 내부]

제이드 : 간신히 때에 맞췄습디다 그려.

루크 : 티아, 몸은 괜찮어?

티아 : 응..... 지금은 진정됐어.

나탈리아 : 그래도 걱정이 되어요. 갑자기 로
렐라이에게 몸을 빼앗겼으니 말이에요.

나탈리아 : 만일을 위해, 의사에게 진단을 받

는 쪽이 좋겠지요.

아니스 : 베르켄드에서라면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루크 :오라를 기사단이 깔려있지 않다면 좋겠는데.

가이 : 아무리 파브레 공작이라 해도 지금은 반 요장과 인연을 끊지 않았겠나?

아니스 : 그 부분은 지사님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 거라구.

유우 : 가 보세염! 티아 씨 걱정대염!

루크 : 아, 알았어.

<페이스 채트 '로렐라이가 전하고 싶었던 것'>

가이 : 설마, 로렐라이와 만나게 될 좋은 말이다.....

루크 : 어,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어.

가이 : 로렐라이가 했던 말, 예언일라나? 마지막까지 들을 수는 없었다만.....

나탈리아 : 반이 했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로렐라이의 말은 예언, 이라는 이야기가 된답니다.

티아 : 내 몸을 빌려서까지, 로렐라이가 뭘 전하고 싶었던 걸까.....

루크 : 무슨 소리야. 야 티아, 그런 것보다 자기 몸이나 걱정하라고.

가이 : 제대로 검진을 받아보는 편이 좋겠지.

제이드 : 그렇습니다. 예상 외의 사태도 있었습니지만 진동 중화는 잘 된 모양입니다.
제이드 : 지금이라면 시간을 들여 자세히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티아 : 알겠습니다.

루크 : 좋아, 베르켄드로 가 볼까.

<페이스 채트 '이온의 비밀'>

이온 :

아니스 :관찰으세요?

이온 : 미안합니다. 아니스. 저는 당신을 속이고 있었어요.

아니스 : 응응. 안 그래요, 그래도..... 제게 있어서의 이온 님은 당신 혼자이시니까요.

이온 : 아니스.....

아니스 : 자~ 기운 내세요! 이온 님!

이온 : 저를 아직, 이온이라 불러 주시는군요.

아니스 : 해해~ 그런 건 당연한 일이죠~♪

이온 : 아니스, 고맙습니다.

[음기관도시 베르켄드, 지사의 집]

빌리지언 : 루크 님! 세리던에서부터 온 보고를 받았습니니다. 지핵으로 향하셨다고.....

루크 : 작전은 성공했어요.
루크 :세리던의 이예온 씨나 이 도시의 헨켄 씨 일행이..... 목숨을 걸고 도와준 덕택에.....

빌리지언 :그러셨습니니까. 이예온 옹이나 헨켄 일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빌리지언 : 폐하께서도 공작님께서도 다아트에 항의를 하고는 계십니다만 대영사 모스는, 빌리지언 : 반 요장이 다아트를 떠나서 저지른 일이라며 전혀 상대하고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온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아랫사람들의 죄는 제 죄입니다.

나탈리아 :그런데, 지금도 파브레 공작과 반 요장은 이어져 있는가요?

빌리지언 : 아니오. 세리던 습격으로 인해 다아트 세력은 이 도시에서 몰려났습니다.

루크 : 그렇다면, 부탁이 있는데.

가이 : 이 애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정밀검사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빌리지언 : 숙지했습니다. 연구소의 슈우를 찾아 주십시오.

루크 : 고맙습니다.

(자동으로 이동한다)

[베르켄드 제 1 음기관 연구소]

슈우 :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

루크 :티아는 어때요?

슈우 : 아직, 모든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슈우 : 티아 씨의 혈중 음소가 대단히 불안정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루크 : 혈중 음소.....?

슈우 : 보살을 다루는 사람은 체내에 음소를 불러들이게 됩니다만.

슈우 : 그녀의 경우, 들어온 음소가 오염이 되어 있어, 몸 바깥으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 : 음소가 오염되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슈우 : 지금, 전세계에 분출되고 있는 독소..... 장기(障氣)였지요? 아무튼 그것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슈우 : 많이 쌓여 있는 것은 주로 제 7 음소입니다.

나탈리아 : 장기에 오염된 제 7 음소를 흡수한 상태라는 말씀이시군요?

슈우 : 예, 그것도 아주 많이. 그것이 그녀의 몸 안에 쌓여, 내장 기관들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슈우 : 말씀을 들은대로라면, 외각 강화작전에서 패시지 링이라는 음기과이 그녀에게 반응을 했다는 듯 합니다만.

슈우 : 창세력 시대의 음기관(音機關)이라면 많은 양의 제 7 음소를 머금고 있었을 테지요.

제이드 : 즉 강화작업을 행한다면 패시지 링으로부터 티아에게 장기가 흘러든다는?

슈우 : 그 이외에는 생각나는 바가 없습니다. 이대로 강화작업을 계속하게 시킨다면 생명의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나탈리아 : 그럴 수가.....!

슈우 : 저희들로서는 발작을 억누르는 약을 처방하는 일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루크 : 어떻게 안 되는 거야! 나도 제 7 음소를 쓰고 있지만, 멀쩡하단 말입니다.

슈우 : 그러니까, 양의 수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슈우 : 평범한 제 7 음소술사(세븐스 포니머)가 평생 소비하는 양의 100배 이상입니다.

이온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을까요.

제이드 : 저도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해산하도록 하지요.

(일행과 일시적으로 헤어진다. 티아와 이야기를 해 보자)

티아 :내 얘기, 들었어?

루크 :응.

티아 :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제 7 음소가 장기에 오염되어 있는 거지. 로렐라이도 오염되어 있지 않을까.....

루크 : 그런, 아무렇지도 않다는 얼굴로 말하지 마!

티아 : 걱정해 주는 거야?

루크 : 당연하지!

루크 : 망할! 지핵이 멈춰서 세피로트 폭주는 멈춘 거잖아. 그럼 외각대지를 내리지 않아도.....!

티아 : 이미 늦었어. 패시지 링 쪽이 한계인 걸.

루크 :강하 작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건가.

루크 :미안하다.

티아 : 왜 그래? 갑자기.....

루크 : 외각 대지를 내려보내는 거 그만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싫어서.....

티아 : 루크.....

루크 : 그래도, 나..... 엄청 생각해 봤는데..... 외각대지가 떨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루크 : 그래서, 그리 간단히는 말을 꺼낼 수가 없어서.....

티아 :

루크 : 모처럼 백부님도 피오니 폐하도 서로 돕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안되겠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

티아 : 바보구나. 왜 그런 얼굴을 해. 하면 되는 건데.

티아 : 혹시 당신이 「너 죽으니까 그만 하자」라는 말을 했다면, 나 당신을 경멸했을 거야.

티아 : 고마워. 당신을 믿길 잘 했어.

루크 : 너, 정상이 아냐!

티아 : 응?

루크 : 태연할 리가 없다고! 넌..... 너무 깨끗한 시늉을 한단 말야.

루크 : 적어도 조금만이라도 무섭다면가 슬프다면가 그런 진심을 말해 준다면, 난.....

티아 : 시늉이 아니야.

티아 :미안해. 잠깐만 혼자 있게 해 줘.

루크 : 아니 시러. 여기 있어야지.

티아 : 루크! 부탁이야! 이런 표정을 짓는 걸 보이고 싶지 않아.....

루크 : 그럼, 뒤쪽 보고 있지 뭐.

티아 : —— 바보.

(티아에게 '강한 소녀' 의 칭호)

티아 : 감사했습니다.

슈우 : 너무 무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루크 : 이제부터 또 세피로트 강화작업이냐.....

나탈리아 : 하지만 다음 세피로트는 어디인가요?

나탈리아 : 분명, 세피로트라 불리우는 장소 중에서 가 보지 않은 곳은 파다미야 대륙과 라디시어 대륙과 실버나 대륙이었지요.

가이 : 엄서브 게이트와 라디에이트 게이트를 뺀다면 그렇지.

루크 : 엄서브 게이트랑 라디에이트 게이트란 건 어딤데?

가이 : 엄서브 게이트는 케텔부르크의 북동쪽이지. 라디에이트 게이트는 바티칼 먼 남쪽의 섬이었을 거다.

제이드 : 그 두 곳은 가장 큰 세피로트이니 뒤로 미뤄시다. 마물도 다른 지역보다 강하다는 소문이니 말입니다.

제이드 : 어찌 되었든 지금은, 다른 세피로트에 있는 패시지 링의 장소를 특정시켜야 하겠습니니다.

티아 : 여기에 유리아 시티의 연구자가 와 있을거야. 패시지 링의 장소를 물어보자.

아니스 : 그치만..... 티아 정말로 괜찮겠어?

티아 : 응. 약을 처방 받았더니 아프지 않게 됐어. 괜찮아.

(연구소 내부의 한 연구실로 들어가면 연구자와 만날 수 있다)

연구자 : 티아, 말은 들었다. 우리는 하지 말..... 라고 말하고 싶긴 하다만..... 미안하다.

티아 : 괜찮아요.

루크 : 저기, 패시지 링이 어딘지 혹시 알아요?

연구자 : 강하작업을 하러 가는군. 지금 확실하게 장소를 찾아낼 수 있을 곳은 메지오라 고원 안쪽과 로널 설산(雪山) 뿐이야.

이온 :로널 설산입니까. 그곳은 6 신장에 임무로 방문했던 때, 흉폭해진 마물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적이 있다 들었어요. 이온 : 위험할 테니, 될 수 있는 한 마지막으론 머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이드 : 동감입니다. 지방 주민들도 그 산에는 거의 다가가지 않습니다.

루크 : 좋아, 그럼 먼저 메지오라 고원으로 가자.

연구자 : 그럼 그 사이에, 한 군데 남은 파다미야 대륙 세피로트의 장소를 특정시켜 두지, 조심들 하라고.

(메지오라 고원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메지오라 고원은 알비울 일 때문에 갔었던 적이 있다)
(연구실을 나가려 하면, 메지오라 고원의 세피로트는 니르니 강을 상류로 올라간 곳에 있다 한다)

<페이스 채트 '반은 지금.....'>

제이드 : 지핵에 다녀온 이래로, 다시 반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티아 : 오빠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루크 : 선생 계획에는 포미클리가 절대로 필요해.

루크 : 베르켄드를 쓸 수 없게 된 지금, 어디 새로운 아지트라도 찾고 있는 거 아냐?

제이드 : 아니오. 그러면 옛날에 찾아냈다 — 라기보다는, 전부터 정해 두었던 다른 거점으로라도 이동해 있겠지요.

제이드 : 빈틈이 없는 사나이 같으니 말입니다.

가이 : 우리로서는 아무튼 강하 준비를 진행시켜서, 붕괴에 의한 인류의 소실을 방지할 수 밖에 없어.
가이 : 반을 어떻게 하는 건 그 다음이다.

티아 : 그래..... 신경을 쓰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건 알지만.....

루크 : 티아 너한테 있어선 오빠니까.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하지.

티아 :고마워, 루크.

(속소에서 쉬면 페이스 채트가 있다)

루크 :

나탈리아 : 안 주무시나요? 루크.

루크 : 아니, 그놈이랑 얘기 못할까 해서 시험해 봤는데. 역시 안되더라.

나탈리아 : 애쉬, 말씀이시군요?

루크 : 어. 자식이 말을 걸어도 지 않는 이상은 전혀 연결되질 않아.

나탈리아 : 그러셨군요.....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려나요.....

루크 : ...나탈리아 너, 그 농한테 하고 싶은 말, 있지?

나탈리아 : 네?

루크 : 백부님과 의 일이나..... 이제부터 일이라던가.....

나탈리아 : 그렇, 사와요. 그와는 한참 만나지 못했으니.....

루크 : 나 참. 지멋대로인 새퀴.

나탈리아 : 루크, 혹시 저를 위해 그와 접촉해 보려 하셨던 것이시어요?

루크 : 아, 아냐 그게. 저 열받는 자식이 지금 어디서 굴러먹는지 궁금해졌을 뿐이라고!

루크 : 딱히, 널 위해 그런 건 아니란 말야!

나탈리아 : 후훗, 그러시겠지요.

루크 : 나 참. 이젠 잠이나 자야겠다!

.....

나탈리아 : 이런 부분은 꼭 닦아 계시와요.

<페이스 채트 '그래도 먼저.....'>

루크 : 티아, 몸 좀 어때?

티아 : 괜찮아. 약도 받았으니까.

유우 : 걱정돼염~.

가이 : 그래 그래. 우리는 금몰이지.

티아 : 걱정하지 말아 줘. 자, 강하 작업을 하러 가자.

이온 : 티아.....

제이드 : 그럼, 가실까요.

아니스 : 대령님, 변함이 없으시네요~.

제이드 : 아닙니다. 저도 염려는 뭉니다만, 강하작업을 계속하기로 결정된 이상은 앞으로 나아가야겠지요.

티아 : 대령님 말씀대로야. 오빠가 다음 행동을 일으키기 전에 강하 작업을 끝내 놓지 않아선 안 돼.

나탈리아 : 그것은 그렇지만요.....

루크 : 진짜 힘들 때엔 말해라.

티아 : 응.

[메지오라 고원]

루크 : 전에 여기 왔을 땐 살벌한 마물이 있었지.

가이 : 또 마주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나탈리아 : 패시지 링은 어느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온 : 지금까지대로 다아트 식 봉주가 걸린 문이 있을 겁니다. 찾아 보지요.

(내리막길을 가는데.....)

티아 : !! 교관님!

리그렛 : 느리군!

티아 :음.....

리그렛 : 티아. 이 이상 공연한 짓은 그만 뒤. 반 총장께서도 염려하고 계신다.

티아 : 공연한 짓을 하고 계시는 것은 당신들 쪽이세요!

리그렛 : 네 몸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서라도 지킬 가치가 있는 세계 일까?

리그렛 : 호드가 소멸된 진실을 너도 알았겠지.

티아 : 예언에 휘둘리고, 예언을 사리사옥에 의용하는 위정자들..... 분명 오빠 말대로였습니다.

리그렛 : 그렇다면 이쪽으로 와라. 너와 또 한

명, 호드의 생존자는 총장께서도 살려두실 생 각이셔.

가이 : 영광스런 애기다만 송두리째 복제로 바꿔치기 당한 세계 따윈 사양하지.
가이 : 지금 있는 이 대지와 지금 살아있는 인류에 뭐가 불만인데?

리그렛 : 그것으로는 결국, 유리아의 예언이라는 주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지.

리그렛 : 너희들도 조만간에 알 거다. 유리아의 예언이 어디까지도 정확하지만 허다는 것을.

리그렛 : 다소의 왜곡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서 역사는 제 7 보석(謬石)의 예언대로 진행 되겠지.

가이 : !!

티아 : 제 7 보석! 오빠가 제 7 보석을 발견한 건가요?

가이 : 아냐, 티아! 그거다. 그게 제 7 보석이었던 거야!

루크 : 거기 서!

제이드 : 아무래도 싸울 생각으로 왔던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허나, 가이. 당신께서는 어디서 제 7 보석을.....

가이 : 호드. 어릴 적 반에게 이끌려 딱 한번 본 적이 있지.

제이드 : 호드에? 처음 듣는 이야기로군요.

가이 : 반이 그랬었지. 펜데 가문에 전해지는 비밀장소라고. 펜데 가는 유리아를 섬기는 7 현자의 하나로.....

티아 : 유리아와의 사이에 태어났던 아이가 대대로 그녀의 보가와 능력을 수호해 왔다...

나탈리아 : 그러고 보니, 당신은 유리아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티아 : 응..... 오빠는 그렇게 말했어. 증거는 없지만.....

아니스 : 하지만 보가를 부를 수 있는 걸.

가이 : 그래. 거기다 유리아의 자손 정도 되지 않는다면, 제 7 보석을 지키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겠나?

가이 : 제 7 보석은 호드와 함께 지핵으로 사라졌어. 타르타로스 지핵에 파고들 때 봤던 빛이 그거다.

가이 : 그게, 제 7 보석. 틀림없어.

티아 : 제 7 보석이 호드에 있었다면, 호드 소멸과 동시에 떨어져 내려 액상화 된 대지에 삼켜졌다 하더라도 이상할건 없지만.....

루크 : 그럼 선생은, 유리아의 예언이 나타난 미래를 알고 있다는? 설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위험한 일은 아니겠지?

가이 : 어차피 외각 대지는 떨어져. 그렇다면 피해가 나지 않도록 내려보내는 편이 낫다는 건 분명하다.

루크 : 그건 그래. 하지만 기본이 꺼림칙한데. 알 수 없는 부분 투성이니까.....

(애기가 끝나는 참에, 티아는 리그렛이 떨어뜨리고 간 무언가를 발견하고...)
(가던 길로 가서 패시지 링으로 향하자)

이온 : 여기네요.

루크 : 역시 반 선생이 왔던 흔적은 없군. 이온, 부탁한다.

이온 : 예.

(봉인을 풀지만...)

아니스 : !! 이온 님, 정신 차리세요.

이온 : 죄송합니다. 능력은 오리지널과 다를 바 없습니다만 체력이 약화되어서 항상 이렇게 되고 말지요.

나탈리아 : 단순히 병환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셨던 것이시군요.

이온 : 예.....

제이드 : 묘한 기분입니다..... 제가 시작했던 연구가 이런 식으로 확산되고 말다니.

루크 :애쉬는 열받아 있을거라 생각하지 만, 난 진짜 감사하고 있어.
루크 : 제이드가 포미클리를 만들어내지 못했 다면 난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니까.
루크 :실은 태어나선 안 되는 거였지 만.

티아 : 루크!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잖아.

가이 : 진짜 그래. 비굴한 태도 반대한다~.

유우 : 반대예염!

루크 :자, 잘못했어 그래.

<페이스 채트 '리그렛의 마음, 티아의 마음'>

제이드 : 리그렛의 행동은, 우리를 타도하러 왔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루크 : 어. 그런 느낌이었어.

제이드 : 리그렛은 이전, 데오 고개에서도 이 번과 마찬가지로 티아를 꺾어 들이려 왔었습 니다.

제이드 : 아무래도, 그녀는 티아의 몸을 걱정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가이 : 라고는 해도, 저 치들이 하려 하고 있는 것에는 동의 못 하지. 반의 생각은 막가파 이니까.

티아 :

루크 : 티아? 왜 그래? 또 어디 안 좋냐?

티아 : 아, 아니, 미안해. 괜찮아. 잠깐 멍하게 있었을 뿐이야. 빨리 가자.

루크 : 아아.

[메지오라 고원 세피로트 관리시설]

가이 : 오호~. 이런 데에 이런 음기관이 있을 줄은!

루크 : 기빠 보인다, 너.....

가이 : 키크스카에서 살게 된 이래로, 완전히 보엽에 눈을 뜨게 되서 말이다.
가이 : 역시 창세력 시대의 음기관은 잘 만들 어졌다니!

나탈리아 : 남자분들께서는 저런 것을 좋아하 시나 봐요.

아니스 : 우리 아빠두 모형 되게 좋아해. 바보 같이.

가이 : 내비 뒤. 여자는 이해할 수 없을 로망 이니까. 자, 안으로 가 보자!

루크 : 저 녀 그냥, 검 배우지 말고 보엽기사 나 됐더라면 좋았겠다.

<페이스 채트 '제 7 보석의 예언'>

루크 : 제 7 보석엔 어떤 미래가 나와 있을라 나. 선생네 말처럼, 안 좋은 미래가 나와 있는 걸까.....

이온 : 그것만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유 리아와 그녀의 자손이 아니고서는.....

유우 : 유우우우. 티글도 몰라염.

나탈리아 :반은 그 예언을 알고 있기에, 오리지널들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 려 하는 것일려나?

제이드 : 적어도 루크의 출현을 제외한 유리아 의 예언은,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 니다.

제이드 : 혹시 루크 일조차도 제 7 보석에 노 래되어 있다 한다면..... 어쩌면.....

가이 : 우습지도 않군. 어찌 되었건 우리 외각 을 내려서 우리 세계를 지켜야 되는 거 아냐?

제이드 : 가정 차원의 이야기를 한 것 뿐입니 다.

제이드 : 만일 제 7 보석에 루크의 존재가 나

와 있었다면, 반은 오히려 루크를 안 만들지 않았겠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스 : 그건 즉, 루크의 존재는 유리아가 예 언한 적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제이드 :예.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 입니다만.

나탈리아 :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 7 보 석..... 아니, 유리아의 예언이란, 정말로 절대 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군요.

티아 :응? 아..... 그러..... 네.

루크 :티아?

티아 : 괜찮아. 미안. 아무것도 아니니까.....

(조금만 들어가면 엔 자율기계가 얼쩡거리는 것을 보게 된다)

가이 : 어얼! 죽이는데! 기계인형이군!

티아 : 기다려! 뭔가 공격을 해 온다면.....

가이 : 이 녀석은 딱히 전투용인 기계가 아냐. 아마 여기 음기관을 정비하기 위해 있던 거 아니겠냐?

이온 : 그렇다면, 패시지 링의 정비를 그거 행 하고 있단건가?

가이 : 음. 그럴지도 모르겠다. 전 세계의 패 시지 링은 이어져 있으니까.

가이 : 심각하게 고장이 난 경우엔 이 놈이 출 장 나가는 걸지도.

루크 : 그래도 결국 패시지 링은 작살났자나.

가이 : ...
가이 : 뭐, 그럴진 하지.

제이드 : 세피로트의 폭주가 예언에 나와 있었 다면, 여기 기계인형에 그 대처법이 입력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진행하자)

이온 : 패시지 링은 이 아래에 있는 모양이네 요.

제이드 : 승강기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동력이 나가 있군요.

루크 : 진짜야!? 계단이나 그런 건 없고?

아니스 : 보아 하니 없는 것 같은데.....

루크 : 그럼, 가이드나 제이드가 쓱씩.....

제이드 : 미안합니다. 저는 보술이 전문이기에 거절하겠습니다.

루크 : 포미클리 만든 게 당신 아니셔.

제이드 : 이론 만이라면 말입니다. 음기관을 조립했던 것은 디스트입니다.

가이 : ...

나탈리아 : 내키시지 않는 표정이시군요.

가이 : 고치겠다면, 부서진 동력원을 다른 걸 로 갈기만 하면 돼. 그런데.....

티아 : 대신할 동력이 없다는 거구나.

가이 :저 녀석 이외엔 말야.
가이 : 저 녀석의 동력을 뜯어다 여기 조립하 면 돼. 아마, 그거면 대충 움직이겠지.

아니스 : 에엑!? 재한데서 동력원을 뺏으면 재 는 멈춰 버릴 거라구.

가이 : 그렇지 뭐. 하지만 그 외의 방법은 없 어.

유우 : 열심히 일하구 있는데 가엾어염.

제이드 : 별 수 없습니다. 그 외엔 방법이 없 으니 말입니다.

<BOSS - 멘테포니고>

영창도 없이 보술을 연사하는 개념없는 기계

보스. 빔을 발사하는 등 공격기능이 풍부하다 (이게 무슨 수리용이야).

아무튼 '악정속성은 바람과 물. 노멀 기준으로 HP는 허약한 편이나 물리방어와 보술방어가 조금 튼튼하다.

제이드의 세인트 버블이나 썬더 블레이드로 공격한 후, 그 자리에 발생하는 FOF로 변환기 술을 먹여주는 게 정석인 듯 참고로, 지면 이벤트를 거쳐서 유적입구 동굴 을 뺨뺨 돌며 나중에 CPU를 공략하는 전법으 로 다시 싸우게 되는데... 역자는 그냥 잡아버 렸다.

일행 : ...

(기계인형의 동력을 손에 넣는다)

제이드 :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이 :그래.

이온 :루크.

루크 :알고 있어. 가지.

(패시지 링 제어장치 앞까지 가면 이벤트)

제이드 : 티아. 이것을 팔에 차 주십시오.

티아 : 이것은?

제이드 : 혈중 음소의 계속기입니다. 정말로 패시지 링이 원인인지 조사해 보고 싶은 겁니 다.

티아 : 알겠습니다.

제이드 : 그럼, 기동시켜 주십시오.
제이드 : 계속은 자동적으로 행해질 겁니다. 루크에게는 타타르 계곡에서와 마찬가지로 제 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루크 : 알았어.

(장치를 제어한다)

루크 : 끝났는데.

제이드 : 계속도 완료된 모양입니다. 그것을 돌려 주시겠습니까?

제이드 : ...

아니스 : 대령님. 어때요, 장기는요.

제이드 :역시 패시지 링에서부터 이상한 수치의 장기가 티아에게 흘러들고 있습니다.

제이드 : 이걸..... 아마 티아의 유전 정보에 반응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제이드 : 유리아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역시 틀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제이드 : 유리아가 이 장치에, 자신의 정보를 기입해 둔 것이겠지요.

가이 : 제 7 음소는 왜 장치에 오염되어 있는 건데?

제이드 : 장기는 땅 속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 양이니, 어쩌면 지핵이 오염되어 있는 것일지 도 모릅니다.

루크 : 라는 건, 별의 중심이 오염되어 있던 얘기가 되나.

루크 : 중화가 아예 불가능한 거 아냐 저거?

제이드 : 아닙니다, 지핵이 발생원이라면 활로 가 보일 것도 같습니다.

아니스 : 네? 네? 장기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제이드 : 예. 별의 인력을 이용한다면. 단지 그것은 제 전문분야가 아니기에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루크 :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는 거지.

제이드 : 예. 그리고 베르켄드에서는 인력에 대한 연구도 변성하고 있습니다. 제 지식보다 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루크 : 그럼 베르켄드로 돌아가자.

티아 : ... (콜록 콜록)

루크 : 티아, 왜 그래? 또 몸이 안 좋은 건.

티아 :응? 아, 응. 아무것도 아니야. 가

자.

<페이스 채트 '주의가 산만'>

루크 : 진짜 장기 어떻게 할 수 있어? 제이드.

제이드 : 아직 추측의 영역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기대는 하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니스 : 장기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면, 이제 수성총장만 막으면 만사 오케이네요!

제이드 : 그것은 조금 성급한 이야기 같습니다. 아니스.

아니스 : 에헤헤.

루크 : 티아도 약 처방받은 덕택에 몸도 괜찮아 진 거 같고.

티아 :

루크 : 티아?

티아 : 아, 미, 미안해. 응. 몸이라면 이전 괜찮을 것 같아.

아니스 : 웬지 여기 온 뒤로부터 이상하지 않아? 티아.

티아 : 안 그래. 자, 다음 세피로트로 가야지.

루크 : 베르켄드 가는 건데.

티아 : 아, 아참~ 맞아 맞아, 베르켄드. 어서 가자.

[메지오라 고원]

루크 : 어..... 아스톤 씨!?

아스톤 : 루크! 잘 있었나!

루크 : 무사했군요!!

아스톤 : 노인네 군단 중에서 나 혼자만 살아 남고 말았지.....

나탈리아 : 무슨 말씀이신지요! 당신 만이라도 살아 계셨다니..... 다행이에요.....

티아 : 하지만 아스톤 씨께서 왜 여기에.....

아스톤 :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이에몬 놈들이 생각이 나 버려서 말일세.

아스톤 : 그러길래, 알비올 1 호기를..... 아니, 1대 부서졌으니 3호기인가. 아무튼 그것을 만들었지.

아니스 : 그래서, 또 추락했다구요?

아스톤 : 뻑! 시험비행 중에 자네들을 발견해서.....

(그 때 뒤쪽에 누군가가 서 있는것을 발견한다)

스피노자 : 혁.....!

루크 : 다, 당신!

아스톤 : 스, 스피노자!?

아니스 : 또 엿듣기!? 왕재수야!!

아스톤 : 기다리게~!!

루크 : 우리도 따라가자!

<페이스 채트 '안 놀친다!>

제이드 : 나원 참. 이런 데에까지 엿들으러 오시다니, 별난 사람이십니다.

루크 : 이번엔 안 놀쳐! 스피노자!

제이드 :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장기 건으로 협력을 받고 싶으니 말입니다.

아니스 : 어라? 별은 안 주구요?

제이드 : 지난 일을 이러쿵 저러쿵 해 봤자 소용이 없으니 말입니다.

제이드 : 별을 내리는 대신에, 그에게는 일을 실컷 시켜야 합니다. 놀쳐선 안 됩니다.

아니스 : 라져!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지.

루크 : 알았어!

(두 노인을 쫓아가자)

루크 : 아스톤 씨! 스피노자는!?

아스톤 : 하늘을 보라!

루크 : 저건..... 알비올!?

가이 : 아니.....닭긴 했다만 아니군.

아스톤 : 저건 내 3 호기일세.....

나탈리아 : 또 놓치고 말았사와요!

아스톤 : 우웬! 2호기로 녀석을 쫓아야겠네! 어차피 시험 비행용의 연료밖에 살아두지 않았어. 금새 추락할 걸세!

제이드 : 스피노자는 물리학의 제 1인자입니다. 아군으로 끌어들이면, 장기 문제에 도움이 되겠지요.

루크 : 알았어! 알비올로 추적하자!

아스톤 : 나도 데려가 줘야겠네.

(월드맵으로 나가자)

노엘 : 아까의 3 호기를 추적하라는 말씀이신데요. 맡겨 주세요.

루크 : 잘 부탁해!

노엘 : 3 호기 발견! 하지만, 이상한데요.

루크 : 어디가?

노엘 : 연기를 뿜으면서..... 앗!

(쿠광!)

루크 : 살아 있을라나.

아스톤 : 3 호기는 튼튼하네. 추락에 의한 충격으로 인체에 영향이 가지는 않지!

제이드 : 이 근방 마을은 나이 든 사람에게는 무섭습니다. 도시로 도주하겠지요.

루크 : 좋아, 베르켄드로 가자!

<페이스 채트 '스피노자, 용서 못 한다!>

가이 : 스피노자 놈, 겨우 따라잡았다.

나탈리아 : 네. 수고를 들이긴 했지만 이전 놓치지 않겠사와요.

가이 : 그래! 잡아서 콕 그냥!

나탈리아 : 어머니, 가이. 희한하게 노여워 하고 계시는 것이세요? 지금까지의 스피노자의 소행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일이겠...

가이 : 귀중한 알비올 3 호기에 흠집을 냈으니 말야. 부유기관이 얼마나 꿈의 보엽기관인데.

나탈리아 : 거기서 화가 나신 것이셨군요.....

(베르켄드로 쫓아가자)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22)

[음기관도시 베르켄드]

티아 : 저기 있어!

루크 : 가랏! 저 인간한테 겁 좀 줘바!!

유우 : 아, 알겠어영!

(드디어 스피노자를 잡는다)

가이 : 이이크, 당신에겐 이것저것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야. 가만히 계시지.

[베르켄드 지사의 집]

아스톤 : 우리들 이야기를 엿들어서 또 뭘 어떻게 할 셈이었나!!

루크 : 또 반 선생한테 밀고라도 할 셈이었어!?

스피노자 : 아..... 아닐세.....

이온 : 자아, 기다려 주세요. 상대를 두렵게 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온 : 당신께선 뭘 하시러 메지오라 고원에 오셨던 거지요?

스피노자 : 나, 나는..... 모두의 묘라도 돌보고 싶어서 세리던에 갔던 거다. 스피노자 : 그 때 아스톤이 메지오라 고원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일단 아스톤에게 사과를 하려고.....

아스톤 : 그렇다면 무어 도망칠 게 있었나 이 친구아!

스피노자 : 우, 무서웠단 말일세! 막상 그렇게 되니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그래서.....

아니스 : 그런 애긴 못 믿어요! 원래가, 당신이 고자질해서 총장에게 들린 거라구!

스피노자 :분명 나는 두번이나 헨켄네를 배신했네. 스피노자 : 두 사람이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금기에 손을 댔으며, 거기다 돌을 반 님에게 팔아넘겼지.....

스피노자 :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것은 아네. 허나 모두가 죽는 것을 보고 이제서야 깨달았지.

스피노자 : 나의 연구는 동료들을 죽게 만드면서까지 해내야 할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 하고 말일세...

루크 :나, 이 사람이 하는 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티아 : 루크.....

루크 : 나, 액체유스를 소멸시켰던 걸 인정하는 게 괴로웠어.

루크 : 그리고 인정한 다음엔, 뭘 하지 않으면, 속죄하지 않아선 안 된다는 생각만 들더라.....

루크 : 이 사람은 그 때의 나나 마찬가지로.

제이드 : 혹시 당신의 결심이 진짜이사라면 당신께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스피노자 : 뭐, 뭐가?

제이드 : 장기(障氣)의 중화, 아니. 격리(隔離)를 위한 연구입니다.

제이드 : 여기에는 당신이 전문으로 삼고 있는 물리학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니스 : 대령님! 이런 사람을 믿으실려구요!?

제이드 : 인간성은 제쳐두더라도 그의 두뇌는 필요합니다.

스피노자 : 꼭 시켜 주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연구밖에 없어.

티아 :당신은 오빠의 —— 반 밀의 연구자이시잖아요. 그런 것을 하시면 죽게 될지도 몰라요.

스피노자 :그래도 하겠네. 맡겨 주게나.

아스톤 : 이보게, 모두들..... 지금 한번 이 명청이를 믿어줄 수 없겠나?

아니스 : 하지만..... 배신자인데.....

제이드 : 이 분께 24시간 감시를 붙이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그러면서 연구에 합류시키면 되지요.

빌리지언 : 저 혼자 소관으로는.....

나탈리아 :그럼, 제가 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이드 말대로 해 주세요.

빌리지언 : 어명에 따르겠습니다.

스피노자 : 이 연구, 분골쇄신의 각오로 협력하겠다. 정말로 고맙네.....

가이 : 뭐, 저렇게까지 말하고서 또 배반한다
면. 대단한 배우라는 얘기가 되겠지.

제이드 : 제 장기 격리안에 대해서는, 생각나
는대로 쓴 것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제이드 : 검증을 해 보아 주십시오.

빌리지언 : 그러면 스피노자는 제 1 음기관 연
구소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스톤 : 나는 알비올 3 호기를 수리해 돌아가
겠네. 힘내게, 스피노자.

빌리지언 : 그렇지 참. 연구원들이 여러분께
보내는 전언을 알아 두었습니다.
빌리지언 : 또 하나의 세피로트는 다아트 교회
무근에 있다는 듯 합니다.

이온 : 교회에!?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루크 : 거기가 좀 넓잖냐. 일단 가서, 뒤져 볼
까.

.....

아니스 : 어떻게 저리 간단하게 믿을 수 있는
거야? 다들, 바보 같아.....

<페이스 채트 '스피노자의 속죄'>

아니스 : 정말로 저 영감, 관찰을까야.

티아 : 아직도 신경 쓰여?

아니스 : 그야 그렇다구..... 믿을 수 있을 리
없잖아.

이온 : 그의 눈은 진지했어요. 완전히 믿기는
힘들지 몰라도 죄를 갚으려 하는 자세는 인정
해 주어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티아 : 감시도 붙어 있으니, 분명 관찰을거야.

아니스 : 모랄까, 이젠 믿을 수밖에 없잖아.
맡겨 버렸으니.....

이온 : 그럴네요. 지금은 믿어 주세요.

아니스 : 아음~.

[로렐라이 교단 총본산 다아트]

루크 : 교회 안에 패시지 링이 있을라나?

이온 : 모르겠어요. 다만 교회 안에 자레호 화
산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다는 소문이 있지
요.

이온 :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니, 어딘가
로 패시지 링으로 통하는 길이 있을지도 모릅
니다.

티아 : 일단 찾아보자.

[다아트 교회]

루크 : 모스!

모스 : 도사 이온. 돌아오셨습니까.

이온 : 세피로트를 찾으러 왔습니다.

모스 :아아. 유리아 시티에게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모스 : 패시지 링은 저 문을 지나면 있습니다.
한 갈래 길이니 헤메실 일은 없겠지요.

루크 : 반 선생은 어디 갔어.

모스 : 흠. 높은 감시자로서의 직무를 포기하
고, 6 신장과 함께 행방을 감추었네.

티아 : 오라클의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만, 설마.....

모스 : 반 수 이상이 반에게 떠나갔지. 에에
이, 엔장맞을! 덕분에 여기는 오라클 기사단
재편성 문제로 대단히 바쁘다.
모스 : 그래 그래. 패시지 링으로 이어지는 통
로는, 침입자 방지로 비밀통로의 안쪽에 위치
해 있소이다.
모스 :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시오들.

나탈리아 : 어머, 불쾌해라!

가이 : 뭐 내비뉘라. 평화조약 체결 때문에 전
쟁을 일으키기가 힘들어지는 바람에 기분이
나쁜 거 아니겠냐.

아니스 : 방해받지 않을 것만 생각해두 속이
시원해.

이온 : 예. 그는 예언을 준수하고 싶을 뿐입니
다.

이온 : 대륙을 무너뜨리고, 복제의 세계를 만
들려 하는 반과는 목적으로 삼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이온 : 그렇기에, 우리들을 방해할 일도 없애
진 것이겠지요.

루크 : 선생이라..... 선생 어디로 간 거지.....

티아 :설마.

제이드 : 티아, 짚이시는 곳이라도?

티아 :아, 아니요. 특별히는.....

<페이스 채트 '뭔가 기분나빠'>

가이 : 뭔가 기분이 나쁘구만. 방해 안 하는
모스라는 것도.

루크 : 어. 뭔가 속셈이 있을 것 같은 게 재수
없어.

제이드 : 뭐, 이온 님의 말씀대로 그의 목적은
예언을 지키는 것이니. 지금의 우리들에게 적
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지요.

루크 : 그렇담, 통로 위치나 자세하게 말해주
고 갈 것이지.

가이 : 뭐어 저 아저씨의 소박한 저항 아니겠
냐.

루크 : 체엣. 귀찮게스리 말야.

(모스가 가리켰던 문으로 들어가 계속 나아가
자)

루크 : 이 방에, 패시지 링으로 통하는 비밀통
로가 있다고?

티아 : 글썸..... 한 갈래 길이라 했으니 여길
찾아보자.

(찾는 도중)

아니스 : 아우 넘어졌어~!

(드르르)

아니스 : 어, 어라야?

이온 : 이런 곳에 비밀통로가 있었다니.....

가이 : 그래도 모스는 여길 아는데 왜 이온은
모르냐?

이온 : 아마 오리지널 도사는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루크 : 좋아, 가 보자.

.....

아니스 : 앗, 이 보진(講陣)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제이드 : 아니스, 잠시.

아니스 : 왜, 왜 그러세요요. 대령님.

제이드 : 당신은 여기를 알고 계셨지요?

이온 : 진짜이세요?

아니스 : 몰라요! 전혀 몰랐답니다. 그보다 빨
리 가자구요! 자! 어서 어서!

루크 : 거짓부렁.....

제이드 :뭐 관찰했지요.

[자레호 화산]

가이 : 여긴..... 무슨 연구라도 하고 있는 모
양이다만.

이온 : 모스의 것일까요. 이런 곳에서 무엇
을.....

아니스 : 그보다 패시지 링은 어디일까요!

제이스 :아니스. 너무 수상하면, 끼어들
어 캐논고 싶어지게 됩니다.

아니스 :음.....

티아 : 여기 안쪽일까.

루크 : 가 보자.

(화산 안을 진행해 나가면 세피로트 관리시설
이 나온다)

루크 : 그럼 이온. 여기 부락할게.

이온 : 예.

아니스 : 이온 님, 문을 여실 때마다 쓰러지시
네요.

이온 : 미안합니다.

아니스 : 상관은 없지만, 너무 걱정돼요.....

루크 : 미안하다, 이온.

이온 : 아니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자레호 화산 세피로트 관리시설]

티아 : 역시 유적 안에서도 더운 걸.

루크 : 야 이온, 괜찮냐?

이온 : 예..... 고맙습니다.

아니스 : 저기 저기. 이런 데 빨리 끝내 버려
요!

제이드 : . . .

아니스 : 왜, 왜 그러세요 대령님. 제가 그렇
게 귀여우세요?

제이드 : 이런 이런. 뭐 좋습니다. 이런 곳에
오래 있을 이유는 없으니 말입니다.

루크 : 그러게. 할 일은 빨리 끝내 버리자.

(춧대에 불을 붙여가며 진행하면 된다. 발판이
모자랄 때는 햄머 캐논이라는 기계 적을 쓰러
뜨려서...)

[자레호 화산 패시지 링 관리장치]

루크 : 몸 괜찮어?

티아 :응. 약이 들고 있으니깐 괜찮아.
그보다 조작반을.

루크 : 응. 알고 있어.

.....

루크 : 끝났어.

가이 : 다음은 로블 설산(雪山)이냐?

제이드 :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 전에 일단 베
르켄드로 돌아가서 스피노자에게 부탁했던 검
증을 확인하십시오.
제이드 : 거기에 따라, 장기의 처리에 대한 담
이 나올 겁니다.

아니스 : 그, 그래요. 빨리 여기서 나가요~!

제이드 : 이런 이런. 아니스는 마지막까지 수
상했습니다 그려.

(베르켄드 음기관 연구소로 가자)

<페이스 채트 '아니스, 어지러운 마음!?'>

아니스 : 괴상한 게 잔뜩 있네요~.

제이드 : 이것 참. 이상한 것은 당신이십니다,
아니스.

아니스 : 우웅.....

제이드 : 너무 수상하게 구시면, 정말로 자세

한 이야기를 캐물어 버릴 겁니다.

아니스 : 수, 수상같은 건 한 적 없는걸요.

제이드 :뭐어, 괜찮겠지요. 이야기 하실 생각이 나시면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니스 : 숨기고 있는 건 분명 체중 만일 거예요!
아니스 : 이 아니스는 엄청 탄력있는 유리, 어떤 의미로 개방적인 인생의 모퉁이를 힘껏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아니스 : 아마도 확정적으로 숨기는 건 없나니깐요!

제이드 : 후우, 이런 이런.....

<페이스 채트 '너무 순조로워서... '>

나탈리아 : 여기까지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사와요.

티아 : 오빠가 너무나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불안해.....

이온 : 반과 달리 우리 쪽에는 알비온이 있기에, 움직임을 따라다닐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제이드 : 지금까지의 그란츠 요장의 활동을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 낙관적인 견해이겠지요.

나탈리아 : 그것은, 이제부터라도 그의 방해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지요?

제이드 : 6 신장조차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부터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티아 : 다음 세피로트..... 로널 설산에서는 그들이 방해해 해 오리라는?

제이드 :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우로 끝난다면 좋겠습니다만.

티아 : 다음 세피로트..... 로널 설산에서는 그들이 방해해 해 오리라는?

제이드 :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우로 끝난다면 좋겠습니다만.

<페이스 채트 '공포, 디스트의 저주!?'>

루크 : 다아트의 패시지 링은 비교적 편했지. 가끔은 이런 것도 좋은데.

아니스 : 그치만 나중에 편했던 대가가 팍 돌아올지두.

루크 : 대가라니 무슨.

아니스 : 으~응. 루크 배의 복근에 얼굴이 나타난단거야.

루크 :바보냐.

아니스 : 혹시 모르는 걸. 루크가 태어난 기술은, 무려 저 대령님이 만든 거란 말이야.

루크 :그그만해. 이상한 소리하지 마.

아니스 : 어쩔 거야? 배에 디스트 얼굴이라도 나타난다면.....

루크 : 그, 그건 엄청 무서운데.

제이드 : 그렇게 된다면, 당신과는 평생 이 야기를 하지 않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

루크 :야 저기, 제이드랑 디스트 사이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거야? 그냥 어릴 적 친구치고는.....

아니스 : 응~, 피오니 페하랑은 의외로 사이 좋은 것 같았는데 말이지~?

루크 : 네비림 선생과 관계 있을라나.....

아니스 : 뭐라고 했어?

루크 : 아, 암것도 아냐..... 하하.....

[베르켄드 제 1 음기관 연구소]

스피노자 : 과연 발포아 박사다. 그거라면 제대로 될지도 모르네.

루크 : 그렇다는 건 장기를 중화시킬 수 있다

는 거지!

제이드 : 아니오, 중화가 아니라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일행 : ??

가이 : 무슨 뜻이야?

제이드 : 외각 대지와 마계 사이에는 '디바이딩 라인' 이라는 역장(力場)이 존재합니다. 맞지요, 티아.

티아 : 네, 네에. 세피로트 트리에 의한 부력(浮力) 발생지대예요. 그 부력으로 외각 대지는 떠 있는 것이고요.

스피노자 : 정확히는 디바이딩 라인의 부력이, 별의 인력과 균형을 이루고 있기에 외각 대지가 제자리에 떠 있는 것일세.

제이드 : 외각 대지가 강화된다는 것은 인력과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이드 : 강하가 시작되면, 디바이딩 라인이 아래쪽 방향을 향한 압력을 넣습니다.

제이드 : 그것이 막이 되어 장기를 덮어서 대지의 아래 —— 즉 지하쪽으로 밀어 되돌릴 겁니다.

루크 : 그래도 그것만이라면 장기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또 발생하거나 하진 않아?

제이드 : 장기가 지핵에서 발생되고 있다면 마계에 장기가 넘치고 있는 것은 세피로트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제이드 : 외각을 강화시킨 뒤, 패시지 링을 모두 정지시킨다면.....

가이 : 세피로트가 닫혀서 장기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되겠군.

나탈리아 : 지핵의 진동이 정지되어 있기에 역상화된 대지는 급속히 굳어지기 시작하고 있사와요.

나탈리아 : 그렇기에 세피로트를 닫더라도 대지가 삼켜질 일은 없을 터이지요.

루크 : 죽이는데, 그거!

스피노자 : 그것을 생각해 낸 게 물리학 전문인 내가 아니라 자네라니, 과연 대단하군.

제이드 : 그렇다고는 해도, 전문가에게 검증받지 않는다면 확증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스 : 이제 다음은 로널 설산의 세피로트를 어떻게 하는 것만 남았네요.

나탈리아 : 출발 전에 숙소에서 조금 쉬고 가시지들 않으시겠어요.

루크 : 그럼 그 사이 티아 넌 여기서 한번 더 약을 처방해 받게 되겠다.

티아 :아, 응. 맞아. 그렇게 할게.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먼저들 가서 쉬고 있어 줘.

루크 : 그럼, 내일 여관 앞에서 집합이다!

(베르켄드 시내의 숙소로 가자)

<페이스 채트 '티아 몸이 걱정... '>

루크 :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될 것 같긴 해도, 역시 티아 몸이 걱정인데.

가이 : 그러게 말이다. 그 애 일이니 지금도 꽤나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유우 : 걱정돼영.....

루크 : 실은 이 이상 무리시키고 싶진 않지만.....

가이 : 개에게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루크 : 화를 내겠지.

유우 : 유우.....

루크 : 패시지 링 작업이 끝나면, 티아 몸을 완전히 낫게 할 방법을 찾자.

가이 : 어. 그래야겠다.

(자고 있는 루크를 아니스가 깨운다)

아니스 : 루크, 일어나라니깐!

루크 :우음원데.....

아니스 : 티아가 사라졌어!

루크 : 뭐어!?

가이 : 연구소 사람들 말에 따르면 포미닌 채취대와 함께 항구 쪽으로 갔다는 듯 싶더군.

나탈리아 : 스피노자를 찾아온 애쉬도 같이 갔다는 듯 하합니다.

루크 : 애쉬까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나탈리아 : 그리고, 그녀 방에 이게 놓여 있었어요.

루크 : 이건?

제이드 : 와이온 거울동굴에서 켈 수 있는 광석입니다.

루크 : 라는 건, 티아는 와이온 거울동굴로 뭔가 하러 갔다는 뜻야?

가이 : 그렇게 돼. 어쩔거냐?

루크 : 따라가야지. 원 당연한 소릴.

가이 : 좋아 가자.

<페이스 채트 '티아의 행방'>

루크 : 티아 개, 어떻게 된 거야?

나탈리아 : 애쉬도 같이 갔다는 것 같사옵니다.

가이 : 그리고 보니 메지오라 고원 아래로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더구만.

나탈리아 : 그럴사와요. 리그렛과 만나고 나서부터, 약간 멍하니 있는 시간이 생겼었지요.

제이드 : 아무튼, 티아와 애쉬가 갔다, 라는 겁니까.....

루크 : 와이온 거울동굴에 뭐가 있다고.

가이 : 지금까지의 그 애를 보아 하면, 이런 충동적인 행동을 취할 때엔 언제나.....

루크 : 엇! 반 선생인가!

제이드 : 서두르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려.

(이전 애쉬와 갔었던 와이온 거울동굴로 가자)

[와이온 거울동굴]

오라클 병사 1 : 웬 놈이냐!

오라클 병사 2 : 애쉬 향사(嚮師)..... 아니, 복제인가!

리그렛 : 멈춰라! 반 총장께서 통행시키라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상관 말고 작업으로 복귀하라.

병사들 : 엇!

루크 :어떻게 된 거야?

리그렛 : 말 대로야. 티아들을 찾고 있는 거겠지. 여기서는 못본 척 해 줄테니 나아가도록.

가이 : 쉽사리 통과시켜 줄 줄은 말이지.

리그렛 : 반 총장각하의 의지를 존중한 것 뿐이다.

리그렛 : 어차피 너희들은 로널 설산으로 향하게 될 터. 그 때에 결판을 내마.

나탈리아 : 티아네가 걱정이 되어요. 서두르지요.

<페이스 채트 '오라클은 무엇을.....?'>

아니스 : 오라클이 이런 데에 있었네요.

이온 : 철수하는 중인 것 같았는데.....

가이 : 필요한 걸 챙겨서 다른 곳으로 가는 모양이지.

아니스 : 쫓아가는 게 좋지 않겠어?

이온 : 아니오, 지금은 티아가 걱정입니다. 리그렛 말 대로라면 반도 안에 있는 듯 하고요.

가이 : 그래. 서두르자.

(조금만 진행하면...)

나탈리아 : 여기는, 그 때.....

나탈리아 : (애쉬.....)

가이 : 뭐하냐? 나탈리아.

나탈리아 :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깽!?

루크 : 괜찮아?

나탈리아 : 아.....

루크 : 너, 외외로 덜렁이라니까.

나탈리아 : . . .

루크 : 응? 왜?

나탈리아 :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어요. 고마워요 루크.

루크 : 아니 뭐, 괜찮어.

나탈리아 : 자, 서두르시와요.

(더 들어가면 반과 애쉬가 싸우고 있다)

티아 : 오빠, 그만 해!

나탈리아 : 애쉬!?

반 :데리러 온 모양이다. 이만 가거라. 애쉬 너도다.

티아 : 오빠! 이대로 계속하면 오빠 몸도 장기로 영망이 될 거란 말이야!

반 : 사소한 일이다. 나는 인류가 유리아의 예언에서 해방되어 살아남게 할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이지.

루크 : 선생들은, 이런 데서 뭘.....

애쉬 : 이 자식들 베르켄드를 포기하고 새로운 포미클리 연구시설로 이동할 셈이야.

루크 : 선생! 왜 복제 세계에 집착하는 겁니까!

제이드 : 포미클리는 많은 양의 제 7 음소를 소비합니다.
제이드 : 이 별 전체를 복제화 시키려면 온 세계의 제 7 음소를 긁어모아도 부족할 터입니다만.

애쉬 : 높은 지핵의 막대한 제 7 음소를, 로렐라이를 이용할 생각인 거다.

반 : 지핵의 진동이 격렬해지면 플래닛 스톤이 강해지며 제 7 음소의 공급량도 늘어난다.
반 : 너희들이 그것을 멈춰 버렸다만.

가이 : 그래서 지핵이 정지하는 걸 꺼려했나.....

제이드 : 포미클리는 불안정합니다. 실패하면, 바로 소멸될 것이나 마찬가지로인 복제가 탄생합니다.

반 : 그것은 제 7 음소가 복제에게서 떠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반 : 그 괴리(乖離)를 막으면 복제는 사라지지 않아.

제이드 : 우리입니다. 원래가 음소는 같은 속성끼리 끌어들이니까.
제이드 : 제 7 음소도 마찬가지이지. 물질에서 떨어져 플래닛 스톤으로 되돌아 갈 겁니다.

티아 : 제 7 음소의 집합체인 로렐라이를 소멸 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면 남은 제 7 음소가 사라질 테니까.

루크 : 끌어당길 제 7 음소가 없으니 떠나지도

않는다..... 라는 건가.

반 : 예언은 제 7 음소가 없으면 읽을 수 없다.
반 : 세계에서 예언은 사라지고 복제도 소멸되지 않겠지. 일석이조가 아닌가.

티아 : 오빠는 그것을 위해 루크를 이용할 생각이야.

반 : 그것은 미완성으로는 무리다. 애쉬가 아니고서는 안 돼.

애쉬 :

오라클 병사 : 총장각하. 자료의 적재가 완료되었습니다.

반 : 내게는 네가 필요하다. 업서브 게이트에서 너를 기다리마.

티아 : 오빠, 기다려!

반 :너와는 싸우고 싶지 않았다. 아쉽다. 메쉬티아리카.

애쉬 : 제길! 놓칠까 보냐!

나탈리아 : 무리이어요!

(애쉬는 두 복제 티글 중의 하나가 사라져 있는 것을 보고.....)

애쉬 : (.....역시 없어져 있나)

나탈리아 : 어디를 가시는 것이신가요!

애쉬 : 내게는..... 시간이 없다.

.....

이온 : 우리들도 일단 마을로 돌아가지요.

제이드 : 예. 여기서부터라면 세리던이 가깝습니다.

유우 : 저 애도 제리고 가 봤으면 좋겠어염.

아니스 : 아 그렇지. 여기 아무도 안 오게 될 테니까.....

루크 : 알았어. 데리고 나가자.

(자동으로 세리던으로 간다)

[기술자의 마을 세리던]

아스톤 : 오오, 너희들이냐.

제이드 : 마침 잘 됐습니다. 집회소를 빌리고 싶습니다만. 이후에 대한 회의를 하려 합니다.

아스톤 : 마음대로 쓰시게. 이에몬네도 자네들이 온 걸 알고 저기서 기뻐하고 있을거라 생각하네.

(집회소로 가자)

루크 : 티아, 이유 좀 말해 주라.

티아 :미안해. 내 몸에 장기가 모여 있다면 패시지 링을 쓰고 있던 오빠도 같을 거라 생각했어.

루크 : 그래서 걱정이 되었던 거야?

티아 : 걱정..... 맞아. 그랬던 것일지도 몰라.
티아 : 리그렛 교관님께서 와이온 거울통굴의 광석을 두고 가신 것을 보고 날 부르고 있다 생각했어.
티아 : 그래서 한번만 더, 혼자서 오빠를 설득해 보자고 마음먹었지.

가이 : 역시 남매인 거구만.

티아 :하지만, 그것도 이젠 끝.
티아 :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어. 오빠가 저런 바보같은 짓을 그만 뒤 주진 않을까 하고.
티아 : 하지만..... 이미 나랑 오빠는 나아갈 길이 갈리고 말았어.

루크 : 괜찮겠냐? 반 선생과 싸우게 되어도.

티아 :잊었어? 난 그것을 위해 외각에 왔었던 거야. 이젠 망설이지 않을래.

제이드 :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괜찮겠지

요. 그럼 다음 패시지 링으로 향해야겠습니다.

아니스 : 다음이라면 로널 설산이었죠? 살벌한 마을이 잔뜩 있다는요.

나탈리아 :리그렛 일당도 거기에 매복하고 있을 터이지요.

티아 :교관님.....

이온 : 위험한 장소입니다만 거기에는 분명히 패시지 링이 있습니다.

루크 :티아 너도, 괜찮겠지?

티아 :응. 물론이야.

루크 : 좋아, 그럼 로널 설산으로 가자.

제이드 : 가능하다면 한 번 케텔부르크에서 휴식을 취하시기를 받으시겠습니까?
제이드 : 네프리에게 요즘 로널 설산이 어떤지 물어두기로 하십시오.

루크 : 알았어.

<페이스 채트 '오빠와의 결별'>

아니스 : 역시 티아, 수석총장이랑 싸우는 데 주저가 있었구나.

가이 : 어쩔 수 없지. 단 하나 남은 육친이니까.

루크 : 그래. 주저 안 하는 쪽이 이상해.

아니스 : 육친이랑 싸우다니 난 그런 거 못 할 거 같아.....

가이 : 진짜 그렇지..... 티아, 상당히 괴로운 결심을 한 거라 생각한다.

루크 : 대지를 내려 보내는 걸로 생명을 짊어고, 반 선생이나 리그렛과 싸우는 것에 마음이 짊어고 있는 거야.....

이온 : 그녀에게는 힘든 일만 떠넘기게 되는군요.....

루크 : 그래도, 관둘 수는 없어! 올드란트에 사는 사람 모두를 위해.....

아니스 : 루크.....

루크 :로널 설산 가자. 거기서 6 신장이랑 결판을 내야지.

(집회소를 나온 후, 구출해 온 티글은 아스톤이 맡기로 한다. 케텔부르크로 가자)

<페이스 채트 '6 신장의 본 모습'>

나탈리아 : 우리들, 6 신장에 대해 잘 모르지요. 몇 번이나 만났었는데도 불구하고.....

루크 : 이야기를 할 상황이 별로 없었으니 말야. 티아라면 좀 알고 있던 하겠는데.....

가이 : 지금의 개한테 묻는다는 건 심한 짓 아니겠냐.

이온 : 저라도 좋으시다면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단지, 그들의 과거는 잘 모르지만요.....

루크 : 아아, 다음에 붙게 될 건 리그렛이겠지.

이온 : 그녀는 반의 부관이자, 티아의 교관이지요.
이온 : 티아를 위해 유리아 시티까지, 그녀를 지도하러 다니고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이온 : 임무에는 엄격하지만, 평소에는 정말로 자상한 사람..... 이었어요.

나탈리아 :하지만 그녀는, 세리던 사람들을.....!

이온 : 예, 그녀도, 같이 오라클 기사단에 있었던 동생으로 잃었다 들었습니다.
이온 : 소중한 사람을 잃는 슬픔은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나탈리아 : 티아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저는 그녀를 평생 용서하기 힘들 것 같사워요.

이온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감
이예요.....

<페이스 채트 '반의 목적'>

제이드 : 반..... 그의 생각은 일견 비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모두 맞아
떨어집니다.

루크 : 로렐라이의 제 7 음소를 소멸시키는 것
으로 복제도 사라지지 않고 예언도 알 수 없
게 된다.....

나탈리아 :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이어요.

제이드 : 어처구니 없습디만, 그는 실행할
겁니다.

나탈리아 : 애쉬가 반에게 협력을 할 리가 없
사와요!

제이드 : 애쉬가 협력을 하지 않더라도, 반은
그 힘을 쓰게 만들 수 있을 지 모릅니다. 루크
때와 마찬가지로.....

나탈리아 : 그, 그건.....

제이드 : 어쨌든, 지금은 반 보다 대지 강하
(降下)작업을 우선해야 하겠습니까. 반이 있는
곳은 알았으니 말입니다.

루크 : 제이드 말대로야. 선생을 막기 위해,
우린 업서브 게이트에 가기 전 로날 설산에서
패시지 링을 조작해야 돼.

나탈리아 : 그럴네요..... 알겠사옵니다.

[은세계 케텔부르크, 지사관]

네프리 : 오빠! 마침 잘 왔어!

제이드 : 왜 그러지요?

네프리 : 사피르가 마을 광장에서 쓰러져 있었
어.

루크 : 사피르?

제이드 : 디스트의 본명입니다.

아니스 : 앵!? 왜 디스트가 이 동네에 고꾸라
져 있는데!?

네프리 : 오빠, 사피르랑 약속 하지 않았어?
네프리 : 열이 올라 「제이드는 아직 안 오나」
같은 소리를 계속 하던데.

가이 :분명, 비행보석 찾으러 갔을 때 농
에게서 편지를 받았었지.

나탈리아 : 어머니, 성실하게 제이드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군요.

제이드 : 워어, 그 자도 바보이니깐요.

제이드 : 허나 잘 됐습니다. 두들겨 깨워서 로
날 설산에 대해 묻도록 하십시오. 녀석은 어디
있지요?

네프리 : 호텔에 방을 잡아 거기에 재워 뒀어.

제이드 : 그럼 헌병을 불러 호텔로 동원시켜
주십시오.

네프리 :채포하려는 거구나. 알았어. 하지
만 너무 거칠게 대하지는 말아 줘.

제이드 : 예 예. 그럼 루크. 호텔로 갑시다.

루크 :어, 응.

(케텔부르크 호텔로 가자)

<페이스 채트 '세계가 달라지는 때'>

루크 : 이제 곧 세계가 변하겠지.

제이드 : 사람들이 금방 받아들여 줄 지 어떨
지..... 그것이 염려되는 바입니다.

유우 : 유우도 조금 무서워염.

나탈리아 : 모든 외각대지가 강하되고, 장기가
사라진 다음에도 지금까지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

나탈리아 : 우리들도 알 수 없는 일이니 말이

어요.

루크 : 역시, 혼란스러워질지도. 다들.....

유우 : 숲의 모두도 깜짝 놀랄지 몰라염.....

나탈리아 :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캄라스카,
마르쿠트의 두 분 폐하께서 해내실 일이랍니
다.

나탈리아 : 그것을 위한 왕가이며, 국가인 것
이니깐요.
나탈리아 : 유우네 친구들은..... 유우에게 말
기는 게 좋겠어요. 유우, 할 수 있지요?

유우 : 열심히 할게염!

제이드 :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다하
도록 하십시오.

루크 : 어. 그래.

(호텔로 가자)

디스트 : 제이드..... 기다려..... 음냐.....

아니스 :대령님이랑 꿈 속에서 슬래잡기
하나 봐.

제이드 : 그럼, 그에게서 잠깐 로날 설산에 대
해 물기로 하지요. 여러분께서는 잠시 나가 계
십시오.

.....

제이드 :

디스트 :고약~~~~~!!!!!!!

일행 : !!

디스트 : 그, 그만 해! 하지 마, 죽어~~!!!!

일행 : ::

디스트 : 제이드 내가 잘못했다~~~~~!!!!!!!

일행 : . . .

제이드 : 지인의 영향으로 눈사태가 빈번해졌
다는 모양입니다.

제이드 : 그리고, 안 쪽에 상당히 강한 마물이
들어왔다는 것 같습니다.

제이드 : 마물들이 흥폭해진 것은 그 영향이라
생각해도 틀리지 않겠지요.

루크 : 으, 응. 그건 알겠는데 방금 비명
은.....

제이드 : 아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슬
슬 가시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루크 : 어, 응.....

<페이스 채트 '제이드와 디스트'>

가이 : 제이드는 디스트한테 진짜 쌀쌀맞구만.

아니스 :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
만.

가이 : 저 둘, 어릴 적 친구라며?

아니스 : 그런 것 같아~. 네프리 씨도 디스트
한테 상냥했고, 마을 모두한테는 호의를 받고
있는 것 같구.

아니스 : 디스트도 어릴 적에는 귀여운 사람이
였을지도~.

티아 : 대령님이 디스트에게 대하는 저 태도
는 썩스러움을 감추기 위한 것이실까.

가이 : 으하하. 진짜 그런 거 야냐. 반한 상대
를 거꾸로 못살게 굴고 싶어지는 그런 거.

아니스 : 후후후후. 대령님도 애교 있는 녀석
이구먼~.

제이드 : 후호. 아주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
들을 하시며 놓고 계십니다 그려. 그렇군, 애
교 있는 녀석이라 하셨습니다.

아니스 : 하우왓!!

(호텔 밖으로 나오면 제국 헌병이 경례를 붙인
다)

제이드 : 아아, 수고가 많군. 6 신장 디스트는
안에 있다. 즉시 연행하게.

헌병 : 엷새!

제이드 : 다소는 밝아 났지만 방심은 하지 말
도록.

헌병 : 명심하겠습니다!

제이드 : 자. 이것으로 로날 설산에 가게 됐습
니다.

루크 :여기저기서 공포의 대상으로 불리
는 이유를 알 것 같다.

(로날 설산은 케텔부르크 북쪽 출구로 나가서
서쪽으로 걸어가면 나온다)

<페이스 채트 '로날 설산으로'>

아니스 : 로날 설산에 아리에타도 올까.....

제이드 : 그렇습니다. 이대로 우리들에게 계속
강화작업을 하게 놓아 뒀다면,
제이드 : 이번에 전 병력으로 쳐들어 온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티아 : 라르고도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세
요?

제이드 : 가능성으로는.....

유우 : 유우우우우. 저는 그 덩치 큰 사람 무
서워염.

티아 : 걱정 마 유우. 우리가 지켜줄께.

제이드 : 거기다 유우에게는 여러가지로 큰 활
약을 하게 만들 예정이니 말입니다.

유우 : 유?

제이드 : 조난 당했을 때의 비상식량이라던
가.....

유우 : 유 유우우우우우~~~~~!?

티아 : 유우! 꽤, 괜찮아!

.....

아니스 : 대령님, 농담의 영역을 초월한 조크
라구요 그거.

제이드 : 하하, 진심이었습니다만.

티아 :

아니스 :개념없다, 이 아자씨.

[로날 설산]

이온 : 이전 6 신장에 여기 왔을 때엔 마을 뿐
아니라, 눈사태로 인해 수많은 오라클 병사들
이 희생되었다는 것 같아요.

가이 : 눈사태는 피할 도리가 없으니 말야.

제이드 :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도
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눈길을 조금만 올라가면...)

루크 : 바람 소리인가.....?

티아 : 마치 여자가 울고 있는 소리 같아.....

아니스 : 웬지 무서워어.....

가이 : 왜 그래 제이드. 설마 당신도 무서워?

제이드 : 아니오..... 옛날 일이 생각 난 것 뿐
입니다.

나탈리아 : 옛날 일?

제이드 : 후후, 이 산에서 죽은 여성의 망령
이야기입니다. 들으시겠습니까?

나탈리아 : 어머니. 저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티아 : 바, 바보 같아요! 어서 가자구요!

루크 : 열래? 너어.....

티아 : 전혀 안 무서워. 그러니까 어서 가자.

일행 : (웃는다)

(술술 제이드 레벨이 50이 되었다면 페이스 채트가 있다)

<페이스 채트 '제이드, 완전부활!>

제이드 :오호.....

나탈리아 : 어머니, 무슨 일이신지요? 상당히 상쾌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걸요.

제이드 : 이런, 저는 언제나 상쾌한 사람입니다만?

가이 : 잘도 말한다.....

아니스 : 자 자. 그래서, 대령님? 왜 그러시는 데요?

제이드 : 아니오. 봉인술(안티 폰슬롯)이..... 완전히 해제된 모양입니다.

티아 : 정말이세요! 대령님!

제이드 : 예. 이것으로 봉인되어있던 술법도 금방 쓸 수 있게 되겠지요.

루크 : 엄청 오래 걸렸구만.

티아 : 어쩔수 없어. 원래가 봉인술을 스스로 해제시킬 수 있는 인간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 본 적이 없는 걸.

루크 : 라는 건, 폰 것만 해도 굉장하단 얘기가.

제이드 : 그렇다고는 해도, 당신들께 따라잡힐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게 될 줄은. 제 일입니다만 한심합니다 그러.

루크 : 웬지 바보 취급하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뭐 어때. 암튼 축하할게!

제이드 : 이거 감사합니다. 이금까지 페를 끼쳤습니다만, 이후로는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페이스 채트 '눈사태 주의'>

나탈리아 : 까악! 아야야..... 이 근처 미끄럽사와요.

티아 : 나탈리아 괜찮아? 조심하지 않..... 짝!

아니스 : 둘 다 덜렁이네. 나처럼 활기치게 정신차리고 걸으..... 우양! 말두 안 돼~.

제이드 : 세 분 모두, 너무 큰 소리를 지르시면 눈사태가 일어납니다. 조심하시는 편이 좋..... 어이쿠우!

루크 : 우왁! 제이드! 내 옷 잡지 마! 우가야 아악!

제이드 :허허 루크.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넘어지시다니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만.

티아 & 아니스 & 나탈리아 : ::

<페이스 채트 '눈덮인 산은 추워요'>

루크 : 야, 티아. 너 괜찮어? 얼굴이 안 좋은데.

티아 :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

가이 : 이렇게 오래 눈 맞고 있으면 나빠지기도 하겠지.

티아 : 아니, 난 정말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가이 : 말은 그렇게 해도.....

티아 : 정말로 괜찮아.

루크 : 맞아. 아니스, 싸울 때처럼 인형을 크게 키워서, 티아 좀 감싸주면 안 되냐?

티아 : 응!?

아니스 : 내 인형으루? 괜찮긴 한데, 티아가 창피하지 않을까?

티아 : 나, 난.....

루크 : 음~, 그런가, 역시 쪽팔리겠지.

가이 : 티아한테도 프라이드란 게 있을테니 말이다.

아니스 : 난 상관 없는데 말이야.

루크 : 맞아. 제이드 보술(諸術)로 따뜻하게 해달라고 하자.....

.....

티아 : (중얼)인형..... 난 괜찮았는데...

<페이스 채트 '입구는 하나'>

루크 : 야 이온, 세피로트를 지키는 유적이란 거, 이온 너 밖에 못 여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 맞지?

이온 : 예. 다아트 식 봉주(封呪)가 걸린 문은, 현 도사인 저 외에는 열 수 없으니까요.

루크 : 아까 바위 틈새로 웬 유적 비슷한 데에 들어갔었는데. 그건 세피로트 지키는 유적이 아니었냐?

이온 : 그렇군요. 같은 유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온 : 지형 변화에 의해, 문 외의 장소를 통해 유적과 외부가 연결되어 버린 것이겠지요.

루크 : 그럼 이온 니가 고생하면서 그 어쩌고 식 하는 문을 열 필요도 없는 거 아냐?

이온 : 신경 써 주시는 거군요. 고맙습니다. 이온 : 그래도, 패시지 링이 있는 방은 정말 견고해서, 그 문으로밖에 들어 갈 수 없답니다.

루크 :그런가.

(진행하다 보면 바람 소리에 섞여 웬 여자 목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루크 :또냐. 뭔가 나도 으스스해지기 시작했어.

티아 :이상해. 방금 건..... 분명.....

제이드 : —— 예.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들 외에도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온 : 6 신장일까요?

티아 :아마, 틀림 없을거라 생각해요.

루크 : 좋아, 정신 바짝 차리고 가지.

(이렇게 힌트도 나왔으니 앞쪽의 기억진에서 세이브를 하고 진행하자)

루크 : 나타났군!

나탈리아 : 까악!?

아리에타 : 이온 님..... 방해하지 마세요.

이온 : 아리에타..... 저는.....

아니스 : 이온 님! 아리에타 같은 애랑 얘기하실 것 없어요!

이온 : 아니스.....

아니스 : 몰라도 될 일이 세상에는 있으니까.

리그렛 : 티아. 이 이상 자신을 희생 마라. 그렇게까지 해낼 가치가 있는 일이야?

티아 : 교관님. 저는 오빠의 극론에는 따라갈 수 없어요.

티아 :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자신이 안타깝지만, 막으려고 하시지 않는 당신도..... 경멸하겠습니다.

리그렛 :그렇다면, 이젠 나도 용서 않겠다. 각하의 적은 성멸시킬 뿐!

라르고 : 공주님께서서는 성에서 양전하게 계시는 게 어머신가.

나탈리아 : 나를 모욕하지 마시오. 나에게는 아버지 대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의미가 있습니다.

라르고 :아버지라. 어차피 모두 양립할 수 없다면 힘으로 막을 수 밖에 없겠군!

<BOSS - 라르고, 아리에타, 리그렛>

6 신장이 셋. 밸런스 상 각자의 능력이 조금씩 조정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어렵다. 라르고가 근접전, 아리에타는 뒤에서 보술 공격, 리그렛은 보일총과 보술로 공격해 온다. 맷집이 가장 약한 아리에타부터 플레이어가 직접 노리는 게 좋지만, 너무 급하게 뛰어들면 라르고에게 두들겨 맞는다. 동료들과의 연계로 라르고와 리그렛을 떼어놓은 뒤 아리에타를 공격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HP 관리는 중요. 어설픈게 아무나 때리다가 오의 등이 여기저기서 터지면 뒷감당 안되니 알아서 잘 싸우도록.

(싸우고 있는데 산이 흔들린다)

제이드 : 아뽀! 지금 전투 때문에 눈사태가.....!

티아 : 보가(講歌)를.....!

루크 : 안 돼! 늦었어!

.....

제이드 : 루크! 정신 차리십시오!

루크 : 살아난 거야.....?

가이 : 우리가 있던 곳엔 마침 아래에 발판이 있었지. 그걸로 간신히.....

루크 : 그렇다는 건, 6 신장 세 명은.....

아니스 : 아리에타네는 계곡으로 떨어진 것 같아.....

티아 :괜찮아. 어차피 교관님은 쓰러뜨리지 않아선 안 될 적이셨으니까. 티아 : 그보다 저것 봐. 패시지 링으로 가는 입구가 있는 걸.

루크 : 진짜다! 뭐 이런 데에.....

제이드 : 어떤 의미로는, 눈사태에 휘말리길 잘 했다는 말이 됩니까.

이온 : 그럼, 여길 열게요.

아니스 : 이온 님, 방금 눈사태 때문에 몸이.....

이온 : 괜찮아요. 맡겨 주십시오. 여기가 마지막이니까요.

루크 :부탁한다.

아니스 : 이온 님!

이온 :괜찮습니다. 이제 금방이니.

루크 :알았어. 가자.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23)

[로날 설산 패시지 링 관리시설]

(퍼즐도 없는 한갈래 길이니 그냥 들어가면 된다)

루크 : 티아. 괜찮어?

티아 :교관님 일이라면, 괜찮아.

루크 : 그것만이 아니라. 장기가.....

티아 : ...잊었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장치가 기동)

제이드 : 자아, 루크. 이젠 모든 세피로트를 업서브 게이트와 라디에이트 게이트에 연결시켜 주십시오.

루크 : 알았어.

.....

루크 : 오케이. 끝났어.

아니스 : 이제 다음은 두 게이트의 세피로트만
기동시키면 세피로트가 전부 이어지는 거네.

(그 때 진동이...)

나탈리아 : 무엇이지요!?

루크 :설마, 내가 뭘 망친 거야!?

제이드 : 당했군.....

티아 : 왜 그러세요?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제이드 : 업서브 게이트에서부터 기억입자(셀
퍼 티클)가 역류하고 있습니다.

제이드 : 연결된 모든 세피로트의 힘을 이용
해, 지력을 활성화 시키려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 : 그런 게 가능한 건, 패시지 링을 조작
할 수 있는 그놈 뿐.....

티아 : 오빠! 하지만 왜..... 기억입자를 역류
시킨다면 오빠가 있는 업서브 게이트의 세피
로트 트리로 뒤집혀서,

티아 : 게이트가 있는 츠프트 제도 통째로 무
너질 거야!

제이드 : 아니오, 지금은 우리들에 의해 각지
세피로트의 힘이 업서브 게이트로 흐르고 있
습니다.

제이드 : 그 잉여를 사용해 세피로트를 역류시
키고 있는 것이겠지요.

제이드 : 오히려, 떨어진다면 그것은 업서브
게이트 이외의 대륙입니다.

루크 : 까불지 말라 그래!

아니스 : 저기, 지력은 타르타로스로 진동을
중화시켜 둔 거였잖아요. 활성화 되더라도 한
다면.....

나탈리아 : 타르타로스가 부서질 거예요!

루크 : 망할! 선생을 막아야 돼!

아니스 : 총장을 말리러 가기 전에 이온 님을
마을에서 쉬시게 하는 것도 잊지 말아 줘.

이온 :죄송합니다.....

가이 : 사과하지 말라고. 원래가, 이온 님 몸
을 던져서 우릴 도왔으니까.

가이 : 제대로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건 루크 너
도 알지?

루크 : 어. 미안하다 이온. 조금만 더 참아 보
라.

이온 : 예..... 부탁드릴게요.

(케텔부르크로 돌아가기 위해 산을 내려가
면...)

티아 :모르겠어, 교관님도 모두도 왜 오
빠의 바보같은 이상을 믿는 것인지.

가이 : 각자 각자에게 사상이란 게 있는 거다.
난 알 듯한 느낌이 드는군.

나탈리아 : 가이..... 어째서이지요.....

가이 : 난 오래도록, 공작을 비롯한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반과 협력할 약속을 하고 있었
어.

가이 : 어딘가에서 발을 잘못 디었다면 난 6신
장 쪽에 있었을지도 모르지.

루크 : 가이..... 반 선생이 목표로 삼는 세계
의 모습을 알고서도나.

가이 : 그것으로 호드가 부활한다면..... 설령
복제라 해도..... 친구나 가족들이 부활된다면,
그것도 좋다.

루크 : 가이!

가이 :라고, 생각했음에도 모른다 이거
야. 지금도, 정직히 어느 쪽이 옳은지는 모르
겠다.

루크 :그랬나. 가이 넌..... 고향을 잃었었
지.

제이드 : 6 신장에게는 각자, 이 세계를 모두
소멸시켜서라도 성취시키고 싶은 바람이 있으
며,
제이드 : 그것이 반의 이상과 일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루크 : 우리랑 선생..... 목적은 인류의 존속으
로 같은데도 왜 이리 거리가 먼 거냐고.

티아 : 오리지널을 살리는 세계와 죽이는 세
계. 정말 가까우면서도 멀어.....

(케텔부르크로 돌아가자)

[은세계 케텔부르크]

노엘 :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어요.

루크 : 노엘! 뭔 일 있었어?

노엘 :실은 이 추위 때문에 알비올의 부
력기관이 얼어버렸습니다.

아니스 : 에엑~!?

노엘 : 지금 네프리 씨의 도움으로 수리를 하
고는 있지만, 하루는 걸릴 것 같아요.

루크 : 그러냐..... 이온을 쉬게 한 다음 바로
라도 출발하려 그랬는데.....

가이 : 무리인 건 별 수 없지.

티아 : 그래. 이 시간을 이용해서 내일 떠날
준비를 해 놓자.

제이드 : 적은 그 반 요장(諺將)입니다. 베르켄
드에서의 그 살기는 솔직히 말해 위험적이었
습니다.

제이드 : 가능한 한의 준비를 해서 만나고 싶
군요.

아니스 : 그럼, 난 이온 님을 네프리 씨에게
맡기고 올게. 모두는 각자 준비하고 있어요.

나탈리아 :그럼, 오늘은 이 자리에서 해
산하고 각각 준비에 임하지요.

노엘 : 제가 기체를 완벽하게 손봐 들게요. 여
러분은 편하게 쉬어 주세요.

제이드 : 피곤해지면 각자 알아서 숙소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일단 해산한다. 동료들에게 말을 걸고 다니
자)

.....

유우 : 주인님. 저는 내일 뭘 하면 돼요?

루크 : 너?으~음.

유우 : 반 씨 얼굴에 볼 뺨으면 돼요? 아니
면.....

루크 : 언제나처럼 도구 가방속에 숨어 있음
돼.

유우 :그래요? 그럼 저 도움이 못 돼
염.....

루크 : 충분히 되고 있어. 너, 열받는 농이지
만 보고 있음 긴장이 풀리니까.

유우 : 주인님이 칭찬해 주셨어염!

루크 :정정. 역시 짱나고 열받아.

유우 : 유우~~.

.....

티아 : 오빠를 따르고 있던 6 신장은 디스트
외엔 모두 사라졌어..... 남은 건 오빠 뿐.

루크 : 티아, 진짜 선생이랑 싸워도 되겠냐?

티아 :실은.....

루크 : 어?

티아 : 실은..... 싸우고 싶지 않아. 오빠는 오
래도록 내 부모님 대신이었으니까.

티아 : 외각(外殼) 대지로 가게 된 다음에도
날 만나러 와 줬었어.

루크 :음.

티아 : 오빠가 정말 좋았어. 그래서 저런 어리
석은 짓은 절대로 그만두게 하고 싶었는
데.....

루크 : 한번 더 설득해 보자. 티아.

티아 : 소용 없어! 오빠가 들어줄 리 없는 걸.

루크 :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할 수 있
는 일부터 해 보자..... 니가 그랬자니?

티아 : 당신..... 달라졌어.

루크 :뭐, 뭐야 갑자기.

티아 :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였구나. 하지
만..... 오빠는 그리 생각하고 있지 않아.

티아 : 오빠야 말로 유리아의 예언에 휘둘리고
있는 바보야.

루크 : 티아..... 괴롭다면 싸움에서 빠져도
돼.

티아 : 바보구나. 당신을 지켜보겠다고 약속
했었잖아.

루크 : 티아.....

티아 : 그리고..... 오빠를 쓰러뜨리는 건.....
동생인 내 역할이야.

루크 :우리는 하지 마라.

티아 : ...고마워, 루크.

.....

루크 : 아니스..... 너 우냐?

아니스 : 아, 안 울어! 잠깐 이것저것 생각해
고 있던 것 뿐이야.

루크 : 거짓말 마. 눈을 자국 있다고.

아니스 :닭살~. 가이 같아.

루크 : 닭살이라니 모가. 걱정해 줬구만.

아니스 : 아함~. 역시 루크 날 좋아하는구나?

루크 : 벼, 별로 그런 게 아냐.

아니스 : 그래? 지금 루크라면 뭐 결혼 못 해
줄 것두 없는데.

루크 : 아, 그러셔.....

아니스 : 아리에타는 시집도 못 가구..... 죽어
버린 거구나.

아니스 :차가웠을 거야. 눈 속에서.....

루크 : 그래서 울었던 거냐.

아니스 : 아~ 아냐~~! 아니야!

아니스 :아리에타는, 정말 좋아했던 사람
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것도 모르고서 갔
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아니스 : 그런데 수석총장은 그걸 알고 이용했
던 거야. 그러다 죽어 버렸다니..... 싫어서.

루크 : 선생은..... 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생각해.

아니스 :루크는 총장을 너무 좋게 봐.
아니스 : 그 인간 탓에 티아도 고생하구 이온
님도 이용 당하시구..... 난 저런 아저씨 진짜
싫어!

루크 :아, 아저씨라니.....

아니스 : 루크. 기합 넣어, 기합! 내일은 절대
로, 이기자!

루크 :알어. 지겠냐. 다들 같이 있어 즐
건데.

.....

루크 : 이온 너도 복제였구나.

이온 : 예. 반 일행이 저를 만들었지요. 저희
들은 누가 도사에 알맞을지 순서대로 검토를
받고서.....

루크 : 그리고, 네가 선택되었다고.

이온 : 예, 그래서 저는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를 대신할 사람은 있어, 그러니 죽어도 문제 없을 거라고.

루크 : 안 그래! 그게 통한다면..... 나 역시.....

이온 : 예..... 그렇습니다. 저는 싱크의 죽음을 눈으로 보고 겨우 깨달았어요.
이온 :저는 이온 대신이긴 하지만 저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루크 :

이온 : 저도 싱크도 대신하는 것은 싫었던 거예요.
이온 : 그래서 저는 감정을 죽였습니다. 싱크는 태어난 것을 저주했지요.

루크 : 난..... 나는 실은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걸지.....

이온 :저는 아마,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루크 : 어?

이온 : 답은 반이 쥐고 있어요. 당신이 반에게서 자립하신다면 깨달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

제이드 : 정직한 말로, 당신과 처음 만났을 때엔 절대 호감을 가질 수 없겠다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루크 : 나도 그랬지. 잘난척하는 게 열받는다고.

제이드 : 뭐어, 이렇게 같이 여행하는 중에, 당신도 그리 나쁘지않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루크 :정말이쇼.

제이드 :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지금도 방중에 악몽에 시달리다 깨시곤 하신다는 것을.

루크 :

제이드 :당신에게 있어 액제류스가 무너졌던 일은, 아직 과거의 일이 아니신 모양이십니다.

루크 :당연한 소릴.

제이드 : 도적이냐 오라클 병사를 죽인 날 밤에는 잠들지 못하고 떠서질 않나.

루크 :겁쟁이지, 나.

제이드 : 아닙니다. 당신의 그런 점은 제게 없는 자질입니다. 저는..... 역시 아직도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없습니다.

루크 : 제이드.....

제이드 : 당신을 보고 있는 동안 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 저것 말입니다.

루크 : 난, 제이드랑 여행하길 잘 했다 생각해. 제이드 당신 덕에, 내가 하지 않음 안 될 일이란 걸 알았거덩.
루크 : 반 선생이랑은 좀 다르지만, 제이드도 내 스승 되는 셈이네.

제이드 : 제자는 안 받습니다. 남에게 가르치는 것은 싫어하니깐요.

루크 : 누가 모래. 내가 알아서 훔쳐 배울 거다.

제이드 : 그러십니까? 후후..... 뭐 알아서 하십시오.

.....

가이 : 왜 그래? 긴장한 표정을 하고.

루크 : 그래?그렇지도. 선생이랑 싸우는 거니까.

가이 : 그렇군. 그 반과..... 싸우는 거구만.
가이 : 아아..... 미안. 어릴 적 일이 생각나 버려서.

루크 :그랬지, 가이 너한테 있어서 선생은 어릴 적 친구였나.

가이 : 하하, 그래 뭐. 난 어릴 적 무서움을 많이 땀었거든. 누나에게 곧잘 남자답지 못하다고 야단맞았어.
가이 : 그런 때마다, 날 감싸주었던 게 반이었나.

루크 : 저 선생한테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게, 난 잘 이해 안 간다만.

가이 : 웃기지 마 야마! 누구라도 어릴 적은.....

루크 :

가이 :너한테도 있어. 일곱 살이야 아직 애라고.

루크 : 원 소리야. 그런 시절 기억 없어.

가이 : 바보냐 루크. 너, 지금 일곱살이잖아.

루크 :음, 그런 뜻이었나.

가이 : 어른 될 때까지 아직 13년이나 남았다. 소싯적을 만끽해 뭐.

루크 : 가이..... 고맙다. 나, 어릴 적 친구 하나 잘 둔 모양야.

가이 : 하하, 왜 이래 이놈. 너 답지 않아. 좀더 「짜증나~」 라던가 「귀차나~」 같은 말이나 해 봐라.
가이 : 그 쪽이 너 답다고.

루크 :그럼, 다 끝나면 「아~ 힘들었네 ㅍㅍ」 이란 말 한번 하지.

가이 : 폐하네 앞에선 하지 말고. 인상 쓸 테니.

.....

나탈리아 : 많은 일이 있었사와요.

루크 :그러게.

나탈리아 : 저도 당신께서도 이 여행을 나서기 전과는 모든 것이 다르네요.

루크 : 미안하다, 나탈리아.

나탈리아 : 어머니, 왜 그러시어요. 당신께서 사과를 하시다니 희한한 일입니다.

루크 : 약속, 못 지켰으니까.

나탈리아 : ?

루크 : 프로포즈 약속. 난, 알지도 못했으니까. 기억해 낼 리가 없었지.

나탈리아 :듣고 계셨군요. 그 때. 세리던에서.

루크 : 킁..... 들켰었나.

나탈리아 : 말씀해 보아 주시지, 양으시겠어요?

루크 : 뭐..... 뭐하게.

나탈리아 :그걸로저, 여러가지와 결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루크 :언젠가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이 나라를 바꾸자. 귀족이 아닌 인간도 가난에 시달리지 않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루크 : 죽을 때까지 같이 있으면서 이 나라를 바꾸자.

나탈리아 :고마워요. 저 이제,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 따위에 고민하지 않을게요.
나탈리아 : 왕가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여드리겠습니다.

루크 : 나탈리아.....

나탈리아 : 당신께서도 제 소중한 소꿉친구이시랍니다.
나탈리아 : 같이 살아 남아서, 킴라스카를 좋은 나라로 만드시어요.

루크 : 그래, 고맙다.

(이야기가 끝났다면 호텔 카운터 앞으로 가자)

티아 : 루크, 잠깐 관촬을까?

루크 : 음?

티아 : 대령님이 전해 달라시길래. 인고벨트 폐하와 피오니 폐하께 전서구를 보내셨네.

루크 : 무슨 일 있어서?

티아 : 언제 외각의 강하가 시작될 지 모르니, 준비를 해 두라고 전하셨다는 것 같아.

루크 : 왜? 아직 업서브 게이트와 라디에이트 게이트 두 군데나 남았는데.

티아 : 이건 당신과 나한테만 하는 이야기라고 대령님께서 그러셨는데.....

티아 : 오빠 탓에, 외각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에 놓였다는 것 같아.

티아 : 경우에 따라서는 라디에이트 게이트를 기동시킬 시간이 사라질 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

루크 : 그래도 라디에이트 게이트가 기동되는 거랑 동시에 외각을 강하시키라고 명령을 내려 났잖나.

티아 : 대령님께 생각이 있으신가 봐.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방법이라는 말씀하시긴 했지만.

루크 : 알았어. 우리 둘은 각오 단단히 하고 있으라는 뜻이구만.

티아 : 그런 뜻이야. 그럼 방해해서 미안. 편히 쉬어.

(새벽에 루크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루크 :이건!

.....

애쉬 :곧장 업서브 게이트로 향한다는 말이군. 알았다.

노엘 : 그럼, 저는 이만.....

애쉬 : 무슨 볼일이나. 복제.

루크 : 니가 부른 거 아냐. 평소대로 머리가 아파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애쉬 :기한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인가.

루크 : 그보다 너 선생에게 배인 부상은.....

애쉬 :네가 걱정할 일 따윈 아니다! 뭐냐! 하고 있던 말이 있다면 확실히 말해!

루크 :고맙다. 난, 날 미워하고 있을 건데도 여러가지로 도와줘서.....

애쉬 : 착각 마라! 내 목적을 위해 널 이용하고 있을 뿐이야! 너 따윈 위해서가 아니고!
애쉬 : 두번 다시 그런 소릴 지껄어 봐라. 죽여버릴 테다!

루크 :야, 애쉬! 같이 선생 막으려 안 갈래? 너와 내가 선생을.....

애쉬 :거절한다!

루크 : 왜!

(루크는 애쉬를 붙잡지만...)

루크 : 애쉬!야, 너 배에서 피가.....!?

애쉬 :제기랄! 이런 몸만 아니었다면 내가 진짜에 업서브 게이트로 갔을 거다!
애쉬 :네가 받을 해치우지 못한다면 그때는 내가 기어서라도 놈을 죽이겠지만 말이다.

루크 :알았어. 내가 반드시, 선생을 말리지.

애쉬 : 말리는 게 아냐! 타도하란 말이다!

루크 : 명심하마.....

(이제 호텔 밖으로 나가면...)

이온 : 알비올의 수리는 끝난 모양이에요. 노엘이 먼저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스 : 이온 님, 몸은 좀 어떠세요?

이온 : 예. 이젠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마 같이 간다면 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루크 : 그러냐.....

이온 :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돌아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온 : 그러니 모든 것의 결판은 아니스, 당신이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스 :알겠습니다!

제이드 : 그럼, 슬슬 시작입니다. 루크, 준비는 되셨습니까?

루크 : 어. 다들 됐지?

아니스 : 오케이♡ 이온 님 대신 총장의 계획을 막아 버려야지.

티아 :그래. 설사 목숨을 빼앗게 되더라도.

나탈리아 : 티아. 정말로 그래도 되는 것이겠어요?

티아 :응.

가이 : 티아가 저렇게까지 결심을 했다면, 우리도 각오를 굳혀야겠지.

루크 : 업서브 게이트로부터의 역류를 멈추고 외각 대지를 내려 보낸다.
루크 :선생과 싸우게 되더라도!

유우 : 유우도 힘낼게염.

루크 : 하핫. 부탁하마 유우..... 모두도, 잘 부탁해.
루크 : 가자! 업서브 게이트로!

<페이스 채트 '결전 전야 ~ 여성 편 ~>

아니스 : 우웬~. 조금 긴장이 되는 것 같기도.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올드란트의 모든 운명이 걸려 있으니깐요.

티아 : 이 싸움에선 절대 질 수 없어.
티아 : 오빠는 설령 동생이라 하더라도 이상에 방해가 되는 사람에게는 용서 없을거야. 우리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아니스 : 진짜 분발해야겠어!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준 사람들을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티아 : 응. 오빠의 목숨을 빼앗게 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으니깐.

아니스 : 티아..... 무리하기 없기야.

나탈리아 : 그렇답니다. 당신은 혼자 싸우고 계신 것이 아니니까요.

티아 : 고마워. 아니스, 나탈리아.

<페이스 채트 '결전 전야 ~ 남성 편 ~>

루크 :가이, 잠깐 검 수련좀 도와주라.

가이 : 어, 왜 그래? 갑자기 이런 때에.

제이드 : 불안하십니까? 루크.

루크 :나, 선생이랑 진짜로 검을 겨뤄본 적이 없으니깐..... 혹시 싸우게 된다 생각하니.....

가이 : 반의 검술은 끝내주니 말이다. 덤으로 보술도 쓸 줄 아는 제 7 음소술사(세븐스 포니머)지. 그야 뭐 쓸 수도 있겠다.

루크 : 영. 솔직히, 제대로 쫓고 있어..... 그래도! 잘 손 없으니 말야!

가이 : 조아쓰! 간만에 한판 붙어볼까!

제이드 : ㅎㅎ. 그럼 저도 조금 몸을 풀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루크 : 어, 별일이네.

가이 : 과연 당신도 진지하군. 제이드 형씨.

제이드 : 귀찮은 것은 싫어합니다만, 뭐어, 질 수 없으니 말입니다.

루크 : 그래!

<페이스 채트 '결전'에>

루크 : 오늘, 결판이 나는 거지.

티아 : 대지 강하도 장기(障氣)도, 오빠의 야망도.....

유우 : 두근두근거려염!

가이 : 돌이켜 보면, 여기에 이를 때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

아니스 : 뭐야 뭐야? 추억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건 아저씨가 되어간다는 증거라구.

가이 : 아저씨는 너무하지 않나~.

나탈리아 : 후훗. 해야 할 일. 그것을 다시 발견하는 여행이 되었사와요.

제이드 :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루크 : 그래! 업서브 게이트로 가서 반 선생을 막자!

일행 : 오오!

(업서브 게이트는 북쪽이다. 일비울을 타고 가자)

[업서브 게이트]

유우 : 굉장한 음소(포닉)가 느껴져염.

제이드 : 여기는 최대 세피로트의 하나. 플래닛 스톰을 발생시키고 있는 업서브 게이트이니깐요.

가이 : 노엘은 여기 혼자 남아야 되나. 매번 일이다만 불안하진 않아?

노엘 :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무사를 바라고 있을게요. 조심하시길!

루크 : 고마워..... 다녀올게!

<페이스 채트 '반과의 결전으로'>

제이드 :

루크 : 왜 그래? 제이드.

제이드 : 반 요장이 어째서 이 곳 업서브 게이트를 결전의 장소로 정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티아 : 오빠는 패시지 링을 조작하기 위해 여기 머무른 것이 아닐까요?

루크 : 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제이드 : 그거라면, 로날 설산 작업시에 행했던 처치로 그의 작업은 끝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티아 : 그럼 우리들이 패시지 링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이드 : 가장 간단한 이유는 그것입니다만..... 지금까지가 지금까지이니, 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나탈리아 : 어머, 여기가 업서브 게이트인 것인가요?

아니스 : 플래닛 스톰이 빨려들어가고 있어..... 반짝반짝 빛나는 건.....

가이 : 기억임자(셀퍼 티클)이군. 눈이 내리는 것 같아 멋진데.....

(음소구슬들을 모아 악보를 완성시키면 리프트로 워프를 할 수 있게 된다)
(리프트를 한번 타고 내려가면...)

아니스 : 우와야!?

루크 : 이크..... 위험했다.....

티아 : 외각 대지에 한계가 치달고 있는 걸까.

나탈리아 :서두르지요. 이대로 세계를 멸망시킬 수는 없답니다.

<페이스 채트 '잔재주는 필요없다'>

나탈리아 : 방금 전 지진..... 이전 시간이 그다지 없는 것일려나요.

아니스 : 액~!? 그럴라나아.

가이 : 아직 한동안은 괜찮겠지. 실제로 반은 복제를 만들지 않았어.
가이 : 아직 끝까지 준비가 다 안 된 거 아니겠냐?

아니스 : 그치만 그치만, 태평하게 있을 수도 없겠다는 느낌 안 들어?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반 일이니 어떤 책략을 꾸며 두었는지 알 수 없는걸요.

가이 : 아니~, 이 마당에 잔재주를 부를 타입은 아니라고 생각한단만.

아니스 : 왜 그렇게 생각해?

가이 : 뭐라 해도 나와 반은 오랜 인연이니 말야. 웬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뿐이다.

아니스 : 흐~응. 그래두 빨리 마무리 지어야 안심일 것 같아.

가이 : 하하. 맞군.

<페이스 채트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루크 :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라나.....

티아 : 플래닛 스톰이 여기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이니, 적어도 외각대지를 통과하는 지점까지는 계속될 거야.

루크 : 외각대지를 넘어갈 때까지라.....

티아 : 패시지 링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긴 길이 되리라는 것은 틀림이 없어.
티아 : 루크, 회복을 잊어선 안 돼. 신중하게 나아가자.

제이드 : 그다지 시간이 없으니 말입니다.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라는 셈이 됩니다.

티아 : 그래요.

루크 : 신중하게, 신속하게.....

(녹색 기억진을 지나면...)

루크 : 이번 건 큰데!

가이 : 조심해, 지면이.....!?

티아 : 까악!?

루크 : 우와악!?

.....

루크 : 티아, 괜찮어?

티아 :응음, 대충. 모두는?

루크 : 뽕뽕이 흩어져 버린 모양야. 다들 무사하면 좋겠는데.....

티아 :가장 걱정되는 사람이 이렇게 멀쩡한 걸. 괜찮을 거야.

루크 : 실례잖나 야.....

티아 : 후후..... 미안.
티아 : 어머..... 피가 나고 있어.

유우 : 진짜어염! 큰일이어염!

티아 : 기다려. 지금, 치유술(治癒術)을.....

루크 : 관 뒤, 이런 거! 침바르면 나아!

티아 : 왜 화를 내?

루크 : 안 화났어! 그, 그보다, 더 들어가 보게. 모두랑 합류할 수 있을지 몰라.

티아 : ?? 으..... 으응. 알았어.

(파티를 바꾸어 가며 진행하게 된다)
(가이 파티로 진행하다 보면...)

나탈리아 : 이대로 내려가도 될려나오.....

가이 : 확증은 없다면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나탈리아 : 그럴네요..... 모두와 합류하기를 바라지요.

가이 : 걱정돼?

나탈리아 :아니요.
나탈리아 : 제 곁에는 당신이 계시고, 모두의 힘은 같이 여행해 왔던 저 자신이 가장 잘 아니까요.

가이 : 그렇지. 거기다 애쉬가 응원해 주고 있을테니 말이다.

나탈리아 : 애쉬가.....?

가이 : 그 농 이야기야. 우릴 신용할 수 없었다면, 지금 쫓은 혼자서 반이 있는 곳에 쳐들어 갔겠지.

가이 : 녀석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건 우릴 믿어보겠다는 뜻이다.

나탈리아 :네. 그러면 그 신뢰에 보답을 해야겠사와요.

가이 : 그걸 위해서는 빨리 모두와 합류해야겠지.

나탈리아 : 네!
나탈리아 : ...가이.

가이 : 왜 그래?

나탈리아 :당신 말씀인데 정말로 상냥하시군요. 고마워요.

가이 : 별 것 아닙니다.

<페이스 채트 '결판의 시간'>

나탈리아 : 반과는 역시 싸우게 될려나오.....

가이 : 아마 피할 수는 없겠지, 녀석은 옛날부터, 절대로 자신을 굽히지 않는 사나이였으니 말이다.

가이 : 우리들과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이상, 설득해 보았자 소용없어.

나탈리아 : 또 어느 쪽인가가 쓰러질 때까지, 싸우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군요.

가이 : 이걸로 마지막야. 반을 쓰러드리면, 외각 대지를 구할 수 있지. 틀리나?

나탈리아 : 틀림 없사와요. 이 나탈리아 루츠 킴라스카 란발디어의 화살로 반드시 쓰러뜨리겠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제이드 파티로 진행하다 보면...)

아니스 : 웬지 돌밖에 없다는 것도 쓸쓸한 일 이네요요.

제이드 : 토쿠나가가가 있으니 말입니다. 돌이라는 느낌은 안 듭니다만.

아니스 : 그건 그럴지두요.
아니스 :라고 쳐도, 저는 대령님이랑 같이 있지만 루크네는 괜찮을라나요.

제이드 : 뭐 티아도 가이도 그런대로 전투에는 숙련되어 있으니깐요.

아니스 : 대령님 대령님! 그럼 루크랑 나탈리아는요!

제이드 : 뭐어~ 대충 무사할 겁니다. 둘 다 여

기까지 살아남아 온 셈이고.

아니스 : 아하 과연, 아니스 이해가 갔어요.
아니스 : 대령님께서서는 모두가 어떻게 되건 상관 없으신 게 아니라 확실히 믿고 계신 거군요♡

제이드 :하하하하하!

아니스 : 왜, 왜요 대령님? 왜 그러세요?

제이드 : 그렇군요. 그렇게 보는 방도도 있습니다.
제이드 : 분명 그렇지 않다면 언제까지고 같이 행동할 수는 없겠지요.

아니스 : 대령님! 뭘 혼자 남독하시구 계세요!

제이드 : 아뇨 아뇨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어서 모두와 합류해야겠습니다.

아니스 : 네~에.

제이드 : 당신만 믿겠습니다아, 아니스.

아니스 : 아हत♡ 저두랍니다~♡

<페이스 채트 '반의 강함'>

아니스 : 슬슬 반 총장이랑 싸우는 거네..... 저기요 대령님, 쉽게 말해 승산은 있나요?

제이드 : 글썽을시다..... 반의 검술과 보술은 상당한 것입니다만,
제이드 : 가장 성가신 것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을 강한 정신력입니다. 그렇기에 설득도 어려운 것이지요.

제이드 : 아마, 상당한 부상을 입더라도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아니스 : 응. 끈질길 것 같긴 해요.

제이드 : 그러나 싸움을 길게 끌 수도 없습니다. 외각 대지는 지금이라도 붕괴될 것 같으니 말입니다.

아니스 : 아우, 힘들어~~..... 그치만 그치만, 절대로 해내야겠지요!

(루크 파티로 진행하다 보면...)

루크 : 후우..... 역시 둘 밖에 없으니 싸움이 뻥세구만.

티아 : 그러네..... 하지만, 그 때와는 많이 달라졌어.

루크 : 그 때?

티아 : 타타르 계곡으로 날려졌을 때.

루크 : 아하..... 듣고 보니 그 때도 돌이었지.

티아 : 그 때엔 솔직히 안심하고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생각했어.

루크 :미, 미안하군 그래.

티아 : 하지만..... 지금은 달라. 성장했어, 당신.

루크 : 고, 고마운데..... 그래도, 아직 멀었어.

티아 : 응?

루크 : 선생을..... 그리고 복제 계획을 막지 못해서야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티아 : 응, 그래. 당신 말대로야.

루크 : 티아.....

티아 :지금의 당신이라면 등 뒤를 맡길 수 있어.

루크 : 티아.....

티아 : 가자. 루크.

루크 : 어!

(모두와 합류하고 나면...)

루크 : 다들! 무사했구나!

나탈리아 : 그것은 이쪽이 할 말이랍니다. 너

무나 늦기에 걱정하고 있었지 뭐예요.

티아 : 미안해.

제이드 : 두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크 : 웬데, 정색을 하고.

가이 : 이 다음에 패시지 링이 있다는 듯 하다.

루크 : 그럼 이 앞에 반 선생이 있는 거냐.....

아니스 : 그래서, 반 총장을 몰리치고 바로 외각을 내리자구.

루크 & 티아 : !!

루크 : 역시 시간이 딸리는 거야?

제이드 : 예. 여기서부터 라디에이트 게이트까지는, 알비올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제이드 : 아마, 그 안에 외각대지는 무너져 내리겠지요.

티아 : 하지만, 어떻게 라디에이트 게이트도 기동시키지 않고 외각을 내려보낼 수 있을까요?

제이드 : 제어장치에 「라디에이트 게이트로의 명령을 업서브 게이트로 변경한다」라고 적어 넣는 겁니다.

제이드 : 패시지 링 끼리는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제이드 : 상당히 억지스러운 방법이긴 합니다만.

티아 : 그렇네요. 라디에이트 게이트는 기동시킨 적이 없으니까요.

루크 : 그 다음은? 그게 끝이야?

제이드 : 업서브 게이트의 세피로트를 향해, 제 7 음소를 쬐니다. 그것이 강하 개시의 신호입니다.

제이드 : 다만 이것은 명령자 —— 즉 루크가 발송시키는 제 7 음소가 아니어서는 안 됩니다.

루크 :알았어. 해 볼게. 여기까지 와서 못 하겠다는 말을 어게 하겠어.

제이드 : 그럼, 슬슬 가기로 할까요. 준비들은 되셨습니까?

루크 : 난 됐다. 모두는?

티아 : 물론이야. 오빠는..... 반은 내가 막겠어.

가이 : 이래 봐도 일단 반의 원래 주군이니 말이다. 부하의 잘못된 주인이 책임을 져야지.

나탈리아 : 어떻게 해서든 반의 계획을 막아, 세계를 구하겠사와요.

아니스 : 내가 감부랑 결혼하기 위해서라도, 반 총장은 찌그러져 있으라구 해야 해.

제이드 : 이야~. 여러분, 뜨거우십니다.

가이 : 당신은 평소대로라 좋겠수다.

제이드 : 예. 제게 뜨거운 것은 어울리지 않으니 말입니다.

루크 : 그야 그렇지.
루크 :좋았어, 간다!

<페이스 채트 '티아의 결심'>

티아 :오빠.

루크 : 티아, 왜 그래?

티아 : 아니..... 그냥, 이제 곧 오빠랑, 싸우게 된다 생각하니.....

루크 : 아하. 티아 넌 그걸 위해 외각 대지에 왔던 거니까..... 역시 남매끼리 싸우는 건 괴롭겠어?

티아 :괴롭지 않아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겠네. 그래도..... 그럴 수 밖에 없으니까.

루크 : 그러나, 나도 온 힘을 다해 선생을 막을 테니까..... 이 싸움을 마지막으로 하자.

티아 : 응. 후훗, 루크에게 격려를 받게 되다니.

루크 : 뭐.....? 안되는 거였나?

티아 : 아니, 고마워. 가자.

루크 : 그래.

[업서브 게이트 패시지 링 관리시설]

반 :왜 네가 여기에 있냐? 여기에 올 자나와 함께 질서를 만들어야 할 애쉬.....

반 : 오리지널 루크다. 날 방해하지 마라. 복제 따위가.

루크 :음! 그렇다면.....

루크 : 그럼 왜 날 만들었어! 난 누구고, 뭘 위해 태어났다는 건데!

반 : 무언가를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나? 그래서 너는 단순한 복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다.

반 : 가엾은 복제에게 가르쳐 주마. 너는 유리아의 예언을 덮어 가리는 1회용으로 태어난 대용품. 단지 그것 뿐이다.

루크 :선생. 정말로 난 그것 뿐인 존재인 겁니까? 나라는 존재 탓에 예언이 빛나가기 시작했잖아요?

반 : 너 따위의 왜곡 썸으로는 유리아의 예언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반 : 가지만 일이 변하더라도 나무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반 : 예언은 마약이다. '동쪽으로 걸어가면 큰 돈을 주울 것이다' — 그런 예언을 실행해서, 그대로 실현되면 다음 예언도 믿고 싶어지게 된다.

반 : 유리아는 2000 년에 걸쳐, 인류를 예언 종독자로 만들고 말았다. 2000 년에 이르는 일그러짐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독한 약이 필요하다.

제이드 : 복제 세계가 그 독한 약이라는 겁니까..... 대단한 상상력이 아닌가.

반 : 훗..... 상상..... 그것도 괜찮겠지.

가이 : 확실히 예언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비뚤어져 있지. 그러나 복제 세계라는 것도 꽤나 일그러져 있다는 걸 아나?

나탈리아 : 그 말대로입니다. 당신 쪽이 그 경거망동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티아가 고통스러워 할 것이오.

아니스 : 총장 동생이잖아요! 동생과 싸우겠다니..... 총장, 진심이예요!?

반 : 메슈티아라카. 나도 유감이다.

반 : 네가 유리아 시티에서 암전히 있어 주었다면..... 그랬다면 너 만든 구할 수 있었을 것을.

티아 : 오빠는 복제 세계를 만들려 하고 있잖아? 그럼 날 죽이고 내 복제라도 만들면 될 거야.

반 :그럼 어찌 되건 나와 싸우겠다는 거냐.

티아 :응. 원래 나는 그것을 위해 외각에 갔던 거니까.

루크 : 선생..... —아니반!! 당신이 날 인정 안 하더라도 난.....

루크 : 나야!!!

반 : 헛소리를.

반 : 깨져라!

<BOSS - 반>

노멀기준 HP 132000. 지금까지 나온 보스 중에서는 약간 어려운 축에 속한다. 루크와 가이 등으로 정면에서 치고 받아서는 승산이 적으므로, 보슬을 구사한 뒤의 빈틈을 노리는 것이 가장 좋다. 기본적으로 뒤를 잡아 때리는 것이 좋은데, 광flux에서 오의를 이어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물리 뒤어들이 말 것. HP가 절반 가량, 그리고 10%가 될 때에 비오

의 성향창파진을 쓰므로 주의하고 있다가 잘 대처하자. 잘못 걸려들면 낭패.

(반의 최후, 그 다음 외각 대지를 무사히 강하시키는 무비를 보게 된다)
(작업을 하는 도중 루크에게 다시 로렐라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열쇠를 보낼 테니 자신을 해방시키라는데.....?)

제이드 : 루크? 왜 그러십니까?

루크 : 로렐라이가.....

루크 :아니, 지금은 됐어. 그보다, 성공했다는 걸 모두에게 알려야겠지.

루크 : 네. 이온도 노엘도 아버지 들께서도..... 분명 걱정하고 계실 거랍니다.

티아 :오빠.

루크 : 티아.....

티아 :미안해, 루크. 이걸로..... 된 거야.

루크 : 알았어.

루크 :다들, 돌아가자! 우리들의 대지로!

루크 : (애쉬..... 고맙다.....)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24)

「칼라스카 란발디어 왕국 바티칼, 농 리디칸 렘의 28일」

유우 : 주인님, 일어나세요!

루크 : 싫어.....

유우 : 유우우우. 아빠 씨와 엄마 씨가 부르고 계세요~.

루크 : (가기 싫구만.....)

(응점실로 가자)

파브레 공작 : 아직도 자고 있었느냐.

루크 :미안.

파브레 공작 : 여기 돌아오셔서 이미 1 달이 된다.

파브레 공작 : 나탈리아 전하께서는 공무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는데, 너는 이게 무슨 게으름이냐.

파브레 공작 : 조금은 공작가의 인간으로서 걸맞는 생활을 하거라.

루크 :말은 그게 다인가요.

파브레 공작 : 아니, 업서브 게이트에서의 싸움에 대해 확신하고 싶구나.
파브레 공작 : 반이 지핵으로 떨어졌을 때, 경은 바닥에 꽃힌 그대로였느냐?

루크 : ? 예.....

세실 : 원수님. 그렇다면 역시 누군가가.....

파브레 공작 : 응음.

루크 : 뭘 일 있었어요?

세실 : 플래닛 스톤이 급격히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베르켄드에서부터 들어왔습니다.

파브레 공작 : 업서브 게이트와 라디에이트 게이트로 조사대를 파견해 보니,
파브레 공작 : 누군가가 침입했던 흔적이 있으며 반의 경도 사라져 있었다는구나.

루크 : 누가 회수해 갔다는 뜻이야?

세실 :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파브레 공작 : 세실 소장. 폐하게 보고를 올려야겠네.

세실 : 예.

슈잔느 :친구 분들이라도 만나러 가는 게 어떨지.

루크 : 어머니.....?

슈잔느 : 집에 돌아온 뒤로부터 너는 계속 틀어박혀 있지만 하고.....

슈잔느 : 마치 여기에 자신이 있을 장소는 없다는 듯한 표정이더구나.

루크 : 그런 건 아닌데.....

슈잔느 : 아빠가 가이를 내보내신 뒤부터, 네게 있어서의 이 저택은 그저 숨막히는 곳이었지?

슈잔느 : 반드시 돌아와 주겠다고 약속만 해준다면, 기본 전환을 다녀오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단다.

루크 :나, 돌아와도 돼요?

슈잔느 : 당연하잖니. 그렇지..... 람다스라면 네 친구분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거야. 몸 조심하거라.

(루크에게 '방황하는 청년'의 칭호...)

<페이스 채트 '그 뒤로 1 개월.....'>

루크 :애쉬.

유우 : 주인님, 집에 돌아오신 다음부터 계속 한숨만 쉬셔요.

루크 : 그러나. 역시, 좀 신경 쓰이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

유우 : 웬대영?

루크 : 이것저것..... 모두 일이라던가, 이제부터의 일이라던가..... 그리고 애쉬.....

루크 : 그 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라나..... 라던가, 말야.

유우 : 음 음 이에영.

루크 : 그런 걸 생각하는 사이, 어쩌다 한 달이나 지나가 버렸지 모냐.....

유우 : 주인님.....

(람다스에게 말을 걸자)

람다스 : 주인 어른께서 말리셨습니다만, 실은 루크 님 앞으로 온 편지를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루크 : 왜 아버지가 그딴 짓을...

람다스 : 공작가의 상속자로서, 그에 걸맞는 분들과만 어울리게 만드시겠다는 주인 어른신의 배려이십니다.

루크 : 진짜 상속자는 내가 아니라 애쉬라는 걸 너도 알잖아! 편지 내놔!

(동료가 보낸 편지를 손에 넣는다)

루크 :가이랑 아니스랑 티아라. 애쉬한테서부터는..... 올 리가 없다.

유우 : 주인님..... 애쉬 씨랑 만나고 싶으셔영?

루크 : 외각 대지를 내려왔을 때, 거들어 준 게 그놈이기도 하고. 실은 지금 여기 있어야 될 건 내가 아니라.....
루크 : 내가 그 놈처럼 말을 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야. 전에 한 번 댘을 댘이니.....

유우 : 그러고 보니 주인님, 반 씨를 물리친 다음부터 머리 아프다는 말씀 안 하세요.

루크 : 듣고 보니 그런데. 애쉬 뿐만 아니라 로렐라이 목소리도 안 들려오게 됐구만.....

「.....애쉬! 루크! 열쇠를 보내마! 그 열쇠로 나를 해방시켜 주었으면 한다!」
「.....영광을 잡는 자나를 잡기 위 나를」

루크 : (그러고 보니, 그게 마지막이었지.....)

루크 : 뭐 어때. 가자.

유우 : 모두와 만나러 가세요?

루크 : 어. 아까 아버지가 했던 말도 신경쓰이고 그래서, 모두의 의견이라도 들어볼란다.

유우 : 또 여행이네영? 어디부터 가실 거예영?

루크 : 항구지 어디야.

유우 : 유우우?

루크 : 세리던 갈려고. 알비올 좀 빌리게.

<페이스 채트 '다들 뭐하고 있을라나?>

유우 : 모두랑 만나는 거 오랜만이에요. 기대 되염.

루크 : 그러게. 한참 못 만났다는 느낌이 들어.

유우 : 그 뒤로 다들 뭐 하구 계세요?

루크 : 티아는 유리아 시티에서 테오도로 씨를 거둬고 있는 거 아니겠냐.

루크 : 가이 녀석은 제이드랑 같이 그란코크마에 있을 거고.

루크 : 이온은 도사로서 다테에 있겠지? 아니스도 결국 폰 마스터 가디언(도사수호역)으로 복직했다는 모양이니.

루크 : 나탈리아는 캄라스카의 사자로서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야.

유우 : 바쁘실 것 같아염.

루크 :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나 뿐이구만.

유우 : 괜찮으세염! 주인님은 밥 열심히 먹구 계셨어염!

루크 : 유우. 그걸 위로라고 하나 너 지금.

유우 : 유우.....

<페이스 채트 '유우의 이름은?>

루크 : 아니 잠깐. 알비올을 빌린다 해도, 노엘의 힘을 빌리지 않음 안 되는 거였다.

유우 : 주인님께선 조종 못 하세요?

루크 : 가이라면 흑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난..... 아무것도 못 하는 쓸모없는 인간이군.....

유우 : 안 그러세요! 제게 돼지원숭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염!

루크 :음미안했다. 이상한 이름 붙여서.

유우 : 유우우? 돼지원숭이는 철회인가염?

루크 : (.....그래도 돼지원숭이라는 느낌이란 말이지..... 이 녀.....)

(항구로 가서 연락선에 타자)

[연락선]

유우 : 주인님, 모두가 보내신 편지 안 읽으세요?

루크 : 음? 읽어볼까.

<티아의 편지>

"루크에게. 외각대지가 내려온 것 때문에 유리아 시티는 한 때 혼란.

"여기 유리아 시티와 로렐라이 교단 상층부와의 관련이, 말단 교단원에게도 알려졌기에 조부 테오도로는 새로운 체제 확립에 분주"

"오빠 반의 죄는,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도 있었기에 장례가 치뤄졌지만 일부 오라클 기사단원이 교단에서 이탈해 행방을 감춘 모양"

"모든 것이 진정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 저기, 편지같은 건 씨 본적이 없어서. 이상했다면 미안해"

루크 :이게 보고서지 편지냐.

<가이의 편지>

"루크. 잘 사냐? 난 피오니 폐하의 후의로 그란코크마에 저택 한 채 얻어 대충 생활하고 있다"

"나도 일단은 귀족이라, 귀족원에도 얼굴을 내밀게 되었지"

"뭐라 해도 지금 직우는, 폐하가 기르는 「돼지토끼」를 산책시키는 일이다만"

"하인 취급인 건 너랑 지낼때랑 다를 바 없어. 저 폐하를 상대하다 보면 니가 그리워지더라. 꼭 좀 여기에도 놀러 와라"

루크 : 돼지토끼..... 산책.....

<아니스>

"야호~, 루크! 이쁜 아니스야. 뭐랄까, 너무나 무심해!"

"변함없이 이온 님은 맹하게 계시고, 주위에는 주름잡힌 영감밖에 없구. 아니스 이대로 가다간 노쳐녀 돼 버리겠어"

"그러니 루크가 간곡히 부탁한다면, 언젠라도 공작부인이 되어 줄게. 여비를 보내 준다면 놀러 갈 수도 있어♡"

"배는 호화객선 프린세스 나탈리아 호의 특별실로 부탁해♡"

루크 : 변함없이 눈이 어지럽군.....

[기술자의 마을 세리던, 집회소]

아스톤 : 무어야. 자네도 알비올을 빌리러 온겐가.

루크 : ...라니 누가 또 빌리러 왔었어요?

아스톤 : 자네와 똑같은..... 애쉬라 그랬었나.

루크 : !!

아스톤 : 끝끝내 조르기에 말이지. 3호기를 빌려줬다네.

루크 : 그게 언젠대요?

아스톤 : 1 달 전쯤이었나. — 그래 그래 외각 대지 강화작전 때 쯤이었다.

아스톤 : 라디에이트 게이트에 간다 그러더구먼.

루크 : (그러가..... 날 도와줬던 때문.....) 루크 : 그 다음은? 뭔가 말 안했어요? 어딜 간다라던가.....

아스톤 : 아니.....

노엘 : 애쉬 씨라면, 유리아 시티에 간다고 하셨었어요.

루크 : 영?

노엘 : 3 호기는 오빠인 긴지가 조종했었는데, 이 전 돌아온 다음 유리아 시티에 가신다고.....

아스톤 : 뭐어 그런 얘기라는 듯 하네. 그래서, 알비올 말이다만.

아스톤 : 노엘, 다녀올 수 있겠냐?

노엘 : 물론이죠.

루크 : 고맙다. 노엘한테 맨날 신세만 지는데, 나.

노엘 : 그렇지 않아요. 저는 원래 하늘을 나는 것이 좋기도 하고요, 같이 다닐 수 있어서 영광이네요.

노엘 : — 저, 알비올을 밖으로 꺼내 돌게요.

아스톤 : 그런데 어딜 갈 생각인가?

루크 : 모두를 만나고 오려고요.

유우 : 애쉬 씨를 따라가겠다면 유리아 시티로 가야 되염! 티아 씨도 계산 거예요!

루크 : 니 맘대로 정하지 마 임마.....

아스톤 : 무어야. 나는 플래닛 스톤 활성화 건 인줄만 알았네만.

루크 : 여기에도 말이 왔어?

아스톤 : 음. 지금은 아직 괜찮지만 이 이상 플래닛 스톤의 위력이 강해지면,

아스톤 : 타르타로스로는 지핵의 진동을 억누를 수 없게 될 지도 모르네.

루크 : 그러가..... 유리아 시티 가면 그 부분도 물어볼게요.

<페이스 채트 '유리아 시티로 가자'>

루크 : 애쉬 자식 유리아 시티에 뭘 볼일이 있는 거야.

유우 : 행방을 알아서 다행이에요.

루크 : 그렇군.

유우 : 유리아 시티에는 티아 씨도 계시니, 마침 잘 됐어염.

루크 : 뭐가 잘 됐는데.

유우 : 유우? 주인님, 티아 씨랑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루크 : 티아랑 만나고 싶기보다는, 모두랑.....

유우 : 티아 씨랑 만나구 싶으세요?

루크 : 티아 만이 아니라고 했지! 빨랑 가자고! 애쉬가 어딘가로 새면 또 귀찮을 거 아냐!

유우 : 유우? 왜 화를 내세요?

루크 : 뭔가 오늘 너, 쪼까 열받는다!!

유우 : 영문을 모르겠어염.....

[감시자의 도시 유리아 시티]

테오도로 : 오랜만이올시다, 루크 공.

루크 :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유리아 시티는 어때요? 혼란 좀 일었다 들었는데.

테오도로 : 유리아의 예언에서 벗어난 세계가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이 도시의 인간이 거기에 적응 할 수 있을 것인가.

테오도로 : 여러가지로 걱정을 했소만..... 뭐어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는 모양이외다.

테오도로 : 그런데, 오늘은 무슨 용무로?

루크 : 저기, 최근 애쉬가 찾아오지 않았나 해서.....

테오도로 : 아하, 그러면 얼마 전에 왔었지. 지핵(地核)으로 갈 방법이 없는지 묻더군요.

루크 : 지핵..... 요? 뭐하러.....

테오도로 : 로렐라이가 어떻게 된가.....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소만.

루크 : 로렐라이.....

「.....애쉬! 루크! 열쇠를 보내마! 그 열쇠로 나를 해방시켜 주었으면 한다!」

「.....영광을 잡는 자나를 잡기 위 나를」

루크 : (그 때 들었던 목소리와 상관있는 건가? 그래서 녀석이 바티칼로 돌아오지 않는 거고?)

유우 : 주인님? 왜 그러세요?

루크 : 아니..... 암것도 아냐.

테오도로 : 어쩌면 애쉬 공도 플래닛 스톤의 활성화를 신경쓰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소이다.

루크 : 지핵 진동이, 그렇게 위험한 상태입니까?

테오도로 : 아니요, 지금 당장 어떻게 되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테오도로 : 그 부분은 티아가 도사 이온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서류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테오도로 : 관심이 가신다면 티아에게 물어 주시구려.

<페이스 채트 '티아를 만나러 가자'>

루크 : 애쉬 자식,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녀석 이대로 바티칼엔 안 돌아올 셈일라나.....?

유우 : 모르겠어염.....

루크 : 지핵에 로렐라이에 플래닛 스톤이라.
역시 나 혼자선 암것도 모르겠다.

유우 : 티아 씨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염?

루크 :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는 모양이니,
분명 뭔가 단서를 쥐고 있겠지. 암튼 티아랑
만나봐야겠다.

유우 : 맞아염.

(시장 집 2 층의 티아 방으로 올라가 세레니아
꽃밭으로 나가자)

티아 : 고마워..... 오빠를 위해 기도해 줘서.

루크 :오랜만. 편지 고마웠다.

티아 : 으, 응응. 나, 편지는 처음이길래.

루크 :뭐, 개성적이더라.

티아 : 나 말이야. 지금 마침 오빠에게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루크 : 티아.....

티아 : 오빠는 예언을 없애기 위해 오리지널
인류를 버리려 했어.

티아 : 하지만 지금 이 세계로도 예언이 없는
세계를 만들 수는 있었을 거야.

티아 : 오빠는 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
했어? 루크의 방법에 무슨 잘못이 있었어...
라고.

티아 : 난 이 1 달간 계속 이런 식이었어. 안
되는데.....

루크 :나도 마찬가지야.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무서워지더라.

루크 : 난 저기 저택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은 애쉬니까.

루크 : 하지만 그 집에서 나간다면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를 알 수가 없어.

티아 : 어떻게라도 살아갈 수는 있어. 궁색하
더라도 노동을 해서.....

루크 : 그런 이야기는 알고 있다고!

루크 : 미안..... 그래도 내겐 원래는 이름이
없어. 가족도 없지. 텅 비었어.

루크 : 그래도 그 집에 있으면 루크라는 역할
이 있어. 적어도 불안해지진 않게 되니까.

티아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어두운 표정
을 짓고 있어. 정말 불안해 보여.

루크 :어머니 말대로냐. 나, 역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

루크 : 실은 집에서도 있을 곳이 없더라. 다들
날 복제라는 눈으로 보니까.

티아 :그랬구나. 하지만, 적어도 당신 어
머님께서 그런 분 아니셨지?

루크 : 그래도 애쉬가 돌아오면? 나 따윈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냐?

티아 : 당신, 나탈리아 일 때 인고벨트 폐하에
게 말씀드렸던 걸 잊은 거야?

티아 : 7년 간 함께 지냈던 기억은 진짜이지
아? 그건 당신 양친이시라도.....

루크 : 머리로는 안단 말야! 난 나라는 걸! 근
데..... 나라는 게 뭐냐고?

루크 : 선생이 그랬었지. 「무언가를 위해 태어
난 게 아니라면 살아갈 줄도 모르나?」라고.

루크 : 적어도 난 그래. 불안하다고. 난, 뭘 위
해 태어난 걸까 싶어서.

티아 :당신에게 있어서 그 여행은 뭐였
어? 달라지기 위한 여행 아니었어?

루크 :변하고 싶었어. 그래도 변하려면
먼저 「나」라는 게 필요하지. 그런데 내겐 원
래부터 「나」가 없었단니까.

루크 : 그니까 난, 「나 자신」을 찾지 않아선
안될 것 같아.

티아 : —— 정말로 당신에게 「당신」이 없는
지 모두에게 물어보면 돼.

루크 : 모두?

티아 : 같이 여행했던 모두들. 나도 같이 갈
게.

루크 : 그래도 너, 장기 때문에 몸이.....

티아 : 통증은 약으로 누를 수 있어. 장기는
이미 사라졌으니 이보다 더 나빠질 일도 없을
거구. 거기다.....

루크 : 거기다?

티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티아 : 마침, 보고서를 다아트에 보낼 임무가
있어. 다아트에는 아니스가 있겠지?

루크 : 알았어. 같이 가지. 그래도 무린 하지
말어.

티아 : 응. 고마워.

<페이스 채트 '오랜만의 티아'>

티아 : 후훗..... 루크, 유우. 오랜만이야.

유우 : 오랜만이예요.

루크 : 그래. 뭔가 한창 안 만났다는 느낌이
드는 게.

티아 : 맞아.

루크 : 하지만 뭐, 티아는 변함이 없구만.

티아 : 언제라도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두었으니까.

유우 : 유유?

티아 : 모든 대지가 강화된 뒤에도 무슨 일어
날 지 알 수 없었고..... 그런 때엔, 이 교단
복장 쪽이 여러모로 형편이 좋으니까.

루크 : 윈 소리야?

티아 : 응? 이 차림새 이야기 아니었어?

루크 : 하, 하하..... 진짜 달라진게 없다 야.
웬지 좀 마음이 놓이는데.

유우 : 후후후. 웬지 주인님, 조금 기운이 나
셨어염.

루크 : 여. 맘이 좀 편해졌단 느낌?

티아 : ???

<페이스 채트 '아니스의 근황은?'>

루크 : 아니스 갠, 변함 없을라나.

티아 : 변하다니?

루크 : 인생역전 어쩌고 하는 거 있자나.

티아 : 그거구나..... 다아트는 지금 여러가지
로 혼란스럽고, 도사 이온께서도 바쁘신 모양
이시니까.

티아 : 그러고 있을 여유는 없지 않을까.

루크 :편지를 보는 한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더라.

티아 :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 아니스도 폰
마스터 가디언(도사수호역)에 복귀한 참이니.

루크 : 그럼 내기하자.

티아 : 내기라니..... 뭘 걸고?

루크 : 유우 주인님 자리같은 건 어때.

티아 :! 받아 들일게!

유우 : 유우우우우우..... 제 의지는 무시하시
나 뉘염.....

[로렐라이 교단 총본산 다아트]

아니스 :그러니까야, 이 돌은 희생을 나
타내고 있는 거랍니다.

아니스 : 자, 이상을 기해 비석 설명은 끝내겠
습니다~야♡

순례자 : 감사했어요. 여기 설법비를.

(이렇게 아니스가 돈을 뜯고 있다...)

티아 : 아니스. 시설 밖에서 시주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잖니.

아니스 : 우와! 티아! 거기에 루크까지! 아
우..... 뭇 본걸로 해 줘어.

티아 : 안 돼.

아니스 : 아빠랑 엄마가 속아서 진 빚을 갚아
야 된대구. 응? 응?

루크 : 뭔가 엄청난데, 그 이야기.....

아니스 : 그렇지 루크? 불쌍하지?

아니스 : 덕분에 내 월급도 아빠네 월급도
저~연부 뺏기게 생겼다 뭐!

티아 : 그건 안된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렇다
해서 남을 속여도 되는 건 아니잖아?

아니스 :피이. 그럼 돌려주고 오면 되잖
아.

루크 : 어, 기다려 봐. 우리 이온 만날려고 그
러는데. 애기좀 해 주면 안되냐?

아니스 : 네~에. 그럼 교회에서 기다려 주십시
오~. 정말 사람 부러먹는 것 하구는.

아니스 : (중얼)아무 것도 모르는 주제에...

<페이스 채트 '간만의 아니스'>

루크 : 아니스도 웬지 변한 게 없다는 느낌이
구만.

유우 : 그러세염. 기운이 넘치세염.

티아 : 그렇다 해도, 규율을 깨고서 시주를 뜯
으려 하는 것은 좋지 않아.

루크 : 뭐, 조금 쪼미라면 괜찮지 않겠냐? 상
대도 납득하더라.

티아 : 안 돼. 속이는 것은 다를 바가 없으니
까.

유우 : 안돼염.

루크 : 알았어 알았어. 그건 그렇다 치고, 빚
이라~. 힘들어 보이더라 아니스.

티아 : 그러네. 양친께서 속으셨다고 그러던
데.....

루크 : 나중에 자세하게 얘길 들어보는 편이
나올라나.

티아 : 어떨까..... 그 애한테도 사정이 있을
텐데 말이야.

루크 : 그러냐. 사정을 너무 캐 묻는 것도 안
좋은가.....

티아 : 아무튼, 지금은 이온 님을 만나자.

루크 : 그러지.

[다아트 교회]

루크 : 야 저기, 모스는 어떻게 됐어?

티아 : 대영사 직에서 쫓겨났어. 지금은 청문
회를 위해 구류되어 있는 중이야.

루크 : 라는 건. 지금 로렐라이 교단의 최고
권력자는 누군데?

티아 : 지금도 옛날도 도사 이온.

루크 : 어, 그랬지. 웬지 모스 놈이 계속 거들
먹거리는 바람에 잊고 있었어.

아니스 :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스 : 아무튼 오래간만이야! 특히 루크!

아니스 : 편지 보냈는데 답장도 안 하구 뭐하
며 살았어?

루크 : 어, 응. 미안.....

아니스 : 이온 님도 걱정하고 계셨대구.
아니스 : 「반을 쓰러뜨린 것으로 루크가 답을
찾아냈다면 좋겠습니다만」 하고.

루크 : 아니..... 그건.....

아니스 : 증말, 꾸물거리기는~. 난 그럴 틈도
없는데.

아니스 : 변함없이 모두들 예언을 읽어 달라고

물려드니. 아무래도 종교 개혁같은 건 우리가 아닐까 하는 느낌.

루크 : 그래..... 아직 다들 예언을 듣고 싶어 하는 거냐.....

티아 : 마계에 떨어진 건 교단의 비예언(클로즈드 스코어)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니스 : 그래서 예언은 안 빛나갔다고 믿고서 들 말이지.

유우 : 이온 님, 힘드시겠어염.

루크 : 어. 그 녀석, 또 무리하다 쓰러지거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만.

아니스 : 그리고, 두 사람.....

유우 : 유우도 있어염.

아니스 : 나두 알아~. 세 사람 이온 님에게 볼 일 있는 거였지. 이온 님이라면 방에 가서.

루크 : 좋아, 갈까.

(이온의 방으로 간다)

이온 : 루크! 티아! 오랜만에예요.

루크 : 다행이다. 건강해 보이는데.

이온 : 예. 그 여행 이래로 다이어트 식 보솔을 쓸 일이 없어졌기에 건강이 나아졌답니다.
이온 : 당신은 좀 어떠세요?

아니스 : 아~ 뭔가 틀렸다는 느낌이더러구요 오?

루크 : 틀렸다고 말하지 마.

이온 : 아직 고민하고 계시는 모양이시죠.

루크 : 이온 님, 혹시 오리지널이 살아 있다면 어떻게 했을 거 같냐?

이온 : 애쉬 일이 신경 쓰이시나요?

루크 :신경 안 쓰일리가 없잖나.

이온 : 그럴군요. 저는.....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요.
이온 : 복제라는 존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활동이라고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루크 : 너 답다.....

이온 : 그 여행에서, 저는 누군가의 대신은 되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서야이지만요.

아니스 : . . .

티아 : 도사 이온. 플래닛 스톤 활성화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이온 : 제 7 음소 대량 소비..... 이게 플래닛 스톤(세븐스 포닝)이 활성화 된 원인인가요.

티아 : 네. 제 7 음소의 대량 소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원인이 불명입니다.

티아 : 그리고, 거기에도 적어 두었습니다만 플래닛 스톤 활성화는 오빠가 세웠던 계획의 일부였어요.

티아 : 최근, 업서브 게이트에 누군가가 침입했던 흔적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온 : 당신은 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티아 : 아니요, 오빠가..... 라기보다는 오빠가 남긴 계획이라 말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티아 : 복제 대지 계획의 망령이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루크 : 선생 계획이라..... 선생은 왜 철저하게 예언을 엿애려 했을던 걸까.

일동 : . . .

아니스 : 아우! 이온 님 슬슬 영사회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이온 : 그랬지요 참.
이온 : 미안해요. 시간이 없어서 버렸네요. 적어도 두 분 배웅이라도 하였습니다.

티아 : 그런! 너무 죄송해요.

이온 : 제가 배웅을 하고 싶어서요. 가지지요.

(교회를 나서면...)

루크 : 가이!?

가이 : 루크!? 왜 니가 여겼냐!?

루크 : 그건 내가 할 말야. 너, 뭐하던 중인데.

가이 : 아니, 그게..... 오호 도사 이온도 같이 계십니까. 잘 됐군.

이온 : 제게 무슨 말씀이라도?

가이 : 마르크트 귀족원 대표로 왔습니다.
가이 : 아쉽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정식적인 수속을 밟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온 : 시간도 없는 참이니 이 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온 : 무엇보다, 그것을 위해 제 벗이신 당신께서 파견되신 것이겠지요?

가이 : 잘 보셨습니다. 보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이 : 먼저 하나. 그란코크마 수용소에서 올라클 기사단의 디스트 향사(嚮士)가 탈옥했습니다.

가이 : 두 번째는 모스 일입니다. 디스트는 전 대영사 모스를 청문회로 호송하는 배를 습격한 모양.

가이 : 순항 중이던 마르크트 해군이 발견했을 때엔 배의 승무원은 전멸해 있었으며, 호송중이던 모스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티아 : 디스트가 모스를 빼냈다는 이야기일까.

가이 : 그렇게 되지. 아무튼 이상의 경위를 고려하여, 부디 주의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루크 : 업서브 게이트에서 선생의 검을 빼내 왔다는 것도 디스트일라나.....

가이 : 그런 일이 있었나?

루크 : 뭔가 꺼림칙한 느낌인데. 애쉬는 애쉬대로 로렐라이 일 같은 걸 조사하러 다니는 모양이고.

가이 : 애쉬라..... 그러고 보면 그 놈, 결국 바티칼엔 안 돌아갔더만.

루크 : 어떻게 알고 있어?

가이 : 요전 그란코크마에서 녀석을 만났다고. 가이 : 그 때 6 신장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는 충고를 받은 덕택에, 디스트의 탈옥에 가장 빨리 눈치를 찰 수 있었던 애기지.

루크 : 자식, 뭐 다른 말은 안 하던?

가이 : 듣고 보니. 센트비나에 간다 그러더군. 로렐라이 해방이 어찌고 그러면서.....

루크 : !!
루크 : 녀석도 로렐라이 목소리를 들었던 거다! 그 녀석은 의미를 이해했던 말야!?

티아 : 뭐가? 왜 그래 루크.

루크 : 난 센트비나 가야겠어! 애쉬를 쫓아가야지!

가이 : 원진 모르겠다만, 일단 애쉬를 따라가겠다면 같이 가자. 나도 폐하한테서 놈을 찾은 말을 들었거든.

루크 : 가이.....응, 고마워.

아니스 :저, 저기야, 이온 님.

이온 : 왜 그러시죠?

아니스 :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이온 : 혼자 따라가시려고요? 희한한 일이에요.

이온 : 물론 상관 없습니다. 저도 조금 마음에 걸리니까요. 애쉬의 말이.....

티아 : 그래요. '디스트'에게서 눈을 떼지 마라... 가 아니라 '6 신장'에게서 눈을 떼지 마라.....

티아 :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루크 : 좋아, 다들. 센트비나로 가자.

이온 : 여러분, 조심들 하세요.

<페이스 채트 '오랜만의 가이'>

가이 : 뭔가 황급한 재회였다만, 뭐 간만이다.

티아 : 응. 오랜만이야.

아니스 : 오랜만~.

루크 : 뭔가 이것저것 힘쓰고 다니는 모양인데.

가이 : 글세 말이다~. 피오니 폐하도 제이드도 사람을 어쩌나 부러먹는지 원..... 너네 집에서 하인 해먹었던 때가 덜 바빴을지도.

루크 : 하하하.

티아 : 그런데, 전 대영사와 디스트의 관계는 파악 안 됐어?

가이 : 너도 달라진 게 없구만~.

티아 : ??? 그래? 뭏 이야기야?

루크 : 아니라니께.....

가이 : 하하..... 어쨌든, 모스와 디스트는 현 시점에서는 단서 없음.

아니스 : 교단 번부로 돌아올 수도 없을테니 말이야. 어딜 간 걸까.

가이 : 애쉬 녀석이 알 지도 모르지. 만나서 얘길 해 보면 뭔가 알지 않겠냐.

루크 : 6 신장 일 만이 아냐.
루크 : 그 놈은 로렐라이에 대해서도, 선생의 계획에 대해서도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티아 :그러네. 센트비나로 서두르자.

루크 : 그래.

[성채도시 센트비나]

아버지 맥가반 : 루크! 또 머리를 잘랐나?

루크 : 예에?

아버지 맥가반 : 그랬군, 아가는 가발이였다. 무어가 머리카락 자라는 게 빠르다고.

아버지 맥가반 : 자네, 성격이 꼬마 제이드처럼 심술맞아 가는 게 아닌가?

일행 : ;;

티아 :애쉬였을 거야. 분명.

가이 : 그래도 그렇지 머리가 빨리 자란다니 변명도 참.

아니스 : 개, 의외로 개그맨일지두.

루크 : 저어, 나랑 꼭 닮은 애쉬란 놈 말인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아버지 맥가반 : 무어야, 그는 자네 쌍둥이 형제라도 되는 게였다.

아니스 : 어떤 의미로 일란성이죠.....

가이 : 애쉬가 듣는다면 화내겠다만.

루크 : 예에, 그런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녀석은.....

아버지 맥가반 : 슈레 언덕 아니겠냐. 거기 무너지지 않았는지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저것 묻더구먼.

아버지 맥가반 :무슨 일이 있었나? 나는 아들놈 만나러 갈 참이네만 이젠 됐는가?

티아 : 네. 감사했어요.

가이 : 슈레 언덕이러다. 잠깐 발을 옮겨 볼까.

루크 : 어, 응..... 그렇지.....

<페이스 채트 ' 내기 결과는? >

가이 : 그런 그걸고 티아도 아니스도 전혀 달라진 게 없구만.

아니스 : 피이~ 치이~. 난 키가 조금 컸구, 가슴도 늘었다구.

가이 :그, 그랬나..... 그거 실레했다.

루크 : 그래도 갈드를 향한 집착심은 안 변했지. 티아, 내기는 내가 이긴 거다.

티아 :아, 그럼 유우 주인님의 자리는.....

루크 : 계속 나네. 췌, 좀 더 좋은 걸 거는 거였는데.

가이 : 뭐야? 그런 내기를 걸었었냐? 이겨도 저도 루크는 아무렇지 않은 내기 아냐.

아니스 : 맞아. 어차피 하겠다면 파~악팍 1억 갈드 쫄 걸 것이지.

아니스 : 뭐랄까 그거라면 내가 받아들였을 텐데~.

루크 : 아무리 나라도 그렇지, 맘대로 그런 거액을 어떻게 움직이겠냐고.....

<페이스 채트 '루크 마음'>

가이 :그리고, 루크 저놈 왜 저리 꿈지락거리게 됐냐?

아니스 :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구.

티아 : 이전엔 때때로 자신을 몰아세우는 일도 있었지만.....

가이 : 뭐어.....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니다.

가이 : 자신이 복제이고, 애쉬가 있을 장소를 결과적으로 빼앗고 있다는 게 신경 쓰이는 건..... 음~, 단지 말야.....

아니스 : 단지..... 뭐?

가이 : 이온은, 자기가 복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도, 자신을 이온의 가짜라고 뒀하진 않았잖어.

티아 : 그러네..... 하지만 그런, 원래 이온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기도 하니까.....

가이 : 그래. 루크 경우에는 애쉬가 살아 있기에 그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다.

가이 : 바보지. 자신을 누군가의 「대신」이라 여겨 버리다니.

아니스 :자신이 한 사람 더 있다는, 그런 고민은 보통 하기 힘들어.

가이 : 그래 뭐. 하지만 실은 단순한 이야기라 생각한다. 자신이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가 — 그것 뿐인 거다만.

티아 : 우리들은, 루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걸까.

가이 : ...이런 건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선 안 되지. 그게 「인간」이란 거야.

(슈레 언덕으로 가자)

[슈레 언덕]

가이 : 있잖나, 루크. 혹시 너 애쉬와 만나는 게 무섭냐?

루크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가이 너는 금방 아는구만.

가이 : 그야 너랑은 인연이 기니.

루크 : 가이 넌..... 이전 올라버지 일이나 호드 일이나 그런 거 이대로도 상관 없는 거야?

가이 : 상관 있다 하면 혹시 뭐가 달라지냐?

루크 : 그건.....

가이 : 전쟁이었던 거다. 나 외에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있어.

가이 : 그에 비하면, 난 정말로 알고 싶었던 호드 전쟁의 속사정을 당사자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으니 말야.

가이 : 두번 다시 그런 피나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하는 게 훨씬 건설적인 거 아니겠어?

티아 : 가이는 그 여행으로 과거의 자신이란 결별했네.

가이 : 그렇게 될라나. 뭐어..... 맘에 남은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되는것도 아니니.

아니스 : 훌륭해♡ 역시 가이랄디어 백작님♡(와락)

가이 : 고 고맙다아아악.....

아니스 :아직도 안 나왔구나?

가이 : 미안하군. 갑자기 딱치면 마음의 준비라는 게.....

티아 :루크. 들어가자. 괜찮자?

루크 : 어. 무섭다는 소리나 해선 안되겠다. 가이도 극복했으니까.

가이 :비교는 거냐 그거.

[슈레 언덕 세피로트 관리유적]

아니스 : 우리 병사들이야!

루크 :죽어 있어.

티아 : 어떻게 된 거지? 6 신장이 죽어서 오라클 기사단은 재편성 중이야. 모든 부대가 다 대기중일 텐데.....

가이 : 애쉬가 여기 와 있다면 애쉬 명령 아닐까?

티아 : 애쉬도 군을 위반으로 특수사단에서 해임되어 있어.

루크 :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안으로 들어가자!

(안으로 들어가면.....)

리그렛 : 로렐라이의 열쇠를 넘겨주실까.

애쉬 :거절한다.

티아 : 교관님!?

(스타일리쉬하게 싸우는 루크 & 애쉬와 리그렛)

리그렛 : 반응이 느리구나. 티아.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몸에 익혀 두라고 가르쳤을 텐데.

티아 : 교관님..... 살아 계셨던 건가요.....

루크 : 그 눈사태에 휘말리고도 살아 있다니.....

리그렛 : 아리에타의 마물들에게 구조를 받아서 말이다.

리그렛 : 그러나 그 눈사태로 부상을 입는 바람에, 각하를 지킬 수가 없었어.....

리그렛 : 그러나 세계는 우리의 편을 들고 있다. 이번엔야말로 각하의 바람을 실현시켜 보이다!

애쉬 :하게 놔둘 것 같나.

리그렛 : 애쉬. 다음 번에는 로렐라이의 열쇠를 가져가겠다.

(리그렛 이탈)

티아 : 교관님 일행이 살아 있었다니..... 그럼 역시, 저 사람들은 오빠의 복제 대지계획을 계승할 생각인 걸까.....

루크 : 애쉬, 괜찮냐.

아니스 :변함없이 기분 나쁘게 사네.

가이 : 리그렛 일당이 살아있는 걸 알고 있었니?

애쉬 :리그렛 뿐만이 아니다. 6 신장이 모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티아 :이상해. 싱크는 지력으로 떨어져

갔는 걸. 그러고도 살아 있다면..... 오빠도.....

일행 : . . .

루크 : 설마 선생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지력을 조사했던 거야?

애쉬 :태평하기도 하군.

애쉬 : 네가 그 때 로렐라이와 이어져 있었다면..... 아니, 내가 음소화 되었던 것 뿐인가.

루크 : 기다려 애쉬! 윈 소리아 그게?

루크 : 그 때라니, 로렐라이가 해방시켜 달라던 목소리 말야? 그게 무슨 의미였는데?

애쉬 : 말 그대로다. 로렐라이는 같이게 됐던 거다.

티아 : 같혔다구? 어디에?

아니스 : 같히면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애쉬 : 온 세계 제 7 음소(세브스 포닝)의 총량이 줄어든다.

애쉬 : 그러면 그 만큼을 되찾기 위해 플래닛 스톤이 활성화 되어 제 7 음소를 대량으로 만들어 내지.

가이 : 잠깐. 그러면 지력의 진동이 심해져서, 타르타로스 만으로는 흔들림이 감당 안되는 거 아냐.

아니스 : 그럼 장기(障氣)도 부활? 그거 진짜 위험하네!

루크 : 야 애쉬, 로렐라이는 어디 갇혀있는 건데!

애쉬 :로렐라이가 말했을 텐데? 잘 생각해 내 봐라.

애쉬 : 그렇잖아도 난 네 뒷처리를 해먹고 있던 말이다! 이 이상 날 귀찮게 하지 마라. 도움 안 되는 복제가!

루크 : 말을 그렇게 해야 돼냐!

애쉬 : 시끄러!

가이 : 야 기다려! 황제 폐하가 네 이야기를 듣고 싶.....

가이 : 이런 이런. 머리에 피가 솟구치면 남 말을 안 듣게 되는 건 누구랑 똑같구만.

티아 : 그래도 어떻게 된 걸까?

티아 : 교관님이 복제 대지계획을 이어받고 있다면, 제 7 음소가 대량으로 소비되는 건 복제 제조가 그 원인일 텐데.

티아 : 아니면, 로렐라이가 어딘가에 갇힌 것도 계획의 일부였을까.

티아 : 그리고 교관님이 말씀하셨던 로렐라이 열쇠 이야기도 신경이 쓰여. 설마 유리아가 썼다면 열쇠를 말하는 건.....

아니스 : 애쉬라면 알지 않겠어? 쫓아가 보자.

아니스 : 차기도 한 모양이구 센트비나에 들를지도 몰라.

가이 : 그렇군. 야, 루크. 그런 표정 하지 말고 기운 좀 내.

루크 : 그런 얼굴?

가이 : 울 것 같은 얼굴 하고 있다고.

루크 : 아, 안 울어.

가이 : 알았어 알았어. 어쨌든 다시 정신 차려 나가자고.

루크 : 어.....

루크 : (애쉬한테 전해졌던 게 나한테는 전해지지 않았어..... 나, 역시 복제구만.....)

<페이스 채트 '살아있던 6 신장'>

가이 : 리그렛이 살아 있었을 줄은 말이다.....

아니스 : 그렇다는 건, 그 때 리그렛이란 같이 눈사태에 휘말렸던 아리에타나 라르고도.....

티아 : 살아 있다..... 고 생각할 수 있어.

아니스 : 우음~. 애쉬 말대로라면, 혹시 싱크나 수석총장도 살아있을지두.

티아 : 오빠의 생사에 상관없이, 교관님들이

복제를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티아 : 그 탓에 제 7 음소가 감소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가이 : 애쉬는 로탈라이가 같았기에 제 7 음소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거지.

아니스 : 애쉬한테 더 자세히 묻지 않음 안 되겠어.

티아 : 응. 서둘러서 애쉬를 쫓아가자.

가이 : 루크, 괜찮냐? 간다.

루크 : 어, 어어.....

가이 : 너..... 또 자기가 복제라서 애쉬보다 뒤떨어진다는 등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루크 : 그, 그런 건! 그런 게, 아냐.....

가이 : 그러냐. 그럼 됐다만.

루크 :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25)

[성채도시 센트비나]

제이드 : 서둘러 마차를 준비하라!

아니스 : 앗~ 대령님이네!?

제이드 : 아니 여러분. 오랜만이십니다.

루크 : 마침 잘 됐다. 제이드 애쉬 녀석 안 왔어? 다쳐 있을 건데.

제이드 : 아니오. 보지 못했습니다.
제이드 : 그리고, 혹시 거리에 왔었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본다면 접근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이 : 분명 굉장한 소란인데. 무슨 일 있었수?

제이드 : 우리 군의 케세드니아 방면 부대가 훈련 중에 습격을 받았습시다.
제이드 : 다만 이 도시도 부흥 중이니 말입니다. 지금 부상자를 수도까지 이송시키고 있습니다.

아니스 : 우와아!? 어디의 누가 무려 마르쿠트 정규군한테 덤벼드구요!?

제이드 : 그렇게 됐지 뭐니까. 얼마 전이었다면 킨라스카 군이었을 겁니다만.

루크 :나탈리아가 있었다면 바로 태클 걸었을 걸.

제이드 : 비밀로 해 주십시오.

아니스 : 대령님 걸보기는 무서워두 속은 유쾌한 사람이시네요♡

루크 : & 가이 : 속도 무서워.

(그 때 노인 맥가반이 혈레벌떡 뛰어온다)

아버지 맥가반 : 큰일 났네 제이드. 프링스가 다쳤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일행 : !!

루크 : 프링스라면 그 프링스 장군!?

아버지 맥가반 : 장군은 이미 수도로 반송되었을 걸세.

제이드 : 알겠습니다.

루크 : 제이드! 그란코크마로 간다면 데려다 줄게.

제이드 : 오호. 왜이십니까?

루크 : 그래도 그 사람한테 일단 신세도 졌었고 하니..... 역시 걱정돼서.

제이드 : 과연. 그럼 호의에 따르겠습니다.
제이드 : 저는 프링스 장군에게서 상황을 듣지 않아선 안 되니까요.

[물 위의 제국수도 그란코크마]

프링스 : 카티스 대령..... 여러분.....

루크 : 누워 있어야 되는 거 아냐!?

프링스 : 아닙니다..... 지금 잠들었다가는 두 번 다시 눈을 뜰 수 없겠지요.

루크 : 괜한 소리 하지 마!

제이드 : 군의 치유사(힐러)는?

프링스 : 아까까지 치료를 받긴 했습니다만..... 이미 늦었다는 모양입니다.

루크 : 그럴 수가.....

프링스 : 카티스 대령. 폐하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 군을 공격했던 군대에 대해.

제이드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프링스 : 우리 군을 습격해 온 것은 킨라스카의 군기를 세운 1 개 중대의 병력이었습니다.

루크 :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링스 : 그들은 제 5 음소(피프스 포님)을 사용한 보업(講業) 폭탄으로 우리 군의 측면에서부터 자폭 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티아 :도저히 정규군이 행할 범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프링스 : 예. 그들의 대다수는 병사라 생각되지 않는 경장 차림이었으며,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은 일부 뿐.
프링스 : 군기와 장비의 일부를 보자면 분명 킨라스카 군이었지만, 제게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티아 : 대령님! 장군님을 침대가 있는 장소로!

프링스 :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저를 수도원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아니스 : 그치만.....

제이드 : 데려가 주도록 하십시오. 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수도원으로 자동 이동)

프링스 : 저는 여기서 생탄절의 예언을 받았습시다. 하지만.....

프링스 : 마계(클리포드)에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루크 : 이 세계는, 유리아의 예언에서 벗어나 버렸으니까.....

프링스 : 예언에 나와 있지 않은 미래란 이렇거나 불안하면서..... 자유로운 것이었습니까.....

아니스 :자유?

프링스 :예... 조금 더 이 세계에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프링스 : ...그것은제 부대를 공격해 온 그 군대는 킨라스카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프링스 : 모두들, 생기가 없는 눈을 하고 있었지..... 마치...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루크 :응. 인고벨트 폐하도 나탈리아도 평화조약을 깨는 짓은 안 해.

프링스 : 루크 공..... 이 이상..... 킨라스카와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루크 :알았어.

프링스 :시조 유리아예언을 잃은 세계에그녀에게축복을.....

(프링스 낙명...)

아니스 : 예언이 없는 세계가 자유.....? 불안할 뿐일 텐데.

가이 : 그건 아니스 네 견해겠지.
가이 : 적어도 프링스 장군은 예언이 없는 세계에서 살아갈 방안을 찾아내려 하고 있었어.

티아 :역시 오빠는 틀려 있었어.

티아 : 적어도 예언이라는 주박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던 인간도 있었는 걸.

루크 :그런데도 정체도 모를 놈들한테 프링스 장군은.....

제이드 : 저는 이제부터 폐하를 알현하겠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루크도 동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루크 : 나? 괜장긴 한데.....

가이 : 왜 그래? 흐리멍덩하게.

루크 :나. 그 사람 좀 난감하더라.

아니스 : 왜? 엄청 부자잖아!

일행 : ::

가이 : 나도 애쉬 일을 보고하지 않아선 안 돼. 같이 가자.

(궁전 알현실로 가서 피오니를 만나자)

<페이스 채트 '지금 할 수 있는 일. 하지 않아선 안될 일'>

루크 :프링스 장군이 죽었는데도 바로 이것저것 하지 않음 안 되는 건가.

제이드 : 우리들은 살아 있습니다. 멈춰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이드 : 내버려 두면, 프링스 장군의 부대 때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누군가가 살해당할지도 모릅니다.

루크 : 죽음을 슬퍼할 시간도 없다는 거야?

티아 :글쎄. 차분하게 조용히 기도하고 싶다. 라는 마음은 이해 안 가는 게 아니지만.....

루크 : 그렇다면!

티아 : 사람의 죽음에 기도를 보내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이 세상을 떠난 인간과 결별하기 위해서야.
티아 : 당신 마음을 정리하는 건, 당신 스스로 밖에 할 수 없어.

루크 :어.

티아 : 당신이 언제까지고 마음의 정돈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같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티아 :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루크 :멈춰서지 말고, 할 일을 하라는 거겠지? 제발!

[그란코크마 궁전 알현실]

피오니 :그래. 아스란이 갔냐.

제이드 : 예. 따라서, 그를 통해 사건의 진위를 은밀히 킨라스카 왕국에 알아보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피오니 : 루크, 부탁할 수 있겠냐?

루크 : 내 말..... 들어 주거나 할란지.

아니스 : 무슨 소리야. 루크는 인고벨트 폐하의 조카잖아.

피오니 : 뭐야? 복제라 해서 따돌림이라도 당했다? 그럼 가이알디어와 함께 이 쪽에서 살래?

제이드 : 폐하. 웃을 수 없는 농담은 자제해 주십시오.

피오니 : 난 진심이었었는데 말야. 뭐 됐다. 루크, 자신을 좀 가지게.

피오니 : 너는 킨라스카와 마르쿠트 간에 평화조약을 맺게 했다고.

루크 :아. 예.

피오니 : 좋아, 부탁하지 루크. 다음은 애쉬 건인데.....

가이 : 예. 폐하 추측대로 그는 6 신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이 : 플래닛 스톰 활성화에 대해서도 예상은

내리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티아 : 황송합니다만 폐하께서는 왜 애쉬를 찾고 계시는지요?

피오니 : 로렐라이의 열쇠를 놓이 가지고 있다는 목격정보가 들어와서.
피오니 : 그게 있다면 플래닛 스톨 활성화를 억누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되어 났거든.

루크 : 그리고 보면 리그렛도 로렐라이의 열쇠가 어찌고 했었지.

티아 : 응. 교관님네도 로렐라이의 열쇠를 찾고 있는 걸까.

제이드 : 하나 가이 일행의 보고를 듣는 한은, 플래닛 스톨 활성화는 로렐라이가 어딘가에 봉인된 것이 원인이 되겠지요?
제이드 : 그것이 사실이라면, 열쇠보다도 먼저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루크 : 로렐라이 목소리라면 루크에게도 들리지? 뭐라고 말 안해?

루크 : 어..... 외각대지를 내려보면 때 이후로, 로렐라이 목소리는 안 들려.

티아 : 그 때엔 뭐라고 했는데?

루크 : 그니까..... 열쇠를 보내줬었어. 도와달라고. 그리고 영광을 잡는 자가 잡으려 하고 있구나 뭐라나.....

일동 : !!

가이 : 야! 그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다! 왜 지금까지 말 안했어?

루크 : 응..... 그래도, 의미를 모르겠길래.....

아니스 : 왜에!? 로렐라이가 「열쇠」라구 했다면, 로렐라이의 열쇠도 상상이 갈 만한 일이라구.

가이 : 그렇지. 그리고 반 일도.....

루크 : 반 일?

제이드 : 분명, 루크는 고대 이스파니아어를 모르셨지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이 :그랬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밖에 가르친 적 없었으니까.

루크 : 뭐, 원데? 무슨 소리들야?

티아 : 「영광을 잡는 자」란 고대 이스파니아어로 반데스테르카라 해.....

루크 : !!

제이드 : 분명 반은 플래닛 스톨 속으로 가라앉아 갔었지요. 도달할 곳은 지핵입니다.

루크 : 반 선생이 로렐라이를 가뒀다라는 뜻이야!?

티아 : 애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니, 로렐라이에게서 그렇게 들었던 거야.

루크 : 하지만 반 선생은 이미.....!

가이 : 아니, 모르는 일이다.

가이 : 애쉬 놓 말을 믿는다면 싱크가 살아있다는 게 되지? 그렇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냐.

피오니 : 루크. 넌 로렐라이의 열쇠를 받은 적 없나?

루크 : 그런 건..... 전혀.....

제이드 : 이상합니다. 로렐라이는 열쇠를 보내겠다고 했지요. 애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제이드 : 그렇다면, 루크에게 보내졌을 터인 열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가이 : 애쉬를 찾을 수 밖에 없겠다..... 그 녀석은 우리들 보다 상황을 잘 알고 있어.

티아 : 안 좋은 느낌이 들어.....

티아 :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데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파악하고 있

지 못하다니.

제이드 : 예.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확정할 수 있는 사실부터 짚어 나가기로 하십시오.
제이드 : 마르쿠트 군을 습격한 킨라스카 병사가 정규군이었던지 어떨지. 이것은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오니 : 이 쪽에서도 조사는 시키마. 제이드년 킨라스카의 동향을 확인한 후, 애쉬를 추적해라.
피오니 : 가이랄디어는.....

가이 : 저도 계속해서 제이드에게 협력할 수 없겠습니까?

피오니 :어릴 적 친구가 염려되나?

가이 : 뭐어..... 그런 셈이 됩니다.

피오니 : 괜찮겠지. 뒷 일 부탁한다.

아니스 : 그럼, 바티칼로 가는 거네요.
아니스 : 저, 이온 님 앞으로 편지 보내고 갈 테니까 도시 입구에서 기다려 주세요.

제이드 :
제이드 : 이제와서 편지..... 입니까. 뭐 좋습니다. 도시 입구에서 아니스를 기다릴까요.

<페이스 채트 '반이 살아있다!?'>

루크 : 선생이 로렐라이를 가뒀다라는 말일라나.....

제이드 : 로렐라이가 루크에게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때의 말에서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겠지요.

티아 : 애쉬는 계속 오빠를 추적하고 있었던 거구나.

루크 : 열쇠 일도 있어. 역시 애쉬와 만나서 이야기를.....

제이드 :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마르쿠트 군을 습격한 자들이 킨라스카 군이었던지 어떨지를 확인하십시오.
제이드 : 금방 알게 될 일이니 말입니다.

가이 : 그렇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애쉬를 찾아내려면 고생캐나 하게 될 거고.
가이 : 바티칼에서 딱 걸렸어, 라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으니 말이다.

티아 : 그래. 의문의 습격자들도 문제이니까, 지금은 그 쪽이 낫겠다고 생각해.

루크 : 알았어..... 바티칼이었지.

제이드 : 예. 갑시다.

(도시 입구로 향하면...)

아니스 : 아우~, 다들 너무 빨라~!

가이 : 벌써 편지 보내고 온 거냐?

아니스 : 확실히♡ 자, 바티칼로 가자.....
아니스 :근데. 어라야? 티아 얼굴 안 좋네? 괜찮아?

티아 : 아. 미안해. 설마 오빠까지 살아있을까하고 신경이 쓰여서.....

루크 : 티아.....

티아 :나쁜 동생이야. 난. 살아있어서 기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선 안 되는데도.
티아 : 오빠가 하려 하고 있는 짓을 생각하니, 불안해져.

루크 : 혹시 선생이 살아 있다면 이번엔야말로 티아 니가 의문으로 생각했던 걸 들을 수 있는 기회야. 그렇지?

가이 : 남 일이라면 그렇게 시점을 잘도 바꾸는구만.

루크 :미, 미안하다 그래. 언제까지고 복제라 신경 써서.

가이 : 웬지 모르게, 네가 폐하를 난감하게 여기는 이유를 알 것 같다.

루크 : 뭐, 원데.....!

가이 : 아니, 눈치 못 챘다면 됐어.
가이 : 그보다, 아까부터 왜 히죽히죽 거러.

제이드 : 아닙니다. 그리운 일이군~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티아 : 뭐가 말씀이세요?

제이드 : 디스트도 폐하를 아주 싫어했으니까요.

루크를 뺀 일행 : (웃는다)

루크 : 내가 디스트랑 마찬가지로 이거지.....

<페이스 채트 '교양은 중요!''>

가이 : 그래도 뚝뚝같은 하다면, 네게 고대 이스파니아어를 잘 가르쳐 줄 걸 그랬지.

루크 :됐어, 이제 와서. 내가 안 배우려한 것도 있으니.
루크 : 근본적으로, 포닉 언어만으로도 벽찼으니까. 배웠어도 익힐 수 있었을 지 어떨지.....

제이드 : 같은 문자를 써서, 많이 닳은 문법으로. 다른 발음을 하는 언어입니다.
제이드 : 자칫했다가는 양쪽 언어가 뒤섞여서, 말을 올바르게 할 수 없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루크 : 진짜냐..... 그런 어이없는 말을, 뭣하러 교양으로 배우지 않음 안 된다는 거야. 절라 찡나.....

제이드 :뭐어, 바른말 고운말을 쓸 줄 모른다는 것은, 지금과 그리 차이가 없으셨겠습니까만.

루크 : 미, 미안하게 됐수다!

<페이스 채트 '망설이는 아니스!''>

티아 : 아니스. 도사 이온께 뭐라고 보고했니?

아니스 : 응응? 아하, 프링스 장군 일이라던가, 마르쿠트 군을 덮친 의문의 군대 일이라던가.
아니스 : 이온 님도 아시고 싶지 않을까~ 해서.

티아 : 그러네. 이온 님께서도 프링스 장군과는 면식이 있으셨으니, 슬퍼하실 거야.

아니스 :으응.....

티아 : 장군님을 위해서라도, 범인을 특정해 내지 않으면.....

아니스 :저기, 티아.

티아 : 왜 그래.

아니스 :저기혹시 말인데.....

티아 : ?

아니스 :역시, 아무것도 아니야~. —— 자, 바티칼로 가자 가자!

티아 : 아니스?

[빛의 수도 바티칼, 궁전 앞]

루크 : 나탈리아가 귀국해 있다면 도움이 되겠는데 말야.....

나탈리아 : 부르셨는지요?

루크 : 우왓!? 너, 왜 여기.....

나탈리아 : 케세드니아 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랍니다. 그보다 마침 잘 되었어요! (덱석)

제이드 : 어이쿠.....!

나탈리아 : 어머니, 변함도 없이 태연하신 얼굴로! 어떻게 된 것이지요!
나탈리아 : 우리 킨라스카 군은 평화 조약에 의거해, 마르쿠트 군에 대한 군사활동을 일어난 적은 없사옵나지만.

제이드 : 아하, 역시 그러셨습니까.

나탈리아 : 역시 그러했습니다, 가 아니랍니
다!
나탈리아 : 케세드니아에서 마치 이 쪽이 나쁜
것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모두들 즐겨보기에,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나탈리아 : 설마 마르쿠트 군의 시위(示威) 행
동이신가요?

루크 : 그 얘길 하려고 온 거야 나탈리아. 비
공식으로 페하에게 말 좀 해주면 안되냐?

나탈리아 : 좋습니다. 아버님 방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사워요.

(인고벨트 6 세의 방으로 자동 이동)

나탈리아 :과연. 그런 사정이었는지요.

인고벨트 6 세 : 나는 마르쿠트 군을 공격하러
는 따위의 명령은 내린 적이 없네.

나탈리아 : 그렇사워요. 우리 나라는 무고하답
니다.

가이 : 그래도, 이렇게 되면 프링스 장군 부대
를 습격한 놈들은 대체 뭐냐고?

제이드 : 그 이야기입니다만, 프링스 장군은
정체불명의 군대가 죽은 사람과 같은 눈을 하
고 있었다 그랬지요.
제이드 : 저는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루크 : 어디 짚이는 데가 있어?

제이드 :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포미클리
실형에 의한 증상 중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
다.

제이드 : 6 신장이 암약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복제로 병사를 만들어 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루크 : 복제..... 나와 같이.....

인고벨트 6 세 :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복
제가 우리 나라의 이름을 사칭해 무슨 득이
있다고.

티아 : 킨라스카와 마르쿠트의 관계를 악화시
켜, 전쟁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는?

루크 : 그렇다면 완전 모스잖아 그런.

가이 : 그런가..... 디스트가 모스를 빼냈었지
아마.
가이 : 모스라면 예언을 재현시키기 위해 킨라
스카와 마르쿠트를 대립시키려는 수작을 저지
르고도 남는다.

나탈리아 : 아버님. 저를 다아트로 보내 주시
어요.

인고벨트 6 세 : 갑자기 왜 그러느냐.

나탈리아 : 저는, 그 여행 뒤로, 예언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사웁니다.
나탈리아 : 세계는 유리아의 예언에서 벗어났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언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아니스 : 그래. 역시 불안하구나.....

나탈리아 : 그러니, 예언을 어떻게 해 나갈지
국제적인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탈리아 : 이번 건이 모스의 소행이든 아니
든, 이 이상 예언을 이유로 한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거랍니다.
나탈리아 : 그것을 위해서는 도사의 힘이 필요
하게 되지요.

제이드 :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루크 : 그럴지. 애쉬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모스 행방도 알 수 없고.....

인고벨트 6 세 : 흠. 그럼 나탈리아. 여행을
허락하마.

나탈리아 :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니스 :다아트 가야 되는구나.

티아 : 그 편이 나올 거라 생각해. 오빠가 살
아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리는 편이 좋을
거야.

아니스 : 그건 편지로 알렸어. 그러니까, 관두
지 않을래?

루크 : 왜? 돌아가기 싫어?

아니스 :아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루크 : 좋아, 다아트로 가 볼까.

인고벨트 6 세 : 루크. 나탈리아를 부탁한다.

루크 : 아..... 예. 폐하.....

<페이스 채트 '예언이 없는 세계'>

가이 : 저기, 세계가 정말로 예언에서 떠나 살
수 있을거라 생각되냐?

아니스 :몇 개인가 선택지가 있고, 뭘 고
르면 될지 모를 때에, 예언은 정확한 답을 가
르쳐 주었어.

아니스 : 그게 없어진다는 건, 전부 자신이 생
각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겠네.

나탈리아 : 알 수 없사워요..... 예언은 정치에
까지 깊숙히 관련되어 있지요.

나탈리아 : 분명히 세계는 예언에서 벗어났
습니다. 우리들은 그 경위를 알고 있고요.

나탈리아 :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예언이 빚
나간 경위는 모르고 있는 것이니까요.....

아니스 : 그러기는 커녕 빛나갔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걸.

아니스 : 자, 예언 없이 살아가자~~ 하는 식
으로, 갑자기 바뀔 수 있을거라 생각은 안 들
어.

티아 : 예언은 인생의 이정표였으니까. 갑자기
조명 없이 어둠 속을 걸어가라 하는 것과 같
아.

루크 : 설령 예언에 의존하지 말자고 결정되더
라도, 그걸 받아들이게 될 때까지는 수십년은
그냥 걸릴지도 모르겠다.....

제이드 : 당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니까요.

<페이스 채트 '로렐라이의 열쇠는 어디에'>

제이드 : 로렐라이의 열쇠를 보낸다..... 라는
것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겠습니까.

티아 : 로렐라이의 열쇠는 전승에서 제 7 음소
(세븐스 포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티아 : 정말로 존재하고 있다면, 음소(포넴) 상
태로 분해해서 보낸 게 아닐지.....

가이 : 잘은 모르겠지만, 음소와 원소로 분해
된 물질이,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현상이 있을 수 있겠냐?

가이 : 생물은 분해된다면 당연히 죽겠지.

제이드 : 무기물이니, 재구성은..... 뭐 불가능
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제이드 : 입자로 변환 로렐라이의 열쇠가, 올
바르게 루크에게 전해질 것인지를 따진다면.

제이드 : 루크의 고유 진동수는 제 7 음소의
진동수와 동일하다고 로렐라이도 그렇게 말했
었으니까요.

티아 : 같은 음소끼리 끌어당기는 성질이 이용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제이드 : 예. 대놓고 말하자면, 루크와 애쉬,
그리고 로렐라이는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제이드 : 고유 진동수만을 놓고 보면 말입니
다. 불가능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가이 :? 난 역시 잘 모르겠지만, 말대로
열쇠를 주고받는 게 가능하다면은. 왜 루크는 받
은 적이 없는 건데?

티아 : 그것은 역시 애쉬에게 물을 수 밖에 없
다고 생각해.

가이 :결국 얘기가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
구만.

.....

제이드 :설마컨터미네이션 현상인
가? 아니..... 그럴리는 없나. 그래서 너무나
도 잔혹하지.....

(다아트로 가자)

[로렐라이 교단 총본산 다아트]

루크 : 티아!?

티아 :미, 미안해. 현기증이 조금 나
서.....

아니스 : 난, 이온 님 불러올게!

티아 : 괜찮아. 약효가 떨어진 것 뿐인 것 같
아.

루크 : 그래도.....

제이드 : 이상합니다. 약효가 다 된 것 뿐이라
면 그렇게까지 혈색이 나빠지지 않을 겁니다
만.

루크 : 어떻게 된 거야. 혹시 더 나빠졌나?

티아 : 그건 아니라 생각해. 장기를 흡수하지
않으면 악화되지 않을 병인 걸.

가이 : 아무튼, 교회까지 걸을 수 있겠어? 그
렇게 된다면 아니스가 설 곳을 마련해 놔
테니 말야.

티아 : 응..... 괜찮아. 고마워.

(교회로 이동한다)

이온 : 여러분! 티아가 쓰러졌다 들었는데
요.....

티아 : 이온 님.....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영
력을 꺼져 드려서.....

이온 :티아. 조금도 괜찮은 것처럼은 생
각되지 않는군요.

가이 : 그러고 보니 아니스는 어디 갔냐?

이온 : 어라, 먼저 루크네한테 돌아가 있겠다
고 말했습니까만.....

루크 : 온 적 없어.

이온 : 어쩔 수 없네요. 금방 돌아올 거라 생
각하니 먼저 제 방으로 가지지요.

(이온의 방으로 이동)

이온 : 이상하군요. 새로이 장기를 흡수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약해지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이드 : 플래닛 스톰에는 장기가 섞여 있을
우려도 있습니다만,
제이드 : 그 정도라면 음보대(音譜帶)를 빠져
나간 뒤 대기권 밖으로 이탈할 겁니다. 영향은
없으리라 추정됩니다만.....

루크 : 설마 플래닛 스톰 활성화 때문에, 또
장기가 발생하고 있는 건.....

나탈리아 : 역시 티아 몸에 축적된 장기의 소
거를 고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티아 : 그건 무리라고 베르켄드에서 들었잖아.
티아 : 그보다 나탈리아, 예언에 대한 회의
를 도사께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

나탈리아 : 그것은 그럴지만요.....

이온 : 저기 실은, 티아의 장기를 없앨 방법
에 짚이는 곳이 있어요.

나탈리아 : 그것은 그럴지만요.....

이온 : 저기 실은, 티아의 장기를 없앨 방법
에 짚이는 곳이 있어요.

일행 : !!

이온 : 다만,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저
의.....

아니스 : 이온 님! 큰일이예요!

이온 : 아니스. 어딜 다녀오신 건가요.

아니스 : 그게 말이죠, 밖에 큰일이 났어요!

루크 : 밖이 뭐 어쨌다고?

아니스 : 장기가 평~ 터져서 난리도 아니예요
오! 이온 님! 와 주세요!

티아 : 우리도 가자!

나탈리아 : 티아!
나탈리아 : 당신이 쓰러졌던 것은, 장기의 부

활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답니다. 여기 남아 계시어요.

티아 : 장기가 부활했다면 어디 있더라도 마친
가지야.

루크 : 우리한 소리만 해 대고.....

티아 : 그래도 사실인 걸.

루크 :알았어. 우리는 마.

티아 : 응. 고마워.

<페이스 채트 '장기'>

가이 : 또 장기가 솟아나다니, 대체 어떻게 돌
아가고 있는 거야.

제이드 : 장기가 소멸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새
어 나올 가능성이 0% 는 아니었습니다만.....

제이드 : 우발적인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
니다.

티아 : 어쨌든, 상황을 살펴보러 가요.

나탈리아 : 당신은 너무 우리를 하지 않는 편
이 좋지 않겠어요?

루크 : 그래. 또 쓰러질 거라고.

티아 : 어디에 있건 마찬가지로 했잖아. 나
보다, 장기가 지금은 중요해. 어서 가자.

(그러나 보진을 빠져나가자마자 마자 오라클 병사
들이 연장을 들이대며 환영해 주는데...?)

가이 : 뭐야!?

리그렛 : 움직이지 마라.

티아 : 리그렛 교관님!

루크 : 이게 무슨 짓거리야!?

리그렛 : 지금 너희들이 활동하면 곤란해서 말
이지.

리그렛 : 그리고 로렐라이의 열쇠에 대해서도
듣고 싶은 것이 있다. 양전히들 해 주실까.

(그 때 돌발상황이 일어나 틈이 생기지만.....)

리그렛 : 던지기로 이행하는 동작이 느리다고
하지 않았나! 같은 실수를 두번 씩 범하지 마.

티아 :큅.

아리에타 : 이온 님에게 뭘 시키려는 거야. 리
그렛.

리그렛 : 아리에타! 그 자리에서 비키렴!

아리에타 : 이온 님에게 제 7 보석의 예언을
다시 노래하게 시키겠다는 거 사실!?

티아 : 도사 이온에게 흑성예언(플래닛 스코
어)을 읽게 한다고? 그런 짓을 했다가는.....

아리에타 : 몸이 약한 이온 님은 죽어 버리시!
아리에타..... 그런 건 허락 못 해!

리그렛 : 모스를 동원시키기에는 그것이 가장
간단한 미끼야.

리그렛 : 네가 바라는 페레스 섬 부활을 위해
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야. 알겠지?

아리에타 : 루크! 이온 님은 아니스가 여기 교
회에 있는 세피로트로 데려갔어.

루크 : 아니스가!?

리그렛 : 아리에타! 배신하는 거니!?

아리에타 : 반 총장님은 이온 님을 안 죽이겠
다고 그랬는 걸! 날 배신한 건 리그렛들 쪽이
야!

제이드 : 루크! 저번의 비밀통로로 가십시오.
분명 아니스는 낚새가 이상했습니다.

루크 : 알았어. 아리에타, 고맙다!

<페이스 채트 '리그렛의 습격'>

나탈리아 : 리그렛이 노리는 바는 무엇일려나

요?

제이드 : 도사 이온에게 예언을 읽게 하는 것
은, 반의 의지를 거스르는 짓일 터입니다
만.....

가이 : 어. 거기다 신경 쓰이는 소리도 했었
지. 모스를 움직이게 할 미끼였나.....

루크 : 아무튼 이온네를 쫓아가야돼! 흑성 예
언을 읽기라도 한다면 진짜로 죽어 버릴 걸!

티아 : 아리에타도 도사 이온의 죽음은 바라고
있지 않았어. 6 신장도 지금은 완전한 통솔이
잡히고 있지 않나 봐.

제이드 : 그런 모양입니다. 어쨌든, 꾸물거리
고 있을 틈은 없습니다.

가이 : 아니스도 신경쓰이고 말이다.

루크 : 그래, 서두르자!

(전에 갔던 자레호 화산으로 통하는 도서실로
가자)

루크 : 거기 서!

이온 : 루크!

루크 : 왜 여기 모스가 있어! 그리고 아니스,
이게 대체 뭐하는 거야?

아니스 :그건.....

모스 : 에이..... 리그렛 년. 이런 애송이들도
막지 못할 줄은!
모스 : 아니스! 이 자리를 맡기겠다! 배반하면
올리버네 부부가 어떻게 될 지는 알고 있겠
지?

가이 : 야, 아니스! 올리버 씨들이 어떻게 됐
다는 거냐?

아니스 : 듣기 싫어! 난 원래부터 모스 님에게
이온 님에 대해 연락하는 게 일이었다구!

(아니스에게 '스파이' 의 칭호...)

제이드 : 기다리십시오!

.....

제이드 : 안되는군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티아 : 이 밖에 세피로트로 갈 방법은 없을까
요.

가이 : 야, 이것 좀 봐라.

루크 : 편지가 끼워져 있는데.....

"자레호 화산 분화구에 세피로트로 이어지는
길이 있음. 미안해요"

나탈리아 : 아니스가 쓴 것이군요. 모스의
저 말투를 보아 하니, 설마 양친께서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닐지.

제이드 : 그런 모양입니다.워, 원래부터 모스
의 스파이였을 겁니다만.

티아 : 어쨌든 지금은 아니스의 편지를 받고,
자레호 화산으로 가지요. 이온 님께 흑성예언
을 읽게 해서는 위험해요.

제이드 : 예. 이온 님께서는 복제이십니다.
제이드 : 흑성 예언을 읽으시면, 그 순간에 몸
안의 제 7 음소가 고갈되어 세상을 떠나시겠
지요.

루크 : 그렇군. 어떻게 해서라도 이온을 돕지
않음 안 돼!

(다시 아가의 그 자리로 돌아온다)

가이 : 아리에타가 없어져 있는데.....

티아 : 리그렛 교관님께서도..... 그 둘 어떻게
된 걸까.....

제이드 : 무승부가 됐더라도 시신은 남아있을
텐데 말입니다.

나탈리아 : 대령! 아리에타는 적이라고는 해도

우리들을 도왔고, 리그렛은 티아의 교관이었습
니다.

나탈리아 : 조금 더 단어를 선택하여 말씀하시
길.

제이드 : 이거 실례했습니다.

트리트하임 : 오오! 티아! 아리에타에게서 사
연은 들었네! 모스가 도사 이온을 끌어갔다
는 듯 하네만.....

티아 : 네. 이제부터 자레호 화산으로 구출하
러 갈 참입니다. 그런데 아리에타는.....

트리트하임 : 부상을 입었기에 올리버네 방에
서 쉬게 해 두었네.
트리트하임 : 그래도 사망했다던 리그렛이나
아리에타가 나타나고 장기가 부활되고..... 도
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건가.

루크 : 장기가 부활했다는 말은 진짜였군요?

트리트하임 : 응. 그 탓에 거리에 혼란이 일
고 있다.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트리트하임 : 우리도 서둘러서 화산으로 오라
클 기사단을 파견하겠네.

트리트하임 : 그렇지 참. 어딘가에서 올리버네
부부를 발견한다면, 즉시 돌아오라고 좀 전해
주게.

트리트하임 : 아리에타를 돌아보아 줄 사람이 없
단 말일세.

가이 : 그렇군. 이거 아니스네 양친이 인질로
잡혀있다는 선이 적당할 모양이다.

루크 : 그래, 어떻게 해 줘야겠지.

<페이스 채트 '배신의 아니스'>

나탈리아 : 설마 아니스와 모스가 연결되어 있
었다니.....

루크 : 뭔가 분명 사정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가이 : 아니스야 확실히 길을 가리쳐 줬다고.
이유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겠지.

제이드 :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이대로가
다가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겁니다.

티아 : 그래요. 복제이신 도사 이온께서 흑성
예언을 읽으시더라도 하신다면.....

나탈리아 : 알비올이라면 자레호 화산으로도
진입할 수 있사와요. 서두르지요!

루크 : 어. 이온..... 죽지 마라!

(밖으로 나오면 세상이 다시 장기 때문에 어두
컴컴해져 있다)

루크 : 제길! 이것도 로렐라이가 어디 감혀있
는 탓이란 말야!?

나탈리아 : 그렇다 한다면..... 반이 정말
로.....

티아 : 오빠..... 살아있는 거야?

티아 : 콜록!

나탈리아 : 티아! 괜찮아요?

티아 : 응..... 장기에 쏘인 것 뿐이야.

가이 : 티아 몸은, 장기가 부활될 걸 알고 있
었던 거다.

티아 : 난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은 어서 이온
님을 쫓아가야지.

루크 : 티아, 미안하다. 도움이 될 수 없어
서.....

티아 : 바보네. 그런 일을 신경쓰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그보다 서두르자.

(다아트를 나가려 하면...)

나탈리아 : 무엇이지요, 저것은!

티아 : 저, 저 사람은.....!

루크 : 이에론 씨!? 이럴 수가!

시민 : 됐으니까 비켜!

(퍼억)
나탈리아 : 정신 차리시와요.
제이드 :복제.....
루크 : 뭐라고?
제이드 : 그들은 복제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이드 : 이전, 복제를 군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정의 행동을 입력시킨다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이드 : 저들의 눈은, 그 때 피험자들의 그것과 많이 닮아 있군요.

마리 : 표적 발견. 포착하라.
가이 : 누나.....
루크 : 누나? 가이, 대체 무슨.....
가이 : 왜냐..... 어쩌서 누나가 저기 있어?
루크 : 가이? 왜 그래!?

티아 : 프링스 장군님도 계셔! 그란코크마에서 분명히 숨을 거두셨을 텐데!
나탈리아 : 그 밖에도 돌아가셨던 분들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대형 말대로 그들은 복제인 것이 틀림 없어요!

마리 : 모스 님의 명령이시다. 죽여라...
제이드 : 보슬로는 인간인을 휘말리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이드 : 출구 방향의 복제들 만들 처치하고, 이 자리를.....

가이 : 기다려 줘! 저기에는 내 누나가..... 마리 누나가 있어!!

제이드 : 복제입니다!
가이 : 그건 알아! 그래도.....

루크 : 복제라는 걸 안다 해도 이에온 씨들을 죽일 수 있을 리 없잖아.
제이드 : 그래서 모스의 생각대로입니다.

티아 : 제게..... 맡겨 주세요.
(보가로 복제 군단을 잠재우는 티아. 그라나...)
루크 : 티아!

티아 : 이렇게 많은 수를 잠재웠던 적은 없어.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할 거야. 어서 여기를 피하자!

[다아트 제 4 비석의 언덕]
루크 :젠장! 너무 많은 일이 차례대로 일어서 머리 속이 뒤죽박죽이야.

나탈리아 : 예언을 어찌고 할 상황이 아니게 되어 버렸사와요.

가이 : 설마 누나까지 복제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

티아 : 우리와 인연이 있는 복제를 만들어, 동요를 유발시킬 생각이었는지도 몰라.

루크 : 모스 자식, 어디까지 더러운 짓을.
제이드 : 허나, 효과적인 수단이기는 합니다.
루크 : 열받는 소리 하지 마!

제이드 : 이런 실례. 어찌 되었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온 님 구출입니다.
제이드 : 자칫하다가는 이온 님이 죽습니다.

루크 : 그랬지. 거기다 아니스 일도 맘에 걸려. 지금은 자레호 화산으로 빨리 가자.

<페이스 채트 '복제 병사들'>
제이드 : 설마, 저 정도의 복제를 만들 줄은.....
루크 : 죽어 버린 사람들의 복제를 병사로 내

세우다니.
가이 : 누나.....
제이드 : 가이. 그것은 복제입니다.
가이 :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다만..... 그래도.....

나탈리아 : 우리들이 주저할 것만을 노려서..... 이 무슨 악덕한.....!

제이드 : 다음에 우리들을 방해하려 든다면, 제거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루크 : 그럴 수가! 원가 좋은 방법 없는 거야.
제이드 : 또 다시, 티아에게 보가(謠歌)라도 부탁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는 한, 티아도 심하게 약해져 계십니다만.

루크 :망할.
티아 : 난 괜찮아. 또 습격해 온다면, 막아 보일게.
루크 : 말은 그렇게 해도.....

제이드 : 많은 일이 일어나 혼란스럽기는 합니 다만. 지금 우선해야 할 일은, 이온 님 구출입니다.
제이드 : 루크. 냉정을 잃지 마시길. 아시겠습니까?

티아 : 말씀대로야. 뭘 해야 뭘지를 영두에 두고 있어 줘.
루크 : 그래..... 가자. 자레호 화산으로.

(알비울을 탄 상태에서 화산 분화구로 진입하자)

[자레호 화산]
루크 :더운데. 숨이 막히겠어.

나탈리아 : 당연하답니다. 마게로 내려온 다음의 자레호 화산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하니깐요.....

가이 : 아무튼 패시지 링이 있는 쪽으로 행하면 되는 거 맞지.

유우 : 저, 세피로트 기척이 느껴져염.
루크 : 길 잃었을 땐 부탁한다, 유우.
유우 : 알겠어염.

<페이스 채트 '밀려드는 용암'>
루크 : 우악! 위험했다!!

티아 : 무사해? 제대로 맞는다면 화상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거야.

루크 : 가, 간신히..... 그래도, 닥쳐오는 용암이거 어떻게 안 몰라나.

티아 : 용암의 움직임을 잘 보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밖에 없겠어.

루크 : 첫, 짜증나는군..... 하늘이라도 날 수 있다면 좀 좋을까.....

.....
유우 : 유?

(진행하다 보면...)
가이 : 그래도 이거... 한 더위 하는데.....

제이드 : 화산 속이니 말입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목이나 폐가 익을 것 같습니다 그러.

루크 : 어떻게 제이드 당신은 그리 시원해 보이셔.

제이드 : 아닙니다. 더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만.

가이 :뭔가 열받는데.

티아 :전에 왔을 때보다 뜨거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탈리아 : 유우. 세피로트는 아직 멀었나요?
유우 : 으~응, 아직 조금 남았어염~.

티아 : 도착하기도 전에 이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아.

제이드 : 아니스의 속셈이 그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를 한번에 처치하겠다는.....

루크 : 제이드!!
제이드 : 농담입니다.
루크 : 나 참.....

제이드 : —— 받은 말입니다.
유우 : 여러분~, 이쪽이예염~!
제이드 :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우.

유우 : 네 예염!
루크 : 저놈은 쓸데없이 팔팔하구만.....
가이 : 제이드도 그렇고 유우도 그렇고 피곤한 스타일이다.....

(좀 더 진행하다 보면...)
루크 : 우와악!?
루크 : 뭐야 대체.....

티아 : 저기야.....
나탈리아 : 어머니! 드래곤이여요!

가이 : 화산 안에서 먹고 살다니 죽이는 생명력이군.

제이드 : 이대로 진행한다면 그와의 대결은 피할 수 없겠습니다. 아니, 그녀라 해야 할까요.

나탈리아 : 어머니, 대형. 드래곤의 성별을 아시는 것이신지?

제이드 : 브레스를 뿜는 모양으로.....
루크 : 세상에. 제이드는 진짜 모든 걸 다 아는구만.

제이드 :알 수 있다면 재미있겠군~ 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일행 : . . .
제이드 : 자, 가실까요.

가이 :그럴 줄 알았다.
티아 : 정말 그래.

(캡콤의 모 아케이드용 액션RPG 게임을 방불케 하는 스펙터클한 진행이 된다... 계속 진행하자)

<페이스 채트 '쿨한 사나이'>
루크 :맨날 더운 곳에 가게 된다 생각하는데 말야, 제이드 왠지 혼자서만 시원해지는 보슬이라도 쓰고 있는 거 아냐?

나탈리아 :그래요. 점점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사와요.

유우 : 치사하세염.....
제이드 : 허허 이것 참. 그런 재치있는 술수를 부릴 수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이 :아냐, 뭔가 비밀이 있을 거다..... 설마 그 옷에 비밀이.....

나탈리아 : 마르쿠트 군이 개발한 공냉복일지도 모르겠사와요.

루크 :벗어.
제이드 : 예?

가이 : 그래, 벗어.
나탈리아 : 네, 벗으시지요!

유우 : 벗~ 으~ 세~ 엠~.

제이드 :여, 여러분? 눈이 영금하십니까!? 잠깐, 무슨.....!

티아 :30 대 후반의 남성 군인을 벗기려 들다니 제정신들이 아니네. 더우니 그만들 해!

루크 & 가이 & 나탈리아 & 유우 : 핵!?

.....

제이드 : 후우.....

(진행해 나가면 예고한 대로 보스와 마주치게 된다)

티아 : 조심해! 올 거야!

루크 : 크!틈을 봐서 치고 들어가자! 지금이야! 간다!

<BOSS - 피어 브롱크>

본격적인 용가리. 물리공격의 파워가 높고 파이어 샷의 위력이 좋으므로 주의. 날아오르면 쏘는 뜻이니 조심하자. 보솔방어가 낮고 돌이라는 약점도 있으므로 제이드가 있다면 금방 잡을 수 있다. 땅과 불은 안 먹히니 자제하자.

유우 :조금 불쌍해염.

루크 : 그렇지..... 우리가 멋대로 저 녀석 집에 쳐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로.

제이드 :이온 님이 영려됩니다. 앞으로가 보십시오.

루크 :어.

<페이스 채트 '혹성예언'>

루크 : 있잖아, 혹성예언(플래닛 스코어)이란 건 대체 뭐야? 보통 예언과는 달라?

티아 : 혹성예언에는 별의 일생이 나와 있어. 제 7 보석(譜石)에 적혀있는 예언이 그거야.

루크 : 제 7 보석.....? 거기, 지핵에서 발견한 그건가!

티아 : 그래. 그 제 7 보석에 쓰여있는 혹성예언은, 조사, 즉 이온 님만이 읽으실 수 있어. 티아 :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걸려.....

루크 : 부담이라니..... 그 놈, 안 그래도 약해져 있는데 그런 짓을 시켜도 멀쩡하겠나?

티아 :괜찮을 리 없잖아.도사 이온.....

(보스를 물리쳤으면 계속 진행하자)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26)

[자레호 화산, 제 7 보석 앞]

이온 :

.....머지 않아 그것이 올드란트의 사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

ND 2019.

킬라스카 란발디어의 진영은 루그니카 평야를 북상하게 될 것이라. 군대는 인근의 마을을 유린하고 요새도시를 강탈한다. 이윽고 반 달이 걸려 이것을 함락시킨 킬라스카 군은 옥좌를 마지막 황제의 피로 더럽히고 드높이 승리의 함성을 외치리라.

ND 2020.

요새 도시에는 시신이 산처럼 쌓여 송장 냄새와 역병이 휩싸인다. 여기서 발생하는 병이 새로운 독을 날아 사람들이 차례차례 죽음에 이르리니. 이것이 마르쿠트의 최후가 된다. 이후 수십년에 걸쳐 번영을 누리는 킬라스카가 있으나 마르쿠트의 병이 기세를 더하여, 머

지 않아 한 사나이에 의해 국내로 전염되리라.

모스 : 너, 너희들.....!

루크 : 집어 치워, 이온! 그만해!

이온 :'성스러운 불꽃의 빛' 은 부정함 기의 정화를 바라며 킬라스카의 응기관도시로 향한다.

이온 : 거기서 비난받아 마땅할 힘을 이용해 구원의 방도를 찾아내리라.....

루크 : 이온 엄마! 정신차려!!

이온 : 루크..... 마지막의 그것은 내가 당신께 보내는 예언.....

이온 : 당신의 수많은 미래 중.....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거기 따르는 것은 본의가 아니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이온 : 저는 이런 것으로 밖에 당신께 협력할 수 없었니까요.....

루크 : 이 등신!! 지금까지도 계속 도와 줬었잖아! 그러니 이제부터도.....

이온 :루크. 그런 표정 하지 말아 주세요. 저를 대신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루크 : 안 그래! 다른 복제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같이 티글 숲에 갔었던 이온은 너 뿐이야!

이온 : 티아, 이 쪽으로.....

이온 : 제가.....당신의 장기(障氣)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티아 : 그런 짓을 한다면 도사께서는.....

이온 : 말했지요. 단 하나 당신을 도울 방법이 있다고요. 제 7 음소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이온 : 저의 제 7 음소가 괴리되어 가는 것에 맞춰, 당신의 오염된 제 7 음소도 같이 받아갈게요.

루크 : 이온!

이온 :괜찮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티아는..... 괜찮.....

아니스 :이온님.....

이온 : 이젠..... 저를 감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스.....

아니스 : 죄송해요, 이온 님! 저..... 저는.....

이온 :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제 가장..... 소중한.....

(이온 死去...)

아니스 :이온 님!

모스 : 크으..... 가장 잘 만들어진 복제라 해도, 역시 올바른 예언은 읽어 낼 수 없었나.....

루크 : 예언 예언 예언! 미친 놈 헛소리처럼! 그딴 게 뭐냐 된단 말야!!

모스 : 무엄한 소리 마라! 인류가 존속되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하단 말이다!

루크 : 그딴 게 없어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

(복제 병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모스 : 예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번영이 약속되어 있다! 그것을 무시할 필요가 있는가! 모스 : 나는 감시자다! 인류를 보호하고 이끄러 갈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스 : 나는 이 복제들을 써서, 유리아의 예언대로 반드시 전쟁을 일으켜 보이겠다. 그것이 단 하나 구제받을 길이다!

나탈리아 :어쩌면 좋지요. 저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올리버 : 그 사람들은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없다면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파멜라 : 여기서는 모스 님을 그냥 보내 주세요. 그러면 그들도 양전히 물러갈 거랍니다.

제이드 : 허나.....

제이드 :이미 놓쳐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나탈리아 : 그래도, 저렇게 많은 수의 복제를 만들어 내다니.....

가이 : 분명히 반이 남긴 포미클리의 복제 정보일 거다.

가이 : 그렇지 않다면, 호드 주민들의 복제까지 만들어 낼 수 있을리가 없어.

제이드 : 추측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아니스의 양친을 다아트로 모십시오.

제이드 : 아니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니스 :네.

[다아트 교회 타들린 부부의 방]

(찰싹)

아리에타 :이온 님을 죽였어! 아니스가 이온 님을 죽인 거야!

올리버 :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스는 저희들이 모스 님께 잡혀 있었던 탓에.....

아니스 : 아빠는 조용히 해 줘요!

아니스 : 그래..... 그래서 어쩔 건데? 음침해타!

아리에타 : 이온 님은 아리에타 은인. 엄마 원수 뿐만이 아니야. 아니스는 이온 님 원수야!

아리에타 : 아리에타는 아니스에게 결투를 신청할래!

아니스 :받아 줄께!

파멜라 : 아니스!

아니스 : 됐어! 이 지지배랑은 결판을 내야 되니까!

아리에타 : 장소는 나중에 임회인을 보내 알릴 거야. 도망갔다면 알아서 해!

파멜라 : 아니스! 결투라니 그만두렴.

파멜라 : 이야기로 이해할 수도 있잖니? 아리에타 님께서도 분명.....

아니스 : 엄마 조용히 해!

파멜라 : 아니스, 하지만.....

아니스 : 조용히 하라 했잖아!!

루크 : 기다려! 아니스!

티아 : 흠어져서 아니스를 찾아보자.

루크 : 그래.....

(흠어져서 아니스를 찾게 된다)

<페이스 채트 '아니스를 생각하다'>

루크 : 아니스..... 어디로 가 버린 거야. 난 아니스 재 마음을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루크 : 지금의 나는..... 자신의 책임에 짓눌릴 것만 같은 기분이라..... 루크 : 괜히 자기를 더 몰아 세우고 있는 거야..... 혼자 뒀다가는..... 절망에 빠지겠지. 찾아내야 돼.

(아니스는 예배당에 웅크리고 있으니 찾아가자)

루크 : 이런 데 있었냐.

루크 :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올리버 씨 네도.....

아니스 : 아빠랑 엄마 애긴 하지두 마!

루크 :있잖나, 아니스. 이번 일은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올리버 씨들이 인질로 잡혀 있었으니까.

아니스 : 그게 아냐! 나, 처음부터 이온 님을 속이고 있었어.

아니스 : 모스가 이온 님이 하는 일은 모두 연락하라 그러길래..... 계속 전부 보고하고 있었어.

아니스 : 전쟁을 막으려 하시던 것도..... 루크 네랑 같이 있던 것도..... 전부 다!

루크 : 아니스..... 그건.....

아니스 : 그러니까! 타르타로스가 습격을 받았던 것도, 6 신장이 매복하고 있던 것도 내 탓이란 말이야!

루크 : 그것도 부모님을 방패로 삼아서 그런 거였잖나.

아니스 :아빠 엄마, 사람 좋지?
아니스 : 내가 아주 작았을 때, 속아서 엄청난 빛을 떠안게 됐어. 거기에 모스가 끼어들었던 거야.
아니스 : 그래서 아빠네는 교회에서 거의 무임금 노동으로 일하게 됐구, 나도..... 모스 명령에 거스를 수 없었어.....

루크 :응.

아니스 : 계속 싫었어..... 이온님은 좀 너무 순진하다는 느낌이라, 속이는 게 괴로웠어.....

루크 : 그래.....

아니스 : 그래도 난..... 아빠도 엄마도 정말 좋았으니까..... 그래서.....

루크 : 아니스..... 잘 했다.

아니스 : 안 그래! 전혀 잘한 거 없어! 나..... 난..... 이온님을 죽이고 말았어.....!
아니스 : 이온님.....내 탓에..... 죽어 버렸어.....!

루크 :아니스. 이거..... 좋게.
루크 : 자레호 화산에서 주웠어. 이온이 읽은 예언의 보석.....

아니스 : 이온님의.....

(이온의 보석의 파편을 입수)

루크 :이제부터 어쩔 거냐? 다아트에 남을래?

아니스 :아니. 같이 갈게.
아니스 : 이온님이 살아 있었다면 루크네를 도우려 하셨을 테니까.

루크 : 알았어. 그럼 모두에게 돌아가자.

.....

제이드 :진정이 된 모양이십니다.

아니스 : 네, 대령님. 저, 모두랑 좀 더 같이 있으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나탈리아 : 아니스. 마음 굳세게 먹으시어요.

티아 : 이제부터 어쩌면 좋을까? 예언 건은, 교단 내부가 재편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티아 : 애쉬를 찾으려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아니스 : 나..... 이온님의 마지막 예언을 활용했으면 해.

가이 : 베르켄드에 장기를 없앨 정보가 있을 거란 거거냐.....

루크 : 그렇지. 모처럼 이온이 우리에게 남겨준 말이니까.

제이드 : 예에. 지금은 그 길밖에 없겠습니다.

나탈리아 : 하지만..... 조만간에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사옵나.

나탈리아 : 우리들은 반이 추구하고 있던, 예언을 들을 수 없는 세계를 피했지요.
나탈리아 : 그렇다고 해서..... 예언을 전부 긍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루크 : 예언을 어떻게 해 가야 되나, 라는 건가.

루크 : 어떻게 좀 사태를 진정시킨 뒤 회의에 서라도 얘기하고 싶은데.

나탈리아 : 그렇사옵나.

<페이스 채트 '후회'>

아니스 :이온님..... 저 때문에..... 죄송해요..... 겨우 몇 년밖에 못 사시구.....
아니스 :내가내가 죽을 걸.....내가 죽어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페이스 채트 '이온의 죽음'>

루크 :이온저 놈왜 흑성예언 따낼.....

나탈리아 : 아니스의 양친이 붙들려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이드 : 현명한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구출하려 올 것을 아시고서,
제이드 : 티아의 장기를 치료하시기 위해 자신이 소멸될 것을 상정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루크 :그런 걸, 티아가 안다면.....

가이 : 티아라면 눈치채고 있다 생각한다. 아니스랑 같이, 아까부터 계속 아무 말이 없군.

루크 :이온왜 목숨을 버리는 짓 따월..... 저 바보.....

나탈리아 : 루크, 탓할 상대가 틀려 있사옵나. 그 선택을 강요한 것은, 모스인 거랍니다.

루크 :그랬지. 그 자식..... 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놈을 용서 못해!

<페이스 채트 '이온이 남긴 것'>

루크 : 우린 예언을 부정했어. 그런 우리들이 이온의 예언에 의지하다니.....

티아 : 도사 이온께서는, 예언을 수많은 미래의 선택지 중 하나로 삼아 달라고 말씀하셨어. 티아 : 그 분 예언대로 행동하지 않아선 안 된다는 뜻은 아니야.

나탈리아 : 예언을 미래로 살려 가라는 뜻이어요.

나탈리아 :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닌, 가능성의 하나로써 판단자료로 삼아 달라는 말씀이셨지요.

아니스 : 이온님의 예언은 정확해. 루크, 믿지 못하겠어? 아니면 믿고 싶지 않은 거야?

루크 :아냐. 정확하다는 건 나도 알아. 믿고 있기에 바로, 이온 예언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래도.....

제이드 : 이게 성공하면 다음 번에도 예언에 의지하고 싶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시켰지요.

루크 : 이번만 이번만..... 그러면서, 계속 의지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냐고?

아니스 :그럼, 이온님 말씀을 무시할 거야? 무턱대고, 그러지는 말아 줘.

루크 :그러진 않을 거다. 그냥..... 이상과 현실 앞에서, 자신이 초조한 것 뿐야.....

<페이스 채트 '엇갈리는 두 사람'>

나탈리아 : 아리에타는 정말로 이온을 좋아하였던 것이군요.

티아 : 아니스도야. 다만 두 사람이 사모하고 있던 이온님께서, 각각 다른 분이셨어.

루크 : 이온은 복제였으니까. 아리에타의 이온은, 이미 옛날에.....

나탈리아 : 슬픈 일이라니. 오해와 엇갈림을 안은 채 결투라니.....

.....

제이드 :루크와 애쉬에게도 일어났을 지 모르는 사례입니다.

가이 : 나탈리아와 티아냐..... 그 말대로군.

제이드 : 제가 저지른 짓입니다만..... 포미클리는 죄 많은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서브 이벤트가 많이 발생한다.)

알비를 강화, 코스튬 입수, 드래곤 버스터, 네비빌 이벤트, 버섯 로드 등...)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충분히 살폈다고 생각하면 베르켄드로 가자)

[음기관도시 베르켄드]

(들어가지 마자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된다)

티아 : 정신 차리세요!
티아 : 이미 늦었어? 어째서.....

병사 :이걸로 오늘은 세 사람째군.

나탈리아 : 어떻게 된 일이지요?

병사 : 요 며칠 새, 돌연사(突然死)가 늘고 있어.
병사 : 아무래도 로렐라이 교단에 예언을 들으러 다녀온 직후에 쓰러지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다.
병사 : 치유사(힐러)님들도 못 고친다는 걸 보니, 부상이 아니고 병이려나.....

아니스 : 이상해. 지금 교단에선, 예언을 읽는 게 중지되었을 거라구. 이온님이 그렇게 정하셨을 텐데.....

병사 : 아니, 그게 이 장기라는 게 나오기 조금 전부터 재개되었다고.
병사 : 여행하는 예언사(스코어러)가 각지를 돌아다닌다더군. 나도 예언을 들었지.

티아 : 그 예언사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병사 : 글썄..... 바티칼 쪽으로 간다 그러던가.

제이드 : 방금 그것은 포미클리로 복제 정보를 뺐힌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이 : 어떻게 그렇다는 걸 아는데?

제이드 : 실험에서는 정보를 뺐힌 오리지널(피험자)이 일주일 뒤에 사망, 혹은 장애를 일으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이드 : 방금 전과 포미클리 피험자의 죽는 모양이, 상당히 닮아 있었습니다.

루크 : 확실히 신경이 쓰이는데. 혹시 진짜로 복제 정보를 뺐고 있다면, 그만두게 해야 돼.
루크 : 더 이상 나와 애쉬 같은 관계는 생겨나지 않는 편이 당연히 좋을 테니까.

가이 : 스피노자에게서 말을 듣고 나서 여행하는 예언사라는 걸 찾아 볼까.

<페이스 채트 '오리지널의 죽음, 복제의 의미'>

루크 : 복제 정보를 뺐힌 인간은 사람은 죽어 버리는 건가.

제이드 : 그렇게 되는 오리지널도 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쉬처럼 말이지요. 뭐라 해도...

루크 : 뭐라 해도, 원데?

제이드 : 아니오, 그만 두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상 복제를 만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이드 : 오리지널을 위해서도, 복제를 위해서도.

루크 : 어. 그렇게 생각해.

제이드 : 일단은 장기(障氣)입니다. 스피노자에게 묻는다면 원가를 알게 될 지도 모릅니다.

루크 : 애쉬나 로렐라이일도 의문 투성이니까. 적어도 장기 일은 깨끗하게 해결해 버려야겠지.

제이드 :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라고나 할까요.

루크 : 그래. 결국, 우리들은 그것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음기관 연구소로 가서 스피노자를 찾자)

[베르켄드 제 1 음기관 연구소]

스피노자 : 오오, 이번에는 자네들인가! 그래도 이것 참 큰일이 났구먼.

가이 : 역시 타르타로스가 억누르지 못할 정도로 지핵의 진동이 심해지고 있는 거요?

스피노자 : 음,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대지가 액상화(液狀化) 될지도 모르네.

루크 : 장기에 액상화..... 또 원래 마계(클리포드)로 돌아가 버린단 얘인가.

가이 : 패시지 링이 정지되어 있으니 이젠 디바이딩 라인도 못 만들어 내고 말이다.....

루크 : 역시 봉인시키는 것 말고 장기의 근본적인 소멸을 생각하는 편이 나을라나.

스피노자 : 그것 말이네만. 루크 자네 초진동은 어떤가.

루크 : 초진동으로 장기를 없애려고? 그런 건 불가능 하지.....

스피노자 : 초진동에는 물질을 원자 수준까지 분해시킬 힘이 있어. 나는 초진동 전문은 아니지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연구원 : 액제류스가 소멸되었을 때의 초진동을 단순계산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힘이라는 뜻 하니 말씀입니다.

루크 & 제이드 : . . .

제이드 : 그러고 보니 방금 전 말씀하시는 투로는 먼저 온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스피노자 : 아아. 애쉬였네. 외각 강하대의 제 7 음소의 흐름이라는 걸 조사하고 있었네만.....

나탈리아 : 애쉬!? 애쉬가 여기 와 있었던 것 인지요?

루크 : 농은 지금 어디야?

스피노자 : 여기서 측정하고 있던 세피로트의 정보를 뚫어지게 들여다 보고 있었는데.....

연구원 : 그것은 로닐 설산(雪山)의 정보였지요.

제이드 : 가 보시겠습니까?

루크 : 그러자. 바티칼은 나중으로 돌리고 애쉬를 쫓아가야겠어.

<페이스 채트 '애쉬를 쫓아서'>

루크 : 나중으로 미루려 했더니만, 애쉬 자식이 튀어나오질 않나.
제이드 : 예언 문제가 엮이면 6 신장이나 모스가 나타나고! 로렐라이 열쇠에 대해서도 몰라!
루크 : 장기를 어떻게 할 방법도 떠오르질 않는구만! 뭇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야 이거.....

가이 : 정말이다. 루크 니가 아니라도 머리가 혼란스러워 지겠어.

제이드 : 그 각각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티아 : 무슨 뜻이세요? 대령님.

제이드 : 각각 개별적인 일이라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제이드 : 장기, 제 7 음소, 복제, 예언, 로렐라이..... 이것들 모두에 관련이 있는 애쉬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겠지요.

나탈리아 : 그것은 억측, 이시겠지요?

아니스 : 대령님이 억측으로 이야기를 하시다니 화한해요~.

제이드 : 라고, 말하는 편이 모적지를 결정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루크 : 이리저리 생각만 말고, 애쉬를 쫓자는 뜻야?

가이 : 뭐, 분명 슬슬 애쉬에게서 말을 듣지 못한다면 정보도 없는 셈이니 말이다.

나탈리아 : 이대로 바티칼로 돌아가더라도, 현재의 혼란을 타개할 방도는 없답니다.....

나탈리아 : 예언의 취급을 극적으로 결정하

는 것 같은 일은 가능할 것 같지 않사와요.

루크 : 지금은 애쉬를 추적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거구만.

제이드 : 그런 뜻이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 효율 좋게 생각해 행동하십시오.

티아 : 그렇네요. 일단은 로닐 설산으로 가 보지요.

(연구소를 나오면...)

루크 : 제이드. 아까 전 장기와 초진동 얘기 말인데.....

제이드 :허튼 소리입니다. 잊으십시오.

루크 : 그래도 그걸로 장기를 중화시킬 수 있다면.....

제이드 : 잊으셨습니까? 당신은 복제이기에, 초진동을 제대로 제어하실 수도 없습니다.
제이드 : 자칫하다가는, 당신이 죽습니다.

루크 : 그럼, 애쉬라면 할 수 있어?
루크 : 혹시 로닐 설산에 애쉬가 있다면, 녀석에게 부탁해서.....

제이드 : 실례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한 모양입니다.
제이드 : 오리지널이라 해도, 특성 하나를 덮고 있는 장기를 소멸시킬 수 있을만한 초진동은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제이드 : 힘을 증폭시킬 수 있을 무언가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만.

루크 : 증폭시킬 수 있을 거라니, 예를 들면?

제이드 : 끈덕진 분이십니다 그러.
제이드 :즉 초진동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걸릴 몸의 부담을 감소시킬 것이 있으면 됩니다.

루크 : 감질나게 만드네! 그래서 뭐냐고?

제이드 : 한 가지는 로렐라이의 검입니다. 그것이라면 많은 양의 제 7 음소를 자신의 곁으로 모아들일 수 있습니다.

루크 : 또 하나는?

제이드 : 대량의 제 7 음소 확보입니다.
제이드 : 그렇군요..... 제 7 음소술사, 혹은 그 소양이 있는 인간을 대충 1만 명쯤 죽이면 어떻게 될 지도 모릅니다.

루크 : !!

제이드 : 물론 초진동을 쓰는 인간도 반동으로 음소의 괴리를 일으켜 죽을 겁니다.
제이드 : 1만 명의 희생으로 장기가 사라진다.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남는 장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루크 : 그런 건.....

제이드 : 예. 우리입니다. 그래서 잊으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페이스 채트 '장기를 없애기 위한 대가'>

루크 :

제이드 :아직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루크 : 제이드.....

제이드 : 가이네가 염려하고 계십니다. 루크가 어울리지도 않게 생각에 잠겨있다고 말입니다.

루크 : 1만명 제 7 음소술사(세븐스 포니머)의 희생.....? 그런 짓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장기를 없앨 수 없다는 건가.....

제이드 : 호오..... 비꼬기에도 반응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루크 : 제이드! 그래도 그 왜엔.....

제이드 : 1 만명을 죽이기.

루크 :

제이드 : 액제류스를 소멸시키고, 세리던의 모

두를 다치게 했는데.
제이드 : 공공의 「적」으로 분류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해쳐서, 이 이상 더 그 손을 피로 물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루크 : 그건.....

제이드 : 그만 두십시오. 당신에게는 우리입니다.

.....

루크 : 그래도, 이걸 이온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예언이야..... 이온한테 그 다음의 미래도 보이고 있었겠지.....
루크 : 가르쳐 줘, 이온! 너라면 이런 때 어쩔 거냐?

<페이스 채트 '비약!?'>

제이드 : 으~음.....

루크 : 뭐 하고 있어? 제이드가 고민을 하다니, 내일은 사막에 눈이 내리겠군.

제이드 : 실례이시군요. 저는 항상 고민이 많은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티아 : 하지만, 희한하신 건 사실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이드 : 약을 조합하고 있었습니다.

티아 : 약이요?

제이드 : 몸이 마비된 다음, 일정시간 동안 가사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심폐기능을 정지시켜서.....

루크 : 잠깐 스톱. 그딴 걸 만들어서 어따 쓸라고.

제이드 : 아아~ 단순한 호기심입니다만.

티아 :사, 사람에게는 쓰시지 말아 주세요.

제이드 : 이런, 대인용이었습디만..... 식사에 섞어도 약효가 좋도록 개량을 시키기 위해.....

루크 :나, 저 인간이 지은 밥 먹기 싫다...

티아 :마, 맞아.

(로닐 설산으로 가자)

[로닐 설산]

루크 : 애쉬 녀석 진짜 여기 있을라나.
루크 : 적어도 내가 그 농한데 동신을 보낼 수 있다면 좋겠는데.

가이 : 어쩔 수 없지 뭐. 어쨌든 안쪽 세피로트까지 가 보게.

노와르 : 어머니. 아가들도 로렐라이의 보주(寶珠)를 찾으러 왔어?

루크 : 어떻게 너네들이 로렐라이 보주에 대해 아는 거야!

요크 : 그야, 애쉬 형씨가 시끄러워서 말이지.

우르시 : 맥이 보주를 손에 넣지 못했다면서, 애쉬 형님이 화를 내셨습디다요.

나탈리아 :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기에 애쉬가 있는 것이가요!

노와르 : 어머니. 저 쪽도 나탈리아 나탈리아 시끄럽더니. 여기도 애쉬 애쉬 말이 많네.

요크 : 나탈리아가 60%. 복제가 30%. 나머지는 반. 애쉬 형씨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야.

아니스 :뭔가 상상이 가.

제이드 : 동감입니다.

가이 : 아, 암튼 애쉬는 있는 거지?

노와르 : 안에서 보주를 찾고 있어. 우리는 여

가서 대기이지.

루크 : 애쉬를 쫓아가자! 이번에는 말로 녀석과 손을 잡자고!

노와르 : 입씨름을 할 게 안 봐도 비디오이겠지만.....

<페이스 채트 '로렐라이의 검'>

나탈리아 : 애쉬는 로렐라이의 검을 전해 받은 모양이셔요.

제이드 : 그렇습니다.

나탈리아 : 칠흑의 날개의 말을 생각하자면, 애쉬의 열쇠는 로렐라이의 검..... 일치요?

가이 : 애쉬는 지금 보주를 찾고 있다잖나. 녀석이 가진 건 검이겠지.

루크 : 로렐라이의 검..... 제 7 음소를 모을 수 있는 검.....

제이드 :

나탈리아 : 어머니, 대령. 상당히 큰 한숨을 쉬시는군요.

제이드 :실례. 말을 안 듣는 애는 싫은 법이라.

가이 : 너, 뭔가 승질나게 할 만한 짓이라도 했냐? 제이드가 지런 태도를 보이다니 별일이 구만.

나탈리아 : 들을 필요도 없사와요. 루크가 잘못을 한 것이랍니다.

.....

루크 :난 이렇게 신용이 없다니까.....
루크 : (말대로 이겠지만)

(세피로트 관리시설로 통하는 입구에 접근하면...)

나탈리아 : 결국, 여기서 눈사태에 휘말렸던 사람은 모두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되는군요.

가이 : 그렇게 되지.

티아 : 교관님들은 왜 모스에게 협력을 하는 걸까. 모스와 오빠의 목적은 달랐을 텐데.....

제이드 : 그래도, 이전부터 협력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제이드 : 이해가 일치하는 때에는 손을 잡는다.....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스 : 적어도 모스는 6 신장을 부하로 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 6 신장 쪽은 안 그런 것 같았지만.

(그 때 루크가 뭔가를 눈속에서 줍는다)

루크 : (뭐야, 이거?)
루크 : 신력 1999 년. 나의 딸 메릴 탄생을 기념하여.....?!!

가이 :왜 그래 루크? 뭐 찾아냈냐?

루크 : 아, 아니, 그냥 쓰레기.

가이 :흐~음.

루크 : (메릴이라면 나탈리아의 본명이었지? 태어난 해도 같고..... 우연인가?)

나탈리아 : 미안해요. 제가 괜한 이야기를 꺼내서, 진행을 늦추었네요. 갈 길을 서두르지요.

(로켓 펜던트를 손에 넣는다. 노파심에서 말하지만 rocket 이 아닌 locke 입니다)

[로널 설산 세피로트 관리시설]

<페이스 채트 '나탈리아의 생일'>

루크 :나탈리아 생일 말인데, 1999 년 렘의 달이었지.

나탈리아 : 네. 어머, 선물이라도 하시려고요?

루크 : 응?

가이 : 그러고 보니, 딱 나탈리아 생일 즈음에는 마르쿠트 영토를 돌아다니고 있었지.

루크 : 아, 그런가..... 티아랑 같이 날려갔던 때 바로 다음 쫓 되니까.....

나탈리아 : 뭐어. 근사한 선물을 기대하고 있겠사와요.

루크 : (중얼)로켓의 날짜를 확인하려면 것 뿐인디.....

가이 : 로켓?

루크 : 왁..... 아, 암것도 아냐!

(패시지 링 관리장치로 가면 애쉬가 있다)

애쉬 :여기에도 보주의 기척은 없나.

루크 : 혹시 그 검 로렐라이 열쇠냐?

애쉬 : 또 너희들인가.

나탈리아 : 애쉬, 가르쳐 주시어요. 로렐라이는 어디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받은 살아있나요?

루크 : 너라면 로렐라이랑 연락을 취할 수 있지? 로렐라이가 어디 있는지 알지 않아?

애쉬 :아니, 외각 대지가 내려온 날부터 로렐라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불러도 응하지 않더군.

루크 : 진짜인 너도 안되는 거였나.....

가이 : 그렇다면 네가 아는 걸 말해줄 수 없냐?

나탈리아 : 애쉬, 부탁드리겠사와요!

애쉬 : 원래부터 로렐라이는, 지핵(地核)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다.
애쉬 : 나나 루크에게 접촉을 시도했던 것도, 지핵에 머무르는 것으로 인해 이 별에 약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듯 하더군.

제이드 : 확실히 티아의 몸에 옮겨 왔었던 로렐라이는 그런 말을 했었지요.

나탈리아 : 그렇다면, 로렐라이가 갇혀 있는 장소는 지핵인 것이지요?

애쉬 : 아니야. 지금은 없다. 로렐라이는 너희들이 받은 쓰러뜨린 다음부터 지핵에서 사라졌다.

루크 : 그럼 어디에.....

애쉬 :녀석은 나와의 마지막 접촉에서 이렇게 말했다. 반 안에 봉인되었다, 라고.

티아 : 오빠는 살아있는 거구나!

아니스 : 그치만 그 때 총장은 굉장한 증상이었다구. 그 상태로 어떻게.....

애쉬 : 거기까지는 나도 모른다. 어쨌든 받은 로렐라이를 몸 안에 끌어들었다는 거다.
애쉬 : 제 7 음소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 그것이 반에게 좋게 작용한 것 아니겠냐?

가이 : 혹시 그렇다면 로렐라이의 해방이란 반에게서 해방시키라는 이야기가 되나?

애쉬 : 그래.
애쉬 : 로렐라이는 올드란트의 총력을 떠나, 음보대(音譜帶)의 7 번째 층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애쉬 : 그것을 위해 나는 로렐라이의 보주를 찾고 있는 거다. 이 검에 끼운 보주가 없어서야 검이 열쇠로 기능할 수 없기에 말이다.

루크 : 그런가..... 로렐라이의 열쇠로 해방시켜 달라고 그랬었지.

티아 : 우리의 전설대로 열쇠에 로렐라이 그 자체를 깃들여서, 성총권 멀리 상공에 있는 음보대로 인도시킨다는 얘기네.

루크 : 하지만 보주는 어디에 있는 거야.....

애쉬 : 네가! 네가 로렐라이에게서 열쇠만 제대로 받았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란 말이다!

루크 : 내가.....?

애쉬 : 아마 세피로트를 통해 어딘가로 팽개쳐졌을 거다. 6 신장 놈들도 열쇠를 찾고 있다.
애쉬 : 만일 놈들에게 빼앗긴다면 로렐라이를 해방시킬 수 없게 된다.

나탈리아 : 해방시키지 못한다면 플래닛 스톤이 제 7 음소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격렬해져서.....

티아 : 이 세계가 멸망할 거야.

애쉬 :그런 셈이다.

루크 : 야 애쉬! 기다려! 어디 가게!

애쉬 : 여기에도 보주는 없었어. 다른 장소를 찾아야겠다.

루크 : 그럼 같이 찾자고!

애쉬 : 복제와 어울려 다닐 생각은 없다.

루크 : 복제이기에 네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

애쉬 : 적당히 좀 해라!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입장이라 생각하냐!

티아 : 그만들 해! 둘 다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애쉬 :난 다른 세피로트를 돌아다녀 보마.
애쉬 : 네가 빠뜨린 보주가 있을 장소를 발견하려면 그 방법 밖에 없으니까.
애쉬 : 너희들은 너희들 대로 알아서 해 봐라. 뭔가 알아낸다면 연락 정도는 해 주지.

제이드 : 보주에 대해서는 애쉬에게 말기고 우리들은 그 예언사라는 자를 찾아 바티칼로 가지 않겠습니까?

루크 :알았어. 하지만 또 애쉬랑은 갈라졌나..... 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지 맨날.

가이 :눈치 못 찬 거냐.

루크 : 뭐?

가이 :아냐, 됐다.

[페이스 채트 '지나친 루크']

가이 :으~음.....

티아 : 가이, 왜 그래?

가이 : 루크 말야. 곤란하게 됐다 싫어서.

유우 : 주인님이 어떻게 되셨는데요?

가이 : 애쉬가 화를 내는 원인이, 루크 자신에게도 있다는 사실.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으니 말이다.

티아 :루크는 워든지 지나치니까. 너무 앞서서가고, 너무 우쭐대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반성하고.....

가이 : 그렇지. 지나쳤다고 하면, 유우에 대한 취급도 굉장하더만.

유우 : 그렇지 않아염! 놀아 주셔서 기뻐어염!

티아 : 그, 그건 아니야! 안 돼, 유우.....

유우 : 주인님이 이름까지 불러주셨어염. 저, 되게 기뻐어염!

가이 :뭐어, 조, 좋은 이름이지..... 돼, 돼지원숭이도.....

유우 : 그래염 —— ㄹ

가이 : 주인을 닮는다는 그거냐? 유우도 지나친데.....

티아 : 지나치게 믿는 거야..... 가엾어라.....

(바티칼로 가자)

[빛의 수도 바티칼]

아니스 : 왠지 되게 소란스럽네.

루크 : 이봐, 무슨 일 있었어?

병사 : 다아트에서 수배중인 모스를 발견해서 연행해 왔거든!

티아 : 뭐라고요!

병사 : 하지만 틸을 찰려 도주해서 말야. 이제 부터 거리를 봉쇄한 다음 수색할 참이지.

나탈리아 : 그럼 모스는 아직 바티칼의 어딘가에 있을 터이지요.

루크 : 좋아. 우리도 모스를 찾자!

<페이스 채트 '이온의 원수!>

루크 : 모스 자식!

아니스 :잠아 버려야지!

유우 : 맞아염!

제이드 : 여러분. 너무 흥분들을 하셔서.....

나탈리아 : 저런 비겁자는, 성직자의 축에도 놓을 수 없사와요!

티아 : 도사 이온의 원수를!

가이 :항상 냉정한 티아까지 저러나.

제이드 : 뭐, 마음은 이해 안 갈 것도 없습니 다만은.....

가이 : 이런 때에야 말로, 우리들은 냉정하게, 이겠군.

제이드 : 그렇게 됩니다.

(천공객차를 타고 항구로 가자)

모스 : 우움! 이제 곧 '엘드란트' 가 떠오를텐데 잡힐수 있겠나!

루크 : 거기 서 ! 모스!

티아 : 순순히 로렐라이 교단의 사문회에 출두해,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모스 : 웃기지 마라! 죄를 인정해야 할 것은 예언을 무시하는 너희들 우민들이다!
모스 : 나는 올바른다! 너희들은 왜 그것을 모르느냐!

디스트 : 그렇습니다, 모스 님!

모스 : 오오, 디스트인가!

제이드 :디스트, 차라리 계~~속 얼음덩이로 만들어 두었다면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 다.

디스트 : 다, 닥치십시오! 당신은 옛날부터 항상 약속을 어기고! 비겁하지 않습니까!
디스트 : 자, 모스 님. 이런 녀석들은 상관 마시고 엘드란트로 가지지요.

모스 : 기다려라 디스트! 나는 이 자리에서 도사의 힘을 손에 넣어야겠다.

디스트 : 그러셔도 되겠습니까? 엘드란트에서 엄숙하게 행하시는 편이.....

모스 : 세계의 올바른 모습을 잃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의 새로운 힘을 보여주려는 거다.

디스트 : 그러면..... 사양 없이!

제이드 : 디스트! 무슨 짓입니까! 그 기술은.....

디스트 : 조용히 하십시오. 모스 님이 스스로 바라신다잖습니까. 당신에게겐 말할 권리가 없 어!

모스 : 크허억!?

루크 : 뭐, 뭐야 저거.....

제이드 :제 눈과 마찬가지로. 몸에 음소를 끌어들이는 보진(譜陣)을 새겨서 보솔력을 올리는.

제이드 : 다만 저것은..... 제 7 음소를 흡수하는 보진입니다.

티아 : 제 7 음소의 소양이 없는 사람이 그런 것을 새기면 온 몸의 음소가 변이를 일으켜요!

모스 : 그흐..... 디스트!? 무엇인가, 이 추한 모습은!?

디스트 : 그것은 제 7 음소를 폭주시키지 않기 위해 모스 님의 몸이 스스로 가장 알맞은 형태를 취한 것 뿐.

디스트 : 안심하십시오. 힘은 도사의 그것이니 말입니다!

모스 :오오오! 이건.....! 분명 힘이 넘치는 것이 느껴진다! 이건 시조 유리아의 힘인가!

모스 : 나는 이대로 엘트란트로 향하겠다. 너도 나중에 오너라.

(괴물 모스는 날아서 떠난다)

가이 : 인간이 저런 모습으로 변해 버린다는 건가.....

제이드 : 체질에 없는 제 7 음소를 빨아들이면 오래가지 않아 제 7 음소와의 사이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나, 제정신을 잃게 됩니다.

디스트 : 모스는 도사의 힘을 바라고 있었으니, 만족하겠지요.

디스트 : 뭐, 저는 실험을 할 수 있다면 아무라도 상관 없었지만 말입니다.

(디스트도 도망)

루크 :모스 녀석, 저런 괴물이 되어서까지 예언을 지키게 만들고 싶다는 거냐.

아니스 : 그러고 보니, 멋대로 예언을 하고 다닌다는 예언서는 어디 갔지.

티아 : 또 다른 도시로 가 있는 걸까. 모스 일과 합쳐서, 교단에 보고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

가이 : 그래도, 현 시점에서의 로렐라이 교단 최고책임자는 누가 되는데?

티아 :모르겠어. 할아버님이 해당되실려나.

루크 : 지금의 다아트에는 상황을 모르는 사람만 많을 거니까. 난 테오드로 씨가 적당한 것 같은데.

아니스 :그렇구나. 아~양, 교단은 어떻게 돼 버리는 거람.....

<페이스 채트 '지울 수 없는 과거'>

티아 :제 7 음소를 무리하게 다루었다가는 어떻게 될 지, 디스트라면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루크 : 인간이..... 저런 모습이 되어 버릴 줄은..... 저건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제이드 :저렇게 몸 안으로 음소를 빨아들이는 기술도, 제가 어렸을 적 개발해 낸 것입니다.

루크 & 티아 & 아니스 : !!

아니스 : 대령님 말인데요..... 진짜 온갖 걸 다 만드셨네요.

제이드 :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저는 마약 태어난 참인 자신을 죽일 겁니다.
제이드 : 정말이지 폐가 될 것만 생각해 내니 말입니다.

루크 :그건 곤란해.

제이드 : ?

아니스 : 루크도 이온 님도 태어나지 않게 되어 버려요.

제이드 : ...그렇군요.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다, 임니까.

(천공객차를 타려는 참에, 루크는 로켓을 들어 다보다가 무슨 결심을 한다)

루크 : 미안. 바티칼에 온 참에 폐하에게 인사를 하고서 가고 싶은데.....

나탈리아 : 어머니, 그러네요. 가지지요.

루크 : 아.....

루크 : (안 되는데. 나탈리아 앞에서 이 로켓 애길 꺼내기도 뭣하고.....)

나탈리아 : 루크, 어서 가시어요.

루크 : 어, 응.....

(궁전 앞으로 가면...)

루크 : 어, 저기. 나 혼자 폐하랑 만나고 싶은데.....

나탈리아 : 어머니, 무슨 일이시어요? 우리들이 함께여서는 좋지 않을 사연이라도 있으신지?

루크 : 그, 그런 건 아니지만.....

가이 : (...☆)

가이 : 하하하, 바보구만. 넌 어차피 거짓말이 딸리니까 강 솔직하게 말해 임마.

루크 : 가이!?

가이 : 실은 말이다, 나탈리아. 저놈 피오니 폐하가 보내는 사적인 편지를 맡아가지고 있거든.

나탈리아 : 어머, 그렇다면 어쩌서 그것을 숨기는지?

제이드 : (...☆)

제이드 : 실은 여기서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폐하께서는 당신을 왕후로 맞아들이길 원하고 계십니다.

(가이와 제이드를 제외한)일행 : !!!

나탈리아 : 저, 저를!? 제게는 루크가! 아, 하지만 애쉬도 있사와요. 이런 때에는 어찌해야 한담.....

티아 : . . .

아니스 : 나탈리아 치사해 치사해~!

가이 : 뭐, 그런 사연으로. 나탈리아에게는 비밀로 하고 편지를 전해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거야.

나탈리아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리지요.

(나탈리아에게 '인기 만점 프린세스' 의 칭호)

제이드 :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아, 루크. 가십시오(덱석).

루크 : 어, 아니, 나 혼자.....

가이 : 자 자 딱딱한 소리 말고. 가자(덱석).

아니스 : 그럼, 우리도 가자~.

티아 : 아, 응.....

(바티칼 궁전 내부로 자동 이동)

루크 : 야, 가이! 제이드! 아니스에 티아가지.....

티아 : 미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이 : 너 로널 설산에서 로켓 하나 주웠지. 그거 일 아냐?

루크 : 어, 응.... 뭐야. 들통나 있었나.

가이 : 그야 항구에서 심각한 얼굴로 주운 로켓을 들여다 보고 있으면 신경도 쓰이지.

제이드 : 예. 구경꾼 습성입니다.

아니스 : 임니다~♡

루크 :.....나탈리아한테 말하기 없기다.

(인고벨트 6 세의 방으로 가게 된다)

인고벨트 6 세 : 무슨 일이나 루크? 나탈리아의 모습은 안 보인다만.....

루크 : 폐하. 이걸 봐 주십시오.

인고벨트 6 세 : 이것은!

루크 : 나, 아기였을 때의 나탈리아는 모르니다. 그래도 폐하라면.....

인고벨트 6 세 :이것은 나탈리아다. 거의 틀림이 없을테지. 어디서 발견했느냐?

루크 : 로날 설산요. 6 신장과 함께 눈사태에 휩쓸려던 장소였죠.

아니스 : 그거..... 전에 봤던 것 같아. 순간이긴 했지만 분명 라르고가.....

일행 : !!

루크 : 진짜야? 확실히 조건이 맞을만한 건 라르고 정도일 것 같긴 한데.....

인고벨트 6 세 :나탈리아의 유모가 궁전을 나갔다는 듯 하더군요.

인고벨트 6 세 : 지금은 케세드니아의 아스터 밑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물어보는 게 어떨겠느냐.

루크 : 알았어요.

인고벨트 6 세 : 나탈리아에게는..... 이야기할 생각인가?

루크 : 폐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인고벨트 6 세 :모르겠다. 알려 주는 편이 좋을지..... 허나 상대가 라르고라 한다면.....

루크 : 확실한 답을 얻고 나서 한번 폐하께 들르지요.

인고벨트 6 세 : 부탁하마.

인고벨트 6 세 :그런데 루크, 어떻게 된 것이다. '폐하' 라니 너 답지 않구나.

루크 :난, 복제니까요.

인고벨트 6 세 : 그것은 공연한 생각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너도 조카에 다름이 없어.

루크 :예.

.....

제이드 : 놀랐습니다. 나탈리아가 그 라르고의 딸이셨다니.

루크 : 아직 확정된 건 아냐.

가이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괴로운 현실이 되겠지.

아니스 : 어쩔 거야? 케세드니아 가? 그치만 어설픈게 유도하거든 나탈리아한테 뽀록 날 거야.

티아 : 멋대로 예언을 하고 돌아다니는 예언사가 있었지.

티아 : 그 예언사가 케세드니아로 향했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말하는 건 어떨까.

루크 : 응. 그거라면 나탈리아도 납득할 거 같다.

아니스 : 그래두 언젠가는 나탈리아한테 얘기할 거잖아? 나탈리아..... 상처받지 않을까.

티아 :그러네. 피가 이어진 가족이 적어 되는 것은 괴로운 거라 생각해.

루크 : 어. 특히 나탈리아는 저러면서도 어린 구석이 있으니까 걱정되고.

<페이스 채트 '피의 이어짐'>

아니스 : 아웅~..... 계속 계속, 이렇게 무거운 얘기만 이어지니.....

가이 : 확실히 우울해지긴 한다.

루크 : 그러게.....

티아 : 너무 어두운 표정들을 짓다가는 나탈리아한테 들릴 거야.

제이드 : 그렇습니다. 인간만사 새옹지마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루크 : 그래도, 라르고 아냐!

제이드 : 그럼 티아 경우는 어떨습니까?

루크 & 가이 & 아니스 : !!

아니스 : 그렇구나..... 총장도 티아 오빠지.....

제이드 : 낙담하고들 계시 때가 아닙니다. 이런 때에야말로, 냉정하게.

루크 : 그렇군. 진실을 알고서 괴로워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야..... 나탈리아인 거니까.

(궁전 바깥으로 나가자)

나탈리아 : 어, 어서들 오시어요. 저기 아버님께서는 뭐라시는.....?

루크 : 아니, 애쉬가 있으니까 라고 그러시던데.

나탈리아 : 애쉬가? 아버님께서는 애쉬와 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럼 당신은.....

루크 : 어~ 아니, 그니까 나 아니면 애쉬라 그러셨나?

제이드 : 그보다, 성 안에서 신경 쓰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언사가 케세드니아로 향했다지요.

제이드 : 들은 김에 쫓아가 보도록 하십시오.

나탈리아 : 어머, 어쩌면 그대로 마르쿠트로 향하게 될 지도 모르겠네요.

나탈리아 : 알겠사와요. 테오도로 씨에게 보고를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돌려도 되겠지요?

티아 : 아, 응. 물론이야.

루크 :그럼 케세드니아로 가 보자.

.....

아니스 :대령님 정말루 거짓말 잘 하시네요. 태연 그 자체이세요.

제이드 : 아니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군요.

가이 : 말하는 것 보소.....

(다음 목적지는 들은대로 케세드니아이다)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27)

<페이스 채트 '나탈리아의 결혼 상대는?'>

나탈리아 : 어버님께서는 결국, 루크와 애쉬중, 어느 분을 선택하실려나요.....

아니스 : 에헴? 그런 건 나탈리아 취미대루 정하면 되잖아.

아니스 : 고생이 겹치는 인생 땀에 눈썹 사이 세로주름만 늘어날 애쉬인지.

아니스 : 갑자기 딱쳐온 고생 때문에 비관적인 중얼쟁이가 되어서 양 눈썹 가장자리 늘어진기만 할 루크인지.

루크 :뭔가 열받는 말투인데.

티아 : ...나, 나탈리아는어느 쪽이 좋아?

나탈리아 : 그, 그것은..... 저기..... 몰라요. 그런 말은 할 수 없사와요. 거기다 정하는 사람은 제가 아닌 아버님이실테고.

루크 :어차피 애쉬겠지. 괜한 신경 쓰지 마슈. 원래부터 약혼자는 오리지널 루크였던 셈이니.

나탈리아 : 어머니, 아무도 그런 이야기는 한적 없답니다!

나탈리아 : 애초부터, 애쉬도 루크도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지 않아요!

티아 : 왓? 설마 가이?

아니스 : 등직하게 대령님 아닐까?

가이 : ...야 야. 놀려먹는 건 그만 들 해. 나

탈리아가 곤란해 하잖나.

아니스 : 피아~. 연애 이야기는 여자애들의 여가라구!

[유통거점 케세드니아]

나탈리아 : 저 쪽에 사람이 모여 있사와요! 가보지요.

루크 : 이 틈에 애길 몰으러 간다면 나중에 나탈리아 화내겠지.

티아 :루크, 잠깐! 뭔가 상황이 이상해.

??? : 자아, 예언을 바라는 자는 나를 따르라! 거기서 예언을 내려주겠다!

가이 : 거짓말이 진짜가 되어 버렸군.

아니스 : 기다리세요! 로렐라이 교단은 예언 읽어들이기를 중지하고 있어요! 그 예언사는 가짜예요!

??? : 이거 유감인데, 아니스. 이제부터 예언을 읽는 자는 로렐라이 교단의 예언사가 아냐. ??? : 모스 「남」이 도사가 되어 새롭게 새우신, 신생 로렐라이 교단의 예언사지.

아니스 : 이온 남..... 이 아니야. 당신..... 설마.....

루크 : 싱크..... 역시 살아있었냐!

제이드 : 이런 이런. 이것으로 6 신장 전원 생존이 확인된 겁니다.

제이드 : 이렇게 되면 반이 로렐라이를 내포한 채 살아있다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

싱크 : 거기까지 안다면 진지하게 로렐라이의 보주(寶珠)를 찾는 편이 낫지 않을까?

루크 : 너네들도 아직 못 찾았잖나.

싱크 : 발견 안 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쪽이 유리하거든.

나탈리아 : 변함없이 뻔뻔하기도 해라!

아니스 :싱크. 신생 로렐라이 교단이라고 뭐야? 모스가 도사라니 그건 무슨 소리구.

싱크 : 모스가 너한테는 말 안하던? 배신자 씨.

아니스 :난 좋아서 모스 말에 따르고 있던 게 아니야!

싱크 : 안심하지시. 우리도 좋아서 모스를 떠안고 있는 건 아니니까.

싱크 : 자, 웨방이 들어왔지만, 아무튼 예언을 바라는 자는 이쪽으로 따라오시라!

아니스 : 기다리세요!

주민 1 : 우리 예언이 알고 싶어!

주민 2 : 그래 그래!

아니스 : 그치만.....

싱크 : 아니스. 이번엔 그냥 보내 주세요. 당신이라면 이해해 주시겠지요.

아니스 :이온 ...남...

싱크 : 아하하하하! 나와 싸운다는 애긴 이온 이랑 싸운다는 뜻이다. 그걸 잊지 말아 달라고!

(싱크는 사람들을 꺾어서 사라지고...)

루크 : 저 자식! 악랄한 짓을.....

나탈리아 : 아니스. 걸려들어서는 안 되어요. 싱크와 이온은 다른 사람입니다.

가이 : 맞아. 루크랑 애쉬가 다른 것처럼.

아니스 :으, 응. 괜찮아! 하나두 신경 안쓰이는 걸!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제이드 : 아니스. 우리를 하셔서 안 됩니다.

아니스 : 우리는.....

제이드 : 나탈리아. 미안합니다만 아니스를 데

리고 기분전환 삼아 시장 구경이라도 다녀와 주십시오.

제이드 : 우리들은 예언사를 조심하라는 말을 아스터에게 전하고 오겠습니다.

나탈리아 : 알겠사와요. 아니스, 같이 가요.

아니스 : ...-_-+

.....

가이 : 멋지군, 제이드.

티아 : 하지만 미끼가 된 아니스는 화내고 있었어.

루크 : 책임은 제이드가 져 주겠지. 그리고, 풀이 죽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

제이드 : 책임은 제쳐두고 아스터에게 가 보십시오.

(아니스, 나탈리아와 잠시 헤어진다. 아스터 저택으로 가자)

아스터 :알았습니다. 이후 예언사에게는 세상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루크 : 그렇게 해 줘. 그리고.....

아스터 : 나탈리아 님의 유모라 하셨지요? 이 헛헛히. 지금 부르겠습니다.

유모 : 아니 루크 님!

루크 : 당신에게 보이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유모 : 이것은, 버덕의!

티아 : 버덕?

유모 : 메릴의 아버지..... 실비아의..... 제 사위입니다.

루크 : 그 버덕 씨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유모 : 버덕은 사막을 횡단하는 캐러밴 대의 중위를 생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유모 : 절친한 동료들에게서는 사막의 사자왕이라 불리고 있었지요. 체격이 크고 인정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이 : 사자왕..... 흑사자... 거기에 딱대라..... 공통점이 있군.

제이드 : 틀림없어 보입니다.

루크 : 그래서 그 버덕 씨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유모 : 제 딸 실비아가 세상을 떠난 뒤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지요. 그 뒤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루크 :고맙습니다. 이젠 충분해요.

아스터 : 또 무슨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행차해 주십시오. 이하십시오.

(이제 시장에서 두 사람을 만나자)

나탈리아 : 어머니, 벌써 끝나셨는지요? 아스터 씨에게 말씀은 전하셨나요?

루크 : 어어, 일단.

아니스 :루크. 나중에 제대로 보고해 줘야겠어.

루크 : 알고 있어. 미안하다.

아니스 : 이상하네. 대령님이 아닌 루크가 사과를 하구.

제이드 : 이야~ 정말 고맙습니다 루크.

나탈리아 : 무슨 이야기이시어요?

루크 : 아니, 아, 아무것도 아니야.

나탈리아 : 그러신가요? 아무튼 선생 로렐라이 교단 일이 마음에 걸리네요.

티아 : 일단 할아버님께 상담해 보자.

가이 : 그렇게 되면, 유리아 시티로군. 난 그 도시를 좋아하니까. 기뻐지는데.

티아 : 어머, 그랬어? 하지만 왜?

루크 : 음기관(音機關). 음기관.

티아 : 아.....

가이 :뭐야, 그 차가운 목소리들은. 뭐됐지. 빨리 가자.

(다시 두 사람과 합류한다. 유리아 시티로 가자)

<페이스 채트 '예언의 힘, 사람들의 마음'>

제이드 : 이거 곤란하게 됐습니다.

아니스 : 선생 로렐라이 교단 말씀이시네요.

티아 : 저 쪽은 예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느 쪽에 기댈지를 따진다던.....

루크 : 예언을 해 주는 쪽이 되겠지..... 망할!

제이드 : 정치가 예언에 의존해 왔던 대가입니다.

나탈리아 : 그렇지는!아니요그렇지도 모르겠군요.

루크 : 글고보니 녀석들, 모스가 도사(導師)라고 했었지. 모스는 예언에 집착하고 있었으니 이해가 가는데, 6 선생은...

티아 : 응. 이상이 정면으로 대립을 이루고 있어. 모스는 이용당하고 있을 뿐인지도 몰라.....

아니스 : 그래두 뭘 위해서?

제이드 : 로렐라이 교단의 병력을 깎아내고, 반이 없는 사이의 추진력이자 은신처로 삼는다.....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루크 : 빙신이지. 이용당하고 있을 뿐인데, 예언을 위해 저런 괴물로까지 변하고.

티아 : 모스 님... 인류의 번영을 그렇게 바라고 계셨는데...

(유리아 시티로 간다)

<페이스 채트 '이온 행세를 하는 자'>

아니스 :싱크저 앤.....

티아 :아니스. 마음 굳게 먹어.

아니스 :응, 괜찮아. 알고 있어. 저건 이온 남이 아니야. 그런데, 얼굴도 목소리도.....

나탈리아 : 심한 짓이어요.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서 아니스를 상처 입히다니.....

루크 : 이해 못 하겠다..... 이온은 누군가의 대신이 되는 건 싫다고 했었지. 나도 애쉬 대신이란 건, 실은 싫다... 고 생각해.

루크 : 근데 놓은, 왜 저런 식으로 너무나도 쉽게 이온 흉내를.....

가이 : 싱크가 가진 복제에 대한 견해가, 너나 이온과는 차이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루크 : 난 이해 못 하겠어..... 녀석이랑 얘기라도 해 보고 싶은데.

나탈리아 :말이 통하는 상대라면, 말이어요.

루크 : 그렇긴 하지.....

<페이스 채트 '뒤통을 치고 있다?'>

아니스 : 이~ 이~ 이~ 잉~. 사태 파악도 못 했는데 계속 일이 흘러가니깐.

아니스 : 우린 나중에 따라오구. 나중에 따라오구. 계속 뭐가 뭔지 모르고만 있어.

루크 : 여단가에서 6 선생을 앞지르지 않은 언제까지도 뒤통이겠는데.

제이드 : 이 쪽은 처음부터 정보가 부족해 있었습니다. 역시 불리하겠지요.

아니스 : 한번 역전은, 로렐라이 열쇠라는 얘기가 될라나? 그게 있다면, 갇혀있는 로렐라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제이드 : 그렇습니다. 6 신장 측의 속셈이란, 복제 대지를 만들어 내고,

제이드 : 복제 세계의 완성과 더불어 로렐라이를 제거하는 일일 데니 말입니다.

제이드 : 로렐라이를 음보대(音譜帶)까지 놓친다면,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루크 : 그래도 우리가 불리해. 저 쪽은 우리가 열쇠를 쓰지 못하게만 하면 되는데, 우린 복제 계획을 막아야 되고.

루크 : 장기 문제도 낼 수 없고, 로렐라이까지 구출해 내야 되니.

아니스 : 에휴~. 귀여운 자식은 여행을 해야 된다는 건가 봐.

루크 :그건좀 의미가 틀리지 않겠냐.

[감시자의 도시 유리아 시티, 중앙관리시설 회의실]

테오도로 :알겠소. 일단은 서둘러 로렐라이 교단의 재건을 꾀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테오도로 : 교단 일이라면 맡겨 두시구려. 트리트하임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테오도로 : 그래도, 감시자의 거울과도 같은 사나이였던 모스가 저렇게 되어 버릴 줄은..... 유감이오.

티아 : 할아버님. 모스가 엘드란트가 어찌니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무언가 짝이시는 곳은 없으세요?

테오도로 : 엘드란트라면 고대 이스파니아 신화에 나오는 번영의 대지라는 것 밖에는.....

일행 : . . .

테오도로 :그렇지. 엘드란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소만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이 : 이상한 일?

테오도로 : 안 그래도 제 7 음소(세븐스 포닝)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제 7 음소를 비정상적으로 소비시키고 있는 지점이 있소.

아니스 : 거기가 어딘대요?

테오도로 : 한 곳은 제 8 세피로트 부근의 바닷속. 조사대를 파견했었지만 그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티오도로 : 또 한 군데는 현재 추적중이외다.

제이드 : 추적? 장소를 특정해 내는 일에 추적이라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테오도로 : 추적이라 표현할 수 밖에 없습시다. 장소 자체가 이동하고 있는 모양이기에.

가이 : 이동 시설? 육상항이나 마차라던가.

테오도로 : 모르겠소. 단지 더 거대한 것이 아니라면 저 만큼의 제 7 음소를 소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하오.

제이드 : 이동에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까?

테오도로 : 현재 조사중이오만 바다를 이동하고 있다는 것 만은 확실하지.

루크 : 바다를 돌아다니는 거대한 무언가라.....

제이드 : 전쟁도 없는 상태에서 제 7 음소를 대량으로 쓰는 것이라면 포미클리 정도가 될 겁니다. 신경 쓰이는군요.

루크 : 제이드 당신이 그리 말한다면 포미클리 시설일 가능성이 높겠어.

티아 : 바다를 철저하게 찾아보자.

<페이스 채트 ' 바다를 돌아다니는 거대한 것.....'>

아니스 : 바다를 돌아다니는 거라..... 외뿔고래 같은 거?

나탈리아 : 외뿔고래는 큰 것이라도 전장(全長)이 30미터 정도입니다.
나탈리아 : 바다에서 활동하는 거대한 무언가..... 라 하기에겐 작지 않을런지요?

티아 : 외뿔고래 새끼 귀엽던데.....

아니스 : 그래도 크면 뿔로 사람을 공격한다구. 그것두 일단은 마을이니까.

나탈리아 : 역시 전황이 아니겠어요? 최근에는 상당히 거대한 것도 있다는 듯 한데요.....

가이 : 그렇지, 그래도 역시 1000 미터 급쯤 되는 건 아직 거의 안 돌아다니고 있다던데.

제이드 : 뭐어 거대하다고 하니, 바다를 보고만 있는다면 놓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스 : 하우..... 바다를 보고 있자면 졸리운데. 모, 어쩔 수 없나아.....

(역자는 유리아 시티를 나오자마자 바다에 위수상한게 떠다니길래, 즉시 따라잡았다)

[알비올 내부]

루크 : 허걱.....! 성이 움직여다니자!

제이드 : 떠 있는 성?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됩니다만...

가이 : 저 성.....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탈리아 : 착륙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어쩌면 원가를 알아낼 수 있을지 모르답니다.

티아 : 그래.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제 7 음소를 많이 소비하는 시설이란 게 저 성일지도 모르니까.

[페레스 성 페허]

가이 : 역시, 본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제이드 : 페레스 성 아닙니까. 호드 소멸의 영향으로 해일에 휩쓸렸던.

가이 : 그래! 호드 건너편에 있었던 그 성이야!

루크 : 페레스 성?

가이 : 호드 제도의 성이야. 호드가 있었던 시절에는 교류가 번창했었다고.

티아 : 하지만..... 아무리 해일에 휩쓸렸다 하더라도 육지가 떠다니는 성이 되다니.....

나탈리아 : 네, 비정상적이랍니다. 자연현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사오.

아니스 : 뭔가가 있을 거란 얘기네. 안으로 가보자.

루크 : 뭔가 재수없는 예감이 드는데. 조심해서 가자.

<페이스 채트 '페레스 성의 비극'>

루크 : 해일 한 방에, 도시가 이렇게 박살나 버린단 말야?

티아 : 물의 힘이란 무서운 거구나.....

유우 : 유우는 헤엄 못 쳐염..... 또 해일이 오면 큰일이예염.

루크 : 지금은 괜찮어. 거기다 알비올도 있으니.

티아 :이 도시 사람들은 거의 살아남지 못 했겠지.

루크 : 호드 소멸이 호드 이외에 장소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로군..... 액체류스도.....

유우 : 유우우우우.....

(기억진 근처까지 진행하면...)

나탈리아 : ...아까부터 비슷한 건물이 이어지는걸요.

루크 : 듣고 보니 분명 그럴구만. 야 가이, 왜 비슷한 건물만 서 있는 거야?

가이 : 음? 아아.....

가이 : 나도 자세한는 모르지만 분명 이 도시는 한 명의 건축가가 모든 건물을 감수했다 들었어.

가이 : 그 건축가의 이름이 성에도 붙은 거고.

티아 : 그럼, 그 건축가는 페레스라 하겠네.

가이 : 어. 여기의 아름답게 통일된 거리 경관이 당시 황제 맘에도 들어서 그란코크마 건축양식에도 영향을 미쳤다나...

제이드 : 그랬습니까야.

가이 : 뭐가 그랬습니까야.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제이드 : 아니 아니 당치 않으신 말씀을. 설명하는 역할 따위는 질색입니다.

아니스 :거짓말~. 맨날 설명하면서.

제이드 : 그래서 더욱 사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이드 : 저 밖에 모르는 지식이라면 모를까, 일반상식은 다른 분께 부탁드리고 싶군요. 체력이 소모되니.

나탈리아 : 어머니, 그렇게 지칠 일은 아니지 않겠어요?

제이드 : 이래도 나이가 들어서 말입니다.

루크 : 말하는 거 하고는...

(계속 진행하자)

가이 : 왜 그러냐? 루크?

루크 : 아니..... 좋은 동네였겠다 싶어서.

가이 :그러게 말이다. 이젠 어렵פות하게 밖에 기억 안 난다만 큰 항구도 있고 활기찬 도시였다.

루크 : 그랬나.....

제이드 : 붕괴, 해일..... 반이 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겠지요.

제이드 : 어쩌면 그 편이 행복했을지도 모르니다. 비교상의 문제입니다만...

티아 : 확실히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지옥이었을 거예요. 이래서는 작물도 자랄 수가 없어.....

가이 : 도시나 거기 사는 사람들. 아무에게도 죄는 없었을 건데 말야.....

루크 :쓸려가서 잊혀진, 죄 없는 성... 이랄까.

티아 : 잊혀진 무고한 성..... 이겠네.

아니스 : 아리에타.....

<페이스 채트 '헤메다 보니 짜증...'>

나탈리아 : 비슷한 건물 뿐이라,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될 것 같사오.

루크 : 무슨 소리야? 아까 저기 오른쪽으로 나왔으니까 이번엔 똑바로 가서 왼쪽으로.....

티아 : 아니야 루크. 빙글은 왼쪽에서 왔었어.

루크 : 알래?

제이드 : 루크, 야생 마을이 귀소본능을 잃어서는, 그냥 가족입니다.

루크 : 이보세! 누가 마을인데! 거기다, 누가 가족이라고!

가이 :가족은 자기인데 말이지.

제이드 :가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이 : 아노 아노. 피오니 폐하의 돼지토끼(부우사기) 이름이 뭐였다는 둥, 그런 말은 한 적 없습디다요.

제이드 : 으음..... 허어.....

(두번째 기억진을 지나면...)

티아 :누가 있어.

??? :

아니스 : 그 목소리는.....!

아리에타 :아니스!

아리에타 : 여긴 아리에타 소중한 장소야! 아니스 같은 앤 오면 안되는 데야!

가이 : 페레스 성이 소중한 장소하고? 무슨 말이야.

아리에타 : 여긴..... 아리에타가 태어난 곳이니.

아리에타 : 아리에타네 원래 가족은 다들 홍수로 죽어 버리고, 아리에타만 라이거네 엄마가 살려 줬어.

아리에타 : 계속 쓸쓸했지만 어떤 날 반 총장이 와서 아리에타를 친구로 삼아 줬어.

아리에타 : 가라앉고 있었던 페레스 섬을 이렇게 띄워 올려서 아리에타를 위한 배로 만들어 주었구.

아리에타 : 반 총장도 6 신장 모두도 여기로 기지로 하겠다면서 몇번이고 놀러 와 줬어.

티아 : 오빠네는 여기를 본거지로 삼고 있었던 거구나.

제이드 : 그렇다면 포미클리 시설도 있을 듯합니다.

아리에타 : 복제 기계라면 있어.

일행 : !!

아리에타 : 반 총장이 아리에타네 도시를 부활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는 걸.

티아 : 그건 속임수야. 레프리카는 진짜 가족도 가족의 대신도 될 수 없어.

아리에타 : 안 그래! 거기 있는 루크도 애쉬대신이잖아!

루크 : !!

아리에타 : 이온 님도 아리에타를 이해해 줬었어. 반 총장에게 협력하고 있었어!

아리에타 : 이온 님이 변해버렸던 건 아리에타를 쫓아내고 아니스가 폰 마스터 가디언(도사수호역)이 됐기 때문이야!

루크 : 그게 아냐! 난 선생에게 속고 있다고! 진짜 이온은 예전에.....

아니스 : 루크! 조용히 해 줘!

아리에타 : 그런데 아니스는 이온 님을 배신했어!

아니스 : 그래서? 여기서 결투라도 하자구?

아리에타 : 당소는 임회인인 라르코가 결정해 줄 거야. 라르코가 아니스한테 연락을 할 거야.

아리에타 : 아리에타는 이온 님이랑 반 총장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 그치만 이젠 이온 님은 없어.

아리에타 :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도 아니스한테 안 질거야!

(아리에타 이탈)

아니스 : 바보 같아..... 저 앤 속고 있는 건데.....

제이드 : 아리에타의 말이 사실이라면 여기에는 반이 사용하던 설비의 하나라 보아도 될 겁니다.

나탈리아 : 그렇사오. 조금 더 조사해 보기로 하여요. 그러지요, 아니스?

아니스 :응.

(아리에타가 있던 문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제이드 : 이건 포미클리.....? 놀랐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물건입니다. 거기다 가동중인군요.

루크 : 그런가, 여기서 복제를 만들고 있다 이거지.

아니스 : 이에온 할아버지네도 여기서 만들어졌을지 몰라.

제이드 : 멈춰야겠습니다. 제 7 음소의 감소가 조금은 가벼워 질 지도 모릅니다.

루크 : 어. 이 이상 복제를 늘려선 안 될거라 생각해. 복제 따윈.....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하지.

가이 : 루크.....

마리 : 멈춰라! 왜 그런 짓을 하나? 우리의 동료가 탄생하는 것을 왜 거부하나?

이에온 : 우리들은 머지 않아 하늘의 대지에 새로운 거처를 얻게 된다.

마리 : 우리를 방해하지 마라.

루크 : 당신들은 그게 만족입니까.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마리 :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모스 님의 필요로 인해 태어났다.

가이 :누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가이 : 하지만 당신들이 지낼 거라는 하늘의 대지가 완성되면 오리지널들은 죽게 됩니다.

이에온 : 우리를 바라지 않는 자들이 죽건 말건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루크 : 바보같은 소리 마! 오리지널이 없다면, 우린..... 복제는 태어날 수 없단 말야!

마리 : 그래서 여쭙다는 거냐. 태어난 이상 오리지널의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

티아 : 루크. 당신은 조금은 저들을 본받는 게 좋겠어.

루크 :뭐!?

가이 : 「자신감」 이다.

가이 : 애쉬가 네게 짜증을 내는 것도 피오니 페하에게 주눅이 드는 것도 그게 부족해서 그래.

티아 : 거만하기까지 할 정도의 생존본능.....이라 해도 될 거야.

티아 : —— 그렇다고는 해도, 이전의 당신에겐 있었던 거지만.

마리 : 우리가 거만하다는 말인가.

티아 : 응. 그래. 당신들이 한 말, 언젠가 당신들에게 그대로 돌아올지도 몰라.

티아 : 그 때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때 큰 진동이 온다)

프링스 : 큰일이다! 모스 님이 우리를 남겨둔 채, 계획을!

(‘엘드란트’가 떠오르는 무비를 보게 된다)

모스 :후하하하! 반이 준비하고 있던 이대지. 이곳이 나의 새로운 성이 되리라.

모스 : 지금이 바로 신생 로렐라이 교단을 세울 때다. 자아 준비에 들어가라! 히히하하, 히하하하!!!

모스 : 잘 봐라! 나는 예언을 써서 이 올드란트를 번영으로 이끌 것이다! 히하하하하!

.....

루크 : 어떻게 된 거야! 저건 대체.....!

마리 : 모스 님! 우리도 신생 호드에 맞이해 주겠다는 약속은.....

가이 : 신생 호드? 그럼 저건 호드인 거냐!?

프링스 : 우리는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이에온 : ‘렘의 탑’으로 향하자. 거기가 모스 님과 약속한 장소다. 반드시 데리러 와 주실 것이야.

마리 : 그러나 섬의 항행장치가 포미클리와 함께 고장났다.

프링스 : 이대로 해류를 타고 있으면 육지에

도달하게 된다. 거기서 걸어가면 돼!

마리 : 좋아. 그렇게 전달하지.

.....

루크 :가 버렸어. 어쩔 거야? 저 사람들을 저대로 내버려 뒀?

루크 : 난 모스가 저 사람들을 받아들일 거란 생각이 안 드는데.....

제이드 : 뭐, 저라면 버리겠지요. 복제 정보만 남아 있다면 굳이 그들을 데려가지 않더라도 무한으로 복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탈리아 : 그러면 저들은 갈 곳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제이드 :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에는 아직 멀었을 겁니다.

루크 : 저 사람들은 모스를 믿고 있으니까.....

가이 : 이봐. 저 하늘에 떠 있는 섬 진짜 호드야?

가이 : 그렇다면 저건 반의 계획에 있던 복제 대지라는 얘기가 된다.

아니스 : 상륙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겠어?

제이드 : 위험하다는 느낌도 듭니다만..... 뭐 좋습니다.

루크 : 좋아, 노엘에게 부탁해서 저 하늘에 떠 있는 섬으로 가 달라 하자.

(이 곳에서의 불일은 끝났다. 웅 보틀을 써서 탈출하자)

(나가기 전 마지막 소드맨서를 잡고 가자)

<페이스 채트 '역시 이젠 신물난다... '>

루크 : 저기..... 저 놈, 또 부활할라나.

제이드 : 아니오, 괜장을 겁니다.

나탈리아 : 어머니, 어떻게 그리 단언하실 수 있으시어요?

제이드 : 아까 그가 떨어뜨렸던 무기에서, 이미 이상한 음소(포닉)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이드 : 몇 번 싸우는 와중에, 우리들의 공격에 의한 FOF가 그를 구성하고 있던 음소를 빨아들인 것이겠지요.

나탈리아 : 즉, 그 마을에 달라붙어 있던 원한이 정화되었다는 이야기이시군요.

나탈리아 : 아니.....하지만 저 만큼이나 강한 원한이라면, 아직 이 근처에 머물러 부활할 기회를 노리고 있을지도...

나탈리아 : 우리를 원망스럽게 노려보면서.....

루크 : 남아 매너.....

제이드 : 뭐어,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다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당신께서는 과담을 즐기시는 모양이십니다.

나탈리아 : 네에. 자연의 신비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루크..... 어머?

제이드 : 기가 막혀 도망간 듯 합니다.

(하늘에 뜬 호드로 다가가면 이벤트가 있다)

노엘 : 이 이상은 다가갈 수 없어요. 플래닛 스톰으로 된 방어벽을 돌파하는 건 불가능해요!

루크 : 라는 건, 플래닛 스톰이 있는 한은 접근할 수 없다는 얘인가.

제이드 :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란코크마로 가십시오.

제이드 : 군 본부에 호드의 정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루크 : 알았어. 하지만 진짜 저게 복제 대지면 어떻게 될 지.

<페이스 채트 '충격의 부유 호드'>

가이 : 하늘에 뜬 저 커다란 섬이 호드라고? 말도 안 돼.....

티아 : 복제라고 해도, 주위에 있는 손톱 모양의 대공설비를 생각하면 제조된게 상당히 옛날인 것 아닐까요?

제이드 : 예. 아마 바닷속에서 섬에 방어장치를 설치해 둔 것이겠지요. 그 다음 세피로트는 이용해 상공으로 밀어 올린 겁니다.

루크 : 세피로트는..... 외각을 밀어올릴 힘은 잃었잖아?

제이드 : 호드의 세피로트조차 복제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호드가 소멸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티아 :기다려 주세요. 다른 장소도, 세피로트 재로 복제를 만든다면.....

제이드 : 예, 티아. 당신이 상상하시는대로 됩니다.

루크 : 뭐가 어떻게 되는데?

제이드 :설명이 어렵습니다. 현실이 될 때까지는 보류해 두십시오. 어차피 손을 쓸 도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란코크마로 가자)

[올 위의 제국수도 그란코크마, 제국군기지 본부]

놀드하임 : 카티스 대령. 나는 중앙대해 상공에 떠오른 섬에 대해 황제폐하게 보고를 올리러 가는 참이다.

제이드 : 무언가 알아낸 것이 있으십니까?

놀드하임 : 제제만 참모총장이 안쪽 회의실에서 정보를 모으고 계시네. 귀공의 지해도 보태도록.

루크 : 안쪽이랬지. 빨리 가자.

(회의실로 가자)

제제만 : 제이드냐. 큰일이 터졌지 않은가.

제이드 : 예. 중앙대해의 하늘에 떠오른 섬은 호드 섬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제만 : 호오, 역시 그랬나!

루크 : 그럼 진짜 호드인 겁니까?

제제만 : 그게, 저 섬은 플래닛 스톰을 이용한 방어벽에 갇혀 있기에 관측을 할 수가 없네.

티아 : 그러면 어떻게 호드가 아닐까 라는 추측을?

제제만 : 저 섬이 떠 있는 장소가 외각대지 시대에 호드가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이지.

제이드 : 호드라 한다면, 포미클리로 만들어진 복제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제만 : 틀림 없겠지. 제제만 : 초진동(超振動)에 의한 호드 소멸작전 직전에 실험이라 칭하며 호드의 복제 정보를 뽑았을 터이다.

가이 : 그래서 신생 호드가.....

가이 : 그리고 보니, 그 주변에서도 제 7 음소가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랬지.

나탈리아 : 네. 그러면 이것은 역시 반의 소행인 것일지요.

루크 : 근데 복제들은 모스가 어찌고 그랬잖아.

제국 병사 :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드 제도의 일부가 소멸된 모양입니다! 원인은 불명!

일행 : !!

제제만 :어떻게 생각하나, 제이드.

제이드 : 대지의 음소가 서로 간섭하여 초진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제만 : 응음. 그렇게 되는가. 나는 폐하게 보겠다!

아니스 :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대령님.....

제이드 : 폐하가 계신 곳으로 가지요. 거기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전으로 뛰어가는 도중...)

"들어라! 예언을 잊은 어리석은 인류여"

아니스 : 모스 목소리!

루크 : 뭐야? 어디서 들리는 거야?

제이드 : 모르겠습니다. 하늘..... 인 듯합니다만 설마.....

"내 이름은 신생 로렐라이 교단의 도사 모스이다. 흐히하, 하하하하하!"
"지금 세계는 마계에 삼켜지고 장기에 갇혀 멸망을 맞으려 하고 있다."
"왜인가! 킴라스카와 마르쿠트 양국이, 시조 유리아의 예언을 가버이 여겼기 때문이다"
"양 나라는 가짜 유리아의 사도에게 속아, 예언을 무시한다는 폭거를 저질렀다"

골드버그 : 폐하! 이것은.....

인고벨트 6 세 : 응..... 모스 놈. 무엇을 꾸미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나는 예언을 지키기 위하여 새로운 교단을 설립했다. 그것이 신생 로렐라이 교단이다"

피오니 :일 났군.

놀드하임 : 예, 시민들이 불안함 때문에 폭동을 일으킬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생 로렐라이 교단은 중앙대해에 과거의 호드 섬 —— 영광의 대지 엘드란트를 건조했다"

"이곳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세계를 예언대로 움직여 갈 것을 선언한다. 흐하하하!"
"그리고 우리는, 예언을 경시하는 킴라스카, 마르쿠트 양국에 사죄와 투항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흑객..... 쿨럭, 무력 행사도..... 불사하겠다.....!"
"조만간 새로이 신생 로렐라이 교단에서 사자를 보낼 것이다. 두 나라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다"
"그, 그리고 양 나라의 국민들이여. 그들의 왕이 예언을 부정하는 때엔, 반기를 들도록 해라!"
"정의는 유리아의 예언과 함께 한다! 히하야하하하!!"

제이드 :모스의 정신오염은 이미 시작된 모양입니다.

루크 : 정신오염?

티아 : 티아는 제 7 음소의 소양이 없는데도 그것을 몸 안에 흡수하고 말았어.

제이드 : 지금 모스의 의식은 체질에 맞지 않는 제 7 음소 때문에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이드 : 간단히 말해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 : 그게 정신오염인가...

나탈리아 : 그래도 저 자가, 신생 로렐라이 교단이라는 어리석은 것을 만든 것은 그 자신의 의지이어요.

나탈리아 : 스코어를 향한 집착도 도가 지나쳐 있습니다.

아니스 : 이온 님이 재생시키려 하셨던 로렐라이 교단이, 저런 인간한테 뭉개진다니. 용납 못 해!

루크 : 폐하랑 알현하자. 피오니 폐하도 인고벨트 폐하도 모스에게 굽힐 사람은 아닐 거야.

제이드 : 예, 그렇습니다. 선후책을 세우십시오.

(시점이 6 신장으로 이동)

모스 : 흐히하하하! 뭐.....뭐냐!? 아까부터 내 안에서..... 무언가가..... 흐하.....

디스트 : 제 7 음소 주입에서부터 그리 오래가지 못했군요.

리그렛 : 적은 양의 제 7 음소로 저 모양인가..... 그럼 각하게서도 로렐라이의 제어에 실패하신다면.....

싱크 : 반은 제 7 음소술사(세브스 포니머)야. 저렇게까지는 안 될걸.

모스 : 무..... 무슨 소리들을..... 꾸책.....!

라르고 :허나, 애처롭군. 이 모습이 되면 서까지 예언을 고집할 줄은.

리그렛 : 술술 시간이야. 가지.

(다시 루크 일행 시점. 알현실로 피오니를 만나러 가자)

<페이스 채트 '이온의 로렐라이 교단을 위하여'>

아니스 : 아까 전 그거, 뭐야.....! 저런 건 이온 님도 하신 적 없는데.....

티아 : 저 기술..... 2000 년 전 문명의 일부를 복원시키기라도 했다는 걸까!? 믿기지 않아.....

나탈리아 : 그래도 곤란하게 됐사와요. 이것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신생 로렐라이 교단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어 버렸답니다.
나탈리아 : 이제부터 전세계에 혼란이 일 것이어요.....

아니스 : 이쌍! 이온 님이 개혁시키고 지켜려 하셨던 로렐라이 교단을, 저만 짜가땀에 망하게 할 것 같아!

티아 : 아니스.....

아니스 : 나탈리아! 티아! 힘을 빌려줘!

나탈리아 : 물론이어요. 저런 우리가, 제 사랑하는 나라를 마음대로 하게 둘 수는 없사옵니다.

티아 : 아니스. 힘내자.

아니스 : 응..... 지켜봐 주세요, 이온 님.....

[그란코크마 공전, 알현실]

피오니 : 말은 들었다. 호드 제도의 일부가 없어졌다면서.

제이드 : 예, 복제 대지와 본래 대지 사이에, 의사(擬似) 초진동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피오니 : 의사 초진동이라고?

제이드 : 지금 엘드란트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복제 대지는 지표의 복제 정보를 뽑아내며 만들어진 것이라 추측됩니다.

제제만 : 그러면 복제가 탄생될 때 오리지널과 복제가 한 순간 제 7 음소를 공유하게 된다.
제제만 : 그 때, 초진동과 흡사한 간섭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크 :어려워서 알아듣질 못하겠어.

티아 : 즉 복제 대지가 탄생되는 것과 동시에, 오리지널 대지가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야.

루크 : 그럼 막지 않음 큰일나는 거잖아!

피오니 : 복제 대지를 만들고 있는 포미클리 장치는 어디있을 것 같냐?

제이드 : 엘드란트일 겁니다. 대지의 정보를 뽑아내는 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라면 아직 저지할 수 있습니다.

피오니 : 귀공들에게 맡겨도 되겠냐? 우리들에게는 하늘을 날 수단이 없어.

나탈리아 : 물론. 할 수 있는 일은 완수하겠습

니다.

놀드하임 : 지상의 경계는 우리 마르쿠트 군으로 행하겠소.

나탈리아 : 우리 킴라스카 군도 협력하겠습니다.

티아 : 저기, 나탈리아, 그러면 예언 회의에 대해 지금 제안해 보는 게 어때.

루크 : 그렇지. 거기서 킴라스카와 마르쿠트, 그리고 로렐라이 교단이 발을 맞추면 신생 로렐라이 교단에 대항할 수 있을 거다.

나탈리아 : 그렇군요. 지금이 바로 그 때일지도 모르겠사와요.

제이드 : 폐하 일행께서 만남의 자리를 가져 주신다면, 엘드란트 공략을 위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피오니 : 뭐 얘기들야?

제이드 : 가이. 설명을.

가이 : 그건 나탈리아 일이잖냐..... 뭐, 상관없다.

(가이 설명 중)

피오니 : 좋아, 속지했다. 언제라도 일정을 비우도록 하지. 장소는 다아트면 되나.

나탈리아 : 네. 그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루크 : 인고벨트 폐하는 사정을 아실 테니까, 다음은 테오도로 씨한테 확인해야지.

티아 : 응. 유리아 시티로 가자.

<페이스 채트 '초진동의 힘'>

루크 : 의사 초진동..... 티아랑 내가 날려졌던.....

가이 : 의사라고는 해도, 초진동이라는 데엔 변함없어. 위력은.....

제이드 : 60% 가 감소한 것이라 합니다. 그래도, 물질이 붕괴되기에 충분합니다.

루크 : 내 초진동과 다를 바 없는 건가.....

제이드 : 당신의 초진동이 진짜로 발동되면.....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분해됩니다.
제이드 : 액체류스가 일부라도 남은 상태로 무너졌던 것은, 당신의 힘이 열등해져 있는 불안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루크 :그랬나.

제이드 : 애수가 전투에 초진동을 이용을 이용하지 않는 것도, 그 위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제이드 : 초진동은 대기조차 소멸시킵니다. 의사 초진동이라 다행이군..... 이라 생각해야겠지요.

가이 : 그렇다곤 해도, 앞으로 복제 대지가 출현할 때마다 오리지널이 계속 소멸되어 보라.
가이 : 다행이니 어찌니 하는 생각은 안 들게 될 걸.

루크 :말할엘드란트 저걸 어떻게 해야겠군.

가이 : 그걸 위해서는 플래닛 스톰이니 신생 로렐라이 교단이니 하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

<페이스 채트 '국경을 초월한 결과'>

루크 : 혹시 이게, 처음으로 마르쿠트와 킴라스카가 정면으로 협력하게 되는 셈이 되나.

티아 : 응. 그러네. 엘드란트 공략은 마르쿠트와 킴라스카, 그리고 다아트가 손을 잡지 않고서는 해낼 수 없으니까.

제이드 : 적의 적은 아군입니다.

나탈리아 :대령의 말씀은 납득 할 수 없지만, 분명 이런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탈리아 : 평화조약을 맺었다고는 해도, 협력하게 되지는 않았을 지 모른답니다.

아니스 : 계기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 이걸루 조금이라도 관계가 변한다면.

가이 : 모든 게 끝난 다음에도, 영원하게는 안 되더라도 가능한 평화적인 관계가 오래 가도록 노력하면 되지.

제이드 : 뭐어 먼 미래의 이야기는 제쳐 두고, 지금은 엘드란트 공략에 집중하십시오.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28)

(그란코크마 궁전을 나오면...)

라르고 : 여기에들 있었나.....

루크 : 라르고.....!!

나탈리아 : 겨우 등장하시었군요. 만나고 싶지는 않았사옵니다만.

라르고 : 하하하. 그런 섭섭한 소리 말아라.
라르고 : 아리에타가 티글 숲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는 듯 하다.

아니스 : 아리에타..... 진짜 결투할 생각이요 양이야.

유우 : 우리 숲에서 싸우시는거예요?

루크 : 왜 그런 데서.....

라르고 : 그 숲은 아리에타의 모친이 별세한 장소이니 말이다.

아니스 : 입회인이라 게 당신이었구나.

제이드 : 아리에타가 패배한다면 그 다음 상대는 당신이라는 이야기가 됩니까.

라르고 : 나는 입회인으로서의 의무 외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
라르고 : 거기다 아리에타가 질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만.

.....

아니스 :좋~아. 그럼 아리에타 개를 해지우기로 할까.

루크 : 아니스, 괜찮나? 무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스 :날 신경쓸 바엔 루크는 다른 사람을 신경쓰는 게 낫지 않아?

루크 : 누구? 나탈리아?

아니스 : 요전부터 엄청 상처 입히고 있다는 거 눈치 못챘다 이거지.

가이 : 그런 구석은 성장한 적 없으니까.

루크 : 웬데, 확실히 말해!

가이 : 나중에 기회 봐서.

<페이스 채트 '아리에타를 위해서라도.....'>

나탈리아 : 결투라는 의식이 꼭 필요한 것일려나요.....

루크 : 적어도... 아리에타에게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거겠지.

티아 : 결투를 받지 않고, 원한을 사는 것을 통해, 아리에타에게 살아갈 희망을 줄 선택지도 있어.

나탈리아 : 어머니, 그런..... 그래서 아니스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스 :실은 말이지, 그것도 생각했어.

나탈리아 : 아니스.....당신이라는 아이는.....

아니스 : 그치만..... 저 앤 태어난 뒤로 계속, 반 총장의 손바닥 위에서만 춤추고 있었던 걸. 아니스 : 그래도 이번 일은, 반 총장과는 상관 없이 재 스스로가 정한 일이라 생각하니까..... 받아 줄 거야.

루크 :알았다. 난 이제 안 말리지.

나탈리아 :그래도슬픈 일이에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저는 그리 생각한답니다.

아니스 :고마워, 나탈리아.

(이 시점에서 그란코크마에 도착할 때, 칠흑의 날개 우르시가 소매치기를 하는 걸 붙잡는 이벤트가 있었을 것이다)
(케텔부르크 항구를 들렀다가 케세드니아 주점의 마스터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가이의 코스튬 칭호를 입수할 수 있다)
(이제 티글 숲으로 가자)

[티글 숲]

루크 : (이온.....너, 진짜로 이제 없는 거냐.....)

아니스 : 모두는 여기서 기다려 줘.

티아 : 아니스! 혼자서 갈 생각이니?

아니스 : 응. 이런 내 문제니까.

루크 : 아니!
루크 : 이온은 우리 동료였어. 이온 일이라면 우리 모두의 문제다.
루크 :그리고 아니스 너도 동료 아냐.

아니스 :내가? 한참동안 모두를 속이구 있었는데?

나탈리아 :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 않나요?

가이 : 아리에타에게 마을 친구들이 붙어 있을 거다. 아니스에게는 우리가 붙어있어 줘야겠지.

티아 : 이온 님께서는 내 대신 세상을 떠나신 것이기도 하셔. 결투라면 나도 가는 것이 옳아.

제이드 : 이런 이런, 동료..... 라는 말이 옳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어 오랜 약역이라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아니스 : 대령님다우신 말씀.
아니스 :응. 알았어. 다 같이 와 줘.

루크 : 좋아, 결정된 거다.

(라이거네 동지 안으로 이동하게 된다)

<페이스 채트 '이온과의 추억'>

루크 : 여기서 이온과 처음으로 이야기다운 이야기를 했었지.

티아 : 듣고 보니 그러네. 당신, 이온 님에게서 향훈부(C 코어)를 받았었어.

루크 : 그 녀석, 신기한 놈이었어.
루크 : 난 그때 꽤나 짜증날 놈이었는데도, 녀석은 나보고 상냥하다 상냥하다 그러면서.....

아니스 : 그림다..... 라고도 그러셨구.

루크 : 내가 복제이고 그 놈도 복제였기 때문 알라나.

제이드 : 어떨까요. 복제끼리 인지할 수 있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티아 :만, 무엇이신지요?

제이드 : 저는 인간의 환생이라는 건 믿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먼 옛날 당신과 이온 님이 친하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이드 : 복제라서,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 보다는 그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가이 : 하하, 제이드 답진 않지만, 그 쪽이 마음에 드는군.

루크 : 어, 그래. 이온..... 너랑 만날 수 있어서, 난 진짜로 기뻐다.
루크 : 나를, 아마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던 처음의 타인이었으니까.

<페이스 채트 '잘못 끼움'>

유우 : 숲이 조용해염.....

루크 : 6 신장이 와 있으니까.

유우 : 맞아염. 아마 그럴 거예요.....

가이 : 숲의 마을들도 이제부터 일어날 일을 눈치채고 있는 건가.....

유우 : 저두 아리에타 원수예요..... 저..... 진짜 나쁜 티글이예요.....

루크 : 라이거 말이군..... 아냐, 그건 모두가 다들, 단추를 밀려 끼웠기 때문야. 누구 하나만 잘못된 게 아니고.

유우 :저는 양복 안 입구 있어염.....

루크 & 가이 : 아이구.....

(녹색 기억진을 지나가면...)

라르고 : 이것 참. 기다리다 지쳤지 뭔가.

아리에타 : 지쳤어..... 요!

아니스 : 하켓다면 빨리 붙자구!

라르고 : 기세가 등등하군. 허나 결투에는 규칙이 필요하다.

아리에타 : 아리에타는 친구들이랑 같이 싸울 거야. 너희들도 4 명으로 싸워.

나탈리아 : 아리에타. 당신은 우리를 도운 적도 있었어요. 대화로 해결할 수 없나요?

아리에타 : 그건 이온 님을 구하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이온 님은 죽어 버렸어. 아리에타 : 당신들은 엄마의 원수! 아니스는 이온 님의 원수!
아리에타 : 반 총장을 위해서라도 당신들을 쓰러뜨릴 거야! 예요!

아니스 :자기 혼자 벌레 한 마리 안 죽인 것처럼 굴지 마. 반 총장 명령으로 타르타로스의 모두를 살해한 주제에.
아니스 : 나도, 모두의 원수를 갚아 줄 거야!

아리에타 :아니스, 각오해!

<BOSS - 아리에타, 라이거, 프레스베르그>

상대의 능력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코럴 성 옥상에서 싸웠던 것과 거의 같다. 노멀 기준으로 아리에타의 맷집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경직상태에 빠뜨리는 데 필요한 히트수가 늘었으므로, 직접 노릴 때엔 히트수가 많은 기술을 쓰자. FOF 가 생기면 억지로라도 먼저 변환기를 써 버리든지, 말피감짜 피신하도록. 그리고 아리에타도 HP가 10000 정도로 줄면 비오의 이발 라이트를 쓰므로, 가능하면 혼자 맞자.

아리에타 : 반 총장..... 아리에타..... 저 버렸어..... 미안..... 해요.....

아니스 : 아리에타.....

아리에타 : 엄마..... 다들..... 미안... 원수 못 갚아서...
아리에타 : 이온 님..... 어디.....? 아파..... 이오.....

(아리에타 落命...)

아니스 : 아리에타..... 미안.
아니스 :너 정말 싫었지만..... 그치만..... 정말 미안해.....

라르고 : 적의 시신에 울며 사과하는 짓은 그만 뒤라, 아니스. 그래서 아리에타가 더더욱 가엾게 되고 만다.
라르고 : 아리에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리고 죽었다.
라르고 : 그런데 적에게 동정을 받는다는 건 모욕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스 :응.....

라르고 : 불쌍한 것은, 페레스 성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티아 :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막지 않았나요.

라르고 :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해 내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다.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나?
라르고 : 아리에타에게 있어서, 도사 이온과 반 총장, 그리고 마물들은 자신을 도와 준 은인이었다.
라르고 : 그들을 위해 싸우고 싶다 느끼는것은 당연한 일이겠지.

나탈리아 :반에게 속았다는 것을 모른다 해도?

라르고 : 속인 것 따위가 아니다. 진짜 도사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리에타도 목숨을 끊었을 테니 말이다.
라르고 : 그것은 반 총장의 자상함이였다.

루크 : 아리에타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6 신장에 들어갔어.
루크 : 그럼 당신은 어떤데. 버덕.

라르고 : !!
라르고 :그 이름은 먼 옛날에 버렸다. 아 내가 잠든 바티칼의 바다에.

(루크는 로켓을 던져 넘긴다)

라르고 : 과연. 네가 주웠던 건가.

루크 : 이름 밝힐 생각 없어?

라르고 : 이름을 대서 어쩌라는 거냐? 적은 적. 그것이 전부다. 착하기만 한 애송이.
라르고 : 다음에 만날 때는 내가 너희를 죽일 때다. 아리에타의 원수는 그 때 갇기로 하지.

.....

나탈리아 : 루크. 무슨 이야기이셨지요?

루크 : 미안. 지금은 말 못하겠다.

나탈리아 :그렇다면, 언젠가는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시군요.

루크 :어. 반드시.

가이 :자. 여기서 멍하게 있을 수는 없어. 예언 회의의를 위해 유리아 시티로 가자지?

루크 : 그랬었지.
루크 :아니스, 갈 수 있겠냐?

아니스 :응. 괜찮아.

티아 : 그럼, 가자.

(아니스에게 '최후의 폰 마스터 가디언' 칭호)

<페이스 채트 '각자 각자의 마음. 이루고 싶은 바램'>

티아 : 6 신장에게는 모두들,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서라도 이루고 싶은 바램이 있다는 걸까.....

루크 : 예언의 소멸..... 말야?

가이 : 반의 이상에 따르고 있으니, 그런 셈이 되겠지.

가이 : 예언을 없애길 원하기 때문인지 반에게 협력하고 싶기 때문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루크 : 목숨과..... 맞바꾸어서 라도..... 말인가.

티아 : ...나도 예전에는 그랬지. 그러는 것이 아땅하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아무 의심도 가지지 않았어.

가이 : 지금은 안 그럴고?

티아 : 목숨을 거는 것 만이, 진심이라는 증거이 될까? 난..... 흔들리기 시작했어.....

가이 : 흐름. 그럼 티아 넌, 견해가 나랑 비슷해지기 시작한 모양이구만.

루크 : 가이 넌 목숨을 거는 게 진심은 아니라고?

가이 :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냐.
가이 : 난, 살아남는 것에 집착하기에 비로소, 세계를 바꾸고 싶다고 강하게 바랄 수 있는 게 아니겠냐 생각한다.

가이 :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신념」이라고 할까?

루크 : 사는 것에 대한 집착..... 목숨을 걸고서 라도 이루고 싶은 소망.....

티아 : 그래..... 아마 양쪽 모두 옳기 때문에, 나도 흔들리고 있는 거구나.

가이 : 이 세상에 정답 같은 건 없어. 그 대신 오답이란 것도 아마 없을 거다. 정하는 건 자기 자신야.

<페이스 채트 '여자의 의지'>

아니스 : 자~, 빨리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자구~!

나탈리아 :무리하고 있사와요.

티아 : 맞아.....

유우 : 아니스 씨, 아니스 씨.

아니스 : 왜?

유우 : 눈물 나구 계세요.

아니스 : 아우. 이런 청춘의 땀이야. 눈물 아냐. 자,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다음으로~!

루크 :괜히 위로하지 않는 편이 나을라나.

제이드 : 아니스는 아리에타를 쓰러뜨린 것 보기도,

제이드 : 그 일로 인해 상처입은 자신을 보아서 여러분의 기분이 어두워지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제이드 : 동참해 주십시오. 아직 몇 살 되지 않은 어린이께서 기특하시지 않습니다.

가이 : 그렇군. 아리에타를 해친 것은, 아니스 자신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선 안 될 일이니.

가이 : 우리는 지켜봐 줄 수밖에 없어.

루크 :알았어.

(유리아 시티로 가자)

[감시자의 도시 유리아 시티]

(들어가면 한 복제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

나탈리아 : 어머, 당신 괜찮으시어요?

직원 1 : 자, 이리 와라.

직원 2 : 티아. 무슨 일 있어?

티아 : 방금 그 사람은.....

직원 2 : 복제야. 아무래도 세리던에서 도망쳐온 모양이지.

루크 : 왜 도망쳐 온 건데?

직원 2 : 요즘 많아. 죽었을 터인 사람이 기억이 없는 상태로 훌쩍 나타나거나 장례식 치르고 묻혔던 본인이 나타나거나...

제이드 : 복제가 대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직원 2 : 그들은 살아가는 법을 모르지. 마물에게 습격을 받던가, 가게 물건을 멋대로 집다가 헌병에게 체포당하질 않나.
직원 2 : 지독한 학대를 받는 복제도 많아.

나탈리아 : 그럴 수가..... 너무나 심해요!

직원 2 : 포미클리로 생물 복제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점점 알려지고 있으니 말이야.

직원 2 : 개중에는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 죽은 것은 복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

직원 2 : 정말로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다지만 대부분은 누명이라고.

가이 :그러나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복제에게는 아무 탓도 할 수 없겠지.

직원 2 : 그런 셈이다. 결국 여기서 보호해 주

고 있는 거야.
직원 2 : 애당초 마물의 공격을 받지 않을 땅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갈 곳도 없는 거다.
직원 2 : 식량도 무한이 아니고 해서 우리도 곤란해 하고 있는 참이야.

<페이스 채트 '복제'>

루크 : 우리들 복제란 대체 뭐지.....

아니스 : 뭐냐니..... 인간이야. 그럴잖아.

루크 :그래도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을 뿐, 인간으로서의 취급을 받는 것처럼은 안 보여.

가이 : 우리 루크 너에 대해 안다. 이온도 알고 있고 싱크도 알고 있지.
가이 : 복제가 인간과 아무 다를 바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제이드 :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포미클리는 무기물의 복제품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제이드 : 복제인간은 그냥 복사품 아니면 대용품이라 생각하겠지요.
제이드 : 받아들여 줄 사람이 전혀 없으리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루크 : 그럼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돼? 어디서 지내면 되는데?

루크 : 아무것도 못 하는 어린애와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이.....

아니스 : 루크.....

루크 : 우릴 만든 건 제이드잖아! 당신은 뭐든지 다 알잖아!

가이 : 루크! 이 친구에게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야.

루크 :미미안.....

제이드 :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얼마나 한심할니까. 저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이드 : 이걸 대체 무엇을 위해 달려있는 머리인지.....

(중앙관리시설 회의실로 가자)

테오드로 : 오오, 티아. 거기에 여러분. 이거 큰일이 났구려.

티아 : 할아버님. 오늘은 할아버님께 상당할 일이 있어 왔습니다.

(설명한다)

테오드로 :사정은 이해했다. 이온 님께서 돌아가신 지금, 내가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낫겠지.

티아 : 그러면.....!

테오드로 : 응. 나도 다아트로 가야겠구나.

루크 : 됐다!

나탈리아 : 아버님께 알리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겨우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라고요.

(바티칼까지 자동으로 가게 된다)

[빛의 수도 바티칼]

가이 : 이상하군. 이전보다 사람이 늘은 것 같지만.....

아니스 : 저기, 저 사람을 복제 아니야?

티아 : 어떻게 된 걸까? 왜 복제들이 이런 곳에.....

루크 : 폐하를 찾아가기 전에 도시 상태를 살펴보는 게 낫겠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이벤트)

루크 : 왜 그래 나탈리아?

나탈리아 :저, 왕족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었다 「생각」 했었사와요.

아니스 : 생각만 한 거 아니잖아? 항구 개척사 업라든지 요양소 설치도 했었다면서.

나탈리아 : 하지만, 그것이 단지 자기만족이 아니라 단정할 수 있을지요?

티아 : 현실적으로 이 도시 사람들은 나탈리아 당신에게 감사를 하고 있었어. 자기만족은 아니지 않을까?

나탈리아 : 그럴까요.....

제이드 : 세상 모든 일은 자기만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루크 : 그런 거야?

제이드 : 예를 들어 나탈리아께서 이해득실을 떠나 「나라를 위해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을 하셨다 합시다. 제이드 : 그래도, 그것을 이루는 것을 통해 나탈리아 자신도 만족을 하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이 : 그야 그렇지. 하지만 제이드. 그건 말장난 비슷한 거 아니겠어.

제이드 : 예에. 어거지입니다.

티아 : 설령 자기만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찬동을 얻었을 때, 자기만족의 영역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

루크 : 그렇담, 나탈리아는 이 도시 사람들한테는 지지를 받고 있었잖아. 자기만족 따위가 아니라는 얘기구만.

나탈리아 : 아니요. 뭔가 좀 더 해낼 일이 있을 것이지요.

나탈리아 : 진짜 왕녀가 아닌 제가 이 입장에 있는 이상, 제게는 모두의 행복을 고려할 의무가 있는 거랍니다. 나탈리아 : 이 도시의 모두는 저를 받아들여 주었어요. 저는 그 기대에 보답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지요.

루크 : 나탈리아 역시..... 굉장하니까.....

티아 : 응. 하지만, 조금씩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확실하게.

아니스 : 어휴~. 왕족이란 예쁜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게으름만 피우면 안 되는 거구나.

가이 : 뭐어, 그런 나라는 망하거든.

제이드 : (중얼)그녀가 진실로 국민에 대해 생각하게 됐을 때, 왕정제 그 자체를 어떻게 보게 될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루크 : 뭐라고 했어?

제이드 :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승강기를 타고 한번 위로 올라가면...)

시민 : 뭐, 뭐야!? 난 대체 누구야! 가, 가까이 오지 마!

루크 : 뭐하는 거야, 그만해!

시민 : 다, 당신! 그 놈은 괴물이다! 만지지 마!

루크 : 뭐어? 괴물이라니.....

시민 : 진짜야! 그 놈은 2주일 전 예언을 듣고 돌아오다 죽은 내 친구야!

루크 : !!

시민 : 아니, 그 친구는 죽었으니 이놈은 가짜야! 그런데 완전히 같단 말이다!

루크 : 복제인가.....

나탈리아 : 진정하시어요! 이 분은 괴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시민 : 아, 아무튼! 그놈은 이상하다고!

복제 : 레옴..... 렘의 탐.....

.....

가이 : 있잖나. 복제들이 말하는 '렘의 탐'이란 게 뭐냐?

티아 : 마계(클리포드)에 옛날부터 있었던 탐이야.

티아 : 창세력 시대에 외각 대지 계획이 실패했을 경우를 상정해서, 다른 별로 옮겨가기 위해 지은 탐이라고 하는데.....

루크 : 다, 다른 별!? 그런 걸 할 수 있어?!

티아 : 당시로서도 상당히 무모한 계획이었다고 들었어.

가이 : 창세력 시대에도 뻘뻘했다면 하늘도 제대로 날 수 없는 현대에는 꿈 속의 꿈이구만.

아니스 : 그럼 복제들은 그 탐을 통해 복제된 외각 대지로 가려는 걸까.

나탈리아 : 그렇다 하더라도, 복제 전원이 렘의 탐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상해요.

제이드 : 그렇습니다. 다만 제조와 동시에 렘의 탐의 기억을 입력해 둔 것이라 한다면..... 제이드 : 뭐어, 있을 수 없는 일만은 아닙니다만.

루크 : 결론을 못 낸다면 이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페하나 만나러 가지.

나탈리아 : 그렇군요.....

(승강기로 한번 더 올라가면...)

시민 1 : 신생 로렐라이 교단에 자비를 구해라!

시민 2 : 예언을 준수하라! 이대로 장기(障氣)에 찌들어 죽기는 싫다!

시민 3 : 케세드니아에 사시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번 장기 탓에 돌아가셨단 말이다!

시민 4 : 마계 따윈 사양이야! 원래 외각대지로 되돌려 줘!

나탈리아 : 기다리세요! 진정들 하시어요! 여러분, 정착을.....

시민 5 : 시끄러워!

루크 : 나탈리아!

나탈리아 : 조용히들 하십시오! 저는 나탈리아! 나탈리아 루츠 킴라스카 란발디어입니다! 나탈리아 : 우리 사랑하는 킴라스카의 국민 여러분 부디 진정하시길. 제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시민 6 : 나탈리아 님! 장기가.....! 이대로는 장기 때문에 모두 죽게 될 거예요!

나탈리아 : 물론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장기를 없앨 방안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시민 7 : 이전처럼 대지를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까!

나탈리아 : 그것은 우리입니다! 나탈리아 : 신생 로렐라이 교단이 말하는 외각대지는, 지금 있는 이 대지를 깎아서 만들어낸 것.

나탈리아 : 엘드란트가 나타난 것 때문에 중앙대해 주변 섬들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나탈리아 : 아시겠는지요, 당신들께서도 같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지요!

시민 8 : 그런..... 말도 안되는.....

루크 : 이젠 다들 알 거 아냐. 지금 와서 예언에 의존하면 어떻게 해! 루크 : 유리아는 외각이 마계로 떨어진다는 예언같은 건 한 적 없어!

시민 9 : 그것은 예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루크 : 예언이란 게 지켜야 되는 거였어!? 지키지 않으면 빗나갈 게 예언이라니 비정상이라고! 루크 : 예언은 결정된 미래가 아냐. 미래의 가능성 중 하나란 말야!

나탈리아 :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나탈리아 : 만일 —— 그래요, 만약에 아무런 해결 방법도 찾아내지 못했을 때엔 신생 로렐라이 교단에 구원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10 :나탈리아 님. 믿겠습니다.

시민 11 : 장기만 없애지게 해 준다면, 우리들도 임금님께서 하시는 정치에 참견할 생각은 없습니다요.

시민 12 : 장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거기다, 복제라 했습니까 저거?

시민 13 : 정체를 모를 인간 비슷한 게 서성거리면서 우리들의 주거지를 어질러 놓고 다닌단 말입니다.

루크 : !!

시민 14 : 저희들은 그저 평온하게 지내고 싶은 것 뿐이에요.

(모인 사람들은 흩어지고...)

루크 : 인간 비슷한 거..... 라.....

티아 : 루크. 저 분들은 흥분해 계시던 것 뿐이야. 냉정을 되찾고서 사태를 이해하고 나면.....

루크 : 됐어!!됐다고.

<페이스 채트 '백성의 불안'>

나탈리아 : 역시 예언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사워요. 그 사실 만은 하루 아침에 변하지 않겠지요.

아니스 : 거기다 세상은 장기 천지구.....

루크 : 인간 비슷한 것들도 싸돌아다니니 말야.

티아 : 루크,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

루크 : 아니, 다만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 눈으로 보면. 인간 비슷한 괴물일 거란 생각은 든다.

루크 : 우리에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으니까.

티아 :

아니스 : 루크에게 미안하지만, 단적으로 말해 버리지마. 아니스 :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언이 없는 세queira 안 그래두 불안한데 정체를 모를 생물이 잔뜩 생겨나고 있는 셈일 거야.

제이드 : 불안은 전염이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세계규모의 폭동이 일어나고도 남습니다.

가이 : 이후 페하네가 얼마 만큼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

(궁전 앞현실로 가자)

인고벨트 6 세 : 오오! 나탈리아야! 모스는 대체 어떻게 되어 버린 것이냐?

나탈리아 : 저희들도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고벨트 6 세 : 어쨌든 우리로서는 선불리 무조건 거스를 수는 없다.

인고벨트 6 세 : 물론 모스에게 굽힐 생각은 없다면, 시민들의 예언에 대한 신뢰도는 높으니 말일세.

인고벨트 6 세 : 왕실이 딱 잘라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루크 : 쌍.....!

알바인 : 복제 건에 대해서도 페하께서는 골치를 앓고 계십니다.

알바인 : 난민으로 처리하기에도 수가 너무 많다보니 도시의 치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고벨트 6 세 : 개중에는 장례식 도중에 복제가 나타나, 큰 혼란이 인 끝에 사상자가 나왔다는 예도 있다.

인고벨트 6 세 : 식량도 무한은 아니니 말이다. 복제 문제에는 머리가 아프구나.....

루크 : . . .

인고벨트 6 세 : 허허, 루크. 너를 말하는 것은 아니란다. 불쾌하게 생각지 말거라.

골드버그 : 폐하. 저는 즉시 마르쿠트 대사와 면회를 해 저 쪽과의 연계를 꾀하려 생각하는 중입니다.

인고벨트 6 세 : 음, 말기겠네.

나탈리아 : 아무튼 폐하. 예언에 대한 회의를 겨우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고벨트 6 세 : 그랬느냐, 나탈리아. 무사히 다리를 놓아 주었구나. 수고했다.

인고벨트 6 세 : 하나 마침 잘 되었지. 3 세력 끼리, 예언에 대한 명쾌한 결정을 내릴 것도 당연하다만...

인고벨트 6 세 : 나는 신생 로렐라이 교단을 향한 진군도 제안할 생각이야.

아니스 : 분명 이대로 가다가는, 이 지상은 복제 대지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제이드 : 그렇습니다만, 엘드란트를 공격하려 해도 플래닛 스톰이 방해가 됩니다.

루크 : 그렇네. 그것도 골치가 아픈 문제이다. 복제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되네.

나탈리아 : 복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지경인지요?

인고벨트 6 세 : 지금은 한 때보다는 나아졌다.

인고벨트 6 세 : 아무래도 렘의 탑이라는 장소로 향하는 듯, 시가지에서 많이들 모습을 감추어 주었다.

인고벨트 6 세 : 하나 그 때까지는, 주민들과의 알력이나 재정의 압박 등으로 대단한 소동이 있었지.

인고벨트 6 세 : 무어라 해도 나라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였으니 말이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자가 많았고...

인고벨트 6 세 : 복제를 잡아다가 여러가지로 좋지 못한 짓을 시키려는 무리까지 나타나더구나.....

루크 :역시 복제에겐 갈 곳이 없는 건가.

나탈리아 : 그것은 지금, 아무 법적인 준비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알바인 : 감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복제는 한없이 진짜에 가까운 가짜이니 말입니다.

인고벨트 6 세 : 아무튼, 지금은 회의를 해야겠네. 우리 나라의 통일된 견해를 정리하기 위해, 측근들을 소집하겠다.

인고벨트 6 세 : 이야기가 마무리 될 때까지, 너희들은 파브레 공작 집에서 대기하거라.

나탈리아 :아버님! 저도 참가시켜 주시기를.

인고벨트 6 세 :알았다.

루크 : 나탈리아, 부탁한다.

나탈리아 : 네.

루크 : 그리고 폐하, 이전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요.....

인고벨트 6 세 : !!잠시 후 내 방으로 찾아오너라.

루크 : 알겠습니다.

<페이스 채트 '아버지를 닮았다면!?'>

아니스 : 그건 그래두, 저 두 사람 전혀 닮았잖네.

티아 : 저 두 사람이라면.....

아니스 : 나탈리아랑 라르고. 나탈리아는 화사하구, 미인인데.....

가이 : 어머니를 닮은 게 아니겠냐.

루크 : 라르고를 닮은 나탈리아 라는 것도 무서울 걸.

제이드 : 당신보다는 확실히 크가 키가 클 겁니다.

루크 : 나, 난 아직 성장기라고!영? 다들 왜 그러고 있어?

가이 : 아니..... 라르고를 닮은 나탈리아란 걸.....

아니스 : 상상해 버렸어.....

티아 :

제이드 : 상당히 야성적이지 않겠습니까.

루크 :그, 그렇지.

(인고벨트 6 세의 개인실로 가자)

인고벨트 6 세 :오오. 그러면 역시 그 라르고라는 사나이가 나탈리아의 친부가 되는 셈이더냐.

루크 : 예. 틀림 없습니다.

인고벨트 6 세 :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인고벨트 6 세 : 혹시 신생 로렐라이 교단과 전면적으로 충돌하게 된다면 저 아이는 자신의 친아버지와 싸우지 않아선 안 된다.

제이드 : 아직 나탈리아께서는 이 일을 모르십니다. 이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스 : 진실을 아는 것만이 행복이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인고벨트 6 세 : 너는 어떠냐? 루크, 어떻게 생각하느냐?

루크 : 난..... 자신이 복제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런 건 알기 싫었다고..... 슬퍼했었지.

루크 : 그래두..... 어렵잖이나마 자기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에도 눈치채고 있었으니까요. 루크 : 아무것도 모르는 채였다면 자포자기하게 됐을지도 몰라.

루크 : 나랑은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르지만 난..... 알고 있었던 편이 낫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가이 : 그렇군. 분명히 모른다는 행복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이 : 하지만 우리가 아는데 당사자인 나탈리아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상태는. 일그러진 것이라 생각되는군.

티아 :나중에 진실을 알았을 때 괴로울 거야.

인고벨트 6 세 : 그렇군..... 생각을 하게 해주겠냐.

루크 : 예, 폐하.

(궁전 밖으로 나온다)

제이드 : 저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마르쿠트의 총의를 정돈하도록 황제폐하께 진언을 올리고 오겠습니다.

제이드 : 잠. 알비를 좀 빌려가겠습니다♡

가이 : 그러면, 은. 어쩔래 루크. 이대로 집에 갈래?

루크 : 어.....

티아 : 루크. 왜 그래?

아니스 : 음. 루크 이상해. 뭔가 심각히 생각하는 게.....

루크 : 으억.....

티아 : 루크?

가이 : 로렐라이냐, 아니면.....

애쉬 : (복제. 지금 어디 있나)

루크 : 애쉬.....! 지금은.....

애쉬 : (아니, 됐다. 보였어. 바티칼이냐)

루크 : 너만 나한테 목소리를 보내고 내 눈으로 보거나 하나...!

애쉬 : (.....나도 바티칼 가까이에 있다. 널 만나러 갈 테니 도시 바깥으로 나가자 마라)

루크 : !!

루크 : 난 집에 있을테니 만나고 싶거든 알아서 와!

애쉬 : (안 돼. 항구나 다른 데서.....)

루크 : 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애쉬 : (.....멋대로 해라!)

아니스 : 애쉬, 뭐래?

루크 : 우릴 만나러 온다나 봐.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

가이 : 저택에서? 괜찮겠냐?

루크 :어. 그 편이 나아.

<페이스 채트 '애쉬로부터의 접촉!>

루크 : 애쉬 녀석 원 일일라냐.

가이 : 로렐라이의 보주에 대한 보고 아니겠냐?

아니스 :라는 건, 못 찾아낸 걸까.

루크 : 어떻게 알아?

아니스 : 찾아냈다면, 그 편리 연락망으로 "발견했다, 복제" 라고 말했을 것 같아.

루크 : 편리 연락망은 무슨.....

티아 : 그래두 분명 아니스 말대로야.

가이 :그래서, 발견이 안 되길래 널 야단치러 왔다는 거냐.

루크 :잘 됐어. 나, 저 놈에게 시키고 싶은 게 있었으니.

아니스 : 시키고 싶은 일?

루크 : 뭐, 이따가 알게 될 거야.

(파브레 공작 저택으로 들어가면...)

가이 : 네가 여기 발을 들여놓을 줄은.....

애쉬 : 두번 다시 돌아올 일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루크 : 애쉬, 로렐라이는 어떤든?

애쉬 : 로렐라이와는 통신할 수 없었다. 역시 반의 내부에 흡수되어 교신을 할 수 없게 없게 된 것이겠지.

루크 : 그러면 로렐라이의 보주가 어디에 있는지는.....

애쉬 : 모른다. 하나, 로렐라이는 지핵에서부터 세피로트를 통해 열쇠를 흘려 보냈어. 애쉬 : 네가 받지 못했다면 세피로트의 여딘가에 떨어져 있을 거다.

아니스 : 그래두 세피로트는 애쉬가 찾아다녔잖아? 혹시 못 찾은 지나간 건 아닐까야.

애쉬 : 나는 그런 멍청이가 아냐. 이 녀석인 줄 아냐.

루크 : 원 의미야 그제.

티아 : 검과 보주는 서로 반응을 할 것 같아. 빠뜨리고 지나쳤을 리는 없을거라 생각하는 데...

루크 : 보주가 발견 안 된다면 선생들이 바라는 대로 되겠군.

애쉬 : 첫. 만사가 막혔나... 장기 탓에, 도시 놈들도 신생 로렐라이 교단 타령이고.....

루크 : 장기라.....

「'성스러운 불꽃의 빛'은 부정합 기의 정화를 바라며 킴라스카의 음기관도시로 향한다. 「거기서 비난받아 마땅할 힘을 이용해 구원의 방도를 찾아내리라.....」

루크 : 애쉬..... 초진동으로 장기를 중화시킬 수있다면 어쩔래?

애쉬 :무슨 소릴 하는 거냐?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지.

루크 : 할 수 있어! 로렐라이의 검이 있다면!

목숨과 맞바꾸게 되겠지만.....

티아 : 루크.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스 :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

애쉬 :그래서? 네가 죽어 주겠다고는 거냐?

루크 : 나..... 난.....

애쉬 : 복제는 좋겠군. 쉽사리 죽는다는 말이나와서.

「액제류스 일..... 사과해서 될 일이라면 얼마든지 사과할 거야」
「내가 죽어서 액제류스가 부활한다면..... 조금은 무섭지만..... 죽을래」

루크 :나도 죽기는 싫어.

애쉬 : . . .
애쉬 : 흥, 당연하겠지. 나도..... 아직 죽는 것은 사절이다.

루크 : 기, 기다려!

애쉬 : 이야기는 끝났다. 거기다 내겐 할 일이 생겼으니 말이다.

루크 : 난 안 끝났어! 10 분, 아니 5 분만 더 있어 봐!

애쉬 : 이, 이거 봐!

가이 : 어울려 주라, 애쉬.

애쉬 : 알았다.....

(애쉬가 가담한다)

<페이스 채트 '처신을 하는 법'>

아니스 : 파브레 가도 여러가지로 사정이 복잡하네~.

루크 : 그럴지도 없어. 애쉬가 고집 그만 부리고 이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만사 해결일 걸.

티아 :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가이 : 필요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얘기라면, 이젠 짜증나니 하기 없겠다.

루크 : 나는..... 난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스 : 허접.

루크 : !

아니스 : 애쉬한테 감 놔라 대추 놔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처신할 방도부터 제대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티아 : 동감이야. 자신의 목적도 정하지 않고서는 타인에게 무엇을 강요해도 소용 없어.

루크 :체엣. 왜 내 주변 여자들은 이렇게 다 무섭지만 한 거냐고.

가이 : 어쩔 수 없잖나. 사실이니.

(파브레 공작 부부를 만나러 가자)

슈잔느 : 루크!루크!?

파브레 공작 :너는!

애쉬 : . . .

루크 :아버지, 어머니. 진짜 루크를 데려왔어요.

애쉬 : 너 이자식! 뭘 어쩔 셈으로.....

루크 : 우리 정원에 있을게요!

(루크 일행 퇴장)

슈잔느 : 루크! 루크구나!

애쉬 :그, 그간 별로 없었습니다. 어머니.

파브레 공작 : 오라클 기사단에 있었던 거냐.

애쉬 : 예.....

파브레 공작 :많이 자랐구나. 루크.

애쉬 : 아버지.....

(한 편 정원에서는)

아니스 : 그랬구나. 아빠랑 엄마를 애쉬랑 만나게 해 주고 싶었던 거였어.

티아 : 하지만, 루크. 괜찮겠어? 당신은 애쉬가 이 집에 오는 걸.....

루크 :무서워하고 있었지. 그 말대로.
루크 : 그래도..... 난 역시 복제이고..... 저놈이 진짜니까. 언젠가 필요없다는 말을 듣게 될 바에야.....

가이 : 집어 쳐라, 루크.

루크 : 가이.....?

가이 :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가이 : 요새 묘하게 고민하던 거, 자신을 희생해서 장기를 없애겠다는 미친 생각이나 했기 때문이겠지.

티아 & 아니스 & 유우 : !!

티아 : 루크! 바보같은 생각은 그만 뒤!

가이 : 자신은 복제다. 가짜이다 하는 식으로 비굴한 생각만 해 대기에 필요 없다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걸 알라 말이다.
가이 : 그만 건 아무 의미도 없는 짓이구만.

루크 : 그래도 나, 자기가 복제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계속 생각했었다고.
루크 : 난 왜 태어난 걸까.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인가 하고.
루크 : 난..... 복제는 실은 여기 있어선 안 되는 존재란 말야.

가이 : 그만 좀 해!

애쉬 :정말 그렇다.
애쉬 : 난 이미 루크가 아니야. 이 집으로는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
애쉬 : 멍청한 소리 지껄이기 전에 그 비굴한 성미부터 뜯어고치는 게 어때. 짜증이 치밀어 오르네!

가이 :루크. 일단 좀 쉬어라. 넌 지금 지쳐있는 모양이다.

루크 :응.....

(애쉬와 헤어진 후 자동적으로 휴식. 시점이 이동된다)

[킴라스카 공전 알현실]

나탈리아 :분명 무한대의 음소력(폰 파워)은 잃게 될 지도 모릅니다.
나탈리아 : 그러나 인류가 멸망한 다음 플래닛 스톤만이 남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인고벨트 6 세 : 이미 예언이라는 이정표는 사라졌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미래를 잡지 않아서는 안 되리라.

[마르쿠트 공전 알현실]

제이드 : 플래닛 스톤을 잃는다면 보업과 보솔의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제이드 : 그렇다고는 해도 음소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이드 : 한정된 음소를 유용하게 이용항 방법을 새로이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오니 : 미래의 불편을 따질 때가 아니겠지. 뭐라 해도, 당장 미래가 사라질 지도 모른다고.
피오니 : 플래닛 스톤을 멈추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한다면.

[다시 킴라스카, 파브레 공작 저택]

나탈리아 : 기뻐해 주시와요. 플래닛 스톤을 멈추는 방법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제이드 : 이쪽도입니다. 실제 협의는 다아트

에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가십시오.
제이드 : 폐하들께서는 이미 배로 출발하셨습니다.

가이 : 뭐 우리 알비올이니 앞질러 버리게 될지도 모르지.

루크 :그래.

<페이스 채트 '끊이지 않는 고민'>

나탈리아 : 겨우 댕사와요. 이제는 이 국제회의에 이상한 방해가 들어오지 않게 해야.....

루크 :응...

가이 : 3 세력의 헤드가 얼굴을 맞대는 거라고. 경비는 만전이지 않겠냐.
가이 : 거기다 이제와서, 서로 간에 어려운 문제를 괜히 만들어 내리라고도 생각 안 돼.

루크 :응...

티아 : 하지만, 사람이 경비를 담당하는 이상 절대라는 것은 없어. 우리도 경비에 협력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루크 :응...

유우 : 주인님, 배라도 아프세염?

루크 :응...

제이드 : 당신 아버님께서는 조만간에 대머리가 되실 겁니다.

루크 :응...

아니스 :틀렸어. 루크, 완전 생각이 탄대가 있어.

제이드 : 하수가 궁리해도 명군 없으리..... 이긴 합니다만.

가이 : 장기 중화됐나?바보지, 이 놈.

티아 : 루크.....

(다아트로 가자)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29)

(이제 바티칼을 나가려 하면...)

스피노자 : 오오, 엇갈리지 않았구먼 다행히!

루크 : 원 일 있어? 이런 데까지.....

스피노자 : 음. 애쉬에게 장기(障氣) 중화를 맡겼나?

제이드 : 무슨 이야기이십니까, 그게.

스피노자 : 조금 전 애쉬가 와서 초진동으로 장기를 중화시키는 방법을 묻더군요.

나탈리아 : 애쉬가!? 어째서이지요!

루크 : 저 놈..... 무슨 궁리를 하는 거야.

스피노자 : 그에게 부탁받은 대로 성공할 가능성을 계산해 봤네만...

제이드 : 결과를 들을 것 까지도 없습니다. 일단 제 7 음소(세븐스 포닝)이 부족합니다.

제이드 : 로렐라이가 잠들어 있는 지금, 플래닛 스톤이 활성화 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량이 너무 적습니다.
제이드 : 거기다, 흑시 충분했다 하더라도.....

스피노자 : 인간의 체력이 버티지 못하지, 음소의 결함이 풀려서 떨어져 나가..... 죽는다.

나탈리아 : 설마, 애쉬는 그걸 알면서도.....

스피노자 : 그렇네. 말렸네만, 그래도 하겠다면서 뜯질 않더군요.

루크 : 그래도 제 7 음소술사 1만 명의 목숨이란 건 어떻게 할 셈으로.

제이드 : 복제이겠지요.

일행 : !!

제이드 :복제는 원자의 결합에 제 7 음소가 사용된 존재입니다.

제이드 : 그들의 목숨을 쓴다면, 제 7 음소술사 대응품은 될 겁니다. 그는 증폭기가 될 로렐라이의 경도 가지고 있으니.

루크 : 그 자식! 복제들과 같이 죽겠다는 거야!

가이 : 나 원 이거. 죽을 생각은 없다고 자기 입으로 그랬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나탈리아 : 루크! 그를 말려 주시어요! 저런 무리를 허락할 수는 없사와요!

루크 : 그래. 알고 있어!

아니스 : 그치만 애쉬는 어디 있는데?

티아 : 복제들의 제 7 음소를 쓸 생각이라면, 그들이 모여 있는 '렘의 탑' 일거야.

가이 : 렘의 탑은 어디 있냐?

티아 : 큐비 반도. 원래부터 마계(클리포드)에 있었던 육지. 남 루크니카 대륙의 돌출부와 이어져 있을 거야.

루크 : 좋아, 애쉬를 따라가자!

<페이스 채트 '애쉬를 막아라'>

가이 : 바보가 하나 더 있었을 줄은 말이다!

나탈리아 : 정말이지. 애쉬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자신이 죽어 장기를 없애겠다니..... 저는 납득할 수 없사와요!

제이드 : 이렇게 자살 지망자가 많으니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려. 아니 동반자살 희망자라 해야 할까. 어느 쪽이던 어리석습니다.

루크 : 1만 명의 복제랑 자살..... 그 자식 죽기는 싫다 그랬으면서!

가이 : 비비 꼬인 놈이니 말이다. 무슨 생각인지 원.....

티아 : 그래도, 그가 정말로 장기를 제거할 생각이라면, 렘의 탑에 있을거야. 서두르자!

(다아트로 가려던 창에 일이 터졌다. 큐비 반도에 있는 렘의 탑으로 가자. 위치상으로는 자오 유적의 멀리 남쪽이 된다)

[렘의 탑]

루크 : 이걸 대체.....!

나탈리아 : 복제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티아 : 다들 어떻게 저런 눈빛을.....

가이 : 어..... 생기가 없어.

아니스 : 루크, 난, 루크랑 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은 안 들어.

티아 : 저들에게는 개성이 없는 거야.....

제이드 : 입력식 교육 때문일 겁니다. 복제는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걷는 법도 모르지요.

제이드 : 기계적으로 최저한만의 지식을 부여한다면 모두 이렇게 되고 맙니다.

루크 : 웬지 기분이 더러워..... 복제란 건... 대체 뭐냐고!

노와르 : 아가들이네! 마침 잘 왔어!

루크 : 넌! 칠흑의 날개의.....! 왜 이런 데엘!

노와르 : 우리들은 애쉬에게 고용된 몸이니까.

나탈리아 : 그러면 역시 애쉬는 여기에!

노와르 : 그래! 애쉬는 장기를 없애기 위해 복제들과 같이 죽을 생각이야.

노와르 : 지금 한 패가 애쉬를 쫓아가고 있어. 아가들도 애쉬를 찾아서 말려 줘. 바보같은 짓 그만둬 라고.

루크 : 알았어. 일단 승강기로 위쪽으로.....

아니스 : 아우~~. 닫혀 버렸어~.

제이드 :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외에 위로 갈 방법은.....

루크 :저거 계단이지. 저기, 갈 수 있을 때까지 계단으로 따라가 볼래?

가이 : 야, 야 제정신이야!? 이 탑 높이가 얼마나 되는데?

티아 : 응. 하지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

나탈리아 : 그럴사와요. 그리고 어쩌면 위에도 승강기로 통하는 입구가 있을 지 모르니까요.

가이 :알았으. 여성진이 저렇게 주장하는데, 내가 무슨 불평을 하겠나.

제이드 : 나이 든 사람에게는 힘들겠습니다.

루크 : 군바리자나, 당신.....

아니스 :그건 아무튼. 애쉬 말인데 루크 오리지널 아니랄까봐 진짜 바보네!
아니스 : 증말, 머릿속에 뭐가 탑재되어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군요!

루크 : ;;

가이 : 누가 아니래냐. 빨리 가자, 루크.

루크 : 그래. 저 자식은 내 오리지널이야. 죽게 놔둘 수는 없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자)

요크 : 맥들이구만!

루크 : 애쉬는!?

요크 : 그럴군. 맥들도 애쉬 형씨를 찾으러 와 준 건가.

우르시 : 이 부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요.

나탈리아 : 애쉬..... 왜 자신을 희생하려 하면서까지.....

요크 : 그야, 공주님. 당신을 위한 것 아니겠소.

나탈리아 :네.....?

요크 : 애쉬 형씨는, 당신과 당신의 나라가 장기에 찌들어 가라앉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요.

가이 :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죽어 버린다면, 나탈리아가 슬퍼할 것도 눈치 못 채나보지, 저 바보는.

우르시 : 그것 말입니다만요. 행님께서 자주 시간이 없다는 둥 뭐라는 둥 하셨습니다요.

우르시 : 이번에도 '개죽음을 할 바에는 장기와 같이 가겠다' 라 하셨습니다요.

요크 :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

루크 : 죽기 싫다고 했던 주제에..... 저 멍청아!

제이드 : 이 주변에 없다면, 더 위층이 아니겠습니까.

루크 : 그렇지. 서두르자!

<페이스 채트 '특공대원'>

아니스 : 높아~~~. 아무리 올라가도 꼭대기가 안 나온다구~.

가이 : 역시 승강기가 아니면 무리겠군.

나탈리아 : 애쉬는 이미 최상층이려나요.....

가이 : 모르지. 녀석이 승강기에 탔다면 도착했을 거고, 우리처럼 타지 못했다면 아직 이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거다.

아니스 : 애쉬라면 얼굴표정 하나 안 변하고, 팡팡팡 계단 뛰어 올라갈 것 같애.....

나탈리아 : 아니스 안의 애쉬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아니스 : 저돌맹진(猪突猛进).

가이 :절묘한 묘사로군. 그럼 그 저돌맹진맨을 말리기 위해서라도, 승강기 입구를 찾아내야겠다.

(한참 올라가면...)

아니스 : 어라!? 계단 여기서 끝나 있어.

제이드 : 아무래도, 이 탑은 아직 건설 도중인 모양입니다.

가이 : 짓던 중에 방치되었다는 건가. 이런 때만 아니라면 이것저것 조사해 보고 싶었다만.....

나탈리아 : 리프트가 있사와요. 작업용일지요?

루크 : 좋았어. 저기 타고 가자.

제이드 :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슬슬 편하게 가고 싶은 바입니다.

티아 : 대령님이 가장 지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시는 걸요.

제이드 : 아닙니다. 날 때부터 허약한 체질이라..... 쿨럭쿨럭.

일행 : . . .

(리프트를 한번 타고 올라간 후, 격벽을 열어 진행하자)
(기억진을 지나면...)

아니스 : 아잉~. 계단도 리프트도 없어. 역시 이 이상은 진짜 힘들겠어.

루크 : 제길! 여기까지 와서.....

제이드 : 음. 저 장치로 승강기를 덮고 있는 유리를 파괴하도록 하십시오.

나탈리아 : 그런 짓을 했다가는 승강기까지 부서지지 않을까요?

제이드 : 그러니까, 덮고 있는 유리만을 부수자는 것입니다. 가이,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가이 : 그렇게 듣고 보면 못 하겠다는 말은 하기 싫은 법이지.

가이 : 음..... 보아 하니 작동될 것 같긴 하지만 동력원이 없으면.....

가이 :이런 이런. 레퍼토리가 없다는 말을 듣게 생겼군.

루크 : 뭐가?

가이 : 메지오라 고원 때와 마찬가지로.

티아 : 또 무언가에게서 동력을 뺏어와야 한다는 얘기네.

가이 : 정답. 어떻게 이 동력장치를 충전시켜야 되겠는데 말이다.

제이드 : 아래 층에 있었던 골렘 쯤이면 되겠습니까?

가이 : 그렇군. 그 선이 적당하겠네. 골렘들한테서 핵을 뜯어다가 동력장치를 충전시켜 보지.

루크 : 그럼 그런 가지고 가야 되네.

나탈리아 : 가이 ,그걸 옮겨 주시와요.....

티아 : 나탈리아!

나탈리아 : 어, 어머, 저도 참! 당신 이제 하인이 아니셨지요.....

가이 : 괜찮습니다, 나탈리아 님. 명령이시라면 옮기겠습니다.

제이드 : 마르쿠트에서도 페하에게 마구 부러먹히고 계신다지요.

가이 : 그만 해. 스스로도 한심하니까.

(렘의 충전기를 가지고 도로 내려가서 적들에게 시비를 걸자. 전투중에 렘의 충전기를 사용할 것)
(에너지를 채운 뒤 원래 있던 곳에 설치하면...)

루크 :척인다!

제이드 : 역시 음기관 박사이십니다.

가이 : 당신에게 칭찬을 받으면 수상한 느낌이 든단 말이지...

아니스 : 와앗, 아래를 봐!

나탈리아 : 아래에서부터 승강기가 올라오고 있사와요!

티아 : 여길 통해 올라타자!

<페이스 채트 '애쉬가 죽으려고 애쓰는 이유?>

루크 :애쉬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죽어서 장기를 없앨 수 있다면, 거기 만족하고 가겠다는 거냐고.

제이드 : 만족... 이라기 보다는 궁지에 몰려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탈리아 : 장기를 없애기 위해 초조해 있다..... 라는 느낌이 되나요?

제이드 : 음..... 장기를 없애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한계가 온 생명을 서둘러 소비하려 한다고나 할까요.....

루크 : 그렇다면 더더욱 따라가서 설득해야 돼.

제이드 :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만.....

나탈리아 : 무엇이신지? 대령, 마음에 걸리시는 일이라도?

제이드 : 그가 서두르는 의미를 모르는 한, 말할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루크 :애쉬가 우리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군.

나탈리아 : 왜 우리들을 의지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애쉬.....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려 하면...)

마리 : 너희들인가!

가이 : 누, 누나?!

마리 :나는 네 누나가 아니야. 나는 8 - 027이다.

루크 : 왜 여기 온 겁니까? 모스가 구원의 손길일 내리길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마리 : 그래. 지상에는 우리들 복제가 있을 곳이 없어.

마리 : 도시 밖에서 지낼 지식은 없고, 도시 안은 오리지널들의 세계다.

프링스 : 우리들은 원망을 받고 있다..... 이 지상에는 있을 장소가 없다.

프링스 : 한술 더 떠 오리지널을 위해 소멸되라는 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온 : 램의 탐의 최상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모스님께서 신생 호드로 인도해 주실 게야. 그렇게 약속하셨다.

마리 : 우리들은 거기서, 우리들의 나라를 만들 거다.

루크 : 기, 기다려!

루크 : 오리지널을 위해 소멸되라니..... 누가 그딴 소릴 했는데!

마리 : 너와 같은 얼굴을 한 사나이다. 우리의 생명을 써서 장기를 없앤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마리 : 아직 이 탐에 도착하지 못한 많은 복제들에게, 살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는 협상을 제의해 왔었지.

이에온 : 그렇게 죽고 싶다면 혼자 죽으라지. 우리에게는 호드가 있단 말이다.

마리 : 우리는 호드로 갈 거야. 모스님께서 반드시 받아들여 주실 것이다!

디스트 : 후하하하하! 몇 만년이 지나더라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만!

(투다다다...)

티아 : 그만 해요!

디스트 : 그렇게는 안 되지요. 여기의 귀찮은 복제들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네비림 선생님 부활 작전에 착수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제이드 :감옥에서 도망쳐 나왔나 싶더니만 아직도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그만 포기하십시오!

디스트 : 그건 안 됩니다! 네비림 선생님을 소생시킨다면 당신도 옛날의 당신으로 돌아오겠지요.

디스트 : 선생님과 함께 한번 더 그 시대를.....!

제이드 :지금까지 살려뒀던 제가 물러 터졌던 모양입니다. 잘 가십시오, 사피르.

디스트 :정말로 저를 버리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디스트 : 그렇다면 저도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복제들과 함께 사라지십시오!!

<BOSS - 카이저 디스트 XX>

더블제타... 가 아닌 더블엑스. 물리방어가 좀 높고, 물 속성이라는 약점도 보완했다.

날아서 레이저를 쏘는 공격을 새로 하는데, 이게 실은 최대의 찬스. 땅으로 떨어준 후 두들겨 패자.

딱히 특별한 발악은 하지 않으니 노멸이라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디스트 :어차피, 모스가 데리러 올 일은 영원히 없어.....

디스트 :엘드란트의 대공 영격장치가 가동되면..... 탐 채로 젓가루가 되겠지.....

디스트 : ㅋㅋㅋ..... 하~ 핫핫하!

(더블엑스의 자폭장치를 가동시킨다)

디스트 : 네비림 선생님..... 지금 그리로 가겠습니다!

루크 : 누구 맘대로!

(열파장으로 로봇을 날려보내는 루크. 쿠광~)

마리 :우리에게 있을 곳은 없는 것인가.....

루크 :우리들은이 시대에 존재해선 안 될 생물이야.

티아 : 아니야! 그래도 여기 있으면서 숨을 쉬고 있는데! 당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계 쪽이 이상한 거라구!

가이 : 하지만, 복제가 탄생한 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은 단순하지 못해...

애쉬 : 그렇다. 그렇기에 거러라 하지 않았나. 애쉬 : 어쩔 텐가? 이젠 너희들이 갈 곳은 없어졌다.

마리 : 생각할 시간을 줬으면 한다. 우리처럼 자아가 썩든 자들끼리 의논해 결정을 내리고 싶군.

루크 : 애쉬! 멍청한 소리 하지 마! 죽을 생각은 없다고 네가 그랬잖아!

애쉬 :그럼 장기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냐!

애쉬 : 내 대신 네가 죽어서 장기를 없애주길라도 하겠다는 건가?

루크 : 그..... 그건.....

애쉬 : 난 다녀와야만 할 장소가 있다.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너희들의 뜻을 결정해 뒤라.

루크 : 그..... 그건.....

애쉬 : 난 다녀와야만 할 장소가 있다.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너희들의 뜻을 결정해 뒤라.

나탈리아 : 기다리세요! 어디를 가시나요!

애쉬 :

나탈리아 : 루크! 애쉬를 말리세요!

루크 : 그래. 녀석을 따라가자!

(탐 밖으로 나가면...)

우르시 : 기다리고 있었습디다요.

루크 : 칠흑의.....!

우르시 : 우리들은 이제부터 애쉬 행님을 닮아 트로 굴길 생각입니다요.

요크 : 우리 형씨를 못 말리겠다. 어떻게 설득 좀 해 봐.

노와르 : 너희들, 두고 간다!

루크 : 다아트라..... 어쨌든 쫓아가서 녀석을 설득해 볼 수밖에 없겠지.

루크 : 장기를 없앤다 해도, 우리 로렐라이를 해방시키지 않을 안 돼. 그걸 위해선 오리지널인 애쉬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제이드 :루크. 당신께선 정말로 그리 생각하고 계십니까?

루크 : 어? 아아, 물론.

제이드 : 그러십니까.....

티아 : 대령님? 뭔가 짊어지는 것이라도?

제이드 :아니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스 : 암튼, 애쉬를 쫓아가는 거였지. 가자!

<페이스 채트 '안녕 디스트'>

루크 : 디스트..... 죽어 버렸구만.....

제이드 :어리석은 사나이입니다. 이를 수도 없을 꿈을 마지막까지 쫓다니.

루크 : 꿈.....?

제이드 : 먼 옛날, 바보같은 어린아이 둘이 나는 약속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초월하자는, 어리석은 꿈이었지요.

루크 : 제이드..... 그건.....

제이드 : 루크. 약속하셨을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루크 : 괜찮겠어, 그래요.

제이드 : 예. 디스트의 —— 사피르의 죽음은, 제가 혼자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루크 : 과거의 친구로서?

제이드 : 아니오, 주인으로서.

루크 :(한숨)

(다아트로 가자)

[로렐라이 교단 총본산 다아트, 교회 예배당]

피오니 : 너희들 왔냐! 지금 애쉬가 보낸 편지를 읽고 있던 참이다.

루크 : 애쉬 편지!? 애쉬 본인은 어디로 갔는 데요?

테오도로 : 로렐라이의 보주를 찾는다면 이 교회에서 갈 수 있는 세피르트로 향했소.

나탈리아 : 편지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요?

인고벨트 6 세 : 장기를 중화시킬 방법을 발견했다고 쓰여 있구나.

인고벨트 6 세 : 그에 따라서, 복제들에게 협력을 의뢰하는 대신, 그들을 보호하라고 적혀 있다.

루크 : 자식..... 자신이 죽는다는 건 안 써놨어.

피오니 : 무슨 소리야 그게?

제이드 : 가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이 :또 나냐. 뭐 좋아. 실은.....

(가이 설명타임)

테오도로 : 애쉬는 무슨 생각인가! 몇천명이나 되는 복제들과 같이 죽겠다니!

아니스 : 당연히 허가 안 하실 거죠?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인고벨트 6 세 : 복제라고는 해도, 그 만큼의 인명을 쉽게 소비시킬 수는 없다..... 허나.....

나탈리아 : 아버지! 허나, 라니요!

피오니 :제이드. 넌 아무 말 안 하나?

제이드 : 저는..... 더욱 잔혹한 대답밖에 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티아 :대령님. 설마!

루크 :나지? 제이드.

일행 : !!

가이 : 이봐! 애쉬 대신에 루크보고 죽으라는 거야! 까불지 마!

나탈리아 :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인정할 수 없어요! 저는 루크도 애쉬도 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제이드 : 저도 그렇습니다. 제이드 : 다만, 장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생각할 때, 이 이상 손을 쓸 도리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루크 : 난.....

티아 : 모두들 그만해! 그렇게 루크를 몰아낼 지 말아 주세요!
티아 : 루크가 자기 자신에게서 가치를 찾고 있다는 걸 다들 알잖아요! 값싼 선택을 하게 만들지 말아 줘요.....

제이드 : 실례했습니다. 분명 티아 말씀대로이군요.

루크 :잠깐만, 생각하게 해 줘.

(세 권력자들에게 말을 걸면, 그들도 말리려는 눈치임을 알 수 있다)
(동료들과 이야기 해 보자)

나탈리아 : 혹시 당신께서 저를 위해 애쉬를 대신하시려 한다면, 그만 두어 주세요.
나탈리아 : 제게는..... 어느 쪽도 소중하답니다.

루크 : 아냐. 그냥 난 역시 가짜이니까.....

나탈리아 : 당신은 가짜 같은 것이 아니어요! 당신께서 또 한분의 제 소꿉친구이세요.
나탈리아 : 두 분께서 킨라스카 왕국을 지탱해 주시기를.
나탈리아 : 두 분 모두 공작가의 인간신 걸요. 어디가 진짜이건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루크 :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긴 하다만.....

나탈리아 : 당신도 죽고 싶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나탈리아 : 제가 아버지 일행을 설득하겠어요. 경거망동하셔서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

가이 : 난 허락 못 한다.

루크 : 가이.....

가이 : 넌 아직 7 년밖에 못 살았어! 달랑 7 년 가지고 인생 달관한 듯한 소리 마!
가이 : 지푸라기를 잡아서라도 살아남을 생각을 하란 말이다!

루크 : 그래도 장기가 어떻게 안 되잖어? 나도..... 죽기는 싫지만.....

가이 : 그렇다면! 장기 따윈 내버려 뉘!

루크 : 가이.....

가이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말할 문제는 아니었지. 그걸 이해할 정도로, 너도 성장을 했다는 말이 되려나.
가이 : 그래도 난..... 네가 살아갔으면 한다. 누가 뭐래도 말이지.

루크 : 가이. 고맙다.....

.....

제이드 : 원망하셔도 됩니다.
제이드 : 당신이 복제들과 같이 희생되더라도 안정된 능력을 가진 오리지널이 남습니다.
제이드 : 장기는 사라지고, 식량 문제를 일으키는 복제들도 수가 줄어든다. 이득 투성이이지요.

루크 :제이드..... 당신은 내게.....

제이드 : 죽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제가 권력자라면,
제이드 : 친구로서는..... 말리고 싶다 생각합니다만.

루크 :제이드가 날 친구로 생각해 줬었다니 상상도 못 했는데.

제이드 : 그러십니까? —— 그랬겠군요. 저는 차가운 사람이니.
제이드 :미안합니다.

.....

아니스 : 이온 님도 그렇구 루크도 어떻게 그리 간단히 목숨을 버릴 수 있어?

루크 : 내가 언제 간단히.....

아니스 : 간단히지! 모두가 안된다고 말리는데도.....
아니스 : 루크가 죽으면 분명 장기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루크를 아는 사람들은 계속 괴로워하게 될 거야.

루크 : 아니스.....

아니스 : 이젠..... 이온 님처럼 누군가가 사라지는 건 보기 싫어! 이런 건 싫단 말이야!
아니스 : 왜 이런 기분을 느껴야 되는데? 이젠..... 싫어.....

루크 : 미안해..... 미안하다.....

.....

티아 :결심이라도 했어?

루크 : 있잖어, 나. 전에 자신이 죽어서 액제 유스를 부활시킬 수 있다면 죽겠다고 한 적 있었지.

티아 : 아, 으응.....

루크 : 네 말대로더라. 난.....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티아 : 루크.....

루크 : 무서워..... 몸이 떨려. 죽고 싶지 않다고.

티아 : 당연해!

루크 : 그래도, 애쉬는 이 방법을 골랐어. 절대 스스로는 죽지 않을 것 같은 저 녀석아.....
루크 : 이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소리 아니겠냐고?

티아 :당신 말인데, 진짜로 바보야.

루크 : 티아.....

티아 : 모두한테서 얘기는 들었어? 다들 당신을 말렸을 거라 생각해. 하지만..... 난 막지 않을게.

티아 : 난 자신이 패시지 링을 기동시켜서, 자신이 병들어 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었으니까. 당신은 그것을 허락해 줬었어.
티아 : 당신도 결심을 했다면 그 만큼의 생각이 있어서 한 것이라 믿겠어.
티아 : 하지만, 당신이 하려는 짓을 인정할 건 절대 아니야.
티아 : 당신이 그 선택을 해서 그래서 장기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난 당신을 미워할 거야.
티아 :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찬미한다 하더라도, 난 인정 안 할래.

루크 :어.

티아 :바보.....

가이 : 루크. 폐하네가 부르신다.

루크 :결심을 하라는 건가. 가자, 티아.

티아 :응.....

(예배당으로 이동한다)

나탈리아 : 애쉬!

애쉬 : 렘의 탑에서부터 쫓아온 거냐.

루크 : 어떻게 해서든 죽을 생각이냐?

애쉬 :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결국 세피로트를 전부 돌아다녔지만 로렐라이의 보주(寶珠)는 없었다.
애쉬 : 이대로는 로렐라이를 해방시킬 수 없다. 너는 보주를 찾아라.

루크 : 너 임마! 자신이 죽는다는 건데 아무래도 좋다니 말이 돼냐!
루크 : 도대체가 보주를 찾아내더라도 내가 없으면 로렐라이 해방을 어떻게 시켜!

애쉬 : 너야말로 바보냐! 넌 내 복제란 말이다. 이런 때에 쓸모도 없어서야 어디다 쓰냐!

티아 :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애쉬 : 넌 닥치고 있어!
애쉬 : 네가 해라! 루크! 내 대신에 말이다!

루크 : 애쉬! 거기 서!
루크 : 너를 죽게 만들수는..... 아니, 죽게 하고 싶지 않다고!!

애쉬 : 끈질기게!

루크 : 애쉬.....

애쉬 : 이젠 이 방법 밖에 없단 말이다! 다른 해결법도 없는 주제에 멋대로 지껄이지 마라!

루크 : 그럼..... 그렇다면 내가! 내가 대신에 없어도 되!

티아 : 루크!?

가이 : 멍청한 소리 마!

애쉬 : 대신 없어진다고.....!? 웃기지 마!

(두 사람의 칼부림에 초진동의 진후가...)

제이드 : 그만둘 하십시오! 없애야 할 건 다아트가 아닙니다. 장기입니다!

애쉬 : 흥.....
애쉬 : 알겠냐, 난 네게 존재를 먹혔다. 그러니, 내가 하마.

나탈리아 : 애쉬!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나탈리아 : 저는..... 우리들은 당신이 살기를 원합니다! 부탁이니 그만두어 주세요!

애쉬 : 나도, 죽고 싶은 것이 아냐..... 죽을 수 밖에 없게 된 거다.

루크 : 안 돼! 놈을 잃을수는 없어.

가이 : 루크!!!!

(퍼억!)

루크 :으억...

가이 :죽으면 맞는 감각도 맛볼 수 없게 된다. 이제 좀 바보같은 생각은 그만 두란 말야!

루크 :가이.
루크 :미안.

가이 : 루크.....

루크 : 이미, 결정했어. 무섭지만..... 그래도..... 정한 거니까.

나탈리아 : 루크! 당신이란 사람은.....

아니스 :루크도 이온 님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야?

제이드 : 당신이 진심으로 결심했다면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제이드 : 그러나 렘의 탑으로 향하기 전에 폐하께 보고는 올리고 가십시오.

루크 : 모두들..... 미안하다.....

(가이에게 '단짝 친구' 의 칭호...)

루크 :나. 내가..... 할게요.
루크 : 내가 목숨과 바꿔서 장기를 중화시키겠습니다.

인고벨트 6 세 :결심을 바꿀수는 없겠느냐?

루크 :예.

피오니 :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긴 한 거지?

제이드 :아니오.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테오도로 :그러면, 우리들은..... 죽으라는 말을 고향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티아 : 할아버님!

테오도로 : 이대로는..... 어차피 모두가 죽게 된다.

테오도로 : 신생 로렐라이 교단의 복제 대치에 기대자는 이야기도 나왔었다만.....

테오도로 : 여기 울드란트의 주민 주민 전부를 평등하게 받아들이 주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니 말이다.

피오니 : 원망해도 된다. 인간도 아니라 생각해도 좋아.

피오니 :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국민을 지키지 않아선 안되는 거다.

인고벨트 6 세 : 나는..... 정직하게 말해 지금도 반대이다.

인고벨트 6 세 : 허나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구나. 부탁해도 되겠나..... 루크야.

루크 :예예에.....

테오도로 : 알맞은 일이오.....

테오도로 : 렘의 탑은 과거 큐비 반도에 있었던 광산도시 중심부에 세워진 것.

테오도로 : 혹시 루크가 성공한다면, 유리아의 예언이 달성되는 셈인지도 모르겠구려.....

일행 : !!

제이드 : ND 2018, 로렐라이의 힘을 계승한 젊은이, 사람들을 이끌고 광산 도시로 향하리라.

아니스 : 거기서 젊은이는 힘을 재앙으로 삼아 킴라스카의 무기가 되어 도시와 함께 사라져.....?

가이 : 반이 그랬었지. 유리아의 예언은 왜곡에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티아 :그만 해!

피오니 : 네가 장기를 없애지게 해 준다면 우리의 회의는 모든 문제에 결론을 내리는 게 된다.

피오니 : 장기 이외의 문제..... 3 국 동맹 체결, 플래닛 스톱 정치, 엘드란트로의 공동 진군 3 가지는, 모두 합의를 봤어.

테오도로 : 그렇소. 이것으로..... 회의는 종료입니다.

인고벨트 6 세 : 허나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 남겨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해 놓는 것도 좋겠지.

인고벨트 6 세 : 만일..... 네가 도망친다 해도 우리는 너를 찾거나 하지 않음.

피오니 :미안하다.

<페이스 채트 '자신의 가치, 자신의 바램'>

루크 :난 혹시 장기를 없애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닐라나. 그렇다면, 내 가치는 장기를 없애는 것으로밖에 증명될 수 없잖아.

루크 :죽고 싶어. 그래도..... 죽을 수 밖에 없어. 내게는 그것 밖에..... 가치가 없으니까.....

루크 : 그것 밖에는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 그래도..... 싫어..... 죽기 싫어..... 죽고 싶지 않다고.....

(다시 렘의 탑으로 가자...)

[렘의 탑]

(승강기로 옥상까지 단숨에 갈 수 있다. 일행을 기다리는 것은...)

루크 : 애쉬는 아직 안 왔다 본데.....

티아 : 이 사람은.....

마리 :북쪽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쫓겨나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다가 간신히 이 탑까지 도착한 동지다.

마리 :왜 네가 왔나? 우리와 함께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걷겠다는 게 너인가.

나탈리아 : 그러면, 당신들께서는 장기를 없애기 위해 생명을 내놓을 생각이신지요?

마리 :그것 밖에 없어. 그것을 이해했다. 아니, 그렇게 결정할 것이다.

가이 : 당신들은, 그 사람처럼 오리지널들에게 의해 제거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이 : 그래도, 당신들은 오리지널을 위해서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 :오리지널을 위해서가 아니다.
마리 : 아직 이 탑에 오지 못한 수많은 동족들이 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마리 : 우리는 우리들의 시신으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야. 너희들도 우리의 죽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루크 :그건.....

애쉬 : 내가 한다고 했을텐데! 왜 여기에 왔니?

루크 : 애쉬!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애쉬 : 복제들! 내가 같이 가 주마. 따라와라!

나탈리아 : 애쉬! 바보같은 짓은 그만 두시오!

루크 : 그래 애쉬! 하지 마!

애쉬 : 잘난 듯 주절거리지 말고 넌 어서 다른 데로 꺼져!

애쉬 : 너도 복제다. 여기 있다가는 휘말려서 사라질 거란 말이다!

애쉬 : 그렇게 되면 누가 로렐라이를 해방시킬 수 있겠나!

루크 : 로렐라이 해방은 니가 시키라니까! 이 자리는..... 내가 맡겠다고!

애쉬 : 그렇게 죽고 싶나?

루크 :그게 아냐! 나도 너랑 마찬가지로. 죽기는 싫어!

루크 : 그래도 난 복제라서 능력이 열등해져 있어.

루크 : 로렐라이를 해방시키려면 보주도 제대로 받지 못한 내가 아닌, 네가 필요하단 말야!

루크 : 그렇다면 여기서 죽는 건..... 쓸모없는 죽임..... 복제인 나면 죽하지 않겠냐고!

애쉬 :그만 좀 해! 쓸모가 없다고!
애쉬 : 내가..... 쓸모없는 놈 때문에 모든것을 빼앗겼단 말야! 날 업신여기지 마라!

애쉬 : 이거 놔!

루크 : 안 돼!! 널 죽게 만들 순 없어!

(그 때...)

애쉬 :이건? 검이 반응하고 있다. 보주가 어디에 있어서.....?

(퍼억!)

애쉬 : 놔라!

제이드 : 저는 루크의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남긴다면 복제보다는 오리지널입니다.

티아 : 루크! 그만 해!

루크 :여러분. 내게 생명을 줘요. 나도..... 같이 갈 테니까!

루크 : 오지 마!!가이고맙다.....

가이 :등신같은 놈!

(초진동이 발생되고...)

루크 :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죽기 싫어! 난..... 나는 여기 있고 싶어!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야..... 난 살아있고 싶다고!)

루크 : (하지만..... 으음)

루크 : 트, 틀렸나.....

제이드 : 이상합니다..... 모이기 시작했던 제 7 음소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기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애쉬 :보주인가! 로렐라이 보주의 확산능력이 방해하고 있는 거다!

애쉬 : 제기랄! 저 머저리가 보주를 가지고서도 눈치 못 채고 있었던 것 뿐인가!

애쉬 : 끝끝내 수고를 끼치는 복제 같으니!

루크 : 애쉬!?

애쉬 :걱정 마라. 죽을 생각은 없다.
애쉬 : 네 초진동에 조금 힘을 빌려줄 뿐이다. 넌 혼자 가라!

루크 :고맙다..... 애쉬.....

(별의 장기가 말끔히 사라지는 영상을 보게 된다. 그리고...)

루크 : 우웁!

애쉬 : 으...음!?

마리 :약속한 거다. 살아남은 복제들에게 살 곳을 마련해 다오. 우리 목숨의 대가로.....

나탈리아 : 제! 킴라스카 왕녀인 이 나탈리아가, 생명을 걸고 약속하겠사옵나!

가이 : 나도다. 복제들이 죽게 놔두지는 않을게. 누나와 같은 당신의 생명을 보아서.

아니스 : 나..... 나도..... 당신들은 이온 님이 나 마찬가지로인 걸.....

.....

루크 : 나, 살아 있는 건가? 어떻게.....

티아 : 다행이야.....! 나, 당신이 사라져 버리는 줄만 알았어.....

루크 : 이, 이건.....?

애쉬 :로렐라이의 보주다.

아니스 : 이게? 어떻게? 어딜 찾아도 안 나왔잖아!?

애쉬 : 이 놈이 보주를 받았었기 때문이다.
애쉬 : 단지 신주단지 모시듯, 보주를 구성시킬 음소(포남)를, 자기 안에 흡수해 두고 있었던 것이지.

애쉬 : 몸이 분해될 지경에 놓을 때까지 거기 눈치도 못 채다니 어처구니 없는 얼빠진 놈이야.

나탈리아 : 기다리시어요! 아디를 가시나요!? 열쇠가 모였는걸요. 함께.....

애쉬 :같이 있다가는 6 신장에게 노려질 거다.

애쉬 : 반이 숨은 곳을 찾아 로렐라이를 해방시키기 직전까지 별도로 행동하마.

제이드 :루크.

제이드 : 살아 남으셨다고는 해도, 본래대로라면 소멸되고도 남았을 만큼의 힘을 쓰셨습니다.

제이드 :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베르켄드에서 검진을 받아 주십시오.

루크 :어, 응.

루크 : (팔이 투명해지는 게 보였어. 그건 대체.....)

(로렐라이의 보주를 손에 넣는다. 베르켄드로 자동으로 가게 된다)

[음기관도시 베르켄드, 제 1 음기관연구소의 무실]

루크 : 다들 졸졸이 따라오면 내가 무슨 감기 걸린 어린애 같잖아! 나가들 있으라고.

가이 : 무슨 소리야. 다들 걱정되서 그러는구만.

루크 : 댜으니까!

나탈리아 :어쩔 수 없사옵나.

아니스 : 그럼, 우리 여관에서 기다릴게.

.....

슈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 입원해 주십시오.

루크 : 어떻게 된 건데요.

슈우 : 세포끼리를 잇는 음소가 괴리현상을 일으켜, 그 양이 극단적으로 줄어 있습니다. 슈우 : 그리 말지 않은 미래에, 세포 붕괴를 일으켜 세상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크 : 입원하면 나올 수 있어?

슈우 : 아니오, 소멸될 날을 늦출 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루크 :내가, 죽는다는 얘긴가.
루크 :이 얘기 모두에게 하지 마요.

슈우 : 하지만.....!

루크 :됐어요.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슈우 :알겠습니다.

.....

티아 : 어떻게?

루크 : 아, 응. 혈중 음소가 조금 줄었지만 말짱하다더라.

가이 : 그러냐! 잘 됐군!

아니스 : 루크 끈질겨~!

나탈리아 : 안심했사와요.

제이드 :
제이드 : 뭐어, 일단은 안심입니다. 그래도 지치셨겠지요.
제이드 : 장기에 대한 보고도 할 겸, 바티칼로 가서 공작가의 저택에서 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루크.

티아 : 그래, 폐하들께서도 회의를 마치시고 성으로 돌아가 계실 거야.

나탈리아 : 네, 거기다 아직 로렐라이 해방이라는 일도 남아 있으니까요. 체력을 되찾으셔야지요.

루크 : 알았어.

.....

루크 : 왜 그래.

제이드 : 불량 청소년이십니다. 또 거짓말을 하시다니.

루크 : !!

제이드 :당신 거짓말에 저도 속기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무리는 금물입니다.

루크 :제이드 당신한테 뭘 숨기질 못하겠어.

제이드 : 당신이 서투르신 것 뿐이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충고해 두겠습니다.
제이드 : 지금의 당신은 음소 괴리가 시작되고 계실 겁니다. 이 이상, 설부르게 힘을 쓰시지 마십시오.

유우 : !!

루크 :어. 고마워, 제이드.

(제이드에게 '잘 눈치채는 사람' 의 칭호)

<페이스 채트 '사라져 갈 운명'>

루크 :내가..... 사라져? 난 죽는 건가..... 싫어.....
루크 : 모처럼..... 살아있고 싶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루크 : 죽는다니..... 싫어..... 언제 죽을까. 죽을 때 아플라나? 엄청 괴로울지도.....
루크 : 내가 죽었던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죽고 싶지 않아.....! 죽기 싫어!!

<페이스 채트 '로렐라이의 보주'>

가이 : 이게 로렐라이 보주냐.

루크 : 어. 향울부(C 코어) 던데.

티아 : 검은 무기로서, 보주는 방어구로서 유리아를 지키고 있었던 걸까.

루크 : 그런가. 그럼 이걸, 실은 티아 니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냐?

티아 : 말은 사람은 당신이랑 애쉬야. 책임지고 지켜 줘.

가이 : 그러게, 받았으면서 눈치도 못 채고. 모두를 고생시킨 책임은 제대로 지라고.

루크 : 그래도 아무리 로렐라이의 보주가 음소로 분해되어 날라왔다고 해도 그렇지,
루크 : 그게 자기 안에 흡수되어 버렸다니. 이런 일 자주 있을라나.

제이드 : 컨터미네이션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티아 : 하지만, 그것은 특수한 보솔로 자극을 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을 텐데요?

제이드 : 복제는 음소가 떨어져 나가기 쉽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음소가 혼입되기도 쉽다는 말입니다.
제이드 : 주파수가 가까운 음소라면, 섭사리움 안에 흡수하게 되고 맙니다.

가이 : 그렇구만. 보주는 제 7 음소로 되어 있으니, 루크의 제 7 음소와 섞여 버렸다는 소리로군.

티아 : 그러면, 루크는 컨터미네이션 현상이 잘 일어나는 체질이라는 말씀이신지?

제이드 :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루크와 제 7 음소는 음소 진동수가 동일하니 말입니다.

<페이스 채트 '장기 중화, 크나큰 희생'>

가이 : 저 사람들 진짜, 납득을 하고서 사라져간 것일라나.....

나탈리아 : 알 수 없사와요. 우리들은 갈 곳이 없는 그들을 몰아붙이기로 하다가,
나탈리아 : 절망이라는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린 것 뿐일지도 모르지요.

티아 : 그렇다고 해서, 후회해 봤자 소용이 없어.
티아 : 그들은 그들의 나라가 탄생할 것을 믿고 죽어 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야.

가이 : 살아남은 복제들이, 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들어 준다...
가이 : 그것이 사라져 간 누나..... 아니 복제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을 유일한 일..... 인가.

나탈리아 :그렇지요. 결국 우리 오리지널들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그들을 죽게 만든 것이니까요.
나탈리아 : 후회나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어요.

티아 : 그들의 죽음을 한탄하는 것은, 우리들의 멧대로인 감상이야. 잊어도 될 일은 결코 아니겠지만.

<페이스 채트 '사는 기쁨'>

루크 : 어열~, 오늘도 날씨 좋은데!

가이 :왜 그러냐 루크. 갑자기 그런 소릴 다 꺼내고.

루크 : 아니, 하늘이 이렇게 파랬었나 싶어서. 음보대(音譜帶)도 잘 보이는게 뭔가 멋진데.
루크 : 자, 보고도 해야 되니 바티칼 집까지 가 볼까!

티아 :루크. 열이라도 있어?

아니스 : 머리 부딪쳤어?

나탈리아 : 이상한 것을 드신 것은 아니시겠지만.

루크 : 이보셔들! 거 있잖아? 구사일생을 겪고 나니, 사는 것의 근사함을 실감했다고나 하는 모 그런 거.

가이 : 하하하, 이거 좋은데. 루크 니가 그런 말을 하는 날이 올 줄은 말이다.

루크 :워어. 산다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제이드 :예. 그 말씀대로입니다.

아니스 : 대령님이 착하신 것두 이상해요요.....

(바티칼의 루크 집으로 귀가하자)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30)

[빛의 수도 바티칼]

(승강기를 타고 위쪽으로 가자)

제이드 : 폐하게 보고는 내일 드려도 될 겁니다.

나탈리아 : 저는 성으로 돌아가 있을게요. 내일, 알현실로 행차해 주시와요.

루크 : 알았어. 다른 모두는 집에서 마음대로 있어 줘. 난 방에서 좀 쉴 테니까.

유우 : 티아 씨 티아 씨.

티아 : 유우? 왜 그러니?

유우 : 티아 씨에게 할 비밀 얘기가 있어요.

루크 : 뭐야 너, 비밀 얘기라니.....

유우 : 주인님한테는 비밀이예요!

루크 : 뭐라고 짜사!

티아 : 후훗. 그럼 들어 줄게. 루크는 쉬도록 해.

루크 : 그래 알았어! 난 방해꾼이다 왜!

(일행과 헤어지고 루크 방 안으로 이동하게 된다)

루크 : (난..... 사라지는 건가. 언제? 언제 없어지는 건데.....)
루크 : 어, 그래! 들어와도 돼!

티아 : 루크.....

루크 : 뭐야 티아 너냐. 왜 그래 심각한 얼굴로.....

티아 :당신, 음소가 떠나가고 있다는 거 사실이야?

루크 : !!
루크 : 누가 그런 소릴.....

티아 : 유우야. 당신이 대령님이란 이야기 했던 것을 나한테 가르쳐 줘어.

루크 : 그 녀석이..... 전장.....

티아 : 증상은 어때? 나올 수 있어?

루크 : 이미 못 고친다더라.....

티아 : 그럴 수가.....!

루크 :티아. 이걸 나랑 티아 너의 비밀로 해 주라. 이 밖엔 제이드밖에 몰라.

티아 : 모두에게 계속 숨기고 있을 생각이야?

루크 : 말 하든 안 하든 증상은 변함 없을거니까 괜히 걱정기칠 필요 없잖아.

티아 : 왜..... 어째서 그런 말을.....

루크 : 어차피 죽는다면, 살아있는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싶으니까.
루크 :아니, 아니지. 무서워서 그래. 모두에게 말하면, 다들 날 신경쓸 거 아냐.
루크 : 그렇게 될 때마다, 나 죽는구나 하고 자각하게 될 것 같아서..... 무서워.

티아 : 루크..... 떨고 있어.....

루크 :걱정이지? 지금도 이렇단 말야.

루크 : 모두가 알게 된다면, 난..... 계속 떨고 질질 찌면서 틀어박히게 될 거 같아.
루크 : 그러니까 적어도..... 호기라도 부려서 모두와 같이.....

티아 :바보...

루크 :진짜 그럴지, 난..... 바보지.....
티아, 걱정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티아 :알았어 루크, 하지만 부락이야. 이젠 내게 될 숨기지는 말아 줘.

루크 : 어..... 알았어.

<페이스 채트 '잔혹한 사실'>

티아 : 왜 이렇게 된 거지.....

유우 : 티아 씨..... 힘들어 보이세영.....

티아 : 아니야. 힘든 건 내가 아니라, 루크야.....

유우 : 티아 씨 살아난 것처럼, 주인공도 살 수 없어요?

티아 :모르겠어. 그래도..... 대령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면..... 분명.....

유우 :

티아 :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도와줄 수 없는 거야? 난..... 나는.....

유우 : 저두 슬퍼영..... 저는 주인공이 진짜 좋아영.....

유우 : 저는 주인공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없었으면 좋겠어요.....

티아 : 유우..... 바보같은 소리 하면 못 써,
티아 : 모두 함께..... 조금이라도 오래 같이 있고 싶어. 그걸 위한 힘이 필요해..... 난..... 너무 무력해.....

(자동으로 휴식하게 된다. 그 후 응접실로 가면...)

워병 : 공작님! 큰일입니다! 성에 신생 로렐라이 교단의 사자라 칭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파브레 공작 :드디어 왔는가. 루크, 나는 성에 가 보아야겠다. 너도 바로 오너라.

가이 : 선전포고..... 쫓 될라나.

루크 : 그럴겠지. 아무튼 우리도 성으로 가자.

[킴라스카 궁전, 알현실]

루크 : 라르고!? 사자란 게 당신이었나.....

라르고 : 신생 로렐라이 교단의 사자로서 왔소. 도사 모스에게 보낼 대답은 무엇이신가?

알바인 : 우리 킴라스카 란발디어 왕국은 예언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알바인 : 따라서 신생 로렐라이 교단의 제안은 거절하는 바이다.

라르고 : 그것은 즉 신생 로렐라이 교단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여도 되겠나?

인고벨트 6 세 : 우리에게서 싸울 생각은 없다.

인고벨트 6 세 : 그러나 우리 나라의 영토와 백성에게 해를 끼친다면, 즉시 보복 행동에 나서리라 하는 것을 명심하라.

라르고 :보았나, 로렐라이의 힘을 계승한 애송이.

라르고 : 네가 렘의 탐에서 복제들을 없앤 것으로 인해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예언이란 무서운 것이다.

파브레 공작 : 그것은 궤변이다. 무엇보다 내 아들들은 둘 다 살아있지 않은가.

루크 :아버지.....

라르고 : 어떨까, 너희들도 알고 있을 터이다. 제 7 보석에는 멸망의 예언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루크 : 우린 살아남는 미래를 선택해 보일 거

다. 세계가 멸망하게 놔 두진 않아.

라르고 : 그것은 이 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탈리아 :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언(스코어)에 고집하는 모스의 편을 들고 계시지 않아요!

나탈리아 : 그것은 당신들의 논리로 말하자면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지요!

라르고 : 나에게 있어 검을 바친 주인은 단 한 사람. 그것을 잊지 마라.

(라르고는 떠나간다)

가이 : 반이란 애기가.....

티아 : 오빠는 어딘가에서 힘을 기르고 있을 거야. 하지만 대체 어디에.....

.....

인고벨트 6 세 : 루크..... 장기(障氣) 일은 미안하게 되었다. 허나 나는 죽음을 각오했던 네 의기에 감동했다.

루크 : 아..... 아뇨.....

인고벨트 6 세 : 이제는 신생 로렐라이 교단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으리라.

인고벨트 6 세 : 잠시 후 나탈리아와 함께 내 방으로 오너라.

인고벨트 6 세 : 지금이 바로 마음을 굳게 먹고 진실을 고할 때라 생각한다.

루크 : 폐하.....

나탈리아 : 아버님?

(인고벨트 6 세의 방으로 이동)

나탈리아 : 아버님, 무슨 일이지요.

인고벨트 6 세 : 너에게 밝힐 이야기가 있다. 네 진짜 양친에 대해서 말이다.

나탈리아 :분명 제 친어머니는 유모의 딸 되시는 분이셨지요.

인고벨트 6 세 : 그래, 실비아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모르겠지.

나탈리아 : 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유모가 성을 나가 버렸기에.

인고벨트 6 세 : 네 아버지는 버덕이라는 이름의 용병이었다는 것 같구나.

나탈리아 :용병그랬는지요. 하지만 왜 지금.....

인고벨트 6 세 : 버덕의 행방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란단.

나탈리아 : 살아 계시는 것이신가요?

인고벨트 6 세 : 그렇다. 나탈리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 오오.

인고벨트 6 세 : 이런 사태이기에 비로소, 너에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아선 안 되리라 생각했다.

나탈리아 :어, 어떤 이야기이시기에?

인고벨트 6 세 : 버덕은 지금 신생 로렐라이 교단에 몸을 담고 있다.

나탈리아 : 그런!? 어째서!? 무슨 착오가 있지는 않은가요?

인고벨트 6 세 :아니 틀림이 없다. 루크가 조사해 주었지.
인고벨트 6 세 : 현재로는 흑사자 라르고라 칭하고 있는 자이다.

나탈리아 : 거..... 거짓말.....

루크 : 나탈리아.....

나탈리아 : 루크! 무언가 잘못 아신 것이시지요!? 그렇지요!?

루크 : 나탈리아..... 사실이야..... 본인에게도 확인했어.

티아 : 나탈리아!! 어딜 가려고!

나탈리아 : 라르고에게 따지겠사오. 서두르면 따라잡을 수 있을 터. 저는 인정할 수 없사옵니다!

루크 : 따라가자! 나탈리아가 뭘 저지를지 몰라!

<페이스 채트 '나탈리아를 쫓아서'>

루크 : 나탈리아 재, 괜한 짓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아니스 : 나탈리아가 어쩌더라도, 라르고는 저러면서 의외로 사려가 있으니까 별 탈 없을 거라 생각해.

가이 : 라르고를 따라간다면, 항구가 돼나?

제이드 : 예. 사막을 넘어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우 : 항구예영! 서둘러영!

티아 : 그러네. 나탈리아, 경솔한 짓은 말아 줘...

(항구로 쫓아가자)

루크 : 나탈리아!!

라르고 : 친구들이 온 모양이다, 공주님.

나탈리아 :너는.....!
나탈리아 :당신은어째서 6 신장에 들어간 것이지요.

라르고 : 그런 것을 내게 물어서 어쩔 텐가.

나탈리아 : 대답하십시오! 버덕!

라르고 :옛날, 아내는실비아는 여기에서 보는 저녁놀을 좋아했다.

라르고 : 그 날, 나는 사막을 건너는 캐러밴대의 호위를 마치고 귀택한 참이었지.

라르고 : 집에 돌아오니, 실비아도, 바로 며칠 전에 태어났던 갓난아이도 없었다.

라르고 : 나쁜 예감이란 것은... 진짜로 있는 것이더군. 집 안에 저녁놀이 비쳐, 그야말로 붉은 색이었단.

라르고 : 나는 필사적으로 온 도시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실비아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나탈리아 :실비아 씨는 어찌 되셨는지?

라르고 : 며칠 후, 이 항구에 떠올라 있는 것이 발견되었지.

라르고 : 실비아는 갓 태어난 딸을 빼앗기고 정신착란을 일으켜 자살한 것이었다.

루크 :그런 일이.....

라르고 : 실비아는 몸이 허약했다.
라르고 : 그러나 예언사가 두 사람 사이에 반드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아니 태어나지 않게 해서는 안된단 라고 했기에.

라르고 : 그것이 이 결과를 낳기 위함이었음을 알고서, 나는 바티칼을 버렸다.

라르고 : 그 후 각지를 방랑하며 다니던 도중, 반 총장과 만난 거다.

라르고 : 반은 이렇게 말했다. 「예언은 별의 기억이다」라고.

라르고 : 별은 소멸되기까지의 모든 기억을 내포하고 있으며, 모든 생명은 정해진 운명대로 움직이고 있다...

라르고 : 그리고 예언은 그 단편을 인간의 말로 번역한 것일 뿐이라고.

라르고 : 그렇다면, 실비아의 비참한 죽음도 정해진 것이었던 말인가? 나는 예언을 아니 별의 기억을 중요하게 되었다.

나탈리아 :분명히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예언은 절대가 아닐 터예요.

나탈리아 : 그것은 미래의 선택지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려나요?

라르고 : 허나 그렇게 선택한 길도, 선택하지 않았던 길도 결국에는 같은 곳에 도달하게 되어 있단면.

라르고 : 거기에 사람의 의지가 작용할 의미가 있나?

루크 : 결말은..... 같다고.....?

라르고 : 그렇다. 너희들이 예언을 금하려 한다 해도, 이 별은 스스로 미래의 기억을 보존해 두고서 그대로 나아가고 있다.

라르고 : 반이 목표로 삼는 '예언의 소멸' 이란 즉 로렐라이 —— 별의 기억 그 자체를 소거하는 것.

라르고 : 모든 생명이 자유로운 미래를 생산할 권리를 쟁취하는 일이다.
라르고 : 나는 그 이상을 믿고서, 반과 함께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라르고 : 잊지 마라. 너희들의 방식은 미지근하고 여중간하다는 것을.

나탈리아 : 기다리시오! 당신은..... 저의.....

라르고 : 나탈리아 공주. 내 사랑하는 딸은 이미 이 세상에는 없다. 18년 전에 빼앗겼으니까.

.....

가이 : 지금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별의 기억이 있는 한.
가이 : 우리가 고르는 미래는 어느 것이라도 단 하나의 결말에 밖에 도착할 수 없다는 말인가.....

티아 : 그렇기에 오빠가 오리지널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는 거야?

티아 : 별의 기억을 가지지 않은, 새로운 「복제」라는 인류에게 미래를 맡기기 위해서.....

아니스 :그렇다 해도! 그렇다면 해도 결국 오리지널들은 소멸된단 말이야.
아니스 : 총장의 계획으로는, '이 세계의 인간'은 구할 수 없다구!

제이드 : 자 자, 진정들 하십시오.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나탈리아이실 것입니다.

루크 : 나탈리아... 일단 성으로 돌아가자. 폐하가 걱정하셔.

(다시 인고벨트 6세의 방으로 이동한다)

나탈리아 : 아버님.....

인고벨트 6 세 : 나탈리아 ! 걱정했다!

나탈리아 : 아버님..... 저.....

인고벨트 6 세 : 괴로웠겠지? 그러나 이젠 됐다.

인고벨트 6 세 : 이제 이 이상, 신생 로렐라이 교단과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설 필요는 없다.

나탈리아 : 아버님! 어쩌서이시지요!

인고벨트 6 세 : 너는 예언의 처우에 관한 회의를 소집시키기 위해 사자로서 여행을 떠났던 것이야.

인고벨트 6 세 : 이미 사명은 마쳤을 터. 피를 나눈 부녀가 싸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나탈리아 : 피를 나눈..... 부모자식이기에 더욱 넘어서지 않아선 안 될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고벨트 6 세 : 나탈리아!

나탈리아 : 아니요..... 실은 모르겠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싸우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지요.

나탈리아 : 하지만... 모두도 라르고가 제 아버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싸우기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이겠지요.

나탈리아 :저는어떻게 해야 좋을지.....

티아 : 나탈리아. 서둘러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티아 : 신생 로렐라이 교단이 싸움 준비를 하기에도 시간이 걸릴 테니까.

루크 : 그래. 지금 애수가 반 선생이 잠복해 있는 장소를 찾고 있을거야.

루크 : 우리한테도 플래닛 스톨을 정지시키는 작업이 남아있고. 나탈리아 넌 그 사이에 결론을 내면 돼.

가이 : 여기 남아도 되고, 같이 다니면서 생각해도 된다. 어쩔 거냐?

나탈리아 :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해 주시기를.

인고벨트 6 세 :알았다. 나탈리아, 조심해야 한다.

<페이스 채트 '라르고가 사는 방식'>

아니스 : 나탈리아. 얼굴빛이 안 좋아.

나탈리아 :미안해요. 왠지 이것저것 생각을 하게 되어서.

아니스 : 무슨 생각?

나탈리아 : 제 탓에 그 사람이 6 신장이 되었고.....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탈리아 : 후후, 이래서는 마치 루크 같네요.

아니스 : 그러게~, 나탈리아 답지 않다는 느낌?

나탈리아 : 정말 그렇사와요.

아니스 : 애초부터 말야~, 갓난아이였을 때 나탈리아가 자기 맘대로 성으로 간 것두 아니고~.

아니스 : 무엇보다, 신생 로렐라이 교단에 들어가서, 딸도 살아 있는 오리지널 세계를 없애겠다 결정한 건 라르고라구.

아니스 : 나탈리아가 무슨 상관이란.

나탈리아 : ...그야 그렇사옵니다만.....

아니스 : 저 작자, 자기가 해 왔던 일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릴만한 비겁한 사람은 아니야.

나탈리아 : 아니스.....

아니스 : 나탈리아랑 똑같아. 빠르빠르게 자기 책임을 잘 아는 사람. 신경쓸 거 없어 없어.

아니스 : 나탈리아는 옳은가 틀린가가 아닌,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다시 발견하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

나탈리아 :아니스는 때때로 정말 어른스럽네요.

(플래닛 스톨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언을 들으러 유리아 시티로 가서)
(그 전에 집에 들려 짐사 램다스에게 말을 걸면, 루크가 훈장과 작위를 수여받고 '파브레 자작' 칭호를 얻는 이벤트를 겪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원사 펠 영감과 꾸준히 대화를 해 왔다면, 파브레 공작에게 말을 걸어도 갈디오스를 얻을 수 있다)

[감시자의 도시 유리아 시티, 중앙관리시설 회의실]

루크 : 플래닛 스톨을 정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테오도로 : 플래닛 스톨은 거대한 보진(諱陣)으로 제어되고 있다오.

테오도로 : 유리아가 로렐라이의 검으로 대지를 갈라, 보진을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아니스 : 이라는 건, 역시 보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되네요?

제이드 :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로렐라이의 검은 제 7 음소(세븐스 포닝)를 모으고, 보주는 확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제이드 : 유리아가 로렐라이의 검으로 제 7 음소를 모아 게이트를 열었다면,

제이드 : 보주로 확산시키는 것을 통해 달하지 않겠습니까.

가이 : 보주를 쓰라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어?

테오도로 : 우리 측에서 당시의 자료를 기초로 보주를 해석해 보겠소.

루크 : 부탁드립니다.

티아 : 그럼 그 동안 자유행동 어때?

아니스 : 티아가 저런 말을 하다니 별일인데.

루크 : 괜찮자나.

티아 : 그럼, 이따가 다시 여기서 집합하자.

(일단 해산한다. 시장 집으로 가서 티아 방에 올라가 보면...)

나탈리아 : 저기, 물어도 될지요. 당신은..... 어떠셨나요?

나탈리아 : 반이..... 당신의 오라버니가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때.....

티아 :글쎄.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들렸어요.

나탈리아 : 다른 사람 일?

티아 : 응. 마치 지어낸 이야기를 듣는 느낌.
티아 : 오빠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나탈리아 : 알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한 순간 머리속이 새하얗지면서.....

티아 : 그 뒤로 오빠가 하려 하는 일에 대해 필사적으로 조사하고...

티아 : 어떻게 해서든 오빠를 막겠다고 결심했어..... 설령 같이 쓰러지게 된다 하더라도.

나탈리아 : 어떻게 거기까지의 결심을 세울 수 있었는지?

티아 : 이 세상에 피가 이어진 육친이 오빠 뿐이었으니까.

티아 : 같은 피가 흐르는 내가..... 말리지 않아선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거야.

티아 : 몇 번을 물어도, 오빠는 진짜 이야기는 해 주지 않았었고.....

티아 :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처음으로 오빠에게 칼을 겨누었을 때의 난, 궁지에 몰려 제 정신을 잃은 짐승이나 마찬가지였어.

티아 :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더라고.

나탈리아 : 티아.....

티아 : 당신은 나와 같은 선택은 하지 않는 편이 낫고, 할 필요도 없으리라 생각해.

나탈리아 : 저는..... 역시, 이 세계를 소중히 여기고 싶다 생각합니다. 별의 기억이 절대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나탈리아 : 역시 절대적인 예언을 남긴 유리아는, 복제에 대해 노래한 적 없습니다.

나탈리아 : 거기에..... 루크라는 희망에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티아 : 응. 루크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지.

티아 : 그를 보면서, 나도 그저 오빠를 처단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던 자신과 결별할 수 있었어.

티아 : 오빠의 진정한 마음을 알자, 하고.

나탈리아 :그래도저는, 라르고가 왜 반에게 가담하고 있는지도 알 듯한 느낌이 든답니다.

나탈리아 : 그렇다고 해서, 그 사나이를 용서해도 되리라는 생각은 갖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티아 : 나탈리아. 모든 것을 머리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해.

나탈리아 : 당신에게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사와요.

티아 : 내가 논리로 따져서 생각할 줄 밖에 모르는 인간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티아 : 아아, 오직 휩쓸려 다니는 것으로 밖에 얻을 수 없는 결론이라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해.

나탈리아 : 티아..... 고마워요.....

루크 : (지금은 나탈리아 일은 티아에게 맡기고 테오도로 씨한테 돌아가 있는 게 좋겠군.....)

<페이스 채트 '티아를 생각하다'>

루크 : 티아도..... 나탈리아랑 같은 입장이었지. 재가 맨날 태연한 척만 하니가, 자주 잊게 된다만.

유우 : 티아 씨, 삼남하세염. 그래서 주인님한테 힘들어 하는 모습을 안 보이시는 거예요.

루크 :응알고야 있긴 한데.....

유우 : 그럼, 자상하게 대해 드리세염.

루크 : 시꾸라, 이 돼지원숭이. 네가 말 안해도 안다고.

유우 : 유우우우우. 주인님, 한가지 여쭙봐도 돼염?

루크 : 뭐, 원데.

유우 : 제가 왜 돼지원숭이예요?

루크 : 나, 난 또 뭐라고. 그런 거였냐..... 언제 모르게, 돼지랑 원숭이를 더해서 둘로 나누었다는 느낌이랄까?

유우 : 유우우우우. 잘 모르겠어염.....

루크 : 뭐 어때. 암튼..... 티아한테는..... 거 뭐냐, 확실히 신경 쓸 테니 상관 없어.

(다시 회의실로 가자)

테오도로 : 역시 이 부주에도 보술(講術)이 각인되어 있소이다. 여기에 제 7 음소를 담아 주십시오.

테오도로 : 그렇게 한다면, 제 7 음소가 확산되는 힘과 함께 보술이 기능을 해서, 게이트의 보진을 정지시킬 수 있을 것이오.

루크 : 그러면 게이트가 닫히겠군.

테오도로 : 그렇소. 게이트 봉쇄는 업서브 게이트에서 행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테오도로 : 거기는 플래닛 스톰이 다시 모이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막는 편이 이치에 맞을 것이오.

티아 : 업서브 게이트. 오빠랑 싸웠던 장소구나.....

가이 : 티아, 플래닛 스톰을 정지시키면, 엘드란트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가이 : 괴로울지 모르겠다만 힘내자고.

티아 : 응.

루크 :나탈리아 너도 괜찮겠냐?

나탈리아 :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아니스 : 앙~. 나는?

유우 : 유우도예염.

루크 : 아~ 아~ 아~ 아~ 그래 알았어! 다들, 준비 됐나!

가이 & 제이드 & 아니스 & 유우 : 네~에♡(영)

루크 : 좋아, 업서브 게이트로.....응? 방금 괴상한 게 섞여 있지 않았남?

제이드 : 자 자. 사소한 일은 신경쓰지 말고 가십시오.

<페이스 채트 '결전의 시간'>

루크 : 슬슬, 신생 로렐라이 교단이란 전면 대결이나.....

가이 : 나탈리아..... 꽤나 깊이 생각해 정한 모양이다.

티아 :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
티아 : 그것을 알고 있기에, 괜히 더 고민하게 되는 거라 생각해.

루크 : 피해도 뭘 걸 가지고..... 친아버지를 상대로 싸울 필요따윈 없다고.

가이 : 그렇군.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한다.
가이 : 하지만, 눈 앞에서 벌어진 일 전부에서부터 눈을 돌린 적이 없었기에, 지금의 나탈리아가 있는 것 아니겠냐?

루크 :관두라 해도 들을 리 없겠지.

제이드 : 뭐, 싸움에 방해가 될 것 같다면 두고 가면 됩니다.

제이드 : 그것이 싫다면, 스스로 마음에 결정을 내리겠지요.

가이 : 대령은 엄격해서 탈이우.

제이드 :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만.

<페이스 채트 '플래닛 스톰이 없는 세계는?'>

아니스 : 플래닛스톰이 정지되면, 보업(講業)이나 보술(講術) 뭐 그런 건 위력이 뚝 떨어지겠네요.

제이드 : 뭐어 정지되고 나서 바로 위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 몇년 동안은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루크 : 그 사이에 플래닛 스톰 외의 연료를 궁리해야겠지.

아니스 : 말은 그래두, 금방은 찾아내기 힘들 거야. 보술사(포니머)같은 경우는 일하기 힘들어질 거구.

제이드 : 개인의 자질이 높다면 그런 대로 쓸 수 있습니다. 보술의 취급이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새 직업을 찾아야 할 겁니다만.

티아 : 제 7 음소도 쓰기 어려워지겠어요.

아니스 : 총량이 줄거든. 거기다 플래닛 스톰이 없으면 새로운 제 7 음소는 못 만드니까.....

아니스 : 제 7 음소술사(세브스 포니머)들도 곤란해질 거야.

제이드 : 뭐 어찌 되건 플래닛 스톰을 정지시킨 다음 일입니다.

루크 : 그렇지. 지금은 플래닛 스톰이 멈춘 미래 일보다도, 눈 앞의 위기를 어떻게 해야 돼.

(업서브 게이트로 가자)

[업서브 게이트]

루크 : 또 여기 오게 좋은.....

아니스 : 그 뒤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지.....

가이 : 이젠 끝내고 싶군. 이런 일은.....

나탈리아 : 끝을 내기 위해 온 것이랍니다. 그렇지요?

티아 : 맞아..... 하지만 여기 온 건 우리만이 아닌 모양이야.

제이드 : 오라클의 향선입니다. 예, 조심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한번 워프해 내려가면 대화가 이어진다)

루크 : 플래닛 스톰..... 이걸 멈추라 이거지.

아니스 : 대령님. 이거 어떻게 멈추실 거예요?

제이드 : 수축점이 있는 가장 안쪽까지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플래닛 스톰을 제어하는 보진이 있을 겁니다.

티아 : 패시지 링이 있었던 장소의 더욱 아래 쪽이 되는군요.

루크 : 알았어.

(길이라면 대충 기억이 날 것이다. 쭈욱 내려가면 두번째 기억진 앞에서...)

나탈리아 :이 앞에 오라클(신탁의 방패)의 누군가가 있는 것이군요.

아니스 : 리그렛일지 라르고일지 싱크일지.....

제이드 : 전부 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탈리아 : 라르고..... 저는.....

루크 : 나탈리아..... 괜찮겠냐?

가이 : 얼굴이 새파랗군. 우리는 안 하는 편이 좋아.

나탈리아 :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동요를 하다니 자신이 한심하네요. —— 하지만 괜찮사와요. 가지지요.

[업서브 게이트 패시지 링 관리시설]

아니스 : 이온 님!?

애쉬 : 복제! 뭐하러 여기 왔나! 크익!

나탈리아 : 애쉬!! 라르고!!

(그때 빛이 번쩍이는데...)

반 :겨우 형태를 이룰 수 있게 되었나.

루크 : 그 목소리는.....

모스 : 오오! 반이냐! 지금까지의 명령위반은 없던 일로 해 주마.
모스 : 자아, 흐히헤하하, 어서 제 7 보석을 내게!

반 :이것이 지핵에 가라앉아 있던 제 7 보석의 파편이다.

모스 : 이것으로..... 이것으로 겨우 제 7 보석의 예언을 알 수 있다..... 히야하하하!!!

티아 : 멈춰요!

루크 : 선생.....

반 : 나를 쓰러뜨릴 줄은..... 복제라고는 하나, 훌륭했다.

티아 : 오빠.....! 로렐라이는.....

반 : 레이 브아 네우 크로아 투에 레이 레이.

티아 : 그것은..... 유리아의 보가(讚歌).....

반 : 내 몸은 음소가 떨어져 나가며 플래닛 스톰에 빨려들어 갔었다.

반 : 사라지리라 생각했던 때에, 유리아의 보가를 기억해 내서 입에 올렸던 것이다.

반 : 그것이 계약의 운구였다. 유리아의 계약에 응해 로렐라이가 반응했다.

제이드 : 괴리(乖離)되어 가고 있었던, 반을 구성하는 음소가 로렐라이에 의해 끌어 당겨져서.....

가이 : 다시 구축되었단 말야?

반 : 그래. 로렐라이가 분해되었던 나의 몸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생각보다 다루기가 어렵군.

반 : 요즘치는 로렐라이를 잠재우고서, 겨우 플래닛 스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리그렛 : 각하. 슬슬 모스가 소란을 피울 때가 아닐지?

애쉬 : 거기 서! 죽다 만 놈! 내가 여기서 끝장을 내 주마!

라르고 : 겨우 총장이 복귀했다. 이것으로 로렐라이를 —— 별의 기억을 소멸시킬 수 있던 말이다!

라르고 : 네놈이 방해하게 두진 않겠다!

애쉬 : 제기랄! 덩치만 커서 귀찮기 짝이 없군!

반 : 애쉬. 나와 같이 가자. 네 초진동이 있다면, 정해진 멸망이라는 미래의 기억을 없앨 수 있다. 인간이 해방되는 거다.

애쉬 :거절한다!

반 : 그러면 루크. 너는 어떠냐? 나는 너를 과소평가 하고 있던 것 같다. 네게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어.

반 : 나를 따라오겠다면 티아와 가이와 함께 너를 받아들여 주마.

루크 :나는.....
루크 :거절하겠습니다.

반 : 훗..... 그래야지.

(반과 리그렛이 이탈. 쫓아가려는 루크를 라르고가 막는다)

루크 : 애쉬! 선생을!

나탈리아 :라르고. 무기를 거두지 않으시겠는지.

라르고 :이 세계는 썩어 있다.

나탈리아 : 그렇지 않아요.....

라르고 : 자나 깨나 예언 예언.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는지!

나탈리아 : 당신들이 하려는 짓도 결국은 마찬가지로 마친 가지입니다!

라르고 : 그렇지. 반의..... 우리들의 계획은 나사가 빠져 있으니 말이다.

라르고 : 허나 이 정도 독한 약이라도 쓰지 않

는다면 세계는 유리아의 예언대로..... 멸망한다.

라르고 : 오리자널이 남아 있는 한 별의 기억이라는 잔해도 남는 것이니까.

루크 :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게 만들겠다는 건 확실히 잘못됐어!

라르고 : 복제들을 잡아먹듯 몰살시킨 자가 할 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만.

루크 :그래. 난 복제들의 생명을 먹어치워, 오리자널 세계를 존속시킨다는 길을 골랐지!

라르고 : 말을 잘했다. 그래야 꺾는 보람이 있는 법. 간다!

<BOSS - 라르고>

노멀기준 HP 140000. 불과 땅에 내성이 있으며, 특기 외에도 오의 카테고리의 공격을 많이 쓰게 파워업 되었다. 방어력은 높지 않지만 가이나 루크로 정면으로 덤비다가는 오히려 나가 떨어지게 되므로, 전열 캐릭터는 진행을 막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데미지는 제이드 등의 보술과 FOF로 발자. HP가 떨어졌을때 쓰는 비오의 명칭은 흉련 선충람. 범위는 좁지만 강렬하다.

라르고 : 같이 가 줘야겠다!

루크 :크큭!

(하지만...)

라르고 : 크큭!

라르고 :멋진 솜씨다메릴..... 훌륭하게 자랐구나.....

루크 : 라르고..... 우린 마찬가지로 예언에서 이탈하려 하고 있잖아?

루크 : 왜 이런 식으로 피흘리며 싸워야만 되는 거냐고?

라르고 : 마찬가지로 아니야.....

라르고 : 알겠나..... 애송이. 이것은 서로의 신념을 건 싸움인 것이다.....

루크 : 신념을 건 싸움.....

라르고 : 우리들은..... 이 세계가 한번 멸망했다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생각했다.

라르고 : 너희들은..... 다시 한 번 일어서면 되리라고..... 생각했다.....

라르고 : 결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거다.

(루크가 손을 내밀지만)

라르고 : 적에게... 정을 베풀지 마라..... 그런 어중간한 정신으로는..... 저 자는..... 타도할 수..... 없다.....

라르고 : 이별이다..... 메릴.....

(라르고 戰死...)

나탈리아 :아버님.....

제이드 : ...잔혹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은 라르고를 물리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제이드 : 업서브 게이트를 닫기 위해 온 겁니다.

루크 :알고 있어. 하지만 나탈리아는.....

가이 :나탈리아 넌 여기서 기다리는 게 어때? 우리할 필요 없다고.

나탈리아 : 아뇨..... 아니요..... 같이 가겠사 왔어요.

가이 : 그래..... 설 수 있겠나?

아니스 :나탈리아. 우리 안해두 돼.

나탈리아 : 아니어요. 가지요.

<페이스 채트 '라르고의 최후. 나탈리아의 마음'>

루크 : 라르고 왜 우리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스 : 그런 말이라니?

루크 : 적에게 정을 베풀지 마라. 그렇게 어중간해서야 저 자를 타도할 수 없다라고.....

가이 :그것은 나탈리아에게 한 말 아니겠냐.

나탈리아 :제게말인가요?

가이 : 죽음의 직전에, 부친으로서 나탈리아가 --- 메일이 살아남기를 바라고서 말이다.

나탈리아 :

아니스 : 우~웅. 그치만 라르고는 나탈리아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악감을 짊어지는 걸 달갑게 생각할 사람은 아니었어.

루크 : 그렇담 그건.....

아니스 : 나는 네 적이니까, 정을 베풀지 말아라. 비정한 마음으로 나도 반도 쓰러뜨려 봐라, 라는 뜻 아닐까?

루크 : 어느 쪽 의견도 일리가 있긴 한데.....

나탈리아 : 진실은 라르고 혼자밖에 모르는 것이니, 저는 제가 믿은 답을 마음에 담고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니스 : 응응? 나탈리아는 어떻게 생각하는 데?

나탈리아 :비밀이랍니다.

(이제 계속 내려가면 게이트의 최심부에 도착하게 된다)

루크 : 이걸, 어떻게 닫는건데 이제?

제이드 : 이것은..... 거대한 보진입니다. 전승대로입니다. 유리아가 여기를 열 때에 로렐라이의 검을 썼다면요.

티아 : 그렇다면 이번에는 보주를 사용하면 되겠군요.

루크 : 알았어..... 해 볼게.

루크 : 우왁!

[별의 기억 속]

루크 : 여긴..... 지핵(地核).....?

루크 : 그랬나..... 반 선생은 여기서 로렐라이를 흡수한 거였군.....

반 : 너에게 로렐라이의 힘을 나누어 주마. 조금 더 살면서 내게 힘을 빌려다오.

싱크 :당신까지 지핵으로 떨어져 올 줄은 말이야. 총장.....

루크 :이건.....? 왜 나한테 이런 게 보이는 거야?

루크 :나. 사라지던 몸이다 보니 아예 플래닛 스펙에 동화라도 돼 버렸나?

루크 : 그럼, 이게 별의 기억.....?

(애쉬와 싱크가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데...)

루크 : 이런 현실인가?

애쉬 : 비켜라!

싱크 : 반은 아직 제 상태가 아니야. 그리고 너는 열쇠를 가지고 있군.

싱크 : 보주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위협이 되겠어. 내놔.

루크 : 애쉬!

애쉬 : 복제인가! 뭐냐!

루크 : 내가 보주를 가지고 금방 그 쪽으로 갈게! 여기서 로렐라이를 해방시키자! 그 때까지 버텨 봐!

애쉬 : 나한테 지시하지 마라!

[다시 업서브 게이트]

티아 : 루크! 괜찮아?!

나탈리아 : 루크, 정신 차리세요.

루크 : 꿈인가.....? 게이트는!?

제이드 : 보주에 반응해서, 보진의 효력이 사라진 모양입니다.

가이 : 성공했다는 뜻이지. 해냈군!

루크 : 잘 됐다.....! 이게 있다면 라디에이트 게이트도 닫을 수 있을 거야.

티아 : 오빠 일행은 어떻게 됐을까.....

루크 : 어 맞아! 애쉬가 위험해. 빨리 따라가자!

(위로 올라가면...)

아니스 :싱크.....!

(싱크 도주)

루크 : 애쉬! 선생은!?

애쉬 : 밖이다. 모스가 이온의 복제에게 제 7 보석의 예언을 읽게 하는 데에 같이 있다.

티아 : 가자!

<페이스 채트 '반, 부활'>

티아 : 역시 오빠는 살아 있었구나..... 로렐라이를 흡수해서.....

루크 :반 선생은 강적야. 로렐라이의 힘이 없었을 때도 몸이 떨릴 정도로 강했어.

티아 :응. 우리, 또 다시 싸우지 않아선 안 되는 거구나.

루크 : 선생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 준다면, 싸우지 않아도 될 지 모르겠지만.

티아 : 무리야.

티아 :오빠의 이상은, 우리들의 이상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걸...

루크 : 우리들..... 이길 수 있을러나.....

티아 : ...이기지 않아선 안 돼. 그렇잖아?

루크 : 티아 넌, 진짜 그거면 되겠어?

티아 :

(밖으로 나가자)

복제 이온 :그리하여 올드란트는 장기에 의해 파괴되어 먼지가 되리라. 이것이 올드란트의 최후이다.

모스 : 히흐하하히하하하!! 엉터리를..... 읽지 마라야!

모스 : 바아안!! 이 조각이 진짜로 제 7 보석의 파편이란 말이나야!?

반 : 물론이다.

루크 : 그만 해!

모스 : 우음! 귀찮다야!

루크 : 하지 맛!!!!

모스 : 우아악!? 나의 몸이이히에어악 --- !? 어떻게 된 것이냐? 의식이..... 몽롱하게.....

모스 : 예언을..... 예언을..... 히야하하하..... 그..... 만 뒤라.....! 꾸역, 꿀럭!?

리그렛 : 초진동인가!? 하지만 그것으로 정신오염이 진행될 줄은.....

반 :아니, 다르다. 내 안의 로렐라이가 한 순간 요동쳤다.

반 :로렐라이의 보주인가!? 응응..... 아벨씨. 로렐라이가..... 날뛰는 군.....!

티아 : 오빠!?

리그렛 : 각하! 몸이.....

반 :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

(번쩍)

가이 :이, 이럴 수가! 방금 그 힘은 대체.....

애쉬 : 로렐라이이다..... 반이 몸 안에 봉인한 로렐라이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리그렛 : 각하! 로렐라이는.....!?

반 : 별 일 아니다. 이미..... 억제했다.

리그렛 : 그래도 이번에는 건강을 위해 엘드란트로 돌아가시기를!

반 : 모든 시체를 넘어서 내가 있는 곳까지 와 봐라. 애쉬, 그리고 루크여.

반 : 그 때, 한번 더 너희들에게 묻기로 하자.

티아 : 오빠, 기다려!!

반 : 메쉬티아라카. 다음에 만날 때는 너라 하더라도 용서 않겠다.

(반, 리그렛, 싱크 이탈)

애쉬 : 이것으로 로렐라이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놈들에게 알려진 셈인가.
애쉬 : 조심해라. 반은.....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빼앗으려 들 거다.

루크 : 로렐라이를 음보대까지 해방시켜 보내면 반 선생을 로렐라이를 소멸시킬 기회를 영원히 잃겠지.
루크 : 세계에는 제 7 음소도 예언도 별의 기억도 남게 될 거고.

애쉬 : 그런 뜻이 된다.

애쉬 : 플래닛 스톰을 정지시킨다면 한번 더 너를 만나러 오마. 보주를 뺏기지 마라.

(애쉬와 헤어진다)

가이 : 애쉬 녀석..... 왠지 네게 상냥해진 것 같다만.

루크 : 그럴까.

나탈리아 :그래도 왜일까요. 그는..... 슬퍼 보였어요.

아니스 : 자기, 모두들. 이 애..... 다아트로 데리고 가면 안 될까.

아니스 : 애..... 어디에도 갈 곳이 없을거라 생각해.....

루크 :그렇군. 알았어, 다아트에 바래다 주고 가지.

<페이스 채트 '모스의 말로'>

아니스 : 모스 그 인간, 뭔가 엄청나게 변해 있더라.

티아 : 그 분에게는, 이젠 우리 목소리는 가 닿지 않는 걸까.

제이드 : 중증의 정신오염입니다. 아마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티아 : 이 뒤로는, 일생 마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제이드 :아마 그 전에, 원소와 음소가 괴리를 일으켜 죽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니스 :바보야, 저 사람..... 왜 예언을 더 넓은 눈으로 보지 못하구.

티아 :아니. 우리도 저렇게 되었을지도 몰라.

티아 : 무언가를 고집한다는 것은, 때때로 큰 대가를 필요로 하기도 하거든.

아니스 : 조심해야지.....

(복제 이온을 말기러 다아트로 가자)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31)

[로렐라이 교단 총본산 다아트, 교회]

트리트하임 : 이, 이 분은.....!!

티아 : 유리아시티에서 보고가 들어왔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도사 이온의 복제입니다.

아니스 :다아트에 말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요.

트리트하임 : 알겠소. 말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니스 : 괜찮아. 여기 사람들은 당신한테 억지로 예언을 읽게 시키거나 하진 않을 테니깐.

복제 이온 :아니스는같이 안 남아?

아니스 : 응. 하지 않아선 안 될 일이 있어서.

루크 : 괜찮아. 다 끝나고 나면 아니스는 여기 돌아올 거다. 가끔 만나러 올게. 물론, 나도.

트리트하임 : 그런데, 그는 무엇이라 부르는 편이 좋겠습니까. 이온 님인 것은.....

루크 : 으~음.....

티아 : 아니스가 이름을 지어 주는 게 어떠니? 아니스랑 친해 보이는데.

아니스 :플로리안.

루크 : 플로리안?

제이드 : 순진무구한 자, 라는 의미입니다.

아니스 : 플로리안, 또 올게.

아니스 :이온 님.....

티아 :아니스. 가자.

(상당히 뒷북이지만, 이온의 방으로 가면 이온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이벤트와 함께 티아가 제 5 음소 보가 저지먼트를 배운다)
(다음 목적지는 세계 가장 남쪽에 있는 라디에이트 게이트이다. 접근하면 엘드란트에서 포격을 갈겨댄다)

루크 : 망할! 게이트를 닫지 못하게 할 셈이구만!

노엘 : 강제착륙 할게요!

루크 : 부탁해!

[라디에이트 게이트]

유우 :하늘에서 빙글빙글해서 어질어질해염~~~.

티아 : 유우. 정신 차려.

루크 : 아무튼 역시 노엘이라니까. 덕택에 살았어.

노엘 : 아니요... 오빠였다면 더 능숙하게 진입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 멀었네요.

아니스 : 그렇지 않아. 우리들 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걸.

가이 : 어쩌면 엘드란트에서부터 적들이 출격할 지도 몰라. 위험하다 생각하면 물러나라고.

노엘 : 고맙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려가면 금방 패시지 링 관리장치가 나온다)

아니스 : 이거, 패시지 링이지? 역시 여기에도 있네.

제이드 : 뭐어, 당연합니다. 원래는 여기에도 왔을 거였으니 말입니다.

나탈리아 :여기서 애쉬가 거들어 주었던 것이군요.

루크 :어. 나, 진짜 그 놈한테 신세만 잔다니까.

티아 : 당연해.

루크 : 영?

티아 : 대지를 내려보낸 거니까. 둘이서 해낼 수 있었던 것만 해도 큰 일을 해낸 거야.

아니스 : 애쉬 혼자였더라도 우리였을 걸.

가이 : 그래. 실은 인간 한 사람에게 뭐 그리 큰 힘이 있겠냐.

제이드 : 그렇습니다만, 한 인간이 간단하게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스 : 대령님임~!

제이드 : 어느 쪽도 진실입니다. 인간의힘에는 항상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제이드 : 어느 한 편의 인식이라도 부족하다면 힘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다고 할까요.

루크 :어. 난 잘 알겠어. 내 힘은 진짜로 그런 부류니까.....

티아 : 지금의 당신이라면 힘의 두려움도 소중함도 잘 알고 있을 거야. 두려워 하지 마. 그리고 교만해 하지 마.

루크 :그래.

(더 내려가면...)

루크 : 뭐야? 뭐가 오는데 같은데?

가이 : 나쁜 예감이 드는군. 빨리 끝내 버리자.

.....

티아 : 아까 그 소리아!

루크 : 정장! 적인가!? 얼른 게이트를 닫아야.....

아니스 : 빨리 빨리! 늦겠어!

(게이트는 닫는다. 그러나...)

제이드 : 위입니다!

모스 : 예언을.....! 히헤해히하하!? 예언을 지키기 위 해.....! 너 희 들 을.....!

티아 : 아직 의식이 남아 있군요.....

모스 : 히야핫핫하. 우역!? 나 는이 세 계의 감시 자로 서..... 세 계를번 영으로오..... 히으역!?

아니스 :이온 님을 죽게 만든 건..... 저 사람인데도.....!

아니스 : 그래도... 원가... 가없어.....

티아 : 도사..... 아니, 대영사 모스! 부탁드려요! 정신을 차리.....

(쿵)

티아 : 모스 님!

모스 : 배반자르으으으으! 후 웁..... 세계를멸망시킬 수 는 없.....

루크 :싸우지! 저대로 놔둬서 좋을 리 없어!

모스 : 죽어라 ~~~~~!? 히야핫핫하하하핫핫 핫!!!!

<BOSS - 기간트 모스>

드디어 한 번 싸우게 된 모스. 이쁜 구석은 없지만 불쌍하니 저 세상으로 보내주자.

약점은 빛이고 어둠에 내성이 있으므로, 티아의 홀리 랜스 등이 잘 먹힌다.

루크에게 에메랄드 링을 장비시키고 수호방진을 마구 연발시키는 무대뽀 전법도 유효(회복과 공격이 동시에 됨).

딱히 특별한 필살기는 쓰지 않지만 상태이상 공격을 가끔 쓰므로 걸리면 잘 대처하자.

그리고 모스도 중급 이상의 보술을 많이 쓰는 편이므로 FOF 가 발생하면 뺏기지 않게 주의 하자.

모스 : 에..... 언..... 이..... 유리아..... 여.....! 세계를 번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는 모스)

루크 :웁...

아니스 :너무해너무 심하다구.....

가이 : 모스는 마지막까지 예언에 집착하며 갔군. 괴물이 되었으면서도 예언 예언 거리면서.....

티아 : 저 분은 유리아의 예언이 있으면 반드시 세계를 구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계셨어.

티아 : 저 분 나름대로 세계를 구하려 하셨던 거지.....

아니스 : 그래서 예언에 집착했던 거야.....

루크 :엘드란트로 가자.

티아 : 루크.....

루크 : 선생이 복제 세계를 완성시킨다면 죽도
받도 안 돼. 모스의 방식이 틀려 있었다는 것
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루크 : 아냐 아니지. 우리의 미래를 잡
기 위해서라도, 반 선생을 막고 로렐라이를 해
방시키는 거야!

제이드 : 그러나 엘드란트로 가려면 대공포화
를 빼져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이드 : 그란코크마의 제국군 본부에서 검토
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루크 : 응. 그러지.

<페이스 채트 '대영사로서'>

티아 : 대영사 모스..... 용서하시길.

루크 : 티아.....

티아 :바보같지, 나. 알고 있어. 모스 남
이 예언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
아넣었다는 걸.

티아 : 그래도..... 그건 지금까지의 로렐라이
교단의 체질이기도 했어.

루크 : 그래. 이번 사건으로 처음으로 로렐라
이 교단이 흔들리기 시작한 셈이니.

루크 : 혹시 모스가 더 옛날 시대의 대영사였
다면, 고매한 성직자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을
지도 모르지.

티아 :응.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어.

티아 : 우리를 교단의 군인에게는, 다 같은 죄
가 있으니까.

<페이스 채트 '최후의 싸움으로'>

루크 : 플래닛 스톰도 멈췄어. 남은 건..... 엘
드란트로 가는 일 뿐이군.

제이드 :에. 거기서 로렐라이를 해방시키
고, 복제 대지를 만들려 하는 엘드란트를 정지
시켜야 합니다.

티아 : 드디어로군요. 이것이 최후의 큰 싸움
이 될 거예요.

가이 : 그래. 우리들이 오리지널 세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반 일당의 신세계가 창조될 것
인가.....

나탈리아 : 반의 마음대로 하게 둘 수는 없사
와요. 우리들은 그저 엘드란트로 향하는 것이
아니합니다.
나탈리아 : 킴라스카와 마르쿠트, 그리고 다아
트 사람들에게서부터, 미래를 맡아 가지고 있
는 것이지요.

루크 :그래. 이제 돌이킬 수는 없어. 반
선생을..... 쓰러뜨리자.

[물 위의 제국수도 그란코크마, 제국군기지 본
부 회의실]

제제만 : 기다리고 있었네. 엘드란트는 플래닛
스톰이라는 갑옷을 잃었다.

놀드하임 : 킴라스카·마르쿠트 연합군은 플래
닛 스톰이 멈추는 것과 동시에 출병 준비에
들어갔다.
놀드하임 : 귀공들에게 협력하기 위해서다.

루크 : 고맙습니다.

루크 : 그래도 아직 엘드란트에는 저 강력한
대공포화가 남아 있는데, 저걸 어떻게 좀 하지
않고선.....

제제만 : 흠. 엘드란트의 대공포화에는 발사예
서 다음 충전까지 약 15초의 시간이 걸린다.

노엘 : 그 시간에 포격을 예측하고 회피하면
서, 접근..... 오빠라면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
데요.....

제이드 : 애쉬를 찾아서 긴지 씨와 교대해 달
라 하시겠습니까?

노엘 :아니요, 시켜 주세요. 알비을 2 호
기의 조종사는 저입니다.

노엘 : 저도 오빠도 같은 훈련을 받아 왔어요.
걱정 마시길. 해내 보일게요.

루크 : 잘 부탁할게.

가이 : 애기 끝났군.

나탈리아 : 슬슬 시작인 것이군요.

루크 : 저기 다들, 진짜 엘드란트 같은 데 가
도 되겠어?

루크 : 나탈리아는 킴라스카의 왕위 계승자.
제이드도 원래는 군속으로서 마르쿠트 방위를
하는 게 맞을거고. 거기다.....

나탈리아 :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어요?
여기까지 와서 빼질 수 있을 리가 없사와요.

티아 : 나는 오빠가... 반이 했던 일에 대해 결
판을 내지 않아선 안 돼.

아니스 : 이온 님이라면, 마지막까지 지켜보게
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을 거야.

가이 : 누나의 복제와 만나 보고서 잘 알았다.
가이 : 한번 사라졌던 생명을 저런 식으로 부
활시키는 건, 같은 호드의 인간으로서 용서 못
해.

제이드 : 저는 폐하의 명령이 있었기에. 그리고
일반병을 파견할 때에도 대장은 필요한 법
입니다.

루크 :어. 알았어. 고맙다 다들.

제이드 : 제제만 참모총장님. 저희들의 돌입에
맞추어 지원사격을 부탁드립니다 수 있겠습니까?

제이드 : 저희는 엘드란트 내부에서 대공포화
를 무력화시킨 다음, 직접 반과 접촉하겠습니
다.

제제만 : 좋다. 그러나 우선해야 할 것은 반의
토벌일세.

제제만 : 대공포화를 무력화시켜 보았자 우리
에게는 하늘을 날 수단이 없으니 말일세.

제이드 : 알겠습니다.

루크 : 좋아. 이젠 애쉬를 찾아서 로렐라이의
열쇠를 완성시키기만 하면 되겠어.

놀드하임 : 연합군은 케세드니아에서 너희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부탁하마.

(그란코크마를 나가려는데 애쉬와 만나게 된
다)

나탈리아 :애쉬.....!

애쉬 :플래닛 스톰이 멈춘 모양이더군.

루크 : 잘 됐어! 그걸 네게 전하려던 참이었다
고!

애쉬 : 아니, 바로 알았다. 그래서 난 네
게.....

(로렐라이의 보주를 애쉬에게 넘긴다)

애쉬 : 뭐냐 이건.....

루크 : 전에 말했잖어. 로렐라이를 해방시킬
수 있는 건 오리지널인 너 뿐이라고.

애쉬 : . . .

루크 : 난 모두와 같이 온 힘을 다해 널 선생
이 있는 곳까지 데려갈 거다. 너는 로렐라이
를.....

애쉬 :놈.

루크 :뭐?

애쉬 : 멍청한 놈!! 누가 그만 걸 부탁했나!

루크 : 왜 화를 내고 그래. 같이 선생을 막을
생각이 없다는 거야? 내가 복제라는 게 그럴
게도.....

애쉬 : 시끄러! 도대체가 언제까지고 선생 선
생 거리지 말란 말이다!

루크 :애쉬.

애쉬 : 거기다 이 마당에 아직도 '막겠다' 고?

애쉬 : 언제까지고 그런 소릴 지껄이는 녀석이
될 할 수 있겠냐! 너는 너무 착한 말이다!
애쉬 : 그 자는..... 진짜로 복제의 세계를 만
들려 하고 있다.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어. 확
신범(確信犯)이라고.

애쉬 : 내가 바보였다. 어쩌면..... 이런 복제
와라도 힘을 합치면 놈을 처치할 힘이 될 지
모른다고 생각했건만...

애쉬 : 너는 나야! 그 내가 자기 자신이 뒤떨
어졌다는 걸 인정하면 어찌자는 거냐고!

애쉬 : 나랑 마찬가지로 아닌가! 왜 싸워서 정
취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단 말이다!

애쉬 : 왜 자기 쪽이 더 뛰어나다는 말을 못
하나! 사내자식이 왜 그리 비굴해!

루크 : 아냐! 그런 생각이 아냐! 원래가, 나랑
너는 다르잖아!

애쉬 :뭐, 뭐라고...

루크 : 난 니 복제야. 그래도 난..... 여기 있
는 난 너랑은 틀리다고.

루크 : 사고 방식도 기억도 사는 방식도.

애쉬 :까불지 마! 열성복제 나루맹이가!
난 인정 못한다!

루크 : 네가 인정하건 말건 상관 없어. 난 니
부속품도 아니고 대용품도 아냐!

(애쉬가 로렐라이의 보주를 던져 되돌린다)

루크 : 애쉬! 뭐하는 거야.....

애쉬 : 재미있군! 그렇다면 확실히 가려보는
게 어떠냐!

애쉬 : 네가 결국은 고작 내 가짜에 지나지 않
는지 어떤지를!

루크 : 애쉬, 난 너랑 싸울 생각 없어!

애쉬 : 시끄러! 잘난 척 지껄여 놓고는 공무니
를 뺄 생각이냐?

애쉬 : 너는 너라면서? 그걸 증명해 봐라! 그
렇지 않는다면 난 널 인정 못해! 인정 안 할거
다!

나탈리아 : 애쉬! 기다리시어요! 지금 당신은
하시는 말씀이 뒤죽박죽이랍니다!

애쉬 : 시끄러워!

나탈리아 : 애쉬.....

루크 : 기다려, 나탈리아한테 화풀이 마,
난.....

애쉬 : 놈의 —— 반의 제자는 나다. 나 뿐이
야! 너는 그냥 가짜인 거고.

나탈리아 : 애쉬! 무슨 말씀!

애쉬 : 나는 놈을 존경하고 있었다. 예언을 부
정하던 그 자의 이상을 나도 믿고 싶었다.
애쉬 : 내 초진동을 이용하고 싶을 뿐이라는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

애쉬 : 놈이 인간 전부를 복제로 바꿔치기 한
다는 둥 미친 소리를 꺼내지만 않았다면.....
계속 놈의 제자로 있고 싶다고...

루크 : 애쉬, 너.....

애쉬 : 엘드란트로 와라!
애쉬 : 선생을 누르는 것은 제자가 할 일이다.
어느 쪽이 진짜 제자인지 거기에서 결판을 내
도록 하지.

(애쉬는 떠나간다)

루크 : 저 놈이 부러워. 녀석은..... 언제나 선
생에게 인정받고 있었으니까.

루크 :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제자이고 싶다
생각하고 있었기에....

<페이스 채트 '협력할 수 없는 두 사람'>

루크 : 애쉬, 우리 역시 힘을 못 합치는 거냐?
싸우는 걸로 밖에,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냐고?

루크 : 난 옛날에 널 받아들였어. 네가 뭐라
하건,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 만은 부정 못
해..... 난 살아 있으니까.

<페이스 채트 '루크와 애쉬 2'>

가이 : 여기에서, 입장이 역전됐구만.

제이드 : 여기에서, 라 생각하십니까.

가이 :그랬지. 애쉬는 전혀 달라진 게 없어. 아마 루크가 변한 걸 거야.

제이드 : 예..... 죽음을 눈 앞에 두고서, 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이드 : 애쉬만이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과 똑같이 생긴 인형이 자아를 가지게 된 것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 : 실은 애쉬도 눈치채고 있는 거 아니겠수?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라 저러지.
가이 :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인형이 자립을 했다는 사실을 말야.

제이드 : 화를 내는 것을 보니 아마 그런 것 같군요..... 그래도 차라리 저게 낫습니다.
제이드 : 루크와 상대도 하지 않고 떠나갔다면 희망을 바랄 수 없었을 겁니다.

가이 : 다음은 애쉬가 자립을 해낼 차례인가.....

제이드 : 예..... 복제가 만들어지고 자신은 밝은 장소에서 쫓겨났다..... 라는 피해의식에서, 말입니다.

(케세드니아로 가자)

[유통거점 케세드니아]

<페이스 채트 '결의 ~ 여성 편 ~>

아니스 : 흥 흥흥~♪

나탈리아 : 어머니, 상당히 정성들여 치장을 하고 계시네요.

아니스 : 그치만 이제 곧 최후의 싸움인 거잖아. 화려하게! 그러구 아름답게!

티아 : 아니스는 긴장 안 되나 봐?

아니스 : 응.

티아 : 거짓말. 손 끝 떨린답니다.

아니스 : 이것은 흥분에 떠는 거랍니다.

나탈리아 : 아이 참, 아니스도 티아도, 둘 다 기가 드세어요.

아니스 : 나탈리아두 굳센 척만 하잖아.

티아 : 후후..... 비슷한 사람만 모인 모양이야.

나탈리아 : 네, 그렇사와요. 처음에는 당신들 에게, 좋은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아니스 : 우움, 그건 내가 할 말이라구.

티아 : 앉았지만? 지금은?

나탈리아 : 정말 좋아하는답니다.

아니스 : 우움, 그것두 내가 할 말이지롱☆

티아 : 둘 다, 같이 힘내자.

<페이스 채트 '결의 ~ 남성 편 ~>

루크 : 엘드란트라..... 크긴 큰데 저거.....

가이 : 그야 뭐, 섬 하나가 통째로 떠 있는 거 니 말이다.

제이드 : 거대한 것은 안쪽에서 공격한다. 뭐, 기본중의 기본이긴 합니다만.

루크 : 뭔가 묘한 기분인데, 설마 가이와 제이드랑, 셋이서 이렇게 싸우게 될 줄은.

루크 : 처음 만났을 때엔 상상도 못 했다고.

가이 : 하하하, 그건 그렇지. 그 때엔 아직 반도 적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았으니.

제이드 : 거기다 마르쿠트는 적국이었고..... 맞습니까?

루크 : 헤헤, 제이드는 그냥 비꼬기 좋아하는 아저씨라 생각했는데.

가이 : 역시 비꼬기 좋아할 뿐인 사람이더라.

루크 : 누가 아니라.

제이드 :후후. 그럼 이 비웃기 잘하는 군 인과, 조금만 더 어울려 주십시오.

루크 : 이쪽이 할 말이야. 제이드, 가이, 힘내자고.

(주점 근처에 병사들과 서 있는 놀드하임에게 말을 걸어 준비가 됐다고 하면 진행된다)

제이드 : 작전 결행은 내일. 마르쿠트·킴라스 카 연합군과 합류한 다음이 됩니다.

가이 : 라는 건. 오늘 하루는 시간이 난다는 말이구만.

제이드 : 예. 출격을 앞둔 병사에게는 24시간의 자유행동이 주어지니 말입니다. 그 사이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스 : 그럼, 우리도 자유행동 하자~!

제이드 : 상관은 없습니다만, 케세드니아 부근에서 너무 떨어지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스 : 네~에. 알고 있어요~♡ 가이, 나탈리아. 가자!

루크 : 넌 어디 안 갈라고?

티아 : 난..... 별로..... 당신은?

루크 : 케세드니아는 사막 마을이니 말이지... 루크 : 거기다 내일 결전이라는 말을 들어서 뭐랄까 아직 실감이.....

노엘 : 그러면, 두 분 저와 같이 가지지 않으시겠어요?

유우 : 유우도 갈래염.

노엘 : 물론, 같이 가야지요.

(시간은 흐르고... 부두)

가이 : 바람 맞았다는 표정이군.

나탈리아 : 올 리가 없겠지요.....

가이 : 루크가 자립한 순간에, 애쉬는 복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유지시키고 있었던 존재의 의를 잃었으니.
가이 : 만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다음에 얼굴을 맞힐 때는.....

나탈리아 : 싸울 때..... 인가요? 그렇지만 어쩌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가이 : 상처입히기 위해서가 아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지.
가이 : 이미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함이다.

나탈리아 : 저는..... 그렇게 된 때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가이 :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어. 네가 루크도 애쉬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말이야.

나탈리아 : 당신은? 당신도 그러실 것이신지요?

가이 : 응~, 그게 친구라는 것일테니.

나탈리아 : 애쉬도 당신 친구?

가이 :나는 나대로 과거와 결판을 냈다 생각한다. 애쉬도 과거와 결별하려 하고 있다 생각해.

가이 : 그렇게 되면, 녀석과 나는 원수의 아들과 그 하인 사이는 아냐.
가이 : 인간 애쉬와 인간 가이랄디로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될 걸.
가이 : 모든 양금을 제외한다면, 그 놈은 그놈대로 재미있는 녀석이라 느껴.

나탈리아 :가이는 어른이시네요. 아니면 이것이 남녀의 차이라는 것일까요.

가이 : 나탈리아한테 너한테 있어서 루크는 친

구이자 동료지.

나탈리아 : 네.

가이 : 그럼, 지금은 그거면 충분해. 모든 것에 결론이 났을 때 나탈리아 네 마음에 떠오른 감정에 솔직해지면 되지.

나탈리아 :네에. 그렇지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오지 않는 답이란 것도 있으니까요.

(주점)

아니스 : 대령님. 술 마시구 계시요?

제이드 : 좀 더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한잔 하고 싶었습니다만 이 마을에서는..... 말입니다.
제이드 : 아니스는 자유행동을 만끽하신다는 게 아니셨습니까?

아니스 : 저는 티아를 위해서 그런 거라구요.

제이드 : 호오..... 못할 짓을 하셨다는 느낌도 듭니다만.....

아니스 : ...대령님 뭐 숨기고 계시죠?

제이드 : 아니오. 아무것도.

아니스 :뭐 좋아요. 대령님은, 반 총장을 쓰러뜨린 다음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이드 : 군인이니까요. 또 군속으로서의 생활로 돌아갈 겁니다. 다만.....

아니스 : 다만, 원대요?

제이드 : 이상하지요. 저는 돌아가면 새로이 포미클리 연구를 재개시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드 : 복제라는 존재를 대용품이 아닌 무언가로 승화시키기 위한.

아니스 :응.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온님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요.

제이드 : 아니스는 교단을 재건해야겠지요.

아니스 : 아, 눈치채고 계셨어요?
아니스 : 이렇게 된 바에야 인생역전은 포기하고 자기 힘으로 초대 여성 도사나 되 볼래요.

제이드 : 그럼, 아니스. 슬슬 속소로 돌아가 주십시오.

아니스 : 에엑~ 대령님 계속 여기서 마시실 거잖아요.

제이드 : 이제부터는 어른들의 시간입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집에 가시기를.

아니스 : 피이~. 치사~.

(알비올 내부에서는...)

유우 :역시 주인님네가 걱정되염.

노엘 : 안돼요. 유우는 여기서 저랑 대기.

유우 : 유우.....

(그리고 알비올 기체 위...)

티아 : 슬슬..... 내일이네.

루크 :어. 그 때까지 내 몸이 버텼음 좋겠다만.

티아 : 견딜 거야.

루크 : 티아.....

티아 : 내일도..... 모래도 글피도..... 계속.....

루크 :티아. 있잖냐, 나.....

티아 : 왜?

루크 :역시, 됐어.

티아 : 이상한 루크.

루크 :이상할 건 없잖나! 그냥... 그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뿐야.

티아 : 왜 그래, 갑자기.....

루크 : 계속 지켜봐 줬으니까...

티아 :바보구나.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건데, 당신을.

루크 :바보는 너 아냐. 난..... 사라.....

티아 :됐어.

루크 : 뭐랄까 말이지. 묘한 기분야. 지금, 엄청 행복하다 생각되거든.

루크 : 동료들이 있고... 티아 너도 있고... 나는 나라고..... 겨우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했고.....

루크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일지도.

티아 :응?

루크 :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티아 :

[유통거점 케세드니아, 다음 날]

골드버그 : 적전 결행은 오늘 정오다. 우리는 전함과 육상함으로, 중앙대해와 이스파니아 반도의 소정 위치에 있겠다.

놀드하임 : 알비올 쪽이 이동속도가 빠르다. 작전개시 시간까지는 엘드란트 아래의 중앙대해에 내려서 우리의 도착을 기다리게.

루크 : 알았습니다.

제이드 : 연합군이 도착한 뒤, 시간이 되면 포격이 시작될 겁니다.

제이드 : 그 지원을 받으며, 우리는 대공포화가 비교적 약한 아래쪽에서부터 엘드란트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가이 : 그 다음은, 가능하다면 대공시설을 파괴한 다음 반을 찾아가는 거지.

나탈리아 : 최종목적은 로렐라이의 해방. 그것이 맞겠지요.

아니스 : 좋아, 루크. 마지막이니, 호령 한번 멋지게 해 줘.

루크 : 내, 내가?

티아 : 그래도 이미 당신이 리더 비슷한 거니까.

루크 : 알았어. 모두들, 반드시 우리 세계를 지키자!

[중앙대해, 알비올 내부]

루크 : 아직 시간이 남았군.

유우 : 웬지 두근두근거려요.

아니스 : 총장은 진짜로 덩빌거야. 기합 뱉서게 날려야지.

제이드 : 너무 널어서 헛도시지는 마시기를.

가이 : 그건 그렇군. 조심해라 루크.

루크 : 왜 나냐!

나탈리아 : 후훗, 가장 걱정되거든요.

(그 때 경보가...)

루크 : 뭐, 뭐야?

유우 : 달아나야 해! 음소가..... 음소가 덮쳐올 거예요!

티아 :루크! 저건!?

(엘드란트가 통째로 덮쳐오는 영상을 보게 된다)

루크 : 간신히 피신하긴 했는데.....

제이드 : 설마 저 쪽이 먼저 날아들 줄은.....

제이드 : 거기다 엘드란트는 우리에게 돌격할 추진력을 얻기 위해 기억입자(셀퍼 티클)를 역분사 시켰습니다.

제이드 : 아마 지핵에 있는 타르타로스는 완전히 파괴되었을 겁니다.

루크 : 타르타로스야!? 그럼 지핵의 흔들림은.....

제이드 : 중화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가이 : 그렇군.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지핵에 로렐라이가 없다는 게 불행 중의 다행인가.....

나탈리아 : 아마..... 플래닛 스톰을 재생시키지 않는 이상, 지핵이 흔들릴 일은 없을 테니까요.....

티아 : 그래도 애쉬 말대로였어. 엘드란트째로 특공까지 걸어올 줄은.....

티아 : 오빠에게 있어서, 로렐라이의 열쇠는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거야.

노엘 :크! 엘드란트가 낙하했더라도 대공포화는 견재한 모양이에요!

제이드 :아니오. 기다려 보십시오. 제이드 : 엘드란트의 좌익..... 이라 해도 되려나, 아무튼 좌측의 아래부분, 대공포화가 죽어 있습니다!

노엘 : 알겠습니다! 거기에 착륙할게요!

(착륙하는 무비를 보게 된다. 이후 엘드란트에 출입할 수 있다)
(진행을 하면 엔딩으로 돌격하게 되지만, 이 시점에서 서브 이벤트가 많으므로 할 게 남았다면 바로 뒤로 돌아 나오자 ^^)

<페이스 채트 '결의 ~ 전원 ~'>

루크 : 다들. 준비 됐지?

아니스 : 어얼, 짱먹었어~!

루크 :시, 시끄러!

가이 : 하핫, 아니스. 괴롭히지 말어.

나탈리아 : 우리들은 물론 준비 안전입니다.

티아 : 응, 언제라도 싸울 수 있어.

유우 : 저두예요!

제이드 : 뭐어, 마지막이라 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들 해 나가십시오.

제이드 : 무사히 돌아오기만 한다면, 저도 겨우 애보기에서 해방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루크 : 변함없이 비웃는 소리만 하네 진짜.

제이드 : 이거 실례.

아니스 : 뭐어 그래도, 일단은 최후의 싸움이라구.

루크 : 어. 다들, 잘 부탁한다.

[영광의 대지 엘드란트]

<페이스 채트 '반의 초조함!?'>

나탈리아 : 놀랐사와요. 설마 엘드란트 통째로 돌격을 해 오리라고는!

아니스 :저걸 잘도 피했다니깐. 정말 노엘언니 짱이란 느낌이야.

가이 : 목표는 역시 루크가 가진 보주(寶珠)인 모양이군.

루크 : 로렐라이의 열쇠는 못 넘겨. 선생이 스스로 쳐들어오기까지 했다는 건, 역시 이게 우리들의 마지막 수가 될 거란 얘기니까.

티아 : 오빠 역시 초조해지기 시작했는지도 몰라.....

제이드 : 복제대지 생성과 우리들의 돌입을 비교하면, 우리 쪽이 확실하게 먼저 반을 찾아가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제이드 : 초조한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처리해 두고 싶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루크 : 그래도 우린 무사해.

루크 :선생, 지금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

겠습니다. 당신에게서 로렐라이를 해방시키기 위해!

<페이스 채트 '애쉬와의 싸움'>

나탈리아 : 애쉬는 엘드란트로 이미 향했는지요.

루크 : 아마.

나탈리아 : 그러면 칠흑의 날개는.....

아니스 : 아, 글쿠나. 개네들, 애쉬랑 항상 같이 다녔으니까.

제이드 : 어떨까요. 역시 이번에는 두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엘드란트에는 반이 있습니다. 위협하니까요.

나탈리아 :그런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쉬는 혼자이겠어요.

루크 : 따라가서 역살 틀어주고 끌어다가, 같이 싸우게 만들자.

나탈리아 : 루크.....네에. 그렇사와요. 그는 우리의 동료이니깐요.

(조금만 나아가면...)

루크 : 저거, 아스톤 씨네 알비올 맞지!?

가이 : 그리고 보니 3 호기는 애쉬가 타고 돌아다녔다지.

나탈리아 : 애쉬..... 아니, 저 분은!

노엘 : 오빠!? 저 대공포화를 뚫고 들어온 거야!?

긴지 : 위험했지만 그럴 수 밖에 없었어. 긴지 : 영격장치의 사각에서부터 날아들어, 알비올의 선체로 장치를 들이받은 거지. 긴지 : 그것밖에 그 대공포화를 무력화시킬 방법이 없더군.

제이드 : 우리를 하십니다 그려...

루크 : 야, 괜찮아?

긴지 :예, 저는 멀쩡합니다. 엘드란트에 낙하하면서 좀 타박을 입은 것 뿐이니깐요.

노엘 : 오빠는 제게 맡겨 주세요. 여러분은 엘드란트로.

제이드 : 루크. 가십시오.

루크 :알았어. 노엘 땡큐. 다들, 가자!

<페이스 채트 '6 신장과의 결판'>

티아 : 아마, 엘드란트에는 리그렛 교관님이나 싱크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루크 : 목적은 로렐라이의 열쇠겠지...

제이드 : 애쉬와 두 패로 갈라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행입니다. 적의 세력도 둘로 나뉘 테니까요.

티아 : 애쉬의 부당이 크지 않아야 할 텐데요.....

제이드 : 그것은 그의 실력에 기대해 봅시다.

루크 : 녀석이라면 걱정 안해도 돼. 나랑 만나기 전까지 당하거나 할 놈이 아니라고.

티아 :괜찮겠어? 그와 싸우도.

루크 : 너야말로. 반 선생이나 리그렛과 싸우게 될 건데.

티아 :이미 결심은 섰어.

제이드 : 그들은 강할 겁니다. 신념이니 하는 것이 굳게 세워진 자일수록, 끈질겨서 상대하기 곤란한 법입니다.

제이드 : 우리는 상쾌하게 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루크 : 제이드 답구만. 그래도 괜찮어. 질수 없는 건 이쪽도 마찬가지야.

티아 : 응.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자 마자)

리그렛 : 로렐라이의 열쇠를 가져가겠어.

루크 : 그럴겐 안 돼. 우린 로렐라이를 해방시키기 위해 온 거니까.

리그렛 : 각하를 방하하겠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티아 : 교관님..... 교관님께서도 별의 기억은 사라져야 하리라 생각하고 계시나요?

리그렛 : 물론. 별의 기억이 인간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사람의 의지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지?

리그렛 : 나는 내 감정이 별의 기억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이야기 따위는 결코 인정 못한다.

리그렛 : 인간의 의지는 인간에게 맡겨지는 것이 좋아.

티아 : 그것을 위해..... 오리지널 세계가 소멸되더라도, 말씀인가요.

리그렛 : 오리지널의 세계가 별의 기억에 지배되고 있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

티아 : 진짜 세계에, 교관님께서도 조금의 미래도 없으세요!?

티아 : 당신께 있어서, 소중한 것은 무엇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냐구요!

리그렛 :한 가지의 미래도 없는 사람은 아마 없겠지.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어 있으니까.

리그렛 : 하지만, 나를 고통 속에서 건져 올려 주신 분은 각하입니다. 각하께서 바라신다면, 세계가 멸망하는 것도 상관없어.

티아 : 그것의 교관님의 본심..... 그렇다면..... 저는 교관님을 경멸하기로 하겠습니다. 티아 : 사람의 의지를 주장하시면서, 교관님께서는 교관님의 의지가 없으니까요!
티아 : 당신께선 제가 동경했던 로렐라이의 기사가 아니세요!

리그렛 : 유감이구나. 내가 이 손으로 너를 해치게 될 줄은.

티아 :저도입니다. 당신이라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는데.

리그렛 : 간다. 티아 그리고 복제 루크! 로렐라이의 열쇠를 접수하겠다!

<BOSS - 리그렛>

능력이 많이 올라갔지만 공격방식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쯤이면 아군 캐릭터도 많이 성장해 있을 테니, 연계를 잘 구사해 공격할 틈을 주지 말고 돌아붙이자. HP가 25%를 끊은 시점에서 비오의 프리즘 바레트를 쓰는데, 맞으면 정상적인 레벨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니 라이프 보틀이나 레이즈 데드 등을 준비하자. 에필레르 러름이 플럼 루주로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빛속성 FOF 가 발생하면 먼저 쏘 버리도록.

리그렛 :티아.
리그렛 : 너는 한 가지가 잘못되어 있어.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목숨을 걸 수 없다.
리그렛 : 적어도..... 나는 그래.....
리그렛 : 나는..... 저 사람과 그 이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죽으려 생각했지.
리그렛 : 그것이 내 의지. 단지 그것 뿐이.....야.....
리그렛 :반일그러진 세계를개혁.....

(리그렛 死亡)

티아 : 교관님.....

루크 : 티아..... 괜찮겠냐?

티아 :응. 걱정 마.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어. 가자.

루크 :달라진 게 없군. 울어도 된다고.

티아 : 난 안 울어. 울더라도 변할 게 없으니까. 감정을 조절할 수 없으면.....

아니스 & 나탈리아 : 병사로서 실격이야.

가이 : 티아는 심지가 굳어야 티아라는 애인가.

제이드 : 이래야 한다는 병사로서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티아 마음 속에서 리그렛의 죽음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제이드 : 그렇게 극복하는 방식도 있다는 뜻입니다.

루크 :모두 쪽이 훨씬 더 티아를 잘 이해하고 있는데.

티아 :그렇진 않아.

루크 : 응?

티아 : 됐어. 가자.

<페이스 채트 '티아와 리그렛'>

루크 : 리그렛 말인데, 어떤 사람이었냐?

아니스 :으~응, 리그렛은 지금까지의 의문의 인물이었어.

루크 : 아니스 너도 리그렛은 잘 몰라?

아니스 : 내가 오라클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다는 정도만. 자기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었구.

아니스 : 티아라면 뭔가를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해.

가이 : 티아라..... 존경하던 교관은 자기 손으로 죽이고 만 거다. 태연한 척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상처받지 않았겠냐.

루크 : 어..... 그래도 뭐라고 말을 걸어야 될 여야 될지.....

루크 : 적어도 내가 리그렛에 대해 좀 알고 있다면, 그걸 계기로 어떻게 해 보려는 생각이었는데 말야.

아니스 : 고민하지 마. 갖다 박아!

가이 : 그래. 어설피게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해 주고 싶은 말을 해 주면 되지 않겠어.

루크 :으~응. 알았어.

<페이스 채트 '과거의 친구'>

가이 : 반데스데르카..... 바보같은 놈이다, 년.....

티아 : 가이.....?

가이 :아미안. 들려 버렸다.

티아 :응. 그건 상관 없지만.....

가이 : 반은 내 어릴 적 친구라서 말이다. 날 동생처럼 귀여워 해 줬었지. 냉정하고, 머리 좋고, 착한 놈이었어.

티아 :응.

가이 : 진심을 말하자면, 싸우고 싶진 않다. 아마 티아 너랑 마찬가지로일걸?

티아 :난.....

가이 :녀석은 정말로 성실한 놈이었던 거야. 너무 성실해서, 어처구니 없는 길로 치닫기 시작했다고.

가이 : 그러니까 난, 놈의 어릴 적 동무로서, 말해주지 않아선 안 돼. 돌아와라, 라고.

티아 :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걸로 오빠가, 이 계획을 그만두어 준다면..... 하지만.....

가이 : 알고 있다. 그냥 내 맘이 편치가 않다는 얘기지.

가이 : 녀석이 말을 들어먹을 거란 생각은 안 든다만, 그래도.

티아 :고마워. 가이. 오빠를 위해줘서.

가이 :아냐. 무력한 게 한심하지 뭐냐.

디 어비스 대사해석본 (32, 일단은 끝)

(리그렛을 격파하고 조금 진행하면...)

루크 :이렇게 보니 상당한 크기인데.

아니스 : 거기다 되게 높아...

제이드 : 원래부터 호드의 시가지였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도시 채로 복제를 만들 줄은.

가이 :젠장.....

루크 : 이 이상 복제를 만들게 놔둘 줄 알고. 다들, 가자!

<페이스 채트 '티아를 위로하자'>

루크 : 티아. 너 무리하고 있는 거 아냐?

티아 : 우리 같은 건 안 하고 있어.

아니스 : 저기, 루크. 세상 천지에 무리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듣고서 무리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니스 : 증말 진짜루 멋대가리 없는 남자라니깐~.

나탈리아 : 그렇사와요. 좀 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걸요?

나탈리아 : 어차피 당신께선 말을 골라 하시는 것이 서투르시니, 어깨를 감싸 주신다면가.....

가이 : 말없이 껴안아주는 것도 좋지.

루크 : 니가 잘도 그런 소릴 한다.

티아 :모두들미안해. 걱정하게 만들어서...

제이드 : 아닙니다. 재미있어서 좋습니다.

루크 : 재미있어 하는 건 당신 혼자 뿐이잖나!

<페이스 채트 '애쉬는 어디 있나!?'>

나탈리아 : 애쉬의 모습이 보이지 않사와요. 많이 앞질러 가 버린 것일까요.

제이드 : 글썽하시다. 알비올 3 호기의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돌입한 지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났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루크 : 따라가면 늦지 않을거란 말이지?

제이드 : 어차피 그는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초조해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이드 :적에게 죽지 않았다면, 말입니다만.

나탈리아 : 허구한 날 끔찍한 소리만 골라서 하시는군요!

제이드 : 실례. 자기도 모르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마는 성미입니다.

(두번째 기억진을 지나면 바닥이 열려 루크만 떨어진다)

티아 : 루크!?

가이 : 젠장, 뛰어 내려서.....

제이드 : 소용 없습니다.

가이 : 이 봐, 제이드!

제이드 : 여기서 탈락한다면 그냥 짐이 될 뿐입니다.

나탈리아 : 그렇지만, 루크가 가지고 있는 로렐라이의 보주가 노려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이드 : 그렇습니다. 그러니 루크가 떨어진 장소에는, 적이 침입할 수 있을 만한 안전한 길이 있을 겁니다.

제이드 : 여기서 더 진행해 그것을 찾으십시오.

티아 : 루크, 무사해야 해!

(떨어진 루크 앞에는...)

애쉬 : 제기랄! 시간이 없는데! 이미..... 늦은 단 말이나!
애쉬 : 너는.....

루크 : 애쉬! 너, 왜 여기에!

애쉬 : 흥, 내가 할 말이다.
애쉬 :파브레 가문의 유전자라는 건 상당히 덜렁이인 모양이군. 복제까지 같은 함정에 빠지다니..... 속이 쓰리다.

루크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애쉬 : 사실이 아니냐.

루크 : 여길 나갈 방법은 없디?

(애쉬가 문을 열지만, 보진에서 손을 떼자마자 바로 닫아버린다)

애쉬 :둘 중 하나가 여기 남아야 된다는 이야기다.
애쉬 :무슨 흥내냐 이게.

루크 : 둘 중 한 사람밖에 여길 나갈 수 없다면, 네가 가는 게 나아.
루크 : 로헬라이 열쇠로 로헬라이를 해방시켜서.....

애쉬 : 그만 좀 해라!! 난..... 날 바보 취급 하는 거냐!

루크 : 그게 아냐. 난 복제이다 보니 초진동(超振動)에선 너보다 딸려.
루크 : 검의 실력이 호각이라면, 다른 부분에서 유리한 놈이 가야 될 거 아니냐고.

애쉬 :더 이상 단순히 비굴한 놈이 아니게 된 게, 괜히 더 열받는다!

루크 : 애쉬.....

애쉬 : 다른 부분에서 유리?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어떻게 그리 말할 수 있냐?
애쉬 : 너와 나 중 어느 쪽이 유리한 지 알지도 못하는 게!

루크 : 그래봤자 난 어차피.....

애쉬 : 닥쳐!

루크 : 애쉬! 너 뭘.....

애쉬 : 어쨌건 여기 장치는 둘 중 하나밖에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더 강한 놈이 반을 차지하기로 하는 거다!
애쉬 : 초진동이니 복제이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반에게서 검을 배운 자들끼리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애쉬 : 누가 진짜 「루크」 인지를. 존재를 걸고서 승부해 보자.

루크 : 양쪽 다 진짜라니까. 나랑 너 다른단 말야!

애쉬 : 닥쳐! 논리로 따지자는 게 아냐.....
애쉬 : 과거도 미래도 빼앗긴 내 마음을 네가 어떻게 알겠냐! 내게는 지금 밖에 없단 말이다!

루크 :나 역시, 지금 밖에 없어. 빼앗긴 만한 과거는 처음부터 없었어.
루크 : 그래도 난 나로 남아있자고 그렇게 정했다. 니가 어떻게 생각하건 난 여기 있어.
루크 : 그게 네가 말하는 강항으로 이어진다면, 나는 안 저.

애쉬 : 말 잘했다. 그 주제넘은 주동으로 두 번 다시 지킬이지 못하게 해 주마. 간다! 열성 복제!

<BOSS - 애쉬>

OP 무비의 그 대결은 이것을 묘사한 것이었다. 이벤트성이 짙은 전투이긴 한데, 조금 까다롭다.
초반에는 통상공격과 특기를 단발로만 쓰기에 가드하고 있다가 때리면 되지만, HP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특기에서 오의를 연결하며 몰아붙여 온다. 이 때부터는 프리런이나 점프로 헛방을 유도하자.
야 창, 레이디먼트 하울 등의 비오의는 가끔씩 쓰지 말도록. 비오의로 카운터를 맞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애쉬 : 쟤장... 오리지널이..... 복제 따위에게

질 좋은 말이다.....
애쉬 : 그걸 가지고 가라.

루크 : 애쉬..... 난.....

오라클 병사 : 기다려라! 로헬라이의 열쇠를 내 놔라!

애쉬 : 여긴 내가 막으마! 빨리 가!

루크 : 나도 같이 싸울래!

애쉬 : 개소리 집어쳐! 지금 중요한 게 저 놈들을 없애는 거냐? 아니잖나!

루크 : 그래도 네가 열쇠를 들고 가면 네 무기는.....!

애쉬 : 그런 건 적에게서 빼앗으면 돼! 빨리 꺼져!

루크 :약속해! 꼭 살아 남겠다고! 안 그러면 나탈리아도 나도..... 슬퍼할 거다!

애쉬 : 시끄러! 약속해 줄 테니 빨리 가!

(루크는 떠나고...)

애쉬 : 흥..... 내겐 시간이 없단 말이다. 난..... 이제 곧 사라져 버릴 테니.....

오라클 병사 : 길을 비켜라!

애쉬 :거절한다. 네놈들은 이 애쉬 —— 아니, 루크 폰 파브레가 상대해 주마.
애쉬 : 각오나 해라!

(미완성 로헬라이의 열쇠를 손에 넣는다)

루크 : 모두들!

티아 : 무사했구나!

루크 : 어..... 애쉬가 도와줬어.

나탈리아 : 애쉬가요!? 그런데 그는.....

루크: 적을 막고 있어.

제이드 : 그러면, 그의 행동을 헛수고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갈 길을 서두르십시오.

나탈리아 : 도우려 가지는 않는 것인가요!?

제이드 : 왜 애쉬가, 미워하고 있는 루크를 보냈겠습니까? 무언가 사정이 있을 겁니다.

나탈리아 :그렇네요하지만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루크 : 나탈리아.....

나탈리아 : 기분 탓이겠지요. 미안해요, 어서 가지요.

<페이스 채트 '애쉬와의 결판'>

가이 : 그러냐. 결국 애쉬에게 이긴 거로군.

루크 :어.

나탈리아 : 그래서 그 분이, 당신을 앞서 가게 하신 것이로군요.

루크 :그래도 걱정돼. 적의 수가 꽤 많았다고. 저 놈..... 괜한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이드 : 아까도 말씀드렸습디만, 애쉬가 당신을 앞서 보낸 것은, 못마땅하면서도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제이드 : 당신께선 앞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아선 안 됩디다.

루크 : 그래. 녀석의..... 얼마 없는 신뢰마저 잃고 싶진 않으니까.

가이 : 나탈리아? 얼굴이 창백하디?

나탈리아 :아니요. 단지, 애쉬가 조금 마음에 걸릴 뿐이랍니다.
나탈리아 : 네..... 괜찮아. 괜찮을 것이어요..... 분명히.....

<페이스 채트 '높은 곳에서는 신중하게'>

아니스 : 우아~~~ 높아라~. 무서워!

나탈리아 : 확실히 위험하네요..... 가이, 여기도 호드의 복제에 해당되나요?

가이 : 아니, 여긴 아마 복제 대지를 받치는 바깥 부분 아니겠냐.
가이 : 이런 데는 원래, 사람이 걸어서 갈 장소가 아니라 생각한단만.....

아니스 : 그치만 여길 지나지 않고선 분명 총장이 있는 데까진 못 가겠지?

가이 : 뭐어, 우리가 들어온 장소에서부터는 여길 지날 수 밖에 없을 모양이다.

나탈리아 : 길 아닌 길이라도 헤쳐나가며, 진행할 수 밖에 없사워요. 아닌가요?

가이 : 하핫. 그 말대로야. 그래도, 신중하게 가자고. 한 발이라도 헛디디면 목숨이 없을 걸.

나탈리아 : 네.

아니스 : 알구 있어~.

(고공에 걸린 길을 계속 나아가다 보면)

아니스 : 우와와~!

티아 : 대지가..... 태어나려 하고 있어.

제이드 : 아직 생성하는 중인 듯 합니다.

가이 : 호드..... 인가.누나의 복제를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복제라는 걸 알아도 그림계 느껴져.

나탈리아 : 그것이 인간의 당연한 감정이라입니다.

루크 : 가이. 괜찮겠냐?

가이 : 어. 별일 없어. 난 이제 망설이지 않을 거다. 내 고향은 이제 내 기억 속에만 있다고.

(다음 기억진을 지나가면...)

가이 : 여기는.....

루크 : 왜 그래, 가이.

가이 : 여기는..... 내.....
가이 : 역시 그렇군..... 내 집터야.

아니스 : 예엑!? 그래?

티아 : 여기는 호드의 복제이니까. 이상할 것은 없지만.....

가이 :그래. 여긴 정말로 호드인 거로군.

루크 :선생이랑 싸우는 건 싫냐?

가이 : 그게 아냐. 이제 두 번 다시, 여기에 돌아올 수 있을 날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지. 그래서, 묘한 기분이 들 뿐이다.

티아 : 그래. 나도..... 처음으로 자기 고향에 와 본 셈이야.....

나탈리아 : 저는, 포미클리라는 기술을 미워할 수만은 없사워요. 쓰기에 따라 근사한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이드 : 모든 것이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도구는 근사하게도 시시하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크 : 예언도 마찬가지로.

아니스 : 루크..... 응. 그렇다고 생각해.
아니스 : 유리아 님은 세계가 예언대로 움직이길 바란다는 생각은 한 적 없는 게 아닐까.

가이 : 그래도 유리아는 파멸의 예언이 적힌 제 7 보석을 숨겼지 않았냐.

티아 : 사람은 죽음의 예언 앞에서는 냉정을 유지할 수 없어. 그래서 었을지도 몰라.

루크 : 유리아가 예언이 뒤집힐길 원했다는.....?

티아 :그래. 7 번째 보가(譜歌)는...

루크 : 티아?

티아 :기억 났어. 내가 오빠에게서 처음으로 보가를 배웠던 날의 일을,
티아 : 오빠가 그렇게 말했어. 유리아는..... 예언이 뒤집히기를 원했었다고.
티아 : 유리아는 세계를 사랑하고 있었다..... 보가는 세계를 사랑한 유리아가 로렐라이에게 바친 계약이라며.....

루크 : 반 선생은 유리아의 의지를, 세계를 새로 고치는 것으로 달성하려 했던 건가.

티아 :하지만, 로렐라이는 오빠의 의견에 찬동하지 않았던 거야.
티아 : 그래서 오빠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이구.

제이드 : 그렇군요..... 보가가 로렐라이와 유리아 간의 신뢰의 증거라 한다면.
제이드 : 로렐라이는 보가의 선율에 눈을 뜨지도 못합니다.

가이 : 반은 억지로 로렐라이를 제어하고 있었다.
가이 : 혹시 로렐라이가 눈을 뜬다면, 반이라 하더라도 정신오염을 막기 위해 로렐라이에게 집중을 하게지.

나탈리아 : 틈이 생겨나겠군요..... 로렐라이의 힘도 이용할 수 없게 될지 모르겠사옵.

유우 : 티아 씨, 노래 부르세요!

아니스 : 맞아 티아. 로렐라이가 보가에 반응해서 눈을 뜨면, 열쇠를 써서 로렐라이를 해방시킬 수 있을 거야.

티아 :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7 번째 보가도 바로 지금 기억해 낸 참인데.
티아 : 선율도 감정도 가사도 이게 정말로 맞을런지.....

루크 : 지금까지의 보가도, 티아 넌 제대로 생각해 냈었잖아. 괜찮아, 부를 수 있어.

티아 :고민하고 있을 시간은 없는 것이었지. 해 볼게.

(티아에게 '보가의 이해자' 칭호)

<메이스 채트 '최후의 보가'>

루크 : 잘 됐어. 7 번째 보가를 기억해 내고.

티아 : 응..... 왜 잊고 있었는지, 스스로도 신기해.
티아 : 오빠가 자장가 대신으로 계속 불러 주었었는데.

가이 : 이걸로 보가는, 대보가(大講歌)가 성립되었군.

나탈리아 : 로렐라이의 열쇠와 합치면, 로렐라이를 일깨울 수 있을 것이지요.

티아 : 내 대보가로 오빠 안의 로렐라이를 깨우고.....

루크 : 내가 가진 검으로, 선생 안에서 로렐라이를 옮겨온다.

아니스 : 응. 그거라면 총장이랑 맞장 들 수 있을지도 몰라.

제이드 : 그래도 방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적은 그 반이니까요.

루크 : 어, 알고 있어. 선생의 강함은, 내가 가장 잘 아니까.

티아 : 루크. 꼭 로렐라이를 해방시키자.

루크 : 그래.

(한창 진행하면...)

「이렇게 될 줄은.....」

애쉬 : 너희로, 마지막이다.....!
애쉬 : 들리나, 복제.....

병사 : 각오해라!

애쉬 : 크흑...!!

(애쉬가 수많은 적을 상대로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하는 영상을 보게 된다...)

애쉬 :조금 ...애를 먹었군... 뭣 일은... 부탁.....

.....

루크 : 애쉬가.....! 애쉬가..... 죽었어.....!?

나탈리아 : 거짓말.....!?

루크 :

제이드 : 큰일이다! 함정입니다!?

루크 : 나탈리아! 피하자!

나탈리아 : 저..... 저는.....!

루크 : 나탈리아!!

제이드 : 쿵..... 늦었나!

가이 :제길! 이런 데서.....!

루크 : (애쉬! 힘을 빌려 나오!!!)

(진정한 초진동이 발동한다)

루크 :이, 이거 대체.

제이드 : 초진동..... 아니, 제 2 초진동? 이럴 수가.....!

티아 : 방금 그 힘은 뭐야?

루크 : 모..... 모르겠어..... 그냥, 애쉬를 생각한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루크 : 마치 액제류스를 소멸시켰던 때 비슷하게.....

루크 : 그래도 그 때하고는 다르게 스스로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싱크 :제 2 초진동인가. 웃기지도 않는 데.

아니스 : 싱크!

싱크 : 그런 괴물같은 힘을 쓰게 되었다고는, 유리아의 가호를 받은 반이라 해도 짐이 무겁겠지.

싱크 : 양전히 열쇠를 넘기고 반 밑에 붙을지, 그냥 빨리 죽을지 여기서 결정해.

루크 :양쪽 다 일 없어!
루크 : 난 로렐라이를 해방시킬 거다. 그걸 위해서라면 반 선생도..... 너도 쓰러뜨릴 거야!

아니스 : 싱크. 너도 이온 넘과 같은 복제잖아! 왜 이런 계획에 가담하는 거야!

싱크 : 같은 뭐가 같아. 그런 건 너도 잘 알 텐데?

싱크 : 이온은..... 7 번째 이온은 순둥이었지. 예언은 미래의 선택지 중 하나이니 하는 걸 믿었어.

싱크 : 그래도 결국 별의 기억에는 대항할 수 없었어. 도사 이온은 죽는다, 그게 별의 기억이다. 녀석은 개죽음이나 한 거야.

아니스 : 방금 말, 취소해!

싱크 : 취소 못 하겠는데. 사실이니까.
싱크 : 하지만 반의 방식이라면 최종적으로는 로렐라이 재로 제 7 음소도 소멸되지.

싱크 : 진정한 의미로 예언이 사라지는 거야.

가이 : 너는 그렇게나 예언을 증오하고 있었나.....

싱크 : 난 도사 이온이 죽는다는 예언에서부터 탄생했어.

싱크 :한 번은 폐기처분 되었다는 것도 알겠지.

루크 : 그래서..... 예언을 미워하는 거냐? 버려졌기?

싱크 : 아니야 태어났기 때문이지! 너 같은 대용품 조차도 아니었어. 그저 고깃덩이로서 탄생했을 뿐.

싱크 : 한심한 일이야. 예언 같은 게 없었다면 난 이런 바보같은 인생을 받지 않아도 됐을 것을.

아니스 :태어나서 아무 것도 얻은 게 없

었다는 말이야?

싱크 : 없어. 난 텅 비었어. 그래도 그까짓 게 무슨 상관이야.

싱크 : 아무라도 좋았던 거야. 예언을..... 제 7 음소를 없애줄 놈이라면!

싱크 : 열쇠이라고는 해도 도사와 같은 제 7 음소의 힘. 내가 진짜로 싸우면 너희도 무사하진 못할 테지!

싱크 : 시험해 보자고. 너희들과 아무것도 없는 나, 세계가 어느 쪽을 생존시키려 하는지를!!

<BOSS - 싱크>

진 싱크. 리그렛보다 더 어렵다. 공격력이 높고 재빠르며 때려도 경적을 잘 받지 않는 강적. 근접점으로는 보술이나 오의를 캔슬시키기 힘들므로, 조작하는 캐릭터로 슬슬 시간을 벌면서 동료들이 보술이나 활 등의 원거리 공격으로 데미지를 주기를 기대하자. 비오의는 물론 조심해야(이하 생략)

싱크 :반로렐라이를소멸.....

(싱크 消滅...)

루크 : 다들 목숨을 걸고서, 반 선생의 계획을.....

티아 :현혹되지 마. 목숨을 우리도 걸고 있어. 그렇잖아.

루크 :그렇군. 그렇지. 애쉬도.....

나탈리아 :애쉬는 정말로 죽어 버리신 것이군요.....

루크 : 나탈리아..... 미안. 그 때 내가 남았더라면.....

나탈리아 :

(찰싹)

나탈리아 :! 무슨 짓이신가요!

제이드 : 당신의 행동은 우리들과..... 그리고 애쉬에게 폐가 되었습니다.

나탈리아 :애쉬에게?

제이드 : 애쉬는 루크에게 반을 타도하는 것을 맡겼습니다. 본의는 아니라 했더라도.

제이드 :당신께서는 그것을 방해하신 셈이 됩니다.

나탈리아 :미안해요.

제이드 : 당신께서 애쉬에게 호의를 품는 것은 자유이십니다. 그렇습니다만, 할 일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나탈리아 :네. 그렇지요. 정말 미안해요. 괴로운 것은 저 혼자 아니었지요.

나탈리아 : 아니스도 가이도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거기다 티아도.....

제이드 : 그렇습니다.

가이 : 제이드. 제 2 초진동이라 그랬지.

제이드 : 알 수 없습니다. 제 2 초진동은 아직 이론도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이드 : 초진동끼리 간섭을 일으켜, 모든 음소(포님)의 효력을 무효로 되돌린다..... 라는 것이지요.

루크 :이 힘이 뭔지는 몰라.
루크 : 하지만 혹시 제 2 초진동이라면 이걸 준 사람은 애쉬야. 맞지?

루크 : 초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나와..... 그 녀석 뿐이니까.

나탈리아 : 그렇네요. 당신 안에 애쉬가 계시어요.

나탈리아 : 애쉬가 당신을 인정하고 힘을 빌려 주신 것이겠지요.

루크 :어. 그러니 난 애쉬에게 창피하지 않을 싸움을 해야겠어.
루크 : 모두들, 힘을 빌려 줘.

(로렐라이의 열쇠가 완성된다. 루크에게 '로렐

라이의 검사' 칭호)

<페이스 채트 '다가오는 결전의 시간'>

유우 :앤지 무서워염. 꼬리가 찢어찢어
거려염.

가이 : 슬슬 최후가 가깝다는 건가...

제이드 : 아시리라고들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목적은 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이드 : 티아, 당신께서는 틈이 난다면 대보
가를 시험해 주십시오.

제이드 : 그것으로 반의 힘을 어느 정도는 무
효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제이드 : 각오들을 굳히십시오. 힘겨운 싸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이드 : 티아, 당신께서는 틈이 난다면 대보
가를 시험해 주십시오.

제이드 : 그것으로 반의 힘을 어느 정도는 무
효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티아 :해 보겠습니다.

아니스 : 우리는 총장을 딱딱 공격해겠네.

제이드 : 아니오, 우리를 중 두 사람은 퇴로를
생각해,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고 대기하도록
하십시오.

나탈리아 : 어머니!? 다 같이 싸우는 것이 좋
지 않을까요?

제이드 : 목적은 반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
다. 아시겠지요.

제이드 :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엘드란트
의 포미클리 만이라도 파괴할 인간이 필요한
겁니다.

루크 : 응..... 제이드 말대로 하지. 4 명은 반
선생에게서 로렐라이를 떼어내고, 남은 둘은
퇴로를 확보하는 거다.

유우 : 저두 도울래염.

가이 : 알았다.

티아 : 나도 숙지했어.

아니스 : 이쁜 아니스도.

나탈리아 : 저도 힘내겠사와요.

루크 : 부탁할게 다들.

<페이스 채트 '싱크 저 바보'>

아니스 :

티아 : 아니스.....

아니스 : 티아! 왜, 뭐 뭐?

아니스 : 그렇게 걱정되는 얼굴 안 해두 돼 이
아니스는 엄청 아무렇지도 않..... 아무렇지
도.....

티아 : 괜찮아..... 아니스.....

아니스 :흑싱크 저 바보.....

아니스 : 재..... 이온 남이랑 같은 얼굴에.....
같은 목소리로..... 심술궂게 비뚤어져선.....

티아 :

아니스 : 더는 싫어! 이젠 이온 남이 죽는 모
습은 보기 싫었는데!
아니스 : 텅 비었다는 등 쓸쓸한 소리만 하다
가..... 빨리도 죽어 버렸다고.....!!!

티아 : 아니스..... 울어도 돼.

아니스 :싱크 바보!! 우아아아아앙.....

<페이스 채트 '애쉬의 죽음'>

루크 :애쉬네가 죽어 버리다니.....
절대 죽을 것 같지 않다고, 마음 어딘가로 믿
고 있었는데.....

나탈리아 :애쉬적어도 한번 더, 당
신과 만나고 싶었답니다.

가이 :그렇군. 우린, 엘드란트에서는 애

쉬랑 못 만났으니.

제이드 : 루크, 괴로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만..... 애쉬는 어떤 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
까.

루크 :오라클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싸우
다, 검을..... 온 몸에 찢려서.....

나탈리아 :애쉬!!

제이드 : 그 뒤, 당신에게 무언가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은 나지 않으셨습니까?

루크 :듣고 보니뭔가 따스한 게 온
몸에 내려오는 듯한 느낌은 들던데...

제이드 :무언가가 나가는 듯한 느낌은?

루크 : 음? 애쉬가 죽은 순간, 허탈하다는 감
각은 느꼈지만, 특별히는...

제이드 : 그러십니까.....

가이 : 제이드, 방금 무슨 얘기야?

제이드 :아니오아무 것도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후 실재로 들어간 후, 사다리와 장치를 써
가며 계속 진행하자)
(조금 복잡한 퍼즐을 풀면 마지막 흑성보슬의
축매인 유니콘 혼이 있는 곳으로 통하는 문이
열린다)

루크 : 이건.....

아니스 : 예빠.....

나탈리아 :누군가의 묘 같사와요.

루크 : 무덤? 대체 누구?

가이 : 유리아지.....

일행 : !!

가이 : 어렸을 적 반이 안내해 준 적이 있어.
가이 : 펜데 가는 유리아의 자손으로서 조용히
유리아의 묘를 지키고 있다는 사정이라더군.

제이드 : 그렇다면 시조 유리아는 호드에서 세
상을 떠났다는 뜻이군요.

티아 : 몰랐어..... 그랬구나...

아니스 : 그치만 누가 가꾸었던 걸까? 이 주변
꽃이라던가.

나탈리아 : 분명, 단정하게 손질이 되어 있네
요.

티아 : 오빠야.....

아니스 : 그래두 총장은 예언을 미워하던 거
아니었어? 유리아도 싫어하지 않았을라나?

제이드 : 그건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티아 : 오빠는 내게 유리아의 보가를 가르쳐
주었어, 유리아의 자손으로서 세계를 이끌어
가라, 라는 말도 했었고...
티아 : 유리아를 미워하고 있었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

가이 : 반은 예언 이상으로, 예언에만 따르며
사는 대중이란 게 중요스러운 것인지도 모르
다.

나탈리아 :그렇지도 모르겠어요.

루크 : 선생이 유리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루크 : 선생에게 있어서도 티아 너한테 있어서
도 유리아는 선조잖아? 꽃을 보낼 이유는 그
거면 충분해.

티아 : 오빠.....

(지팡이를 조사하자)

루크 : 이건.....

티아 : 음소가 서로 간섭하고 있어.

루크 :라면 이것도 흑성보슬의 축매구만.

나탈리아 : 유리아의 묘에 있었으니 그녀와 인
연이 있는 물건 아닐런지요.

티아 :맞아. 유리아는 예언사(스코어러)
였으니까.

티아 : 이걸 그녀가 사용하던 지팡이일지도 모
르겠어.

가이 : 잠들어 있는 그녀에게는 미안하지만 지
팡이를 빌려가지.

루크 : 티아는 유리아 자손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티아 : 빌려가겠습니다. 시조 유리아.....

(성장 유니콘 혼을 손에 넣는다. 이것까지 흑
성보슬의 축매 6 개를 다 모았다면 로날 설산
근처에서 네비럼과 싸울 수 있다)

<페이스 채트 '유리아의 마음은.....'>

가이 : 유리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
냐, 이 상황을.

티아 : 슬퍼하고 있으리라 생각해. 응응, 그래
주기를 원한다 해야 할까.

아니스 : 유리아가 총장의 편이라 생각하는 건
역시 싫다구.

루크 : 괜찮어. 로렐라이는 선생 편이 아니야.
루크 : 저 로렐라이와 계약하고 있던 유리아
가, 로렐라이가 슬퍼할 만한 일을 바라고 있을
리 없잖나.

가이 : 그렇군. 시조 유리아. 우리에게 힘을
빌려주십시오.....

유우 : 빌려주세요.....

(이제 마지막 세이브 포인트 앞의 문을 지나면
드디어...)

유우 :이 앞에서, 정말정말 무서운 힘이
느껴져염.

루크 : 그래. 나도 알겠다. 반 선생이..... 있
어.

루크 : 여기서 나아가면 그 땀 뒤로 돌아갈 수
는 없겠지.

제이드 : 되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반을 쓰
러뜨리고 끝을 내기로 하십시오.

루크 : 말이야 쉽지...

제이드 : 어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이드 : 저 쪽은 별의 기억이 정해진 미래라
는 것을 믿고, 그것을 지우려 하고 있지요.
제이드 : 우리는 별의 기억은 무한한 선택지
중의 하나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믿고 있습
니다.
제이드 :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신
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이드 : 이미 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
까지 온 겁니다.

티아 : 그래요. 오빠는 로렐라이를 가두고 있
어.

티아 : 로렐라이가 소멸되면, 세계는 제 7 음
소를 보충시키기 위해 음소간의 균형을 무너
뜨려 버리겠지.

티아 : 루크, 우리는 그것을 막으려 온 거야.
이전과는 달라.

티아 : 우리들은 오빠가 하려는 것을 이해하
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생각
하고 있어.

아니스 : 그래. 모든 것을 없애고 모든 것을
다시 고치겠다는 건 무책임하다구.

아니스 : 실은 예언을 지키다 멸망하게 된다
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인간의 책임인 거라
생각해.

아니스 : 그래두 우린, 도중에 그걸 피하기 위
해 노력을 하자는 마음을 먹게 됐으니까.

아니스 :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걸 밀고 나가
면서 살아가자. 우린 우리 길을 걷는 거야.

아니스 : 총장의 논리 따윈 방법해 버려야지.

나탈리아 : 저, 계속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나탈리아 : 애쉬가 킴라스카로 돌아오셔서 루
크와 두분이서 아버님을 도와드리다면 좋으려
만, 하고요.

나탈리아 : 하지만 제가 틀렸던 것이어요. 당

신과 애쉬는 각자의 살아갈 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나탈리아 : 그것을 제가, 무효로 돌아간 약속으로 얽어매고 있던 것이지요.

나탈리아 : 지금 당신 안에는 애쉬가 계세요. 이전의 저라면, 당신과 애쉬를 혼동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탈리아 : 그래도, 당신은 당신인 것이시니.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생각대로 살아가 주시와요.

나탈리아 : 그것을 위해 저는, 온 힘을 다해 당신을 거들겠습니다. 당신의 소꿉친구로서.

가이 : 그래. 너는 이제서야 겨우 자기 발로 걷기 시작한 것 뿐이다. 더욱이 등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생명을 짊어지고 있어.

가이 : 먹여치운 생명 만큼 끝까지 살아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루크 :그러게. 나, 고작 7년 사이에 피투성이가 되어 버렸지.

가이 : 난 지독한 말을 하고 있다. 살아서 살아서 살아 남아서 원망하며, 미워하며, 슬퍼하며, 분노하며.....

가이 : 그런 전부를 감당하지 않아선 안 된다 말이니. 그래도, 너만 젊어지게 하진 않아요.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

가이 : 온 세상이 네가 해 왔던 일을 비난하더라도, 난 네 편이다.

가이 : 난 반의 6 신장과는 달라. 자신도 제대로 살아남으면서 너를 도와줄게.

티아 : 루크, 가자. 오빠가 목표로 삼는 미래를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로 바꾸기 위해.

루크 : 그래!

<페이스 채트 '반의 본래 힘'>

루크 : 반 선생도 진짜로 덩비겠지.

티아 : 응. 지금까지 성의없게 싸웠던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알잡아 보는 경향이 있었어.

가이 : 그러나, 반은 한 번 패배했다. 이번에는 진지하게..... 그것도 처음부터 온 힘을 다해 싸우려 들 거야.

아니스 : 이 쪽도 강해졌다구. 누가 질 줄 알아.

나탈리아 : 그 말대로이옵니다. 우리의 뒤에는 수십만..... 아니 수백만이라는 백성이 있어요. 이겨야만 해요.

제이드 : 자, 너무 흥분들하시지 마시고, 적당히. 그러나 어디까지나 진지하게 해 보십시다.

루크 : 알고 있어. 이런 때에 바로 냉정해지라, 는 말이겠지.

제이드 : 예. 그대로입니다.

티아 : 그래. 정신 차리자.

(계단을 올라가자)

반 : 잘 해냈다. 원래는 여기에 도착했을 사람은 애쉬였을 것을.

루크 :애쉬도 여기 있어. 내 안에서 힘을 빌려주고 있죠.

반 : 제 2 초진동인가..... 훌륭하다. 너는 오리지널조차 초월했다. 진짜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다.

반 : 너는 모두의 시체를 밟고 넘어왔다. 자아, 나와 같이 가자. 루크.

반 : 별의 기억을 소멸시키고, 유리아가 남긴 소멸예언(라스트 저지먼트 스키퍼)을 뒤집자.

루크 : 거절하겠습니다.

반 : 호오, 왜냐.

루크 : 겨우 알아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루크 : 나는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복제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반 : 그래. 너는 그리고 인간이 되었다.

루크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였어. 루크 : 당신이 그랬었죠. 「무언가를 위해 태어

나지 않았다 해서 살아갈 줄도 모르느냐?」라고.

루크 :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있는 게 아냐. 아니, 산다는 것에 의미같은 건 없어.

루크 : 죽음을 예감하고서, 나는 살고 싶다는 생각했어.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좋았던 겁니다.

루크 : 그러니까 내겐 이제 —— 당신은 필요 없어.

루크 : 난 이 자리에 있어. 이렇게 살아 있다고. 당신이 날 인정하건 말건.

반 :후후후. 과연. 현명한 지혜를 익혔구나.

티아 : 오빠!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 루크처럼. 생각을 돌려 줘!

티아 : 오빠 말대로 별의 기억이란 것이 존재할 지도 몰라. 그래도 그게 정말로 절대적인 것이라 믿어?

티아 : 루크가 여기 있는 것은 별의 기억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 아니야. 그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지!

티아 : 별의 기억은 미래의 선택지 중 하나. 그것을 고르는 건 별이 아니야. 제 7 음소도 아니구. 사람이야.

반 : 그것 역시 절대가 아니다.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단 말이다.

가이 : 그렇다면 너도 별의 기억을 지우는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졌을지도 모르겠군?

가이 : 별의 기억을 삭제하는 것이, 네 의지만으로 결정된 일이라면. 그 일 자체가 별의 기억이 절대가 아니라는 증거다!

반 : 그것은 কে번이군. 내가 말하는 별의 기억은 유리아의 예언이 그 기본이다.

반 : 거기에는 인간의 소멸은 나와 있을지언정 별의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

나탈리아 : 그렇기에 오리지널로 인간의 소멸을 실현시킨다고, 복제의 세계를 창조한다.

나탈리아 : 그것은 호드를 희생시킨 사람들과 아무 다를 바 없사워요. 그래서 애쉬도 당신을 부정하신 거랍니다.

나탈리아 : 당신도 호드의 소멸을 한탄하고 그것을 초래한 인간을 미워하던 것이 아니었는지?

반 : 그렇다. 허나 수단을 가릴 수는 없어. 별의 기억이라는 절대적인 길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제이드 : 당신처럼 현명하신 분이 왜 그러시는지 신기한 일입니다.

제이드 : 인간도 별도 언젠가는 소멸됩니다. 별의 기억이 있던 없건 그것만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제이드 : 당신이 말하는 절대적인 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제이드 : 그렇더라도, 소멸에 이르는 길 만은 사람에게 그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반 : 당신다운 견해다. 사령술사(네크로맨서) 공.

반 : 그래, 조만간에 모든 생명은 사라진다. 빠른가 느린가의 차이이지. 허나 별의 기억은 그것을 이르게 설정해 놓았다.

반 : 나는 당신처럼 일찌감치 멸망하는 길을 달갑게 여길 수는 없어.

아니스 : 그래도 총장님은 결국 오리지널들을 별의 기억보다도 먼저 멸망시키려 하구 있어요.

아니스 : 총장님은 예언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누구보다도 예언에 집착하게 된 거예요!

반 : 훗.....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반 : 나도, 아니 나도 너희들도 예언이라는 정체 모를 미래에 속박되어 있다.

루크 : 우리들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반 : 나는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역시..... 양립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

반 : 검을 들어라. 한번에 상대해 주마.

루크 : 반..... 각오하시길!!!

<BOSS - 반>

엄서브 게이트 때와 거의 같지만 능력치는 물론 올라갔으며, 때리더라도 경직을 더욱더 잘

받지 않게 되었다. 모술 등과 조합한 다단히트 계열의 공격으로 경직을 노리는 게 바람직하다. 노멀기준 HP가 70000쯤 되면 상황창파진을 쓰므로 주의. HP를 반 정도 줄이면 이벤트가 있으며, 격파하면 다시 이벤트와 함께 다음 전투로 넘어간다.

(반의 HP를 반 정도 줄이면 이벤트. 티아가 보가를 부르지만...)

반 :보가(讚歌)냐. 분명 그 힘은 로렐라이를 각성시킨다.

반 : 그러나 너는, 보가에 담긴 진정한 소망을 모르고 있다.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티아 : 아니..... 오빠. 난 알 수 있어. 티아 : 유리아가 이 보가에 담은 마음을 이해할 듯한 느낌이 들고 있어.

반 :그것이 진실이라면 끝까지 볼러 일이다. 메쉬티아리카!!

(다시 전투가 재개된다. 열심히 싸워 반의 HP를 소진시키면...!)

루크 :먹어랏!!!

반 :느리군!!

티아 : ...옥!

반 :맞았느냐. 네게 검을 가르친 사람은, 나다.

루크 : 로렐라이를 해방시켜!!

(카양!)

반 :역시강해졌구나.

루크 : 반.....

반 : 내가..... 여기까지 물리리라고는..... 반 : 결국, 이 불안정한 힘을 해방시키지 않아선 안 될 모양이다.

(반은 로렐라이의 힘을 사용하여 변모한다)

가이 : 이 압력.....! 이게 로렐라이의 힘이라는 건가.

제이드 : 슬슬 그 힘을 쓸 생각이십니까..... 그래도 이기는 쪽은 제가 쉽지만.

반 : 든든한 동료들이로군.

루크 : 그래요. 모두는 이런 나를 계속 도와줬었어..... 모두를 위해서라도 질 수 없어! 루크 : 아냐, 나라는 존재에 걸고서 안 져!!!

티아 : 오빠가 로렐라이의 힘을 사용할 때엔, 로렐라이의 제어에 빈 틈이 생길 거야.

티아 : 그것을 알면서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사람은 루크야.

티아 : 오빠가 언제까지고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루크라구! 루크는.....

티아 : 아니. 우리는 지지 않아!

반 :분명히, 내게 이 힘을 쓰게 만들었다는 것은 칭찬해 주마. 과연 내 제자로군, 하고 말이다. 반 : 허나, 그것도 이제 끝이다. 잘 가라! 루크!

<LAST BOSS - 반 >

최종보스인 슈퍼 반. 기본은 같되 스테이터스가 더욱더 많이 상승했다. 마지막이니 모든 기량과 전력을 투자해 싸워보자. 비오의 이름은 엔서트 레퀴엠. 노멀기준으로 HP가 3분의 2쯤 되면 쓰는데, 발동되기까지 약간의 갭이 있으므로 피할 수도 있다. 이기면 엔딩까지 일직선이다. 모두에게 건투를.

(힘내서 반의 HP를 모두 깎으면...)

루크 : 제길..... 이 힘은.....!?

제이드 : 이것은..... 반 안의 로렐라이가 폭주를 일으켜 우리들의 음소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나...!

제이드 : 이대로는 생명력을 흡수당하고 맙니다!

루크 : 말도 안 돼!

티아 : 루크! 제 2 초진동을! 제 2 초진동은 모든 음소를 무효로 돌려!

루크 :로렐라이를 해방시키자! 티아, 힘을 빌려 줘!

티아 :응!

(티아는 대보가를 부르고..... 루크의 제 2 초진동 레이디언트 하울이 작렬한다. 그 순간...)

반 : 7 번째의 선율을..... 이해한 모양이구나. 티아.....

티아 : 나, 기억해 냈어. 항상 울기만 했던 내게 오빠가 불러 주었던, 이 노래를.

티아 : 오빠는 보가의 의미를 알고서, 처음부터 내게 모든 것을 전해 주었던 거야.

티아 : 고마워..... 오빠.....

반 :이별이다메쉬티아리카.....

.....

루크 : 반 선생님!

반 : 오지 마라!!

반 :이 마당에 나를 아직 스승이라 부르느냐..... 어리석은 녀석.....

반 :용서해라나의 동지들이.....여.....

(반 別世.....)

루크 : 반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티아 : (안녕, 정말 좋았던..... 오빠.....)

[ENDING]

루크 :모두는 서둘러 여기에서 탈출해. 난 여기서 로렐라이를 해방시키고 갈 테니까.

티아 : 루크!

루크 : 로렐라이랑 약속했어. 그러니까 이젠 내가 할 일이야.

(제이드가 손을 내민다)

루크 : 제이드.

제이드 : 루크. 당신은 정말 달라지셨습니다.

루크 : 나, 허접한 놈이었지.

제이드 :그러나, 얼마나 변하려 해도 뉘우쳐도, 당신이 해 왔던 일의 모두가 용서될 수는 없습니다.

제이드 : 그러니 살아서 돌아와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루크 : 제이드.....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고...

제이드 : 미안합니다.

(특 치는 가이)

가이 : 기다리고 있따. 주인님이 없는 하인이라는 것도 쓸쓸한 법이지.

루크 : 넌 이제 우리집 하인도 아니잖아.

가이 : 뭐어 공작가의 하인은 아니지만, 네 진정한 친구 및 부하가 되어 줄 수도 있어.

루크 : 바보지~ 너.

가이 : 그러니까 냉큼 돌아와. 이대로 사라지는 것 따윈 허락 못 한다.

루크 :눈치채고 있었냐?!

가이 : 돌아오면, 진정한 친구에게 뭘 숨기거나 하는 버러장머리를 고쳐주지.

(와락)

루크 : 아니스!?

아니스 : 나두 알고 있었어. 가이처럼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루크 : 어딴어..... 그런 게.

아니스 : 에헤헛♡ 그래두 루크가 얼마나 알기 쉬운 사람인데.

아니스 : 그치만 있잖아. 나로서는, 루크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곤란해 진다구.

루크 : 설마라고는 생각한단만, 나로 바꿀라고?

아니스 : 설마~♡ 난, 이온 님 대신에 교단을 재건할 생각인 걸.

아니스 : 그걸 위해서는 돈줄이란 게 필요하다구. 잘 돌아와야 돼!

루크 : 니 맘대로 하세요.....

나탈리아 : 루크..... 살아 남아 주시기를. 저는 이 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루크 : 나탈리아.....

나탈리아 : 킴라스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어요.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시겠지요.

루크 :살고는 싶었지.

나탈리아 : 사셔야 해요. 사라진다는 건 용납 못 합니다. 절대로요.

루크 :어. 고맙다.

유우 : 주인님.....

루크 : 이젠, 니 역할은 끝났어. 가슴을 펴고 친구들한테로 돌아가 봐.

유우 : 저두 주인님이 돌아오시는 거 기다릴 거예요!

루크 :그러나. 고맙다.

티아 :꼭 돌아와야 해.

루크 : 티아.....

티아 : 반드시. 꼭이야.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계속. 계속.....

루크 :응, 알았어. 약속하지. 반드시 돌아간다고.

티아 :루크좋아해.

엘드란트에 혼자 남은 루크는 로렐라이를 해방시키고...

"세계는 사라지지 않았는가. 내가 보았던 미래를, 다 꺼져가는 불씨가 바꾸어 놓으리라고는. 경탄해 마땅한 일이다...!"

로렐라이가 음보대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힘이 다한 루크는 사라져 간다. 그러나 그 순간... 애쉬의 유체와, 루크 그 자체였던 제 7 음소가 반응을 일으키는데.....

."괜찮겠어요? 공작가에서 행해진 루크 성인식에는, 당신도 초대를 받았었지 않나요?"

"루크 무덤 앞에서 행해지는 의식에는, 흥미가 없었으니까"

"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서 여기 온 거지?"

"그 놈은 분명 돌아오겠다고 했어. 무덤에 대고 하는 이야기 따윈 사양이라 이거다"

"...슬슬 돌아가십시오. 밤 계곡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때, 그들은 보았다. 그들이 기다리던 붉은 장발의 사나이가, 달빛을 반사하는 세레니아 꽃밭을 걸어 돌아오는 것을.

".....!왜, 여기로?"

"여기에서라면 호드가 잘 보일 것 같더라. 그리고, 약속도 했었으니 말야"